濟州道傳說誌

濟州道

發　　刊　　辭

精氣어린 漢拏山이 四面의 바다와 調和를 이루어, 風光이 빼어 나고 人心이 곱고 風俗이 보배로운 齊州는, 바야흐로 온 겨레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마음의 故鄕이 되어, 世界 속에 찬연히 빛나는 매혹의 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읍니다.

일찌기, 이처럼 거룩한 터전에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아온 齊州 사람들은, 돌 많고 거친바람의 고난을 이겨내면서,아름다운 三無의 傳統을 꽃피우고 수많은 傳說들을 빚어 내며 神話어린 긴 歷史를 營爲해 왔읍니다.

지금도 濟州道에는, 漢拏山에서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나 「傳說의 섬」이라고 부를 만큼 豐富한 說話들이 살아 숨쉬면서 神祕로움을 더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傳說 속에는 齊州만이 지닌 風土的 條件과 그 위에 흘러간 歷史를 엮어온 濟州人들의 꿈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通해 先人들의 理想과 世界觀과 生活의 樣式을 읽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道에서는 道內 곳곳에 숨겨진 傳說들을 캐어 내고 구슬처럼 꿰매어 이고장 基層文化의 源流를 保存하고 後代에까지 傳承시킴과 아울러 神祕로운 齊州의 참모습을 內外에 널리 宣揚하기 爲해 이번에 이 「濟州道 傳說誌」를 펴내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濟州人들이 享有했던 精神 世界를 探究하고 나아가서는 빛나는 來日을 엮어 가는 精神的 밑거름을 創出하는 데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이 책을 發刊하는데 애써주신 調査委員을 비롯한 關係者들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합니다.

1985 年　6月　　日

濟州道知事　蔣　炳　九

凡　　例

一. 收錄된 傳說은 1983年度에 蒐集된 것으로서 提報者의 言語 그대로 採集된 것이나, 讀解의 便宜를 爲하여 表準語 文章으로 바꿔 記述했다.

一. 傳說의 收錄順序는 漢拏山傳說, 濟州市傳說, 西歸浦市傳說, 北濟州郡傳說, 南濟州郡傳說 順으로 地域別 配列을 하고 各 郡의 傳說은 다시 邑・面別로 나누었으며, 傳說의 分類는 自然傳說, 歷史傳說, 信仰傳說 順別으로 列하였다.

一. 같은 素材의 傳說이 다른 提報者에게서 여러 편이 수집된 경우, 番號를 붙여 連續 收錄하였고, 各篇마다 所在地, 提報者의 姓名, 姓別, 나이등을 期錄하였다.

一. 調査 執筆은 委員들이 地域別로 擔當했는데, 漢拏山傳說 및 濟州市 一部地域과 朝天面, 舊左邑, 城山邑, 表善面은 玄容駿 委員이, 濟州市 一部地域 및 涯月邑, 翰林邑, 翰京面은 金榮敎 委員이, 西歸浦市 및 安德面, 大靜邑, 南元邑은 玄吉彦 委員이 各各 맡았다.

調査 執筆委員

玄　容　駿(濟州大學校 師範大學長・道文化財委員)
金　榮　敎(濟州大學校 敎授・道文化財委員)
玄　吉　彦(濟州大學校 敎授・道文化財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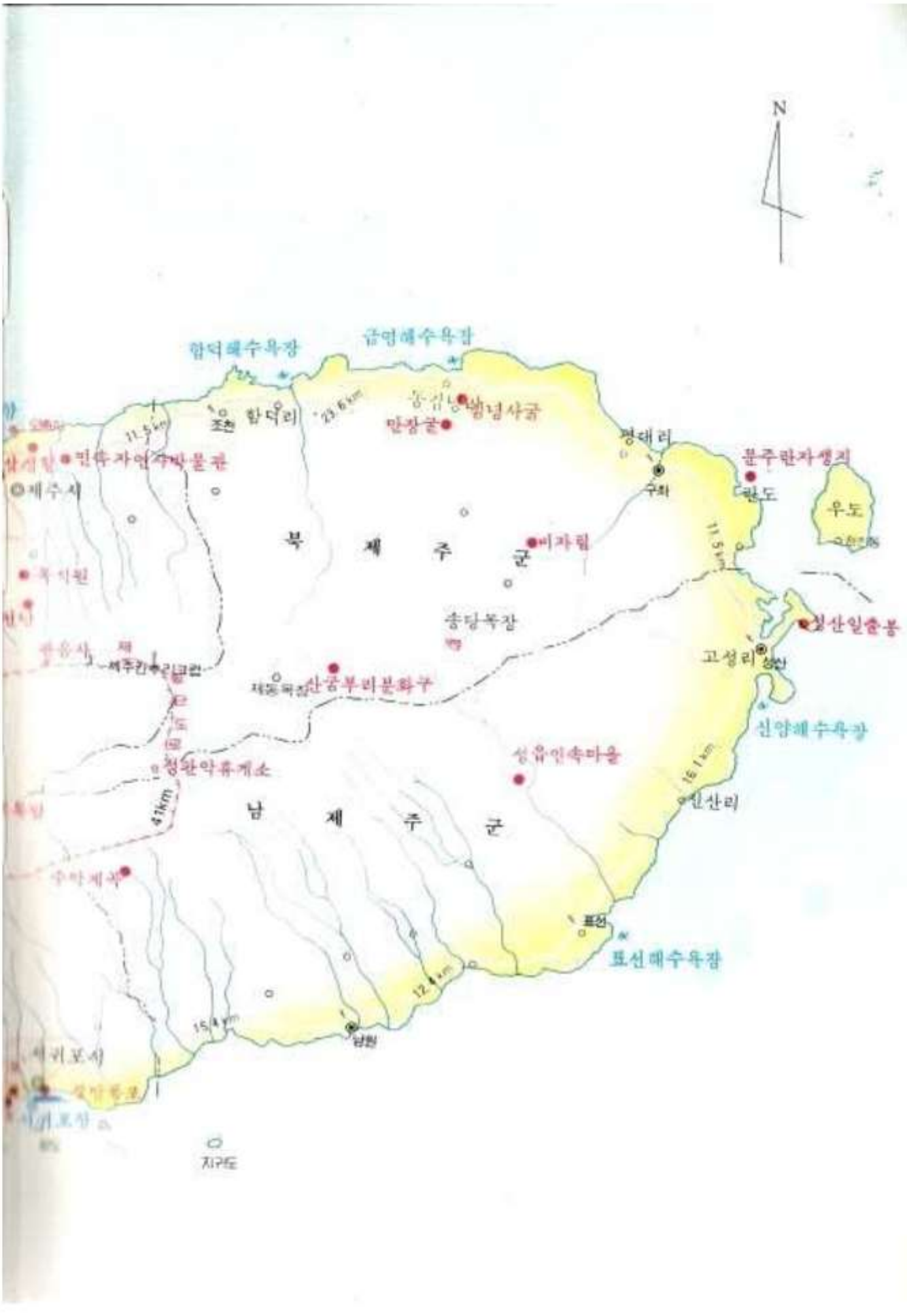
調査補助員 : 고광민, 변성구, 오경선, 임찬선
고정우, 고창성, 윤치부

題字: 雨荷 文 基 善 <濟州大學校 敎授>






추자도
용두암
이호해수욕장
제주국제공항
관덕정
과지해수욕장
애월
한림
비양도
협재해수욕장
협재굴
쌍용굴
북 제 주 군
신창리
한경
이시돌목장
1100고지휴게소
1950m
한라산
영실기암
절부암
차귀도
남 제 주 군
산방산
안덕
화순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대정
마라도


N
함덕해수욕장
금명해수욕장
함덕리
조천
만장굴
평대리
구좌
북 제 주 군
비자림
송당목장
산굼부리분화구
성읍민속마을
남 제 주 군
표선
표선해수욕장
남원
지구도

目 次

第1章 漢拏山傳說

神祕어린 靈峰 漢拏山/27
神仙들의 놀이터 白鹿潭/29
五百羅漢이 즐비한 靈室奇岩/31
石柱가 숲이룬 아흔 아홉골/33

□漢拏山篇

Ⅰ. 漢拏山, 그 景勝의 形成/34

1. 선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34
2. 백록담과 산방산의 형성/36
3. 신선(神仙)의 놀이터/36
4. 영실기암의 형성/38
5. 아흔아홉골/39
6. 한라산의 고려장/40

Ⅱ. 漢拏山에서 태어난 神들/41

1. 세화본향당신(細花本鄕堂)/42
2. 호근본향당신(好近本鄕堂神)/43
3. 사계(沙溪) 큰물당신(神)/43
4. 예촌 · 보목본향당신(禮村 · 甫木本鄕堂神)/44
5. 상창(上倉) 하르방당신(堂神)/45
6. 중문본향당신(中文本鄕堂神)/46
7. 광양당신(廣壤堂神)과 호종단(胡宗旦)/48
8. 한라산신(漢拏山神)과 이태조(李太祖)/51

第2章 濟州市傳說

神人湧出神話깃든 三姓穴/55
神龍들이 놀던 湖水 龍淵/57
진달래의 꽃바다 瀛丘春化/59
齊州史 證言의 寶物 觀德亭/61

□濟州市篇

Ⅰ. 自然傳說/62

1. 삼성혈(三姓穴)/62
2. 관덕정(觀德亭)/62
3. 말머리/63
4. 베락구릉/64
5. 백록담(白鹿潭)/65
6. 방선문(訪仙門)/66
7. 이여도/67
8. 선문대할망(Ⅰ)/68
선문대할망(Ⅱ)/68
선문대할망(Ⅲ)/68
선문대할망(Ⅳ)/68
9. 용연(龍淵)/69

Ⅱ. 歷史傳說/72

1. 김참봉과 고전적/72
2. 고전적(高典籍)/73
3. 문곡성(文谷城)과 명인들/75
4. 날개 돋친 밀양 박씨(密陽朴氏)/77
5. 양관관/78

Ⅲ. 信仰傳說/82

1. 당 오백 절 오백/82
2. 변씨 입도선묘(邊氏 入島先墓)/83
3. 각시당/84
4. 노형동 광평당(老衡洞 廣坪堂)/84
5. 별도봉(別刀峰) 오씨 선묘/85
6. 제주 6대 명혈(名穴)과 주자(朱子) 아버지의 묘/86
7. 고전적 부친묘/87
8. 변댁 입도선묘(邊宅 入島先墓)/88

第3章 西歸浦市傳說

徐市過此 傳說어린 正房瀑布/93
稀貴植物 自然植物園 森島/95
仙女들이 목욕하던 天帝淵瀑布/97
비단폭이 걸린 듯한 天地淵瀑布/99

□西歸浦市篇/100

Ⅰ. 自然傳說/100

1. 천지연(天地淵)/100
2. 섶섬과 뱀/103
3. 정방폭포와 서불과차(徐市過此)/104
4. 천제연과 효자 청년/105
5. 고종달의 단혈/108
6. 열녀 바위/109
7. 막숙이 지명 유래/110
8. 여우물/111
9. 이청장물 여우귀신/112
10. 새당할망/113

Ⅱ. 歷史傳說/114

1. 현 유학(玄幼學)/114
2. 대포리(大甫里) 설촌이야기/117
3.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118
4. 오서자(吳庶子)/121
5. 김명헌(金命獻) 참판/122
6. 장사 양태수/123
7. 가령 양(梁)장이/124
8. 변인태/127
9. 홍리 고대각/131
10. 날개돋은 아기장수/134
11. 변당장과 그 아들/135
12. 무우남밭 이좌수(Ⅰ)/137
    무우남밭 이좌수(Ⅱ)/142

Ⅲ. 信仰傳說/149

1. 보목리(甫木里) 조록이당/149
2. 중문고부이댁선묘와 태종 강훈장/153

第4章 北濟州郡傳說

뱀 傳說 숨쉬는 金寧蛇窟/159

烈女高氏 節槪서린 節婦岩/161
三別抄 護國意志 깃든 抗蒙遺蹟址/163
儒生들 風流 즐긴 明月팽나무郡落/165

□舊左邑篇/166

Ⅰ. 自然傳說/166

1. 우도(牛島) 득성이코지/166
2. 두모(頭毛)와 지미(地尾)/167
3. 물징거와 고종달이/167
4. 가릿뱅디/167
5. 두럭산/169
6. 새비육/169
7. 상구빌레/170
8. 김녕 뱀굴(Ⅰ)/171
   김녕 뱀굴(Ⅱ)/172

Ⅱ. 歷史傳說/173

1. 문만호(文萬戶) 며느리/173
2. 평대부대각/174
3. 괴 범천총(Ⅰ)/175
   괴 범천총(Ⅱ)/176
   괴 범천총(Ⅲ)/177
   괴 범천총(Ⅳ)/177
4. 명의 좌조의/179

Ⅲ. 信仰傳說/180

1. 송당·궤네깃당/180
2. 부훈장과 도깨비/186
3. 한연 한배임재/187
4. 한순이, 달순이와 신 선달(先達)/190
5. 한동지(韓同知)영감/192
6. 날개 돋힌 부대각/193
7. 도깨비(Ⅰ)/195
   도깨비(Ⅱ)/196
8. 김해 김씨 선묘(金海金氏先墓)/197
9. 괴이리(傀伊里)/198

10. 도깨비 불과 한동리명(漢東里名)/199
11. 서문 하르방/200

□朝天面篇/201

Ⅰ. 自然傳說/201
1. 연북정(戀北亭)(Ⅰ)/201
연북정(戀北亭)(Ⅱ)/202
2. 강초관물/202

Ⅱ. 歷史傳說/203
1. 두리 송천총과 심돌 부대각/203
2. 열녀 국지(烈女 國只)/204
3. 신촌 김댁 효부/205

Ⅲ. 信仰傳說/206
1. 눈미 불돗당/206
2. 서물한집/207
3. 새콧당(고냥할망)/208

□涯月邑篇/211

Ⅰ. 自然傳說/211
1. 쇠죽은 못(牛死池)(Ⅰ)/211
쇠죽은 못(牛死池)(Ⅱ)/212
2. 연화못/212
3. 장지(長旨) 동산/213
4. 고성 선돌/214

Ⅱ. 歷史傳說/214
1. 납읍 진수궹이와 여우/214
2. 김통정 장군/216
3. 갈구미(渴玖梶)/218
4. 장사 최동의/218
5. 고성(古城) 고찬원 효자/219
6. 여우재비 안영장/220

Ⅲ. 信仰傳說/221
1. 진거사와 여우현/221

□翰林邑篇/225
Ⅰ. 自然傳說/225
1. 비양도(飛揚島)/225
2. 호종단/226
3. 명월천 팽나무/227
4. 멩구드르(名拘野)/227
5. 노승원(노승이드르)/228
Ⅱ. 歷史傳說/228
1. 월계 진좌수(Ⅰ)/228
월계 진좌수(Ⅱ)/234
월계 진좌수(Ⅲ)/235
월계 진좌수(Ⅳ)/235
월계 진좌수(Ⅴ)/237
2. 진좌수 며느리/238
3. 명창 박효자/240
4. 장사 고삭배/241
5. 고혜한 하르방/243
6. 방이 강초관/243
7. 김 홍조 효자/244
8. 도깻 뚜꺼비/245
9. 남이참봉영감/246
10. 명당과 명구(名拘)/247
11. 포수와 사냥개/248
12. 한세미 강당장/249
13. 고삭불 장사/250
Ⅲ. 信仰傳說/252
1. 대림선돌/252
2. 영천 소목사/253
3. 진좌수 묘/253
□翰京面篇/255
Ⅰ. 自然傳說/255
1. 수월봉(녹고ᄆᆞ루)/255

2. 절부암(節婦岩)/256
Ⅱ. 歷史傳說/257
1. 윤무순과 삼반석/257
2. 산도채비/258
Ⅲ. 信仰傳說/259
1. 정이 없는 정소남/259
2. 정승과 정시/260
3. 꼬부랑 나팔/263
4. 여우 이야기/265
5. 다슴애기/267
6. 자청비와 문국성도령/268
7. 만석공 김부자와 삼족개/270
8. 남선비와 노일저대/271
9. 보재기/274
10. 삼태성/276
11. 북두칠성/278
第5章 南濟州郡傳說
해뜨는 石山 城山日出峰/283
山房德의 넋이 깃든 山房山/285
絶壁이 병풍 두른 安德溪谷/287
神人들이 婚禮올린 婚姻池/289
□大靜邑篇/290
Ⅰ. 自然傳說/290
1. 산방굴사 약수물/290
2. 형제섬(쥐섬)/291
3. 대정원 팡돌/291
4. 오찬이궤/292
5. 고종달이/294
6. 가파도 아기업개 바위/296
Ⅱ. 歷史傳說/297
1. 이재수(李在守의) 난(Ⅰ)/297
이재수(李在守의) 난(Ⅱ)/299
2. 오찰방(Ⅰ)/300

오찰방(Ⅱ)/304
3. 오찰방 누님/308
4. 강태종 훈장/310
5. 의원 장의/315
6. 신도 충견 무덤/316
7. 산호 해녀/318
8. 신대정원/319
9. 채똑똑이/320
10.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322

Ⅲ. 信仰傳說/324

1. 굿물 파혈지/324
2. 저승에 다녀온 강씨/325
3. 소목사와 오댁 묘/326

□安德面篇/329

Ⅰ. 自然傳說/329

1. 군산(軍山)/329
2. 유반석(儒班石)과 무반석(武班石)/331

Ⅱ. 歷史傳說/333

1. 창천리(倉川里) 지명 유래/333
2. 산방산(山房山)과 방철(房哲)스님/334
3. 장사 정운디/337
4. 고성목과 산방덕/342
5. 장사 구운문/344
6. 적객(謫客) 임관주(任觀周)/346
7. 창천리 강별장(姜別將)/346
8. 막산이(Ⅰ)/349
막산이(Ⅱ)/353

Ⅲ. 信仰傳說/357

1. 광정단과 이목사/357
2. 명당에 얽힌 이야기/360
3. 산방산 금장지(禁葬地)/362
4. 광정당 말무덤 · 영천 손목사/363

□南元邑篇/366
Ⅰ. 自然傳說/366
1. 수영악(水靈岳)/366
2. 오리수/367
Ⅱ. 歷史傳說/369
1. 뜻을 못펴서 죽은 날개달린 장수/369
2. 의귀리 김댁(金宅)종 논하니/370
3. 용감한 열부(烈婦)/372
4. 의귀리 경주 김댁(金宅) 조상/374
5. 고대정(高大靜)과 부장령(夫掌令)/377
Ⅲ. 信仰傳說/379
1. 파헐된 고좌수 무덤/379
□表善面篇/383
Ⅰ. 自然傳說/383
1. 용궁 아들 삼형제와 매오름/383
2. 괴야/385
3. 탈산봉/386
4. 개무덤/386
5. 천년수 팽나무/388
6. 김덕이 여/388
7.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389
Ⅱ. 歷史傳說/390
1. 냇기 송씨 댁 며느리/390
2. 정의 홍 형방(旌義 洪刑房)/391
3. 가시오름 강당장/393
4. 오별장(吳別將)/395
5. 어진 고형방(高刑房)/397
6. 고부윤(高府尹)/399
Ⅲ. 信仰傳說/401
1. 토산뱀/401
2. 양남택과 구령팟 당신(堂神)/402
3. 백목사(白牧使)와 토산당(兎山堂)/403

□城山邑篇/406

Ⅰ. 自然傳說/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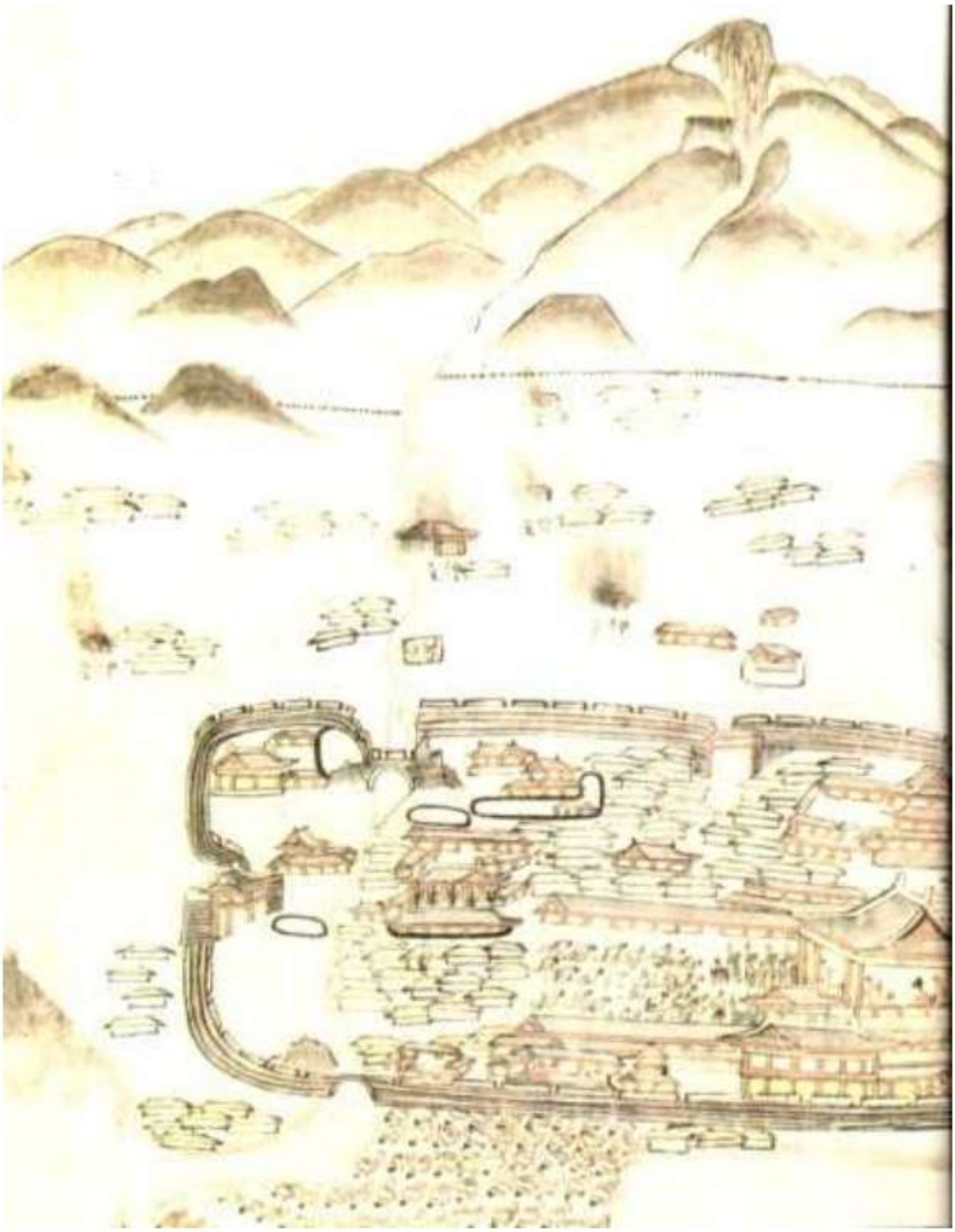
1. 성산 일출봉(城山 日出峰)/406
2. 용궁올레와 칼선드리/406
3. 곱은소(Ⅰ)/408
   곱은소(Ⅱ)/409
4. 혼인지(婚姻池)/409
5. 영주산과 무선돌/410
6. 영산이골/411
7. 구진개와 추근디모들/412

Ⅱ. 歷史傳說/413

1. 시흥리 현씨 남매/413
2. 심돌 부대각/414
3. 심돌 강씨(姜氏) 할망/416
4. 현지관(玄地官)/416
5. 고성 홍효자/418
6. 삭달제장과 삼등매/420
7. 난미 김씨/423
8. 오백이터 할망과 할으방/424
9. 오 훈장(吳訓長)과 그의 서모(庶母)(Ⅰ)/425
   오 훈장(吳訓長)과 그의 서모(庶母)(Ⅱ)/426
10. 또깨비/429

Ⅲ. 信仰傳說/430

1. 온평리(溫平里)의 청룡(靑龍)/430
2. 부댁 도선묘(夫宅 都先墓)/431
3. 오훈장(吳訓長)과 정지관(鄭地官)/431
4. 현씨 남매/433



第 1 章

漢拏山傳說



神祕어린 靈峰 漢拏山

天然記念物 第182號로 指定된 漢拏山은 第3期에서 第4期初에 數次의 噴出活動을 하였고 高麗時代에도 火山活動을 한 신비어린 休火山이다. 도처에 360個의 大小 奇生火山이 있고 特異한 景觀을 이루고 있으며 本道에서는 이들을 "오름"이라고 한다. 地形은 熔岩의 噴出이나 융기 等에 依해서이루어졌고, 土壤은 玄武岩을 母岩으로 火山회토가 主를 이루고 있으며 一部 地域에 粗武岩이 나타나고 있다.

植物相은 暖帶植物에 이르기까지 植物의 分布帶가 두렷이 나타나며 自生하는 管束植物 約 1,700餘種으로 이중 多數의 本道 特產植物이 있다. 중요한 特產物로는 바늘엉겅퀴(Cirsium rhinoceros Nakai), 제주조릿대(Sasa quelpaertenis Nakai), 제주달구지풀(Trifolium lupinaster Linne Var·alkpninum Nakai) 等이다. 植物分布區系上으로는 中國植物區系의 韓日暖待亞區에 屬하며 暖帶林에는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quercus flauca Thunb), 붉가시나무Cyclobalanopsis acuta Oerstedt), 후박나무 等이 主를 이루며 溫帶林에는 서나무(Carpinus lsaxiflora Blume), 개서나무(Carpinus teschonoskiii Maximowicz), 단풍나무(Acer pseudo-Sieboldianum Komarov Var·genuina Regel), 진달래(Rhododendron mucronlatum Tur(zaninow), 눈향나무(Sabina sargentii Nakai), 시로미(Empetrum nigrum Linne Var·asiaticum Nakai 等의 高山性 分布하고 있다. 寒帶林 構成 樹種과 灌木들이 分布하고 있다.



神仙들의 놀이터 白鹿潭

한라산 정상의 白鹿潭에는 겨울에 내린 눈이 늦봄까지 쌓여 있어 그 雪景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예로부터 「鹿潭晩雪」이라고 불려왔다.

海岸엔 봄꽃이 지고 新綠의 계절인데 漢拏山 등고선 따라 봄과 겨울이 연결되어 白鹿潭 어귀까지 철쭉이 만발, 산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도 白鹿潭 속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仙界의 景觀처럼 빼어난 경치를 이룬다.

해발 1,950m 정상에 둘레 4천여m나 되는 분화구는 맑은 못이여서 神仙들이 하얀 사슴을 타고 놀았으며 이 사슴들이 뭇물을 먹었다해서 白鹿潭이라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옛날 齊州를 거쳐간 牧官들은 모두 이른봄 꽃과 눈이 같이 때 白鹿潭에 올라 鹿潭晩雪의 絶景을 吟味했으며, 지금도 白鹿潭 동쪽 분화구벽 암석에는 이들이 새겨놓은 鹿潭碑가 남아 있다. 이같은 아름다운 景致 외에도 이 白鹿潭을 頂點으로 한 漢拏山은 1천 8백여 種의 暖帶에서 寒帶까지의 植物이 子生하고 千古의 天然林으로 덮혀 있어 世界的 名山으로 알려져 있다.

깊이 100여m, 바닥넓이가 30여정보나 되는 이 火口湖의 벽에는 누운향나무, 철쭉을 비롯해서 에델바이스, 섬잔대, 섬매자나무, 岩梅, 제주황기, 매발톱꽃 등 수십종의 희귀고산식물이 있고, 中國 秦始王이 사자 徐市을 보내어 不老草로 캐갔다는 시로미(岩高蘭)도 이곳에 널리 번식되고 잇다. 白鹿潭의 外輪山은 東벽과 西壁이 地理學的으로 年代를 달리하고 있어 아주 學術的으로 稀貴하다.



五百羅漢이 즐비한 靈室奇岩

漢拏山, 白鹿潭 東南쪽 해발 1千6百m의 허리에 둘레 約 2km 溪谷 깊이 350餘m에 2千餘個의 奇岩으로 둘러쌓인 溪谷으로 漢拏山을 대표하는 景勝이다.

이 溪谷에 들어서면 하늘을 찌를듯 솟구쳐 버티어 서 있는 2千餘個의 돌기둥과 절벽 사이로 샘솟는 물소리, 새소리와 구슬픈 가락의 뻐꾸기 소리에 실린 안개가 절벽의 허리를 두르면 심산 계곡의 極致가 되며 雄壯한 大自然의 交響樂이 된다.

절벽의 東쪽은 5百餘個가 넘는 형형색색의 모양을 한 10~20m의 돌기둥이 울창한 숲 사이를 뚫고 서 있어 마치 장군이 서 있는것 같기도 하고 羅漢弗像이 慕代하여 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西쪽벽에는 1千2百餘個의 바위기둥이 한데 붙어 서 있어 마치 장삼으로 예장한 불이 공대하여 서 있는 것 같다. 이 바위를 모양에 따라 병풍바위라 부르고 東쪽 5百餘個의 바위를 五百羅漢, 五百壯軍, 石羅漢, 靈室奇岩이라 한다. 이 溪谷의 그 雄壯하게 둘러진 모습이 마치 석가여래가 불제자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던 靈山과 비슷하다 해서 靈室洞이라 했다.

東쪽 암벽에는 흰진달래, 섬바꽃, 어수리 구상나무, 주목, 제주백회(白檜) 고채나무 等 특수 수종들이 寒帶性 원시림을 이루고 있어 溪谷 하나를 사이에 두고 溫帶와 寒帶가 마주보고 있는 特殊 地域이기도 하다.

또 지질학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地域이다. 西쪽 병풍바위는 잘 발달된 柱腸節理層이지만 東쪽의 奇岩은 모두 熔岩이 弱帶地層을 따라 분출하다가 그냥 굳어진 것으로 하나하나가 용암분출에 의해 形成된 것이다.

岩石 은 粗面質安山岩이며 이 節理帶를 따라 용출된 地下水가 伏流하여 江河川의 發源地 가 되고 있다.



石柱가 숲이룬 아흔아홉골

濟州市에서 한라산 서쪽횡단도로를 따라 10㎞쯤의 지점에 있다. 御乘生岳 동북쪽에 있는 계곡이며 깊지는 않으나 크고 작은 골이 많아서 九九谷이라 한다.

골이 연결된 길이는 약 1천2백m쯤 되며 골의 깊이는 50m쯤이다. 서쪽 天王寺쪽에는 靈室의 五百羅漢의 축소형같은 石柱가 天然林 사이 사이에 우뚝 우뚝 솟아 있고 御乘生岳과의 계곡엔 샘이 솟아 흐른다. 이 곡들은 약 250만년전인 제4기에 분출한 粗面質安山岩으로 구성되어 있고 風化를 심하게 받아 岩色은 녹회색 또는 황갈색으로 풍화면에는 조립질장석반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골들은 해발 7백m~8백m 사이에 형성되고 있으며 골들은 용암분출시 용암이 분출하다 굳어진 암벽이다. 식물로는 제주참꽃나무(진달래), 단풍나무, 소나무, 개암나무, 졸참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봄에는 진달래가 계곡을 메워 절경을 이루고 가을엔 새빨간 단풍이 먼저 들어 주말이면 시민 觀光客이 줄을 지어 찾아 든다.

이 九九谷의 서쪽 御乘生峰은 높이 1,176m로 정조 21년(서기 1979년)에 이 산 밑에서 龍種馬가 나왔으므로 당시의 목사 조명집이 공헌하니 이름을 노정이라 하고 높은 품계를 내렸다는 전설이 있다.

漢拏山篇

Ⅰ. 漢拏山, 그 景勝의 形成

한라산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산인가는 직접 보지 않고는 모른다. 제주도를 뺑 돌아가며 어디서 바라보아도 각각 다른 威容으로 수려한 모습을 보여 주어 그 외모도 좋거니와 산 속 곳곳마다 펼쳐 있는 경승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더욱 더 좋다. 그러기에 한라산은 예로부터 삼신산의 하나로 불리어 그 수려함과 신비로움을 칭송해 왔다.

장엄하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곳엔 전설이 얽힌다. 그 신비와 불가사의를 해설하려는 소박한 심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해설들은 비록 비합리적인 상상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합리적인 설명보다 그 신비와 불가사의를 몇 배나 더 직감하게 해 준다.

한라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웅장한 한라산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산 속의 여러 경승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경승 속에서 어떤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소박한 상상의 날개를 펴 해설해 왔다.

1. 선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

한라산이란 이름은 은하수(銀漢)를 어루만질 만큼 높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한문 투의 설명이어서 그 어원의 바른 해석은 아니지만, 한라산이 높은 산임을 실감케 하는 말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높은 하나라산을 누가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만큼 거대한 산을 만든 이가 있다면 그는 적어도 한라산 높이의 몇 배가 되는 거대한 신인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창조작업을 한 거대한 신인이 바로 〈선문대할망〉이라는 여신이다.

선문대할망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 그러나 여신이 얼마나 거대했던가는 눈으로 본 것처럼 잘들 알고 있다.

옛날 옛적 선문대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 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이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관탈섬(또는 楸子島)에 놓아 발로 밟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문질러 빨았다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아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시 앞바다의 지귀섬(地歸島)(또는 大靜邑 앞바다의 馬羅島)에 디디고 해서 구좌읍 소섬(牛島)를 빨래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한다.

또 제주시 오라동 경의 한내(漢川)'고지렛도'라는 곳에 모자 모양으로 구멍이 패인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선문대할망이 썼던 감투라 하며, 성산읍 성산리 일출봉에 높이 솟을 기암이 있는데, 이 바위는 선문대할망이 길삼을 할 때 접시불(또는 솔불)을 켰던 등잔이라 한다. 이 바위는 높이 솟은 바위 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놓은 듯한 기암인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얕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더 올려 놓아 등잔을 높인 것이라 한다. 선문대할망이 등잔으로 썼다 해서 이 바위를 지금도 등경돌(燈檠石)이라 부르고 있다.

이 여신의 거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전설을 이 외에도 많다. 큰 바위가 띠엄띠엄 몇 개 서 있으면 이 할머니가 솥을 걸어 밥을 해 먹은 바위라든지, 깊은 池沼가 있으면 이 할머니가 들어서서 발등까지 밖에 물이 닿지 않았다든지 하는 식의 단편적인 전설들이다. 개중에는 민담적 요소가 곁들여 소화(笑話)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어떻든 이만큼한 이야기로도 이 여신이 얼마나 거대했었는가를 능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키가 너무 커 놓으니, 할머니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할머니는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백동(1동은 50필)이 든다.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준다는 말에 제주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동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가다가 중단해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있다 한다. 바다에 흘러 뻗어간 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여신이니, 한라산 쯤은 거뜬히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속옷은 없어도 치마는 입었던지, 이 여신은 치마폭에다 흙을 가득 담고 지금의 한라산의 있는 자리로 운반해 갔다. 치마는 헌 것이어서 치마폭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흐르니, 그것이 도내(道內)의 많은 오름(小火山)이 되고 마지막으로 날라간 흙을 부으니, 바로 한라산이 되었다 한다.

실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창조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선문대할망이 창조한 한라산은 오늘날의 모습 그대로는 아닌 모양이다. 한라산의 여기 저기 펼쳐진 경승들은 그 후 갖가지 기이한 사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설들이 전승된다.

2. 백록담과 산방산의 형성

한라산 정상은 넓고 큰 분화구로 되어 있다. 그 둘레가 약 2㎞나 되고 기암절벽과 고산지대의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못 속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다. 여기가 이름하여 백록담(白鹿潭)이다.

백록담의 풍치는 사시사철 좋거니와 특히 이 곳의 설경은 절경이다. 속세인 마을들에는 초여름이 와 녹음이 짙어지려는 계절에 이 백록담에는 하얀 눈이 깔려 있어 보는이를 신비경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를 「鹿潭晩雪」이라 하여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쳐 극찬해 왔다.

이러한 백록담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을까?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갔다. 활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는데, 사슴은 안 잡히고 한라산 정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한라산은 하도 높아 하늘에 닿을 만큼 했다. 사냥꾼은 사슴을 발견하여 급히 활을 치켜들고 쫓았다. 그 때, 아차 실수하여 사냥꾼은 활 끝으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들이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발칵 났다. 그래서 곧 한라산 봉우리를 잡히는 대로 잡아 뽑고는 서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 봉우리는 날아와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떨어지니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를 뽑아 버린 자국은 움푹 패어져서 지금의 백록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산방산은 기암괴석의 둥그스름한 바위 산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옮겨다 놓은 듯한 기괴한 산이다. 그러니, 이러한 설명이 제격이 아닐 수 없다.

3. 신선(神仙)의 놀이터

선문대할망의 창조작업으로 한라산이 이루어지고, 옥황상제가 그 봉우리를 뽑아 던짐으로써 백록담이 이루어지자, 경승은 점차 갖추어져 갔다.

한라산의 절경을 맨먼저 즐긴 이는 아마 신선이었으리라. 의식주의 걱정없이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은 이 한라산을 무대로 생을 즐겼다.

한라산 가운데서도 특히 뭇 신선이 즐겨 산 곳은 백록담이다. 여기의 신선들은 백록을 타 다니며 백록을 기른다. 백록들은 그저 놓아 두면 한라산의 瀛州草를 뜯어 먹어 살이 찐다. 물은 백록담의 물을 먹여야 하니, 이 때만은 신선이 백록을 타고 사슴떼를 몰아 물을 먹이러 온다. 그래서 한라산을 일명 영주산(瀛洲山)이라 하고 그 정상의 못을 백록담

이라 이름이 붙게 된 것이라 한다.

지금은 한라산을 이웃집 출입하듯 등산하지만, 옛날엔 신선밖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사람은 반쯤만 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꽉 끼는 수가 일쑤이고, 올라갈 때, 특히 고성(高聲)을 지르거나 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뿐 아니라, 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이다. 이런 기상 변화는 선경(仙境)에 속세의 인간이 올라올 수 없도록 신선이 조화를 부린 때문이라 한다.

신선이 백록을 타고 백록담에 물을 먹이러 온 것을 실지 본 사람도 있다. 이름은 자세하지 않으나,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록담에까지 올라갔다. 신비한 절경에 취하여 서 있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몰아닥쳐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록담 가에 조용히 엎디어 있었다. 운무(雲霧)가 자욱한 못 가에 우수수 소리가 나더니, 몇 천 몇 백의 사슴떼가 숲 속에서 한가이 모여오는 것이었다. 그 중에 한 사슴은 빛이 백설같이 흰 놈이 있는데, 그 등엔 백발노인이 으젓이 타고 있었다. 활을 겨누고 있던 사냥꾼은 차마 범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정신이 났다. 그래서 맨 뒤엣 사슴 한 마리를 쏘았더니, 백록에 탔던 노인과 사슴떼는 홀연히 간 데 온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다. 백록에 탄 노인은 분명 신선이었음에 틀림없다.

백록은 신선이 타는 말이어서 사냥꾼이 잡지 아니한다. 만일 백록을 쏘았다고 하면 그 사냥꾼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고 한다.
옛날 조천면 교래리에 살던 안포수가 이런 백록을 쏜 일을 잇었다. 그는 104살까지 살았는데, 일생 포수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이 보였다 하면 백발백중 맞혀 잡았다.
어느날 그는 한라산 속을 돌며 짐승을 찾는데, 저쪽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내닫는 것을 얼른 볼 수 있었다. 안포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팡하고 총을 놓았다. 맞았는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여느 때처럼 달려가서 사슴 위를 덮치며 순간 칼을 빼어 사슴의 배를 찔렀다.
"이젠 한 놈 잡았다."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에야 정신이 들어 짐승을 보니 이건 백록이 아닌가. 안포수는 정신이 아찔했다. 자신도 모르게 확 칼을 뽑으며 한 10보 물러나 엎드렸다.
"과연 몰라 뵈었읍니다. 잘못 봐가지고 이런 대죄를 범했읍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극진히 빌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아났다. 만일 그렇게 빌지 않았다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신선이 즐기는 곳이니, 사람인들이 아니 즐길 것이냐. 예로부터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신선만큼이나 그리던 곳이 한라산이다.
특히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오르면 남쪽 멀리 남극 노인성(南極 老人星)이 보여서 선망

의 적이 되었다. 노인성은 한번 보면 장수하는 법이다. 그래서 한라산의 경관도 즐길 겸 노인성도 볼 겸 해서 한라산을 무수히 찾아들었다.

더욱이 역대로 부임해 온 제주목사들은 거의가 이 한라산의 산유(山遊)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들은 백록담에 오르면 산정(山情)에 젖어 일률(一律)을 노래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곤 했다.

목사들의 산유는 풍류가 있어 좋았지만, 그에 따른 백성들의 괴로움은 또 그만큼 컸었다.

언제부턴 생긴 풍습인지, 목사가 백록담에까지 올라 쉴 때 그 좌향(坐向)이 문제가 되었다. 남향하여 앉아 "거, 좋다" 하고 즐기면 대정현에서 잔치를 베풀고, 동향하여 앉아 "거참, 이쪽이 좋다"고 하여 풍치를 즐기면 정의현에서 잔치를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북향하여 앉아 즐기면 제주목에서 잔치를 차리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 정의, 대정, 삼현(三縣)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던 이조 때 간계한 관리가 만들어 놓은 관습인 것이다. 이로 인해 목사가 산유를 하는 날이면 삼현에서 징발된 민간의 괴로움도 괴로움이려니와 그 비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분격한 강직(姜直)이란 이가 산유행차의 뒤를 따라가 백록담에 이르렀다. 마침 잔치를 벌리려 할 때 그는 곤장을 맞아가며 민폐의 극심함을 고하여 만류했다. 이로부터 이런 잔치의 피해가 없어졌다 한다.

4. 영실기암의 형성

한라산의 경승은 백록담만이 아니다. 아마 또 하나의 걸작품을 찾는다면 영실기암을 들 것이다.

영실기암은 한라산 정상에서 서남쪽 약 3㎞쯤의 등허리에 있다. 울창한 숲 속에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이 수 백게 즐비하여 하늘을 찌른 것이 정히 장관이다. 이 기암괴석들은 한번 보면 활을 메고 나서는 장군들 같고, 다시 보면 도를 깨친 나한들이 늘어선 것도 같다. 그래서 그 수가 오백이나 된다 하여 〈五百將軍〉 또는 〈五百羅漢〉 이라 부른다. 신이 빚어놓은 듯한 이 절경이 하도 뛰어나므로 이를 영주십경의 하나로 쳐 선인들이 내내 즐겨 왔다.

오백장군, 오백나한이란 이름은 그 기암의 수가 오백이 된다는 데서 생겼지만, 실은 엄밀히 따지면 499개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장군(將軍)이니 나한(羅漢)이니 부르는 것도 겉만 보고 붙인 이름이지, 그 속을 캐어 보면 비화(悲話) 어린 화석임을 알게 된다.

아득한 옛날 일이겠다. 한 어머니가 아들 5백을 낳아 이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은데다 집이 가난하고 마침 흉년까지 겹치니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 게 아니냐"고 타일렀다.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큰 가마솥에다 불을 때고 솥전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어머니는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죽이 맛이 좋았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동생이 죽을 뜨려고 솥을 젓다가 이상하게도 뼈다귀를 발견했다. 다시 잘 저으며 살펴보니 사람의 뼈다귀임이 틀림없었다.

동생은 어머니가 빠져 죽었음이 틀림없음을 알았다.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의 형들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동생은 이렇게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遮歸島)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드러니 영실에는 499장군이 있는 셈이고 차귀섬에 막내동생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셈이다.

차귀섬의 오백장군은 대정읍의 바굼지오름(簞山)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해였든가, 어떤 지관(地官)이 바굼지오름에서 묏자리를 보게 되었다. 지관은 정자리를 하나 고르고는 "이 묏자리는 좋긴 좋은데 차귀섬의 오백장군이 보이는 게 하나 흠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는 "묏자리만 좋으면 그것쯤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하고 차귀섬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곧 도끼로 그 바위를 찍기 시작했으나 워낙 큰 바위라 없애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귀섬의 오백장군에는 도끼로 찍어 턱이 진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5. 아흔아홉골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 경승은 영실기암만이 아니다. 한라산 서북쪽 밑, 곧 제주시 해안리경(海安里境), 제2횡단도로 가에 「아흔아홉골」이란 산이 있으니, 이 또한 색다른 풍치의 경승이다.

이 산은 크고 작은 골짜기가 마치 밭고랑처럼 무수히 뻗어 내린 기봉이다. 이 밭이랑 같은 기봉마다에는 갖가지 수림이 울창한데다 형형색색의 기암괴석이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며 솟아 있고, 골짜기마다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한가이 흐른다. 그 골짜기가 하도 많으니, 아흔 아홉개가 있다 해서 이름을 「아흔아홉골」이라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골짜기가 하나만 더 있어 백 골이 되었더라면 제주에도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날 것이고 장군이나 임금 같은 인물이 날 것인데, 한 골이 모자라 아흔아홉 골밖에 안되므로 맹수도 안 난다고 한다.

일설(一說)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이 골짜기는 본래 백 골이 있었다 하고, 그 때에는 많은 맹수가 나와 날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때엔가 중국에서 스님 한 분이 건너와서 백성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맹수를 없애 줄 터이니 "대국 동물대왕 入島"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다. 호랑이니 사자 따위 무서운 짐승을 없애 준다고 하니, 백성들은 좋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이 백 골에 모여 들었다.

스님은 불경을 한참 외고 나서,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

맹수를 향해 소리치니, 호랑이·사자·곰 할것 없이 다 한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 골짜기도 없어져 버렸다. 그 후 이 산은 아흔 아홉 골밖에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은다는 것이다.

실은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니 나게 되자, 제주에는 왕도 큰 인물도 아니 나오게 되어 버린 것이다.

선물대할망이 그 대충을 창조한 이래 이런 숱한 사연을 남기며 한라산은 점점 완성되어 갔다. 오늘의 웅자(雄姿)와 신비(神祕)와 절승(絶勝)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다.

6. 한라산의 고려장

신선의 놀이터로 이름 난 한라산은 뭇 사람들의 선망하는 신성한 산이었다.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인간들은 한라산에서 절경을 즐기며 영생하는 신선이 그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라산에 가서 신선이 되기를 열망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문에서인지, 옛날 제주도에서는 노인이 70세가 되도록 살면 이 사람은 신선이 될 사람이라 했다. 그래서 70세가 되는 날, 그 아들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음식을 차리고 어버이를 한라산으로 모셔 갔었다. 한라산에 정상에 올라가 이 음식을 차려 놓고 어버이를 앉혀 두고 오면 그날로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풍속은 이조 때까지 내려왔다 한다. 세종 때 기건목사(奇虔牧使) 시절이었다.

어느 날 이방이 목사에게 아뢰었다.

"내일은 아버님이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일을 보지 못하겠읍니다."

"어떻게 신선이 된다는 말인고?"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아버님을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에 모셔갔다 와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고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음, 그러면 내가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낼 터이니, 아버님께 전달해 주시도록 부탁해 줄 수 있을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넘기며 아버님의 가슴에 꼭 품게 해서 소중히 가져 가 넘기도록 했다.
이튿날 이방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라산으로 올라가 작별했다.
이튿날 이방이 등청하자, 목사는 옥황상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겼는가를 확인했다.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 보게. 아버님이 신선이 되어 잘 오르셨는지."
이번엔 이방을 따라 목사도 같이 올라갔다. 신선이 되도록 아버지를 앉혀 둔 자리에 가보니, 거기엔 커다란 범이 한 마리 죽어 넘어져 있었다.
목사는 그 범을 잡아 배를 갈라 보도록 했다. 배 속에는 이방의 아버지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방, 잘 보게. 내 옥황상제에게 보낸다는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독약이었네. 이래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말을 믿을 건가?"
그 후부터 70세가 된 노인을 한라산에 버리는 풍속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널리 분포하여 전승되는 고려장 이야기가 한라산과 기건목사에 결부된 것이지만, 이렇게 결부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라산은 신성한 산이요, 신선이 와서 유람하는 산이라는 고래의 신앙이 이 이야기를 한라산에 결부시켜 놓은 것이요, 기건목사의 현명성을 보여 주기 위해 범에게의 공희(供犧) 이야기로 결말을 맺게 된 것이다.

Ⅱ. 漢拏山에서 태어난 神들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성시해 왔다. 신성시해 왔다는 것은 거기에 신령이 있음을 믿어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은 한라산을 신성시하고, 한라산신의 존재를 믿어 그들의 복리(福利)를 기원해 왔다. 이 신앙행사는 본래 마을 단위의 부락제로 벌여 왔고 마을의 복리를 축원하여 전승

되었기 까닭에 어느 새에 한라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 성격이 바꾸어져 버렸다.
마을의 수호신이란 바로 신당이다. 지금 한라산에서 출생했다고 이야기되는 여러 마을의 당신(堂神)들은 바로 이 한라산 숭배의 잔영이다. 이 당신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추려 보면 한라산신의 그것도 추측할 수가 있다.

1.세화본향당신(細花本鄕堂)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의 수호신인 본향당신은 천잣도, 백줏도, 금상님, 2位이다. 천잣도는 할로영산(漢拏零5山)의 백록담에서 저절로 솟아난 신이고, 백줏도는 서울 서대문 바깥에서 솟아난 임정국의 따님아기인데, 천잣도의 외손녀가 되며, 용왕천자국의 황제는 백줏도의 외삼촌이라 한다. 그러니까 용왕국 황제는 천잣도의 아들이 되는 셈이다.
천잣도는 백록담에서 부모없이 저절로 솟아나, 일곱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니, 千字文, 童蒙先習, 史略, 通鑑, 小學, 大學, 中庸, 詩傳, 書傳 등을 모두 통달했다. 열다섯 살이 되자 흰 망건에 흰 장삼을 입고 흰 띠를 두른, 어엿한 선비 모습의 신이 되었다. 그래서 한 아름이 넘는 서책(書冊)을 받아 앉고, 일천장의 벼루에 삼천장의 먹을 갈고 한 줌이 넘는 붓을 들어 문부(文簿)를 정리한다. 이처럼 문장이 뛰어나니, 이 신은 하늘에 가면 옥황의 소임을 다하고, 땅에 내려오면 지하의 소임을 맡아 척척 해냈다.
그러다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세화리의 손드랑마루라는 곳에 내려와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천잣도는 세화리민의 출생, 사망, 생업등 생활 전반을 차지하여 수호해 준다.
백줏도는 임정국의 따님으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자, 부모님 눈에 거슬려 쫓겨났다. 잘 데가 없으므로 용왕천자국 대왕인 외삼촌한테 수청부인으로 들어가서 갖가지 주술을 배우고 돌아와 부모님께 사죄했으나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세화리에 당신으로 계신 외할아버지를 찾아와 같이 좌정하게 되었다.
한편, 금상님은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명장인데, 역적으로 몰려 위태롭게 되자, 조정에의 뜻을 버리고 천정배필을 찾았다. 천정배필이 제주도 세화리에 좌정해 있는 백줏도임을 알고 멀리 제주도까지 찾아왔다. 그는 겨우 천잣도의 허락을 받고 백줏도와 부부가 되어 같이 좌정해 당신이 되었다.

기다란 이야기를 간단히 줄였지만, 이 세화본향당신의 이야기에서 한라산신의 위용을 얼마큼 짐작하게 된다. 여기의 천잔도의 모습은 후대의 선비의 모습으로 변모해 그려져 있지만, 그것은 본래의 한라산신의 모습을 변모시킨 것이다. 용왕국 황제를 아들로 두고 천하명장 무신을 손녀 사위로 맞은, 그런 위용의 신인 것이다.
한편, 한라산에서 출생한 당신들은 봉(鳳)의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三角鬚)를 거스른 무

장(武將)의 얼굴을 하고 큼직한 것과 직량포를 입은 늠름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그 생활은 노루, 사슴, 산돼지들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휘몰아다 잡아 시원석석하게 간회를 내어 먹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2. 호근본향당신(好近本鄕堂神)

서귀포시 호근동의 본향당신은 〈애비국하로산또〉 라는 이름의 신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하로산또(漢拏山—)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신은 하로영산(漢拏靈山)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날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난 것이다. 솟아나고 보니, 그 시간이 자시인지라 천지는 칠흙같이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얼마 있자, 천황닭(天皇鷄)이 울어대고 자황닭(地皇鷄)이 울어 가니 먼동이 트기 시작하여 밤과 낮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방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한라산을 출발하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문면 도순리 경에 있는 시오름 상봉에 내려와 좌정하고 보니 마침 사슴떼가 줄을 지어 달리는 것이 보였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이놈을 잡아 요기하기로 하여, 앞에 닫는 놈은 놓아 두고 맨뒤엣 놈을 하나 쏘았다. 이 놈을 등에 걸머지고 다시 내려오다 서귀포시 호근동으로 흐르는 들레냇도에 이르고 보니 물이 하도 맑으므로 여기서 목욕을 하고 사슴을 잡아 간회를 시원석석하게 먹었다. 다시 길을 나선 애비국하로산또는 서호동에 있는 고공산에 치달아 보니, 세 신선이 앉아 바둑을 한가이 두고 있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신선들에게 물었다.

"이 앞엣 마을이 어디입니까?"

"호근이(好近理)가 되어진다."

"여기 좌정할 수가 없겠오이까?"

"이미 차지한 신이 없으니 괜찮다."

허가를 맡은 애비국하로산또는 좌정할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를 고르다 돌혹기라는 곳이 산수(山水)가 가장 좋으므로 거기 좌정하여 호근동을 차지하고 당신이 되었다.

3. 사계(沙溪) 큰물당 신(神)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본향당신인 큰물당신도 한라산에서 솟아나 수렵을 하며 산 신이다.

이 신은 할로영상(漢拏靈山) 서쪽 등성이에서 저절로 솟아났다.

신은 차지할 마을을 찾기로 하여 한라산을 떠났다. 노루 사슴떼를 몰아 올아 〈홍골〉로 내리고 홍골에서 다시 〈변내골〉로 내리고, 번내골에서 다시 홍골로 되돌아 올라서 산방굴사(山房窟寺) 머리로, 큰물머리로 하여 당물에 몰아 와 사슴을 잡았다. 피를 뽑아 시원하게 먹은 후, 〈이우암동산〉에 올라 앉아 좌정할 곳을 찾아 보니 사계리 〈큰물〉에 현이 떨어져 있어 좌정할 만했다.

곧 큰물로 가서 좌정한 신은 사계리를 차지하여 오씨 집안은 상단골(맨 윗 계층의 신앙민)로 이씨 집안은 중단골로 정하여 위하게 하니, 정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팔월 보름날을 대제일로 하여 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이 노루 사슴 산돼지 등을 휘몰아 잡아먹으며 차지할 마을을 골라 당신이 되는 이야기는 수렵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거주지를 정하여 정착하는 제주 선민의 생활의 반영이겠다. 이런 생활체험의 설화화는 육지부의 산신처럼 호랑이를 옆에 끼고 앉은 백발노장의 모습과 전연 다른 산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은 거의가 〈고기고 장군〉 〈밥도 장군〉 〈술도 장군〉으로 먹는 거인이며 화살 하나를 쏘으면 일만 군사가 저절로 숙어들어오고 나가는 무장으로 이야기된다.

4.예촌•보목본향당신(禮村•甫木本鄕堂神)

남제주군 남원읍 예촌(신례리•하례리)의 본향당신과 서귀포시 보목동 본향당신은 맺어진 형제이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할로영산(漢拏靈山)에서 솟아나 〈백관님〉과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 그리고 서귀포시 상효동 경에 있는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 세 위의 신은 예촌 본향당의 신이다. 그리고 할로영산의 백록담에서 솟아난 〈ᄇᆞᄅᆞ뭇님〉은 보목동의 본향당신이다.

백록담에서 솟아난 ᄇᆞᄅᆞ뭇님은 성장하여 신중부인과 결혼하고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ᄇᆞᄅᆞ뭇님은 부인을 거느리고 백록담을 떠나 차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서귀포시 상효동 경의 제완지골이란 곳엘 이르고 보니, 칠오름에 푸른 군막이 쳐 있는 것이 발견 되었다. '어떤 어른들이 저렇게 휘황하게 차려 놓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ᄇᆞᄅᆞ뭇님은 부인을 토평동 허씨 집 과부댁에 맡겨 두고 칠오름에 군막 쳐 있는 데를 찾아갔다. 신선 같은 세 분이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수작을 하고 보니, 한분은 할로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이고, 한 분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이고 또 한 분은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였다.

네 신은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눈 후, 나이의 위 아래를 가리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

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한참 의논 끝에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이가 형이 되기로 합의하였다.

바둑판을 앞에 놓고 한 점 두 점 붙이다 보니, 백관님과 도원님과 도병사 세 위는 한패가 되어 서로 후원을 하고 ᄇᆞᆮᄆᆞᆺ님은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승리는 후원하는 쪽에 돌아갈 것이 뻔하다. ᄇᆞᆮᄆᆞᆺ님은 바둑을 지고 말았다.

"내 바둑은 졌읍니다. 세 분을 형님으로 위하지요. 형님은 어디로 가겠읍니까?"

"우리는 형이니, 당연히 윗 마을을 차지하여 가야지."

"그러면 저는 아랫 마을을 차지해 가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백관님, 도원님, 도병사 세 위는 윗 마을인 예촌을 차지하여 가서 〈베야기된밧〉이라는 곳에 좌정하여 예촌본향당신이 되고, ᄇᆞᆮᄆᆞᆺ님은 아랫 마을인 보목리 〈조노기〉라는 곳에 내려와 좌정하여 보목본향당신이 된 것이다.

이 보목본향당신인 ᄇᆞᆮᄆᆞᆺ님은 쇠털로 만든 검은 전립에 운문대단(雲紋大緞)으로 안을 받친 쾌자로 몸치장을 하고 상모를 허울허울 날리면서 화살 하나를 쏘으면 일만 군사가 숙으러져 들어보고, 또 화살 하나를 쏘으면 삼천 군병이 숙으러져 나가는 위대한 영웅신이다.

5. 상창(上倉) 하르방당신(堂神)

할로영주삼신산(漢拏瀛州三神山)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날 酉時에 아홉 형제의 신이 솟아났다. 그 아홉 형제가 각각 분산하여 내려와 여러 마을을 차지하여 당신이 되니, 큰 형은 성산읍 수산리 당신 울뢰마루하로산이고, 둘째는 애월읍 수산리 당신 제석천왕하로산(帝釋天王漢拏山)이고, 셋째는 남원읍 예촌의 당신 고뱅석도하로산이고, 넷째는 서귀포시 동•서홍동 당신 고산국하로산이고, 다섯째는 서귀포시 중문동 당신 동백자로하로산이고, 여섯째는 서귀포시 하모동 동백자로하로산이고, 일곱째는 대정읍 일과리 당신 제석천왕하로산이고, 여덟째는 안덕면 상창리 당신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고, 아홉째 막내는 서귀포시 종달리 당신 제석천왕하로산이다. 이 형제 신들은 한라산에서 솟아났으므로 그 이름에도 모두 〈——하로산(漢拏山)〉이 붙은 것이다.

아홉 형제의 신들은 8월 열사흘날에 각기 자기가 차지할 마을 골라 내려가게 되었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라는 기다란 이름을 가진 여덟째 동생은, 형들은 다 떠나가는데 자기가 갈 곳은 막연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서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여 한라산 서쪽 등성이를 내려섰다. 잠시 후 절터 이망에 내려서고, 안수못, 밧수못을 거쳐 볼그니오름에 오르고, 다시 단숨에 한세빅베기를 치달아 올랐다. 목이 어지간히 말랐다. 높은데서 육소장(六所場)을 휘 둘러보니 생새물이 있으므로 곧 내려가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내달아 당오름을 거쳐 밝은오름에 당도했다.

이때, 안덕면 동광리 당신 황서국서가 억만 군병을 거느려 나서는 길에 마주쳤다. 두 신은 서로 길다툼을 하고 언쟁이 벌어졌다. 남관돌관고나무상태자가 말하되,

"너는 백명 군사를 화살 하나로 쏘아 눕히고, 그 누운 군사를 다시 화살 하나로 쏘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좋다. 백명 군사를 눕히는 게 문제 없다."

두 신의 다툼은 화살로 군사를 눕히고 일으키는 기능 경쟁으로 바뀌어 벌어졌다. 먼저 황서국서가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겨 놓았다. 화살이 날아감과 동시에 백명 군사가 와르르 쓸어졌다. 다시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겨 터뜨렸다. 벌떡 일어날 줄 알았던 군사들은 꼼짝 않고 제자리에 쓸어진 채 있는 것이다.

다음은 남관돌관고나무상태자하로산 차례다. 화살 하나를 당겨 놓았다. 백명 군사가 와르르 쓸어졌다. 다시 화살 하나 당겨 터뜨리니 백명 군사가 일시에 살아 벌떡 일어났다. 다시 화살을 놓으면 와르르 쓸어지고 다시 화살을 놓으면 벌떡 일어나고 자유자재인 것이다.

승부는 결판이 났다. 황서국서는 항복을 하고 시종(侍從)이 되어 모시기로 했다. 황서국서의 안내를 받아 남관돌관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논오름'으로 '꽹풍그정'으로 하여 '척동산'에 내려 살펴보니 당동산이 좌정할 만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곧 당동산으로 행차하여 수백 군사를 복병시키고 앉아 있되 어느 누가 외서 위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변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커다란 뱀으로 변신하여 꿈틀꿈틀하고 있었다.

이때 상창리 통천동의 유포수 김포수 강포수가 사냥을 나가다가 큰 뱀이 길을 가로막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 포수는 범상치 않은 신임을 곧 알아냈다.

"저희들이 위할 신이시거든 이쪽으로 좌정하십시오. 정성껏 위하겠읍니다."

큰 팽나무 아래로 모셔서 정월 열나흘날과 팔월 열나흘날을 대제일로 하여 위하기로 하고, 유포수는 상단골, 김포수는 중단골, 강포수는 하단골이 되어 모시기 시작했다. 이래서 상창리의 본향당신이 된 것이다.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솟아난 이 아홉 형제의 신이 각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이야기는 각각 흥미로운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하자.

6. 중문본향당신(中文本鄕堂神)

서귀포시 중문동의 본향당신은 동백자하로산이다. 이 신은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날 酉時에 솟아난 아홉 형제의 신 중 다섯째이다.

이 신은 한라산을 떠나 차츰 차츰 내려오는 것이 중문동에 내려와 당신이 되고 진궁하늘

진궁부인이란 신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아들은 아직 어린지라 어머니 젖가슴을 뜯고, 아버지 무릎을 앉아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이것이 부모의 눈에 거슬렸다.
"불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없다."
죽일판으로 둘러대다가 그럴 수는 없고, 돌함을 단단히 짜서 아들을 담아 자물쇠로 잠그고는 곧 바다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밀물에도 둥덩, 썰물에도 둥덩 떠 돌아다니다가 동해용광국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렸다. 동해용왕국의 개가 들이 달아 쿵쿵 내달아 웅웅 짖어대었다.
동해용왕이 이상히 생각하여 딸들에게 지시했다.
"큰딸아기 나가 보아라."
"별만 송송하여 아무것도 없읍니다."
"둘째딸아기 나가 보아라."
"나뭇잎만 반들반들하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막내딸아기 나가 보아라."
막내딸은 나가 보고서,
"산호나무 윗 가지에 어떤 돌함이 걸려 있읍니다."
"큰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싹 못하겠읍니다."
"둘째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싹 못하겠읍니다."
"막내딸아기 내리워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산호나무를 툭툭 차니 돌함이 저절로 설설 내려왔다.
"큰딸아기 열어 보아라."
"둘째딸아기 열어 보아라. 7
돌함 두껑을 열 수가 없었다.
"막내딸아기 열어 보아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돌함을 툭툭차니 자물쇠가 저절로 설강 열려졌다. 돌함 속에는 샛별 같은 동자가 앉아 있었다.
"너는 귀신이냐? 생인이냐?"
"귀신이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읍니까. 저는 인간 세상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하로백관(漢拏白管)이고 어머니는 진궁하늘진궁부인인데,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바다에 띄워 버리기에 여기 왔읍니다."
동해용왕은 천하명장 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 방으로 들라."

눈도 거들떠 보지 않은다.
"둘째딸 방으로 들라."
역시 마찬가지다.
"막내딸 방으로 들라."
서른 여덟 잇바디를 허우덩썩 열어 웃으며 들어간다. 동해용왕의 막내딸 사위가 된 것이다.
용왕국에서는 사위손님을 대접하느리고 별별 음식을 차려 올리는데, 이 사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부인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았다.
"조선국 장수님아, 음식이 좋지 못하여 못 잡숩니까?"
"대국이라면서 우리 소국만 못하다."
"조선국에서는 무엇을 잡수었읍니까?"
"내 국은 소국이라도 밥도 장군 술도 장군으로 먹었다."
부인이 아버님한테 말을 하니, 용왕은 "내 기세를 가지고 사위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 하고, 그 날부터 풍악을 치면서 술이니 안주니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
석달 열흘 백일이 되어 가니,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 갔다. 용왕이 생각해 보니, 요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듯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어서 남편따라 나가거라."
용왕은 사위와 딸을 다시 돌함에 담아 물 바깥으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물결에 따라 떠돌아다니다가 중문동 앞쪽 바다로 떠 올라왔다.
아들 부부는 뭍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물어 보니, 일곱 살에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거기다 용왕의 딸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되니 반가왔다. 아들 부부를 맞아 들이고 같이 살게 되었다.
시부모의 시중 드는 생활은 한 두달이 좋지, 오래 가면 괴로운 법이다. 동백자하로산은 며느리가 불쌍히 생각되어 딴살림을 내 주기로 했다. 중문동에 불목당이라는 다른 당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 가 좌정하여 신앙민들의 제의를 받아 먹도록 해 주었다.
이래서 중문동에는 〈도람지궤〉 라는 본향당과 불목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라산신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떨어져 버린 이야기들이지만, 본래는 전도민의 수호신이요, 국가적인 수호신으로 숭앙되어 왔었다.
이러한 사정은 광양당신(廣壤堂神)의 이야기를 보면 십분 이해가 간다.

7. 광양당신(廣壤堂神)과 호종단(胡宗旦)

광양당은 제주시 이도동 광양에 있었던 당신(堂神)이다. 지금은 그 자취도 없어져 버렸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당신이었다. 이 당신이 어떤 신이었는가 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이나 탐라지 등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이 옛 문헌들에는 광양당을 「漢拏山護國神祠」라 하고 「諺傳에는 漢拏山神의 아우라고 한다」고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한라산수호국신인 광양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영특하여 성덕(聖德)이 있었는데, 죽은 후 신이 되어 모셔졌다.

고려 때의 일이다. 송나라 왕이 지리서를 펴 놓고 보니 제주도의 지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 혈들이 인걸만 쉴새 없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 왕은 이 인걸들은 못나게 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종단을 불러 제주의 물혈을 끊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좋은 샘물이 없으면 인걸이 못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헌에는 호종단이라 되어 있지만, 현재 구전되는 전설들에는 '고종달'이라고 그 이름이 되어 있다. 고종달의 전설은 도 전역에 많은 것이 전승되고 있다.

고종달이(胡宗旦)는 구좌읍 종달리 바닷가로 배를 붙여 들어왔다. 배에서 내리고는 사람을 만나자,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종다리(終達里)외다"고 대답하자 "무엄하게 내 이름과 같다"라고 화를 내며 우선 종달리의 물혈부터 끊기 시작했다.

종달리에는 '물징거'라는 큰 샘물이 있었다. 언제나 창창한 샘물이 솟아 흐르는 곳이다. 고종달이는 이 '물징거'의 혈을 떠 버렸다. 그래서 물은 아니 나오게 되고, 물이 솟아 흐르던 구멍만이 지금도 남아 있다.

종달리의 물혈을 뜬 고종달이 서쪽으로 향해 차례 차례 혈을 떠 왔다. 제주시 화북동에 이르렀다. 그가 가진 지리서에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물혈이 있으므로 이 혈을 뜨기 위해서였다. 고종달이는 이 물을 찾아 지리서를 보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때, 화북동의 어느 밭에서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백발 노인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노인은 매우 급하고 딱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했다.

"저기의 물을 요 행기(놋그릇)로 한 그릇 떠다가 저 소 길마 밑에다 잠시만 숨겨 주십시오."

농부는 무엇때문인지 영문은 모르되 그 노인의 몸가짐이 하도 다급한 것같으므로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대로 해 주었다. 그랬더니 노인은 그 행기물 속으로 살짝 들어가 사라져 버렸다. 이 노인은 산신(山神)이었다.

농부는 심심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는가 보다 생각하며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사. 얼마 안 되어 어떤 부리부리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나타났다.

"여기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물이 어디 있소?"

무슨 책을 들여다보며 묻는 것이다. 농부는 이 마을에 이제까지 살아도 그런 물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부랑(꼬부라진) 나무 아래 행기물

이란 샘물 이름은 금시초문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고 하면서 다시 그 책을 자세히 검토하더니, "여기가 틀림없는데……" 중얼거리며 주위를 샅샅히 찾아보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고종달이었다. 그가 가진 지리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 책인지, 이 수신이 행기 속의 물에 들어가 길마 밑에 숨을 것까지 다 알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고부랑나무란 것은 길마를 이름이고, 행기물이란 행기그릇에 떠 놓은 물을 이른 것이다. 그런데 고종달이는 이것을 몰랐다. 또한 농부도 그것을 알 리가 없다. 그저 그런 이름을 가진 샘물이 없으니 없다고 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고종달이가 데리고 온 개가 물 냄새를 맡았다. 개는 길마 곁으로 가서 냄새를 식식 맡아 가는 것이다. 농부는 길마 밑에다 햇볕을 받지 않게 점심을 놓아 두었는데, 개가 그것을 먹으려는가 보다 생각했다.

"요놈의 개가 어디 점심밥을 먹어 보자고!"

막대기를 들어 때리려 하니 개는 저만큼 도망가 버렸다.

고종달이는 아무리 샘물을 찾아봐도 샘물이 없으니, "이놈의 지리서가 엉터리구나" 하면 찢어 던져 버리고 가 버렸다.

이래서 이 화북동의 물혈을 끊지 못해서 지금도 샘물이 솟는다.

그때 행기그릇 속에 담겨 살아난 물이라 해서 '행기물'이란 이름이 붙어 오늘날까지 그리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숱한 이야기를 남긴 고종달이가 바로 호종단이다. 호종단은 제주도 안의 물혈을 거의 끊고는 귀로에 올랐다. 그가 탄 배가 송나라를 향해 한림읍 앞 비양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이다. 물혈을 끊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한 광양당신이 한 마리의 매로 변하여 뒤로 좇아 날아갔다. 매는 호종단이 탄 배 위를 날세게 한바퀴 돌았다. 이 때다.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쳐 천지를 분별 못하더니, 호종단이 탄 배는 비양도 바위 틈에 산산조각이 되어 갈아앉고, 호종단은 곱게 수장이 되고 말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 신이함을 보고 받고 즉시 광양왕(廣壤王)의 작위를 봉하는 한편, 해마다 향과 폐백을 내리워 제사를 올리게 했다.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는 예로부터 끊이지 않고 올렸었다. 처음에는 한라산 정상에서 지냈었는데, 하도 높은 산이라 매해 얼어 죽는 이가 많이 생겼다.

조선조 성종 때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약동은 이 인명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제주시의 산천단(山川壇)으로 제장(祭場)을 옮겨 제사를 지내게 했다.

한라산신의 숭앙은 온 도민의 것이었고 그 제사는 국가적인 행사였던 것이다.

8. 한라산신(漢拏山神)과 이태조(李太祖)

한라산신이 호국의 대임(大任)을 다했음은 이성계가 등극할 때 한라산신에게 수호를 축원했다는 이야기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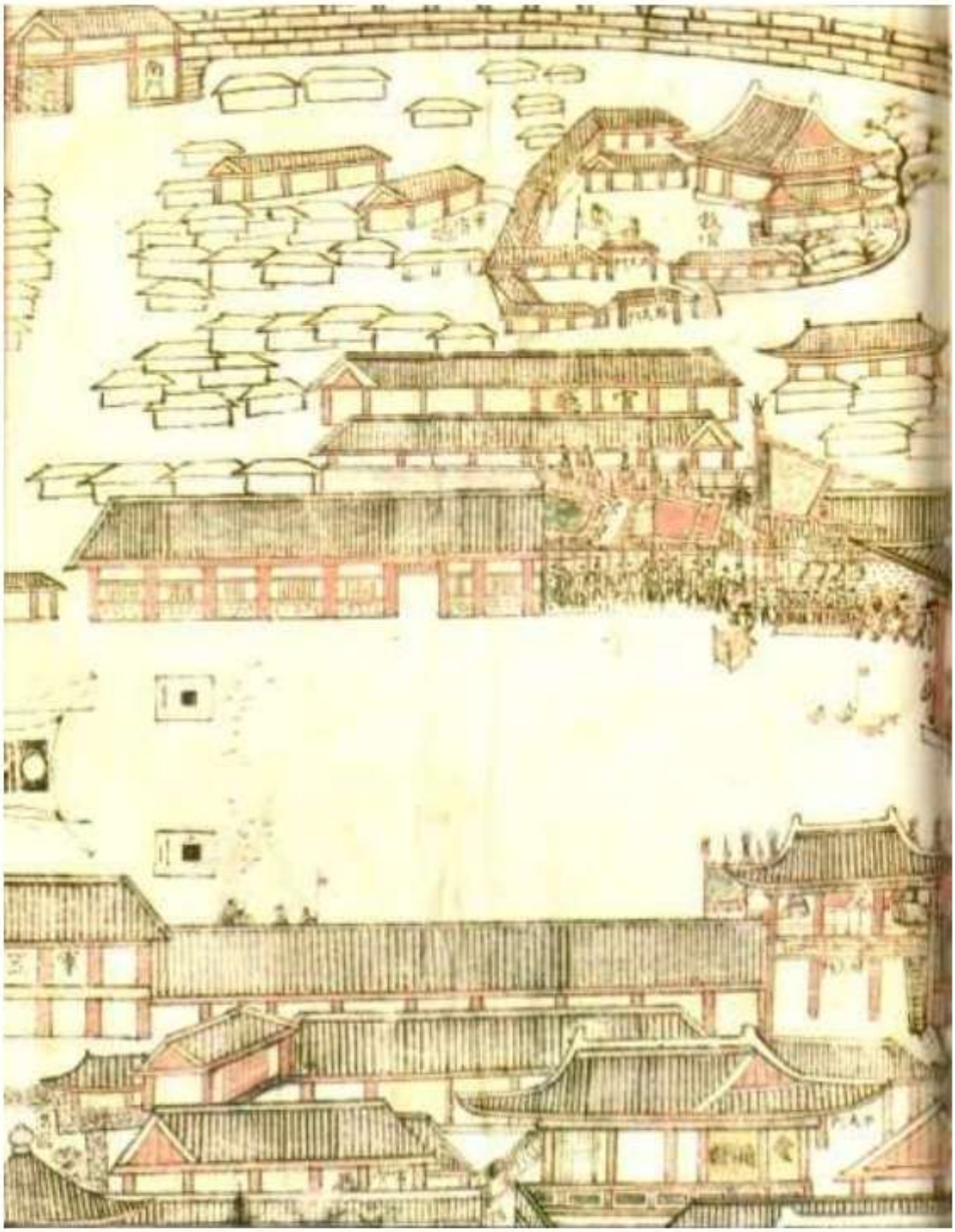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져감을 안 이성계는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큰 뜻을 고하고 가호를 빌었다. 한라산에도 몸소 와서 치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신은 단번에 이를 거절해 버렸다. 신하로서 어찌 그런 불충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산신은 모두 허락하는데 한라산신만은 유독 용서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성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여 송경(松京)으로 군사를 몰았다. 천하를 잡아 등극하자, 이태조는 곧 한란산신에게 칙서(勅書)를 내렸다. 혁명에 동의와 협조를 아니했으니, 귀양 보낸다는 내용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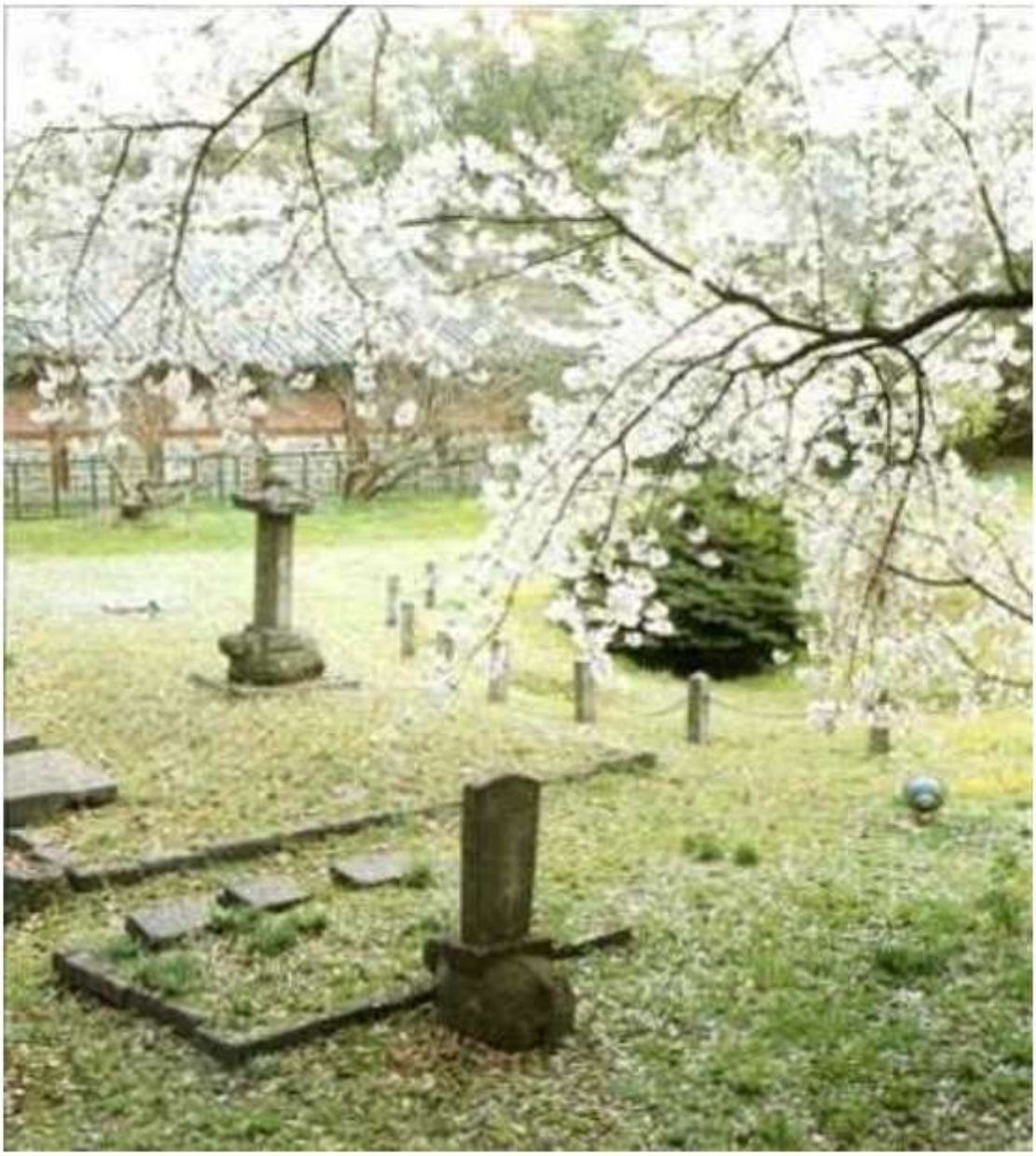
칙서의 내용은 자세히 알 길이 없되 가히 우스운 전설이다. 이만 하면 인간의 무도도 극에 달한 감이 없지 않다. 요까짓 일에 홀홀히 채비를 차리고 귀양길을 떠날 한라산신은 아니리라.

오늘날도 한라산신은 건재하다. 그 담아한 영기와 강직한 기계와 신비로운 힘이 우리의 핏줄과 핏줄 속에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기상이며 지혜며 무한히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第２章
濟州市傳說



神人湧出神話깃든 三姓穴

三姓穴은 濟州島 原住民의 發祥地로 三神人이 湧出하여 수렵생활로 皮衣肉食 하다가 五穀六畜을 가지고온 碧浪國의 三公主를 맞이하여 이땅에 農耕生活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開拓하였다는 地神族說 神話가 깃든 곳으로서 地穴은 品字型으로 나열되어 있다. 三姓穴의 造成은 中宗21년(11526년) 李壽童 外使가 三姓穴 周圍 280餘尺에 石垣을 쌓고 穴의 北쪽에 紅門과 穴碑를 세워, 三姓의 後裔로 하여금 春秋祭를 모시게 함과 아울러 每年 1月 上丁日에 道旻으로 하여금 穴祭 를 모시게 하였다.

肅宗 24년(1698년) 柳漢明 節制使는 三姓穴 東쪽에 三乙那廟(現三聖殿)를 세우도록 하므로서 三姓廟는 더욱 聖城化 되었으며 肅宗 28年(1702년) 李衡祥 節制使가 朝廷에 告하여 三聖廟를 嘉落川 東쪽 正廟坐地로 옮겨 세우고 高厚, 高淸, 高季 三兄弟를 配享하도록 하였다. 英祖 16年(1740년) 安 牧使는 三姓의 後裔中에서 三姓廟生과 靑任을 두었고 英祖 48年(1772년) 梁世絢 防禦使는 三姓穴 外檣을 쌓음과 동시에 소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祭田을 마련하여 鄕廳으로 하여금 穴祭를 모시되 牡年 3頭를 犧牲으로 쓰도록 하였으며 三姓廟記를 作成하였다. 純宗27年(1827년) 李行敎 防御使는 奠祀廳을 創建했고 憲宗15年(1849년) 張寅植 防御使는 崇報堂을 세우고 百齊生을 復設하여 節目을 成及하였다. 또한 哲宗 2年(1856년) 高性奎가 穴擅碑를 改堅하고 高宗 2年(1865년) 梁憲洙 牧使가 境域內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高宗 26年(1889년) 송구호 防御使가 典祀廳을 重修하고 高宗 9年(1890년) 三姓祠祭閣을 穴擅東쪽에 改建하고 穴擅碑를 세웠다. 1919年 崇報堂과 擅直舍를 重修하는 등 歷代 牧使와 後孫들이 治績으로 三姓穴은 더욱 존엄시 되고 있다. 祭禮는 4月 10月(祭)과 10月 10日(秋祭) 12月 10日(穴祭)에 지낸다.



神龍들이 놀던 湖水 **龍　　淵**

濟州市街地 서쪽에 있는 漢川 의 下流이며 이 河川은 乾川이나 이곳 만은 湖水를 이루고 水量이 풍부한 地下水가 솟아나 바다에 沿해 있으면서도 漾水湖이다.

이 계곡호수는 熔岩裂谷으로 폭은 약 20m나 되며 양쪽 암벽은 濟州 玄武岩의 발달한 住腸節理膚으로 水面상의 높이 7~8m나 되며 계곡의 양어깨마루에는 연중 상록수가 짙푸르게 덮혀 바닷가에 있는 깊은 湖水 계곡으로 有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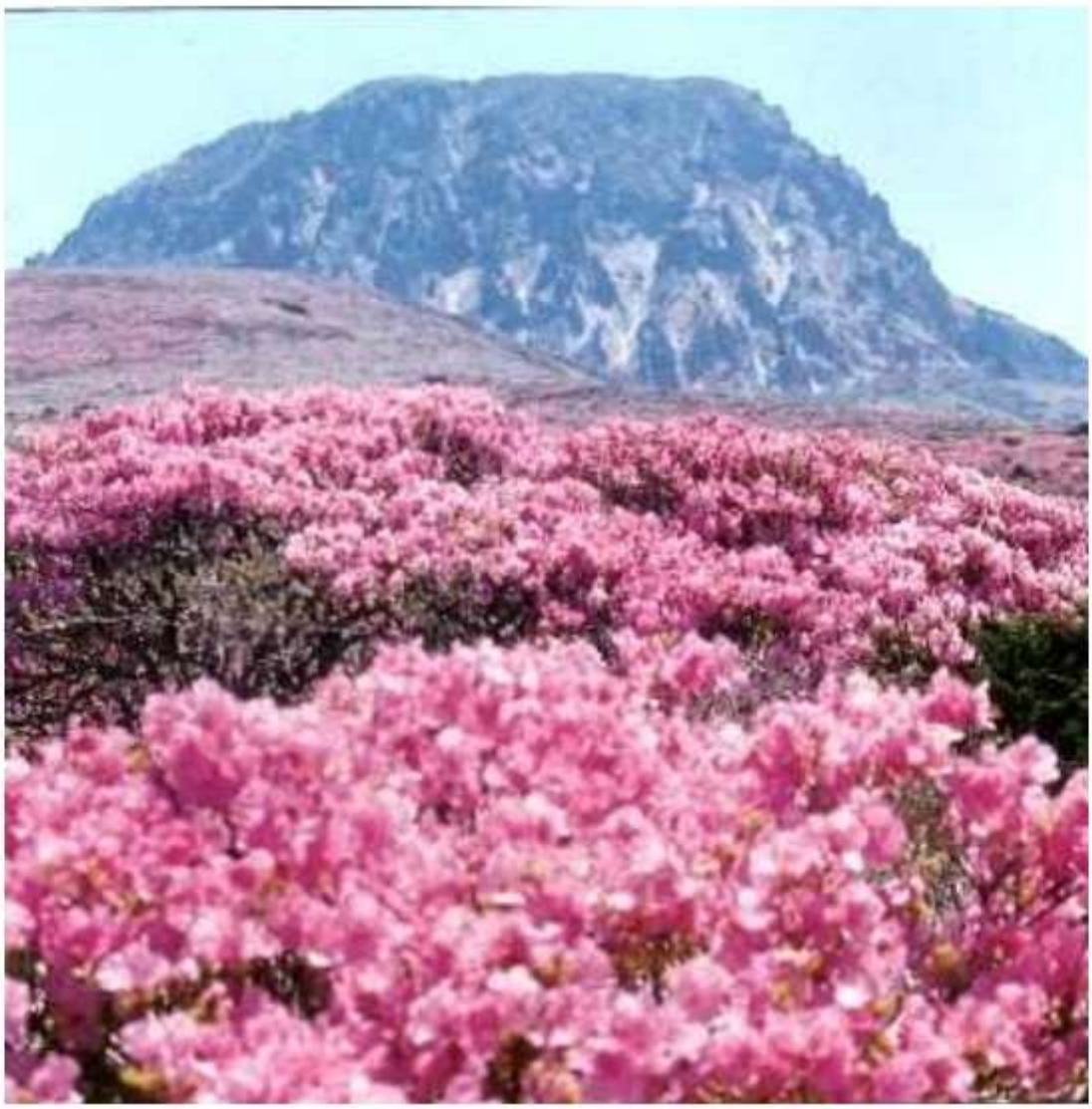
호수 양쪽 약 200m, 구간에 병풍처럼 처진 암벽에 물속까지 드러다 보이는 밝은 호수는 선비, 墨客 時人들의 뱃놀이터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토록 물이 맑고 깊어 옛날에는 龍頭岩에 사는 神龍이 이 물에서 놀았다해서 龍水·龍淵이라 이름 붙였다.

옛 시인들은 양쪽 암벽이 푸른이끼가 덮이고 위엔 深山幽谷같은 푸른숲이 우거져 푸른 병풍이 江水에 세워져 있는듯 하다해서 이곳을 취병담이라 이름 붙이고 동쪽 석벽에 刻했다.

數年前約까지도 이 刻 이 선명했으나 그동안 계속된 風化와 이끼가 심하게 끼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고 나무가지만 드리워져 있다. 가뭄이 계속되면 이곳에서 祈雨祭를 지냈고 그 영험이 있어 그때마다 비가 내렸다고 한다.

특히 여름밤 달이 뜨면 양쪽 石屛사이의 明鏡之水같은 맑은 물위에 달이비치면 마치 하늘과 땅에 두개의 달이 있는 것 같고 계곡따라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와 배를 띄워 더위를 시키기엔 더없이 좋아 龍淵夜帆이 瀛洲十二景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진달래의 꽃바다 瀛丘春化

濟州市 漢川琴의 上流 약 6㎞지점 행정 동명이 오등동인 곳이 있다. 이곳은 上流에서 내려오는 두 줄기의 계곡이 하나로 合流되면서 그곳에 거대한 암석 「터널」이 있고 이곳을이라 한다.

이 河川은 계곡높이가 10여m 너비가 30~50여m나되며 지금은 만이 없어졌으나 옛적에는 계곡양쪽 절벽에 진달래라 불리는 제주참꽃이 많아 봄이면 계곡전체가 참꽃으로 덮혔으며 더우기 이 訪仙門이 있는 지역은 곳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어 그 물에 분홍꽃에 비치어 계곡은 바닥까지 온통 꽃으로 덮인 듯했다.

그래서 옛적에는 제주에 부임하는 牧使들은 봄철마다 官妓와 六房官屬을 거느리고 이곳에 봄놀이를 햇고 時人, 墨客, 風流客들도 이곳을 즐겨 찾앗는데 그들의 訪仙門에서 1日淸遊하며 암벽에 써 조각한 마애비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들은 瀛洲에선 이만한 奇岩妙石과 꽃이 아름다운데가 없다고 여겨 이곳을 瀛丘春花라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한라산의 철죽꽃이 영구춘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곳에는 遇仙臺라 刻名해진 큰 암석이 있는데 이 바위는 옛날 孝誠이 지극한 한 초부가 神仙과 만났다는 傳說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神仙이라도 내려와 노닐 수 있다는데서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천바닥은 瀛洲의 다른 河川과 마찬가지로 용암이 분출할 때의 거대한 화산탄, 화산역등이 같이 분출하여 오랜동안의 風化와 流水에 의한 圓磨度가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 절벽에는 구슬잣, 밤나무 등 난대성 식물로 덮여 있고 이같이 경관이 좋은 구간은 약 200여m나 된다.



齊州史 證言의 寶物 **觀德亭**

이 亭漢은 李朝時代 建物로서 世宗 30年,(1448년) 按撫使 辛淑晴이 兵士의 訓練과 武藝修練 場으로 使用키 위하여 創建하엿다. 觀德이라 함은 <射者所以觀盛德也>라 하여 平素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德을 닦는다는 듯이며 文武의 올바른 情神을 본받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觀德亭은 成宗 11年(1480년) 牧使 梁讚이 重修하고 肅宗 15년(1690년) 節制使 李宇恒이 改建하였다. 또한 英祖 29年(1753年) 防御使 金夢奎가 重創하고 正祖 3年(1779年) 防御使 崔應浩가 重修하였으며, 哲宗 2年(1851년) 防禦使 李玄功이 改建하였다. 그리고 高宗 19年(1882년) 防禦使 朴善陽이 補修한후 大正 13年(1924년) 島司 前田善次가 補修하면서 15尺이상 나온 처마를 2尺이상 짤라 버렸다. 지금 건물은 1968년 전면 해제하여 原形 復元한 것이다.

觀德亭 建物의 座向 東向을 하고 있으며 構造는 二重基壇위에 前面 五間, 側面 四間으로 單層 八作지붕 겹처마 집이다. 또한 二翼工집으로 처마가 길었던 것이 特徵이며 四方은 窓戶없이 開放한 亭子樣式이다. 觀德亭의 扁額은 世宗大王의 세째 아들인 安平大君의 글씨이며 亭內 天井의 耽羅形像과 湖南 第一亭은 防禦使 金永綏 朴善陽의 扁額이다. 그리고 觀德亭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壁畫가 大梁밑의 長舌 兩面에 그려졌는데 作者는 알수 없으나 상당히 격조높은 作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림의 內容은 杜甫의 醉過楊州, 十長生圖, 商山四浩, 赤壁大捷圖, 大狩儐圖, 鴻門宴 等이다.

濟州市篇

Ⅰ. 自然傳說

1. 삼성혈(三姓穴)

삼성혈은 일명 모흥혈(毛興穴)이라고도 한다. 삼성혈에서 고씨, 양씨, 부씨 세사람의 신인(神人)이 나왔다.

이들은 형과 동생을 정하기 위하여 활을 쏘기로 했다. 활을 쏜 결과 고씨가 제일 멀리 쏘아 큰 형이 되고 그다음 양씨, 부씨순으로 정해졌다. 고양부 세 신인이 활을 쏘았던 곳이 제주시 화북동 조금 넘어간 곳인데, 이곳에 지금도 삼사석(三射石)이 남아 있다.

세 신인이 이렇게 형과 동생을 정하고 사는데 곡식이 없어 사냥으로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해변가를 돌아다니다 보니 파도에 세개의 상자가 떠오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겨 한 사람이 하나씩 꺼내어 열어 보니 여인 한 사람과 오곡씨가 있었다. 서로 배필을 정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니 이 세 신인이 제주도민의 선조가 되는 것이라 한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88) 제보

2. 관덕정(觀德亭)

제주시내 중심에 위치한 관덕정(觀德亭)은 호남 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부를 만큼 매우 웅장한 정자이다. 이 건물은 세종 30(1644)년 당시 목사(牧使)였던 신숙청(申淑晴)이 군사훈련청으로 창건했다는데, 그 상량식(上梁式)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이 정자를 지으려고 할 때 목사는 전국에서 유명한 목수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집은

다 지으면 쓰러지고, 지으면 쓰러지곤 하였다. 일류 목수들이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목수들은 이번만은 쓰러지지 않게 지으려고, 더욱 치밀한 계획을 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중이 지나다가 삿갓을 들어 바라보며,

"또 쓰러지겠는걸."

하고 중얼거렸다. 목수들이,

"자기가 뭣을 안다고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고 야단을 치자, 중은 묵묵히 삿갓을 덮어쓰고 가 버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집은 완공이 되자마자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그제야 전번 중의 이야기가 뜻이 있는 말임을 깨닫고 그 중을 사방으로 찾았다. 한 달 만에 겨우 그 중을 찾고 가르쳐 주기를 극구 애원했다. 중은,

"닭이나 돼지 상량식으론 안 되고 인상량식(人上梁式)을 해야 합니다."

고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사람을 희생하여 상량식을 합니까?"

"어렵지 않읍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상량을 할 것으로 준비하여 '상량!'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던 솥장수가 죽을 것이니, 그를 희생으로 하여 상량식을 하면 됩니다."

중의 가르침이 이치에 닿지 않은 것 같지만, 그대로 할 것으로 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상량할 날짜가 되었다. 목수들은 상량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동쪽에서 솥장수가 큰 솥을 머리에 이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솥장수는 꼭 관덕정 앞 마당까지 이르렀을 때 군중들이 웅성웅성하고, '상량!' 하는 큰소리가 울렸다. 솥장수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머리를 들어 쳐다보려고 했다. 순간, 솥이 무거워 넘어지며 솥장수는 솥의 언저리에 목이 깔려 그 자리에 죽었다.

과연 중의 말대로였다. 목수들은 이 솥장수를 희생으로 하여 상량식을 지냈다. 그제야 관덕정은 다시 쓰러지지 않고 완공이 되었다 한다.

제주시 용담1동 홍순흠, 박용하(남•) 제보.

3. 말머리

제주시 용담동 다끄내(修根洞) 곁 바닷가에 「말머리」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는 배 큰 정서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배 큰 정서방은 다끄내 사람이었다. 배가 몹시 커서 한 섬 쌀밥과 돼지 한 마리를 먹어야 겨우 배가 차는 정도였다. 그래서 '배 큰 정서방'이라고 불리었다. 그는 배가 큰 대신

힘이 또한 장사였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이 자식을 먹여 살려 보려 했지만 도저히 먹여 살릴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관가에 보고하여 해결해 주도록 요청했다.

관가에서 조사해 보니, 정서방은 무서운 장사였다. 이놈을 그대로 살려 두었다가는 나라를 해칠 우려가 있겠다는 의논이 돌았다. 마침내 정서방을 죽이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정서방은 관가에 불려갔다. 죽이려는 눈치를 채고, 정서방은 '내 소원을 한 번만 들어준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 소원이란 한 번 실컷 배불리 먹어 보고 싶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쌀 한 섬의 밥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 주었다. 배 큰 정서방을 밥자로 드근드근 떠담으며 한꺼번에 다 먹어 치웠다.

"나를 죽이려거든 큰 바윗돌을 두 팔과 두 다리에 묶어 매어 배에 실어다 바다에 던지면 나는 죽을 것이오."

난생 처음 배부를게 먹은 정서방은 이렇게 말하고 벌렁 드러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관가에서는 큰 바윗돌을 팔과 다리에 각각 묶어 바다에 실어다 던졌다. 그래도 정서방은 물 속에 곧 가라앉지 않았다. 3일 동안이나 물 위로 우꿋우꿋 올라와서는,

"어머니, 저는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부모는 가슴이 아팠으나 살아나와서 배고파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여 살라고 하지를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배 큰 정서방은 소리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자, 이 바닷가에 커다란 백마가 바닷물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왔다. 백마는 물 위로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로 향하여 세 번 크게 울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은 배 큰 정서방이 탈 말로서 주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만일 정서방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 백마를 타고 큰 장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말이 머리만 내일었다가 들어가 버렸다고 해서 이 곳을 「말머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시 용담2동, 고성길(남•) 제보.

4. 베락구룽

옛날 제주시 도두동(道頭洞) 다호부락(多好部落)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어느 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잘 자라서 열 일곱 살이 되었다.

어느 날 부모는 성안(城內;지금의 제주시)까지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어 아들을 보내었다. 꽤 시간이 걸리려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금방 돌아왔다. 확인을 해 보니 성안까지 다녀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빨리 다녀 올 수가 있을까, 날아서나 갔다 왔다면 몰라도.'

부모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하루는 비가 줄줄 내리는 날이었다. 부모는 다시 아들을 성안까지 심부름을 보내었다. 어떻게 다녀오는가를 살펴보자고 해서였다.

이날도 아들은 금방 성안까지 다녀 돌아왔다. 부모는 아들이 눈치 안 채게 곧 신을 점검해 보았다. 비가 오는 날이니 짚신 창에는 흙이 더덕더덕 붙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짚신 창에는 흙이 한 점도 붙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날아서 갔다 온 것이 분명하다.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부모는 아들을 꾀어 술을 먹였다. 멋도 모르고 술을 먹은 아들은 취해 쓰러졌다. 아들이 막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서 부모는 아들의 겨드랑이를 들추어 보았다. 과연 큰 새 날개만 한 날개가 달려 있었다.

부모는 겁이 덜컥 났다. 만일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이 났다 하여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다. 부모는 집안을 위하여 날개를 끊기로 결심했다.

칼을 갈아 왔다. 딱 날개를 잘랐다. 그 순간이었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듯하더니 벼락이 딱 떨어졌다. 그 집은 간 데 온 데 없고, 그 자리엔 못이 하나 패어졌다. 그래서 이 못을 「베락구뭉」이라 부르게 되었다.

제주시 도두동, 문장부(남•) 제보.

5. 백록담(白鹿潭)

아득한 옛날부터 한라산은 신선이 놀던 산이다. 신선들은 흰 사슴을 타고 여기저기 절경을 구경하고 정상에 있는 백록담에 이르러 그 맑은 물을 사슴에게 먹였다. 그래서 백록담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지금은 한라산을 이웃집 출입하듯 등산하지만, 옛날엔 신선들밖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사람이 반쯤만 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꽉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었다. 이것은 선경(仙境)에 인간이 올라 올 수 없도록 신선이 조화를 부리기 때문이다.

백록은 신선이 타는 말이어서 사냥꾼들도 잡지 않았었다. 만일 백록을 쏘았다고 하면, 그 사냥꾼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옛날 교래리(朝天面 橋來里) 감발내(川) 곁에 살던 안씨 포수가 백록을 쏜 일이 있었다. 그는 140세까지 살았는데, 일생 포수로만 살아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이건 보

였다 하면, 백발백중 맞혀 잡았다.

어느 날 산중을 돌며 짐승을 찾고 있었는데, 저쪽 숲에서 사슴이 한 마리 내달았다. 안 포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팡하고 총을 놓았다. 맞았는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여느 때처럼 달려가서 사슴의 위를 덮치며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 사슴의 배를 찔렀다.

'이젠 한 놈 잡았다.'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에야 정신이 들어 짐승을 보니 백록이었다. 안 포수는 정신이 아찔했다. 확 칼을 뽑으며 한 10보 물러나 엎드렸다.

"과연 몰라 뵈었읍니다. 잘못 봐 가지고 이런 대죄를 범하였읍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극진히 빌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아났다. 만일, 그렇게 빌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김두익(남•78) 제보

6. 방선문(訪仙門)

방선문은 제주시 아라동(我羅洞) 들판에 있는 절경인데,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쳐온 경승지이다.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기도 했던 곳으로,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해 중복날 여러 선비들이 방선문에 가서 반석(먹돌판) 위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선비가 돌연 야심을 품기 시작했다. 중복날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이 곳에서 목욕을 하고 간다고 하니, 한번 구경이나 해 보자는 속셈이었다. 야심을 품은 선비는 여러 친구들이 바둑시합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도 혼자서 남아 바위틈에 숨어 있었다. 아니나다를까, 사오시(巳午時)가 될 무렵에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옷을 벗어 놓고 목욕하기 시작했다.

숨어 기다리던 선비는 아름다운 선녀들의 몸매를 구경이나 해 보려고 바위 틈에서 머리를 쑥 내밀었더니, 마침 한 선녀가 이를 보고 말았다. 그 선녀는 깜짝 놀라며, '인간세계 사람이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본다'고 고함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리에 같이 목욕하던 선녀들도 황급히 옷을 입고 옥황(玉皇)으로 올라가 버렸다.

옥황상제는 목욕하러 인간세상으로 내려갔던 선녀들이 급히 올라와 버린 것이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들 속히 올라오게 되었느냐?"

"우리들이 목욕하는 것을 인간세계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올라왔읍니다."

"그 놈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까?"

"혹, 있을 것입니다."

옥황상제는 오방신장(五方神將)들을 시켜 인간세상으로 내려가 그 선비를 잡아오도록 하명(下命)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방신장들은 인간세계로 내려와 그 선비를 잡아다가 옥황상제 앞에 꿇어 앉혔다. 괘씸하게 생각한 옥황상제는,

"어째서 그렇게 불순한 행위를 하였는냐?"

"그런 게 아니오라, 선녀들이 목욕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조금만 쳐다보려고 했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읍니다."

"내가 당장 너의 목을 치고 싶지만 살려주겠다. 대신 너는 백사슴이 되어서 한라산 백록담(白鹿潭)이나 지키도록 해라."

선비는 백사슴이 되어 백록담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옛날 제주도에 사슴이 많았을 적에는 한라산에 비가 오려고 하면, 흰 사슴이 나와서 끽끽끽끽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곤 했었다.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안용인(남•78) 제보,

7. 이여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무인도인 '이여도'로 가서 첩을 정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어 버린 아내는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배 한 척만 지어주시겠읍니까?"

"뭣 할려고?"

"남편을 찾아보겠읍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선흘(朝天面 善屹理) 고지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다. 어느 날 화창한 날을 택하여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이여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다. 이여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거의 며느리 혼자서만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뱃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힘겹게 이여도에 이르렀다. 과연 남편은 새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와 본처의 설득을 받게 되자, 하는 수없이 가족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했다. 온 가족은 한 배에 타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파가 몰아닥치는 통에 몰사당하고 말았다.

그후, 그 고향 사람들은 풍파를 만나 몰사한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당제(堂祭)를 지내 듯 늘 제사를 올렸다.

지금도 이여도라고 하는 섬은 분명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김순여(여•61) 제보.

8. 선문대할망(Ⅰ)

제주도에 고, 양, 부 3을라가 태어난 시대에 선문대할망은 비록 여자지만 제주도를 통치할 야욕을 품고 왔으나, 사불여의(思不如意)하자 물에 빠져 죽고 만 인물이었다.

선문대할망이 살아 있을 때 빨래를 할려고 하면, 왼쪽 발은 성산 일출봉(城山日出峰)에 닫고 오른쪽 발은 마라도(馬羅島)에 딛고 서서 옷을 서귀포쪽에 있는 직기섬에 놓고 빨래했다.

또, 북쪽 바다에서 빨래를 할려고 하면, 추자도(楸子島)와 완도에 발을 딛고서 보길도(甫吉島)에 옷을 놓고 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선문대할망(Ⅱ)

옛날 제주도에 선문대할망이 있었는데, 그의 키는 왼쪽 발은 한라산에 딛고, 오른쪽 발은 산방산(山房山)에 딛고 서서 태평양 물에 빨래할 정도였다.

어느 날에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속에 몸을 담궜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죽어 버린 듯하다.

제주시 이도2동, 김선우(남•62) 제보

선문대할망(Ⅲ)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안용인(남•79) 제보

선문대할망(Ⅳ)

○옛날 설명두할망 또는 세명뒤할망이라고 하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한쪽 발은 소섬을 밟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었다.

○제주도의 많은 산(오름)들은 할머니가 삽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 줌씩 집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구좌읍(舊左邑) 경에 있는 「도랑뒤산」은 움푹하게 패어져 있다.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오리를 탁 쳐 버렸더니 움푹 패어진 것이다.

○성산리(城山邑 城山里) 일출봉에는 많은 기암(奇岩)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또 있다. 이 바위는 설명두할망이 길삼을 할 때에 접시불(솔불)을 켰던 등잔이었다. 처음은 위에 다시 바위를 올려 놓지 않았는데,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얕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올려 놓아 등잔을 높인 것이다. 등잔으로 썼다고 해서 이 바위를 등경돌(燈檠石)이라 한다.

○성산리(城山邑 城山里) 앞바다에 있는 소섬(牛島)은 처음부터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옛날 선문대할망이 한쪽 발은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의 식산봉(食山峰)에 디디고, 한쪽 발은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쌌다. 그 오줌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패어지며 오줌이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제주섬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이다. 그 때 흘러나간 오줌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줌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지금 고래•물개 따위도 살 수 있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 때 세차게 오줌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 여기에서 배가 깨어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서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다.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남•) 제보

9. 용연(龍淵)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기암(奇岩) 용두암(龍頭岩)이 있고, 용두암 바로 서쪽에 용연(龍淵)이라 부르는 물이 있다. 이 물은 용천수인데, 바다와 연해 있고 하나의 늪의 모양을 하고 있다. 어떤 가뭄에라도 물은 마를 줄 모른다.

그래서일까, 옛날부터 바로 이 용연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면 칠년대한(七年大旱)에라도 비가 반드시 온다는 속신(俗信)과 함께 다음과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제주 섬에 칠년대한(七年大旱)을 만나 구년흉년(九年凶年)이 든 때가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기우제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 번번이 허사였다. 굶어죽는 백성들도 있었다. 관가에서마저도 하늘만 쳐다보며 안타까와 할 수 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고 있을 즈음에 제주목(濟州牧:현 濟州市)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기우제를 올린다면 자신있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은 귀에서 귀를 타고 드디어 직통 관가에 들어갔다. 동헌의 사또가 귀가 솔깃했다. 관졸들을 풀어 그 사람의 정체를 찾고 당장 동헌으로 불러들이도록 지시가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속칭 '고대정'이라 하는 사람이었다. 고대정은 어느 날 술을 얼근하게 취하고 취김에 '내가 기우제를 올린다면 비는 오고야 말 것이야!'라고 지꺼렸던 말이 귀에서 귀로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고대정은 거의 끌리다시피 관가로 들어가 사또 앞에 끓어 앉았다. 잠시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사또의 말은 슬며시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자네, 기우제를 지낸다면 비가 온다고 자신했던가?"

"그렇게 말했던 적은 있읍니다만,....."

조금은 자신이 없는 듯한 대답이었다. 그렇지만 사또는 다그쳐 물어나갔다.

"자신이 있어서 했던 말로 이 사또는 믿는데, 자네가 기우제를 올리기만 하면 비가 오겠지!"

호통에 가까운 사또의 질문이었다. 아니 명령이었다.

"자신할 수는 없겠읍니다만, 제물을 차려주신다면....."

"자네가 요구하는 대로 제물을 우리 관가에서 준비하겠으니, 기우제를 올려라."

고대정은 그 말이 하나의 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작달막한 고대정의 몸에 태산같은 무거운 근심이 억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고대정은 원래 심방은 아니었지만, 기우제를 올리기 위하여 굿만은 주도해야 할 판이었다. 섬 안에 내노라고 뽐내는 심방, 그리고 제비(小巫)들까지도 모여들도록 했다. 굿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서두름과 함께 7일 정성에 들어갔다. 어쨌거나 굿은 고대정이 주도해야 할 판이었다.

굿을 쳐야 할 날이 밝아왔다. 이른 새벽부터 용연 윗언덕 '당팟'이라고 하는 평지에다 굿막을 쳐놓고 '당클'(제단)을 차려 여러 제물을 올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날 짚을 연결하여 묶어 쉰 다섯 발 길이의 용을 만들었다. 이는 고대정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만저만한 인력이 소모된 게 아니었다. 만들어진 용의 꼬리는 바로 이 용연 물에 담가 적셔놓고, 그 머리는 굿막까지 올려 붙였다. 금방이라도 물방울을 토해낼 듯이 아가리는 벌어져 있었다.

굿소리가 울려졌다. 고대정은 굿소리에 맞춰 사방으로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이 굿을 올리게 된 연유를 읊조려 나갔다. 벌써부터 고대정의 이마에 구슬땀이 흐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명천같은 하늘님아, 제주 절도(絶島)에 칠년대한 만나 굶어죽는 백성 많아지와 이 굿을

올립니다…'

고대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고여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내 굿소리는 요란을 더해갔다. 천상천하 모든 신들이 굿판으로 몰려들듯 고대정은 드센 율동으로 신들을 청해나갔다. 온 천지가 진동이나 하듯이.

굿이 시작된지 칠일이 흘렀다. 이제는 굿판에 청해 들었던 천상천하의 모든 신들을 되돌려 보내야 할 날이었다. 이때까지도 하늘은 더욱 드높아 보여 기우제를 올린 음덕(陰德)은 내려지지 않음이 분명했다. 제주 섬에 칠년 가뭄은 고대정에게만 내려진 듯 온 몸이 사그러지는 것만 같았다. 눈물마저 말라 버렸다. 그래도 마즈막 축원(祝願)을 서글피 올리고 있었다.

'녀러 신전(神前)'님네들은 고이 상(床)을 받아 제 갈 길로 돌아가시건만은, 이내 몸은 오늘 동헌(東軒) 안으로 들어가면 목이 끊기어 죽게 됩니다. 명천같은 하늘님도 이리도 무심(無心) 하옵네까?'

이는 고대정의 마지막 단장의 비념이었다. 바로 이때였다. 사라봉(紗羅峰) 꼭대기로부터 먹장같은 구름이 솟구쳤다. 분명 용의 용트림을 하듯이, 금새 온 천지를 어둡게 꽉 채워 갈것만 같은 구름으로 말이다.

고대정의 눈은 번득이고 있었다. 여러 제비들이 만들어 놓아 뒀던 용의 몸으로 들어가 발이 되었다. 악기를 든 심방들은 요란스레 무악을 울렸다. 무악에 맞춰 용은 용트림을 부리며 동헌으로 달리고 있었다. 용이 비를 몰고 오듯 이내 비는 쏟아져 내려왔다. 벌써 동헌 마당에는 사또를 비롯한 이방(吏房) 형방(刑房), 그리고 여러 섬 안의 관장(官長)들이 도포를 입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내 곧추 용은 무악에 맞춰 용트림을 부리며 동헌 마당에 이르렀다. 모든 동헌 사람들은 큰 절을 올렸다. 그럴 때마다 동헌마당 가득 용의 용트림은 계속되었다. 비는 연이어 퍼부어 내렸다. 그날 밤이 새도록 퍼부어졌다.

밝는 날이었다. 지난 밤 흡족히 비를 맞으 제주 섬은 더욱 검게 푸르렀다. 섬안의 백성들은 너나할것없이 등에 쟁기를 지고 산으로 올랐다. 씨를 붙이는 타령소리는 온 섬에 울려퍼졌다.

그 후로 이 용연은 두고 비를 몰고오는 용이 살고 있는 물이라고 하여 그리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또 몇해전까지만 해도 제주 섬에 가뭄이 들 때면 이 용연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지금도 제주 사람들 중에는 이 용연에는 비를 몰아다주는 용이 살고 있다고 믿는 이가 많다.

제주시 용담동, 안사인(남•69) 제보.

Ⅱ. 歷史傳說

1, 김참봉과 고전적

고전적은 제주시 가물개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리 역사에 능통했다.

고전적이 어렸을 때 광산 김씨 조상인 김참봉 훈장 서당에서 글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여러 방면에 특출하였는데, 그중 풍수지리에 능통했다. 그러나 서자 출신이라 상놈과 같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고전적이 하루는 사또에게 양반 신분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고전적의 이런 간청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번엔 고전적이 사또에게서 물러나와 김참봉 훈장을 찾아가 간청을 했으나, 김훈장 역시 사또와 더불어 절친한 사이라 허락해주지 않았다.

고전적은 김훈장이 자신에 대해 너무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

"어디 상놈이 양반 되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호령하던 김훈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게 아른거렸다.

마침 김훈장이 세상을 떠나자, 자손들이 고전적에게 와서 좋은 명당 자리를 봐 주도록 간청했다.

고전적은 잘 됐다 싶어 김훈장에 대한 원수갚음으로 아주 험지를 장지로 지정해 주었다. 이 양반, 마음씨가 나빴으니 고생해 봐야지 하고 험지에 묻게 했는데 바로 풍로(風路)였다.

그런데 김참봉의 수제자가 한양에 가서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들을 조사하여 제주에 내려와 스승인 김훈장을 찾았으나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살았을 때 뵈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뵙게 되는구나. 묘소에 참배라도 해야 하리다. 김훈장의 집을 찾아 자손을 불러 훈장의 묘지를 가리키도록 했다.

"훈장님을 어느 곳에 안장했는가?"

"아무 곳에 했읍니다."

"함께 가보자. 훈장님께 인사 올려야 하겠다. 살았을 때 은혜를 갚지 못했으니 죽어서이지만 은혜를 갚아야겠다."

어사가 훈장의 묏자리를 찾아가 살펴보니 떡하니 풍로에 묻혀 있었다.

허허. 이런 험지에다 묻다니.

"누가 이 묏자리를 봐서 묻으라고 했느냐?"

"고 아무개라는 제자가 풍수인데 여기에 묻으라고 묏자리를 정했읍니다."

"그 사람을 빨리 가서 데려오라"
김훈장 아들이 암행어사의 분부를 받들고 급히 가서 고전적을 데려왔다. 어사가 고전적을 보자마자 따지기 시작했다.
"너 이곳 묏자리를 알면서 정했는가? 모르고서 했는가?"
고전적이 이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사실대로 대답했다.
"예, 알고 했읍니다."
"어찌해서 알면서 이런 곳에 장사 치르게 했느냐?"
"이 양반이 살았을 때 저에게 행실을 고약하게 했읍니다. 살았을 때 원수 갚지 못하고 죽어서 하려고 그렇게 했읍니다."
"원수는 무슨 원수냐?"
"내 신분이 원래 서자 출생인 것이 원통했읍니다. 조금이라도 양반 신분을 달라고 간청했으나 허락하질 않았읍니다. 그런 까닭에 죽어서 원수 갚으려고 험지에 묻게 했읍니다."
고전적이 사실대로 엎드려서 사연을 말하자 어사는 고전적의 못된 행실을 꾸짖고는 고전적이 지리에 대한 실력을 살폈다.
"훈장도 너를 학대했으니 잘못이지만 네 또한 행실이 나쁘다. 네가 신기할 정도로 지리에 밝다고 하니 훈장의 명당을 점지해 둔 데가 있느냐? 한번 좋은 묏자리를 찾아봐라."
어사는 미리 묏자리를 찾아 그 위에 앉고는 고전적에게 시켰던 것이다. 고전적이 한쪽을 가만히 보다가 어사에게 와서는 일어설 것을 부탁했다.
"어사님,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면 묏자리를 점지하겠읍니다."
이말을 들은 어사는 바로 일어서면서 고전적의 등을 두드렸다.
"너도 기특한 재주를 가졌다. 그만한 능력이면 충분히 써 먹을 수 있겠다. 이제 네 스승이 살았을 때 너에게 학대한 일을 용서하고 너도 스승에게 잘못한 일을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너에게 전적 벼슬을 줄터이니 그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어사가 고전적에게 전적벼슬을 시켜 주었다. 그리고 김훈장 묏자리는 이장했고 제자인 어사는 새 묘소에 참배하고 돌아갔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2. 고전적(高典籍)

고전적이 어렸을 때 서당에 공부하러 다녔으나 훈장이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장난이 심했다. 집에서도 글을 배워야 할 텐데 훈장에게까지 대들어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두모에 사는 강훈장이 이 소문을 듣고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만약 가르치는 도중에 훈장에게 복종을 하지 않가나 덤벼들 때는 송곳 같은 쇠꼬챙이로 찌르며 가르치겠다고 부모에

게 승낙을 얻었다.

고전적은 이렇게 엄한 훈장밑에서 배워 지리에 대해서는 신통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강훈장이 한양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가문이 좋은 집 독자인데 행실이 불량해서 글을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강훈장은 그 집을 찾아가 가르치고 못 가르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훈장님, 제 아들이 불량하여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하니 제 자식을 부탁 드립니다."

"내가 가르치긴 하겠으나 나에게 맡긴 이상은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남자로 태어나서 잘 배워야 하므로 어떠하든 잘 가르쳐 주시기만 하십시오."

훈장은 부모로부터 승락을 받고 쇠꼬챙이를 마련해서 엄격히 지도했다. 그 결과 제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임금을 보좌하는 암행어사가 되었다.

스승 덕택에 내가 암행어사가 되었으니 스승을 찾아봐야 하겠다. 훈장을 찾아 암행어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제주에 훈장을 찾고 보니 매우 빈곤하게 살고 있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드려 생활에 보태쓰게 하고는 돌아갔다. 몇년이 지난 후에 스승이 돌아갔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주에 내려왔다.

강훈장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물으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훈장 아들에게 묘소를 가리켜 달라고 했다.

암행어사가 된 훈장제자 역시 지리에 아주 능통했다.

"훈장님 묘소가 바로 저기 있읍니다."

"그렇지 않다."

그 묘소는 지리에 능통하다는 고전적을 벌어다 정했었다. 살았을 때 쇠꼬챙이로 머리를 찔렀던데 대한 원수 갚음으로 바람길에다 묻도록 한 것이다.

"이 묘소를 누가 봤느냐?"

"예. 저의 부친의 제자가 되는 고아무개가 보았읍니다."

"그런가. 그자를 불러라."

고전적이 오자 어사는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다.

"그대도 우리 스승에게서 글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묘소를 정했느냐?"

"예. 제가 했읍니다."

"묘혈이 어떠냐?"

"나쁩니다."

"어떤 사유로 스승님을 이렇게 나쁜 곳에다 안장하도록 했느냐?"

"내 어렸을 때 좀 불량은 했지만 스승님이 쇠꼬챙이로 나를 찌르니 이 원수를 살았을 때 갚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좀 고생을 시키려고 그랬읍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선생님을 고생시켰으니 이제 그만 시키고 당장 이묘하면 어떠냐?"
"예. 그렇습니다."
어사는 정혈(正穴)을 이미 찾아 가만히 그위에 앉아 있었다.
"스승 모실 명당자리를 찾았느냐?"
"예. 찾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사님이 자리를 뜨면 정하겠읍니다."
어사는 벌떡 일어서서 고전적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만하면 너도 지리를 잘 본다."
어사는 훈장아들 보고 이묘에 대해 자세히 지시를 내렸다.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 택일해서 이묘해라. 꼭 이곳을 파 보면 스승의 체골이 있으니 금방 지정한 자리에 묻어라."
고전적은 장계처자(長系妻子)가 아니라 서자출신이었다. 어사가 재주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을 청했다.
"고맙습니다."
한양에 권세있는 집에서 상(喪)을 당하였으나 명당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다. 어사가 명당 찾는 법을 상세히 고전적에게 말해 주었다.
"너와 함께 명당자리를 찾아 돌아보다 내가 발을 한자국 툭 놓을 때 그 곳을 정해줘라. 그렇게 하면 그집이 아주 권세있는 집이니 너에게 무슨 직함을 내려줄 것이다."
어사의 도움으로 고전적이 명당자리를 정해 주자 상제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다. 고전적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고전적은 원래 서민출신이라 높은 직함을 알조 못했다.
"그저 조그마한 벼슬자리 하나 주십시오."
"너 제주놈은 할 수 없구나. 높은 자리를 요청했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좀 덕을 받을 것인데 할 수 없다."
그래도 너무 불쌍하니 전적(典籍) 벼슬을 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 • 74) 제보.

3. 문곡성(文谷城)과 명인들

이조 영조 때, 제주도에는 세 명인이 있었다. 그 당시에 전적(典籍) 벼슬을 지낸 고홍진(高弘進)은 풍수, 좌수 진국태(秦國泰)는 의술, 현감 문영후(文榮後)는 점술로 유명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 태생으로 이조 영조 때 인물들인데, 이들을 두고, 제주가 낳은 세 명인이라 일컫는다.

세 명인은 서로 친하게 지냈다. 육지부에도 같이 나가기도 했고, 서로 만나 환담도 나누곤 했었다 한다.

어느 해에는 같이서 육지부에 나간 적이 있었다. 전라도 곡성(谷城) 지방에 가서 어느 대감 댁을 들어갈려고 할 즈음이었다. 마침, 그 대감 집에는 점술에 능한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점괘에 오늘 이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올 것만 같았다. 그럴 때마다 주인 대감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었다.

"대감님, 오늘은 남방에서 명인 세 사람이 올 것 같읍니다."

남방이란 바로 제주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래."

과연 하인의 점괘대로 저녁쯤에 세 명인이 곡성 대감 댁에 당도했다. 우선 식사를 잘 대접한 후였다. 곡성 대감은 세 명인을 불러 앉혀 놓고,

"자넨 무엇을 하며 살아나가는가?"

의술로 유명한 월계 진좌수에게 묻는 말이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장이나 보아 다녔읍죠."

"음, 그래. 자네는?"

풍수로 유명한 고전적에게 묻는 말이었다.

"지리서(地理書) 장이나 보아다녔읍죠."

"음, 자네는?"

복술로 유명한 문영후에게 묻는 말이었다.

"뭐이며 말며 그저 복술이나 좀 하고 다녔읍죠."

맑은 날이었다. 곡성대감은 전적 고홍진을 데리고 대감이 직접 유념(留念)해 뒀던 자리 근처로 가서 않고서는,

"여기 어데 명당자리가 없을까?"

"있겠지요."

"한번 가리켜 보지."

"대감님 앉은 데가 바로 명당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밥 얻어 먹고 살겠다."

대감과 고전적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엽전 일곱개를 놓고, 그 위에 놋대야를 살짝 덮어뒀다. 문영후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속에 뭣이 있느냐?"

"엽전 일곱 닢이 들어 있을 겝니다."

"너도 밥 얻어 먹고 살겠다."

그 때 마침 대감댁에는 병약한 며느리가 있었다. 대감께서는 의술로 유명한 진국태에게 진찰해 볼 심산이었다. 우선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며느리."

"예."

"우리집에 유명한 의술박사가 한 사람 왔는데, 진찰이라도 한번 해 보자구나."

"어찌 한 여자가 얼굴 모른 남자에게 혈맥을 짚힌단 말이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아옵니다."

완강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곡성대감은 다시 진국태를 불렀다.

"짚맥을 하지 않고서 진찰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 있읍죠."

"어떻게?"

"실을 환자의 손목에 묶어서 끄트머리만 저에게 주십시오."

대감께서 며느리에게 그리하라고 시켰건만, 제주 섬놈이라고 천하게 여겨 손목에 묶어뒀던 실을 풀어서 정동화로 다리에 묶어 버렸던 것이다.

"대감님, 자부는 곧 죽겠읍니다."

"어째서?"

"어찌 혈맥이 사람의 몸으로 나오지 않고, 놋쇠의 맥으로 나옵니다."

깜짝 놀랜 대감은 곧바로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고 보니, 그 실끝이 정동화로 발에 매어져 있는 것이다.

"음, 너도 그만하면 밥 얻어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곡성대감은 제주에서 올라온 세 명인들 중 문영후에게 전라도 곡성군의 군수 벼슬을 내렸다. 그 후로 문영후를 두고 곡성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라 지금까지도 그를 문곡성(文谷城)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1리, 양남학(남·64) 제보.

4. 날개 돋친 밀양 박씨(密陽朴氏)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제주시 외도2동(外都二洞)에 밀양 박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나이가 40이 넘도록 슬하에 일점혈육(一點穴肉)이 없어 허허 탄식하였다. 여기 저기 정성을 들여 돌아다녔는데, 그 덕인지 부인이 포태를 했다.

집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0달만에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으니 아들이었다.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몸이 컸었다. 삼승할망(助産巫)이 아이를 받아 내어 목욕을 시키다 보니, 아이 겨드랑이에 병아리 날개만큼한 날개가 돋친 것을 발견했다. 삼승할망은 순간 놀랐으나, 말이 번지면 위험한 일이므로 모른 척하고 가 버렸다.

아이는 날로 무럭무럭 자랐다. 날개도 날로 커가서 아이가 앉고 기고 할 때가 되니, 큰 새 날개만큼 되었다. 부모의 걱정도 날로 커져 갔다. 날개 돋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다.

아이는 나서 서너 달이 채 못 되었는데, 제 발로 바깥을 뛰어 다녔다.

어느 날 아이는 어머니가 없는 틈에 혼자 밖으로 뛰어 나갔다. 어머니는 가만히 아이 뒤를 밟아 가 보았다. 아이는 그 마을(外都二洞)에 있는 「나라소」라는 큰 소(沼)에 가서 날개를 벌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는 것이었다. 아마 날기 공부를 하는 성싶었다. 어머니는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이가 잠든 새에 옷을 벗겨 보았다. 과연 커다란 날개가 겨드랑이에 돋아 있었다. 아버지는 얼른 인두를 달구워다가 아들의 날개를 지져 버렸다.

그 후, 아이는 다소 기운이 떨어지고 얌전해졌지만, 성장하여 감에 따라 힘이 장사요 머리가 남달리 총명하였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장차 나라를 바로 잡을 일꾼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날개를 지져 버린 자국이 아물지 못하고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조약을 써 보았지만 효험이 없어, 결국 스물 아홉 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 그 무덤은 외도1동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벌초(伐草)하러 갈 때마다 이 조사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한다.

제주시 외도동, 박용하(남•) 제보.

5. 양판관

옛날 오라리(지금의 濟州市 吾羅洞)에 어떤 양(梁)씨가 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는 바람에 계모 밑에서 자라나야만 했다.

계모는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줄 리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부인의 말을 아니 들을 수 없어서 서당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해서인지 성장하여서는 부량아가 되었다. 그러나 힘은 장사였다.

하루는 고기를 먹고 싶어 산으로 올랐다. 들녘에서 노니는 말떼들 앞으로 갔다. 그 중 한 마리를 잡아 억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는, 목자(牧子)들에게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저쪽에 말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잡아먹는 게 어때?"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다. 과연 말 하나가 죽어가고 있었다. 목자들은 병들어 죽는 거라고만 생각해서 잡아먹기로 했다. 양씨는 속셈대로 말고기를 실컷 얻어먹고 집으로 내려왔다.

양씨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장가를 가게 되었다. 장가를 갔지만, 집 한 채도 마련해 주지않는 아버지에 대하여 괘씸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은 아버지를 골려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새벽녘에 아버지가 잠자는 방문 앞으로 갔다.

"주인장 있소?"

"누구요?"

"당신, 아무 가(耳)이가 당신네 큰 아들이지요?"

"그렇소마는……"

"여보시오, 큰아들을 잘 보살펴 준 다음에 차자(次子)들을 생각해야지, 계모의 자식이라고 해서 박대하면 되겠오?"

부친은, 아, 이것이 어떤 일인고 하며 문을 확 열었다. 어데 가서 구해 입었는지, 사령(使令) 복장을 한 사람이던데, 쓱 나가는 것을 보니 아들놈이었다.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계모도 마찬가지였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큰자식부터 공부를 잘 시켰을텐데……'

아침에 며느리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 버릇은 고치질 못할 겁니다. 하오니, 집이나 마련해서 따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달래겠읍니다."

"그렇게 하지."

아버지는 큰 며느리의 말대로 새 집을 마련해서 따로 살도록 해 줬다. 그러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와의 약속대로 남편을 달래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는 그만 부량을 놀아서 저의 말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장기•바둑판을 사다가 드릴테니 동네 친구들과 그거나 두면서 세월이나 보내고 있으면, 제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읍니다."

"그렇게 하지."

약속대로 장기•바둑판을 사다가 주기, 세월아 네월아 노넘놀이만 하는 것이었다. 어느새 한 두 해가 흘렀다. 싫증이 없을리 없었다. 어느 날 양씨는 아내에게로 다가가서,

"여보, 이제는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소.

"일은 무슨 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된 일이나 저지를 생각말고 장기•바둑이나 열심히 두면서 세월이나 보내시지."

"아니, 그것도 너무 심심해서……. 나도 뭐 이만한 육신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오."

"무슨 일은 하겠읍니까?"

"소나 한 마리 있었으면, 밭이나……"

"그 정도야 아버님에게 가서 말하며 주겠지요."

"그럴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로 갔다. 시아버지는 힘이 좋은 소 한 마리를 내주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물론 계모도 기뻐했다.

양씨는 힘도 좋았을 뿐아니라 부지런했다. 집안의 밭들은 물론, 이웃집 밭들까지도 부지런히 갈았다.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기뻐했지만, 그 중에서도 계모가 더욱 기뻐했다.

하루는 밭을 갈러 갔는데, 점심 때가 되면 온다던 사람이 저녁 때가 되어도 나타나질 않았다. 부인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또 바람이 나서 소랑 모두 팔아두고…. ' 그러면서도, 부인은 총총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서야 남편은 슬그머니 들어왔다.

"아니, 낮쯤되면 온다던 사람이 여태 뭘 했읍니까?"

"밭은 사시(巳時)쯤에 모두 갈았지만, 오다가 보니 사장(射場)에서 아무 날 선달과거(先達科擧) 보러 간다고 하면서 활쏘기들을 하고 있게에 나도 좀 쏘아보는 체하다가 이렇게 늦었지."

"참, 잘했읍니다."

이튿날은 집안에 특별히 할 일이라곤 없는 날이었다. 양씨는 아침 일찍 변소엘 가는 듯했는데, 영 나타나질 않았다. 부인은 어젯일도 미심찍었고 해서 동네를 찾아보니, 동녘집에서 부부싸움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거 뭘하고 있읍니다? 어서 와서 아침식사나 하시지요."

"그러지(기영ᄒᆞ주)"

동녘집에서 부부싸움을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끝낸 양씨는 부인에게,

"동녘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로고."

"나도 당신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나서서 보니.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때문이던가요.?"

"그 집 남편이 과길 보러 간다고 해서 부인 몰래 어데가서 무명 네 필을 꾸어다가 화살을 사왔는데, 과거에 합격이나 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는 날에는 무명만 잃어 버릴 게 아니냐고 하면서 싸우는 모양이던데, 내가 무명이나 있었으면 화살을 사다가 과거나 보아봤으면 좋겠네."

"어제 사장(射場)에서 활을 쏘아보니 어떻던가요?"
"별 게 아니더군."
"그러거든, 어머님께 가서 부탁 드려 볼까요?"
"어머님이 무명 네 필을 내어줄까?"
"당신이 어릴 적에는 구박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겝니다."
"그러거든 가서 부탁해 보지."
며느리는 곧장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사실 얘기를 했다. 시어머니는 무명 네 필이 문제가 아니라, 열 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로 달려왔다. 이때 마침 동녘집 남편도 투덜거리며 뒤따라왔다.
"어떻게 해서 자네 집에는 아침부터 부부싸움인가?"
"그런게 아니라, 내가 과거 보러 가기 위하여 부인 모르게 무명 네 필을 이웃집에 가서 꾸어다가 화살을 샀는데, 우리 집 여편네가 재수없이 구는 통에 과거 보러 가도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나에게 무명 세 필란 주면 이 화살을 주겠으니, 나 대신 과거나 보러 가세."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사실대로 딱한 사정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곳문을 탁 열어 놓고 무명 세 필을 줬다.
양씨는 동녘집 남편이 갖고 온 화살을 무명 세 필만 주어 받아들고는 성내(城內:지금의 제주시)에는 있끈 무과장(武科場)으로 달려갔다.
세 번을 쏘았는데, 모두 명중이었다. 선달 벼슬은 문제가 아니었다.
양씨가 선달벼슬을 따고 집에 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육지 어느 산에 도적떼가 득실거려, 그 도적들을 소탕하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는 방(榜文)이 나붙어 있었다. 양씨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솔깃했다. 온 가족도 양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육지로 떠난 양선달은 단숨에 도적떼들을 소탕했다. 도적떼들을 소탕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정에서는 포도대장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육지 사람들은 모두 거절하고 말았다. 그것은 포도대장이 되면 도적떼들로부터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양선달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 사람이지만 포도대장이 되었다.
다시, 육지 어느 산에 도적떼들이 득실거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정에서는 여러 포도대장들에게 군사를 주며 소탕하도록 지시했다. 양선달도 가담했다. 모든 포도대장들은 도적떼들에게 당하여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 제주 양선달만은 도둑의 두목을 생포하고 돌아왔다.
조정에서는 양선달에게 시험도 거치지 않고 판관(判官) 벼슬을 줘 버렸다.

제주시 노형동, 양형희(남•56) 제보.

Ⅲ. 信仰傳說

1. 당 오백 절 오백

옛날 제주도에는 당(堂)도 5백, 절(寺)도 5백이나 있었다. 이 당과 절들이 모두 신령이 세었다.

숙종 때 영천(永川) 이목사(李牧使)가 제주 목사로 들어와 이 당과 절들을 모두 부수려고 하였다. 이목사는 당과 절마다 돌아다니며 그 신령을 보이라 하고, 신령을 보이지 못하는데는 곧 불을 질러 파괴해 버렸다.

이때 모든 절들은 목사에게 신령을 보이지 못하여 다 파괴당하여 버렸지마는, 신령이 센 당들은 신령을 보여 파괴를 면하였다. 한다.

가령, 제주시 삼도동(三徒洞)에 있는 각시당은 신령이 약간 모자라서 파괴되었다. 이 당엔 이목사가 가서 신령이 있으면 보이라 하고 굿을 치게 했다. 굿을 할 때 세우는 큰 대를 눕혀 놓고, 굿을 쳐서 그 대가 저절로 일어서면 신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신령이 없다고 단정하겠다는 것이다.

심방(巫)은 이레 동안 굿을 하면 신령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 하고 굿을 시작하였다. 사흘 나흘이 되어도 눕혀 놓은 큰 대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레째가 되는 날은 요란스러운 굿 소리와 함께 이 큰 대가 달달 떨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약간 일어서다가 벌렁 쓰러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회수를 거듭하면서 차츰차츰 더 일어서서 마지막엔 반쯤 일어서서 달달 떨다가 더 일어서지 못하고 벌렁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이목사는 신령이 없는 것이라 하고 곧 불을 붙여 파괴해 버렸다.

표선면 토산당(兎山堂)의 경우는, 이목사가 같은 방법으로 신령을 보이라고 하니 각시당과는 딴판이었다.

심방이 이레 동안 굿을 해가니, 눕혀 놓은 큰 대가 저절로 곧장 일어설 뿐 아니라, 스스로 걸어서 성안(城內:지금의 제주시) 동문 바깥 'ᄀᆞ우니ᄆᆞ루'까지 와서 쓰러졌다. 그러자 이 목사도 이 당엔 신령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하여 파괴하지 않았다 한다.

이때 약간 신령이 모자라서 큰 대가 반쯤 일어서다가 쓰러져서 파괴당한 당이 수없이 많다.

제주시 용담2동, 안사인(남•56) 제보.

2. 변씨 입도선묘(邊氏 入島先墓)

약 5백여 년 전, 변씨가 제주에 들어와 제주시 노형동(老衡洞) 「베릿가름」 이라는데에 살았다. 당시 노형리는 인가가 없어 황무지와 같던 때였는데, 변씨는 홀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여기에 정착한 것이다. 황무지를 개척하는 새로운 생활이라 집안이 가난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 얼마쯤 지나서 변씨는 몸이 아파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이 장사를 지내려 하되 집안이 가난한지라 예를 갖출 수가 없었다. 상여는 그만두고 관도 만들 수 없고 수의(壽衣)도 새로운 것을 입힐 수 없는 처지였다.

할 수 없이 입던 옷 그대로의 시체를 보릿대로 둘러싸서 묶었다. 그래서 지게로 짊어지고 집을 떠났다. 소위 '지게송장'인 것이다.

어디 묏자리를 격식 있게 골라 놓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의 시체를 지고 발 가는 대로 산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함박이굴」 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지게 끈이 툭 끊어졌다. 이제는 더 지고 갈려고 해도 가 볼 도리가 없었다. 그 자리에 파묻기로 하였다. 관도 개판도 없으므로 땅을 파서 보릿대를 깔고 덮어 시체를 묻었다.

그 후 어느 때인가 육지에서 유명한 지관(地官)이 묏자리를 보러 이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지관은 멀리서 이 변씨 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저 산이 어느 집 산이요?"

"예, 변집 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대답했다.

"하, 그거, 금개관(金蓋板)을 했으면 크게 발복할 산인데, 아깝다!"

"금개관이 다 무엇입니까? 나무 개관도 못해서 보릿대(보리낭)를 덮어 묻은 지게 송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관은 무릎을 쳤다.

"그러면 그렇지. 그게 바로 금개관이군!"

지관의 말에 따르면, 보릿대는 햇빛을 받으면 노란빛이 번쩍번쩍 반사하므로 바로 황금개관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묘가 바로 변댁(邊宅) 입도시조묘(入島始祖墓)인데, 과연 그 자손들이 크게 발복하여 전도에 벌어졌다.

현재는 이 묘가 훌륭하게 치산(治山)이 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의 흔적을 볼 수 없다.

제주시 노형동, 현용필(남•62) 제보.

3. 각시당

옥황상제 막내딸이 부모 명령을 거역하고, 궁녀•시녀들에게 물과 밥을 주지 않았다. 궁녀•시녀들은 다 굶어 죽었다.

상제는 화를 내고 딸을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라고 호령했다. 할 수 없이 딸은 머리를 깎아 송낙을 쓰고 장삼을 입고, 백팔염주를 목에 걸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어디에 좌정할까 하고 마땅한 곳을 고르다가, 삼내남문골(濟州市 三徒洞 南門路) 청대밭에 좌정하고, 상단골에 현몽(現夢)을 주어 불도(産育神)로 위함을 받게 되었다.

얼마 동안 있어 보니 인가가 가까운지라 부정(不淨)이 많으므로, 나는 '막대동산 만년팽나무 아래로 좌정하겠다'고 다시 현몽을 주어 막대동산으로 옮겼다.

그래서 상단골•중단골•하단골이 불도로 위하는 신이 되었다.

제주시 건입동, 이달춘(남•) 제보.

4. 노형동 광평당(老衡洞 廣坪堂)

제주시 노형동 광평부락(廣坪部落)은 약 3백여 년 전만 해도 나무와 억새로 뒤덮힌 황무지였다.

이때 현치적(玄致績)이라는 이가 처음으로 이 황무지에 들어와 억새밭을 갈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개척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들어와 개척하는 살림이라 현씨는 생활이 궁했다. 그러나 마음씨는 바르고 고왔다.

이때, 아래쪽 동네인 오도롱(梨湖洞)에는 풍수지리(風水地理)로 유명한 고전적(高典籍)이 살았었다. 현씨는 고전적을 은근히 존경했다. 꿩을 두 마리 잡으면 꼭꼭 한 마리를 고전적에게 갖다 드리곤 했다. 둘이는 서로 친분이 두터웠다.

고전적은 마음씨 착한 현씨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집터를 하나 보아 주었다. 그 자리에 집을 지어 살면서부터 현씨는 차차 살림이 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현씨는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고 있었다. 동네 어귀를 금방 나서자 힘 없이 걸어오는 어떤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은 몹시 배가 고프다고 했다.

"여기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내 집에 가서 곧 밥을 갖다 드리리다."

현씨는 옆 밭에 소를 가두어 두고 얼른 집으로 달려와 밥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앉아 있을 여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게 배가 고파 걸어갈 기력이 없는 여인이 가 버릴 리가 없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여인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인은 신령임에 틀림없다.' 현씨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가져간 밥을 올렸다.

그후부터 현씨는 해마다 정월이 되면 그 자리에다 제물을 차리고 가서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날 광평 부락의 본향당(本鄕堂)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시 노형동, 현용필(남 • 62) 제보.

5. 별도봉(別刀峰) 오씨 선묘

제주시 중심에서 동쪽에 위치한 별도봉은 그 산세(山勢)가 칼 모양의 산이다. 그 모양이 너무나 유별나기 때문에 별도봉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라 한다.

바로 그 봉 동남쪽 중턱에는 화북동(濟州市 禾北洞)에 사는 오씨들의 선묘(先墓)가 있는데, 별도봉 전체가 하나의 칼의 모양이라면, 바로 그 묘는 칼집에서 칼을 조금 빼어낸 듯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묏자리는 육지에서 들어온 유명한 지관(地官)이 봐 준 것이다.

오씨 후손들은 선친을 그 곳에 안장(安葬)시키고 난 후, 묏자리를 정자리에 봐 줬는지, 지관의 속셈을 떠 보기 위하여 아주 얼굴이 예쁜 계집종을 곱게 단장시켜 술상을 들고 지관이 앉아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계획대로 지관이 얼큰하게 취해 가자, 계집종은 지관의 속셈을 빼어 볼 술책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묏자리는 제대로 되었읍니까?"

"어-, 조금만 올렸더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 정도면 됐지 뭐."

이튿날 계집종은 주인에게 다가가서 속삭였다.

"사실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 그래."

주인은 곧바로 지관에게 갔다.

"지관님!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친의 묏자리를 조금 위로 올리고 싶사온데, 가서 좀 봐주십시오."

"……."

그렇게 훌륭한 묏자리를 가리켜 주게 되면, 그 지관은 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

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리 고쳐 줘야 할 형편에 이르고 말았다.
"여기가 그 자리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지에 가서 뭍에 붙을 동안만은 이장(移葬)하지 말아주시오."
"예, 명심하겠읍니다."
지관은 제주도를 떠나 고향집에 이르자마자 당장 죽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집안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독안에 들어앉고는 뚜껑을 닫아놓았다. 그러나 갑자기 벌떼가 날아들기 시작하더니, 금방 독 주위에 산더미처럼 달라붙어서, 지관은 마침내 죽고 말았다.

제주시 이도2동, 김선우(남 • 62) 제보.

6. 제주 6대 명혈(名穴)과 주자(朱子) 아버지의 묘

제주도에는 음과 양으로 6대 명혈이 있다. 음택혈(陰宅穴)로는 제1 사라(沙羅:한라산 동쪽에 있는 沙羅오름), 제2 개미목, 제3 영실(靈室), 제4 ᄐᆞ토멩이(狙頭), 제5 반득(南元邑 衣貴里경에 있는 黃蛇出林形의 山), 제6 반화(涯月邑 경에 있는 별진밭)가 있고, 양택혈(陽宅穴)로는 제1 구유랑(拘乳 : 지금의 新濟州), 제2 여호내(南元邑 衣貴里 경에 있는 川), 제3 사반(蛇蟠 : 安德面 倉川里), 제4 한교(漢橋 : 翰林邑경), 제5 의귀(南元邑 衣貴里 경주김씨 宅), 제6 어도(於道 : 涯月邑 於道里 강씨 宅)이다.
제주도 6대 음택혈 중 영실(靈室)에는 주자(朱子)의 아버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주자(朱子)의 동생은 유명한 지관(地官)이었고, 주자는 점을 잘 쳤는데, 동생은 제주도에 와서 아버님을 묻을 묏자리를 찾았고, 주자는 가만히 중국에 있으면서도 점괘로 묏자리의 형세를 판단했다.
2,500여 년 전에 주자의 아버지는 죽었다. 형인 주자는 점괘로 아버님을 안장(安葬)시킬 만한 곳은 탐라국(耽羅國) 뿐이라고 동생에게 말하고, 그 자리를 찾고 오라고 지시했다.
"아버님을 안장시킬 만한 곳은 천하에 탐라국밖에 없을 듯한데, 자네가 가서 찾아오게."
"조선국에 탐라가 있잖아요."
동생은 탐라국에 이르러 영실에 가보니, 과연 아버님을 묻을 만한 땅이 있었다. 그의 판단으로 지세(地勢)는 저녁에 금닭이 둥우리로 들어가는 금계등실형(金鷄登室形)이었다. 이만하면 아버님을 안장할 수 있는 지세라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형님, 다녀왔읍니다."
"가 보니, 과연 아버님을 모실 만한 땅이 있던가?"
"형님의 말씀대로 있었읍니다."
"지세는 어떻던가?"

"금계등실형(金鷄登室形)이던대요."

주자는 동생으로부터 보고받고 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사념에 잠겼다가 언뜩 눈을 뜨고는 큰소리로,

"아침 날에 봉황새 우는 봉명조일형(鳳鳴朝日形)일걸세."

서로의 논산(論山)은 너무나 달랐다.

"동생, 묏자리는 잘 봤네만, 자네의 논산은 잘못되었네."

"왜 그렇읍니까?"

"자네의 논산대로 하면 우리 가문에 임금이 태어날 수 있는 황통지지(皇通之地)여서....."

성현(聖賢)은 만고천추(萬古千秋)에 빛나는 지위이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만약 천하에 죄지은 백성이 생기면 어차피 죽이기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주자는 아버님 묏자리의 정기로 임금이 태어나기보다 성현이 태어나기를 바라서 한 말이다.

주자의 점괘대로 성현의 운기를 띤 영실에 있는 봉명조일형(鳳鳴朝日形)에 아버님을 안장(安葬)시켰다.

지금도 영실에는 주자 아버지의 묘가 있는데, 그 묘를 가리켜 지금까지도 세인들은 '주씨묘'라고들 한다.

제주시 이도2동, 김선우(남 • 62) 제보.

7. 고전적 부친묘

조선조 현종 때 풍수(風水)에 뛰어나기로 유명했던 고전적이 전적 벼슬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이 묘를 잘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전적은 작은 부인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다. 서자의 신분이었으나 고전적은 풍수를 열심히 배워 능통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

고전적이 전적 벼슬을 하기 전에 부친이 돌아갔다. 부친을 <토롱>(가매장)을 해놓고 일년이 거의 다 지났으나 아들들은 구산(求山)을 해서 안장을 할 생각을 않했다. 고전적은 형님이 적자(嫡子)이고 맏형이니 부친 장사지내는 일에 앞장서서 결정을 하리라 믿었고, 형은 동생이 풍수에 뛰어나니 마땅히 구산(求山)하리라 믿고 서로 방심하고 있었다.

형제가 <토롱>을 해서 일년이 경과해도 장사지낼 생각을 않했다. 하루는 형수가 고전적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일년이 경과되어도 <토롱>만 했지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버니가 지리에 밝으니 구산(求山)함이 어떻습니까?"

"형님이 살아계신데 형님이 먼저 걱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수가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실 얘기를 했다.

"작은 아들이 풍수에 뛰어난 아들이지만 큰아들이 먼저 부친 장사 지내는 일을 걱정을 하는 법입니다. 작은 아들이지만 정시인 까닭에 청해서 구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때야 형님은 동생을 찾아가 묏자리를 보도록 청했다.

"자네가 큰 정시이니 아버지 모실 자리를 좀 봐주게나."

그제야 형님의 청을 받은 고전적이 부친 묏자리를 정하자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상두꾼들이 하관할 땅을 파는데 땅구멍이 뚫리고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상두꾼들이 묘지로 땅이 패인 곳을 잡았으니 장사 지내지 못하겠다고 웅성대기 시작했다. 고전적은 미리 묏자리의 형세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미안스러우면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헙서"

고전적은 입었던 상복을 벗어 한쪽 주머니를 떼고는 구멍에 슬며시 덮고 하관하도록 상두꾼들을 독려했다. 묏자리 형체가 옥녀 하문(下門)형이기에 오히려 터진 것이 좋은 징조였다.

이렇게 장사를 지냈더니 얼마없어 고전적이 당대 서자출신이었지만 전적벼슬을 하게 되었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 제보.

8. 변댁 입도선묘(邊宅 入島先墓)

약 오백여 년 전 변씨(邊氏)가 제주에 들어와서 노형동 <베릿가름>에 살았다. 밭을 개간하며 살았으나 생활형편이 너무나 가난했다. 억세게 일을 하다 보니 과로로 변씨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변씨 슬하에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으나 너무나 집안이 가난한 까닭에 정시(地官)을 빌어 구산(求山)은 물론 안장을 할 일꾼도 빌 수 없었다. 아들들은 그 시신을 할 수 없이 지게에 짊어지고 발닿는 곳에 안장을 할 생각으로 무작정 집을 나섰다. <함박이굴>에 이르러 좀 쉬어 가려고 할 때 지게 끈이 툭 끊어져 버리니 송장이 땅에 떨어졌다.

"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묻히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에 안장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아들들이 땅을 파고 묻으려니 관도 개관도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었으나 실정이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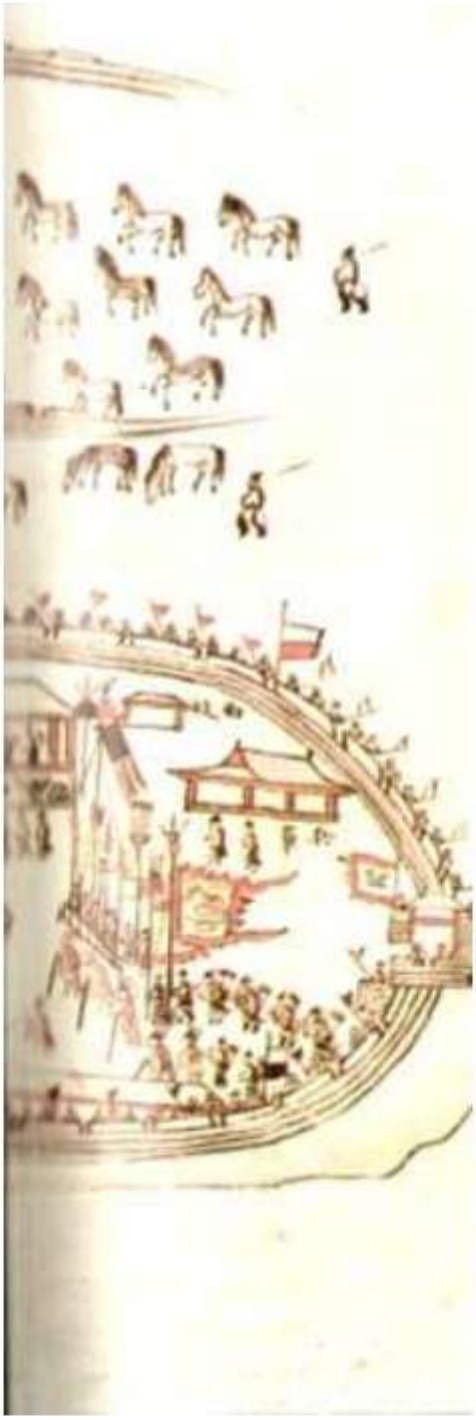
이때 지나던 한지관이 이 광경을 보고는 "땅은 좋은 땅이로되 금개관을 해야 크게 발복할텐데 그것이 안 됐구나." 하며 지켜 보았다.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를 땅에 넣고 바로 흙을 덮으려니 마음이 아팠다. 이제는 지겟짐 밑받이를 했던 보릿대 한 묶음을 꺼내 송장위에 풀어 덮었다. 이때 햇볕이 비치자 보릿대

가 번쩍번쩍 금빛을 내는 것이었다.
지관은 멀리 서서 보다가 저으기 놀랐다. "인연이 닿은 땅이니 할 수가 없다. 나도 구산(求山)을 잘하지만 지리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하겠다"하며 가버렸다 한다.
아들들은 보릿대를 깔고 덮어 시체를 묻었다. 바로 보릿대가 햇볕을 받아 금빛을 띠어 금개관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묘가 바로 변댁의 입도시조묘(入島始祖墓)데, 과연 지관이 말한대로 자손들이 발복해서 전도에 널리 벌어졌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이, 김병수(남•82) 제보.


三格陽望



第 3 章

西歸浦市傳說



徐市過此 傳說어린 正房瀑布

西歸浦市에 있는 正房瀑布는 우리 나라에 선 唯一하게 바다로 直接 떨어지는 瀑布이다.

西歸浦의 해안대(帶)는 地殼變動 때 隆起에 의해 생겨난 絶壁으로 발달한 柱狀節理層에 의해 마치 거대한 돌 병풍을 두른 것 같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特히 正房瀑布는 높이 23m에 두줄기의 큰 瀑布가 까만 絶壁에 하얀비단을 드리운 듯한 물줄기를 이루고 햇빛이 이 물줄기에 비출 때 絶壁위에 생겨난 영롱한 무지개는 감탄을 금치 못 하는 절경이다.

絶壁에는 老松이 바다로 가지를 드리워 넘어질 듯 서 있어 마치 畫壁이 그린 한 폭이 不滅의 名畫를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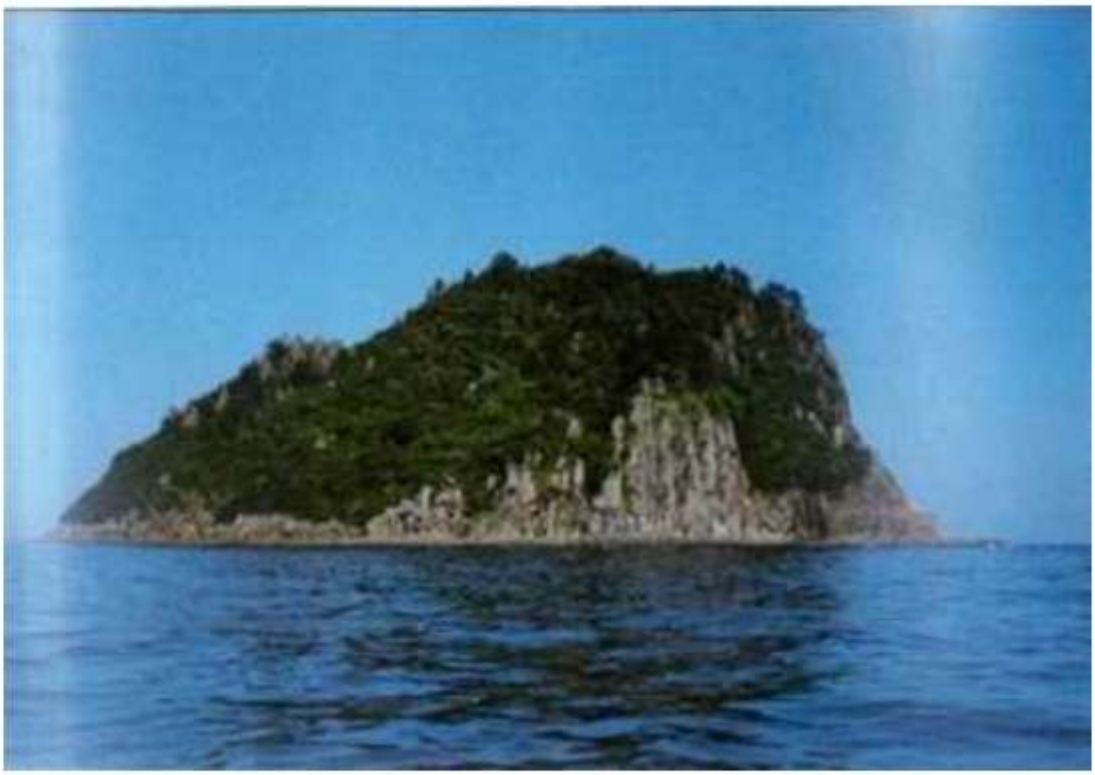
瀑布 밑으로 내려가면 폭음같은 웅장한 瀑布音과 안개같이 飛散하는 水泡, 구슬같이 매끈한 차돌을 핥으며 철썩철썩 瀑布밑으로 와 닿는 파도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다.

特히 여름철 배를 타고 나가 조망하면 하얀물줄기와 아련히 멀리 보이는 漢拏山, 西歸浦를 둘러싼 綠陰등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에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이 瀑布의 東쪽엔 小正房이라는 높이 5m에 물줄기가 열개 되는 小瀑이 있다. 여기에는 여름철에 물맞이 피서객으로 붐비고 西쪽벽엔 길이20餘m나 되는 정방굴이 있다.

이 正房瀑布에 연결된 西歸浦해안 絶壁帶에는 계곡 깊숙히 들어간 天地淵瀑布가 있고 西쪽으론 외돌괴, 三梅峰 等이 있어 絶景이 연속된다.

이 절벽의 南쪽엔 蒼林이 우거진 森島, 蚊島와 高麗末 牧胡石迭里 等이 最後를 告한 옛 戰場이엿던 虎島가 나란히 버티어 잇어서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준다.



稀貴植物 自然植物園 森　　島

森島는 西歸浦市 甫木洞에서 約 450m의 거리에 位置한 無人島로서 普通 섶섬이라고 부른다. 全體가 후박나무(machilus rimosa Blume Var, Thunbergii Nakai), 구실잣밤나무(Castanopis cuspidata Schottky Var, sieboldii Nakai), 아아나무(Viburunum awabucki K. Kochee), 가마귀 쪽나무(Fiwa japonica-S.F. Gmelinee) 等 常綠樹林으로 덮혀 있는 自然植物園이다. 이 섬은 暖帶性 植物의 集合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唯一한 파초 一葉의 自生地로 알려져 있다. 파초 一葉은 꼬리고사리科에 屬하는 常綠의 多年生 草木이며 單集形態의 잎이 根莖에서 放射狀으로 나며 葉長은 1m에 達하기도 한다. 이 植物은 熱帶性 植物의 一種으로 日本의 南部地方에도 分布하고 있으나 森島가 分布의 北限地이여서 植物地理學的 側面에서 學術的 價値가 높게 認定되고 잇다.

1978年에는 韓國自爲保存協會와 韓國蘭協會가 共同으로 復元植栽를 하엿고 現在는 生育狀態도 良好하고 保護도 잘 되고 있는 實情이다.



仙女들이 목욕하던 天帝淵瀑布

이 곳은 西歸浦市 仲文洞에서 西쪽으로 500m 地點에 位置한 溪谷을 따라 南쪽으로 溪谷 兩岸에 保存되고 있는 常綠樹林이다. 이 暖帶林內에는 本道에서도 가장 稀貴한 植物의 一種인 松葉蘭이 自生하며 담팔수, 구실잣밤나무, 조록나무, 참식나무, 가시나무類, 빗죽이나무(Sakakiaochnacea Nakai), 감탕나무 等의 常綠樹와 푸조나무(Homoisceltis aspera Blume), 팽나무(Cextis willdenowiana Romer & Schultes) 混淆林을 이루고 있다. 덩굴 식물로는 바람등칡, 마삭줄, 남오미자(Caclsura jnponica Dunal), 왕모람(랴면 stipulata Thumberg) 等이 많이 자라고 灌木類로는 자금우, 돈나무, 박랑금, 半齒植物로는 석위(Pyrrhosia lingua Farwel), 세뿔석위(Pyrrhosia hastataching), 일엽(Neolepisorus ensatus Ching), 바위손(Selaginella involvens Spring) 等으로 暖帶性植物의 極盛相을 이루고 잇고 保存도 잘되고 있다.

이 保護區域은 경치가 좋아 옛날 仙女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였다는 傳說이 있는 곳으로 三段으로 이어지는 폭포 등이 있어 內外의 觀光客이 이곳을 찾고 있다.



비단폭이 걸린 듯한 天地淵瀑布

西歸浦市에 있는 天地淵瀑布는 비단폭이 하늘에 걸린듯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景勝이다. 여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태장어가 서식해서 더욱 有名하며 계곡 주변에는 暖帶林을 이루고 있다.

무태장어(Anquilla marmorata)는 熱帶性 魚類로서 太平洋의 熱帶區域, 아프리카 東部, 印度, 臺灣, 日本 및 우리나라 濟州道 近海에 分布하는 稀貴魚種이다. 日人學者 森 爲三의 調査에 이해서 本種이 濟州道 西歸浦에 있는 天地淵에 棲息한다고 처음 알려지게 되어 日本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本種 分布의 北限地이기 때문에 1936年 天然記念物로 指定된바 있다. 그리고 이르러서 전국 근해에 서식하는 것이 밝혀져 천연기념물 제258호로 1978년 8월 18일 전국일원으로 지정되었다.

무태장어의 特徵은 黃갈색의 不規則한 반점이 散在해 있고 척추骨數는 뱀장어 111~119個에 對해서 100~110個이고 큰 것은 反長 2m 體重 20kg에 達하는 것이 있다.

낮에는 沿에 숨고 밤에 얕은 곳으로 나와 먹이를 求하는데 작은 물고기, 軟體動物, 갑각類 等을 잡아 먹는다. 本 種이 棲息하는 天地淵은 瀑布가 장관을 이루고 一帶에는 暖帶林이 울창하여 觀光名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西歸浦市篇

Ⅰ. 自然傳說

1. 천지연(天地淵)

서귀포 서쪽 홍로천이 흘러와서 바로 서귀포항 바다를 접한 얼마 올라가지 아니한 절벽으로 바로 떨어지는 천지연은 울창한 숲속에 싸여있고 그 아름다운 물소리와 물떨어지는 모습으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그 폭포 바로 아래에는 넓은 못이 있어 더욱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이곳에는 큰 용이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이조 중엽쯤 일이다. 이곳 서귀포는 당시에는 서귀진(西歸鎭)이었다. 이마을에 얼굴이 어여쁘고 마음이 고우며 행실이 얌전하다고 소문이 난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순천이라 했는데 동네 여러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러한 총각중에 명문이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씨 곱고 얼굴이 예쁜 순천이는 나이 열아홉살이 되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이웃 마을 법환리 강씨 댁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서귀진 모든 총각들이 서운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더구나 명문이는 하늘이 내려 앉은 듯하고 땅이 꺼져가는 듯하여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팠다. 그로부터 그의 생활은 형편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술과 노름과 싸움과……, 그런 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사람들도 명문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꺼리었다. 차차 명문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럴수록 그의 생활은 점점 더 흐트러져 갔다.

한편 시집을 간 순천은 정말 요조숙녀로서 여자의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화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리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시집 일가에 대한 예의 범절이며, 남편에 대한 공경은 온 마을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집안 일을 정성껏 처리하고 일가와 시댁식구들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동네 사람들과 화락하게 지내어 일가 친척들은 물론 온 동리에서 소문난 며느리로 정말 시부모와 시동기간에 칭찬이 자자하였고 남편의 사랑을 온몸에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 청년 명문은 밤낮 술과 도박으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는 부모들에 대하여서도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큰 재산은 없으나 부지런히 일하는 덕분에 살아가는 처지인데도 부모에게 노름 밑천을 대어 달라고 앙탈을 부릴 정도로 막되먹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가을이었다. 순천은 햇곡식으로 빚은 술과 떡을 마련하고 오랜만에 친정나들이를 떠났다. 오랜만에 와보는 친정이었다. 지척지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드나들지 못했던 친정이었다.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녀가 친정집에 가는 걸 명문이라는 그 건달이 멀리서 봤던 것이다.

명문이는 서귀진에서 법환으로 이르는 천지연 입구에서 그녀가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다.

날이 어슬어슬 할 즈음에 순천이는 친정집에 나섰다. 눈 앞에 보이는 법환이니까, 얼른 갈 수 있으려니 생각했던 게 그만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늑장을 부린 것이 되어 버렸다. 순천이는 조마조마하면서 걸음을 빨리하였다. 아무 생각도 없이 발끝만 바라보며 걸음을 빨리 옮겼다. 그래서 그녀가 천지연 폭포 바로 위에 이르렀을 때였다. 명문이가 불쑥 나타났다. 얼굴은 벌겋게 술끼에 멍들어 있었고 눈은 휘멀거니 디룩디룩 굴리고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순천은 아무 생각도 하질 못했다.

"순천씨, 나를 모르겠어요,"

순천은 깜짝 놀라며 상대방을 보았다. 이렇게 외진 곳에서 험상궂은 남자를 만난다는 일에 소름이 오싹 일었다. 순천은 대답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였다.

"나요, 나 명문이요."

순천은 정신을 차리고 앞에 버티어선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였다.

"누구신데요."

"나를 모른단 말이오. 나는 순천씨를 얼마나 생각하였는데, 지금같이 내가 이렇게 건달이 된 것도 다 순천씨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 모른단 말이오."

그 순간 순천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였다. 상대방을 보니 전에 같은 동리에 살았던 총각이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이렇다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니 뭐니 하는 말이 도무지 놀랍기만 한 일이었다. 순천이 몸이 더 떨리기 시작하였다.

"난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오. 난 당신 없이는 죽어 버릴 작정이오."

이렇게 소리치며 그 청년은 여자의 손을 와락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애걸하다시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순천이 나와같이 살아 난 순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점점 손을 더 힘주어 죄더니 눈에 이상한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하였다. 순천이는 그냥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기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남의 아내가 된 몸이오. 이게 무슨 행패에요."

순천은 사정하는 얼굴로 가느다랗게 겨우 말을 하였다.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어. 순천은 내 것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그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웃음이 번졌다. 순천은 사태의 급박함을 느끼고는,

"이 손을 놔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치겠어요."

눈을 부라리고는 남자를 향해 반항하며 말했다.

"이거 왜 이래. 여긴 지금 아무도 없어. 그리고 누구라도 나타나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난 말야 너를 끌고 저 폭포로 뛰어내려 같이 죽을거야."

남자는 더욱 세게 여자를 붙들고 몇 번 흔들더니, 와락 순천을 껴안는 것이었다.

"악, 사람 살려요."

여자가 있는 힘을 다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아래 천지연 물에서 무엇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여자를 붙들고 있는 명문이를 후다닥 나꿔채고는 하늘로 솟아 오르는 것이었다. 여자는 너무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었기에 그만 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 있는데 한 마리 교룡이 올라가고 있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순간 이렇게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자그만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그녀의 귓바퀴에는 자기에게 사랑을 호소하던 그 젊은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다. 하늘을 향했던 하늘로 올라간 교룡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자기 주위로 돌렸을 때였다. 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반짝이는 구슬이 그의 발밑에 구르고 있었다.

"이거, 여의주 아닌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구슬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은 바로 임자를 만난 듯이 그녀의 손

바닥 안에서 가만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느님, 제게 이것을……"

그녀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 시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의주를 몰래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모든 일이 잘되기만 하였다. 집안이 차차 넉넉해갔다. 아들 딸을 많이 두었다. 아들들은 모두 똑똑하였다. 모든 일이 형통하자 그 집안에서나 일가에서는 이 모든 일이 며느리 덕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제주시 삼도동, 진원일(남•70) 제보.

2. 섶섬과 뱀

서귀포 앞에 섶섬이 있다. 이 섬은 정방폭포 동쪽 보목리 앞에 있는데 여러 열대서 식물이 많이 자생하여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랜 옛날 이 섶섬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다. 그 뱀은 용이 되려다 못된 뱀이었다. 그래서 그 뱀은 항상 언제고 자신은 용이 될 수 있다는 바램을 갖고 살고 있었다.

뱀은 매달 정월 초하룻날과 여드렛날이면 용이 되기 위하여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고 하였다. 매달마다 그러기를 삼년, 끈질기게도 뱀은 기도 드리는 것을 계속하였다. 그러기를 삼년 동안 계속하는데, 어느 날 바로 용왕이 그 기도에 감응하여 응답을 하였다. 그래서 용왕이 모습을 나타내어서는 뱀에게 말하였다.

"네 정성이 하도 기특하여 내가 이제 너를 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뱀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자기의 기도가 이제야 효험을 본다고 생각하였다.

"저기, 섶섬과 지귀섬 사이에 구슬을 숨기어 두겠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찾아내면 바로 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왕은 뱀에게 용이 되는 비결을 은밀하게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뱀은 용왕의 말대로 숨겨둔 구슬을 찾으려고 두 섬 사이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실로 뱀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바다밑을 샅샅이 뒤졌으나 구슬은 얼른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다.

그러기를 백년 동안이나 뱀은 용왕이 숨겨두었다는 그 구슬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러나 구슬을 찾지도 못한 채 뱀은 죽고 말았다. 원통한 일이었다.

그 후부터 비가 내릴려고 하면 섶섬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곤 하였다. 그것은 바로 죽은

뱀의 혼이 안개가 되어 그 섶섬 꼭대기에 서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용이 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그 한스러움이 지금도 비가 내릴려면 그 섬 위에 서리는 것이다.

서귀포시 대륜동, 현병생(남•78) 제보.

3. 정방폭포와 서불과차(徐市過此)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중국 진시황은 세상을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고 권세를 부리면서 술과 여자와 노래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였으나 차차 자기 육신이 늙어감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막강한 군사를 이루어 놓고 만리장성을 쌓아 왜군의 침노를 막을 수는 있었으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스스로 힘에 의하여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왕으로는 체면에 없이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누구도 그 해답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사람이 영원토록 죽지않을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설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방을 진시황에게 알려드릴 누구도 없었다. 오히려 왕이 어서 죽기를 모두 기다리는 판국인데 누가 그 비밀을 왕께 아뢸 것인가.

그런데 꾀많은 서불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폭군인 진시왕의 휘하에서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소인이 듣건데, 저 동쪽 나라 작은 섬 영주라는 곳 영산 한라산에 사람이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불로초(不老草)가 있다고 하옵니다. 소인이 성심을 다하여 그 약초를 캐어오고자 하나이다."

왕은 귀가 번쩍 뜨였다.

"오, 과연 네가 가장 나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만약 네가 그 불로초를 캐어온다면,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왕은 정말 서불이 자기를 위해 불로초를 캐오려는 줄 믿고 기뻐하였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것을 캐어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옵니다. 그러하오니 황송하옵니다만, 동남동녀 오백을 차출하여 주시면 합니다."

"동남동녀 오백이라,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쓰려는고?"

"예, 한라산이라는 그 산은 험하기가 이를 데 없음은 물론 그 험한 산속 깊이 깊이 숨어 사는 그 불로초라는 아무 눈에라도 띄는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남동녀들의 눈에만 띄인다 하오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합니다."

서불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지경을 당하여 왕이 서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왕은 서불이 원하는 대

로 동남동녀 오백에 그들이 오랜 세월동안 먹고 쓸 모든 물건을 준비하고 곤륜산에서 좋은 재목을 베어다가 큰 배를 여러 척 만들고 하여 서불 일행을 내보내었다.

이렇게 진시황의 휘하를 떠난 서불 일행은 제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한라산에 올라 불로초를 캐기는커녕 산구경만 하였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의 여러 절경을 구경하면서 섬을 한바퀴 돌다가 지금 정방폭포에 이르러 구경을 하고 다시 동쪽으로 떠나면서 정방폭포 바위 위에 그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글귀를 새겨두었다. 서불과차(徐市過此)란 글귀이다. 지금도 폭포 상단 바위에는 그런 글 흔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 일행은 동쪽으로 가서 어느 땅에 정착하여 그들 대로 작은 나라를 이루었을 거라고 여겨진다. 애초부터 불로초를 캐겠다는 것은 공연한 구실이었다.

서귀포시 대륜동, 현병생(남•78) 제보.

4. 천제연과 효자 청년

중문 서편에 있는 절경인 폭포를 천제연이라 부르는데 이런 이름의 유래는, 이 폭포의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로 온갖 제기를 씻고 제물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었다 하여 붙여졌으나 그러한 풍습이 없어진지는 오래다.

그런데 이곳은 절경이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시를 남겼고, 어떤 때는 이 하천의 서쪽에 과녁을 만들어 놓고 동편에서 화살을 쏘아 맞히는 활내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목사가 이곳에 구경온 때에 이런 행사를 벌여서 구경하는 목사의 흥을 더욱 돋구었다고도 한다.

또한 이곳에 얽힌 다음과 같은 전설은 상당히 흥미롭다.

옛날 이 중문이라는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결혼을 한 지 십여년이 지나도 슬하에 자식이 없어 무척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이 천제연에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그 맑고 깨끗한 물에 목욕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부부가 그 바윗돌 반반한 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기 두어 달 후에 다행스럽게도 그 부인에게서 태기가 있어, 그 부부는 하늘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였다.

열달 후에 옥동자를 분만하였으니 그들의 기쁨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 덧 서당엘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그 부모들의 기대도 사못 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여 천자문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빠르게 깨치었음은 물론, 행실이 얌전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부모는 물론 온 마을 이웃 마을에서까지 칭송이 자자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그 아들이 17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이름도 모른 괴질로 세

상을 뜨고 말았다. 청년은 책을 던져두고 부친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서러워 하였고, 장사를 지낸 후에 묘소에 움막을 짓고 삼년을 죄인으로 지내다가, 삼년상을 지낸 후에 내려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청년이 나이 스물 두 살이 되는 해에 그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낙방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글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는 내려와 다시 글읽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다시 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행이 따랐으니 그 어머니가 이상한 병으로 며칠을 몸져 눕더니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다. 정말 청천의 벽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거에는 낙방을 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오직 어머니 병간호에 정성을 다하였다. 성심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한다면 하늘도 그 값을 꼭 주시리라고 믿었다. 그는 다시 하던 글공부를 그만두고 오직 병간호에만 전심을 다하였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부터 그 천재연으로 나아가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위위에 꿇어 앉아서는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천지신명님, 소인의 죄를 통하여 꾸짖어 주시고 제 모친의 병환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헛된 영화에 눈이 어두워 글공부를 헛되이 한 것을 소인이 이제 깨달았아오니, 소인의 죄를 저에게 돌려주시옵고 제 어머님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는 끝나지를 아니하였다. 열흘이 지나고 스무날이 지나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낮이면 어머니께 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면서 효험이 있다는 약은 백리를 가서도 구해다가 드리고 새벽이면, 이 천제연 폭포 앞에 꿇어 엎디어 기도를 드리기를 하루도 쉬질 않았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눈이오나 비바람이 부나 3년을 계속하였다. 그동안 청년은 하루도 걸르는 날이 없었다.

눈발이 휘날리며 살을 가르는 매운 바람이 부는 이른 겨울 새벽이었다. 어느날처럼 그는 그 차가운 바윗돌 위에 꿇어 엎디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과 눈이 멎고 사방이 고즈넉하면서 눈 앞에 섬광이 번쩍하였다. 하도 이상하여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특하다. 네 그 정성이 바로 내 어머니를 구할 것이다."

청년은 이 소리가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벼봤다. 틀림없이 생시였다. 더구나 무릎 아래의 찬 냉기를 느끼고서 꿈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네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내가 네 어미의 병을 낫게 하겠노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의 네 효심을 본받아 세상의 풍습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바라노라. 이는 네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욱 소중한 일이니라."

청년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눈을 감고 간구를 하고 있었다.

"오 하느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하오면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다시 이르노니 너는 이제 글에만 뜻을 두지말고 그 글을 직접 행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라. 아는 일은 쉬우나 행하는 일은 어려우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 자신을 사악하게 만들고, 백성을 못살게 만들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실로 간악한 사람이 되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죄까지 범하게 되느니라." 그 우렁차고 진실되고 사무치는 말이 청년이 뼈속까지 스미어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너와 하직하고 하늘로 가노라. 내말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 마자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차차 그 찬란한 빛이 스러지면서 잠시 후에는 전과 같이 눈바람이 들이치는 그 추운 날씨로 변하였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아까 들었던 소리와 하늘이 환하게 빛나던 일들을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몰라 허둥거렸다.

"글쎄다. 어쩐지 일어나고 싶더구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 앞에 무엇이 번쩍하고 빛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손으로 눈을 쓸어지더구나, 그런데 아니 앞이 환하게 보이는게 아니니. 꼭 오랜 잠에서 깬 기분이더구나."

어머니는 어데 외방 갔다와서 이야기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아까 그 천제연 폭포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생각났다.

"어머님,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 주신 겁니다. 제게 큰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셨읍니다."

청년은 아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어머님께 드리고, 이제부터 글 공부를 그만 두고 자기가 할 일을 이야기 하였다.

"그래, 너는 바로 하늘이 준 자식이다. 그 천제연 폭포에 가서 하늘께 기도를 드려 너를

얻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늘의 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로부터 청년은 과거를 보려던 글공부를 그만두고 몸소 착한 일을 찾아 하면서 살기 시작하였다. 남이 싫은 일을 혼자 맡아하며, 글 모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어린아이들을 모아 옳은 행실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고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싸움에 끼어들어 화해를 이루어주며,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때는 바보와 같이, 어떤 때는 성난 말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나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마을에는 차차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곁들여지게 되었다.

제주시 삼도동, 진원일(남•70) 제보.

5. 고종달의 단혈

고종달은 중국에서 온 풍수사였다. 그는 제주가 장차 왕이 날 땅이라, 그냥 놔두면 중국이 위협받을 것이 두려워한 중국왕이 파견한 신하였다. 그는 제주도에 입도한 즉시 그가 갖고 온 지리서(地理書)에 의하여 동쪽으로부터 땅의 맥을 끊어오고 있었다.

그가 지금 서귀포시 홍리 지경에 이르러 끊을 지맥을 찾고 있었다. 지리서에 의하면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데를 찾아야 그런 곳이었다. 그는 그런 곳을 찾으려 그 주위를 수없이 돌아다녔다.

그때 그 주위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백발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농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저 물을 한 그릇만 떠다가 저기 있는 소길마 밑에 놔 주십시오."

하고 그 백발노인은 다시 사정하였다.

농부는 무슨 사연인지는 몰랐으나 노인의 다급한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해주었다.

얼마 있더니 그 지리서대로 지맥을 찾던 고종달이 그 밭가는 농부에게 다가와서는,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을 물었다. 농부는 그런 곳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나는 이곳에 한 삼십년 살았으나 그런 이름 가진 땅은 처음 듣는 바요."

하였다. 사실 농부도 그런 곳을 알 리가 없었다.

"틀림없이 이 부근이데....."

고종달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주변을 몇 번 돌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때 아까 떠다놓아둔 물그릇 속에서 그 백발노인이 나와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곤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그 노인이 바로 수신(水神)이었다. 그리고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 지

리서의 땅이 바로 소길마 밑에 놓여진 물그릇이었던 것이다. 수신은 그렇게 밭가는 농부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고종달은 홍리 지경의 지맥을 끊지 못하였다. 그래서 홍리 지경에는 샘물이 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단혈을 실패한 고종달은 다시 서쪽으로 가면서 지맥을 끊어나갔다. 그래서 그가 안덕면 사계리 지경 산방산 부근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리서에 왕후지지(王侯之地)로 되어 있다. 즉 왕이 날 지맥이라는 것이다. 중국왕은 제주는 왕이나 장군이 날 지세라는 것을 알고 늘 근심하던 차에 고종달을 보내었던 것이다. 고종달은 지리서를 살피면서 왕후지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용머리였다. 용의 머리처럼 생긴 지형이었다. 만약 이 땅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고 믿었다. 고종달은 용의 잔등을 끊었다. 바로 그 끊은 데서 시뻘건 피가 솟아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힘을 내어 잔등을 토막토막 끊어나갔다. 마치 산 사람의 잔등같이 땅이 꿈틀거리면서 신음 소리를 내다가 그쳤다. 그 잔등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 주변을 물들였고 결국 제주에는 왕도 용감한 장수도 나지 못하여 다른 지역의 지배만 받으며 어렵게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가라라 하는 데, 거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지금도 그 곳 용머리라 불리는 곳에는 꼬리와 잔등이 짤려진 것 같은 모양의 지형이 있다. 그렇게 제주도의 인물 날 맥을 끊고 서 나가던 고종달은 한경면 지경 차귀섬으로 배를 타고 나가려 하다가 한라산 산신의 노여움을 받아 태풍을 만나 죽게 되었다.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 •69) 제보.

6. 열녀 바위

지금, 서귀포시 호근리 북쪽 한라산 쪽으로 바라보면 한라산 한 줄기마냥 큰 바위가 눈에 뛴다. 그 바위를 열녀바위라하는 데, 거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옛날 이 부근 마을에 귀한 집안 젊은 며느리가 몸에 태기가 없어 고민은 하였다. 양반 집안이요, 삼대 독자인 형편이라 후사를 잇기 위하여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정을 가진지 여러 해가 되어도 아기를 얻지 못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과 의논을 하여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찾아든 곳이 바로 지금 그 바위가 있는 호근리 북쪽 한라산 중턱에 있는 절이었다.

며느리는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불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하루이틀 사흘……, 이렇게 시일이 지나는 사이에 며느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마음 든든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불공기도를 드렸다.

그런던 어느날 밤에 그 며느리는 그 절 중에게 몸을 빼앗기게 되었다. 깊은 밤, 외따로 떨어진 절에서 급기야 당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당하기는 당하였으나 생각할수록 분통하

고 어이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귀한 가문의 대를 이으려 이 산중에까지 와서 이 불공기도를 드리는 처지로서 생각할수록 난감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어느덧 여자의 몸에서는 태기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편 반가운 일이긴 하였으나, 그 아기가 바로 그 중의 아기인 것을 생각하면 죽고 싶을 뿐이었다. 하루 하루 날이 갈수록 괴로움은 더하기만 하였다. 기약된 백일은 거의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자는 백일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날 밤에 여자는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절 뒤에 있는 그 바위에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자기의 잘못과 운명의 갸륵함을 통한히 여기며 밤새껏 울다가 자진하여 죽어 버렸다.

그렇게 그 여자가 죽자 얼마 없어서 그 자리에 이상한 바위가 섰다. 그걸 후세 사람들은 바로 그 여인의 원통한 넋이 바위로 화하였다고 일러오게 되었다.

서귀포시 법환리, 현병생(남•78) 제보.

7. 막숙이 지명 유래

막숙이라는 곳은 서귀포시 대륜동 해안가 옛 법환리 바닷가의 한 지경을 이르는 것이다. 여기는 눈 앞에 범섬이 보이는 데, 바로 이곳에 옛날 군사들이 야영지로 이용했던 곳이라서 막숙(幕宿)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옛날 삼별초가 북제주 애월 고성에서 토성을 쌓고 여•몽 연합군에 대항하여 항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패배하여 거의 그곳에서 전멸하고 그 잔류병이 이곳 범섬까지 와서 마지막 항쟁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여•몽 연합군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이 법환리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배로 군사가 나가 싸우면서 항상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바다가 심하게 노하여 자꾸 실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래도록 범섬에 잔류해 있는 삼별초 잔병들을 토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법환리 해안가에 군막(軍幕)을 치고 장기전으로 군사가 주둔하게 되어서 막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부터 이곳에는 왜구들이 자주 침공하였다. 왜놈들은 일종의 해적행위를 하려고 제주도에 자주 쳐들어 왔는데 그들은 들어오며는 제주 여러 지역에 도둑질을 하려고 이곳에 아예 주둔을 하듯이 막(幕)을 치고 있었다고 해서 막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막숙이의 위에 있는, 산길 가까운 곳에 '외는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왜구들이 쳐들어 왔을 때에 그 사실을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큰소리로 외

치는 곳이었다 한다. 그래서 외는 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서귀포시 법환리, 현병생(남•78) 제보.

8. 여 우 물

서귀포에서 법환에 이르는 사이에 여우물이란 곳이 있다. 이 물가에는 늘 여우가 나타난다 하여 여우물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왔다.

옛날에 어떤 관리가 이 물가를 지나게 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는데 혼자 몸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어정쩡한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반갑게도 혼자가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라 쓸쓸하고 무섭기조차 한 때인데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아주버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같이 벗을 하여 가십시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면서 함께 벗을 하여 가자는 데는 더욱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여자가 꽤나 어여쁜데 더욱 마음이 흡족하였다.

"예, 어쩐 일로 이런 밤중에 혼자 밤길을 가십니까. 저도 마침 혼자길이라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읍니다."

남자인 선비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여자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었다. 그래서 여자를 타고 가는 말에 태우려 하였다.

"불편하지만 이 앞에 타시지요."

여자를 앞에 타도록 권하였다.

"아이고, 여자몸에 어떻게 남자 앞에 탈수가 있겠읍니까. 제가 뒤에 타겠읍니다."

그래도 앞에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앞에 탈것을 권하였으나 여자는 끝끝내 뒤에만 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몇 번이나 실랑이가 오가는 가운데 관리는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님을 느꼈다. 이는 필시 여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종종 여우가 나타난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여자 말대로 그녀를 뒤에 태웠다. 그리고는 말을 마구 달렸다.

"아이쿠 떨어지겠읍니다. 그렇게 달리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쯤가니 여자가 천천히 달려달라면서 애원을 하였다.

"나는 길이 바쁜 사람이오. 천천히 달릴 수는 없는데, 아, 좋은 수가 있오."

관원은 도포고름을 풀어 그 여자와 자기몸을 꽁꽁 하나로 묵고는 다시 말에 채찍을 놓아 달렸다. 여자는 마을이 가까울수록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관리를 혼내주려던 애초의 생각에서 혹시 이 관리에게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서자 내려달라고 졸랐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제 갈길에 다 이르렀으니 이제는 절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관리는 못들은 척 더욱 빨리 말을 달리는 것이 아닌가.

"나리,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내릴 곳이 넘어 왔읍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내려줄 생각은 커녕 더 말을 달리는 것이었다. 여우인 여자는 관리의 등에서 몸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이 일었다.

관리는 제빨리 말을 달려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의 집에는 큰 개가 두 마리 있었다. 그 개는 주인이 집안으로 들어설 때면 언제든지 나와서 주인을 맞이하곤 하였다. 이날도 주인의 말방울 소리를 듣자 마당으로 나와서 주인을 맞았다. 그때 관리는 등에 단단히 동여매었던 끈을 풀었다. 여자가 마당에 휙 나둥그라졌다. 그 순간이었다. 개가 그 여자 앞으로 쏜살같이 내닫고는 여자를 물어 흔들었다. 그 순가 여자는 별안가 한 마리 여우로 변하고는 피를 흘리며 마당 가운데 나둥그라졌다.

관리는 그의 지혜로 그 여우를 잡고 말았다. 그 후로는 여우물에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귀포시 법환리, 현병생(남•78) 제보.

9. 이청장물 여우귀신

옛날 강정리 「도릿동네」에 강씨 형제가 윗집(한라산쪽 집), 알집(바다쪽 집)에 살고 있었다. 형제는 아주 건장하고 부자로 살았다.

윗집에 사는 형이 말을 타고 대정고를 현청에 일을 보러 출입을 했다.

대정고을로 출입하는 길 중간에 <이청장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시나무로 꽉 둘러싸여 있었다.

하루는 형이 말을 타고 대정고을로 들어갈 때 <이청장물>에 이르자 고운 소목차림의 여인이 나타나서 졸라대는 것이었다.

"오라버니, 함께 가겠읍니다."

강씨는 여우가 변신한 귀신임을 알았다. 이렇게 자꾸 희롱을 걸자 잡아 죽여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대정고을에서 일을 마치고 노끈을 허리에 감추고서 돌아오는데 또 고운 여인이 나타나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다.

"오라버니,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말을 타라."
여인이 말을 오르자마자 숨기고 있던 노끈을 풀어 여인의 허리를 묶고는 자신의 몸에 꼼짝하지 못하게 얽어매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태연한 척 사정을 했다.
"오라버님, 이 줄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그래, 조금만 기다려."
풀어주질 않고 말을 달려 집으로 달려 왔다.
강씨 형 집에는 사나운 사냥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개들이 주인을 맞이하여 달려나오자 묶었던 줄을 풀었다. 이때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여인을 물어 죽였다. 죽고 난 다음에 살펴 보니 머리에는 백년 묵은 해골을 썼고, 옷을 벗겨 보니 몸은 늙은 <황식>(고양이)이었다.
강씨 어른이 여우 귀신을 잡아 버리자 <이청장물>에는 고운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서귀포시 강정동, 장기방(남•79) 제보.

10. 새당할망

중문면 강정리 본향당 하르방은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본향당 하르방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게 되자 돼지고기를 무척이나 먹고 싶어 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사정얘기를 했다.
"입덧으로 돼지고기를 무척이나 먹고 싶습니다."
남편은 부정한 년이라고 욕을 하며 돼지고기를 사다 주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게 했다. 부인은 무척이나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하던 중 통시(변소)에 갔다가 보니 돼지가 있었다. 부인은 즉시 돼지털을 뽑고는 콧구멍에 끼워 불을 붙였다. 돼지고기 냄새라도 맡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남편이 드디어 이 냄새를 맡고는 버럭 화를 내었다.
"부정한 년. 당장 집을 나가라."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본향당을 떠나 집을 나와 <새당>이라는 곳에 와서 혼자 살았다 한다.
이러한 전설로 본향당에 갈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가져 가지도 않으나 새당할망에게 갈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고 가져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강정동, 홍인희(여•75) 제보.

Ⅱ. 歷史傳說

1. 현 유학(玄幼學)

조선조 말 효돈(西歸浦市 孝敦洞)에 현 유학(玄幼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두고 현 훈장이라고도 했는데, 기지가 남달리 뛰어났다.

현 훈장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주 비상했다. 그의 나의 일곱 살 때였다. 한번은 어떤 노인이,

"야, 너 몇 살이냐?"

"굽!"

어린 현 훈장은 아주 짤막하게 대답해 버리니, 노인의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었다.

"야, 이놈아? '굽'이 뭐야?"

어린 현 훈장은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노인은 가만히 혼자서 숫자를 세어 보기 시작했다. 열까지 세었는데, '굽'자가 툭 걸리는 것은 일곱밖에 없었다.

"야, 이놈아! 어른에게 버릇없이 '일곱'이라고 대답하지 '일'자 하나를 아껴뒀다가 뭣에 쓰려고 '굽'이라고만 대답하느냐?"

"혀 한번 꼬부리는 데는 힘이 안 듭니까?"

현 훈장은 이럴 정도로 어려서부터 순간적인 재치와 기지가 비상했다.

그 시대에 훈장 노릇을 하는 양반들은 아집이 대단하여 함부로 천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현 훈장은 정의(旌義)고을에서도 술장사나 하며 살아가는 퇴기(退妓)와 '누님', '동생'하며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진했다.

옆에 있는 양반들은 물론, 높은 자리에 있는 고을 사람들이 현 훈장에게 혀를 찼다.

'어이구, 저 훈장이나 된 어른이 저 퇴기(退妓)에게 가서 '누님, 누님' 부르면서……'

어느 해 정초 때였다. 현 훈장은 퇴기 누님에게 가서 넙죽이 세배를 올렸다. 그러니, 그 늙은 기생은 훈장에게 세배를 받았으니 기분이 우쭐하여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 술을 대접했다. 술이 만취되어 밖으로 나올 때였다. 어느 훈장이 그 광경을 봤다.

"아니, 훈장이나 된 양반이 퇴기에게 세배까지 올렸고?"

"내가 어편네에게 세배하다니요? 술항아리에게 절했지."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

옛날 정의고을에 '보성(保城) 김생원'이라고 하는 외방인이 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양반 행세가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고을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 같은 양반들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외조카가 바로 이 고을의 군수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믿고 거들거리는 판이었다.

이 고을에 양반 몇 사람이 우연히 모여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화제는 자연히 보성 김생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 저놈의 영감 버릇을 고치기는 해야 할 판인데, 이거 군수의 외숙이니 이거 원…"

그 말을 듣고 있던 현 훈장이 선뜻 나섰다.

"그놈 버릇을 내가 고치고 말겠소! 그러니 염려들 놓으시오."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졌다.

현 훈장은 이 고을 '공문동산'에 앉아서 보성 김생원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생원은 부채를 들고 거드럭거리면서 지나는 중이었다.

"야, 거기 사령놈들 있느냐?"

현 훈장이 힘주어 외친 일성(一聲)이었다.

"예, 예. 여기 있사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묶어라."

군수 외삼촌을 잡아 묶으라고 하니, 사령들이 머무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군수 외사촌님을……"

"잔말 말고 묶어라."

사령들은 현 훈장의 명령을 따라 잡아 묶을 수밖에 없었다. 보성 김생원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현유학! 그 어찌 날 이렇게…. 내가 누군질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보성 김생원 아니요."

"지금 제주목(濟州牧)에서 통문(通文)이 오기를, 지금 우리 제주도에 왜배(倭船)가 들어서 일본놈들이 올라왔는데, 본지방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두 잡아다가 문초(問招)를 하라고 하니, 보성 김생원이든 광주(光州) 허생원이든 모두 묶게 되었오. 그래서 묶는 것이니 섭섭히 생각 말고 있으시오."

보성 김생원은 여지없이 당하는 판이었다. 조카인 군수를 데려다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아, 염려마시오. 한 시간 이내로 풀어 드리지요. 통문에 의하면, 왜놈들은 살빛에 큰

사마귀가 두 개씩이나 돋았다고 하니 검사해 봐서 없으면 곧 보낼 테니까 염려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보성 김생원은 몸 둘 바를 몰라했다. 현 훈장은 다시 사령들에게,

"그놈 아래덧방(아랫도리)를 모두 벗겨서 사마귀가 있는가를 확인 해 봐라."

사령들은 보성 김생원이 군수의 외숙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랫덧방을 벗겼다.

"샅밑에 사마귀가 하나도 없사옵니다."

"아, 그래. 사마귀가 없으면 됐다. 그러나 우리만 봐서는 증거를 댈 수가 없고, 혹이나 이 다음에 윗 관청에서 확인하러 오더라도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고을의 중인(中人)·방장(坊長)·풍헌(風憲)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 분은 분명히 샅밑에 사마귀가 없읍니다.' 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풀어 줘라."

갈수록 태산이었다. 드디어 이 고을에 있는 관원살이하는 양반들이 몰려들어서 보지못할 곳을 봐 버렸으니, 그 후로 보성 김생원은 창피스러워서 조카인 군수를 배경삼아 이 고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현 훈장은 그렇게 기지와 재치가 뛰어났지만, 조선조 말 우리 나라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李完用)에게는 한번 당했다고 한다.

조선조 말 이완용이가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있을 때, 제주도에 순력(巡歷)왔던 적이 있었다. 이때, 제주도 세 고을-濟州·旌義·大靜-에서는 고을 대표를 보내어 영접하기로 했다.

정의고을에서는 여러 관원살이들의 숙의 끝에 재치와 기지가 뛰어난 현 훈장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현 훈장도 응했다.

"내가 가서 뭔가를 보여주지."

현 훈장은 우선 몸치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모시두루마기에 경남 통영(統營)에서 만든 갓, 합죽선(合竹扇), 은장도까지 잘 치장하여 이 완용 앞에 나타나 우선 수인사부터 나누는 중이었다.

"당신은 정의고을에서 왔다고 하니, 그 고을의 호수는 얼마나 되오?"

이 완용의 첫 질문이었다.

"아무 호가 됩니다."

"당신네 집 재산은 얼마나 되오?"

"아무 정도 됩니다."

"당신은 과히 선비가 못 되오."

이 완용이가 내던진 한 마디에 현 훈장은 펄쩍 뛰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내가 선비가 아니란 말이오."

"선비일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그만한 적은 홋수를 가진 고을에서 훈장질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시두루마기, 통영갓, 은장도 합죽선을 몸에 꾸릴 수 없고, 필히 어데 가서 협잡해서 얻어 입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차려 입을 수 있겠소."

현 훈장은 이 한마디에 이 완용이에게만은 톡톡하게 당한 적이 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2. 대포리(大甫里) 설촌이야기

서귀포시 중문동에 속하고 있는 대포(大甫)마을은 전에는 중문면 대포리로 불리어졌다.

이 마을에는 먼저 원(元)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큰개물'이라고 하는 바닷가 동네에 한 서르나믄 호로 마을을 이루었다가 지금의 대포리 지역으로 옮겨와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을 이루었던 원(元)댁은 매우 호사롭게 살았는데 마을 맨 안쪽에 고대광실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 그 집 이름을 '안집'이라 하였다.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였던지 집 처마마다 네 귀에 풍경을 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소리가 온 마을에 들릴 뿐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다 한다.

하루는 지나가던 목사가 이 집에 들렸다. 풍경소리에 따라 들어왔는데 집을 보니 사가로서는 너무나 웅장하니 목사가 마을이 뒤틀릴 정도였다. 당장 집을 헐라고 호령을 하고 싶었으나 이 지역 토호로서 그 세도가 막강한 것을 생각할 때 섣불리 그럴 수도 없었다.

"참 집이 훌륭합니다. 혹 이 집에 대한 당호(堂號)나마 있는지요."

목사는 집이 훌륭함을 감탄하고 나서 은근히 어떤 무엇을 얻어보려고 집의 당호를 물었다.

"예, 뭐 보잘 것 없이 초라하여 부끄럽습니다. 선친께서 저의 여덟형제를 두시어 팔룡당(八龍堂)이라 불러온 줄 압니다."

집주인은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으나, 마음 속으로는 어떤 오만함이 서려있는 어투였다.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마는 내 재력(財力)을 따르겠느냐는 마음이었다. 그것을 간파하지 못할 목사도 아니다. 더구나 여덟 아들을 두었다 하여 감히 '용(龍)'자를 써서 '팔룡당(八龍堂)' 운운한 것이 괘씸하기 그지 없었다.

"팔용당이라 당호지고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목사는 말끝을 맺지 아니하고 설레설레 저었다. 집주인이 바싹 긴장을 하였다. 아까는 아무리 오만한 마음으로 의젓하게 말을 하였지마는 목사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어수선하였다.

무슨 말씀이지, 혹시 잘못이라도 되었다면…."

주인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였음을 눈치챈 목사는 옳다구나 하였다. 그만 하면 내가 능히 저 무엄하게 큰 집에 대하여 목사의 위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 당호는 훌륭합니다만 일반 백성의 당호로서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 그 당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문에……"

말끝은 맺지아니하고 안타깝다는 얼굴로 집주인을 바라보고는 자리를 뜨려 하였다.

"나으리,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적당한 당호를 하나 마련하여 주시면 영광이겠읍니다."

주인은 목사의 말을 듣는 중에 불현 듯 불안이 엄습하였다. 어떤 액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龍)은 우리같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는 집주인의 얼굴을 이번에는 아주 정면으로 쏘아보듯 하였다. 목사 자신의 신분으로도 그러한 글자를 써서 당호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니면 그런 당호를 쓸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은 갑자기 송구한 마음이 일어 몸둘 바를 모른다.

"예, 이렇게 하십시오. 용(龍)자를 뱀사(蛇)자로 바꾸십시오."

목사의 말은 아주 단정적이었다. 이미 주인은 심리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알겠읍니다."

주인은 곧 당호를 팔사당(八蛇堂)이라 바꾸었다.

그런데 목사가 다녀가서 그렇게 집의 당호를 바꾼 지 불과 한 달만에 집안에 궂은일이 일어나면서 망해가기 시작하였다. 얼마 오래 못가서 그 많은 재력이 축이 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더니 결국은 다시 그 옛날의 부를 도모할 수 없게 망하였다고 한다.

서귀포시 하원동, 김택효(남•86) 제보.

3.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대포마을(서귀포시 중문동)은 토지가 다른 마을에 비하여 협소하고,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온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명을 짜서 그것을 쌀로 바꿔다 먹고 살기 위하여 제주 섬안을 누벼 다녀야만 했었다. 바로 그 시절에 이 마을에 어떤 강씨도 무명을 잔뜩 지고 동네 청년들이 거세다고 소문난 냇기(지금의 성산면 신풍리, 신천리와 표선면 하천리)마을로 들어갔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다니

다 보니, 다리도 피곤했다. 마침 눈 앞에 '들음돌'이 있었다. 들음돌이란 둥그렇고 큰 바위들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가에 놓아두어서 그 마을 젊은이들이 힘 내기로 항상 들어 힘을 기르는 돌이다. 이것은 큰 것을 동네에 놓아두면 반드시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난다고 하고, 그것은 동네 힘의 상징물이어서 큰 들음돌이 놓여 있으면 딴 동네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강씨는 바로 그 돌 위에 무명을 진 채로 앉고 말았다. 그때 마침 냇기마을 한 청년이 바로 그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조용히 지나 갈 리가 없었다.

"자네, 어찌 거기에 앉았는가?"

청년은 강씨의 거만한 거동을 보자 훌닦기 시작했지만, 강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 그렇소. 아, 내가 먼길을 오다보니, 다리가 아프고 해서 좀 쉬자고 여기에 앉았소만..."

"이 돌이 어떤 돌인 줄을 몰라요?"

"난 모르겠오만, 도대체 어떤 돌이요? 난 이 돌이 뭔지 몰라서 앉았오이다만..."

강씨가 그 돌이 어떤 돌인 지를 모를 리가 없었다.

"당신, 그 돌을 한번만 들으시오."

"난 이 돌 못들겠소."

"못 들 테면 당신이 앉았던 자리를 혀로 핥으오."

"돌을 어떻게 혀로...?"

바로 그때였다. 부리부리하게 생긴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씩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혀로 핥을 수는 없고, 이 돌을 좀 들어보지요."

강씨는 무명 진 채로 그 돌을 선뜻하게 들고서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다 놓을까요?"

강씨의 이 말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 말이 없자, 옆에 있는 대밭으로 뱅 내던져 버렸다. 이 동네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겨우 들까 말까 하는 돌인데, 그것을 지켜 보던 청년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들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강씨는 온 종일 행상다니다가 다른 마을로 넘어갈까 했지만, 해도 저물고 해서 냇기마을에 있는 방 한칸을 빌어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전처럼 저녁 식사를 끝내고 곧 잠자리에 들까 하는 찰나였다.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방 가득 들어앉아 자기네들 끼리만 말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 이 모두가 강씨를 골려 줄 계책임에는 틀림없는 처사였다.

"우리 이 저녁에 그대로 심심하게 있을 게 아니라 무슨 내기를 해서 술먹기로 하는 게 어떤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청년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강씨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이 이 말에 응수했다.

"거 좋지!"

"무엇으로 내기를 할까?"

"퉁소 불기 내기 하자, 못 부는 사람 술 내기로."

"참 좋다."

계책대로 착착 진행되어가는 판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퉁소를 불기로 내기한 까닭은 강씨가 언청이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었다.

강씨는 우두커니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쳐다볼 뿐이었다. 한 사람씩 앉은 순서대로 퉁소를 불어 나갔다. 순서대로 한다면 강씨는 맨 나중에 볼 판이었다. 제각기 제법들 불어나갔다. 소리의 고비를 겪어가며 조용히 불어나갔다. 어느덧 강씨 앞에 퉁소가 턱 놓였다.

"당신도 불어 보시오."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로 그 청년의 말이었다.

"난 퉁소 못붑니다."

"불어보라면 불어보오. 뭐 그리 잔말이 많소."

"그래도 난 불지 못해요."

"못 불겠거든 술 내시오."

강씨는 입장이 난감했다. 이러나저러나 퉁소를 불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소란이 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불기로 작심했다. 입술에 찢긴 부분을 무엇으로라도 막아야 할 판이었다. 강씨는 소피를 보고 와서 퉁소를 불겠다고 말해 두고 밖으로 얼른 나왔다. 마침 그 집 변소로 가는 길에 호박잎이 보였다. 그것을 얼른 뜯어내어 방으로 들어갔다. 찢긴 입술에 호박잎 조각을 턱 붙이고는 퉁소를 입에 물고는 불어나가기 시작했다.

'부우- 우, 응…."

한숨에 열두 고비를 겪었던 것이다. 퉁소를 방바닥으로 퉁 내려 놓는 순간, 모든 청년들의 눈이 휘둥그래지고 말았다.

"아이고,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나 대포 마을에 살아요."

"당신 그런 힘에 그런 재주를 갖고 여기에 뭐하러 오셨읍니까?"

"아, 이 무명을 지고 와서 양식이나 바꿔다 먹고 살려고 왔소."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모두 나서서 이 무명을 쌀로 바꿔 드리겠으니,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이곳으로 올 때는 꼭 우리들을 찾아 주십시오. 선생님으로 모시겠읍니다."

이튿날, 강씨는 냇기마을 청년들이 모두 나서서 바꿔 준 쌀을 잔뜩 지고 털레털레 집으로 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김재현(남•88) 제보.

4. 오서자(吳庶子)

옛날, 지금 서귀포시 홍로 오댁(吳宅)에 한 서자가 있었다. 이 청년은 성산면 고성리 남문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당시는 적서차별이 심한 때여서 그는 생가에 여러 형제 친척들에게 괄시를 많이 받아오던 터라 멀리 양자로 들어가 버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였으나 이따금 제사 때나 생가에 오면 역시 그에 대한 괄시는 여전함에 늘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제사 때가 되어 생가에 들렀을 때라도 그는 여러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 서서 배례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마당에서 배례를 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상에 대한 그의 효성은 극진하여 그러한 굴욕을 참아가면서 늘 생가의 기일제사를 잊지 않고 참례하였다.

어느 해 일이었다. 어느 때같이 오서자는 생가집에 제사를 보려고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 홍로 생가로 떠났다. 아침부터 흐릿한 날씨는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갑자기 험악해지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별로 피할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골총안 숲이 우거진 곳을 찾아들었다. 그는 거기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생각하였다. 갖고 있던 칼로 가시덤불을 캐고 몸 둘 자리를 만들어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면서 비가 멎기를 기다렸다.

비는 꽤 오래도록 계속하여 내렸다. 비 개이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떤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나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집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니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읍니다. 하찮지마는 오늘 저녁 당신 아버님의 제사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사의 제수로 드리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한 말을 마치고 그 노인은 사라져 버렸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이상한 일이로군'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무덤에서 나왔다. 어느덧 비는 개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급히 다시 홍로를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다.

서귀에 이르기 전 효돈 마을의 동편에 큰 내가 있었다. 비가 내렸던 후여서 내가 크게 치고 있었다. 그때 냇물에 떠내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엇인가 다가가서 자세히보니 그것은 바로 노루가 냇가 나무 틈에 끼어 죽어 있었다. 그때 그는 아까 그 꿈에 노인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것이로구나. 그 노인이 제수로 주겠다는 것이..."

그는 기뻐하며 그 노루를 둘러메고 생가집에 이르렀다. 모여 있었던 친족들은 모두 놀랐다. 밤중이 되어서 제사집에 이른 일도 놀랐고, 더구나 제수로 큰 노루까지 짊어지고 왔으니 더욱 놀라면서 의아해 하였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관들은 그를 방안으로 불러들여 같이 제관으로 배례하도록 하였다. 오서자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뒷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무덤에 들려서는 더 정성을 드려서 소분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묘에 비석을 발견하였는데, 그 묘는 정말 지체있는 집안의 선묘였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알리자, 오서자에게는 더 많은 사례를 하면서 고마워하는 것이었다.

서귀포시 대륜동, 김두옥(남•72) 제보.

5. 김명헌(金命獻) 참판

옛날 중문리에 김명헌(金命獻)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벼슬에 뜻을 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 여러 번 과거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를 보는 족족 낙방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꼭 과거에 급제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였고 과거도 계속 응시하였다. 그래서 그가 아홉번 낙방을 하고 열 번에 응시하려 할 때는 벌써 그의 나이 여든 한 살이 되었다.

팔십 노인이 된 김명헌은 새파란 젊은이들과 같이 과거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다.

새삼스럽게 자기가 지내온 일생을 생각하니 감개가 한량 없었다. 그러나 후회되거나 한스럽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과시(科試)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서 주어진 시제(詩題)에 따라 시를 지은 후에 덧붙여서 자기의 일생의 처지를 시로 엮어 섰다. 그 중에 한 줄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이 이미 81세인데, 그동안에 낙방만 아홉 번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시를 받아든 상시관이 즉각 이 글을 자기의 자리 밑에 몰래 숨겨두었다. 그 상시관은 생각하기를 이런 글 재주였으면 지금까지 낙방할 리가 없는데 이는 필시 어떤 연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내막을 그 상시관은 은근히 알고 있었기에 그 글을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다.

사실 김명헌은 매번 과거 때마다 합격할 만한 시를 지어 내었었다. 그러나 그 시첩이 마지막 상시관까지 가는 사이에 이름이 바꾸어져서 다른 사람이 글이 되는 바람에 급제를 빼앗겼던 것이다. 당시 과거를 돈주고 사던 그 시대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상시관은 그런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적고 이어 그를 합격시키려 하였다.

김명헌은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과거에는 급제를 하였으나 벼슬은 얻질 못하고 그냥 병석에 눕게 되었다. 병은 점점 더하여져서 뒷해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관을 짜고 막 입관을 하려할 때에 먼 문밖에서부터 관원의 행차 기척이 났다. 참판의 관직을 갖고 온 대정현감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당장 관관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에게는 특별히 그런 높은 관직을 임금께서 직접 내린 것이다. 그가 그동안 썩은 과거제도의 운영에 따라 희생된 것을 감찰하고 내리신 것이었다.

관원이 영전(靈前)에 분향을 하고 그 교지를 관위에 올려놓자 관이 파르르 떨면서 그 교지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 후에 사람들은 김명헌에 대하여 비록 관서일은 맡아보지 않았으나 관사의 교지를 받았기에 김명헌 관사라 불러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고영홍(남 •75) 제보.

6. 장사 양태수

옛날 제주 마을에 양태수란 장수가 있었다. 그는 장수가 될 사람이었으나 장수가 못되어 힘센 장사로 살았는데 그 힘이 어떻게나 세었는지 가히 초인과 같았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없어서였다. 아주 어린애기 때였다. 그런데 그 아기가 다른아기와 달라서 영리한 것은 물론이고 자라는 것도 어떻게 빨리 자라는지 이상하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날 아기를 눕혀 놓고 나갔다 와보니, 그 아기가 방안 천정에 붙었다가 벽장위에 올라갔다 하면서 노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의논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남편과 의논을 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날개를 끊어버리기로 하였다.

아이는 점점 자랐다. 그동안 부모들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심조심 아들의 동정을 살폈다. 하는 짓이 확실히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어느날 부부는 계획을 세워 아들의 날개를 끊어 버리려 하였다. 술을 취하게 먹여서 잠이 들게 한 후에 가만히 그 겨드랑이 날개를 칼로 짤라 버렸다.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탄복을 하였다. 그리고 날개를 끊어버린 그 부모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집에서 그냥 살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도 컸고 힘도 세었다. 그 동리에서는 누구도 그와 힘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어느날 그 아들은 조용히 부모에게 청을 하였다.

"제가 도저히 이곳에서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살 수 없으니 제게 배 한 척만 마련해 주시면 육지로 드나들면서 장사나 해볼까 합니다."

이런 청을 들은 그 부모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청을 들어 주었다.
그는 그 마을에서 힘이 센 몇몇 청년들과 같이 배를 부리게 되었다.
그때에는 바다에 해적들이 날뛸 때였다. 더구나 왜놈의 배들을 만나면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육지부와 장사를 하는데, 한번은 왜놈의 배를 만나게 되었다.
"거기에 좀 머물러 있거라."
왜배가 다가오며 호령을 하였다. 양태수는 배를 머물도록 하였다. 다가온 왜배는
"너희 배에 있는 그 쌀들을 우리 배에 옮겨 실어라."
무턱대고 명령조로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양태수는 얼른 이행하질 않았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하라는 대로 하여라."
아주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양태수는 일본놈들을 한번 노려보았다. 별로 힘이나 쓸 것같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쌀 가마니를 그 배에 옮기는 척 하다가 마구 가마니를 그들 머리위로 던지기 시작하였다. 양손에 두어 가마니씩 들고서 마구 던지는 바람에 그들은 정신을 잃고 허둥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그들은 양태수를 알아보았다.
"내가 몰라서 무례한 짓을 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오."
그배의 선장이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그제서야 양태수는 쌀가마니 던지는 일을 멈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오랏줄로 묶었다.
그렇게 힘을 써서 장사 행세를 하였다. 비록 날개는 끊어졌으나 장사로서 한 세상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서귀포시 영천동, 양원교(남•74) 제보.

7. 가령 양(梁)장이

가령 양(梁)장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글에도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지도 뛰어나, 서울 출입을 하면서도 늘 섬사람으로서 당하는 굴욕을 보복하곤 하였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글에서나 말로나 여러 서울 선비들을 앞질렀기 때문에 자연 서울 선비들에게는 두렵고 아니꼬운 존재였다.
어느날 가령 양장이가 없을 때에 여러 선비들은 의논을 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똑똑한 척하는 그를 골탕먹일까 하는 궁리를 하다가 묘안을 짜냈다. 그들은 양장이가 늘 앉는 그 자리 마루를 떼어 버리고 그 위에 방석만 덮어두었다.
나갔던 양장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러

자 풀썩하니 자리에서 빠져 마루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모여앉아 그 광경을 본 여러 선비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대었다. 그때였다.

"하관 시를 당하여서 왠 상제들이 곡(哭)은 안하고 웃기만 하는 거냐."

마루 아래 빠진 그는 웃는 여러 선비들을 향해 크게 꾸짖는 것이었다. 선비들은 웃음을 그치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희놈들은 명색이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를 모시는 예의도 모르느냐. 서울 놈들은 다 그렇게 예의 범절에 어두우냐."

어리둥절하고 있는 선비들을 향해 그는 다시 꾸짖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논 광중에 묻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상제로서 마땅히 곡을 하여야 할 게 하니냐.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인 것이야."

그제야 선비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리어 양장이를 골려주려 했던 그들이 모두 그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아들놈들아 어서 곡소리를 내어라."

마루 구덩이에서 다시 양장이는 큰 소리로 선비들을 향해 꾸짖었다. 선비들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놀려주려던 그들은 모두 양장이의 아들격이 되고 말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내려온다.

양장이가 어느 해에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라 감영에서 제주에서 올라간 어떤 사람을 만났다. 동향이라 반가운 김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말 저말 하는 가운데 양장이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진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다. 진상 물품을 모으는 일도 그랬지마는 물건들을 바치는 일이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그는 바로 흑쇠(黑牛)를 진상하러 오래전에 왔는데 진상이 잘 안되어 지금껏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자는 다 떨어지고 사정이 정말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왜 진상이 잘 안되는 거요."

사정을 듣고 양장이가 그 연유를 묻자,

"무슨 이유도 없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 하면서 받아주질 않으니 해볼 도리가 없읍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갖다주고 할 것인데, 이제 노자돈도 없으니 진상소라도 팔아먹고 죽든지 살든지 할 수 밖에 없읍니다."

듣고보니 딱하였다. 양장이도 진상하는데 따른 관리들의 횡포를 약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마는 듣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었다. 생각하니 화가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진상을 원만하게 하고 또한 그 목사까지 골탕을 먹일까 생각하였다.

"그정 죽은 척하고 내일 한번만 가서 사정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해도 진상이 안되면 소를 팔든지 말든지 하시오."

뒷날 다시 소들을 끌고 가서 진상을 받아주도록 간청을 하였다. 감사는 비스듬히 누운채로 아래 와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를 보더니 돌아가라고 호령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연을 모두 말하였다.

뒷날은 양장이가 직접 소를 몰고 감영으로 갔다.

"제주에서 나라에서 쓸 소를 진상하러 왔으니 감사는 나와서 얼른 받아시오."

양장이는 들어가면서 큰소리를 쳤다. 나졸들이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어제까지 매일 드나들던 자가 아니고 호령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어, 저 친구 봐라. 진상이 잘 안되니까 아 이제는 큰소리까지 지르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미칠 만도 하지. 이제 어떡할거야. 소를 팔고 도망을 치던지, 밭을 팔고 와서 진상일을 성사 시키든지 해야지 어떡할거야."

"진상을 한 번 두 번 해봤나. 다 알면서 처음부터 좀 잘 할 일이지."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여 대었다. 그러나 양장이는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했다.

"나라에 진상할 소를 대령하니 어서 나와 받으시오."

아닌밤에 홍두깨식으로 어디 초라한 선비가 나타나서 큰소리 치는가 하고 목사가 내다봤다.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때였다.

"감사는 그 행색이 뭐요. 우리가 상감님께 소를 진상하러 하는데, 그 물품을 받는 신하로서의 그 태도가 아니되었소. 향을 피우고 의관을 정제하고 받아야 된다는 건 어느 관리들도 모두 아는 바요, 바로 그게 올바른 예도가 아니오. 어이 무엄도하다."

양장이가 감사를 넌지시 바라보며 한 마디 하였다. 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색이 싹 변하였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당신같은 신하에게는 상감께 바칠 소를 대신 바칠 수 없오. 나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어야 하겠소."

양장이는 소를 몰고 나오려 하였다.

"여보시오. 꿜 그리 하시오. 몰고온 소를 그냥 두고 가시오."

감사의 눈치를 살피던 호방 나인이 달려 나와서 말했다.

"이놈 어디서 하던 버릇, 아랫놈이 어디다 대고 상감께 바칠 물건에 대하여 함부로 나불거리느냐. 감사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 될 일인데."

이렇게 꾸짖고는 소를 몰고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감영에서 전갈이 왔

다. 지난 날에는 분수를 모른 아랫것들이 경거망동하여 물리친 모양인데, 어서 갖고 오면 예를 갖추어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장이는 듣질 않았다.

"한 사흘만 기다리다가 그때 바치도록 해도 늦지 않으니 푹 마음놓고 있으시오."

양장이는 여유있게 진상소를 갖고온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감영에서는 매일 사람을 보내어 소를 진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노자에 쓰라고 돈까지 마련하여 사람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양장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참에 저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 되오. 그래야 다음부터 소 진상하는 일이 쉬워져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흘을 기다렸다. 그 동안 매일 사람이 와서 간청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몰고 감영으로 갔다.

"내 감사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냥 바치고 가지마는 다음부터 이러면 우리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연유를 아뢰고 바칠 생각이요."

양장이는 못이기는 척하고 소를 바쳤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노자에 보태쓰라고 엽전 꾸러미까지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제주 사람은 그 엽전을 가지고 며칠을 푹 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 후부터는 전라감영에서 소를 진장하는데 아주 수월하였다.

서귀포시 영천동, 양원교(남 74) 제보.

8. 변 인 태

변인태는 서귀진(西歸鎭) 진졸(鎭卒)이었다. 그는 비록 낮은 신분이긴 하였으나 말 재간이 좋아서 항상 위기를 넘기거나 윗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곤 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잘하였다.

한번은 그가 서귀진에서 목안(牧內)으로 급한 일이 있어 가고 있었다. 어느 길가 밭에서 김을 매던 일꾼들이 변인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저기 변인태가 지나간다."

"저놈에게 거짓말을 시켜볼까."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그는 모두 듣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그 곁을 지나려 하였다.

"야, 변인태, 자네 거짓말을 잘 한다는데 거짓말을 좀 해봐라."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고약스럽게도 놀리는 투로 말하였다. 변인태는 속으로 화가 불끈 일어났다. 그러나 참았다. 세상에 나서 거짓말을 좀 해보라는 사람을 처음 대하였고, 또

한 자기를 놀림감 쯤으로 생각하는게 심히 못마땅했다.
"자 심심도 한데 거짓말 한마디 해보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끼어들어 지껄였다.
변인태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고 뭐고 귀찮소."
퉁명스럽게 그냥 지나치려 하였다. 일꾼들은 이 변인태를 그냥 보내지 않을 듯이 다시 장난삼아 말했다.
"그 거짓말 놔뒀다가 무엇에 쓸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구."
이렇게 다그치자,
"이 사람들 일이나 할 일이지 무슨 거짓말을 그리 듣겠다는 거요. 난 지금 바빠요.
"바쁘다니, 무슨 일인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에 다시 관심을 나타내면서 다그쳤다.
"지금 서귀진에 왜놈의 배가 여러 척 쳐들어 오고 있소. 어서 목안에 가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난 바쁜 사람이오."
변인태는 한 마디 뱉듯이 말하고는 갈 길을 그냥 가려 하였다.
"아니, 여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오. 왜놈의 배가 쳐들어 왔다니요?"
사람들은 놀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말도 마시오. 왜놈의 배가 수십 척 쳐들어와서 지금 서귀진은 대난리요."
변인태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안돌아보고 가는 길을 부지런히 걸어갔다. 변인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하던 것을 내버려두고 혼비백산하여 산 속으로 내닫기 시작하였다. 왜놈이 쳐들어온 이 정황에 일이고 뭐고 생각할게 없었다.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 그 모양을 보던 변인태는 혼자 '낄낄' 웃으면서,
"멍충이 같은 놈들, 거짓말을 하라 해놓고, 왜 놀라기는 놀라."
그는 배꼽이 끊어질 정도로 웃으면서 달아나는 사람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변인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그때는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 도임하면 꼭 섬 전체를 한 번 돌아보았는데 그 때마다 정방폭포를 꼭 구경하였다. 그럴 때마다 쇠로 만든 방석을 따스하게 불에 쬐여 목사에게 갖다드리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그럴 때 그 쇠방석이 너무 뜨거워도 안되고 너무 식어도 안되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그 뜨거운 정도 또한 차이가 있어야 하였다.
목사가 순력차 서귀진(西歸鎭)에 온다는 소문이 나자, 변인태는 자기가 맡은 그 쇠방석 일을 잊어버린 채 그만 목사 순력에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

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지 목사가 정방폭포를 구경하려고 이르렀다.

"여기에 쇠방석을 대령시켜라."

조방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쇠방석을 따습게 구워드리는 일을 책임맡은 변인태는 아무런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았다. 잘못하다가는 볼기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조방장이 들으라는 듯이 냉냉한 쇠방석에 손을 갖다대보면서, '엇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뜨겁게 말고 좀 식혀서 가져오너라."

조방장은 변인태의 엉뚱한 짓을 알기에 너무 뜨겁게 구워서 가져올까 걱정이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변인태는 잘 되었다는 듯이 그제서야 급히 따습게 만들어 대령하여 그 어려운 처지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변인태는 늘 조방장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특히 그는 다른 진졸(鎭卒) 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모두들, 오히려 진졸들이 더 고생을 하는데 먹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다는데 늘 불만이었다. 그래서 그의 동료인 같은 진졸 몇 사람과 의논을 하였다.

"아, 자네는 이름을 '엇떠바리'라고 하게. 그리고 자네는 '게두어리'라 하게."

이렇게 두 친구에게 '엇떠바리',
'게두어리'라는 이름을 붙여 서로 불렀다.

하루는 새 조방장이 부임하여 첫 번째로 아침식사를 차려가는 때였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끓여놓고 많은 반찬에 정말 진졸로서는 한번 먹어보지 못한 성찬이었다. 그 성찬을 보니 더욱 부아가 일었다. 더구나 새로 들어온 조방장에게 변인태는 좀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야만 앞으로 조방장이 자기네를 대하는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그 친구들과 의논을 하였다.

변인태가 조방자의 식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는 식사상에서 숟가락을 꺼내어서 뜨겁게 만들어 상에 놓고서 상을 갖고 들어갔다. 조방장은 시장기가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얼른 숟가락을 집어 들었다. '엇뜨거워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엇떠버리'라는 놈이 달려들어 먹을려는 밥상을 얼른 갖고 나갈려는 것이었다. 의외의 사태에 직면한 조방장은 정색을 하고는 '게두어라'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옆에서 식사시중을 들고 있던 변인태가 큰소리로,

"야, 게두어리와 같이 나누어 먹으시란다." 하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게두어리'라는 진졸이 얼른 나타나서는,

"조방장님, 고맙습니다. 배고픈 김에 잘 되었읍니다."하고 아뢰고는 나가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조방장도 어쩔수가 없었다. 다시 그 식사를 가져오랄 수도 없었다.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다.

밖에서는 이들 음모를 꾸민 셋이서 맛있게 조방장을 위해 마련했던 식사를 하면서 '낄낄' 웃었다.

한번 이런 일도 있었다.

조방장이 하도 변인태를 못살게 굴었다. 보아하니 꽤나 비상하고 거짓말도 척척해대는 이놈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에, 늘 그를 괴롭히며 그러한 엉뚱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변인태는 이 조방장을 골탕 먹일 일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는 조방장이 변인태를 불러들이고는 자기 집에 심부름을 시키려 하였다.

"변인태, 자네가 우리집에 뭘 좀 갖다주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시키는 것은 큰 나무로 쟁기를 제 성안에 있는 자기 집까지 갖다달라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심히 못마땅하였으나,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우리 집을 자네 모르지. 성안에서 제일 큰집이야."

제일 큰집이란 말은 허풍이었다. 자기네가 잘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번 해본 말이었다. 그런 다음에 조방장은 성상 자기 집의 위치를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변인태는 듣는 둥 마는 둥, '예, 예' 하고 대답만 하였다.

변인태를 그 무거운 쟁기를 지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여 조방장을 골탕먹일까 생각만 하고 있었다. 등에 짊어진 쟁기는 보아하니 이제 곧 만든 새것이었다. 이것은 필시 어느 백성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면 진졸을 시켜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요즈음 소나무나 가시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는 목사의 엄명이 내려진 때인 것이다. 변인태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 쟁기 하나면 조방장쯤을 골탕먹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성안에 다다랐다. 그는 대충 귀넘어 들어서 조방장네 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모른 척하고 그 쟁기를 지고 사또가 일 보은 동헌으로 들어갔다.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틀림없이 이 집이 아니겠는가. 동헌에 이르자 수비를 보던 나졸들이 창을 들이대며 막아섰다.

"이놈 어디를 들어갈려고 하느냐."

"나는 서귀진 진졸 변인태인데, 우리 조방장님이 이걸 집에 가져가라 해서 왔소."

나졸들은 그가 갖고온 쟁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놈아 여기는 느네 조방장네 집이 아니다. 여기는 목사께서 사무를 보시는 동헌이다. 어서 썩 물러가라."

"무슨 말씀, 우리 조방장이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 바로 자기네 집이라고 하였는데."

변인태는 물러서질 않았다. 그러자 나졸들은 그 조방장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이건 필시 이상한 음모가 서려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변인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놈, 이 서귀진 조방장은 서귀진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이 없고 사가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것은 엄히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닌가. 더구나 허가없이 나무를 베어 사가의 물건이나 만들어 그것도 국록을 먹는 진졸을 시켜 집에까지 가져가도록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시오."

목사의 명이 떨어지자 야단이 났다. 이를 보던 변인태는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이놈 잘되었다. 나를 못살게 하더니.,' 하면서 낄낄 웃었다.

서귀포시 영천동, 양원교(남•74) 제보.

9. 홍리 고대각

홍리(洪里)에 고대각이라고 힘이 장사인 사람이 살았었다. 그 부친은 소를 여러 마리 기를 정도로 여유있게 살았다. 단지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힘쎈 아들을 하나 얻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임신을 하자 그는 힘쎈 아들을 얻기 위하여 소를 열두 마리나 잡아 먹였다. 그러나 나고보니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 실망이 매우 컸으나 다음을 기약하고 참았다. 그 후에 다시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열 마리만 잡아 먹였다. 열두 마리를 잡아 먹이면 다시 딸을 나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은 것은 아들이었다. 고대가 부친은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였다.

오뉘는 잘 자랐다. 외모도 남달리 뛰어났고 힘도 세었다. 고대각 부친은 여간 다행으로 생각하질 않았다. 고대각의 힘은 그 주위에서 알아줄 정도로 소문나 있었다.

어느 가을이었다. 고대각은 밤에 산디밭(陸稻)을 지키려고 갔다. '쿨굴왓'이란 밭에 산디를 갈아 잘 여물었는데 베어 놓고는 밤에 지키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다 지어가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먹고 온 고대각은 밭 한편 구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어서는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니 쌀쌀한 냉기가 옷섶으로 스며드는게 으스스하게 춥기도 하였다. 그때였다. 어떤 사람이 밭안으로 퉁하고 뛰어들었다. 그래도 고대각은 가만히 동정만 살폈다. 그 괴한은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고는 엎드려 비어논 벼를 묶기 시작하였다. '이놈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하는 거동이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하여 좀 두고 보기로 하였다. 그 사람은 어느새인지 밭 가운데 있는 벼를 거지반 묶고는 한가운데로 모아놓아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짐꾸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 사람도 보통이 아

니란걸 알 수 있었다. 고대각은 그냥 두었다. 그리고는 몰래 그의 뒤를 따라 가 보았다. '언제고 내가 값을 톡톡히 받을 때가 있을 테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날이 훤하게 밝자 그 산디 지어간 사람을 만났다.

"왜 남의 곡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지어갔소."

좀 퉁명스럽기는 하였으나 조용하게 물었다.

"곡식은 떨어지고 물어봤자 지어가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내가 한 짐 지어 왔소. 나중에 내가 값을 갚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상대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아주 의젓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고대각은 더 따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몇 년 후였다. 그 산디 지어간 사람에게서 산디값을 받아가라는 기별이 왔다. 그는 육지와 쌀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쌀장사가 잘 되었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것이었다.

고대각은 때를 맞추어 갔다. 그의 무곡 실은 배는 갯가에 쌀을 실은 채로 그냥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전에는 제가 실례가 많았소. 오늘 그 값을 갚을 테니, 가져갈 만하게 가져가시오."

그는 배를 가리키며 마음대로 지어가라고 고대각에게 말했다. 고대각은 아무 말 없이 쌀 실은 배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자근자근 쌀가마니들을 포개놓고 세워놓고 하면서 짐을 꾸렸다. 그러다 보니 배안에 있는 쌀가마니들이 겨우 한 짐 밖에 되질 않았다. 고대각은 배안에 있는 쌀을 몽땅 한 짐에 지어나오면서,

"더 가져가려해도 쌀이 없어 이것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마디하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배임자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날밤에 자기가 너무 당돌하게 그 집 산디를 지고 온 게 미안하였다. 저 힘에 한번 싸움이라도 붙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니 가슴이 오싹하였다.

"쌀값은 제대로 갚는군."

배임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렇게 힘이센 고대각도 그 누이에게 들면 힘을 못썼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모관 동촌(東村)에서 온 섬 장사들이 모여 씨름대회가 벌어졌었다. 고대각은 여기에 참석하였다. 아직 그의 힘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다. 한참 씨름이 고조를 이를 즈음에 고대각이 썩 나섰다.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그렇게 이겨가는데 그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다.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저 친구 안보던 사람인데……"

"남의 지역에 들어와 건방지게 힘을 자랑하며 빼기는 꼴 보기가 안좋군."

아무도 고대각과 상대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자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갔다. 그때였다.

어떤 사람이 씨름판 안으로 달려들어 고대각과 맞붙었다. 순식간에 승부는 나고 말았다. 고대각이 지고 그 모른 사람이 이겼던 것이다. 사람들의 환호가 씨름판을 흔들었다. 고대각은 분을 못이겼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새로 이긴 그에게 상금이 주어졌다. 소 한 마리와 무명 세 필 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씨름 대회는 무사하게 끝마쳤읍니다. 내가 오랜만에 장사가 됐으니 이 소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읍니다. 잡아서 우리 잔치나 합시다."

장사는 의연하게 무명만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집에 돌아온 고대각은 자리를 펴고 누워 바깥 출입을 안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이긴 싸움터에서 그 모른 놈이 나타나 훼방을 놓다니, 생전 그런 치욕을 당해 보질 않은 것처럼 억울해 하였다.

그때였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고대각의 누이였다. 외갓집에 간다고 어제 집을 나갔는데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고대각 어디갔니?"

그는 들어오면서 고대각을 찾았다. 방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누이는 고대각이 자는 방을 휙 열었다.

"사내가 대낮에 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 하면서 무명필을 고대각의 머리맡으로 휙 던졌다. 깜짝 놀라 일어난 고대각은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무명을 보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씨름판에서 장사로 뽑힌 자가 상금으로 탄 그 무명이 아닌가. 순간 고대각은 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아, 누님!"

고대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씨름판에서 만났던 그 낯모른 장사가 바로 누님이란걸 순간 깨달았다.

"이제야 알겠느냐."

누이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문을 소리나게 닫아 버렸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누님말고 또 누가 나를 이기겠나."

이렇게 소리치며 고대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누님을 붙잡았다.

"힘을 쓴다고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네게 그걸 알려주려고 씨름판에 나간거야.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여 힘을 써야 한다.

고대각은 누이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고대각은 힘을 쓸 때마다 누님의 충고를 생각하곤 하였다. 그래서 고대각은 오래도록 장사로서 그 힘을 쓰면서도 큰 화를 당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호근동, 김두옥(남 • 72) 제보

10. 날개돋은 아기장수

아주 오랜 옛날 일이다. 강정 김댁(金宅)에서 있었던 일이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쌍둥이었다. 집이 가난하여서 부부는 아이들을 놔두고 밭일을 가곤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졌다. 부인이 와서 보면 두 애가 눕혀진 채로 있는 게 아니었다. 쌍둥이지마는 그 어머니는 눕혀놓을 때 그 차례를 다 살펴서 눕히는데 돌아와 보면 서로 엇갈리곤 하였다.

아기 어머니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숨어서 아기들이 노는 것을 살피었다.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는 문 앞에 숨어서 방안을 창 틈으로 들여다 보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아기 구덕에 눕혀논 아이들이 푸드득 푸드득 날아 천정에도 붙고 벽장에도 붙고 하면서 노는 것이 아닌가. 아기 어머니는 가슴이 끔찍하였다. 이것은 큰일이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건 바로 역적이 될 인물이란 것이 아닌가.

한참이나 그렇게 방안을 들여다 보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였다. 그러자 아기들은 후다닥 구덕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엇갈려 눕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였다.

"역적이 나면 우리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모두 몰살을 당할 판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어떻하면 되느냐는 해결책이 남편에게인들 있을 수가 없다.

한참만에야,

"할 수 없지 않소. 세상 법이 그러니 할 수 없지요. 우리 손으로 그 자식은 죽일 수 밖에 별 도리가 있겠읍니까."

"자식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인단 말이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소."

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차라리 자식들과 함께 죽는 게 낫다 하였다. 곰곰히 생각하던 남편은,

"이 일은 아버님 묘소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 산혈이 아마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자식들을 죽이기 보다는 그 산을 이장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날을 정하여 이장을 하기로 하였다.

산을 파서 막 썩어빠진 개관들을 막 해 집어내려 할 때였다. 그 관중에서 큰 황새가 막

날려고 뒷발을 일으키고 날개를 벌려있다가 쿡 꼬꾸라져 죽어버렸다. 어떻든 그렇게 된 후에 아버지 시신을 차려 이장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아이들은 벌써 죽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바로 그 아이들은 장수가 될 뻔하였다.

서귀포시 하원동, 김택효(남•86) 제보

11. 변당장과 그 아들

옛날 중문에 변당장이란 사람이 살았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별로 글을 읽지도 못하였고 겨우 근근히 생활을 꾸려 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으로는 남과 같이 글도 읽고 큰 밭에서 농사도 지어 배고프지 않고 살기를 항상 소원하였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였다. 그러자 어느만큼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어디 자그마한 밭이라도 사서 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중문 옆 마을인 하례에 밭 팔 것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침 찾아가보니 그는 별로 넉넉한 처지가 아니고 또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흥정을 하였다. 그러나 문서를 꾸밀 수가 없었다. 변당장이나 그 밭을 판 사람이나 모두 글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여논 흥정이고 또 돈을 주고 받은 이상 문서 때문에 일이 잘못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서는 그에게 맡겨 버렸다. 결국 그는 시골 인심에 밭을 보지도 않고 흥정을 마쳤다.

뒷날 그는 밭문서를 만들어 왔었다. 문서에 보면, "동은 족다리, 서도 족다리 북은 뱃도롱동산, 남은 허구대양." 이렇게 밭의 위치를 정하여 문서를 만들어 왔다. 변당장은 생각하기를 꽤나 큰 밭이라고 생각하였다. 족다리란 지명도 다 아는 곳이니, 어디 그 지경에서부터 바닷가에 이르는 아주 너른 땅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지 뱃도롱동산이라는 데는 처음 듣는 곳이었으나 그게 대수이겠느냐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내 산 논을 가봅시다."

변당장은 문서를 받으면서 직접 밭을 가보자고 하였다.

"봐서는 무얼 하겠읍니까. 내년 밭 갈 때 쯤에 가보지요."

듣고보니 그럴 것도 같았다. 바쁜데 가고 오고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기로 하였다.

뒷해 봄이 돌아왔다. 변당장은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그 집으로 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 부인이 쪼르르 내달아 나오더니,

"밭갈러 오셨읍니까. 주인은 잠깐 나갔으니 들어와 좀 기다리십시오."

여자는 아주 상냥하게 변당장을 안으로 안내하고는 급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변당

장은 그저 아무 생각없이 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술상을 차리고 들어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변당장은,

"이거 어쩐 일이요. 아니 술은 무슨 술입니까."

"아니 큰 밭을 흥정하였는데 술 한잔 아니하고 되겠읍니까."

여자는 아주 익숙하게 술을 따라 건네는 것이었다. 변당장은 마음이 꺼림직하였으나 그렇다고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니어서 몇 잔을 들이켰다. 그래서 취기가 점점 올라갈 때였다. 갑자기 여자가 옷을 활활 벗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 옆에 벌렁 눕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떤 일이오."

변당장은 기겁을 하여 말했다.

"아니, 왜 놀라십니까. 밭을 사지 않았읍니까. 그 문서를 좀 보십시오. 사신 밭이 바로 여기가 아닙니까."

여자는 손으로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어서 샀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문서에 명기된 그 밭을 생각하였다. "동으로 족다리, 서로 족다리, 북은 뱃드롱동산, 아래로는 허구대양....." 그것은 틀림없는 그 여자의 그 곳임에 틀림이 없었다.

변당장은, "이거 속았구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르고 속았으니 분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로부터 그는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한 것을 통한히 여기면서 그 아픔을 아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고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서도 아들에게만은 열심히 글을 읽게 하였다. 그래서 후에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아들이 만경군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하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간 만경군수로 부임하여 얼마 없어 벼씨모종을 낼 때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나 가뭄이 심했던지 모판에 물이 말라 벼씨를 뿌릴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비를 기다려도 비는 내리질 않았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하던 군수는 제주에서 하던 방접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영을 내렸다. '벤줄래'라는 따비를 만들라고. 사람들은 들으려 안했다. 그런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원의 영이라 그러한 보습을 만들어 내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보습으로 논을 갈도록 하였고 거기에 벼씨를 뿌리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믿질 않았으나 이미 망쳐논 농사이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마지 못해 따라했다. 그러자 그런 중에도 볍씨는 싹이 트고 자랐다. 물이 웬만큼 모자라도 자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얼마없어 비가 내렸다. 다행히 그해 논농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 논의 소출도 여전했다. 그후부터 그 '벤줄래'라는 따비가 종종 쓰여졌고, 그것을 만들어낸 변군수의

공덕을 칭송하곤 하였다.

서귀포시 중문동, 고영홍(남 • 75) 제보.

12. 무우남밭 이좌수(I)

옛날 중문에 힘이 장사이고 학식이 있었던 이좌수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제주 삼읍에서 손꼽는 영웅이었다. 특히 그의 눈 정기가 날카롭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한번 눈을 번쩍 뜨면 마당에서 놀던 닭들이 핑핑 넘어질 정도였다.

그는 대정고을 좌수로서 늘 중문에서 말을 타고 나들었다. 어느날 밤이었다. 마침 일이 늦어 밤이 이슥해서야 이좌수는 말을 몰아 집인 중문으로 오고 있었다. 밝은 달이 몇 잔 마신 술의 취기를 알맞게 돋궈주므로 흥겹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을 달렸다.

그렇게 얼마를 가는데 길가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갈길이 멀고 다리는 아프고 하니 말에 같이 타서 갈 수 없느냐고 하였다. 보아하니 아름다운 처녀이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해서 쾌히 응낙하였다. 그래서 그의 뒤에 타도록 하고는 늘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오랏줄로 떨어지지 않게 자기몸에 묶었다. 그리고 더 신이 나서 말을 달렸다.

한참 말을 달리다 생각을 하니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여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다. 그리고는 여자와 자기 몸을 묶었던 오랏줄을 바짝 조이었다.

집이 점점 가까와 가자, 그 여자는 이제 그만 내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좌수는 말을 들어 주질 않았다. 등 뒤에서 여자가 내려달라고 보채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이좌수는 더 말을 빨리 달렸다. 이제야 여자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눈치채고는 막 등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이좌수가 그 여자를 내려줄리 없었다.

그럭저럭 이좌수네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이좌수네 집에는 큰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개들이 주인의 말발굽소리를 알아보고 나왔다. 이좌수는 오랏줄을 풀어서는 그 여자를 잡아 휙 마당으로 내던졌다. 개가 사람과 여우를 알아보고 달려들어 콱 물었다. 그 순간 곱게 보였던 여자는 간데 없고 마당 가운데 큰 여우 한 마리가 개에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이좌수의 눈정기가 하도 유명하였다. 그때는 제주 목사가 도임을 꼭 제주 삼읍을 시찰하였다. 이런 일이 행해 질때면 그에 따른 백성들의 어려움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소위 순력에 따른 여러 시종들을 백성들이 잘 받들려야 하였고, 그에 따른 민폐와 관리들의 행패도 심하였다. 이좌수는 비록 좌수일을 보는 입장이었지마는 이런 일에 따른 민폐는 영 마음에 불만으로 남아 있었다.

목사가 도임하여 첫 순력이 시작되었다. 대정 지역에 속하였던 중문 동편 서귀포 경계에서 부터 목사를 모셔서 와야 할 형편이었다. 이좌수는 다른 관리들과 같이 정의고을과 대정고을 경계에서 목사 맞을 채비를 하고 기다렸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사가 순력하는 동안 민폐를 덜 끼치고 돌아가게 할까 생각하였다.

목사가 이르자 대기했던 대정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내달아 정성을 다하여 맞아들였다. 목사의 위엄도 대단하였고, 그보다는 그를 안내하여 같이온 시종들의 거만한 태도가 더욱 마음에 거슬렸다. 이좌수는 그냥 한편에 비켜서서는 눈은 가만이 감고 있었다. 모든 관리들이 나아가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예를 표하면서 원로에 수고로움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좌수는 여전히 구석지에서 서서 목사에게 가벼운 목례만 보낼 뿐이었다. 그러는 그에 대하여 누구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에도 그가 목사가 순력할 때 그 눈 때문에 목사가 곤혹을 치렀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발 이좌수가 저렇게 한편 구석에 서 있어주기만을 바랬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되었다.

"저기 서 있는 자는 누군고?"

목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보내지 않고 서 있는 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예, 그 자는 대정고을 좌수이옵니다."

아전이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이좌수를 소개하였다.

"좌수는 어찌 눈을 그렇게 감고서 나를 한번도 바로 보지 않는고."

목사는 마음이 꽤나 언짢았으나 직접 내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빼있는 말을 하였다. 주위에 있는 시종들이 뭐라고 대신 변명을 하여야 할 텐데 그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좌수는 그래도 못들은 척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는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좌수는 목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거요?"

목사가 약간 큰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것은 핀잔의 소리였다.

이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목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똑바로 목사를 바라보고 눈을 떴다. 그 눈에서 불이 번쩍하였다. 목사는 순간 눈 앞에 큰 호랑이 부릅뜬 눈을 대하는 착각에 정신이 아찔하였다. 다시 정신을 수습하여 앞을 내다보니 그것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좌수의 눈에서 내쏘여지는 눈정기였다. 순간 목사의 가슴이 뜨끔하였다. '아 이 인물 보통치는 아니구나.' 목사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위엄은 잃지 않으려 하면서 그러나 이좌수의 불꽃같은 눈정기는 여전히 목사의 얼굴에 퍼부어지고 있었다.

"목사 나리, 대정고을 이좌수 문안 드립니다. 원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좌수의 목소리는 우렁우렁하니 들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좌수, 내 노독으로 심신이 피로하니 그 눈을 좀 감고 나를 대해 주시오. 눈이 하도 부셔서 어지러워요."

목사는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좌수는 짐짓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목사를 바라봤다.

"이좌수, 어서 눈을 좀 자그만치 뜨고 나를 보시오. 내가 어지러워서 그래요."

목사는 애걸하다시피 말했다. 속으로는 이좌수란 사람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좌수는 그제야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자리를 피했다. 목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시종들에게 어서 이 고을을 대강대강 순력하고 어서 떠나자고 하였다. 이좌수의 그 눈 때문에 목사 순력이 무사하게 마쳐졌다.

이좌수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알았다고 하며 죽은 친구의 혼령과 만나고 그 원을 들어 풀어 줬다고 한다.

이좌수의 대포리 현 형방과는 막역한 친구사이였다. 그런데 현형방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느날 밤이었다. 이좌수는 잠결에 들려오는 말방울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꿈인 것도 같고 생시인 것도 같았다. 더구나 그 말방울 소리는 현 형방이 살았을 때 그 말방울 소리였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이좌수 자는가?"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이좌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현 형방의 목소리였다.

"거 누군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현형방이 말에서 내려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이거 어쩐 일이오."

이좌수는 그를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길이 바쁘니 어서 가야겠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오늘이 바로 제삿날인데 집에 와보니 제사를 받을 마음이 없어 간다는 것이었다.

"무슨 사연인지 좀 소상하게 말해 주게.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닌가."

"멧밥에 구렁이가 들어있고 자식놈들의 정성이 부족하니 내가 마음만 상하여 그냥 가는 것이네."

그러고는 현 형방은 말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돌아가 버렸다. 이좌수는 곰곰이 생각하니 이상하였으나 어쩌면 모든 게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뒷날 이좌수는 대포리에 사는 현 형방대 큰 아들을 집으로 불러 들였다.

"어제 저녁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좌수는 현 형방의 큰 아들이 오자 무슨 사연을 알고자 물었다.

"예, 자그만 일이 일어났읍니다. 어제 저녁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날인데 그만 어린 아들놈이 탕국에 화상에 입었읍니다. 그 바람에 제사고 뭐고 약간 소란이 있었읍니다."

곰곰이 모든 내력을 듣던 이좌수,

"그림 그 메밥을 가서 보게, 혹 부정한 거라도 있는 게 아닌가."

현형방 아들은 이좌수가 이르는 대로 급히 집으로 달려가 엊저녁 메밥 남은 것은 조사하여 보았다. 그 밥 속에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 아들은 그런 사실을 곧 이좌수에게 알렸다. 이좌수는 엊저녁 현형방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 아들은 자기네의 정성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그 뒤해였다. 밤중에 다시 현 형방이 그 말방울 소리를 내며 찾아왔다.

"자네 덕분에 금년에는 정성스런 제사를 받고 가네."

진정 고마운 말을 전하려 왔다고 하면서 돌아가려 하였다.

"현 형방, 자네 지금 저승에서 왔으니 내가 저승으로 갈 때는 자네도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그것 좀 알려 주게."

"그것만은 알려줄 수가 없네."

"그래도 친구 사이이고, 또 그 일만은 내가 절대로 비밀로 지켜 나만 알고 있겠네."

간곡하게 몇 번이고 사정하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래도 이좌수는 그 날을 자신만 알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바로 그날이 왔다. 며칠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좌수는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 의관을 정제하고 나아가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 곧 종명하였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당시 제주섬에는 13개의 목장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나라에서 쓸 말들을 기르고 있었다. 당시 목장은 상•하장으로 나누어 한 해씩 돌아가며 상•하장에서 방목을 하였다. 해마다 말이 방목하지 않은 목장은 그 주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농사짓게 하여 땅값을 세곡으로 받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세곡이 너무 많아서 사실 백성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격이 되곤 하였다. 어쩌다 흉년이 들면 소출은 커녕 세곡 바칠 곡식도 거둬들이지 못하여 관가에 빚을 지는 경우도 흔하였다. 더구나 이를 빙자하여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목사가 이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아래 관리들의 횡포는 말이 아니었다.

어느 해 팔월이었다. 이때쯤이면 곡식들이 어느 정도 여물어 그 소출을 점칠 수 있을 때이다. 금년에는 농사가 꽤찮게 되었다. 관리들은 사또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낼 일을 생각하였다.

"목사나으리, 시절은 좋은데 큰 일이 있읍니다."

어느날 이방이 목사 앞에 나아가 음흉한 계책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무슨 일인가?"
"목장이 가물어 목초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상장에 있는 말들이 다 죽어가고 있읍니다."
"아니 그렇게 가물었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고."
"할 수가 없읍니다. 국마를 죽여서야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읍니다. 하장을 헐어 백성들이 농사한데서 얼마동안 먹도록 할 수 밖에 없읍니다."
"백성들이 농사짓는 하장을 헐어서……"
목사로서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마는 국마가 죽어간다는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목사의 결재를 받고 각 고을에 공문을 띄웠다. 하장을 헐어 그곳에서 상장의 말들을 먹이라고.
각 고을에서는 야단이었다. 피둥피둥 살진 말들을 놓고 굶어 죽는다고 목사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내려는 관리들의 검은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돈이나 곡식을 모아서 갖다 바쳐야 했던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대정 원도 이 공문을 받고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좌수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테니 걱정을 마십시오."
군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하장을 헐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도 현감의 마음은 답답하였다.
이좌수는 걱정하는 현감이 따분하여서 직접 목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엎디어 사정을 말하였다.
"사또 나으리, 지금 국축(國畜)들은 살이 피둥피둥 쪄서 있는데 하장을 헐어 백성들이 피땀흘려 지어논 곡식을 먹이는 일은 부당한 일이옵니다."
목사는 대정 좌수의 이러한 진정이 괘씸하였다. 영을 내렸으면 이행할 일이지 무엄하다고 생각하였다.
"좌수는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오. 어서 물러가 다른 공사에 임하도록 하시오."
목사는 한마디로 물리치려 하였다.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한 이좌수는 고개를 번쩍들고 눈을 부릅떠 목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사또 가서 보십시오. 국마가 굶어죽고 있나.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나."
목사는 우렁우렁한 이좌수의 목소리에도 놀랐으나, 그 부릅뜬 눈을 보고는 정신이 아찔하여서는,
"이좌수는, 눈을 조금 감고 이야기를 하시오. 좀 고정하고……"
이좌수는 결국 하장을 헐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돌아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고영홍(남 • 75) 제보.

무우남밧 이좌수(Ⅱ)

서귀포시 중문동(무우남밧)이란 동네에 이좌수라는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의 눈에는 눈동자가 둘씩이라 눈정기가 아주 빛나서 번개눈이라 했다.

이좌수는 나중에 훈장까지 지내다가 죽었지마는, 그 아버지가 여든 살에 새 장가 들어서 난 아들이다.

이좌수 부친이 자식이 없어 양자를 데려서 사는데, 그 양자의 나이도 예순 살이었다.

하루는 이좌수 부친이 양아들을 불렀다.

"아들, 거기 있느냐?"

"예."

"너, 이리 오너라."

"어떤 일로 아버님이 저를 부릅니까?"

부친이 조용히 말하기를 "색달리 군황터에 열일곱 살 난 처녀집에 가서 그 딸을 구해오라. 내 장가 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불효자라고 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네를 돌리면서 창피하게 만들어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게 했었다.

양아들이 '예!'하고 우선 대답을 하고는 <안거리>에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아, 아버지가 나이 여든인데 장가를 들겠다니,

양아들은 하는 수 없이 한탄하며 드그락드그락거리며 군황터엘 찾아갔다.

군황터에 사는 딸 부친은 임씨로 국마(國馬)를 지키는 목자(牧子)로 상놈에 속하는 신분이었다. 그런 까닭에 임씨는 양아들을 정중히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아, 이좌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누추한 집에 오십디가?(오셨읍니까?)"

양아들은 늙은 아버지의 작은 부인으로 그집 딸을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그저 다니러 왔노라고 할 것인데, 딸을 구하러 온 까닭에 상놈이지만 공손히 예도를 갖추어 답례 인사를 했다.

"좌수님, 안으로 드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양아들이 임씨와 방에 앉아 있을 때 임씨 부인이 메밀 칼국수를 한사발 대접하였다. 대접을 받고 난 후에도 양아들은 입을 실룩거리며 뭐라고 말을 하려다 그만두고 말이 입에

서 나오지 않았다. 차마 여든 살된 할아버지가 장가가려고 딸을 구하러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양아들이 머뭇거리자 임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좌수님, 오신 말씀을 헙서(하세요)."
"이 말을 해서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몰라서 못 하겠네."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못할 말이 어디 있읍니까?"
"다름이 아니라 금년 아버님 나이가 팔십인데, 댁에 계신 열일곱 살난 딸을 구해오면 장가를 가겠다고 해서 찾아오긴 왔읍니다만 차마 말을 하기가 민망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었다. 그때 임씨 딸이 작은 방에서 손님과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는
"그 할아버지의 오줌을 가서 받아오십서(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중문과 색달 사이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양아들은 할아버지의 오줌을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방에 계십니까?"
"여기 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냐?"
"그 처녀가 아버님 소변 본 것을 받아오시라고 했읍니다."
그당시 양반집에는 방안에 조그만 요강을 놓고는 오줌을 싸서 뚜껑을 덮어 두곤 했었다.
양아들은 부친이 오줌을 싸둔 요강지를 보자기에 싸서 다시 색달 처녀네 집으로 갔다.
"가서 소변 받아 왔읍니다."
보자기에 쌓인 요강을 드리자, 그 처녀는 보자기를 풀고 뚜껑을 열어봤다.
"아들 하나 낳겠읍니다. 아버지, 허혼허십서(하세요)"
임씨는 허혼하라는 딸의 말에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이좌수 댁에서 택일을 했는데, 그때가 시월보름 가을이었다. 택일한 날을 색달리에 전하고, 그날은 할아버지 혼자 예복을 차려입고 하인들만 데리고 가서는 암창개(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부가 신랑댁으로 시집오는 혼례의 한 형태)로 그 처녀를 모셔왔다.
원래 그 처녀가 영리했다. 식을 올리고 난 후 얼마없어 그 할아버지가 부인의 배위에서 죽고 말았다. 작은 부인이 양아들을 불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은공 잘 갚고 곱게 장사지내라"고 지시했다. 장사를 지내고 난 후부터 작은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
아들을 낳았는데,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감고만 있었다. 부인은 이거, 혹시 봉사가 되려는가 하고 냉가슴을 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사람이 없을 때는 눈을 떠서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이 아기가 바로 훈장을 지낸

이좌수이다.

유복자이지만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다섯 살 되자 서당에 글 공부를 보냈다. 원래 영리한 까닭에 얼마 배우지 않아도 모두 통달했다.

이좌수가 성장하면서 눈정기는 매우 세어져 갔다.

하루는 멍석을 마당에 펴고 보리를 말리는데, 닭이 모여들어 보리를 마구 쪼아 먹었다. 그래도 이좌수는 닭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부인이 "어째서 닭이 보리를 마구 쪼아 먹는데 쫓지를 않느냐?"고 야단을 쳤다.

"여보, 닭고기 먹고 싶은가?"

"닭고기 먹고 싶던 안먹고 싶던 간에 닭을 내쫓아야 할 게 아닙니까?"

이좌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닭고기 먹게 되었구나" 하면서 일어서서 "후_"하고 소리를 치며 눈을 반쯤 뜨자 닭들이 납작하게 엎드린 채 모두 죽는 것이었다. 개도 달려들면 "이놈의 개" 하고 눈을 반쯤 뜨면 죽곤 했다. 이좌수의 눈정기가 아주 세었기 때문에 개다 닭정도는 눈을 반만 떠도 바싹 겁에 질려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제주목사로 눈정기가 뛰어날 정도로 센 양반이 부임을 했다. 대정원에 눈정기가 센 이좌수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목사는 이좌수와 눈싸움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는 대정원 이좌수를 찾아와서 "나하고 눈싸움 한번 해보자"고 청했다.

이좌수는 이에 자신을 갖고 "그렇다면 무엇이든 내기를 해야 합니다. 눈싸움을 재미없이 그냥 할 수 있읍니까?"하고 제의를 했다. 목사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승낙을 하고서 황소 한 마리와 술 열통에 돼지 세 마리를 내기로 걸고 드디어 눈싸움이 벌어졌다.

이좌수가 먼저 말했다.

"목사님, 어서 눈을 뜨십시오."

목사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 떴읍니까?"

"음, 나는 이 정도 뿐이다."

"눈정기가 그것뿐입니까? 나도 눈좀 뜨겠읍니다."

이좌수가 목사를 바라보며 눈을 반쯤 떠가자 목사는 손을 내저으며 "아서, 아서라"고 손을 내저으며 그만 뜨도록 했다. 이좌수가 눈 떠가자 바로 호랑이가 눈을 뜨고 달려드는 것 같아 목사는 몸이 오싹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서, 아서라. 그만 뜨라."

"목사님 눈정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목사는 "이좌수가 한양에 태어났더라면 어영대장을 할만한데 아쉽다."고 말하며 자신의 눈정기가 약함을 한탄했다 한다.

이좌수가 좌수 벼슬을 얻어 대정현청에 출입할 때의 일이다. 대정현으로 가는 길에 산방산 근처에 <굿물>이라는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조금 지나면 길 양쪽에 곶(덤불이 우거진들)이 있다. 그 <굿물>은 구제중생(救濟衆生)한 물이라고 한다.

이좌수가 대정현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이곳에 여우가 고운 여인으로 둔갑해서 회롱을 걸었다. "좌수님, 저의 집에 들러 놀다 가십서(가세요)"하면서 자꾸 따라오곤 했다. 이좌수는 밤마다 여인이 나타나 회롱을 해도 들은 체도 안하고 왔다 갔다 했다.

하루는 여우놈을 잡아야지, 안잡고 놔뒀다가는 후대에 가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한 이좌수는 여우귀신을 잡을 궁리를 했다. 여우가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가시나무 판조각을 등에 맞게 잘라 붙이고, 옷은 개가죽으로 만든 <후루메>(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긴 <쉐앗배>(소의 머리를 걸려 잡아매여 끄는 줄)을 준비하였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대정현에서 일을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이좌수가 돌아오는데 역시 여우가 둔갑해서 나타났다.

"좌수님, 쉬어 가십시오."

"쉬어 갈게 뭐 있느냐? 나하고 함께 가서 살아야지. 내 말에 올라타라."

이제까지 여인의 회롱을 들은 체도 안하던 이좌수가 여인에게 말을 타라고 호령을 했다. 여인이 말에 타자마자 가지고 있던 <쉐앗배>로 여인을 결박하고는 말을 달려 마을로 돌아오는데 개짖는 소리가 들리자, 뒤에 타고 있던 여인은 겁이 나서 내려달라고 떼를 썼다.

"가만히 있어라. 내 집에 이르러야 내린다."

말에서 내려주지 않고 막 집으로 달려가자, 여인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는 여우로 변신해서 옷이 다 헤어질 정도로 물어뜯고 발톱으로 허위적이며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좌수는 집에 다다르자마자 얼른 말에서 내려 "황개야 옥돔개야" 하고 개를 불러 물어 죽이도록 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굿물>근처에는 여인으로 둔갑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했던 여우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무우남밧 이좌수는 스스로 자신을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좌수 자신의 통찰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신성방이란 사람의 영혼이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성방은 살았을 때, 대정현에서 호적계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좌수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신성방이 죽은 뒤, 대·소상이 지나고 제삿날에 이좌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말방울 소리가 와랑와랑 들려왔다. 이좌수가 잠을 깨어 가만히 귀 기울이니 신성방의 말방울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옛날에는 직급에 따라 말방울 소리가 달랐다. 말방울 소리로 아전이니 좌수니 구별을 했다 한다.

바로 죽은 신성방이 살았을때 타고 다녔던 말을 타고 말방울 소리를 내며 자신의 제사를 보러오는 참에 이좌수 댁에 들른 것이다.

"좌수님, 자지 않고 계십니까?"

"음, 여기 있다. 어찌해서 왔느냐?"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산 사람이었다. 들어온 뒤 "너희들 거기 있느냐? 말 이끌어다 메어라"고 하인들에게 명을 내리고는 인사하고 앉았다.

옛날에 부자로 사는 양반은 꼭 앉는 자리 옆에 술병을 차놓고 마시고 싶을 때 한잔씩 마시곤 했다.

이좌수가 저녁때 마시던 술을 찾아 한잔 비우고는 "술 한잔 하세" 하며 술을 권했다.

"예, 그런데, 저승사람은 인간세계 사람이 마셨던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일어서서는 봉해 두었던 술을 가져다 한잔 비워주자 쭉 소리까지 내며 마셨다. 그리고는 안주도 집어 먹었다.

조금 있자 신호장(직함)이 눈물을 흘렸다. 이좌수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저, 오늘 제가 돌아간 기일이라서 기일제를 보려고 제자식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좌수님께 부탁일 일이 있어 왔읍니다."

"무슨 부탁인가?"

"내 생전에 월평 강씨 말들이 내 보리밭에 들어가 보리를 먹어버린 댓가로 보리 30여석을 대신 받았었읍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 완전히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좌수님이 제 아들에게 금년 보리를 수확하거든 월평 강씨댁에 갚아준다면 무사히 저승에 갈 수 있다고 전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렇게 하겠네."

이좌수는 신성방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밤은 깊었으나 잠이 오지 않으니 "갈 때에는 다시 들렀다 가게" 하고 말했다.

신성방은 어느새 제사 지내는 아들집으로 갔다. 잠깐후 제사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말방울 울리는 소리가 와랑와랑 들려왔다. 신성방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대접은 잘 받았는가?"

"언감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에잇거, 그럴 줄 알아서 내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놔뒀네."

밥상을 차려다주자 신성방은 식사를 했다. 먼저 마셨던 술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다른 술잔에 술을 부어 쭉 들이마시고, 밥도 숟가락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었다. 이좌수는 가만히 앉아서 신성방이 식사하는 모습만 바라보는데, 모두 먹어치웠다.

귀신은 언감만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아, 이젠 돌아갈 시간이 다되니 이만 떠나겠읍니다."

"자네가 부탁한 것은 아들에게 말할 터인데, 어찌해서 언감을 하지 못했는가?"

"채소에 뱀이 걸려 있어서 못했읍니다."

사람의 머리털이 귀신에게는 뱀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로 머리털이 제사상에 오른 채소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들네 집에서 언감은 못했으나, 내 집에서 했으니 조금은 섭섭할 테지만 그냥 가게. 그런데, 저승에 갔다 다시 올 때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올 수 있겠는가?"

"예 그것은 알아올 수 있지요."

신성방은 이좌수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다. 이좌수가 뒷날 살펴보니 밥도 그대로 술도 그대로 있었다. 다 먹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달라진게 없었다. 아, 귀신은 이렇게 언감만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신성방이 떠난뒤 이좌수는 곧바로 장남을 불렀다.

"신성방네 집에 가서 세형제를 불러오라. 고약한 놈들. 기일을 지내면서 채소에 뱀을 걸치다니 될 말이냐! 내 할 말이 있으니 곧 데려오라."

장남이 달려가서 보니 그때야 제사는 다 지내고 철상을 하고 있었다. 아들을 불러 채소를 가져오도록 해서 젓가락으로 휘휘 젓고 살펴보니 머리털이 감겨 나왔다. 머리털이 감긴 젓가락을 보이며 "너희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너희 부친이 왔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감도 못하고 가노라해서 너희들 세형제를 좌수님이 부른다."

"아이고, 큰일났구나."

세아들은 곤장이나 맞을까 염려해서 음복도 하지 않고 말을 타고 곧장 좌수에게 달려갔다.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름 아니라 채소에 뱀이 들었다고 했는데…"

"예, 머리털이 세 개 들었읍니다."

"다음 부터는 명심하렸다. 네 부친이 음복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내게 부탁한 것이 있다. 이리저리 해서 빚을 갚아주면 편히 저승에 갈 수 있겠다고 하더라."

"예, 과연 죽을 죄를 졌읍니다."

그 후 세 아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열섬씩 모아 서른 섬을 월평 강씨에게 건네 빚을 갚았다.

다음해 제삿날이 되자 신성방이 다시 이좌수댁에 들렀다. 이좌수도 잊지 않고 술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좌수님 자고 있읍니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 올 것을 기다리며 자지 않고 여기 앉아있네. 들어오게."

신성방이 방으로 들어와 앉은 후에는 1년간 못다한 사연을 털어 놓았다.

"보리 서른 섬 빚을 갚아주니 내 편히 저승엘 들어갔읍니다. 또 저승에 가서도 역시 호적계장을 맡고 있지요."

살았을 때 인간세계에서 하던 직무는 죽어서 저승세계에 가도 그대로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 알아왔는가?"

"예, 일흔 셋 되어서 아무날 아무시가 되면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러느냐. 고맙네."

사람이 저승에 완전히 들어가면 십년에 한번 밖에는 제사보러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번 가면 십년은 되어야 다시 나오게 되었읍니다."

신성방은 이말을 남기고 제사지내는 아들집으로 떠났다. 신성방이 저승에서 호적계장을 맡고 있는 까닭에 이좌수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았던 것이다.

아마도 아주 무더운 칠월쯤 된 시절이었다. 하루는 이좌수가 자식들에게 부탁을 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있어라."

모든 식구들에게 일러두고 날씨는 더워서 햇볕이 과랑과랑 나는데 도복을 차려입고 모친을 찾아갔다.

"어머님, 뵈러 왔습니다."

"어떤 일로 날 만나러 왔느냐?"

"제가 오늘 아무 시가 되면 떠나가게 되어 하직 인사하러 왔읍니다. 불효자식이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잘 안장을 해야 하는데, 황천의 명령이라 어머님보다 먼저 떠나게 되어 하직인사 드리게 되었읍니다.

"늙어가니 노망을 하는 말이로구나."

"아닙니다. 그런 말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노망을 하는건가?"

"어머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직인사 드리니 받으십시오."

하직인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벌써 저승사자가 와서 발 한쪽으로 마루를 딛고 서 있었다.

"음, 고약한 놈들, 내가 자식들 불러 하직하고 난 다음 가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서두르면 되겠는가? 가만히 거기서 기다려라. 내 시간이 되면 갈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자 저승사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좌수가 죽을 무렵이 되자 그렇게 빛나던 눈정기가 없어졌다 한다. 이좌수는 하인을 불러 "내가 타던 말에 안장을 씌워라"고 한후 세 사자에게 드릴 술상을 차리도록 했다. 저승사자에게도 술 한잔씩 드리고 진지상을 받아서 밥을 먹었다.

저승사자들은 몹시 서둘렀다.

"다 먹었는가?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었네."

"알았네, 말머리 돌려서 잡아라."

하인에게 말하고 난후 턱 들어눕자 그만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하인도 말도 동시에 쓰러져 죽었다. 이좌수가 죽을 때 같이 죽은 하인과 말도 이좌수 무덤 가까이에 묻혔다.

이렇게 일생을 마친 이좌수가 제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한양 지체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어영대장은 한번 했을 것이라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Ⅲ. 信仰傳說

1. 보목리(甫木里) 조록이당(堂)

서귀시 보목(甫木)에는 이 마을의 설촌(設村)과 관련된 마을 수호신을 모신 조록이당이 있다. 이 당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처음 부락을 이루고 살아갈 때이다. 이들은 거의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중에 일곱 형제를 가진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고기잡이에 종사하였다. 어느날 그 일곱형제가 모두 함께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아가 고기를 잡다가 안개가 끼고 바다가 어지러워서 우선 가까운 섬에 대피하게 되었다. 대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멀리 표류하여 갔던 것이다. 그 섬은 제주도 멀리 떨어진 외눈백이 섬이라는 데였다.

이 섬은 그들 일곱 형제에게는 생소한 섬이었다.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이렇게 바람과 풍랑에 휩쓸려 표류되기도 여러번이었으나, 이 섬은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섬에 이른 그들은 우선 인가를 찾아 나섰다. 사람이 사는 섬같기도 하고, 무인도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를 가다가 그들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안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인가를 찾아 헤매었다.

그러다 날이 거의 저물 쯤하여 겨우 자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하였다. 섬의 한편 구석에서 그들은 자그만 불빛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 불빛을 따라 갔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가까이 이르고 보니 초가는 정말 자그마한 집이었다. 주위가 조용하니 단지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주위는 우거진 나무숲으로 싸여 있어 조용하니 필시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 중 형이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부른 다음에 나타난 늙은 노파에게 형편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노파는 일곱형제의 모습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 내려보더니,

"집은 누추하지마는 들어와서 유하시오."

그들을 청하였다.

들어가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안에는 방도 꽤 넓었다. 그들 형제는 집의 맨 끝 방에 모두 같이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엄습해 오는 잠에 잠깐씩 어느 사이에 눈을 붙였다. 그런데 맨 막내는 잠이 오질 않았다. 피곤한 것도 몰랐다.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또렷하니 맑아졌다.

얼마 후에 저녁이 들어왔다.

"이곳 음식이 입에 맞을는지 모르지만 배고픈 대로 요기나 하시오들."

그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리고 들어와 눈을 비비쓸며 일어나 앉은 젊은이들에게 말하면서 상을 내놓았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들기 시작하였다. 반찬이 없고 밥과 국만 차려있는 저녁이지마는 그들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맛이 마음에 꺼렸다. 고기국 같기도 한데, 그 맛이 이상하였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국이었다. 그래도 여러 형들은 그저 잘만 먹었다. 그러나 막내는 먹는 시늉은 조금 하다가 그만 물리쳐 버렸다.

식사가 끝난 이들은 그냥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막내만 그냥 벽에 몸을 의지하여 잠을 자는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이상한 이 집의 분위기에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였다. 밖이 웅성웅성하더니 누가 온 것 같았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오.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하였우과. 난 집에 앉아도 일곱 마리나 하였는데…"
"일곱 마리? 아니 그것들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갇혀 두었읍니다."
막내는 어렴풋이 잠이 들락말락 하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두 늙은 부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
막내는 일어나서 문을 살그머니 열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다. 좀더 힘을 써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이거, 우리는 영낙없이 갇혔구나. 그러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지금 들은 이야기며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가두어 놓았다고."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도리가 없었다.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었다. 형들도 같이 도구를 꺼내었다. 고기를 잡으려던 그들이였기에 자그마하나 날이 있는 망치가 있었다. 그들은 그걸 갖고 밖으로 난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형들 둘이 밖을 살피고 나머지들을 조용조용히 벽을 뚫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얼마를 하는 중에 겨우 사람이 하나 기어나갈 만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 그들은 급히 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멀리멀리 도망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다. 무작정 달려 나올 뿐이었다.
얼마를 가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 어른 말씀 좀 묻겠읍니다."
막내가 공손하게 말하였다.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고기잡이왔다가 풍랑을 만나 길을 헤매고 있읍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대일 만한데가 어딥니까."
사실 그들은 그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저 먼 데서 어떤자가 말을 달려 이곳으로 오는 게 눈에 띄었다. 그것은 필시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네 같았다. 사태가 급박하였다.
"노인어른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읍니다."
제일 큰 형이 황급히 말하였다. 노인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

려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주었다.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끈 노인이 다가와서는,

"이 근방으로 젊은이 일곱이 지나가는 걸 못봤읍니까."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 거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말을 탄 자는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노인은 다시 그 큰바위를 일으켜 세워서는 일곱 형제를 나오도록 하였다. 일곱 형제는 그동안 당하였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주면서,

"배를 타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는데 입을 꼭 다물고 가야하네.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버리네.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요."

말을 마치자 손을 저으면서 어서 떠나기를 부탁하였다.

형제들은 바닷가에 이르러서 급히 배를 찾아타고는 바람에 배를 띄웠다. 배는 순풍에 돛단 듯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어리더니, 순식간에 마을 개맡에 이르렀다.

그들은 배를 막 개맡에 대면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형이 아직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눈깜짝할 사이에 그 타고 왔던 배가 휙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기가 막혔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말을 허수롭게 듣는거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그 청년들을 앞장섰다. 직접 그들을 배에 태우고 배를 띄워 같이 오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그렇게 그들을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그 노인은 그 청년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내었다. 그 노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에서 적당한 곳을 물색하여 그 노인을 모셨다. 그것이 절오름 아래 당집을 지은 것이다.

그 후 오래도록 그 당에 모신 그 노인은 바로 이 보목리를 지켜주는 신으로 대대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서 숭앙을 받아오고 있다.

서귀포시 보목동, 한무섭(남 • 70) 제보.

2. 중문 고부(高阜) 이댁(李宅) 선묘와 태종 강훈장

옛날 고부(高阜) 이댁(李宅) 선조가 제주에 들어와 얼마되지 아니한 때 일이라 전한다. 그 집은 가계가 어려웠는데 또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버리니 집안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그 집 홀로 된 부인은 집안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발복시킬 길만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남편의 묘자리를 잘써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어느날 그는 열두어 살 난 아들을 불러 놓고는,

"애야, 남들은 가계가 넉넉하니 아버지를 잘 모시려 육지부에 나가서 지관을 묘셔 다가 산터를 본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여력은 없으나 어떻게 힘 닿는 데까지 해봐야 할 게 아니냐."

어머니는 아직 분수를 모를 아들을 앞에 놓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빈곤하게 살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아버지 모시는 일에 마음을 안써서는 되겠느냐."

다시 어머니는 다구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어디 잘 아는 지관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 그런 분이 있읍니까."

"저, 도원리에 강 훈장이란 이가 잘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혼자 몸인 여자로서 직접 청하러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서 청해 오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강 훈장에게로 보냈다. 열두 살 밖에 안된 어린 처지였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강 훈장이란 지관을 청해드리게 되었다.

강 훈장이 어린 아이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방안으로 들지 않고 뒷간으로 가서 잠시 있더니, 다음에는 외양간으로 가서 마굿간 속을 한동안 살피고 들어오면서, 자기를 모시고 온 그 아이에게,

"애야, 저 소를 잡으십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라."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그 집에 쓴 소 한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것도 그들네 소가 아니라, 부인이 친정에 가서 병작으로 얻어다 기르는 소였다.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니 어린아이 마음에도 어처구니 없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저희 집엔 소가 없읍니다. 저 소는 외삼촌댁에 가서 병작으로 얻어다 기르는 것이라서 잡을 수 없읍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모시고 오는 손님을 맞으려 부엌에서 일을 보던 그 어머니가 나와서 손님을 맞으려는데, 아들과 주고받는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애야, 이리 좀 와라." 하고 아들을 급히 부엌으로 불러 들였다.

"애야, 아무 말 말고 소를 잡겠다고 하여라."

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소가 어디 있읍니까. 저 소는 외삼촌네 소가 아닙니까."

"그래도 잡겠다고 그래라. 이 에미가 다 알아서 할테니."

아들은 어머니 말에 따라 부엌에서 나와서는 강 훈장에게 소를 잡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동안 어머니는 친정으로 줄달음쳐서 갔다. 손 아래인 동생을 보고 사정을 하였다.

"동생 딱한 사정이 있어 왔네."

"누님, 무슨 일입니까."

"저 매부의 묘자리나 볼려고 지관 어른을 청해왔는데, 하 글쎄, 소를 잡으라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동생은 누님의 마음을 곧 알아차렸다.

"누님,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를 잡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생에게 고맙다는 마을 몇 번이나 하면서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뒤이어 그 동생이 백정을 데리고 누님네 집에 나타났다. 그래서 소를 잡았다.

강 훈장은 소를 잡아 대접하는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방안에 드러 앉아서 대접만 받았다. 산 자리를 보려는 눈치도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소 한 마리를 혼자서 몽땅 먹어치우고서야,

"어서 들에 갈 차비를 차리게." 하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말했다.

강 훈장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섰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안덕면 창천리 윗 지경인 "거린오름"이란데에 이르러서 한 곳을 정해 주면서,

"야, 소 백마리는 치를 곳이다.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먹어버렸으니, 어떻든 소 아흔아홉 마리는 부릴거야."

이렇게 딱 한마디 해두고 자기가 앞장을 서서 내려와 버렸다.

아이는 그 곳에 아버지를 이장하여 모셨다. 그런데 과연 그 당대에 부자가 되어 소 백여 마리를 집에서 기를 정도로 발복하였다. 지관은 먹은 만큼 산자리를 봐준다는 말이 바로 이런데서 온 것이다.

서귀포시 영천동, 정운선(남•90) 제보.





第 4 章

北濟州郡傳說



뱀 傳說 숨쉬는 金寧蛇窟

濟州道에는 도처에 熔岩洞窟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萬仗窟과 金寧窟은 代表的이다. 이들 두개의 窟은 隣接되어 있으며 서로 連結되었던 것이 天井陷落으로 現在와 같이 分類된 것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金寧窟은 一名 蛇窟이라고 하며 傳說이 얽혀 있고 李朝 中宗 時의 期錄에도 나타나는 點으로 보아 알려진 것은 오래된 것이다. 사굴옆에는 세계 최장의 만장굴이 있다.

萬仗窟 窟內部의 幅은 約 5~10m가 되며 洞窟內部의 景觀은 심오하고 웅장한 造形美를 보이고 잇다. 特히 石工이 정교하게 製作한 듯한 "돌거북"의 기묘한 모습과 굵은 거미줄이 길게 늘어진듯 天井에서 수천줄기 내려뻗은 地上 見類의 落解物로 이루어진 종유석 줄기의 무리들은 더 한층 神祕로운 地下 궁전을 연상케 한다. 1946年 처음 發見된 이 窟은 1977年 綜合學術 調査에 의하여 總延長 10,685m임이 確認되었던 것이 韓國 洞窟學會에서 1981年 1月 8日부터 16日까지 調査한 結果, 全長 13,422m로서 世界 最長임을 公認한 바 있다.

蛇窟은 이러한 萬丈窟에 比하여 總延長은 600m程度로서 窟의 全體 모양이 S字型으로 되어 잇고 2個所에 落盤으로 큰 溶岩의 무더기가 있어 窟은 3區間으로 區分되어있다. 1區間의 거리는 50m이며 2區間은 二層窟로서 上層窟은 50m, 下層掘은 150m이며, 3區間은 約 400m의 延長을 가지고 잇다. 이 窟은 幅이 10m, 높이 13m 內外로서 넓은 편이며 入口에는 周邊에 發達되어 있는 貝砂丘窟의 貝砂가 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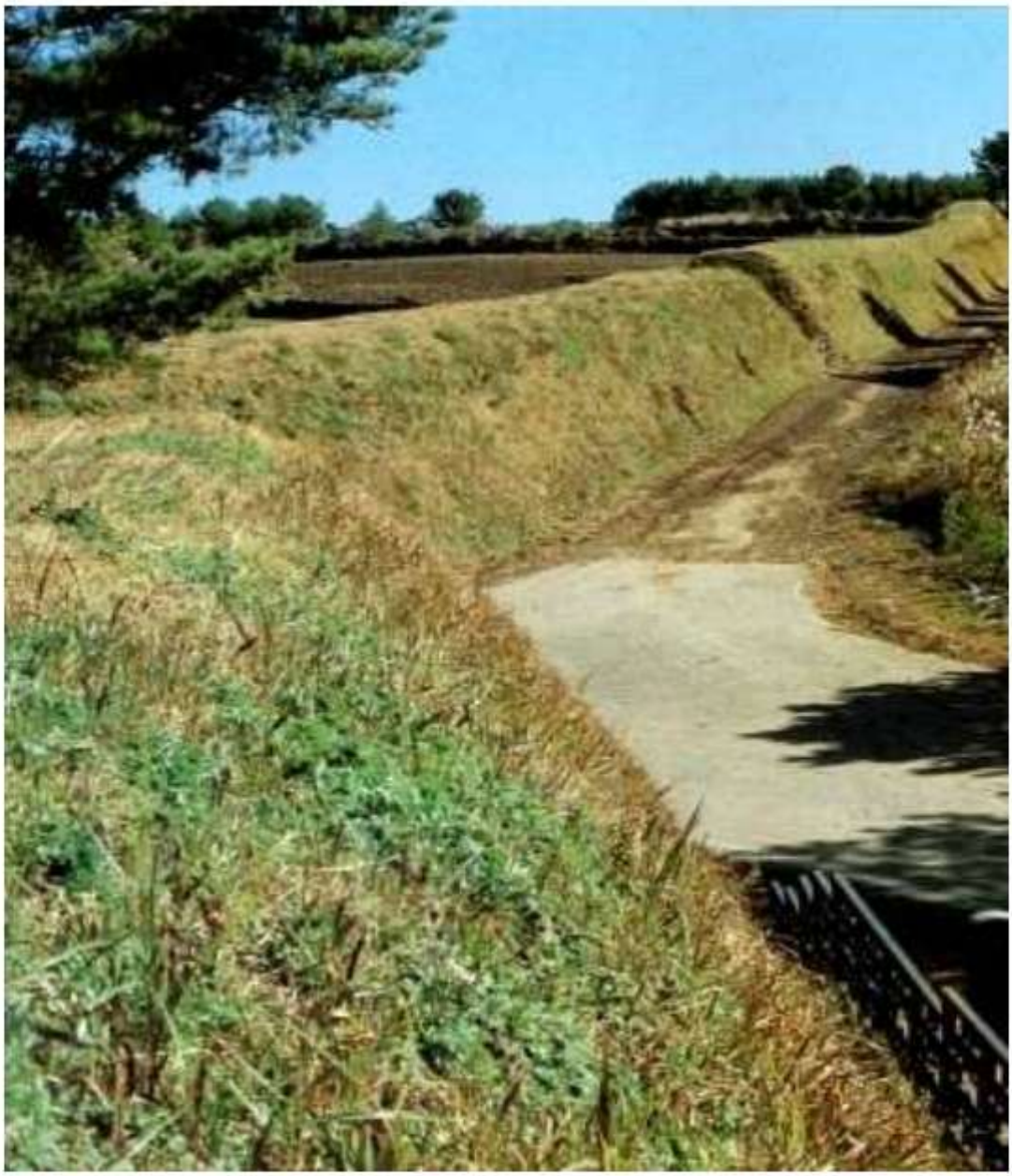


烈女高氏 節槪서린 節婦岩

節婦岩은 烈女 齊州 高氏의 節槪를 後世에 기리기 위해 摩涯銘을 새긴 곳이다.

李朝末, 忘歸村 出生의 高氏는 19歲되는해 洞里 康士喆에게 出嫁하여 단란하게 지냈었다.

그러던중 하루는 고기잡이를 나간 男便이 심한 풍랑을 만나 不幸하게도 변을 당하고 말았다. 婦人 高氏는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식음을 잊고 시체나마 찾으려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海岸을 徘回하였으나 끝내 찾을 수 없으므로 男便의 뒤를 따르는 것이 道理라 생각하여 素服 단장하고 용수리 바닷가 俗稱 엉덕동산 숲에서 목메어 自殺하고 말았다. 이 애절한 烈婦의 뜻을 하늘이 굽어 살피었는지 다음 날에는 男便의 死體에 高氏의 목멘 場所에 漂着하였다. 이러한 事實은 곧 官衙에 알려지자 高宗 3년(1852年) 大靜 判官 이 高氏가 목멘 곳의 岩石에 節婦암岩이라 刻을 하고 두 시체를 官費로 合葬하여 장례를 치르고 祭田을 사서 每年 祭享費를 마련하여 1年 1回(3月 14日)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近間까지도 龍水里民들이 祭禮를 지냈었고 祭田도 現存하여 烈婦 高氏의 절개와 冥福을 빌고 있다.



三別抄 護國意志 깃든 抗蒙遺蹟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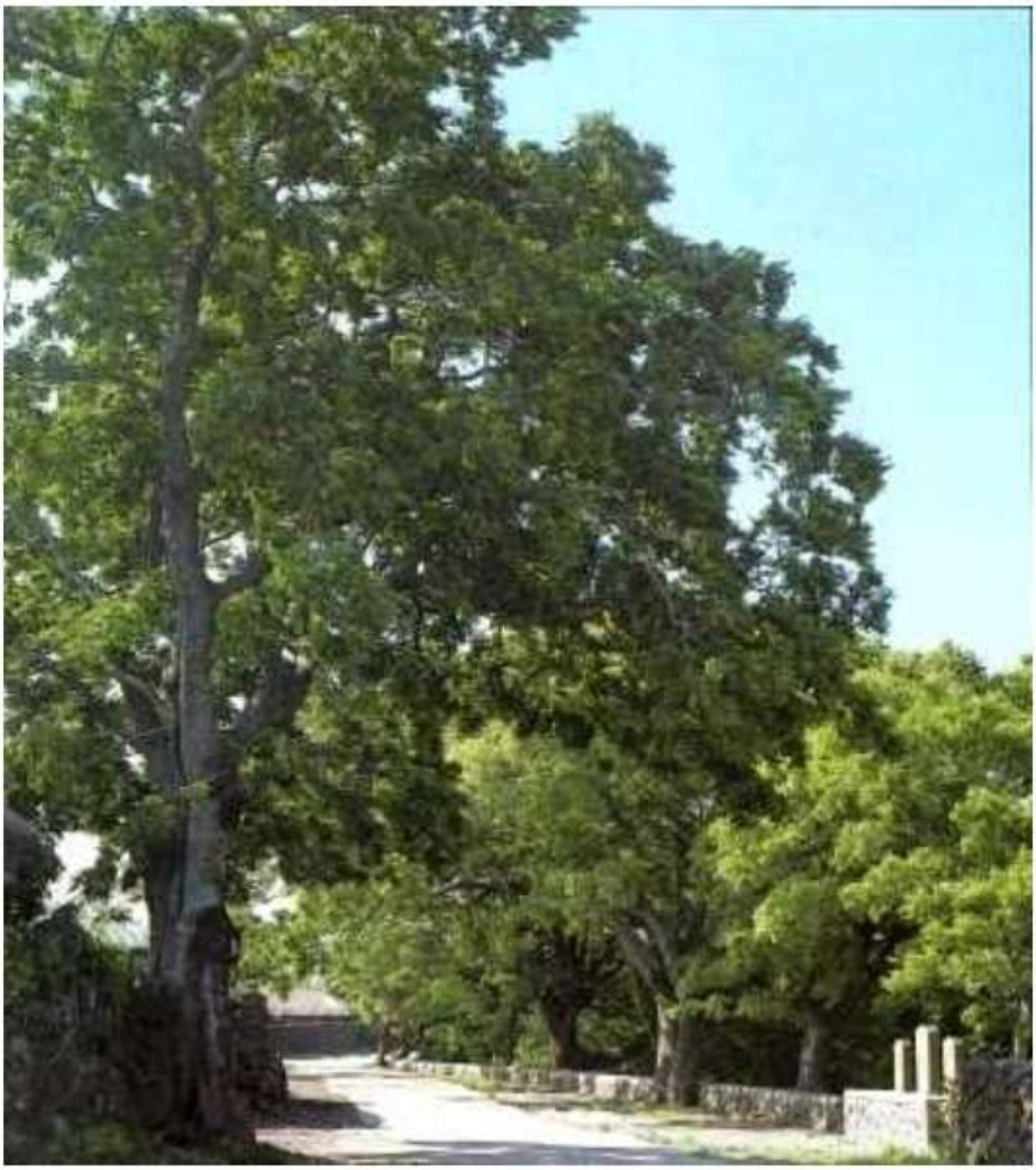
抗波頭里 抗蒙遺蹟址는 蒙古의 侵略을 받아 祖國을 지키려고 궐기했던 高麗 三別抄가 最後까지 抗戰하다 殉義한 곳이다.

三別抄는 高麗 元宗11年(1270年) 蒙古의 侵入으로 굴욕적인 講話를 맺고 江都江華島를 포기하고 開京 遷都를 强行하려 하자 三別抄의 영수들은 開京政府에 불복하여 王族인 承化后 溫을 임금(王)으로 추대하고 抗夢戰의 決意로 武力蜂起하여 千餘隻의 艦船에 兵力과 軍養米를 싣고 家族들을 同伴하여 그 해 8月 全羅道 珍島로 옮긴 후 웅장성을 구축하고 麗·蒙軍에 武力으로 抗拒하였다. 그러나 高麗 元宗12年(1271년) 麗·蒙聯合軍은 三別抄에 對한 회유책이 빈번이 실패하자 大 兵力으로 編成하여 珍島를 總 攻擊하게 되었다. 三別抄는 聯合軍에 反擊하였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三別抄에 배중손將軍이 戰死하고 王으로 추대했던 承化后溫도 피살되었다.

珍島에서 大敗한 三別抄는 金通精將軍을 總帥로 삼아 殘餘兵力을 引率하여 齊州에 入據하여 교란 작전을 展開하였다. 이에 당황한 高麗朝廷은 元宗14年(1273년) 1萬3千餘名으로 麗·蒙聯合軍을 編成하여 咸德浦와 飛揚島로 上陸하여 미리 대기한 三別抄에 總攻擊을 開始하므로 一大 接戰이 벌어졌다.

그러나 三別抄는 兵力이 10倍 이상이고 新武器로 武裝한 麗·蒙聯合軍에 당하지 못하고 항파두리城內로 後退하여 마지막 血戰을 벌렸지만 全員 戰死하고 金通精將軍도 自決하므로서 蒙古에 대한 抗爭은 끝이 났다.

지금도 항파두리 土城一帶에는 三別抄와 關聯된 遺蹟들이 있는데 15里에 達하는 土城과 三別抄의 勇士들이 弓術硏磨 時 과녁으로 使用한 「살맞은 돌」, 麗·蒙聯合軍과 激戰地인 「坡軍峰」, 城의 建物門址였던 「돌쩌귀」, 그리고 金通精將軍이 城 위에서 뛰어내린 발자국이 파여서 샘이 솟는다는 「장수물」, 三別抄가 給水로 利用한 「웅성물」, 「구시물」이 잇고 이 외에도 「모개남밭」, 「옥터」, 「창고」 등이 남아 있다.



儒生들 風流 즐긴 明月팽나무郡落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中洞의 마을 中心을 흐르는 溪川 兩側에 樹齡 500年 以上 을 자랑하는 老巨樹 팽나무 100餘株가 잘 保存된 채 自生하고 있다. 팽나무는 道內의 오래된 部落에는 정자목으로 남아 있는 것이었으나 明月의 팽나무는 老巨樹 集團으로 단순 部落을 이루고 있어서 古代 元植物을 推理하는 資料가 되어 學術的 價値가 높아서 紀念物로 指定되고 있다.

明月의 팽나무 중 큰 나무들은 樹高 13m, 흉고직경 5m 內外인 것이 10數本이 잇으며 산유자나무 보리장나무 等이 틈틈이 섞여 있어 웅장한 風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곳에는 樹高가 5m에 달하는 커다란 호랑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다.

明月은 옛부터 선비 마을로 알려져 있어 인근의 儒生들이 이곳에서 風流를 즐겼고 溪川의 樹木들이 잘 保護되고 있다. 現在도 溪谷의 樹木에서 時를 읊으며 놀았다는 月臺가 있으며 部落 東側의 높이 2.3m, 幅 3.6m의 半月形 돌다리는 特有의 築造樣式을 보여주고 있다.

舊左邑篇

Ⅰ. 自然傳說

1.우도(牛島) 득성이코지

소섬(牛島)에 「득성이코지」라는 곶(岬)이 있다. 이 지명이 붙은 것은 종달리(終達里) 김모씨의 종 이름에서 딴 것이라 한다.

약 100여 년 전에 살던 이 김씨는 인물이 호걸이고 풍채가 좋았을 뿐 아니라, 특히 목소리가 크고 쟁쟁하여 유명하였다.

김씨는 안종달(終達里 地尾峯 뒤쪽) 「민동산」이라는 곳에 밭이 있었다. 하루는 종인 득성이더러 이 밭을 갈라고 해 놓고, 자신은 볼 일이 있어 소섬에 건너갔다. 그날 돌아오려고 한 것인데, 마침 풍파가 세어 김씨는 돌아 올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소섬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은 날씨가 아주 청명하였다. 안개가 환히 걷히고 종달리가 보이므로, 김씨는 오늘도 종놈이 밭을 가는가 보려고 득성이코지에 서서 바라보았다. 머슴을 밭을 가는게 아니라, 쟁기 옆에 기대어 잠을 자는 것이 아득히 보였다. 밭을 갈다가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쉬는 게 그만 잠이 들어 버린 것이다.

김씨는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야, 득성이야 일어나 밭갈라!"

소섬과 종달리 사이는 3킬로가 넘는 거리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잠자던 득성이가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 다시 밭을 갈더라 한다. 그 후부터 이 잠깨운 곳을, 득성이를 불러 깨운 코지(곶)라 해서 「득성이코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고인봉(남·71) 제보.

2. 두모(頭毛)와 지미(地尾)

종달리(舊左邑 終達里)에는 지미봉(地尾峰)이라는 산이 있다. '지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곳이 제주도 땅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고구마 모양의 타원형 섬인데, 종달리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 바로 두모리(翰京面 頭毛里)다. 두모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곳이 섬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명(地名)이 명지관(名地官)의 지형 관찰에서 붙여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고인봉(남 • 71) 제보.

3. 물징거와 고종달이

중국 진시황(秦始皇) 때 일이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 나라를 든든히 해 놓았으나, 지리서(地理書)를 펴 놓고 보니 제주도의 지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 혈(穴)들이 인걸만 쉴새 없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이 인걸들을 못 나게 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종달이를 불러 제주의 물 혈을 끊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좋은 샘물이 없으면 인걸이 못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고종달이는 종다리(舊左邑 終達里) 바닷가로 배를 붙여 들어왔다.

당시 종달리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현재의 종달리 경내이긴 하지만, 「윤드로목(隱月峰)」이라는 산 앞에 「넙은드르」라는 평지가 있었는데, 이 평지의 「대머들」이라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은 그 곳의 토질이 좋을 뿐 아니라, 그 곁에 「물징거」라는 좋은 생수가 솟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달이는 이 제주섬에 오자마자, 맨 먼저 이 종달리의 「물징거」 물의 혈을 떠 버렸다. 그래서 물은 아니 나오게 되고, 물이 솟아나왔던 구멍만이 지금도 남아 있다.

물이 끊어지자, 동네 사람들은 차차 물을 찾아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종달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고인봉(남 • 71) 제보.

4. 가릿뱅디

평대리(舊左邑 坪垈里) 남쪽 4㎞쯤 되는 곳에 「가릿뱅디」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다. 이곳은 벌판이 되어 버렸지만, 몇 백년 전만 해도 좋은 논밭이었다고 한다. 장서방은 마

소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움막을 짓고 매일같이 지켰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서방네 미소가 하나씩 하나씩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디서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이 들어 잡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장서방은 그 원인을 캐기 위하여 밤을 새며 지켜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밤은 자정이 넘어 고요했다. 장서방은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마소 떼의 주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때였다. 가릿뱅디 논밭 한가운데에서 하얀 개가 한 마리 불쑥 나오더니, 곧 마소 있는 데로 달려와 소 한 마리를 몰고 다시 논밭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옳지, 요놈이었구나!'

장서방은 소가 없어지는 이유를 알았다.

'이놈의 개를 잡아야지.'

장서방은 동네의 유명한 사냥꾼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사냥꾼은 활이 백발백중으로 어떤 짐승이든 놓친 일이 없는 명사수였다.

사냥꾼은 장서방과 같이 밤을 새기 시작했다. 화살을 겨냥해 놓고 개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 쏠 심산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며칠 후 자정이 넘자, 한 가닥 바람이 후루루 불어 넘어갔다.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잠시 마음이 떨렸다. 이때였다. 과연 논밭 한가운데에서 하얀 개가 나오더니 소 있는 데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얼른 화살을 당겼다. 그러나 화살은 약간 빗나가 떨어지고 개는 쏜살같이 달아났다.

"아차!"

사냥꾼은 소리를 지르며 얼른 말을 달려 개 뒤를 쫓아갔다. 개는 벌판을 가로질러 김녕리(舊左邑 金寧里) 쪽으로 달리더니, 김녕 입산봉으로 들어가서 숨어 버렸다.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가릿뱅디의 논밭엔 삽시에 물이 말라붙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논밭이 그만 벌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녕 입산봉에 난 데 없이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은 자꾸만 흘러나와 그 주위 일대에 논밭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가릿뱅디의 샘물이 김녕으로 이동하여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혀 그 개 때문이다. 그 하얀 개는 바로 물귀신이었다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논밭의 물이 가물어 말라 버린 벌판이라는 뜻으로 「가물뱅디」라 불렀는데, 그후 음이 변해서 이 벌판을 「가릿뱅디」라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김우현(남•) 제보.

5. 두럭산

제주도에서는 산(山)을 거의 「오름」이라 부른다. 그런데, 개중에는 「산」이라 부르는 것이 다섯 개 있으니, 그것을 소위 제주의 오대산(五大山)이라고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 중앙에 솟은 한라산(漢拏山).

② 성산리(城山邑 城山里)에 있는 청산(城山:속칭 성산을 두고 '청산'이라 한다.)

③ 성읍리(表善面 城邑里)에 있는 영주산(瀛洲山).

④ 화순리(安德面 和順里)에 있는 산방산(山房山).

⑤ 김녕리(舊左邑 金寧里)에 있는 두럭산.

그런데, 두럭산은 산이라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바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산이라 하고 있다.

이 두럭산은 한라산과 서로 대(對)가 되는 산이라 한다. 한라산은 영산(靈山)이어서, 운이 돌아오면 장군이 난다고 하는데, 한라산에서 장군이 나면, 두럭산에서는 이 장군이 탈 용마(龍馬)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두럭산을 신성한 바위로 생각해서 그 가까이에서는 언동을 조심하다. 만일, 해녀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이 두럭산에서 큰소리를 지르면,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 곤경에 빠진다고 한다.

옛날 설명주할망(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키가 매우 큰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에 두 발을 놓고 앉아 이 두럭산에 빨래를 놓고서 빨았다고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조시택(남•) 제보.

6. 새비육

김녕리(舊左邑 金寧里) 경에 '새비육'이라는 곳이 있다. 이 지명(地名)이 생긴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김녕리에 사는 임씨(任氏)댁에 상사가 났다. 유명한 지관(地官)을 청하여 구산(求山)을 나섰다.

지관은 상제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다가 한 자리를 골라냈다.

"여기가 정혈(正穴)이니 장사할 만하오. 그런데 광중(壙中)에 돌이 나오더라도 그 돌을 파서는 못 쓰오."

장삿날이 되어 광을 파기 시작했다. 광중을 파다 보니 과연 큰 돌이 나왔다. 상제가 다른 일을 보러 간 틈에 일꾼들이 광중을 판 것이다.

광중에 돌이 막히자, 일꾼들을 돌을 파내어야 한다고 했다. 힘든 작업 끝에 그 돌을 파올리는 순간, 새 한 마리가 '비육'하고 울며 날아갔다.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보니, 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려 하고 있지 않는가. 순간 들고 있던 저고리를 탁 덮어 새를 막았다. 다행히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으나, 급히 덮는 저고리에 새는 그만 한 쪽 눈이 까져 버렸다.

새 한 마리는 아직 남아 있으니, 묘는 쓸 만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 위에 흙을 조금 덮고 장사를 끝마쳤다.

이때, 광중에서 새가 '비육'하며 날아갔다 해서, 그때부터 이곳을 「새비육」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새 한 마리가 한 쪽 눈이 까졌기 때문에, 이 임씨 댁에는 몇 대에 한 사람씩 눈 까진 자손이 난다고 한다. 사실 눈 까진 사람이 있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조시택(남•) 제보.

7. 상구빌레

덕천리(舊左邑 德泉里) 웃동네에는 '상구빌레'라 하는 반석(盤石)이 있다.

상구빌레라는 말은, 이 마을 김씨 댁에서 머슴살이하던 상구라는 사람이 죽어 이 빌레(盤石) 옆에 묻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구는 육지에서 태어났는데, 갈 데 올 데가 없는 고아였다. 제주도가 인심이 좋다고 하여 입도하게 되었는데, 제주도에 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매다가 덕천리 김씨 댁에서 머슴살이로 정착하게 되었다.

하루는 산에 올라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통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깔려 죽고 말았다.

주인집에서는 불쌍하게 죽은 상구에게 수의까지는 못해 입혔지만, 바로 그 자리에 곱게 묻어 주면서 '불쌍한 상구야 어쩔 수 없구나! 너를 위해서 제사 명절이 끝날 때마다 잡식(결명)이나마 대접하도록 하마' 고 말했다.

그 후, 비가 오려고만 하면 상구 무덤에서는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불운이 닥칠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점치곤 하며 계속 상구의 원혼을 위하여 잡식이나마 대접해 준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지금 상구가 묻혔던 자리에는 두덤은 간 데 없고 반석(빌레)만이 남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 곳을 두고 '상구빌레'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어느 집에서든지 제사나 명절이 끝나면 '상구놈도 잘 먹고 가거라'고 하며 잡식으로나마 대접하는 구습을 지금도 지켜 내려오고 있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박인주(남·64) 제보.

8. 김녕 뱀굴(Ⅰ)

김녕리(舊左邑 金寧里) 마을 동쪽에 큰 굴이 있다. 이 굴 속에는 옛날 큰 뱀이 살았었다 하여 '뱀굴'이라 부르게 되었다.

뱀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어서 다섯 섬 들이의 항아리만큼이나 몸통이 컸었다 한다.

이 뱀에게 매년에 처녀를 한 사람씩 제물로 올려 큰굿을 했었다. 만일 이 굿을 하지 않으면 그 뱀이 나와서 이 밭 저 밭 할 것 없이 곡식밭을 다 밟아 휘저어 버려서 대흉년이 들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매년 꼭꼭 처녀 한 사람씩을 희생으로 바친 것이다.

양반의 집에서는 딸을 잘 내어 놓지 않았다. 무당과 같은 천민의 딸이 으레 희생되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무당이나 천민의 딸은 시집을 가지 못했었다.

이러한 즈음, 조선조 중종(中宗) 때 서련(徐憐)이라는 판관(判官)이 부임하여 왔다. 그의 나의 19세였다 한다.

서판관은 이 뱀굴의 소문을 듣고 괴이한 일이라 분개하였다. 곧 술·떡·처녀를 올려 굿을 하도록 하고, 몸소 군졸을 거느리고 김녕 뱀굴에 이르렀다.

굿이 시작되어 한참 진행돼 가니, 과연 그 어마어마한 뱀이 나와 술을 먹고 떡을 먹고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때 서판관은 군졸과 더불어 달려들어 창검으로 뱀을 찔러 죽였다.

이것을 본 무당이 '빨리 말을 달려 성안(지금의 濟州市)으로 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

고 일러 주었다.

서판관은 말에 채찍을 놓아 성안으로 향하였다. 무사히 성(城) 동문 밖까지 이르렀다.

이때 군졸 한 사람이 '뒤쪽으로 피비(血雨)가 옵니다.'고 외쳤다.

"무슨 비가, 피비가 오는 법이 있느냐?"

서판관은 무심코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그 자리에 쓸어져 죽었다 한다.

뱀이 죽자, 그 피가 하늘에 올라 비가 되어 서판관의 뒤를 쫓아온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안용인(남·76) 제보.

김녕 뱀굴(Ⅱ)

김녕 뱀굴에는 큰 뱀이 살았었다. 이 뱀은 항상 굴에서 나와 곡식밭을 누비고 돌아다녀서 농사를 망쳐 놓았다.

어떤 중이 지나다가 이 사실을 듣고 매해 처녀를 한 사람씩 제물로 올려 제를 지내면 무사할 것이라 했다. 그해부터 중의 말을 따라 제를 지내니 과연 무사하였다.

이 소식을 이삼만(李三萬)이 듣고 뱀을 퇴치하려고 김녕에 왔다. 한 점장이가 김녕에서 이삼만을 만나자,

'당신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나, 빨리 말을 달려 성안(濟州市)으로 돌아가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

고 하였다.

이삼만은 굴 앞에 술과 떡을 올리게 하고, 처녀 대신 자기가 드러누워 제를 지내게 하였다. 과연 큰 뱀이 나와 술과 떡을 먹고 취해 비틀거리며 이삼만을 잡아먹으려 하였다.

이때 이삼만은 활을 세 대 쏘아 뱀의 목을 뚫고 칼을 뽑아 목을 잘랐다.

뱀이 죽어 늘어지자, 이삼만은 곧 말을 달려 성안에 이르렀다. 이때 뒤쪽으로는 우뢰가 요란하고 비바람이 몹시 쳐댔다. 이삼만은 관아(官衙)의 마당까지 이르자, '이젠 안심이려니'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순간 쓰러져 즉사해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정월 사일(巳日)에 종이에 '이삼만(李三萬)'이라 써서 뱀이 잘 다니는 데에 붙이면, 뱀이 무서워서 아니 다니게 되었다 한다.

뱀굴의 뱀이 죽자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뱀이 살아 있을 때에는 다 멀리하려던 뱀굴이, 뱀이 죽자 이웃 동네에서 소유(所有) 다툼이 벌어졌다. 뱀굴의 서쪽 동네인 김녕(金寧)과 동쪽 동네인 월정(月汀)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동네의 경계라고 주장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묘안이 제출되었다. 이 굴에서 달음박질을 하여 먼저 자기네 동네까지 갔다 온 사람 편의 동네 것으로 이 굴을 소속시키자는 안이다. 김녕과 월정 두 동네에서 각각 청년 한 사람씩 선발되었다. 청년들은 동시에 굴을 출발하여 동네로 달려갔다. 먼저 도착한 청년은 김녕리 청년이었다. 그래서 뱀굴은 김녕의 소유로 판결이 났다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김노인(남•) 제보.

Ⅱ. 歷史傳說

1.문 만호(文萬戶) 며느리

약 150년 전 세화리(舊左邑 細花里)의 문만호가 김녕리(舊左邑 金寧里) 색시를 며느리로 데려왔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집안 일을 돕는 뜻에서 으레 물을 길어 날라야 한다. 문 만호의 며느리도 허벅(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을 지고 물을 길러 다녔다. 물을 길러 갈 때 네거리를 지나노라면 동네 청년들이 모여 서서 들음돌을 드는 데에서 늘 마주치게 되었다. 「들음돌」 이란 둥그랗게 생긴 바윗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 놓아 두어서 젊은이들이 힘 내기로 항상 들어 힘을 기르는 돌이다. 이 돌은 큰 것을 두면 반드시 그것을 들 수 있는 힘 센 사람이 난다고 하고, 그것은 동네의 힘의 과시도 되어서 큰 돌음돌이 놓여 있으면 딴 동네 사람이 감히 넘보지를 못한다.

문 만호의 며느리를 물 허벅을 지고 가며 오며 들음돌 드는 광경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렇게 무거울 것 같지도 않은데, 청년들은 들지 못하여 바득바득 하는 것이다. 문 만호의 며느리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기에 저러는가,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아침 일찍 물을 길러 가게 되었다. 네거리엔 이른 아침이라 청년이 하나도 없었다. 문 만호의 며느리는 아무도 안 보는 이 때에 들어봐야겠다 하고, 물 허벅을 진 채로 들음돌을 번쩍 들어보았다. 그렇게 무거워서 청년들이 땅에서 뗄까말까 하는 들음돌이 가뿐하게 들렸다. 재미가 있어서 몇 발자국 걸어 보다가 윗 밭으로 휙 내던져 버렸다. 들음돌은 흙이 움푹 패어지며 떨어졌다.

그날부터 청년들이 모여들어 보니 들음돌이 없어졌다. 찾아 보니, 돌은 두어 밭 넘어 윗 밭 구석에 던져져 있었다. 이게 뉘 짓인가? 동네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 아침 일찍 문 만호의 며느리가 물 길러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결국 이 며느리 밖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소문은 번져서 문 만호의 귀에 들어갔다. 문 만호는 그럴 리가 있느냐 의아해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며느리를 불러 들이어 물어봤다.

"너 혹시 들음돌 건드렸느냐(건드련디야)?"

"예, 하도 청년들이 무거워 하길래 얼마나 무거운가 해서 들어 보니 가뿐하길래 윗밭으로 던져 버렸읍니다."

문 만호는 한편 놀라고, 한편 집안이 창피스러워졌다. 곧 며느리에게 회초리를 가져 오라고 야단했다. 그리고는 다리를 걷어 세워 그 연한 다리를 대여섯 대 때리면서 야단을 쳤다.

"다시도 그런 장난 하겠느냐! 남자들이 노는 물건은 여자가 손대는 법이 아니다. 썩 가서 들어다 놓지 못하겠느냐?"

시아버지의 호통 소리에 며느리는 곧 들음돌을 원자리로 들어다 놓았다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김시화(남·86) 제보.

2. 평대 부대각

평대리(舊左邑 坪垈里)에 부(夫)씨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커다란 용이 내려와 자기 몸 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부부는 꿈을 의논하고 귀한 자식을 얻을 꿈이라 생각했다.

그 후, 부인은 임신했느데, 하도 식욕이 좋아 소 한 마리를 잡아 젓을 담가 놓고 이것을 다 먹었다. 그러고서 해산을 했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낳은 아이가 어찌나 큰지 보끈 사람마다 다 놀랐다.

상동이는 열 살이 못 되어 숙성함이 십 팔구 세 소년 같고, 힘이 장사일 뿐 아니라 머리가 영리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였다.

부씨는 자식이 너무 뛰어난 것이 다소 걱정스러웠다. 풍모나 행동거지가 너무 영웅스러웠기 때문이다. 집안에 영웅이 나면 역적으로 몰리기가 일쑤고, 역적으로 몰리는 날이면 삼족이 멸하는 때이니 걱정함도 당연했다.

어느 날 부모는 아들들의 거동을 살피기로 했다. 둘이서 나들이옷을 입고 '오늘은 어느 마을에 다녀 올 터이니 집을 잘 보고 있으라'고 아들에게 타이르고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는 살짝 돌아와 집안에 숨어서 아들들의 거동을 살폈다.

어린 쌍둥이는 부모가 나간 줄 알고 저마다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먼저 두 아들이 옷을 벗는다. 가슴은 명주로 돌돌 감겨 있다. 이게 웬일인가? 가슴의 명주를 푸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첩첩이 접어져 있지 않은가. 쌍둥이는 날개를 펴서 파닥파닥하고는 한 놈이 날아 도망가고, 그 뒤를 좇아서 잡아 내는 것이다. 한 시간쯤 이렇게 놀다가 아들들은 다시 날개를 접은 후, 명주로 감싸고 옷을 입는 것이었다.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관가에서 아는 날이면 집안은 망할 것이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아들들의 날개를 자르기로 작정했다.

아들들의 생일을 기다려 부모는 맛이 있는 음식에 좋은 술까지 마련하여 아들들을 먹였다. 쌍둥이는 아무 것도 모르고 술도 먹고 밥도 먹었다. 얼마 없어 술이 취해 쌍둥이는 깊은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장도칼을 가져다가 눈물을 머금고 작은 아들의 날개를 딱 찍었다.

순간 쌍둥이는 깜짝 놀라 후닥닥 일어났다. 날개를 끊는 줄 알자 큰 아들은 날개를 펴고 퍼뜩 밖으로 빠져 나가 훨씬 멀리 날아가 버렸고, 작은 아들은 마당까지 날아가다가 날개가 반 쪽 잘렸기 때문에 더 날지를 못하고 떨어졌다.

그 후, 큰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작은 아들만이 살아 남았다. 이 아들은 어떻게 힘이 세었던지, 그 힘을 당할 자가 세상에 없었다. 이 작은 아들이 부대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힘쎈 사람을 보면, '부대가 자손'이라 한다.

부대각의 묘는 현재 평대리 남쪽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김우현(남•) 제보.

3. 괴 범천총(Ⅰ)

범천총은 광산(光山) 김씨이고, 이름은 용우(用雨)다. 약 4백년 전 한동리(舊左邑 漢東里) 「굴미왓」이라는 집터에서 살았다. 키가 8척 장신인데다 눈이 쌍동공(雙瞳孔)이어서 성을 내어 눈을 치켜 뜨면 마치 호랑이 눈 같아 건장한 사나이도 기절하여 버렸다 한다. 한동리의 옛 이름은 '괴'요, 이 사람이 천총(千摠) 벼슬을 했기 때문에, 출생지, 눈의 특징, 벼슬을 한데 묶어 「괴 범천총」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범천총의 눈은 과연 무서운 것이다. 나는 새도 눈을 치켜 뜨면 떨어진다. 그러니 범천총은 곡식을 널어 말릴 때 닭을 보는 일을 극히 조심하였다. 부인이 마당에 곡식을 널어 놓고 잘 보도록 하고 나가면 범천총은 종일 눈을 감고 지내어야 했다. 틈만 있으면 닭들은 곡식을 먹으러 달려 드니, 범천총은 집안에 앉은 채 눈을 딱 감고 막대기만 까닥까닥하며 '후어!후어!'하고 쫓는 것이었다. 만일 눈을 버쩍 뜨고 '후어!' 해 버리면 닭들은 그 자리에서 곧 죽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해 이 소식을 들은 제주 목사(牧使)는 아무런들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눈을 뜨면 나는 새가 다 죽는다. 하니 말이 되느냐. 범천총을 이리 대령해라."

범천총은 목사 앞에 와 뵙는데, 꿇어 앉아 눈을 지긋이 감았다.

"이놈, 너 눈이나 떠서 이야기해라."

"예, 눈을 뜨면 성주(城主)님이 놀라실까 해서 눈을 못 뜹니다."

"허허, 이놈! 별소릴 다 하네. 떠 봐라."

하도 뜨라고 하니, 범천총은 번쩍 뜰까 하다가, 그러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하여 천천히 반쯤 떴다. 그러자 목사는,

"감계! 감계!"

하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한다.

괴 범천총(Ⅱ)

범천총의 처가는 난산리(城山邑 蘭山里)였다.

당시 제주 목사가 부임해 오면 순력(巡歷)하였다. 목사의 순력 행차는 이만저만한 인원이 아니었다. 도로가 잘 뚫리지 않을 때였으므로 순력 행차는 도로가 아닌, 밭의 지름길을 지나는 일이 많았었다. 이 행차가 한번 밭을 지나갔다 하면 밭의 작물은 완전히 운동장이 되어 버리곤 했었다.

어느 날 범천총이 처가에 갔더니, 장인이 '지금 순력이 온다는데, 금년 우리 밭농사는 다 해 먹었네' 하며 크게 탄식하는 것이었다.

"염려 놓으시죠. 제가 가서 막지요."

범천총은 순력 행차가 오는 장인의 밭 어귀에 가 앉아 기다렸다. 목사 행차가 풍악을 울리며 밭 가까이 이르자, 범천총은 '으흠!'하고 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 눈을 치켜 떠서 일행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기세가 등등하게 울려 오던 행차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멀리로 돌아 지나갔다고 한다.

이 무렵에는 육지 도부장사들이 많이 다녔다. 육지에서 온 행상인으로 일용 잡화를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파는 것이다.

어느 날 범천총네 집에 도부장사가 들어왔다.

"흥정하시오."

제법 건장한 투의 소리였다. 범천총은 방에 앉은 채 대답했다.

"살 게 없읍니다."

방문도 열지 않고 대답하는 폼이 좀 건방지게 생각됐던지, 도부장사는 더욱 거칠게 '흥정하오!' 하고 소리 질렀다. 범천총은 화가 나서, '누구냐?' 하며 눈을 치켜 뜨고 문을 홱 열었다. 순간 도부장사는 당장 기절하여 자빠져 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도부장사는 겁이 나서 바깥으로 내닫는데 대변이 보고 싶어졌다. 겁똥이 나오는 것이다.

급한 김에 도부장사는 범천총네 집에서 조금 떨어지자,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앉아 똥을 누었다. 범천총네 집에서 한길로 나오는 길목에는 쐐기풀이 무성해 있었다. 쐐기풀이란, 손으로 잡으면 마치 벌이 쏘는 것처럼 쏘는 풀이다. 도부장사는 변을 다 보자, 닦을 것이

없으므로 기풀을 한 줌 뜯어 뒤를 닦았다. 항문이 매우 아팠다.
"에끼, 제주놈 독하다는 말만 들었더니, 풀까지 독하네."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었다고 한다.

괴 범천(Ⅲ)

한동리는 범천총 때문에 덕도 많이 보았지만 손해도 많이 본 셈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동리와 이웃마을 행원리(杏源里)의 경계 바다에선 해조류가 많이 난다. 그러나 당시는 이 해초를 잘 거두어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의 수입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바다는 고마운 것이 못 될 정도가 아니라 귀찮은 것일 때가 많았다. 당시는 배라고는 커야 풍선이요, 따라서 파선이 되어 어부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죽은 시체는 며칠없어 바닷가에 떠올라오는 것이다. 그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는 일은 그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마을의 책임이었다. 이 일은 귀찮은 일 중에도 귀찮은 일이었다.

당시 행원리에 가까운 한동리 바다에 '쇠죽은이' 라는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는 꽤 넓어서 바람만 불었다 하면 시체가 몇 구씩 떠올라왔다. 한동리 사람들은 이 시체를 치우는 것이 고역이었다.

범천총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루는 행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여기로부터 여기는 너희들 바다이니 끊어 가져라."
하고, 억지로 떼어 맡겼다. 세력에 몰려서 행원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바다를 맡아 시체를 치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쇠죽은이' 바다는 행원 바다가 되어 버렸는데, 오늘날은 여기의 해조류 수입만도 몇 백만 원이 된다. 행원리 사람들은 정말 전화위복(轉禍爲福)인 것이다.

괴 범총(Ⅳ)

범천총은 귀신과도 말을 했던 사람이다.

당시 함덕리(朝天面 咸德里)에는 큰 당(神堂)이 있었다. 이 당은 신(神)이 세어서 그 앞을 지날 때는 누구나 말에서 내려서 걸어야 했다. 만일 그대로 지나다가는 말 발이 저절로 절게 되어 더 가지 못하였다 한다.

어느날 범천총은 이 당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내려 가도록 권고를 받았다. 범천총은 '장부 행차에 그럴 리가 있겠느뇨?' 하고, 말에 채찍을 놓아 그대로 달렸다. 이상하게도 금방 말발이 절름절름하고 절더니 더 가지 못하였다.

범천총은 심히 고약스럽게 생각했다. 곧 동네에 들러서 그 당의 매인 심방(專屬巫)을 불러들이라고 했다.
"네가 이 당을 맡아 제의를 전담하고 있느냐?"
"예."

"이 당에 귀신이 있느냐?"
"예, 틀림없이 귀신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곧 차려서 굿을 해라. 굿을 해서 저 백맷기(큰 굿을 할 때에 세우는 기)를 일으켜 세우면 귀신이 있는 거고, 못 일으켜 세우면 귀신이 없는거다."
굿이 시작되었다. 한참 굿이 고조되어 가니 깃대가 석 자 가량 달달 떨며 일어서 가다가는 푹 쓸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예끼! 어느게 귀신이냐. 귀신이 없는 거다."
범천총은 곧 장작을 모아 오라고 해서 당을 불질러 버렸다. 그리고는 성안(濟州市內)에 가서 볼 일 다 보고 한 밤에 한동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밤은 깊어 자정이 가까웠다. 사굴(蛇窟) 앞쯤에 오고 보니, 어떤 부인이 바구니를 옆에 끼고 앞을 걸어가는게 보였다. '어떤 부인이 이 깊은 밤중에 길을 가는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에 챗직을 놓았다. 말을 달려 봐도 부인은 여전히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앞을 걸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달려 봐도 부인을 미칠 수가 없었다.
그제야 범천총은 '저것은 사람이 아니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리를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부인을 숨을 내쉬며 돌 위에 앉는 것이었다. 범천총도 말에서 내리고,
"어데로 가는 부인이오?"
"가는 길이나 가지....."
부인은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범천총은 자꾸 다가서며 캐어 물었다. 그제야 부인은, '범천총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범천총은 다시 그 이유를 자꾸 캐어 물어가니, 자기는 화덕진군(火德眞君)이라고 했다.
며칠 전 함덕리의 당을 불질러 버리니, 당신(堂神)이 옥황상제에게 축수(祝手)를 하고, 옥황상제는 다시 나를 시켜 범천총에 집에 가 불을 놓으라 하기에 지금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범천총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어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다. 만일 어려우면 가구만이라도 내어 놓게 해 주십사고 애원을 한 것이다. 그제야, 화덕진군은 머리를 끄덕였다.
범천총은 동네로 달려가며 '우리 집 가구를 내어 달라'고 연방 소리를 냈다.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고, 범천총의 외치는 소리에 영문도 모르고 가구를 내어 놓았다. 문짝까지 다 뜯어 내었다. 그래도 무슨 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제야 범천총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화덕진군이 지금 불을 놓으러 오는 중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정말 별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웅기종기 모여 앉아 초조히들 기다렸다. 기다려봐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불이 나지 않았다.

초조히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은 맥이 풀렸다.
"어느 게 화덕진군이야?"
모두들 심심하여져서 담배나 피우려고 쌈지를 꺼냈다. 누군가가 먼저 부싯돌을 한번 착 갈기니 손끝에서 불이 번쩍 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는 순간 집 네 귀에는 불이 번쩍 달라 붙었다. 삽시에 불길은 하늘에 오르고, 범천총과 큰 집 네 채가 순식간에 불길로 휩쌓였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불을 끄려고 달려들었다. 범천총은 가만히 앉은 채로,
"불을 끄지 말고 놔 둬 주게."
라고 말리었다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허기호(남•) 제보.

4. 명의 좌조의

구좌읍 종달리 출신인 좌조의란 사람이 제주에서 명의로 이름을 날렸다.
명의가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다.
조선조 어느 왕후가 병이 났으나 어떤 의원도 병을 고치질 못했다. 왕후의 병은 다름아닌 허벅지에 종기가 난 것이었다. 왕후인 까닭에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육지부의 어떤 의원을 불러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후의 병에 대해 이거다 저거다 말로만 했지 치료를 하지 못했다.
바로 제주목의 좌조의에게 명의로서 이름을 날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차마 명의가 있을까 해서 의원을 찾지 않다가 맨 끝에야 좌조의를 부른 것이다.
좌조의는 조정에 올라가면서 죽어서 올 것인가 살아서 올것인가 걱정이 태산같았다. 지금까지 유명하다는 의원이 치료하려 했으나 치료하지 못했는데 나라고 특별히 고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다.
한양에 올라간 좌조의가 왕에게 인사 문안 올리자 왕은 왕후가 종기가 났는데 여러 의원을 불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좌조의를 불렀다는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다.
식사 대접을 받으며 좌조의는 왕에게 며칠 약을 연구해 보겠다고 간청했다. 임시라도 마음을 편히 해보자고 간청을 해서 승낙을 얻고는 식사를 하면서 밥을 반 술 떠놔뒀다. 연구해 보려 해도 떠오르는 생각은 없고 토벽(土壁)에 붙은 흙을 손톱으로 긁어서 흰 쌀밥과 섞어 덩어리를 만들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덩어리가 마르자 흰 종이에 곱게 싸두었다.
이튿날은 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연구해서 약이나 만들었는가." 하고 물었다.
"예. 약 한 알을 만들었읍니다.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겟읍니다만 써보십시오."

하얀 종이에 싸 두었던 약을 드렸다.
"약명이 무엇이냐?"
"초백환이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느냐?"
"예. 종기난 곳을 심하게 누르지 말고 종기 면 발치로부터 골고루 쓸면서 종기 봉우리까지 해보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왕후의 종기는 오래 곪았으나 터지기 직전까지 와있었다. 왕이 약을 쓴 결과 종기가 터지고 치료가 되었다.
좌조의는 가슴 조이며 걱정하고 있었다. 왕이 돌아오더니 기뻐하면서 '이제는 살게 되었다' 하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좌조의에게 물었다.
"저같은 천민이 무슨 소원이 있겠읍니까만 생활이 곤란한 것 뿐입니다."
"집이 어디냐?"
"예. 바다 건너 제주도 종달리에 살고 있읍니다."
"음- 알았네."
왕은 돌아가서는 즉시 사신을 보내어 종달리 땅을 몇 정보 사서 좌조의 소유로 하도록 명령하고 또 좌조의에게는 목자(牧子)을 하사해서 보내었다 한다.
좌조의는 종달리에 살다가 지역 인심이 좋지 않자 한경면 고산리로 이주해 살았는데, 지금 한경면에 사는 좌씨가 바로 좌조의의 후손들이라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 제보.

Ⅲ. 信仰傳說

1. 송당•궤네깃당

소천국은 알송당(下松堂里) '고부니마를'에서 솟아나고, 백주또는 강남천자국의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백주또가 인간 탄생하여 열 다섯 십오 세가 되어 가만히 천기(天機)를 짚어 떠보니, 천정 배필될 짝이 조선국 제주도 송당리에 탄생하여 사는 듯했다. 백주또는 신랑감을 찾아 제주도로 들어와 송당리로 가서 소천국과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다.
부부는 아들을 5형제 낳고 여섯째는 포태중인 때였다. 백주또는 많은 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 걱정이 되었다.

"소천국님아, 아기는 이렇게 많아 가는데 놀아서 살 수 있겠읍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길러 냅니까? 농사를 지으십시오."

부인의 말에 소천국은 '오봉이굴왓(田)'을 돌아보았다. 피씨 아홉 섬지기나 되는 넓은 밭이 있었다. 소를 몰고 쟁기를 지워서 밭을 갈러 갔다.

백주또는 점심을 차리는데 국도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 열 여덟 동이를 차려서 밭에 지고 갔다.

"점심일랑 소길마에나 덮어 두고 내려가요."

백주또는 집으로 돌아오고 소천국은 계속 밭을 갈고 있었다.

이때 태산절 중이 지나다가 배가 고프다면서 들렀다.

"밭가는 선관(仙官)님아, 잡수던 점심이나 있거든 조금 주십시오."

소천국은 먹은들 얼마나 먹으랴 생각하고,

"저 소길마를 들고 보아라."

이렇게 말하였다.

중은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를 모조리 쓸어 먹고 도망가 버렸다.

소천국은 배가고파 점심을 먹자고 보니 밥은 한 술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밭갈던 소를 때려 죽여 손톱으로 잡았다. 쩔레나무로 고기를 구우며, 익었는가 한 점, 설었는가 한 점, 먹다보디 소 한 마리가 다 되었다. 그래도 초요기도 되지 않았다. 다시 소가 없을까 하여 '묵은각단밧'을 보니, 검은 암소가 한 마리 풀을 뜯고 있었다. 소천국은 배매기로 밭을 갈고 있더니, 백주또가 점심 그릇을 가지러 왔다.

"소천국님아, 어째서 배매기로 밭을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 태산절 중이 지나다가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를 다 들러먹고 도망가 버리니 할 수 없이 밭갈던 소를 잡아 먹고 남의 소까지 잡아먹으니 겨우 쪼요기가 되었노라."

"당신 소 잡아 먹은 건 예상사지만, 남의 소가지 잡아 먹었으니, 소도둑놈, 말도둑놈이 아니냐, 살림을 분산합시다."

백주또는 화를 내며 바람 위로 올라서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로 내려서서, 백주또는 당오름(上松堂里 언덕빼기)에 가 좌정하고, 소천국은 알송당 '고부니마를'에 와 좌정했다.

소천국이 배운 것은 본래 사냥질이었다. 백주또와 갈리자, 총열(銃身)이 마른 마상총(馬上銃)에 귀약통•남날개를 둘러매고, 산야를 휘돌며 노루•사슴•산돼지를 잡아 먹으며 살아나갔다. 사냥을 다니다가 '해낭곳굴왓'에서 정동칼쳇 딸을 만나 첩으로 삼고 고기를 삶어 먹으며 새 살림을 꾸렸다.

한편, 백주또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세 살이 되자 제 애비나 찾아 주려고 아이를 업

고 소천국을 찾았다. '해낭골굴왓' 움막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찾아가 보니 소천국이 있었다.

업은 아이를 부려 놓았다. 아이는 아버지를 만났으니 어리광을 부리느라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 삼각수(三角鬚)를 뽑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아버지인 소천국은 화를 내었다.

"이 자식 밴 때도 하는 일마다 안되어 살림이 분산되더니, 나서도 이런 불효한 행동을 한다. 죽여야 마땅할 것이로되 그럴 수는 없고 동해바다로 띄워 버려라."

무쇠 석갑에 세 살난 아이를 담아 자물쇠를 잠그고 동해바다에 띄워 버렸다.

무쇠 석갑은 용왕국에 들어가 산호수 가지에 걸렸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용왕국엔 풍운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용왕국 대왕이 이상히 생각하고 큰딸을 불렀다.

"큰딸 아기 나가 보라. 어찌 든변 난변이 세어지느냐?"

"아무것도 없읍니다."

"둘째딸 아기 나가 보라. 어찌 든변 난변이 세어지느냐?"

"아무것도 없읍니다."

"작은딸 아기 나가 보라. 어찌 든변 난변이 세어지느냐?"

작은딸이 나가 보더니,

"산호수 상가지에 무쇠 석갑이 걸렸읍니다."

"큰딸 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싹 못하겠읍니다."

"둘째딸 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싹 못하겠읍니다."

"작은딸 아기 내리워라."

작은딸은 번쩍 들어 내려 놓는다.

"큰딸 아기 문 열어라."

"둘째딸 아기 문 열어라."

열 수가 없었다.

"작은딸 아기 문 열어라."

작은딸 아기는 꽃당혜 신은 발로 세 번을 돌아가며 둘러 차니 무쇠 석갑이 저절로 설강 열려졌다. 속에는 옥 같은 도련님이 책을 한 상 가득히 받고 앉아 있었다.

용왕국 대왕이 말을 걸었다.

"어느 국(國)에 사느냐?"

"조선 남방국 제주도 삽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강남천자국에 국란이 났다 하기로, 세변을 막으러 가다가 풍파에 쫓겨 들렀읍니다."
용왕국 대왕은 얼른 천하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 방으로 드십시오."
대답이 전무하고,
"둘째딸 방으로 드십시오."
대답이 전무하고,
"작은딸 방으로 드십시오."
작은딸 방으로 들어간다.
작은딸은 음식상을 차리되 칠첩반상기에 융숭하게 차려 갔으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선국 장수님아, 무슨 음식을 잡숩니까?"
"내 국은 소국이라도 돼지도 잡아 전 마리를 먹고, 소도 잡아 전 마리를 먹는다."
아버지에게 가 말을 하니, 용왕국 대왕이 말을 하되,
"내 기구를 가져서 사위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
날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석달 열흘을 먹여가니, 동창고•서창고가 다 비어갔다. 용왕국 대왕이 생각하되, 요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간 용왕국이 망할 듯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남편 따라 나가거라."
용왕국 대왕은 막내딸을 불러 지시하고, 무쇠석갑에 사위부부를 들여놓아 물 바깥으로 띄워 버렸다.
무쇠 석갑은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 떠올랐다. 그날부터 강남천자국에 풍운 조화가 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천자님은 매우 걱정하여 하인을 시켜 해변을 돌아보도록 하였다. 보고가 들어왔다. 백모래밭에 무쇠석갑이 떠올랐는데, 거기에서 풍운 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황봉사를 불러라."
황봉사에게 점을 치니, 무쇠 석갑의 문을 열자고 하면 천자님이 모대(帽帶)를 차리고 향촉을 피워 북향 사배를 드려야 열려지겠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천자님이 모대를 차리고 북향 사배를 드리니 무쇠문이 열려졌다. 속에는 옥 같은 도련님과 아기씨가 앉아 있었다.
"어느 국 삽니까?"
천자님이 정중히 물었다.
"조선 남방국 제주도 삽니다."
"어찌하여 오셨읍니까?"
"소장(小將)은 귀국에 남북적을 격파하고 세변(世變)을 막으러 왔읍니다."
그때는 마침 남북적이 강성하여 천국을 치려는 판이었다. 천자님은 팔목을 덥석 잡고 궁

안으로 모셔들었다. 그 대우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무쇠 투구·갑옷·언월도(偃月刀)·비수검(匕首劍)·나무활·보래활·기찌창검(旗幟槍劍)을 내어 주고 남북적을 쳐 주도록 부탁이 단단했다.

이 아들(궤네깃한집)은 억만 대병을 거느리고 싸움관으로 나아갔다. 처음에 들어가서 머리빡 둘 달린 장수를 죽이고, 두 번째 들어가서 머리빡 셋 달린 장수를 죽이고, 세 번째 들어가서 머리빡 넷 달린 장수를 죽이니, 다시는 대항할 장수가 없었다. 천자님이 대회하여 포상을 하려 했다.

"이런 장수는 천하에 없는 장수로다.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베어 드릴 테니 땅세·국세를 받아먹고 사십시오."

"그도 마외다."

"그러면 천금상(千金賞)에 만호후(卵戶候)를 봉하리라."

"그도 마외다."

"그러면 소원을 말하십시오."

"소장은 본국으로 가겠읍니다."

관솔을 베어서 전선 한 척을 짓고, 산호수·양식 등 한 배 가득 싣고 억만 군사를 대동하여 조선국으로 나왔다.

경상도라 칠십칠관(七十七官), 전라도라 오십삼관으로 하여 일제주(一濟州)·이거제(二巨濟)·삼남해(三南海)·사진도(四珍島)·오강화(五江華)·육완도(六莞島)로 하여 제주도로 들어왔다.

제주 바다로 배를 놓으니 마침 썰물을 만나서 소섬(舊左邑 牛島) 진질깍으로 배를 붙였다. 소섬 '모살내기'로 올라 예물에 와서 영기(令旗)를 세우고 소섬을 둘러보니, 말과 소만 가두어서 먹일 곳이었다. '뭍섬(濟州本島)으로 올라가자' 하고 종달리(舊左邑 終達里)에 오고 보니 소금만 해 먹을 데였다. 산쪽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들판을 거슬러 올라 비자림(榧子林)에 올라가서 천지가 진동하게 방포일성(放砲一聲)을 놓았다.

송당리에 있는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또는 총소리에 깜짝 놀라 하녀를 곧 불렀다.

"어찌하여 방포 일성이 크게 나느냐."

하님이 나가 보더니,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무쇠 석갑에 담아 띄워 버린 상전님이 아버지를 치러 들어옵니다."

하고 황급히 보고해 왔다.

"에, 이년, 고약한 년이다. 그 새에 무쇠 석갑이 다 녹아 없어졌을 터인데, 여섯째 아들놈이 살아 올 리가 만무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포 일성을 크게 내며 여섯째 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알송당(下松堂) '고부니마를'로 도망가다 죽어 당신(堂神)이 되고, 어머니는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웃송당 '당오름(峰)'에 가 죽어 당신이 되어, 정월 열사흘날 대제(大祭)를 받게 되었다.

여섯째아들 궤 기한집은 각 마을 일류 포수들을 모아다 노루·사슴·산돼지들을 많이 잡아 오게 했다. 아버지가 생시에 사냥을 잘하고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사냥해 온 고기를 올려 제를 지낸 후, '방광오름'으로 가서 억만 군사를 다 돌려 보내 버렸다. 이제는 홀가분한 몸으로 한라영산이 구경가지는 것이다. '꿩앉인존재'로, '매앉인존재'로, '북오름'으로, '체오름'으로, 차차 올라 'ᄃᆞ리'(橋來) '앞벵뒤'로, '알곳'으로, '알소남당'으로, '웃소남당'으로 하여 '테역장오리'로 올라가서 물을 마시고 좌우를 둘러보니, 과연 용맹한 장수가 날 듯했다. 이젠 그만 구경하고 바람 위로 찾아가기로 했다. 바람 위는 김녕리(金寧里)다.

'웃소남당'으로, '알소남당'으로, '다리앞벵뒤'로, '지레기된밧'으로 차차 내려와 '백캐골왓'으로, '서리왓'으로, '오름새끼'로, '한가름'으로 하여 '어대오름' '쎌곳'·'만쟁이거멀'로, '남산거멀'로 '어욱돋은못'으로, '회연못'으로, '화수리'로, 지미산전'을 지나 '정시물'에 왔다. 여기나 좌정할까 하여 보니, 여자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게 보였다.

"더러워 못 쓰겠다."

다시 좌정할 곳을 찾으려고 좌우를 살펴보니, 김녕의 입상봉(立傘峰)은 두 일산(日傘) 세운 듯하고, 괴살미(猫山岳)는 양산 홍산(紅傘) 불린 듯하다. '아끈다랑쉬'·'한다랑쉬'(細花里의 언덕빼기)는 초출일산(初出日散) 불린 듯하다. 웃궤네기로 들어가 보니, 위로 든 바람 아래로 나고, 아래로 든 바람 위로 나고, 알궤네기를 굽어 보니 별도 솜솜 달도 솜솜해서 과연 좌정할 만했다.

좌정할 곳을 정해 두고 사장(射場)을 내리달아 보니, 서울 둥당 과거 줄 만하다. '노물이'(金寧里內의 地令)는 괴괴잔잔하고, '젱꿈'(金寧里內의 地名)은 말발이 세고, '당올레'는 인발(人足)이 세고, '식당빌레'는 개짐승이 세다.

김녕리를 한 바퀴 둘러본 뒤, '망태목'에 차일을 치고 사흘, 이레 동안을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 대접하러 오는 자가 없었다. 궤네깃한집님은 마흔 여덟 상단골, 설흔 여덟 중단골, 스물 여덟 하단골에 풍운 조화를 내려줬다.

단골들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심방(巫堂)을 데려자 점을 쳐 보았다. 심방은,

"소천국 여섯째아들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김녕리 신당으로 상을 받으려고 내려 준 풍운조화입니다."

점괘를 풀이했다.

단골들은 궤네기한집을 모시고 물었다.
"그러면 어디로 좌정하겠읍니까? 좌정지를 말씀하옵소서."
"나는 알궤네기로 좌정하겠노라."
"뭣을 잡습니까?"
"소도 전 마리를 먹고 돼지도 전 마리를 먹는다."
만백성들이 사정을 했다.
"가난한 백성이 어찌 소를 잡아 위할 수 있겠읍니까? 가가호호에서 돼지를 잡아 위하겠읍니다."
"어서 그리 해라."
그리하여 만백성이 알궤네기에서 자리를 고르고 제단을 만들어, 1년에 한 번 돼지를 잡아 물 한 방울도 덜지 아니하고 위하는 신당이 되었다.

제주시 건입동, 이달춘(남•) 제보.

2. 부훈장과 도깨비

약 160년 전에 부훈장(夫訓長)이라는 이가 한동리(舊左邑 漢東里)에 살았었다. 어릴 적부터 글공부를 많이 하여 한학(漢學)에 능하였다. 그래서 덕천리(舊左邑 德泉里)에서 훈학하여 생계를 이어 나갔다.
덕천에서 훈학을 하면서도 집은 한동에 있었기 때문에 부훈장은 늘 저녁이 되면 산길을 걸어 집에 와야 했다. 저녁 때까지 글을 가르쳐 서당 학생들을 풀고 집에 오려면 밤이 깊었다. 거기다 달이 없는 밤이면 산길을 왕래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부훈자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항상 밤길을 걸을 땐 도깨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도깨비를 불러들였는지 자세하지 않으나, 부훈장이 부르면 도깨비는 곡 나타났고, 부훈장의 지시대로 등불을 들어 길을 밝혔다 한다. 그래서 부훈장이 집에 들어가야 도깨비는 전송해 두고 돌아가곤 했다는 것이다.
도깨비는 잘 다루기만 하면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일을 해준다. 특히 어부들이 고기떼를 몰아다 잡고자 할 때 도깨비 힘을 빌면 아주 좋다. 도깨비는 바다의 고기 떼들을 한 곳으로 잘 몰아다 주기 때문이다. 부훈장은 이럴 때 도깨비를 불러들여 고기 떼를 한꺼번에 몰아오게 하기도 했다.
부훈장이 도깨비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월정리(舊左邑 月汀里)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깨비를 한번 불러들여 그 모습을 보여 달라고 졸랐다. 부훈장은 자꾸 사양하다가 하도 졸라대니 할 수 없

이 도깨비를 불러들였다. 보니, 정말 도깨비가 등불을 들고 나타나 도깨비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는데, 그 모습은 꼭 원숭이 같더라 한다.

부훈장은 여러 가지 술법에도 능했다.

하루는 동네 벗들과 앉아 노는데, 하도 심심하니 무언가 웃음거리를 만들라고 자꾸 졸랐다. 부훈장은 붓을 꺼내어 무언가 백지에 써서 마당에 홱 던졌다. 마당에는 마침 나막신이 딩굴고 있었는데, 종이를 던지자 나막신 두 짝이 싸움을 붙는 것이었다. 마치 닭싸움하듯 마주 향해 파드닥 싸움을 했다는 것이다. 벗들이 신기해서 한참 구경하며 웃는데, 부훈장이 다시 백지에 뭔가 써서 홱 내던지니, 나막신이 다시 원자리에 와서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섰다는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허기호(남·75) 제보.

3. 한연 한배임재

김녕리(舊左邑 金寧里) 노물이 동네 '거욱대우영'이라는 곳에 한씨 묘가 있었다. 이곳은 지리, 풍수적으로 지네 형국의 지형이라 하는데, 한씨 묘는 바로 지네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썼다 한다. 그래서 이 묏자리를 '오공혈'이라 한다. 지관(地官)은 이 묏자리를 봐주며 틀림없이 장군이 날 것이라 했다.

이 묘를 쓰자,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정께가 되어 가면 이묘에서 한 장군이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악을 요란스레 기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걸핏하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곤 했다.

동네에서는 야단났다고 하여 며칠간 회의를 한 끝에 그 방비책을 고안해 냈다. 그것은 큰 패말에다 '악장군지교'(惡將軍之墓)라고 써서 묘 앞에 박아 놓은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패말을 뽑아 부수어 버리고, 장군 일행이 여전히 동네에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의논 끝에 이번엔 돌에다 새겨 세우기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부수어 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동네가 조용해졌다. 묘의 영기가 눌려진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가 김녕 한씨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 묘의 영기로 태어난 아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아이는 날 때부터 보통아이보다 크고 풍모가 달랐다.

어머니는 아이를 '애기구덕'(아이를 눕혀 재우는 기름한 바구니)에 눕혀 젖을 먹이고는 잠이 들면 밖에 나가 일을 본다. 그런데, 바깥엘 나갔다 와 보면 아이는 눕혀 둔 대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꼭 바깥에 나왔다가 저대로 돌아가 누운 눈치였다.

이상히 생각한 어머니는 몰래 아이의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 젖을 먹여 잠재우고 밖에 나와 문 틈으로 몰래 살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잠시 후에 '아기구덕' 밖으로 펼

쩍 뛰어 나왔다. 그래서는 겨드랑이의 날개를 펴고 천장을 휘휘 날아 다니다가, 인기척이 나자 급히 애기구덕 속으로 들어가 잠자는 척하고 눕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곧 알렸다.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하게 될 것이 뻔하다. 부부는 아이가 잠든 틈에 가만히 겨드랑이를 헤쳐 보았다. 과연 손바닥만큼한 날개가 나 있었다. 아버지는 지져 버렸다. 날개를 그대로 두면 장수가 될 것이 뻔한 일임을 아버지도 알았지만, 만일의 경우 집안이 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안타까워 하면서도 지져 버린 것이었다.

그 후 이 아이는 예사 아이처럼 조용해졌지만, 점점 자라면서 힘이 남달리 세어서 소문이 났다.

김녕리는 해촌이라 어업이 성하였었다. 이 아이도 자라자, 다른 사람과 일반으로 큰 배를 한 척 지어 고기도 낚고, 육지에 장사 짐도 나르곤 하였다. 그로부터 한연 한배임재라 부르게 되었다.

한연 한배임재 배는 컸기 때문에 나라에 진상을 올리는 일이라든지, 육지에서 쌀을 날라 오는 일을 많이 하였다.

어느 해의 일이었다. 한연 한배임재는 육지에 가서 무곡(貿穀)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 제주로 향해 오고 있었다. 육지가 제주의 중간쯤, 사방을 보아도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바다에 왔을 때 수적(水賊)이 나타난 것이다. 수적들은 배를 가까이 대어 놓고 외쳤다.

"거 누구네 배냐?"

"김녕 한연 한배임재 배다."

"뭣을 실어 오느냐?"

"무곡을 싣고 온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무곡을 이 배로 옮겨 실어라."

한연 한배임재는 다리만큼 굵은 닻줄을 맨손으로 바드득 무지러 끊어 머리띠를 턱 두르고, 다시 바드득 무지러 끊어 두 정가이의 바지 가랑이를 올려 두었다. 그래서, 좁쌀 스물 다섯말씩 넣어 묶은 멱서리를 한 손으로 잡아 던지기 시작했다. 돌멩이 내던지듯 좁쌀 멱서리를 내던져 가니, 수적의 배는 물 위에 뜬 나무 잎사귀처럼 이리 저리 흔들거리다가 바닷물 속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연 한배임재의 거동을 지켜 보던 수적놈들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처음 한닻으로 머리띠를 두를 때부터 '좀 힘이 센 놈인가 보다'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좁쌀 멱서리를 한 손으로 잡고서 휙휙 내던져 대니 간장이 서늘해진 것이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어느 새 멱서리는 산같이 쌓여지고 배가 금방 가라앉게 되어 가는 것이다.

수적놈들은 꼼짝 없이 죽게 되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제히 꿇어 앉아 빌었다.

"과연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이놈들, 큰 배로 올라오면 살려 주지."
한연 한배임재는 그제야 한마디 크게 소리쳤다.
수적놈들이 큰 배로 올라오자, 한연 한배임재는 이놈들은 꽁꽁 묶어서 관가에 데려가 바쳤다.
당시는 바다에 수적이 왜 많은 때였는데, 그 후부터 제주 사공들은 수적들을 모면하는 방법이 생겼다. 바다에서 수적을 만나, '어딧 배냐?' 하면, '김녕 한연 한배임재 배다' 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러면 수적 배는 모두 부리나케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
한번은 육지로 항해해 가다가 배에 식수가 떨어졌다. 한연 한배임재는 진도(珍島) 벽파진(碧波津)에 배를 대고 물을 길러 선창에 내렸다.
마침 선창에는 어부들이 큰 닻을 운반하고 있었다. 닻은 하도 커서, 한 쪽에 50명씩 백명이 들어 목도질을 해야 겨우 한 치를 띄울까말까한 것이다. 한연 한배임재는 그 광경을 보고 무심코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개미 새끼들처럼 복슬복슬 달려 들어서 뭘 하는 건가."
목도질하던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기 물 길러 가는 놈이 우리를 모욕하더라.'고 군중들에게 알렸다. 군중들은 일제히 분을 토하고, 내려올 때는 잡아 단단히 경을 쳐 주자고 벼르고 있었다.
한연 한배임재가 물을 길어 내려오다 보니, 군중들이 닻도 아니 메고 웅성가리고 있었다. 한 사람이 썩 나서서 길을 막아 서며 말을 거는 것이었다.
"너 뭐라고 했느냐?"
"개미 새끼들처럼 복슬복슬 모여서 뭘들 하느냐고 말했지요(말ᄒᆞ여십주)."
"야, 이놈, 별놈 다 본다. 너 그러면 이 닻가지를 들 수 있겠느냐? 못 들면 너 목을 베일 거고, 들면 우리가 술 한 잔 먹인다."
한연 한배임재는 군중들을 쳐다보다가 닻이 있는 데로 걸어갔다. 닻을 한 손으로 잡고서 왈카닥왈카닥 흔들어 보고는 두 손으로 잡아 번쩍 들어 휙 내던져 버렸다. 닻은 저 멀리 개펄에 가 푹 박히고 끄트머리만 삐죽하게 개펄 위로 보였다. 군중들은 얼굴이 파래지며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엎드렸다.
"아이고, 몰라 봤읍니다. 과연 용서하십시오."
간절히 빌고는 '저 닻가지를 뽑아다 주십사'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사실 평지에 있는 것도 운반을 못하여 개미떼처럼 달라붙었는데, 이젠 개펄 속에 박아 놓았으니 정말로 큰일이난 것이다. 한연 한배임재는 '그럼, 고사(告祀)를 지내야 하지' 하며 털썩 앉았다.
군중들은 막걸리 통을 날라 왔다. 한연 한배임재는 막걸리 서너 통을 혹혹 들이마시고는

다리를 걷고 개펄 속으로 들어가더니, 닻가지를 쑥 뽑아 내어 휙 내던졌다.
닻가지는 저만큼 가서 덜컹 떨어지면서 그만 한 쪽 가지가 툭 불어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던 벽파진 사람들은 역적이 났다고 관가에 보고해 버렸다. 그만한 장사면 역적이 될 법도 한 일이다. 관가에서 즉시 잡아다 서울로 보내었다.
조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 한연 한배인재였다. 이제까지 제주에서 진상(進上)을 올릴 때, 다른 배는 수적에게 진상품을 자주 빼앗겨 못 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한 번도 빼앗기는 일없이 잘 올려 바친 한연 한배임재가 잡혀 온 것이다. 조정에서 조사를 해 본 후 '이 사람은 나라의 공로자다'고 하여 후한 상을 주고 돌려 보내었다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안용인(남•) 제조.

4. 한순이, 달순이와 신 선달(先達)

신 선달은 동복리(舊左邑 東福里) 태생으로 얼굴과 풍채가 좋고, 마음이 어진데다 활쏘기도 명수였다.
그가 태어난 시대에는 동복리와 서쪽 이웃 마을인 북촌리(朝天面 北村里) 사이에는 매우 사이가 나빴다. 북촌 사람들은 권세를 부려서 북쪽 해안에 시체가 밀려 올 때마다 동복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명령했고, 권세가 없는 동복사람들은 어쩔 도리없이 따라야만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례로는, 시체를 치우는 동네에서 그 해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북촌 해안에는 밭에 걸음하기에 좋은 해초(실겡이 듬북)가 해풍에 휩쓸려와 뒤덮였다. 동복 사람들은 북촌 사람 몰래 이를 모조리 훔쳐와 버렸다. 바로 그 지역에 떠밀려 온 시체는 늘 동복 사람들이 치워다가 안장(安葬)시켜 온터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 북촌마을은 완칵 뒤집혔고, 당장 동네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향장(鄕長)이 불쑥 나서서는 엄숙하게 마을 청년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동복놈들을 다 잡아들여라!"
북촌 사람들은 벌떼처럼 동복마을로 달려가서 우선 남정네들을 모두 잡아왔다. "죽여라!", "곤장을 쳐라!" 야단법석이었다. 이 때,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신(申)씨 청년이 쑥 나서는 것이었다.
"우리 동복 사람들이 당신네 바다에 오른 해초를 도둑질한 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한 마디 말이나 하고 제가 대신 죽어서라도 나가겠읍니다."
"무슨 말이냐?"

향장의 목소리가 천지를 울리는 듯하자, 법석대는 분위기는 일단 가라앉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네가 다를 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네들은 좋은 바다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우리 마을 사람들만 배고파 죽게 된다면 도와주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옵니까?"

신씨 청년의 말에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고, 향장은 다시 말문을 열었다.

"허-, 동복에도 사람이 났구나! 다들 돌아가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라."

신씨 청년은 글도 좋았을 뿐 아니라, 활도 잘 쏘아서 과거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다. 활쏘기 과장(科場)에서 72명 중 1등으로 합격하여 선달 벼슬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신씨 청년은 동복마을에서 첫 번째로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한순이와 달순이를 비롯한 여러 놀잇군들을 이 마을에 보내어 잔치를 벌여 주고 오라고 지시했다.

신 선달은 조정에서 보내 준 놀잇군들을 대동하고 와 동복마을 비석거리에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 북•장고소기가 울리는 가운데, 줄타기는 물론 춤판이 벌어졌다. 여러 놀잇군들 중에서도 한순이와 달순이의 춤과 노래는 일품이었다.

놀이판이 끝났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한순이와 달순이만은 남아서 며칠만 더 같이 놀아 준다면, 우리가 돈을 모아 주겠다고 하며 아우성이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 놀잇군들은 먼저 떠났지만, 한순이와 달순이만은 남아서 놀이판이 더 벌어지게 되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놀이판은 모두 끝났다. 한순이와 달순이는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과 신 선달로부터 돈을 받고 떠나던 중, 물마루를 넘기 전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 배가 엎어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며칠 후, 앞서 떠났던 놀잇군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신선달을 찾아왔다.

"한순이와 달순이는 어데있오?"

"아무 날 아무 시에 떠났오 마는…."

이상하게 여긴 신 선달은 찾아 온 놀잇군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보았으나 한순이와 달순이가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신 선달은 어쩔 도리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 그날 밤 선달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꿈에 한순이와 달순이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때 놀잇군들과 같이 떠나 버렸다면 원통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당신네들 때문에 죽게 됐으니 우리들을 위해서 굿을 하여 서우젯소리로 우리들의 간장을 풀어 주시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신 선달과 마을 사람들은 어쩔 바를 몰라하다

가, 선달은 하는 수 없이 한순이와 달순이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하여 굿판을 벌였다. 그 후, 그 영혼들은 이 마을 신씨 집안을 수호해 주는 조상신(祖上神)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로부터 신씨 후손들은 바다에 가기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 더욱 부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신을 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씨 자손들이 번성하여 모두 잘 살게 되었다.

지금 신 선달의 묘는 이 마을 바로 동쪽에 바다를 향하여 묻혀 있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박인주(남·64) 제보.

5. 한동지(韓同知) 영감

옛날 월정리(舊左邑 月汀里)에 120세가 훨씬 넘도록 장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동지 영감이다.

영감은 120세가 다 되어도 검은머리가 흰 줄 몰랐을 뿐 아이라, 치아도 정정하여 못 먹는 음식이라곤 없었다. 그의 기력 또한 늙을수록 왕성하지는 듯하여 한동지 영감에게 힘겨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드디어는 조정에서까지 알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여러 나졸들에게 제주도 월정(月汀) 마을에 사는 한동지 영감을 모셔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감이 그만큼 살았으면 듣고 본 것도 많았을 것이며 경험도 풍부했을 것이니, 영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역사를 기록해 보자는 뜻에서였다.

드디어 한동지 영감은 여러 나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御前)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한동지 영감을 반가이 맞아들이고는 성찬을 베풀어 주며,

"영감이 120세까지 살고서도 기력이 이렇게 좋은데, 그 동안 살아 온 내력이나 말해 보시오."

"가난한 부모 슬하에 태어나서 배운 것이라곤 농사짓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 멸치(멜) 잡는 일밖에 모르는 백성이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상한 경험담이 하나 있읍니다."

"어떤 경험이오?"

"어느 날 우리 마을에는 지붕이 바람에 걷혀도 그 위에 못 올라갈 정도로 강풍이 몰아쳤는데, 밝은 날에 동네를 보니 온 천지가 모래로 덮혀 버려 집들은 물론 이웃 마을(杏源里)로 가는 길까지 없어져 버린 때를 당한 적이 있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대에는 밭이나 집이 거의 없는 형편이옵니다."

"그것밖에 본 게 없오?"

"그러면 당신네 집자리는 어느 지경이었오?"

"장잇통이었읍니다."

임금은 여러 나졸들을 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오도록 하명(下命) 했다. 여러 나졸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 과연 한동지 영감의 말대로 그 일대는 온통 모랫동산 뿐이었다.

임금은 한씨 영감에게 동지(同知) 벼슬과 함께 모래로 덮힌 그 일대를 모두 차지하여 살라고 하며 제주도로 내려보냈다. 한동지 영감은 그 덕으로 모래 덮힌 그 넓은 땅은 물론 바다까지도 모두 차지하여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그 재산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상속되어 이 말을에서 한씨 집안은 몇 대 동안 부를 누리며 잘 살아왔다. 그 후 세월은 흘러 여러 성씨들이 이 마을로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그 넓은 모래밭의 소유도 달라지고 바다에서 멸치도 공동으로 잡으며 살아가게 되면서 오늘날의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도 이 마을 한씨 집안에서 굿을 할 때에는 심방(무당)은 이 조상(韓同知 영감)대의 내력담인 '조상본풀이'를 노래로 부라고 그 후손들은 심방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추며 조상신을 놀린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박인주(남 • 64) 제보.

6. 날개 돋힌 부대각

옛날 제주도에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부임한 적이 있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제주도 400여 리 길을 여러 군졸들을 거느리고 순력 길에 나섰다.

순력꾼들은 성안(城內:지금의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우선 동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여러 마을을 지날갈 때마다 온 백성들은 멍석을 지고 나와 펼쳐 놓고는 그 위에서 큰절을 올렸다. 북촌리(朝天邑 北村里) '정지폭낭에' 에 이르러서 다시 동쪽으로 행차를 계속했다.

거의 한동리(舊左邑 韓東里)에 이를 무렵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길 저쪽에서 뭣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움직거리는 물체가 하나 있었다. 한 형방(刑房)이 목청을 돋구며, '목사님의 순력이신데 길을 비켜라'고 외쳐도 막무가내였다.

목사도 그 광경을 보고는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여러 군졸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여봐라, 저게 뭣이냐?"

"귀신이지 생인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길을 비키라고 해도 반응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모두들 하마(下馬)하고 어서 가서 확인하고 와라!"

목사의 명령을 받은 여러 나졸들이 창과 활을 들고 달려가서 보니 연자매(硏子磨) 밑돌을 등에 지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다. 그 거대한 돌덩이 하며 부리부리한 눈망울과 몸집에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 한 형방이 나서서는,

"너는 오늘 목사님이 순력하시는데, 이게 어지 된 일이냐?"
"동네 사람들의 부탁으로 밥이나 얻어먹고 살기 위하여 이런 상일을 하는 막일꾼이 되옵니다."
슬며시 다가선 목사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나졸들에게 저 밑돌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60여 명이 힘을 모아도 연자매 밑돌은 끄덕거리지도 않았다. '대단한 장사가 이 마을에 있구나!' 하며, 일단 순력을 마치고 이 사실을 어전(御前)에 보고했다.
어전에서는 그 장사를 곧 올려보내도록 명령이 내렸다. 어전으로 올라간 부씨(夫氏)장사는 임금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만 해나갔다.
"자네 식량은 한 끼니에 어느 정도나 되는가?"
"보리쌀 스무 말을 놓고 밥을 해야 겨우 배가 찰 정도이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물은 어느 정도나 먹어야 하는가?"
"세 동이(허벅) 정도는 먹읍니다."
어전에 모인 사람들은 제주에서 온 장사의 말에 입만 딱 벌린 채 말이 없었다. 임금은 침착하게 부씨 장사의 옷을 벗겨보도록 형방에게 지시했다. 형방은 부씨 장사에게로 다가가서 웃옷만 하나 하나 벗겨나갔다.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바람에 임금은 물론 거기에 모인 관원들 모두가 누이 휘둥그래지고 말았다. 날개였다. 제주에서 잡아 온 부씨 장사의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혔는데, 그것을 새끼줄로 허리에다 딱 붙게 잡아묶여 있었다.
임금은 모든 벼슬아치들을 조용히 불러세워 놓고, 제주에서 온 장사를 죽일 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날개 돋힌 부씨 장사를 살려둘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도에서 용마(龍馬)도 따라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은 모두 죽고야 만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드디어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모두들 무쇠로 만든 상자에 담아 바다에 던져 버리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그 친척들은 물론 제주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각 벼슬을 내려 위장하기로 했다. 배 두 척을 마련해서 한 척은 대각 칙령(勅令)을 갖고 앞에 가서 환송나온 친척들에게 전하기로 하고 뒤에 가는 배에는 무쇠상자 속에 부대각을 담고 가다가 던져 버린다는 계책이다.
대각 벼슬을 받고 온다는 소식에 접한 친척들은 물론 동네사람들가지도 모여 잔치 준비를 서둘렀다. 부씨 장사가 어전에 올라가서 대각 벼슬을 받고 온다는 사실도 기뻤지만, 배가 준 죄로 늘 굶주리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봉록(俸祿)으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가 더 없는 기쁨이었다.
기다리던 배는 평대리(舊左邑 坪垈里)에 있는 포구로 입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

대각은 안 보이고 칙령만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어전에서 온 나졸들은 거짓으로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뒤따라오던 대각님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고 전하고 나서 칙령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

부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침통했다. 바로 그날 밤 한 친척의 꿈에 부대각이 나타났다. 눈물을 글썽이며 겨드랑이에 날개 돋힌 죄로 무쇠상자에 담긴 채 바다속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으니, 나의 원한을 큰굿 및 마당(석)으로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사라져 버렸다.

그 후로 이 마을 부씨 집안에서는 굿을 할 경우, 심방(巫堂)은 이 부대각의 원통한 내력담인 '조상본풀이'를 창하고 난 후, 서우젯소리로 그 영혼을 흥겹게 놀린다.

또, 그때 칙령만 싣고 배가 들이대었던 포구를 '배들인개'라고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박인주(남·64) 제보.

7. 도깨비(Ⅰ)

도깨비를 모시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도깨비가 고기 떼를 마구 몰아다 잡게 해 주기 때문이다.

옛날 '어등개'(舊左邑 杏源里)에 살던 어떤 어부가, 하도 고기가 안 잡히므로 도깨비(도채비)를 모실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 어부는 도깨비를 모시되 그리 오래 모실 것은 못 된다 하고, 한 자본 거두어 들여지기만 하면 이놈을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도깨비란 놈은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 주되, 약간 방심하면 집을 망하게 해 버리는 놈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부는 도깨비를 모시러 나섰다 깊은 밤중, 동네에서 도깨비가 잘 나타나는 곳에 가서 언약을 하는 것이었다.

"영감, 영감이 나를 재수 좋게 해 주면 수수범벅 해 주지."

하고 수수범벅을 올리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의외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어부는 그로부터 항상 수수범벅을 해다가 여기에 올리고 재수 좋게 해 달라고 빌었다. 연일 대풍어가 되어 날로 부자가 되어갔다.

얼마간 돈이 모이자, 어부는 '이제는 도깨비 힘을 빌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수수범벅 올리는 것을 중지했다.

그랬더니, 얼마 없어 꿈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나는 재수 좋게 너를 도와줬는데, 수수범벅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아니 해 오느냐?' 는 것이다. 어부는 이 때에 요놈을 딱 끊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어부는 버드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 도깨비 나오는 언덕으로 갔다.

"이놈, 너 왜 간밤에 우리 집에 갔다 왔느냐! 다시 출입을 하다간 살려 두지 않을 테다."

큰소리를 지르며 어부는 버드나무 막대기로 언덕을 여기저기 막 후려 갈겼다. 그리고는 '이놈 똥이나 먹어라' 하며 똥을 누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 보니, 벌써 집 네 귀에는 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은 도깨비가 붙여 놓은 것이었다.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허 술(남·87) 제보.

도깨비(Ⅱ)

예로부터 제주도의 해안마을들 중 백사장이 질펀히 깔린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그물을 쳐 멸치잡이(멜후림)를 해 왔다. 그런 마을에는 의례 그물접(契)이 있게 마련인데, 그 접은 으뜸인 계장(契長), 그 보좌역인 공원, 그리고 여러 계원(契員)들로 조직되어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녕마을(舊左邑 金寧里)에는 멸치잡이가 성행했었다. 멸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도깨비(도채비·영감·참봉·야채 등이라 부름)를 모신 곳에 가서 대접을 잘해야 한다는 속신(俗信)에 따라, 어느 해인가 김녕마을 그물접(契) 공원이 제물(祭物)을 차려 지고 도깨비를 모신 굴 비슷한 바위(돌엉덩)로 가서 우선 도깨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영감(도깨비) 계십니까?"

"어, 거 오래만일 세. 어째서 왔는고?"

공원이 묻는 말에 도깨비가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그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

"이거 약소한 제물이옵니다만, 응감(應感) 하십사고 해서 이렇게 짊어지고 왔읍니다."

"어허, 거 고마워서 난 뭣으로 보답해야 할 것인고?"

"그럴 게 있읍니까? 영감님(도깨비)은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 하신 영감이오니, 금년 어장(漁場)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 그쯤이냐 해 주지."

공원은 도깨비와 문답이 끝나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깨비는 갑자기 '이젠 저 음식을 져다가 나눠 먹어라' 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옆에 있는 도깨비에게 하는 말임이 분명했다.

도깨비에게 잘 대접해 두고 공원은 돌아왔다. 계원 모두는 배(닷배)에 그물을 가득 싣고 바다로 나가 그물을 반쯤 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마바람이 터지는 통에 그물을 제대로 칠 수 없어 걱정이었다. 이제는 썰물이 나서 멸치 떼가 모두 먼 바다로 빠져나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도깨비불이 나타나서 첨벙대는 바람에 멸치 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비록 그물은 제대로 칠 수 없었지만, 도깨비 덕으로 그 해에는 풍어를 만날 수 있었다.
뒷해에는 이 그물접(契)에 임원 개선이 있었다. 도깨비를 모시지 않는 공원이 덩선되는 바람에 제대로 제(祭)를 올리지 않은 채 멸치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배에 가득 싣고 바다로 나갔다. 그물을 치기에는 시간이 멀어서 뱃사람들 모두가 잠을 붙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남쪽으로 한라산이 쟁반만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배가 먼 바다로 떠 밀려 온 것이다.
이제 그물이고 뭐이고 다 던져 버리고 우선 살아만 나려고 전마선만 타서 겨우 포구(浦口)에 당도했다. 그 바람에 그물마저 모두 잃어 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도깨비가 조화(造化)를 부려 사해바다 바깥으로 그물이며 배를 끌어다가 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8. 김해 김씨 선묘(金海金氏先墓)

한라산 어승생 동쪽에 위치한 속칭 '열안지오름'(列雁地峰)에는 김해 김씨 선묘(先墓)가 하나 있다. 그 자리를 명당자리로 유명하다.
어느 김해 김씨 후손이 그 자리를 마련하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소목사(蘇牧使)가 제주도에 부임한 적이 있었다. 목사는 밤만 되면 산으로 야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바로 그 당시에 바로 그 김해 김씨 후손이 목사의 하인으로 있었는데, 그는 목사의 야행을 눈치채고는 목사가 어떤 해라도 발생할까 걱정하여 늘 목사 몰래 뒤쫓아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도 소목사는 예전처럼 산으로 야행을 나가자 김씨 하인도 어김없이 목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목사가 열안지오름(峰)에 이를 즈음이었다. 갑자기 멈춰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는 한 곳에 슬그머니 앉았다. 이상하게도 목사는 그 자리에다가 계란 하나를 땅속에 묻었다가 꺼내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
목사는 갑자기 꺼내 든 계란을 툭 깨고 난 후, '참 좋다!'고 탄성을 연발하고 나서 엉덩이를 탁 쳤다. 바로 그때 뒤쫓아다니던 김씨 하인은 무슨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소목사에게로 다가갔다. 목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 거 생인이냐? 귀신이냐?"
"귀신이 아니오라 바로 저올시다."
"넌 어떤 일로 여기까지 당도했느냐?"
"목사님께서 야행을 하실 적마다 혹이나 액한 일이 당하게 되실까 두려워 목사님 모르게

늘 뒤를 미행했사옵니다."

"음, 네가 바로 이 땅 임자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이 자리에다 묻어 드려라."

하인은 소목사의 말대로 몇 해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에다 곱게 안장(安葬)시켰다. 바로 그때 소목사는 김씨 하인에게 너희 7대 손이 되어서는 대발복(大發福)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해 김씨 잡안에 7대 손이 되어서는 군수•판관 등 벼슬살이 하는 명당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다.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김시화(남•85) 제보.

9. 괴이리(傀伊里)

괴이리(傀伊里)는 지금 한동리(舊左邑 漢東里)의 옛 이름이다. 이 마을을 괴이리라고 부르던 옛날에 어떤 괴이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명을 고쳐야만 했었는데, 그 사건은 이렇다.

옛날 어느 외국 어부들이 제주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파를 만나 배가 파선되고 말았다. 다행히 어부들만은 겨우 헤엄쳐나와 이 마을로 피신하여 이 집 저 집의 외양간이나 처마밑으로 가서 떨리는 몸을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무서운 느낌이 앞서 미처 그들을 구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모두 이 마을에서 동사하고 말았다.

그후, 이 마을에는 간혹 바다에서 불씨가 날아 와 어느 집 지붕 위에 앉기만 하면 여러 집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여 온 마을이 소동이 일었다. 괴상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을 '도채비 불'이니 '조홧불(造化之火)'이니, 의견이 구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데 가서 점이라도 쳐서 원인을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점괘는 이 마을에서 얼어죽은 어부 원혼들이 조화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방책을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죽은 어부들의 조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里名)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들 입을 모았다. 그 이유는 이명 첫머리의 괴(傀) 자가 이 마을 집집마다의 재목(木)들에 악귀(鬼)가 붙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마을에서는 몇 사람의 유지들이 모여 이명을 고치기로 했다. 3년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한라산(漢拏山) 동(東)쪽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명을 지금의 한동리(漢東里)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 이명을 고친 후로는 이 마을에서 '조홧불'은 사라졌지만, 마을의 기세는 떨어지기 시작하여 옛날처럼 범천총(전설 참조) 같은 인물은 태어나지 않는다.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김세경(남•68) 제보.

10. 도깨비 불과 한동리명(漢東里名)

한동리(舊左邑 漢東里)의 옛 이름은 '궤'이고, 한자로는 괴이리(槐伊里)라 써 왔다.

그런데, 80여 년 전 이상하게도 이 마을엔 도깨비 불이 끊임없이 났다. 이 도깨비 불은 마치 총알처럼 밤마다 바다쪽으로부터 날아 들어오고, 그것은 집처마에 붙어 삽시간에 집이 불타올랐다. 이것이 한 집 두 집이 아니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온 동네가 전부 망할 것 같았다.

동네에서는 커다란 근심이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의논하고 매일 밤 당번을 정하여 지키기로 했다. 당번이 지키다 보면, 도깨비 불이 바다로부터 총알처럼 날아와 이집 저집에 달라붙는 것이다. 당번들은 소리쳐 사람들을 깨우고 불을 문질러 끄고 보면, 거기에는 불이 붙은 말똥이 남아 있곤 했다 한다. 그래서 도깨비 불은 말똥에 붙은 불이 그 불씨임을 알았다.

동네 사람들은 온통 불안에 떨어 잠을 못 이루고, 당번들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도깨비 불을 내쫓느라고 야단이었다.

관가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괴이한 사실을 조사하려고 당시의 이 목사(李牧使)가 직접 행차해 왔다. 목사는 친히 밤을 새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것은 도깨비 불이 아니라 인화(人火)라고 단정했다. 틀림없이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게 분명하니 그 범인을 색출해 내라는 것이다.

목사가 이렇게 나오자, 이 마을 상동(上洞)에 사는 이 모(李某)라는 이가 나서서, '도깨비 불이 틀림없읍니다.'고 목사에게 일렀다. 목사는 이놈이 수상한 놈이라 하고, 곧 상투를 풀어 말꼬리에 묶어 매라고 호통했다. 말꼬리에 머리를 잡아묶어 성산(城內:濟州市內)까지 달린다면 사람은 죽을 것이 뻔했다. 마을이 큰 환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허 모(許某)씨는 살짝 집으로 달려가더니 손수 자기 집에 불을 붙였다. 이 환을 면하려 하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불길이 치솟자, '불이야, 불이야!'하고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몰려 들었다. 목사 일행도 말꼬리에 머리를 잡아 묶었던 이씨를 놓아 주고 불을 끄러 달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죽을 고비의 생명이 구제되었다.

목사는 그제야 도깨비 불임을 인정하고, 마을 이름이 나빠서 불이 나는 것이니 고치라고 지시하고 돌아갔다. 수인씨(燧人氏)가 처음 불을 일으킬 때, 홰나무(槐木)로 불을 일으켰는데, 그 괴(槐)자를 쓰기 때문에 불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때 이 마을에 오훈장(吳訓長)이라는 이가 있었다. 한학에 능하여 훈학(訓學)을 하며 지내던 이인데, 그가 마을 이름을 한동리(漢東里)라 지었다. 홰나무로 일어난 불을 끄는

데는 한수(漢水)를 당겨 와야 하니, '漢'자를 써야 좋고, 한동(漢東)은 한라산 백록담(白鹿潭)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그 백록담의 물을 당긴다는 의미도 있어 좋다는 것이다.

이래서 한동리라 부르기 시작하자 도깨비 불의 조화가 차차 없어져 화재가 안 일어나서 살기 좋아졌다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허술(남•87) 제보.

11. 서문 하르방

서문 하르방이란 김녕리(舊左邑 金寧里) 마을 서쪽 변두리 바닷가에 모셔 있는 바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바다에서 낚싯대에 걸려왔다고 전하는 자연석을 놓고 지금도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도 와서 신앙하는 돌이다.

옛날, 이 마을에 한 윤씨 영감이 살았었다. 그 영감은 어느 날 바다에 고길 낚으러 갔었다. 혼자서 뗏목을 타고 백 발이 넘은 낚싯줄을 갖고 먼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낚싯줄을 바닷물 속으로 드리우기만 하면 고기는 한 마리도 물지 않고 대신 눈도 코도 없는 먹돌(색이 검고 석질이 단단한 돌)이 낚시에 걸리어져 올라오는 것이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낚시를 드리워도 그 돌만 올라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 돌만 배에 싣고 집으로 뱃길을 돌렸다. 성창에 거의 들어 와서야 그 돌을 내던져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바로 그 날부터였다. 갑자기 집안 애들 모두가 온 몸이 앓아가기 시작했다. 어데 가서 문점이라도 해 봐야 할 판이었다.

"혹, 이상스러운 괴석을 주웠던 일이 있잖소."

점장이의 말이었다. 윤씨 영감은 오전날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 그게 바로 당신네 집안에서 모셔야 할 조상이오. 그것을 잘 모셔야 당신네 집안 식구들이 편안하게 되고, 집안도 잘 되겠오."

윤씨 영감은 점장이의 말대로 곧바로 성창으로 가서 그 돌을 주워다가 지금 모셔 있는 곳으로 가서 모시기 시작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물론,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이웃마을 아낙네들까지도 그곳에 가서 빌기만 하면, 자식을 보게 된다고 믿는 기자석이 되었다.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 안용인(남•) 제보.

朝天面篇

Ⅰ. 自然傳說

1.연북정(戀北亭)(Ⅰ)

조천리(朝天面 朝天里) 바닷가에 연북정(戀北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정자는 가경(嘉慶)25(순조 20)년에 지은 것으로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연북정」이라 이름하였다.

이 정자 자리는 본래 바다여서 「조천석(朝天石)」이라는 바위가 하나 있었을 뿐이었다. 이 바위 위를 돌과 흙으로 메워서 정자를 지은 것이다.

정자를 지은 후 얼마 안 되어 육지에서 어떤 지관(地官)이 왔다. 조천에 이르러 만세동산(조천리에 있는 언덕으로 3•1운동 때 맨 처음 만세를 불렀던 곳)에 올라 바닷가의 연북정쪽을 보더니,

"저쪽에 바위가 하나 있을 터인데 이상하다."

고 했다.

"예, 조천석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메우고 연북정을 지었읍니다."

"그러면 그렇지. 칠성(七星)의 마지막 별이 저기 가서 떨어진 것이요."

내용인 즉, 함덕리(朝天面 咸德里) 쪽으로부터 언덕 위의 큰 바위가 띄엄띄엄 조천 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만세동산이 여섯 번째요, 마지막 일곱번째가 연북정자리의 조천석이라는 것이다. 이 바윗돌이 바로 일곱 개의 별들로서, 그 마지막 별자리에 정기가 온통 모여져 있으니, 연북정 같은 큰 정자를 지을 자리가 된 것이라는 말이다.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김돈환(남•) 제보.

연북정(戀北亭)(Ⅱ)

조천리의 옛 이름은 조천관(朝天館)이었다. 조천관은 부산•인천과 더불어 우리 나라 3관(三館) 중의 하나로서 제주목(濟州牧)의 출입 항구였다.

이 선창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조천석(朝天石)이다. 조천관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바위에다 닻줄을 걸어 배들을 매곤 하였다.

어느 해엔가, 중국에서 유명한 지관이 와서 이 바위를 보고,

"저 바위를 보이지 않게 감추시오. 만일 감추지 않으면 조천에는 불량한 사람이 많이 나서 이민(里民)이 못 살게 될 것이요. 감추며는 인물이 끊이지 않겠소."

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조천면 관내 9개 리(里)의 백성을 부역시켜 성을 쌓는 동시에, 이 조천석을 흙으로 덮어 메워 둥글게 높이 쌓아 올렸다. 여기에 정자를 지어 '쌍벽정'(雙碧亭)이라 했다가 연군(戀君)의 의미를 붙여 연북정이라 고쳤다.

그 후로 조천에는 삼대문학(三代文學:安小柏•浮海•堯讚)이 나고, 현감(縣監)•군수(郡守)가 수다히 배출되었고, 명월만호(明月萬戶)만도 18이나 나왔다.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김병화(남•85) 제보.

2. 강초관물

신촌리(朝天面 新村里) 동수동(東水洞) 입구에 '강초관물'이라는 샘이 있다. 이 샘물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6백 년 전에 솟아 오르기 시작한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물이 없고 돌 무더기의 벌판이었다는 것이다.

약 6백년 전, 신촌리에 강 초관(姜哨官)이라는 이가 살았었다. 조상의 상(喪)을 당하여 이름 있는 지관(地官)을 청해 구산(求山)을 다녔다.

지관은 며칠을 두고 들판을 누비며 다니다가 혈(穴) 자리를 하나 찾았다. 여기가 바로 지금 샘물이 있는 곳이다.

지관은 정자리를 골라 '여기다 광(壙)을 파고 장사지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선 '광을 팔 때 돌이 박히더라도 그 돌을 파 내지 말고 얕게 묻어야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장삿날이 돌아와 일꾼들은 광중을 파기 시작했다. 상제인 강 초관은 일이 분잡한지라 광 파는 것을 지켜 볼 수가 없었다. 광중을 얼마간 파니 돌이 박혔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일꾼들은 광중이 너무 얕으므로 박힌 돌을 파내기 시작했다. 돌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흔들

리었다. 일꾼들이 돌을 파 올리는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 푸두둥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바라보니 뒤이어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비둘기는 그 용맥의 정기였던 것이다. 정기(精氣)가 날아가 버렸으니, 이젠 장사지낼 의미가 엇어진 것이다. 장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여기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나 지금의 못이 되었다. 그 때 이 곳에 묘를 쓰려던 사람이 강 초관이었으므로, 그 샘물 이름을 '강초관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홍순규(남•) 제보.

Ⅱ. 歷史傳說

1.ᄃᆞ리 송천총과 심돌 부대각

ᄃᆞ리(朝天面 橋來里)에 송천총(宋千摠)이라는 힘쎈 사람이 살고 있었다. ᄃᆞ리는 예로부터 사냥을 잘하는 산촌이어서, 송천총도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잘 다녔다.

어느 날 산중을 다니다가 숫사슴 두 놈이 '찔래'(魚逐)를 하는 곳에 마주쳤다. 서로 이기려고 안간힘을 다 내어 머리를 밀고 있는 판이라, 가까이 사냥꾼이 온 것도 몰랐다. 송천총은 미소를 띠며 아들더러 '얼른 가서 저 사슴을 잡으라'고 했다. 아들은 달려가서 양쪽 사슴의 뿔을 두 손으로 폭 잡고 옆으로 젖혔다. 그제야 사슴은 정신이 들어서 사람이 뿔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각각 뒷걸음질쳐서 내달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은 팔힘을 다 내어 당기려고 했으나 기진맥진했다.

"아이고, 아버님.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까짓 것에 가슴 찢어질 게 뭐이냐?"

송 천총은 중얼대며 두 사슴의 뿔을 잡고 '찔레(魚逐)해라! 찔레해라!…'하며 사슴의 머리를 당겨다 몇 번이고 마주 부딪쳐 놓았다. 사슴은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래서 사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한다.

송 천총의 힘이 세다는 말이 심돌(城山邑 始興里) 부 대각 귀에 들어왔다. 부 대각은 세상이 다 아는 장사였다. ᄃᆞ리(橋來里) 송 천총이 세다니 얼마나 센가? 부 대각은 한 번 그 힘과 겨루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날 부 대각은 ᄃᆞ리로 향해 출발했다. 첫길이라 길을 모르므로 산을 보며 방향을 잡

아 들판을 가로 질러 갔다. 동리 아래쪽 '방애오름굴왓'(田)이라는 띠밭에 이르렀다. 거기엔 어떤 사나이가 칡을 걷고 있었다.

"여보, 어디 사오?"

칡 걷는 사나이가 물었다.

"나 저기 동촌 심돌(始興里)에 사오."

"그러면 바른 길로 갈 것이지 외방(外方) 나온 사람이 지름길은 왜?"

"길은 모르고 저 동네만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오."

"심돌 부 대각이 세다던데, 자네가 그 동네 사람인가?"

"음, 당신은 누구요."

"나, 드리(橋來里) 사는 송 천총이라."

칡 걷는 사나이가 부 대각이었다. 마침 잘 만난 것이다. 둘이는 그 띠밭에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황혼이 내려 깔릴 때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내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부 대각은 송 천총네 집에 인도되어 밤을 지냈다. 물론 막걸리(탁배기) 대접이 융숭했다. 날이 밝자, 다시 그 띠밭에 돌아와 씨름은 계속되었다.

날이 어두웠다. 사흘 동안을 꼬박 씨름을 계속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두 사람은 씨름을 그만 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북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 77) 제보.

2. 열녀 국지(烈女 國只)

열녀 국지는 신촌리(朝天面 新村里)에 살던 처녀였다.

국지는 어느 날 한길가의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때마침 어떤 미남인 고관이 길을 지나다가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했다. 그 고관은 제주목사라 하기도 한다.

처녀 국지는 순간 이 고관의 남자다움에 마음이 끌렸다. 국지는 곧 얼굴을 붉히며 바가지에 물을 떠 버드나무 잎을 훑어 놓아 고관에게 올렸다.

"얼굴은 예쁜 처녀가 어찌 마음씨는 곱지 못하냐, 버드나무 잎은 왜 띄우느냐?"

책망하듯 고관이 말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 길을 행차하시니 갈증이 나신 것 같은데, 물에 체한 데에는 약도 없는 법이옵니다."

고관은 처녀의 정성이 가상(嘉賞)스러웠다.

"거, 그럴 듯한 말이다. 네 정성이 지극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며 처녀의 손을 꼭 잡아 주고는 훌훌 지나가 버렸다.

처녀는 사모(思慕)의 정에 정신이 몽롱해 버렸다. 그로부터 국지는 명주로 손을 싸서 일생 동안 풀지 않고, 그 이름도 모르는 고관을 그리워하며 홀로 일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 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열녀비(烈女碑)가 내려졌다 한다. 그 열녀비는 신촌리에 있다.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홍순규(남•) 제보.

* 현재 신촌리에 세워져 있는 열녀비에는 위와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비문(碑文)은 다음과 같다.

烈女私碑國只之門

私碑國只品官洪質之妾 靑年喪夫人 貪財色以豪勢劫之者多 國只棄其産業移居 夫黨之家終身守節

旌門載在耽羅誌

開國五百三十七年戊辰冬

新村里 改建

3. 신촌 김댁 효부

신촌리(朝天面 新村里) 김씨 댁에 며느리가 홀로 살고 있었다. 지금 그 현손(玄孫)이 살고 있다.

며느리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여든 살이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다. 시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

김씨네 집은 비록 초가집이었지만, 마을에서는 꽤 크고 정결한 편이어서, 외부의 손님이 마을에 오면 의례 이 집에 안내되었다.

어느 날 암행어사가 이 마을에 왔다. 아무도 암행어사인 줄은 몰랐다. 육지 손님이 지나다 들렀는가 하고 마을 유지들은 이 김씨 집에 안내했다. 어사는 혼자 사랑방에 머물렀다.

어사는 사랑방에서 누웠다 앉았다 하며 집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밤이 깊어가자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참기름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일어나 바깥에 나왔다. 시어머니는 곧 이 기름 항아리를 발견했다.

"사랑에 손님도 들었는데, 요강을 보기 싫게 놓아 두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기름 항아리를 들어다 오줌통에 부어 버렸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시어머니는 기름 항아리를 요강인 줄 안 것이다.

어사는 '아차!'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집에 날이 밝으면 기필코 싸움이 일어나려니 생각했다.

조금 있더니 며느리가 일어났다. 시어머니 방 앞을 보더니,

"아이고, 어머님. 여기 기름 빤 것을 놓아 뒀는데, 어데, 어데 두셨읍니까."

"아! 그거 무슨 말이니! 오줌 요강이 있길래 저리로 가져다가 비워 버렸지."

"예. 저가 그만 늦잠자는 바람에 잘못했읍니다. 일찍 일어나서 잘 놓아 뒀다면 그리 않았을 것을……."

며느리가 야단을 지르며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싸움은 커녕 도리어 미안해 하고 사과하며 시어머니를 받드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어사는 올라가, 이 며느리를 효부로 봉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그때 손님이 암행어사인 줄 알았다 한다.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홍순규(남·) 제보.

Ⅲ. 信仰傳說

1.눈미 불돗당

옥황상제 막내딸아기가 부모 말씀을 거역했다. 상제가 크게 노하여 곧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호령했다.

옥황상제 막내딸 아기는 줄을 타고 '눈미'(朝天面 臥山里)의 당오름(峰) 꼭대기에 내려와 큰 바위가 되어 좌정했다.

그때 와산(臥山里)의 어떤 사람이 사십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허허탄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중이 보시(布施)를 받으러 왔다. 그는 중에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는가, 육갑(六甲)이나 짚어 보라'고 부탁했다. 중은 '홀연히 나타난 큰 바위를 찾아 정성을 올리면 자식을 얻으리라'고 했다.

부인은 그날부터 홀연히 나타난 큰 바위를 찾아 돌아다녔다. 당오름 꼭대기에 난 데 없이 큰 바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부인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차리고 바위를 찾아 제를 지냈다. 그후 얼마 없어 태기가 있었다.

해산달이 가까워서 부인은 다시 이 바위에 제를 지내려 올라갔다. 무거운 몸이라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데는 힘이 겨웠다. 무거운 다리를 이끌며 산 중턱쯤 올라가 쉬면서 부인이 신(神)에게 축원을 드렸다.

"저 산 위에 계신 조상님이여, 영급(靈及)이 있거든 요만큼에나 와서 좌정하십시오."

라 축수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를 지내고 돌아왔다.

부인은 그후 얼마 없어 생남을 했다. 하도 기쁘고 고마운 김에 또 제물을 차려서 치사(致謝)하러 나갔다. 가다가 보니, 산 중턱에서 먼저 축수를 올렸던 곳에 그 바위가 내려와 좌정해 있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퍽 수월했다. 거기서 제를 지내고,

"이왕이면 더 평평한 데로 내려와 좌정하시면 일만 자손이 조상님으로 위하겠읍니다."

이렇게 축원을 올리고 내려왔다. 뒷날 다시 가 보았더니, 바위는 마을 가까이 '고장남밧'(田) 만년 팽나무 아래로 내려와 좌정해 있었다. 그후, 3월13일을 대제일(大祭日)로 하여 모든 백성들이 정성을 올리게 되었고, 정성을 드리면 자식을 점지해 주고 키워 주는 신이 되었다.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고명선(여 ·) 제보

2. 서물한집

함덕리(朝天面 咸德里) 하동(알카름)에는 '서물한집'이라고 불리는 신당(神堂)이 있다. <서물>은 음력 초하루와 스무엿샛날의 조수(潮水)를 두고 하는 말이고, <한집>은 당신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한 김씨 영감이 해 볼 일은 없고 해서 멧목(테위)을 타고 음력 3월 서물날(1, 26일) 고기를 낚으러 바다로 갔다. 그 날은 이상하게도 낚싯줄을 물에 담그기만 하면, 은진미륵(恩津彌勒)같은 돌덩이만 올라왔다. 기어코 고기를 낚기 위하여 자리를 세 번이나 옮겨도 그 돌덩이만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고? 오늘은 고기는 안 물고 대신 세 번이나 던져 버렸던 돌덩이만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니 이상한 일이로구나!'

김씨 영간은 낚싯줄에 올라온 돌을 놓고 아무리 살펴봐도 은진미륵 같은 돌덩이였다. 고기도 안 물고 해서 지루하다는 생각에 그만 깜박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 현몽하기를,

'나는 용왕황제국(龍王皇帝國) 무남독녀 외동딸이노라. 네가 나를 모셔다가 다달이 초사흘, 열 사흘, 스무 사흘 중 어떤 날에라도 나에게 봉제(奉祭)해 주면, 너희 집 자손들에게 벼슬길에나, 농삿일에나 모든 앞길을 바르게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마.'

번뜩 눈을 뜨니 꿈이었다.

김씨 영감은 고기낚시를 포기하고 뱃길을 집으로 돌렸다. 포구(浦口)에 배를 세워 둔 채 우선부인에게로 갔다.

"오늘은 빈 구덕만 들고 왔오."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럴 만한 일이 있네."

"어떤 일입니까?"

김씨 영감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부인에게 말했다.

"아니, 그 조상님(은진미륵)을 배에 놔 두고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옵니까? 어서 좌우청룡(左右靑龍)을 보십소서."

부인은 우선 곱게 한복으로 갈아입은 후, 남편과 함께 포구에 세워 둔 배 위로 올라가서 석상(石像)을 지금의 당집으로 모셔다가 큰절을 세 번 올렸다. 그리고는 현몽대로 매달 사흘이 되는 날마다 그 곳에 가서 제(祭)를 올렸다.

그런 후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기만 하면 만선이 되어 돌아왔고, 자손들도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마을 사람들도 이 곳에 와서 제를 올리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가자 모두들 신당(神堂)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자 서울 상시관(上試官)에서는 김씨 영감을 불러다 첨지(僉知) 벼슬을 주었고, 지금도 그 석상을 함덕리 주민들로부터 봉제받는 당신(堂神)으로 모셔지고 있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박인주(남 · 64)

3. 새콧당(고냥할망)

조천리(朝天面 朝天里) 포구 <코셍이모루>에는 '고냥(穴)할망'이라고 부르는 신(神)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사는 장(張)씨 선조가 상선에 화장(火匠)으로 일하면서 육지엘 갔다.

착실하게 봉급 받는 돈으로 옷감을 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것을 팔기 위하여 행상길에 나서곤 했다. 어느 날에는 대평리(安德面 大坪里)엘 들렀는데, 물동이(허벅)를 등에 지고 물길러 가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옷감이나 사시죠."

"살 마음은 있읍니다만 돈이 없군요."

"이것과 바꿀 물건도 없나요?"

"바꿀 만한 것은 있을 것 같읍니다만."

장씨는 아주머니 뒤를 따라가서 옷감 두 필과 우황(牛黃)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 와, 그

것을 갖고 다시 육지로 떠났다.

그때, 서울 관가(官家)의 외아들이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았다. 관가에 사는 점쟁이 꿈에 현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점쟁이는 지금 당장 아무 포구에 가서 장씨 선원이 갖고 있는 귀한 약을 가져다 먹여야 이 아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관원에게 일러바쳤다.

관원은 가마까지 내어놓으며, 하졸들에게 급히 명령을 하달했다.

"아무 포구엘 가서 장씨 선원을 어서 데려오도록 해라!"

장씨는 우황을 가지고 가마에 타서 관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가지고 간 우황을 관원의 외아들에게 먹이나 이튿날은 살아났다.

관원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너 덕분에 내 귀한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기쁘도다. 내 너에게 벼슬자리나 하나 내리고 싶은데, 어떤 벼슬자리를 원하는고?"

"동지(同知) 벼슬이면 족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마. 그래도 섭섭한 게 있거든 어서 말해라."

"예-. 지금 제주도에는 흉년이 막심하여 먹을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백성들이 많사온데, 군량미나 좀 주시오면 더 바랄 게 없나이다."

"오. 기특하도다. 내 그리 하마."

관원은 상선 아홉 척을 즉시 마련하도록 하달하고, 거기에다 쌀을 가득 실어 어서 제주로 떠나라고 했다.

장동지는 부푼 마음으로 배를 띄워 제주로 뱃머리를 돌렸다. 육지 바다를 지나 제주 바다 물마루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 밑창에 구멍이 생겨 침몰 위기에 이르고 말았다. 뱃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장동지는 어쩔 바를 몰라하다가 하늘을 향해 꿇어 앉아 손을 비비면서 하느님께 축수(祝壽)하기 시작했다.

'명천(明天)같은 하느님아, 지혜 같은 용왕(龍王)님아! 저는 아무 죄도 없읍니다. 해 볼 직업이라곤 없어서 화장(火匠)으로 육지엘 다니다가 옷감 두 필을 사고 우황과 바꾸고는 관가(官家)의 귀남동자(貴男童子)를 살려 준 덕분으로 동지 벼슬 얻고, 굶는 제주 백성들 살리기 위하여 쌀을 실어가는 죄밖에 없사옵니다. 제발 우리들을 살려 주옵소서…….'

축수가 떨어지자마자 산더미 같은 물이 밀려오는 듯했는데, 갑자기 커다란 뱀이 배 밑창에 터진 구멍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서는 맷방석 모양으로 둥그렇게 사려앉는 게 아닌가.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하던 배는 둥둥 뜨기 시작해서 무사히 조천 포구에 입항했다.

장동지는 집으로 달려갔다. 급히 세수를 하고 창옷을 갈아입은 후, 부인과 함께 포구로 뛰어가 배에다 발판을 얹어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뱀(蛇神)에게 고했다.

"우리들을 위한 神(祖上神)이거든, 이 발판으로 조심히 내려오십소서."

뱀은 발판 위를 밟아 내리고는 장동지 부부 뒤를 따라 집으로 갔다. 울안에 있는 대밭을 휘 돌아보고 나서는, 좌정(坐定)할 만한 곳이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포구 옆 '코셍이모루'에 있는 한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이 구멍에 좌정하겠노라. 너희는 물론 이 포구에서 나가는 선(船)이나 들어오는 선이나 나에게 상(床)을 바쳐야 한다."

그 후, 이 마을 장씨 집안에서는 선조의 목숨을 구해 준 뱀(蛇神)을 '고낭(穴) 할망'이라고 해서 집안을 수호해 주는 조상신(祖上神)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또한 조천 포구를 경유하는 모든 배의 선주(船主)들로부터 봉제(奉祭) 받으며 조천 포구를 차지한 신이 되었다.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정주병(남 · 73) 제보.

涯月邑篇

Ⅰ. 自然傳說

1. 쇠죽은 못(牛死池)(Ⅰ)

애월읍 하가리 동쪽으로 오백미터쯤 중산간 도로변에 <쇠죽은 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속칭 <쇠죽은 못>이라 하고 한자로는 우사지(牛死池)라 한다.

옛날 하가리에 일찍 남편을 여읜 과부가 살고 있었다. 혼자 밭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라 항상 일손이 모자랐다.

어느 해 농번기 때였다. 과부는 밭을 갈려고 일꾼을 빌러 마을로 나갔다. 농번기라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도 밭을 갈아 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과부는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직접 밭을 갈기로 했다.

갈아야할 밭은 상당히 넓어 서른 마지기는 충분히 되었다.

이튿날 일꾼을 빌지 못해서 화가 난 과부는 소를 몰고 쟁기를 지고는 일찍 밭으로 나갔다. 장정들도 하루에 갈기 힘든 밭을 쉬지 않고 어둡기 전에 전부 갈아 젖혔다.

아무리 건장한 여인이라도 이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다. 다 갈고 나니 과부도 소도 갈증이 대단히 심했다. 과부는 소를 몰고 연못으로 달려갔다. 어떻게나 갈증이 심했던지 숨도 안 쉬고 물을 마시던 소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 버렸고, 과부도 물을 먹다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후부터 그 못을 <쇠죽은 못>이라 부르게 되었고, 과부의 무덤은 못 옆 밭에 있는데 <골총>이 다 되었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임치선(남·67) 제보.

쇠죽은 못(牛死池)(Ⅱ)

옛날 애월면 하가리에 한 과부가 남편이 남겨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었다.

하루는 천여평되는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과부는 밭을 갈려고 일꾼을 빌었다. 과부는 일꾼을 불러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많이 먹고 일을 많이 하도록 권유했다.

"밥이 일합니다. 밥이 일합니다."

과부가 한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일꾼은 밥을 배불리 먹어야 기운을 내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힘은 세지만 좀 멍청한 장남(일꾼)은 과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었다.

과부는 점심도 많이 광주리에 담아 일꾼에게 주어 일하러 보냈다.

점심 때가 되어 과부는 일꾼이 얼마나 일을 했나 살펴보러 밭에 가보니 일꾼은 보이지 안고 쟁기에 밥이 담긴 광주리만 매달려 있었다.

이일을 어찌나, 밭은 조금도 갈지 않았으니 과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과부가 일꾼을 찾아 보니 나무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과부는 일꾼을 깨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소를 몰아 밭을 갈기 시작했다. 햇볕이 쏟아지는 더운 날씨에 조금도 쉬지 않고 해저물기 전까지 밭을 다 갈았다. 소도 과부도 쉬지않고 일을 한까닭에 아주 목이 바싹바싹 타올랐다. 과부는 급히 소를 몰고 길가 조그만 우물로 달려가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도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물을 마신던 과부가 고개를 들어 소를 살펴보니 소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 가는 것이었다. 달려가서 소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소가 매우 목말라 있다가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가리 동남쪽 중산간도로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우물을 소죽은 못(牛死池)라고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김계진(남·60) 제보

2. 연화못

애월읍 하가리 남쪽에 넓이가 3천7백평, 수심이 11척이나 되는 연화못이 있다.

하가리는 설촌되기 전 밭이 없는 산림지대였다. 고려 충렬왕 시절 육지에서 홍통구라는 도적이 들어와 지금의 연화못 지경 밀림지대에 집을 지어 살면서 도적질을 일삼았다. 인가에 들어 약탈을 할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건을 털기도 했다.

한 여인이 도적무리에게 잡혀가서 하녀일을 하며 살았다. 도적의 행패가 더욱 심해지고 여인 역시 모진 고통을 받았다.

이때 목사겸 판목사 이원황이 제주에 부임해 왔다.

여인이 납은 관청에 알리자 목사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도적 토벌을 하게 되었다. 이목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토벌에 임하자 도적들도 완강히 대항해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도적들이 패망하자 이 목사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집을 전부 불태워 버리고 집터를 파서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연화못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관청에 알린 여인은 관군과 도적들의 맞붙어 싸울 때 죽음을 당했다. 여인의 오빠가 아주 힘이 센 장사였는데 누님을 찾으러 갔을 때 누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사에게 보고하니 여인에게 <뚝>이란 직함을 내렸는데 <뚝>이란 직함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제주목에서는 <뚝>이란 직함을 받은 여인을 향교 제신으로 모셨다고도 한다.

연화못 가운데 육각정이 있다. 육각정을 지을 때 연못을 파다 보니 불타다남은 나무들이 많이 나왔다 한다.

조선 세종조에 이르러 마을이 설촌되자 연화못 주변에 돌과 흙을 쌓아서 음료수를 받는 우물로 만들었고 연꽃이 자생하자 연화지(蓮花池)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주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연화못이 경치가 좋고 연꽃이 곱다는 말을 듣고 구경 왔다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 양씨를 연꽃 지키는 간수로 임명하여 연꽃을 보호하도록 했다.

일제시대 도사(島司)의 병에 의해 송어, 초어(낙지), 자라, 미꾸라지 등을 기르게 했는데, 연(蓮)이 없어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구좌로 시집을 갔다고 해서 20여년동안이나 연(蓮)이 없다가 나중에 다시 심어 지금에까지 매해 꽃을 피우고 있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임치선(남·67) 제보.

3. 장지(長旨) 동산

애월읍 하가리 남쪽 연화못 옆에 장지동산이 있다. 속칭<쟁기리 동산><긴ᄆᆞ루>라고도 한다.

하가리의 옛 지명은 「가락(加樂)」이다. 가락이란 지명이 장지동산과 연화못(일명 하가리 입구에 있다고 해서 <구물>이라 한다)이 어우러져 생겼다고 한다.

하가리에는 오릉(五陵)이 있는데 고내봉밑, 학교앞 <벵겟동산>, 학교 동쪽 <장지동산>, <제석동산>이 바로 그것이다. 오릉중에서 <장지동산>릉과 학교 동쪽능이 한라산쪽으로 뻗어나가며 서로 얽혀 힘 력(力)자 모양이 되어있다. 또 장지동산 옆에 <구물>(연화못)이 있어 힘력자(力)와 <구물>(口池)의 입구(口)를 합치면 가(加) 자가 되고 오릉이 거문고 줄처럼 되어 있어 악기를 뜻하는 락(樂)이 쓰였다.

이렇게 해서 가락(加樂)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는데, 오등중 장지동산 능만이 생기(生氣)이고 나머지는 사기(死氣)라 한다.

그래서 장지동산이 하가리의 중심맥으로 생기(生氣)가 뻗어나오면 마을이 번창한다 해서 장지동산에 곰솔을 심었으나 대부분이 죽고 몇 그루만 거목이 되어 있다.

장지동산에 있는 정자는 구두쇠로 소문난 고평윤(高平允) 할아버지가 재물을 회사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임치선(남·67) 제보.

4. 고성 선돌

애월읍 고성리 마을 동서남북 사방에는 선돌이 있다.

이것은 제주도 사해(四海)에 우양호사(牛揚虎獅)(牛~牛島, 揚~飛陽島, 虎~범섬, 獅~사자섬)가 있어서 제주도를 대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다.

고성 동부락 입구에는 <아기벤돌> 또는 <임신석>이라 불리는 선돌이 있고 서쪽에는 지금 돌하르방 세운 위쪽 동산에 큰선돌과 작은 선돌이 있다. 마을 남쪽에는 오름 앞에 <왕석>이 있고 북쪽에도 선돌이 있다.

이 선돌을 장군석이라고 칭하는데 동쪽이 청계장군, 서쪽이 백계장군, 남쪽이 적계장군, 북쪽이 흑계장군이 바로 그것이다. 장군석이 마을 사방에 서 있어서 고성리는 경신년 호열자와 병술년 전염병의 전염을 피할 수 있었다 한다.

이때 주변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고성리에서는 피해자가 없었다.

한 김통정 귀신이 선돌에 붙어 있어서 전염병을 막는다고 한다.

몇년전 길 확장시 동쪽 입구에 있는 선돌을 파포(破砲)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사장을 해서 파괴되지 않고 지금도 도로변에 남아 있는데 파포하려던 구멍이 선돌에 그대로 남아 있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 제보.

Ⅱ. 歷史傳說

1. 납읍 진ᄉᆞ펭이와 여우

옛날 광령마을(애월읍 광령리)이 설촌이 되기 전이다. 그 마을 '폭낭굴'(팽나무굴)에는 분명 여우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여우는 밤만 되면 굴 밖으로 나와 어지르

기도 했다 한다.

바로 그 때, 납읍마을(애월읍 납읍리)에는 진스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장의(掌議)벼슬을 지내면서 성안(제주목)에 있는 향교에도 출입이 잦았었다. 진스펭은 어느 날 향교에서 번(當番)을 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날은 아버님의 제삿날이었다. 제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낭굴 앞을 지나야만 할 판이었다.

제를 올릴 시간은 다되어가고, 하는수 없이 말을 타고 가기로 작심했다. 이내 곧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고 앉아서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폭낭굴 앞에 당도할 즈음이었다. 얼굴이 어여쁜 처녀 하나가 대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진스펭은 이게 여우일 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어제 가시는 길이옵니까?"

처녀는 공손히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저 납읍에 가노라."

"같이 동행하는게 어떻겠읍니까?"

"좋다. 그러면 내 뒤에 타거라."

처녀는 말안장에 올라 진스펭이 바로 뒤에 걸터 앉는 것이었다. 처녀가 앉자마자 진스펭은 도포 끈을 풀어 그 처녀가 자기 등 뒤로 딱 붙게끔 틀어 묶어가는 판이었다. 처녀는 당황하는 듯이,

"아, 이렇게 묶지 마세요."

"아, 여자가 말 타 보지도 안했을 텐데, 그러다가 도중에서 떨어져 죽게 되면 어쩔려고…"

진스펭은 그의 고집대로 말 고삐를 당겨 계속 달렸다. 거의 마을이 가까워갈 즈음이었다, 동네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였다.

"선비님, 이 도포 끈을 풀어 주십시오. 소피를 봐야겠읍니다."

"음, 점잖은 처녀가 길가에서 소피를 보겠다는 말이 그게 뭔 말인가. 좀 참지."

진스펭은 처녀의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이 대문을 열어라."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제도 끝난 모양이었다. 그러나 개만 나오게 된다면 이 처녀의 정체는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처녀는 갑자기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며 몸부림치는 바람에 도포 끈이 끊어지며 내빼는 것이었다.

그때야 머슴이 대문이 열기 위하여 대문으로 달려왔다.

"어찌 문을 열라고 외쳐도 열지 않느냐?"

"아, 방금 제사가 끝나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여우는 다시 행악을 저지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이튿날부터 사냥길에 나섰다. 오직 그 여우를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여우를 만났던 광령 들판을 헤매다녀도 여우는 보이질 않았다.

벌써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들길을 헤매어 다닌지도 열흘 째되는 날 밤이었다. 뭐 무당들이 기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계속 그 소리를 좇았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여우가 살고 있다고 소문이난 폭낭굴에서 나는 소리였다. 굴 속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가고 보니, 삵괭이는 뱀을 목에다 걸고 앉았고, 여우는 어데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다 상에 당유자와 같이 올려 기도하고 있었다. 여우가 기원조로 노래해 가면서, 삵괭이는 '궁궁'하며 울음소리를 냈고, 족제비는 '짝짝'거리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여우의 기원조 노래에 맞춰 장단치고 있는 것이었다.

아야 귀여 당나귀여
누가 베인 귀냐.
납읍의 진ᄉᆞ펭이 베인 귀여.
진ᄉᆞ펭이 원수풀이 하여 주십서

아야 귀여 당나귀여
누가 베인 귀냐.
납읍의 진ᄉᆞ펭이 베인 귀여.
진ᄉᆞ펭이 원수풀이 하여 주십서.

제법 진ᄉᆞ펭이가 죽기를 기원하는 소리는 장단에 맞춰 은은하게 들려 왔다. 바로 이 때를 놓칠세라 진ᄉᆞ펭은 여우의 뒷통수를 맞춰 조준하기 시작했다. 숨을 죽여 방아쇠를 놓으니, 여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고, 삵괭이와 족제비는 궁궁 짝짝 궁궁 짝짝 소리를 내며 어데론가 도망쳐 버렸다.

제주시 노형동 광평부락, 양형희(남·60) 제보.

2. 김통정 장군

김통정 장군은 700여년전 고려말 궁지에 몰린 삼별초 일파를 인솔하여 진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성산포로 해서 성산 고성리에 가보니 지리적으로 불리했다. 김

통정 휘하에 있는 지리학자들이 항파두리가 분지를 이루고 있고 사방이 개천으로 둘러쌓였으니 지리적으로 싸움이 유리하다 해서 옮겨 왔던 것이라 한다.

김통정은 도민들을 동원하여 토성(土城)을 쌓았다.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쌓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고 또한 흉년이 들어 일하던 역군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한다. 그래서 역군들이 인분(人糞)도 다투며 먹었다는 말이 전해 온다.

김통정은 성을 완공하고 나서 2년만에 김방경 장군에게 패망했다.

김방경 장군이 고려군을 거느리고 추자도를 거쳐 관탈섬쪽으로 김통정을 잡으러 나타나면 토성옆 망일이동산(망보았던 오름)에서 정세를 살핀 후 연막전술을 폈다. 제주도민에게 재(灰)를 공출시켜 토성위를 뱅 돌아가며 뿌리고는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질을 가해 성위를 달렸다. 김방경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접근을 했으나 안개처럼 일어난 재먼지로 사방을 분간할 수 없어 후퇴하곤 했다.

하루는 김방경 장군이 새로운 전략을 짜고 대병력을 동원해서 화북포구와 한림항으로 들어와 협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전세의 불리를 느낀 김통정은 성안으로 후퇴해서 성문을 닫아 버렸다. 이때 성급히 후퇴를 서두르는 바람에 아기업저지 한 사람이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 입구까지 진격해서 입성을 기도했으나 침공할 방도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기업저지가 옆에 있닥 침공할 방도를 말해 줬다.

"두 일뤠 열나흘만 불미질 해봅서."

이말을 들은 김방경 장군이 부하들을 시켜 보름동안 계속 풀무질을 하니 쇠로만든 성문이 녹아떨어졌다. 이때부터 <아기업개(아기업지지)말도 들으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성문이 무너지고 고려군사들이 쳐들어 오자 위험을 느낀 김통정 장군은 쇠방석을 비양도 앞바다로 던졌다. 쇠방석이 바다 위에 뜨자 김통정은 날개를 벌려 날아가 쇠방석위에 앉았다.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혀 있어서 칼로는 죽일 수가 없었다. 또한 김방경 장군 역시 도술이 능한 장군이었다. 모기로 변해서 김통정 장군에게 날아가서는 얼굴 주변을 돌며 앵앵 거렸다. 김통정 장군이 이거 웬 모기인가 하고 고개를 들 때 비늘이 거슬리어 틈새가 생기자 바늘로 목을 찔러 죽였다.

고성리 흙붉은 오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하다. 김통정 장군이 멸망해서 죽을 상황에 처하자 애첩과 딸이 적군에게 잡혀 죽을 바에는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칼로 무참히 찔러 죽이니 선혈이 벌겋게 흘러 내려 주변 흙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흙붉은 오름이란 지명이 생겼고 지금도 때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흙이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

김통정 장군은 토성을 탈출하면서 "제주도민을 고생시켰으니 물이라도 먹고 살아라." 하

며 홰(가죽으로 만든 신발)를 신은 발로 암반을 밟고 떠났다. 바위에 발자국이 패이고 그곳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나왔는데 이 샘물을 장수물이라고 한다. 홰 신은 발로 밟았다해서 「횃부리」 「횃자국물」이라고도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강정(남·61) 제보.

3. 갈구미(渴玖梶)

갈구미(渴玖梶)라는 여인이 토성밖에 살며 수절을 지켰다.

갈구미 여인은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와 함께 항파두리로 들어왔다. 정절을 지켜 삼별초와 함께 살지 않고 토성에서 좀 떨어진 굴형에서 혼자 살았다.

김통정 장군이 혼자 수절을 지키며 사는 김여인의 형편을 보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려면 식량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김통정은 횃부리로 바위를 밟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샘물이 바로 <횃부리><빌레물><장수물>이라고도 한다.

여인은 혼자 살다 보니 몸도 수척하고 얼마없어 자신이 죽게될 것을 알았다.

내가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죽은 후 시체를 까마귀 입에나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게 자그만 소망이었다.

갈구미 여인에게는 자신의 시체를 땅에다 묻어 줄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땅에 묻힐 수 있는 궁리를 했다.

빌레물에 행기(물그릇)를 띄워두면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이상히 여겨 돌아보고는 시체가 있으면 묻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갈구미 여인은 마음 편히 정절을 지키며 혼자 살다 물에 행기를 띄우고 죽었다고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 제보.

4. 장사 최동의

최동의는 애월읍 고성리 양씨 집안의 종으로 매우 힘히 세었다. 밥을 한번 먹게 되면 두 말들이 솥으로 밥을 해도 다 먹어치웠다. 또 한번 밥을 배불리 먹으면 닷새 동안은 밥을 안먹고도 지냈다.

주인집에서 새로 집을 짓게 되었다.

옛날 제주도민들은 집을 짓게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흙을 실어다 주기도 하고, 집일

도 이틀씩이나 도와 주는 정도로 인심이 후했다.

주인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집 지을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갈 채비를 하는데 최동의는 조금도 갈 생각을 안했다.

주인이 걱정하면서 종 최동의에게 일꾼들과 함께 가서 나무를 베어올 것을 당부했다.

"주인님, 걱정 마십시오. 밥이나 배불리 먹여 주면 혼자 가서 해오겠읍니다."

하루는 주인이 일꾼 백여명이 먹을 만큼 밥을 해서 주자 최동의는 배불리 먹고 산에 가더니 이틀 동안에 집 한채 지을 나무를 해서 너넝줄로 얽어 매어 지고 돌아왔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강정(남·61) 제보.

5. 고성(古城) 고찬원 효자

애월읍 고성리에 고찬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노모만 모시고 사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를 업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밥, 죽등을 구걸하여 노모를 살렸다. 그런데 노모의 나이가 많고 병까지 겹쳐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찬원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병이 악화되자 고찬원은 노모 곁을 떠나지 않고 병간호를 계속했다.

고찬원이 노모 시봉하는 효행을 본 마을 사람들이 고찬원의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노모에게 저렇게 효성을 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찬원뿐이었다."

이런 소문이 차차 넓게 퍼지더니 드디어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목사는 고효자를 칭송하는 소문이 자자하니 얼마나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 섬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조사해 보고 싶었다.

진정 효자가 되어서 그런가 아닌가 살펴봐야겠다고 여긴 목사는 평복차림으로 몇 사람만 데리고 고성을 찾아 갔다.

마침 계절은 하절기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자 노모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고찬원 마당 그늘 아래 조그만 평상(平床)을 만들어 어머니를 눕히고 병간호를 했다. 매우 날씨가 무더워 고찬원은 노모 곁에 앉아서 부채질을 해 드리고 있었다.

이때 목사 일행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고찬원은 처음 보는 낯선 손님이라 이상히 여겨 슬쩍 부채질을 멈추고 평상에서 내려서서 손님을 맞이했다.

목사는 마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찬원의 거동만을 살폈던 것이다.

"어디서 찾아오신 손님입니까?"

제주 목사사 인사를 받고 말하기를 "너는 인효(人孝)는 되겠으나 천효(天孝)는 안되겠

다"고 했다.

손님이든지 목사가 오든지 그것에 신경씀이 없이 노모 위하는 마음만 지극히 했더라면 천효(天孝)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찬원이 인효(人孝)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손님이 오자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노모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목사는 성안으로 돌아가서는 곧바로 효자완문을 내려 인효(人孝)임을 천명했다. 고찬원 효자가 죽자 살던 집터에 마을 사람들이 물어 주고 <윗한질>에 효자비를 세웠는데, 몇년 전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장사를 지내며 헐어 버렸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 제보.

6. 여우재비 안영장

애월읍 신엄리 서쪽 일주도로변에서 하가리로 통하는 길목 지경을 <자운당>이라고 한다. 안영장이라는 사람이 자운당에서 여우귀신을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안영장의 본관은 순흥이며 이름은 세록으로 목사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다. 용기가 대담하고 학식을 겸비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갑신년 삼월에 제주 향교에서 용무를 마치고 하가리로 오던중 자운당에 이르렀을 때 말이 벌떡 놀라서 발버둥을 쳤다. 안영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하얀 옷을 단정히 차려 입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자정이 지난 한밤중인데 여인이 혼자인 것으로봐서 안영장은 여우임을 알아차렸다.

"영장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나는 하가로 가는 사람인데 어쩌해서 묻는고?"

"서촌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별을 듣고 문안가는 길입니다만 날이 어둡고 길은 멀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면 합니다."

"타십시오."

안영장은 여인의 흉계를 알면서도 허락을 하자 여인은 말 앞쪽에는 타려하지 않고, 뒤쪽에만 타려고 했다. 안영장은 앞에 탈 것을 고집했다.

"부인이 뒤에 타게 되면 말 달리기가 힘드니 앞에 타시오. 그렇게 앉으려면 타지 마시오."

안영장은 그냥 지나치려고 말을 몰고 걸음을 재촉하자 여인이 쫓아와서는

"앞에 타서라도 함께 가겠다"고 하며 순응을 했다.

안영장은 여인이 앞에 타자마자 무명으로 만든 말고삐로 여인을 묶은 후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는 청동개, 황동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안영장은 말고삐를 풀고 여인을 내려

놓고는 개를 불렀다.

"청동개야 황동개야 이놈 물어라."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여인을 물어뜯어 죽였는데 바로 여우였다. 드디어 안영장이 자운당에서 나타나는 여우귀신을 잡았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Ⅲ. 信仰傳說

1. 진거사와 여우혈

옛날 애월읍 금성리 '정지내'에 여우혈이 있었다. 금성 '정지내'를 따라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냇바위 안쪽에 김창호 조상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바로 여우혈이 있다.

그곳에 김창호 하르방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로 귀양온 진거사라는 양반이 제주를 행력하다 날이 저물 무렵 금성리에 이르렀다. 진거사는 날이 저물었고 피곤하자 김창호 하르방 집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내려고 주인을 불렀다.

"계십니까? 날씨도 험악하고 잘 곳이 없고 해서 부엌이라도 좋으니 오늘밤 좀 머물렀다 갈까 합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다시피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읍니다."

"이 집에 이른 것도 인연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갈 여유도 없고 날이 어두웠으니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마음 쓰지 마시고 누추한 집이지만 들어오십시오."

진거사 방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방이 방같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였다. 그냥 그럭저럭 밤을 지내면서 아들 관상을 보니 아주 빈복한 상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살펴 봐도 복덕을 타고 난 것이 아니라 걸인 중에서도 상걸인의 모습이었다.

초가집에서 유숙을 하며 진거사가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주인이 한숨을 쉬며 탄식을 했다.

"나 역시 가난하게 사는 데 내 자식이 역시 빈복하게 태어났으니 우리 집안이 패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좋은 수가 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으리다."

"집안 부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듣겠읍니다."

금성의 옛지명은 '과모실개'라 한다. 진거사는 과모실개 김씨 조상 집에 오기 전에 모실개(모슬포)에도 갔었다.

"내 모실개에 갔더니 그곳에 아주 유복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와 당신 아들을 결혼시키면 어떻겠읍니까?"

"여보시오. 손님. 내 사는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모실개 사는 처녀와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겠읍니까?"

"한가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읍니다."

김씨 조상은 지나는 길손의 그저 한 소리로 듣고는 마음에 유념하지 않고 그냥 흘려 버렸다.

"아무렇게나 하십서."

진거사는 곧바로 모실개로 내려가서는 그 처녀 부친을 만났다.

"과모실개를 가보니 아주 복많은 총각은 있었는데, 딸을 그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면 행복할 것입니다."

처녀 부친은 아쉬운 듯 이미 결혼 약속을 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말했다.

"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됐읍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억혼도 할 수 있을 것이니 내 친히 상객으로 신랑을 데리고 올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어떻게 잘 될 것입니다.

진거사는 처녀 부친에게 이런 말을 한 후 곧바로 말을 타고 과모실개로 돌아왔다. 김씨 조상에게 "내 말만 듣고 행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는 이튿날 아침에 일찍 신랑과 하인 한 사람을 말 태우고 모실개로 들어갔다. 과모실개 신랑이 신부집에 이미 들어가 앉았는데 또 다른 신랑이 들어왔다.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한 신부에 신랑이 둘이 들어왔으니,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거사는 다 예상했던 일이기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일어서서 해결책을 내놓았다.

"일이 이상히 되어 신랑 두 사람이 신부집에 당도했으니 좋은 방도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한 신부가 두 신랑에게 시집을 갈 수 없는 일이니 신부의 의사를 물어서 원하는 신랑과 혼사를 올리도록 합시다."

진거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신부는 전에 진거사로부터 과모실개 신랑이 복 좋은 총

각이라는 말을 들을 바 있어 과모실개 신랑과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결정되어 과모실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버리니 원래 혼사를 치르기로 한 신랑은 어이가 없는 노릇이고, 어찌할 수 없었다.

김씨 아들이 진거사의 묘안으로 억혼을 해서 살기 시작했으나 남들이 보기에 딱할 정도로 가난하여 체면이 없었다. 진거사가 생각해보니 신부를 데려올 때 복이 있는 총각이라 했는데 가난하게 살게 만들 수가 없었다. 김씨 하르방에게 집터를 정해 줄 터이니 기와집을 지으라고 말했다. 김씨 하르방은 이 말에 와들짝 놀랐다. 비새는 초가집에 사는 살림형편에 어떻게 기와집을 짓느냐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듣고 하면 됩니다. 어느 지경에 가서 땅을 파면 기와가 나올 것입니다."

김씨 하르방이 파보니 기와가 나왔다.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진거사는 집터 네 귀퉁이에 쇠꼬챙이를 박은 후 김씨 하르방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집이 완공될 때까지 이것을 빼지도 말고 더 깊이 박지도 말라."

예나 지금이나 목수들 중에는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집을 지으러 온 목수 한 한사람이 장난 삼아 주인이 없는 사이 한쪽 쇠꼬챙이를 더 깊이 박아 버렸다.

바로 쇠꼬챙이를 박은 곳은 여우혈이었다. 진거사가 쇠꼬챙이로 여우혈이 집이 지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알맞게 눌러 박아 놓았는데, 더 깊숙이 박았으니 여우등이 터지고 말았다. 집을 완공하고 쇠꼬챙이를 빼어보니 네 개중에 하나의 끝에 피가 벌겋게 묻어나왔다.

김씨 하르방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매우 놀랐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피묻은 것을 보고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입을 모았다.

이때 진거사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김씨 하르방이 피묻은 쇠꼬챙이를 진거사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고 말았읍니다."

"그렇게 됐느냐.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 한 사람 죽는 일이 있어야 집안이 발복하겠네."

이말을 들은 김씨 하르방은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삼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관포에 사는 한 사냥꾼이 사냥을 다니다 날이 저물고 해서 과모실개에 이르렀다. 섣달 그믐날이라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김씨 하르방이 사는 집에 찾아가 하룻밤 유숙할 것을 청했다.

"사냥하러 다니다 사정이 이렇게 난감한 지경에 이르러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기에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정이 그러시다니 유숙하십시오."

사냥꾼이 바깥채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 보니 밤은 깊어 자정이 넘었는데 도적이 들어와서 집 네귀에 홰를 묶어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었다. 사냥꾼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런 도적놈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 곁에 두었던 활을 꺼내어 활을 쏘자 지붕에 있던 도적놈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다.

사냥을 다니다 비록 도적놈이긴 하나 그만 사람을 죽였구나. 사냥꾼은 정신없이 주인에게 떠난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밤에 곧바로 판포로 달아났다. 사냥꾼이 집에 당도하여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는 짓을 했었다.

그런데 김씨 하르방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보니 여우가 죽어 있었다. 사냥꾼을 찾았으나 사냥꾼은 보이지 않았다. 김씨 하르방은 사냥꾼이 집안을 망치려는 여우를 죽여 두고 갔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냥꾼 덕분에 집안 망치려는 여우를 잡았으니 보답해야지. 김씨 하르방은 정월 초하루날 판포 사냥꾼 집을 찾아가 위안의 말을 했다.

"사람을 죽였는가 걱정을 허지 맙서. 그것은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우다."

이일이 있은 후부터 김씨 하르방 가문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翰林邑篇

Ⅰ. 自然傳說

1. 비양도(飛揚島)

한림읍 협재리 앞바다에 비양도란 섬이 떠있다.
비양도가 생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들이 있다.

○ 비양도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날아와서 생겼다 한다. 중국에 있는 한 오름이 어느날 갑자기 날아와서 지금의 위치에 들어 앉아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중국에 있던 그 오름이 없다고 한다.

날아 떨친 오름이라는 비양도는 오름이 갑자기 날아와 협재리 앞바다에 들어앉아 바닷속에 있던 모래가 넘쳐 올라서 협재리 해안가를 덮쳤다. 해안에 있는 집들이 모래에 덮혀 버렸던 것이다. 지금도 모래밑을 파다보면 사람뼈, 그릇들이 나오고, 아주 부드러운 밭흙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비양도 오름이 날아오다 잘못 왔다고 해서 확 돌아 앉으니 그만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비양도 오름이 돌아앉은 형체라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 하루는 곽지리에 사는 한 아기 밴 부인이 아침에 물을 길러 바닷가로 나가는데 섬이 곽지리 쪽으로 떠오고 있었다. 그 여인은 섬이 떠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큰 섬이 떠 왐져!"하고 외쳤다.

이 외침소리에 곽지리로 떠내려 오던 섬이 돌아나와서 서쪽으로 더 내려가 비양도 앞바다에 머물러 버렸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좌수선(남·89) 제보.

2. 호종단

옛날 사람들이 고종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종단이를 잘못 부르는 것이다.
호종단이 중국에서 천문점으로 알았던지 제주도에 물혈을 뜨러 와서 다니다 지장새미에 이르렀다.

호종단이는 물혈을 잘 알아내는 개를 데리고 다녔다. 개는 지장새미로 가지 않고 지장새미 밑 밭가는 사람이 놓아둔 소 길마 밑에 가서 빙빙 돌아다녔다.

지장새미 물귀신은 혈을 뜨러 오는 것을 알고 소 길마 아래 숨어 있는 것이었다. 개는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물이 바로 지장새미인줄 이미 알고 물혈을 찾은 것이었다.

호종단은 밭가는 농부에게 지장새미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지장새미 어디 있읍니까?"

"저기 보이는 곳이 지장새미입니다. 어찌해서 여기 와서 그 샘을 찾읍니까?"

이 말을 들은 호종단은 지장새미에는 안 가고 정신없이 밭 가는 곳에 찾아온 멍청한 개라고 데리고 다니는 개를 때려 죽여 버렸다. 물혈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를 죽여 버렸으니 물혈을 더 이상 뜰 수가 없었다.

호종단이는 하는 수 없이 차귀를 거쳐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다 바다에서 죽었다. 호종단이가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고산 앞바다에 있는 섬을 차귀도(遮歸島)라고 부른다.

달구노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산의 조종은 곤륜산이요
강의 조종은 황하라.
.....
한라영산을 봐라보니
북쪽으로 도두봉이 있어
도인이 날듯하고
남쪽으로 봐라보니 범섬이 떠 있어
호인장군이 날듯하고
영실기암을 봐라보니 오백장군이 난열한데.
일대장군은 차귀도에 서서
호종단을 막아내었다.

영실기암에 있는 오백장군중 한 장군이 차귀도에 파견되어 호종단이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았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3. 명월천 팽나무

한림읍 명월리 마을안을 흐르는 명월천에는 아름드리 팽나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명월리 아랫 마을에 '돌물'이 있는데 이곳에도 큰 팽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다.

명월천의 팽나무는 사람들이 심어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을 설촌될 당시부터 있었다 한다. 오씨와 진씨가 먼저 들어와서 마을을 개척할 때 나무가 굉장히 울창했었다. 농지를 개간하고 집을 지으며 수많은 나무들을 벌채했는데 명월천의 나무는 보호하자고 해서 자르지 않았다고 한다.

명월리는 삼백년전에 설촌되기 시작해서 명월진으로 번성했다. 그런데 명월천이 마을 가운데를 지나는데 풍수지리에 의하면 바로 살수(殺水)라고 한다. 살수가 들면 마을에 큰 화재가 잇달아 일어난다는 전해 오는 말에 의해서 명월천 팽나무를 보호해서 살수를 막았다고 한다.

지금도 팽나무들이 명월천 양쪽에 울창하게 들어서 있고 그늘 밑에는 월대가 있는데, 옛날 양반들이 이곳에서 풍월을 즐겼다고 한다. 명월천 조금위로 올라가면 홍애라는 무지개다리가 팽나무 사이에 놓여져 있어 명월천 양쪽마을의 중요 교통로의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팽나무와 어울리어 명월천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4. 맹구드르(名拘野)

한림읍 귀덕리 공초왓 부근에 '맹구드르'가 있다. 이들의 이름은 개와 주인간에 얽힌 전설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개는 삼백 동물중에서 주인에게 충성잘하기를 첫째로 꼽는다.

하루는 개주인이 개를 데리고 넓은 들로 놀러 나갔다. 바람을 쐬며 술을 마시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해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주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개는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들에서 불이 일어나 주인에게로 타들어오는 것이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영리한 개였다.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인이 죽게 된 것을 안 개는 우물물로 달려가서 몸에 물을 적셔다 불을 끄기 시작해서 불이 꺼질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다.
주인이 잠에서 깨어 보니 주위는 모두 불타있었고 개역시 불을 끄다 타 죽어있었다.
아, 개가 나를 살렸구나.
개를 곱게 묻어줬는데 이 일로 해서 공초왓 일대를 맹구드르라고 불린다.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조용봉(남·) 제보.

5. 노승원(노승이드르)

한림읍 월림 북쪽에는 '망오름'이란 기생화산이 있다. 그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지는데 이를 '노승이드르'라 하기도 하고 '논싱이드르'라고도 한다. '노승이드르'는 한자어로 노승원(老僧苑)이라 한다.
망오름의 봉우리 부분에는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나무가 없어 꼭 삭발한 중(僧)의 모습으로 뵌다는 것이다. 또한 망오름 앞에는 작은 오름이 셋 있는데 일명 '시오름'이라 한다. 이 '시오름'은 세개의 잔대를 올린 형상으로 뵌다.
그러므로 망오름과 시오름이 어울린 형체가 중이 내려서서 잔대 올리고 절하는 모습이다. 잔 세개를 올리고 그 아래서 노승배불(老僧排佛)하는 형체라고 해서 망오름 앞 들을 노승원이라 하게 되고 지금에는 노승이드르라 부른다 한다.
망오름 근처에 절이 있었거나 노승(老僧)이 살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망오름과 시오름의 배열 형체로 말미암아 노승원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Ⅱ. 歷史傳說

1.월계 진좌수(Ⅰ)

월계 진좌수는 의술에 뛰어난 신인(神人)으로 한림읍 명월리와 옹포리 경계에 살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삼백이십년전에 태어난 명의로 어렸을 때 두모리에 있는 한문서당에 글공부를 다녔다.
서당으로 가는 도중 한림읍 금릉리 못 미친 곳에서 여우가 어여쁜 처녀로 둔갑해서는 진좌수를 유혹하는 것이었다. 진좌수는 처녀와 구슬놀이를 하다 서당에 가서 글공부하고는

돌아오곤 했다.

훈장이 하루는 제자인 진좌수를 불렀다.

"너 어디 병이 있느냐? 왜 얼굴에 핏기가 없어보이느냐? 그 이유를 말하렷다."

"다른 것은 없읍니다만 서당으로 오는 길에 금릉지경에 이르면 처녀가 나와서 놀다 가라고 합니다. 처녀와 놀 적에는 구슬을 입에 물었다 내 입으로 전해 주고 다시 처녀 입으로 전해 줍니다. 그 외에는 무슨 별 일이 없읍니다."

훈장은 이말을 듣기 전에 벌써 진좌수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

"너는 그 구슬에 위탁된 것이라, 그리 걱정하지 말고 내 말한 대로만 하라. 오늘도 그곳을 지나가면 여자가 놀다 가라고 할 터이니 같이 놀다가 구슬이 너의 입에 오거든 꿀꺽 삼켜 버려라. 그리고는 첫째 하늘을 보고 둘째 땅을 보고 셋째는 나를 생각하면 된다. 또 네가 구슬을 삼키면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인만치 귀중한 구슬을 잃게 되면 여우로 화해 가지고 너에게 덤벼들 것이다. 그때는 이 망치로 덤벼드는 여우를 때려 죽여라."

훈장이 말한대로 진좌수가 그곳을 지나게 되자 처녀가 나타나서 구슬희롱을 하길 청하는 것이었다. 진좌수는 함께 구슬장난을 하다 입에 구슬이 넘어오자 그만 삼켜 버렸다. 구슬을 잃게 되자 처녀는 곧바로 여우로 몸을 변해서 진좌수에게 달려들자 하늘과 땅을 볼 틈도없이 훈장님만을 생각하며 망치로 달려드는 여우를 때려죽였다.

이 일로 해서 진좌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인(神人)이 되어 사람만 봐도 몸속에 어떤 병이 있는가를 훤히 알게 되었다.

하루는 진좌수가 말을 타고 들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밭에 사람이 있어 살펴 보니 처녀인데 배가 몹시 불러 있었다.

그 처녀는 남자와 정을 통한 일이 없는데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불러오자 집에서는 부모들이 집안 망칠 년이라고 욕을 해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집안 형편도 부유하지 못하고한데 이런 일까지 당하고 보니 처녀는 죽지도 살지도 못할 처지기에 밭에 앉아서 김이나 매고 있는 것이었다.

진좌수가 말을 타고 지나면서 처녀의 배를 보니 임신한 것이 아니라 뱀이 가득 들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해산할 것같이 배가 불러 있어 곧 처녀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진좌수는 말에서 내리고 그 처녀를 불렀다.

"너 이리로 빨리 오라. 너 곧 사경(死境)에 이르렀으니 나에게 침을 맞아야 살 수 있겠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진좌수 양반에게로 갔다. 진좌수는 처녀를 눕히고 동침(銅針)을 꺼내어 배 가운데로 침을 놔주고는 주의를 주었다.

"너 지금 곧바로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대변을 보고 싶거든 대변을 보되 대변 본 것을

살피지 말고 그대로 곧장 집으로 들어가라."

진좌수는 처녀가 겁에 질릴 것을 염려해서 주의를 단단히 준 것이다.

처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좌수가 말한 대로 대변을 보고 싶었다. 침으로 배속에 있는 뱀의 머리를 찔러 죽였으니 어디 걸릴 것이 없이 밑으로 그냥 내려왔던 것이다. 대변을 보는데 처녀는 이상한 일이라, 왜 대변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 진좌수가 한 말을 생각하니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대변을 보고 난후 뒤를 살펴 보니 큰 뱀이 죽어 있었다. 처녀가 겁에 질려 집으로 달려가서 보니 태산만하던 배가 해산한 것처럼 꺼져 있었다.

처녀는 밭에서 부친이 돌아오자 자세한 사연을 알려드렸다.

"밭에 가서 김을 매는데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침을 한 대 맞고 뱀이 나오자 배가 이렇게 고르게 되었읍니다."

"아, 그러냐. 그놈의 뱀으로 인해 너와 집안 체면이 떨어질 뻔했구나."

처녀부친이 뱀을 한번 보겠다고 해서 대변본 것을 찾아가 보니 큰 뱀이 죽어 있었다. 노끈으로 뱀을 묶어서 나무에 매달았다. 이 뱀이 어떤 놈인가 해서 살펴보려고 썩어 문드러지도록 기다리고 나중에는 썩은 물이 흐른 후 살펴 보니 머리털에 보리방울 하나가 꿰어져 있었다. 바로 이것이 뱀으로 변해서 처녀를 곤궁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진좌수는 사람을 보고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곧 약이었다. 하루는 대정고을에서 한 부인이 진좌수를 찾아왔다.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 통 알 수가 없어 고심하다가 진좌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부인은 진좌수를 찾아오는 길에 소나무들이 우거진 산길에서 어떤 나쁜 불량배를 만났다. 들길에서 여자 혼자의 힘으로 불량배를 물리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원통한 일이지만 몸을 허락해 주고는 남편 병을 조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에 줄달음쳐서 진좌수댁에 이른 것이다.

진좌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귀신처럼 신통했다. 부인의 얼굴을 보자 마자 대뜸 처방을 내리는 것이었다.

"부인, 그냥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돌아가 보면 남편은 다 나아서 내 아내가 어디 가서 물 한그릇 안 떠다 준다고 찾고 있을 테니까. 남편은 고이 살게 되었으니 빨리 돌아가게."

부인은 이 진좌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의 병증세도 말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라고 하니 적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진좌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있어 약처방을 문의하러 왔는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할 수 있읍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 돌아가려면 돌아갈 것이지. 그리고 부인, 여기 오는 도중에 산길에서 어떤 남자에게 잡혀 몸허락을 했지."

부인은 아무도 모를 일인데 진좌수로부터 이말을 듣자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집으로 가다 그 사람을 찾아봐. 그 사람은 죽어 있을 테니까."

그 부인은 상부살(傷夫殺)의 기운을 지니고 있었다. 부인의 살기로 인해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범접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음을 모면하게 된 것이다. 여자는 상부살 또는 범방을 가지고 있기에 결혼할 때 사주팔자를 맞추어 보는 것이라 한다.

부인이 진좌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 보니 바로 몸을 빼앗긴 자리에 남자가 죽어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은 이미 병이 나아 부인은 어디 가서 먹고 싶은 물 한그릇 안 준다고 야단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상부살을 띤 여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함으로써 여자의 살기가 그 남자에게 옮아가 남자는 죽고, 남편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좌수는 자신이 죽은 뒤의 일까지 알고서 약방문을 지어뒀다 한다.

하루는 진좌수가 죽기 전에 약방문을 지어 궤 위에 놔두고는 아들을 불러 유언을 한 뒤 약방문에 대해 사실 이야기를 했다.

"궤 위에 약을 지어 뒀으니 약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꺼내 주어라."

진좌수가 죽고 하루는 어떤 사람이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약을 구하러 명월리 진좌수를 찾아왔다. 명월진에 들어가다 보니 진좌수는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좌수님께 약방문을 얻으러 오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나는 가야할 곳을 가고 있으니 걱정 말고 내집에 가보게. 미리 알고 벌써 약을 지어 뒀으니 내 아들이 약을 줄걸세."

진좌수는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이말만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약방문을 얻으러 온 사람이 진좌수 집에 가 보았더니 진좌수는 방금 돌아갔다는 것이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모여 한창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방문을 얻으러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사연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궤 위를 살펴보니 지은 약이 있어 꺼내줬다.

진좌수는 죽은 후의 일까지 미리 알고 저승으로 떠나면서도 약을 지어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진좌수는 말을 타고 저승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느 해에 제주에 부임한 목사가 챗병에 걸려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받았다. 주위 신하들이 명월진에 사는 진좌수가 명의로 챗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목사는 곧 월계 진좌수를 부르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좌수는 목사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도 없어 목사 챗병을 고치러 가기로 결심했다. 명월진에서 성안으로 들어갈 때 나막신을 신고 긴 담배통대를 입에 문 채 손은 뒷짐을 지고 관덕정 마당에 이르렀다.

목사는 진좌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관덕정에 앉아 어떤 거동으로 오는가를 살폈다. 주위에는 이방 형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성안에 이른 진좌수는 목사에게 나아가는데 허리를 굽히는 기색도 없이 손은 뒷짐을 지고 담뱃대를 문 채였다.

"건방진 놈, 아무리 명의라고 하지만 목사 앞에서 그 행동이 무엇이냐."

주위에 둘러선 신하들이 진좌수의 거동을 보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진좌수는 목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있자 목사도 분통이 터져 호통을 쳤다.

"병을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너같은 놈에게 내 병을 고치도록 맡길 수 없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목사는 호통을 치는 바람에 목에 걸렸던 채가 나오고 말았다. 금방 목사의 챗병이 나아버렸다.

그때야 진좌수가 목사앞에 엎드려 사정이야기를 했다.

"저가 어찌해서 목사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도를 안 지키겠읍니까. 목사님의 챗병을 고치려고 일부러 거만한 척 했으니 용서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좌수는 목사의 병을 손을 쓰거나 약씀이 없이 고친 것이다.

진좌수가 명의라는 소문이 중국에까지 널리 퍼졌다.

어느 해에 중국 황후가 병이 들었는데 고치는 사람이 없었다. 제주에 어떤 병이라도 모두 잘 고친다는 진좌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 중국황제는 조정을 통해서 진좌수를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사신을 명월진으로 보냈다.

진좌수는 당시 천첨(天占)을 잘 보는 문국성과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중국에서 자신을 데리러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들은 진좌수는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중국에 가서 황후의 병을 못고치는 날에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을지 모른다. 걱정이 태산같은 진좌수는 친구인 문국성에게 달려갔다.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게 되었네."

"아니, 무슨 일인가."

"이리저리해서 중국에서 나를 데리러 오는데 중국에 가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날에는 나

를 죽일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걱정말게"

문국성이 가만히 점괘를 벌려 점을 쳐보니 병의 원인이 제사상에 잘못한 동티로 드러났다.

"걱정할 것 하나 없네. 병이 동티로 해서 생겼네. 만약 사람들이 데리러 왔으면 가지 말고 이리저리한 동티니 제사상을 정성으로 차리도록 말해 주면 될걸세."

황후의 병이 동티로 생겨났고 중국에 사신을 따라 안가도 된다 하니 진좌수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중국에서 사신들이 진좌수를 데리러 명월진 진좌수집에 이르렀다.

"듣건대 당신의 의술이 뛰어나다 하니 중국 황후의 병을 고쳐줘야 하겠소. 우리와 함께 중국으로 떠납시다."

진좌수는 가만히 앉아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중국까지 가지 않아도 황후의 병만 나으면 되지 안겠읍니까. 조그마한 병을 고치러 먼거리까지 갔다올 수 없지 않겠나요."

"아니 무슨 방도가 있어 가지 않고 또 병증세를 보지도 않고서 병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황후의 병은 제사상을 불량하게 한 탓으로 생긴 동티입니다. 돌아가서 제사상을 청결히 해서 모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가지 않고도 중국 황후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

또 진좌수는 죽은 혼령이 되어서도 병을 고쳤다. 장사나 현인들의 묘에 가서 밤을 지세면 학질 같은 귀신병이 낫는다는 말이 전한다.

학질로 고생하는 어떤 사람이 진좌수 묘에 가서 하루밤 지내며 학질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진좌수 묘에 가려면 진좌수 후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었다. 진좌수 아들 집을 찾아가 병이 이렇게 악독하니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해서 승낙을 받았다.

밤이 되자 진좌수 묘를 찾아가 누비요를 덮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침이나 한 대 맞아라 하면서 침을 놓아 주는 것이었다. 침 맞은 자리가 뜨끔해서 깨어보니 바로 꿈이었다. 꿈속에 나타난 노인이 준 침을 맞고는 그냥 곧바로 학질병이 나았다.

또한 진좌수나 문국성 같이 신인(神人)들의 무덤에 세워진 동자석의 코를 깎아다 갈아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예부터 동자석의 코를 많이 쪼아갔다고도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월계 진좌수(Ⅱ)

월계 진좌수는 명월리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 글공부하러 다녔다.

하루 이틀 진좌수는 여위어가기 시작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은 제자들이 환경이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 알아 보아야 한다. 진좌수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계속 몸이 허약해지는 것이었다.

하루는 서당훈장선생이 진좌수를 불러 앉혔다.

"똑바로 사연을 말해라."

"제가 서당에 다니며 밤글, 낮글을 읽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침에 서당으로 올 때면 예쁜 색시가 구슬을 가지고 놀다 가라고 합니다."

"그 색시와 어떻게 노느냐?"

"예. 그 색시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제 입으로 건네주고 또 색시 입으로 건네주고 하며 놉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그 구슬을 삼켜버려라."

다음날 진좌수는 훈장이 말해 준대로 구슬을 삼켜 버리자 색시가 여우로 변해 달려들었다. 진좌수는 달려드는 여우를 피해 서당으로 달아나며 사람을 봤는데, 그때부터 명의가 되었다. 또한 서당에서도 의술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좌수에게 가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의술에 뛰어난 의술박사였다.

하루는 진좌수가 말을 타고 한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 어떤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갈 수가 없어 말에서 내려 그집을 찾아가 우는 사연을 물었다.

"왜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울고 있읍니까?"

"부인이 애기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진좌수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산모의 맥을 짚어 보았다. 죽었다는 산모의 혈맥이 따뜻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하며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는 눈치였다. 진좌수는 침통을 내려놓고 산모의 복부 한쪽에 침을 놓았다. 조금 후에 죽었다는 산모가 숨을 몰아쉬며 살아났고, 이내 애기를 순산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는 모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진좌수가 말을 타고 떠나가려하자 주인인 나와 그대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살려냈는가를 물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왼쪽 손으로 어미의 숨통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오."

진좌수는 이 한마디 말만 남기고 말을 타고 가버렸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조용봉(남·) 제보.

월계 진좌수(Ⅲ)

월계 진좌수는 명월 사람으로 여의주를 먹어서 명의가 되었다. 진좌수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곧 약이었다.

진좌수는 명월근방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서당에 글공부하러 다녔다.

진좌수는 병은 없었는데도 얼굴혈색이 없고 여위어만갔다. 이를 안 훈장이 사연을 물었다.

"너 어디 아픈 곳이 있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얼굴색이 좋지 않고 살이 빠졌느냐?"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서당으로 오고 가는 길에서 이상한 것을 본 일이 있느냐?"

"길에서 본 것은 없읍니다만 아무 골목에 이르면 고운 소녀가 구슬을 희롱하면서 부릅니다. 소녀는 구슬을 입에 물었다가 내입가에 와서 건네주면 내입에서 굴리다 소녀의 입으로 건네주곤 하며 함께 놀곤 합니다."

소녀는 바로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였다. 여유가 구슬을 가지고 소년에게 의탁해서 정기를 빼어 버리니 소년이 아프지는 않았으나 조금씩 여위었던 것이다.

훈장 선생이 이말을 듣고는 좋은 계책을 일러 주었다.

"내일은 그 소녀를 만나 구슬 희롱을 할 때 네 입으로 구슬을 건네주거든 그것을 삼켜 버려라. 그리고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차례로 쳐다봐라."

이튿날은 진좌수가 구슬 희롱을 하다가 구스을 삼켰으나 훈장이 말해준 대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차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병에 대해서는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명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장고남(남·88) 제보.

월계 진좌수(Ⅳ)

한림읍 명월진에 이름은 진국태요, 호는 월계(月溪)라는 좌수가 살고 있었다. 제주에서 의술을 자랑하는 명의라는 진좌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의술이 알려져 있었다.

월계 진좌수가 어렸을 때 판포리 서당에서 글공부를 했다. 명월에서 혼자 판포 서당까지

글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진좌수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서당에서 글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곱게 소복차림을 한 여인이 구슬희롱을 하면서 진좌수를 불렀다.

"이 구슬 예쁘지 않느냐? 너도 한번 봐라. 얼마나 예쁘냐?"

진좌수는 여인이 구슬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호기심에 같이 해보고 싶었다. 여인과 같이 하는 구슬 장난은 매우 재미있었다.

매일 서당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여인과 구슬 장난을 하는 재미를 붙혔다. 그 여인도 매일 진좌수를 기다리다 진좌수가 오면 구슬희롱을 함께 하곤 하였다.

매일 구슬 희롱에 정신이 팔린 진좌수는 때때로 서당에 늦게 가는 때가 많았다.

하루는 훈장 선생이 이 사실을 알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늦게 오는 사연을 캐물었다.

"너는 어떤 일로 전에 없이 서당에 늦게 오느냐?"

훈장의 질문에 진좌수는 상세히 사연을 말했다.

"예, 명월을 지나 '정월이밧'쪽에 오면 고운 여인이 나와서는 구슬 희롱을 하자 하면 같이 구슬 희롱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집니다."

"음, 알았다."

훈장은 진좌수의 사연을 다 듣고 난 후에 다음날 어떻게 할 계책을 자세히 일러 주었다.

"구슬 희롱을 할 때면 그 구슬을 삼켜라. 그리고는 처음에 하늘을, 다음에 땅을 보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펴봐라. 그리고 곧바로 뒤를 보지 말고 이 판포 서당으로 달려오라. 알겠지?"

이튿날 진좌수가 서당으로 가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인이 구슬을 희롱하면서 장난을 걸어왔다. 진좌수는 전에 했던 것처럼 구슬 희롱을 하다가 구슬을 꿀꺽 삼켜 버렸다. 구슬을 잃자 여인이 여우로 몸을 바꾸어 "내 구슬 달라"고 뒤에서 달려 들었다.

진좌수는 하늘과 땅을 살필 겨를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는 겁에 질린 채 판포 서당에 도착했다. 서당 훈장이 기다리다 진좌수가 달려오자 불러 세워서 물었다.

"어찌 했느냐?"

"아이고, 말도 마십서. 하늘도 땅도 볼 겨를 없이 여우가 달려드니 아 이렇게 도망쳐 왔수다(왔읍니다)."

"안 됐구나. 하늘과 땅을 모두 봤으면 상통천문 하달지리(上通天文, 下達地理) 할 것인데 사람만 봤으니 명의 밖에는 안 되겠다."

이일로 해서 진좌수는 명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진좌수가 사람을 보고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명약이었다. 여우의 여의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후손들이 전한다. 지금 명월

사는 후손들은 진좌수로부터 칠대손 정도 밖에는 안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이백오십년 전의 일이라 한다. 월계 진좌수는 명의이고 문국성은 하늘점을 잘 치는데 모두 제주의 현인들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월계 진좌수(Ⅴ)

한림읍 명월리에 월계 진좌수라는 신의(神醫)가 살았다.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진좌수는 명월리에서 과납(납읍)까지 서당에 걸어서 글공부하러 다녔다. 하루 이틀 다니는데 얼굴 혈색이 보통때와 달랐다. 훈장 선생이 이상히 여겨 진좌수를 불러 사연을 물었다.

"요즘 무슨 일을 당했기에 혈색이 안 좋으냐. 바른 대로 대답해라."

"오고가는 길에 고운 처녀랑 놀이를 하는 것뿐입니다."

"바른 대답이지?"

"예."

"처녀가 너에게 뭘 주느냐?"

"구슬을 줍니다."

"그러냐.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냐?"

"내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음. 그러냐, 그것은 여우귀신이 가지고 다니던 여의주라. 여의주 구슬을 주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내입에 물었다 뱉으라 하면 뱉읍니다."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여의주를 입에 물게 되거든. 재빨리 삼키고 먼저 하늘을, 다음에 땅, 사람순으로 봐라. 그러면 뭔가 얻는게 있을 것이다.

이튿날 진좌수는 역시 처녀를 만나 구슬놀이를 하게 되고 구슬을 입에 물게 되었다.

처녀가 이젠 진좌수입에 구슬을 내뱉으라 할 때 그만 삼켜버렸다. 처녀는 여의주를 잃게 되자 갑자기 여우로 변신하고는 달려들어 구슬을 뺏으려고 했다. 여우가 달려드는 바람에 하늘과 땅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훈장선생에게 달려갔다.

훈장 선생에게 사실얘길 하자 "그러냐 하늘과 땅까지 봤으면 천문거리까지 통달한 사람이 되었을텐데. 명의밖에는 안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월계 진좌수는 신통한 의술을 지닌 명의가 되었다. 명의라는 소문이 육지부까지 널리 퍼졌다.

하루는 육지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병명을 알 수 없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데 소문에 제주 월계 진좌수가 명의라는 말을 듣고 제주에 사는 진좌수를 찾아가보고 싶었다.

육지사람은 배를 타고 제주목에 들어와서 월계 진좌수를 찾으니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가시다니 안되었지만, 후손이라도 만나면 무슨 묘책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명월을 찾아 귀덕리까지 왔을 때 날은 덥고 피곤하여 좀 쉬었다 가려고 했다. 곁에 백발노인이 앉아서 쉬고 있기에 명월리 진좌수에 대해 물어 보았다.

"명월까지 몇리나 됩니까?"

"얼마 멀지 않네만 무엇하러 명월은 찾아가는가?"

"월계 진좌수를 만나 약방문을 얻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왔는데 돌아가셨다하니 그분 집에라도 들러보고자 합니다."

"내가 월계라."

곁에 앉은 백발노인이 바로 월계임을 밝히자 깜짝 놀랐다. 바로 월계의 혼령이 노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연을 듣고는 열쇠를 건네 주었다.

"내 바쁜 일 때문에 명월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이 열쇠를 줄 테니 집에 들러 책갑을 열어보면 병을 고칠 약이 있을 것이네."

육지사람이 진좌수 집을 찾아가보니 아들만이 있었다. 인사를 정중히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해서 열쇠를 얻었는데 책갑을 열어보면 병을 치료할 명약이 있다고 하니 굽어 살펴 봐 주십시오."

"그러하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혼령은 살아 있구나.

생각을 하며 열쇠를 받아 들고 책갑을 열고 보니 아닌게 아니라 약이 지어져 있었다.

진좌수는 죽은 후에도 이렇게 해서 몹쓸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줘서 살렸다 한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89) 제보.

2. 진좌수 며느리

월계 진좌수가 밤에 길을 걷다, 앞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할망이 활활 이쪽으로 걸어오

고 있었다.
"어디로 급히 가는 할머님입니까?"
"그러면 자네는 어디 가는 도령인가?"
"나는 그저 밤길 걷는 도령입니다만 할머님은 어디 가십니까?"
"난 태기를 주는 삼신할망으로 대정고을에는 아들을 점지하고 정의고을에는 백정놈이지만 딸을 점지하러 가는 중이니라."
대정고을 아들은 하루 띠 세 집치를 타고 났고 정의고을 딸은 하루 백미 세홉씩 타고 태어났다. 진좌수는 이말을 잊지 않고 명심했다가 아들을 백정놈의 딸집에 장가를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하루는 진좌수가 정의고을 백정집을 찾아가 허혼할 것을 청했다. 진좌수가 찾아가자 백정집에서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어른신님 어떻게 해서 여길 찾아오십디가?"
"딸 자식이 있다 하기에 며느리로 맞아드리려고 찾아왔네."
"좌수님. 혹시 실성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백정집 딸을 며느리로 맞아드리려 하자 진좌수 친족들은 신랑될 아들을 볼러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결혼을 하지 말도록 타일렀으나 진좌수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좌수 아들은 정의고을 백정딸과 혼사를 치르게 되었다.
백정집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후 얼마 없어 진좌수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잘되었다고 친족들과 아들은 며느리를 백정가문의 딸이라고 천시하여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내쫓김에 당한 며느리는 어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 물가에 앉아서 목숨을 끊을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다. 이때 길을 가던 도비상군이 이상히 여겨 사연을 물었다. 며느리는 "이리이리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럴 것 없다. 나하고 함께 가서 삽시다."
이렇게 해서 진좌수 며느리는 도비상군을 따라 산간 마을에 들어가서 밭을 일구며 사는데 농사가 잘되어 금새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 부인이 정의고을 백정가문에서 태어날때 큰 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자 부인은 옛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옛 남편은 가문이 망하게 되어 걸인행세를 하며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비록 나를 내쫓은 남편이지만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서글퍼졌다.
하루는 남편에게 잔치를 열어 걸인들을 대접합시다하고 간청하자 남편도 순순히 응락을 해주었다. 부인은 두 일레 열나흘동안 걸인잔치를 베풀어 전남편을 찾았으나 전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남편에게 주려고 옷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찾아오길 않으니 매우

걱정이 되었다.

걸이잔치 마지막 날이 되자 부인은 전남편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더욱 걱정이 되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전남편이 걸인차림으로 들어왔다. 심부름꾼을 불러 전남편을 안방으로 청하도록 했다.

"안방으로 청하라 하십니다."

전남편은 걸인인 자신을 안방으로 청하자 깜짝 놀라 청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고 또 안으로 초청받을 만한 인물도 못되는 사람이니 여기서라도 잔치대접을 받고 가겠읍니다."

심부름꾼이 손을 잡고 전남편을 안방으로 청해 갔다. 전남편은 진수성찬을 차려다 앞에 놓았으나 두려운 생각에 먹지 않았다. 전부인이 와서 앞에 앉고는 옛날 회포를 말하며 밥을 먹을 것을 청하자 그제야 전남편은 상을 비웠다. 부인은 전남편을 위해 만들어뒀던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하루밤을 지내었다.

이튿날 부인이 남편에게 걸인이된 전남편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하자 또한 순순히 응락을 해주었다.

"부인의 복으로 쌓은 재물이니 그렇게 하시오."

부인은 쌀창고, 밭벼창고 등등 여러 창고의 열쇠를 가져다 마당에 던지며 전남편에게 열쇠 하나를 집어오도록 했다. 열쇠에 맞는 창고의 재물을 모두 전남편에게 주려는 것이었다. 열쇠를 가져 왔는데 보니 첫번째 창고인 쌀창고 열쇠였다.

쌀창고 열쇠를 가져왔으니 할 수가 없구나. 쌀창고를 열어 쌀을 한짐 지워서 보내었다고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김진교(남·83) 제보.

3. 명창 박효자

한림읍 월림리에 박씨 효자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박당장이라 불렀는데, 원래 소리를 잘하는 명창이었다.

조정에서 임금이 승하하자 국상(國喪)이라 각도에 전령하기를 "각 도읍의 선소리꾼은 국상에 보내라"고 했다.

이에 박당장의 이름도 조정에 보고되어 제주도읍을 대표로 해서 국상에 참가하게 되었다. 박당장이 한양에 올라가 좋은 목소리로 선소리를 하자, 전국에서 올라온 선소리꾼들이 '명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석달 열흘만에야 국상이 모두 끝나게 되었다. 임금이 특별히 박당장에게 상을 내렸다.

선소리를 잘했다는 공로상이었다.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이 상을 차려 선소리꾼들을 대접하라."

임금은 국상에 참가한 모든 선소리꾼에게 진수성찬을 내렸다. 그때 전라도에서 온 선소리꾼은 밥을 그저 막 먹었으나 박당장은 일체 먹지를 않았다. 이를 본 임금이 그 이유를 물었다.

"어찌하여 너는 밥을 먹지 않느냐?"

"저에게는 늙은 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귀한 음식을 차마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읍니다. 부모님께 드린 다음에야 먹겠읍니다."

이말을 들은 임금이 박당장의 지극한 효심을 생각하고는 밥을 먹도록 권유했다.

"너, 그 밥을 먹어라. 그러면 내 그와 같은 성찬을 차려 줄 터이니 부모님께 대접하도록 해라."

박당장은 임금이 특별히 내려준 음식을 가지고 목선을 타고 제주도까지 여러 날 걸리면서 왔으나 음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자 제주 목사가 음식을 조사해 보았는데 소문과 다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 하자 임금은 박당장의 효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효자 완문을 내렸다.

그후부터 제주도읍 사람들은 박효자라 해서 박당장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다. 동네 어떤 사람이 관가에 잘못한 일이 있어 잡혀 갔을 때라도 박효자가 가서 해명을 하면 풀려나기도 했다.

박당장의 아들은 박유학이라고 지금 살았으면 백세가 조금 넘었을 것이다. 박당장이 양반인 데다 효자 완문까지 임금으로부터 받은 효자인 까닭에 명월진에서도 높이 받들었고 제주목에서도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4. 장사 고삭배

한림읍 상명리에 고씨 조상으로 아주 힘이 장사인 고삭배라는 사람이 살았다. '삭배'는 장사 고씨의 별호라 한다. 원래 힘이 세니 마을 사람들이 고삭배라 불렀고, 그 후손들은 '고장군'이라 부른다.

하루는 고삭배가 금악 위에서 삼간집 지을 나무를 해서 한짐에 지고 내려오다 짐을 진 채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이때 어떤 길을 지나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는 "어떤 일로 경허염수가? 짐을 내려놩 일을 보민 안 됩니까?" 하고 물었다.

"거 , 짐을 내려 놓으면 헐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태연히 말하고는 일을 다 본 뒤 짐을 진 채 일어섰다고 한다.
장사 고삭배의 처갓집은 관포에 있었다. 가을이 되어 처갓집에서 꼴을 베게 되었다. 고삭배가 처갓집에 가보니 꼴을 벨 일꾼들을 빌고 있었다.
장모가 사위인 고삭배에게 일꾼 열다섯 사람만 빌어서 꼴밭으로 오도록 했다.
"일꾼들 데리고 꼴밭으로 가 있을 테니 점심 차려서 오십서."
장모는 부지런히 점심을 짓고 소에 실고서 밭으로 가보았으나 일꾼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하다. 조금 있자 사위 혼자만 꼴밭으로 굴러 들어왔다.
"일꾼들은 어떻게 하고 혼자만 오느냐?"
"일꾼들 오겠다고 했는데 데리러 가니 오지 않겠다고 하니 나 혼자라도 장모님 대면허젠 오랏수나."
일꾼들 빌어오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혼자만 왔으니 꼴을 누가 벨 것인가.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장모 역시 사위가 식성이 좋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위, 이밥 먹든지 말든지 모른다. 열 다섯 일꾼 일할 만큼 이꼴 베어 놓아라."
아, 공연히 쌀만 허비하여 밥을 지어 놨구나. 꼴을 베든지 말든지 모른다고 투덜대며 장모는 점심을 내려 놓은 뒤 소를 몰고 돌아가 버렸다.
장모가 떠난 뒤 고삭배는 혼자 그 밥을 다 먹었다. 한참 자고 난 후 고삭배는 일어나서 혼자 가시고 꼴이고 마구 베어서 해지기 전까지 일을 다 마쳤다.
장인 어른이 꼴밭에 와보니 어이가 없었다. 꼴을 베어 놓되 가시고 잡풀이고 구별하지 않고 마구 베어 놨으니 묶을 도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위인 고삭배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사위, 이 꼴은 다 베었는데 수고 많이 했지만 또 묶어줘야 하겠네."
"예, 염려하지 마십서. 다 묶어드리쿠다."
장인 어른이 저녁쯤에 꼴밭을 찾아가 보았다. 모두 묶여 있는데, 잡풀과 가시나무가 구별됨이 없었다.
장인은 사위를 불렀다.
"묶어놓은 꼴을 자네가 좀 집으로 운반해 줘야 하겠네."
"예, 염려하지 마십서. 쉐앗배(소에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묶는 밧줄)만 가져 오십서."
고삭배는 장인 어른이 가져온 쉐앗배로 모아놓은 꼴을 사방으로 얽어맨 후 한 짐에 집으로 져 날라왔다. 한 짐에 져온 꼴을 고삭배는 집 뜰 한 구석에 내려놓고는 밧줄만 빼어 놓으니 그대로 눌이 되었다.

이처럼 힘이 장사인 고삭배는 또한 어린 송아지로 대나무 밭을 갈았다고 한다. 이것은 송아지가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밀면서 밭을 갈았다는 것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5. 고혜한 하르방

한림읍 월림리 마을 한가운데 큰 못이 있다. 지금도 마소들이 몰려들어 물을 먹는데, 일명 '움부리물'이라 한다.

이 '움부리물'은 본디 못이 아니라 '헐'(비가 오면 고여 된 습지)이었다. 수심이 깊지 않고 비가 오면 그저 물이 고이는 정도였다.

마을이 설촌되기 이전에 여기에 노루, 사슴, 산돼지 들이 많이 몰려와 물을 먹으며 살았다. 이 사실을 안 고혜한 하르방이 물 아래쪽에 활집(나무를 역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집)을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

짐승들을 많이 사냥하게 되고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되자, 이제는 마소를 기르며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움부리물'주변의 들은 개간이 안된 채 있었기에 고혜한 하르방이 일꾼들을 빌어다 전부 개간하여 수많은 농경지를 가지게 되었다.

마소 역시 계속 불어나서 한 마리만 따로 돌아다니면 자기의 소유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 고혜한 하르방이 소유한 마소들은 항상 떼를 지어다녔기 때문이다.

고혜한 하르방의 생활은 부유해졌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었다. 고혜한 하르방이 농목축으로 부유해지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설촌되었는데, 부유한 마을이라 해서 마을명이 음부리(音富里)라고 했었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83) 제보.

6. 방이 강초관

옛날 한림읍 대림리에 방이 강초관이라는 힘이 센 사람이 살았다. 강초관은 식충(食蟲)이라 하루에 한말 치 밥을 먹어치웠다. 한번 배불리 먹으면 며칠을 먹지 않아도 살고 했다.

원래 힘이 센 힘장사라 들에 나가 남방아를 만들다 비가 쏟아지면 남방아를 모자 쓰듯 머리에 써서 비를 피했다. 힘이 장사라 방아 들기를 솔박 들 듯 쉽게 했다.

대림리 마을 형국(形局)이 배형국이라고 정시에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마을에 뱃돛대를 세우고자 했다. 뱃돛대는 비자나무로 만들어 몇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해서 셋을 세웠는데 입석자리, 마을 중간, 마을 끝 지금 마을회관있는 곳에 세웠다.

뱃돛대를 만들 때 마을 사람들이 방이 강초관의 힘을 빌기로 했다. 뱃돛대를 만들 나무는 높이나 둘레가 매우 크고 무거웠다.

방이 강초관이 산에 가서는 뱃돛대 만들 나무를 베어다 냇가에 세워 두었다. 대림리 사람들이 나무를 끌어 올려고 가서 보니 나무는 잘랐지만 평지에 있지않고 냇가 구석에 세워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매달려도 평지로 끌어 낼 수가 없었다. 방이 강초관에게 끌어낼 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끌어낼 수 없으니 방이 강초관이 저 평지로 끌어내 달라."

"아무리한들 저 정도의 나무야 못하겠읍니까?"

방이 강초관이 성큼성큼 와서는 한 손에 나무를 잡고 냇가 평지로 던져 버렸다.

방이 강초관은 이처럼 힘이 센 장사였는데 남방아 만들기를 잘했었기 때문에 방이 강초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장고남(남·88) 제보.

7. 김 흥조 효자

한림리에서 대림리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효자비가 서 있다. 효자의 이름은 흥조(興祚)이고 성은 김씨다.

김 흥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위독한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무더운 여름철 김 흥조가 사탕수수를 먹고 싶었다. 밭에 가서 사탕수수를 베어다 껍질을 벗기며 먹는데, 한번은 잘못하여 손가락을 껍질로 베고 말았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 내리자 집이 난 어린 소년 흥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상처난 곳을 입으로 불어달라고 졸랐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치거나 아팠을 때 어른들이 입으로 다친 곳을 후우하고 불어 주면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어린 소년인 흥조가 병으로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손가락을 불어 달라고 입에 갖다 대었다. 병든 아버지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불어 달라고 하자 입으로 불어 주었다. 그런데 손가락에서 나는 피가 아버지의 입으로 떨어져 흘러내려갔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던 아버지가 이 아들의 피를 먹게 되자. 피가 선약이 되었는지 위독한 병이 금방 나았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동네사람들은 대림에 효자났다고 칭송을 했고 어사가 행차할 때 진정을 드렸더니 효자완문이 내려졌다. 이에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효자문을 짓고 실존하고 있다.

이 효자비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이름은 홍조(興祚)요 본관은 경주다. 부인은 밀양박씨다. 천성이 치효하고 혼신지성(昏辰之省)하고 감난지공(甘暖之供)으로서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을 섬기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부친의 병이 위독하여 회생의 가망이 없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입으로 먹여 꺼져 가던 목숨이 회생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늘에 통한 효(天孝)라 해서 철종 정사년(1857) 마을과 면에서 천거를 하니 효자완문을 받았고, 경신년(1860) 어사 행차시 상소를 올리니 포양지제(褒揚之題)의 영광을 받았다.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장고남(남·88) 제보.

8. 도깻 뚜꺼비

대림리에 거짓말 잘하는 도깻 뚜꺼비라는 사람이 있었다. 도깻 뚜꺼비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실은 동네 노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도깻 뚜꺼비의 성씨와 이름은 알 수 없는데 거짓말을 잘한다하여 별칭으로 도깻 뚜꺼비라고 불렀다.

도깻 뚜꺼비가 한번은 궁돌왓 박처중 하르방을 거짓말로 속인 일이 있다.

박처중 하르방은 (궁돌왓) 근처에 집에 짓고 혼자 살았다. 그런데 박처중 하르방은 동네 젊은 사람들이 수원리 포구에 가서 잡고 오는 멸치를 따라가서 빌기를 잘했다. 도깻 뚜꺼비 역시 수원리 포구에 가면 갈 적마다 멸치를 잘 잡고 왔다. 멸치를 잡고 온 적마다 박처중 하르방이 멸치를 얻어가는 것이었다.

에라, 이번은 박처중 하르방을 속여야지.

도깻 뚜꺼비가 한번은 박처중 하르방을 속여 골탕먹일 속셈으로 수원리에 일이 있어 갔다오다 길 구석에 있는 모래를 부대에 반쯤 담고는 대림으로 돌아왔다. 박처중 하르방은 집 앞에 와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 푹 숙이고 지나가려 하였다. 박처중 하르방이 짐을 지고 가는 도깻 뚜꺼비를 보고 달려가서 도깻 뚜꺼비를 붙잡았다.

"멸치 잡았으면 나에게 좀 나누어주고 갈 수 없느냐."

"하르방 줄 멸치가 어디 잇수가. 어제 멸치젓 하다 좀 부족하니 채워야 하기에 나누어 줄수 엇수다."

"에이, 젊은 양반. 너무 그렇게 굴지 말게. 집에 가서 그릇 가져 올 테니 좀 나누어줘."

그릇을 가지러 집에 갔다오는 사이 도깻 뚜꺼비는 저만큼 가 있었다.

박처중 하르방이 헐떡이며 좇아가 도깻 뚜꺼비를 다시 잡았다.

"아무리 인심이 각박해도 그럴 수 있나. 좀 나누어 줘두고 가게."

멸치 자루를 확 잡아당겨보니 모래만 가득 담겨 있어 박처중 하르방은 헛걸음만 하고 말았던 것이다.

도깻 뚜꺼비가 또 한번 마을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인 적이 있다.

마을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놀고 있었다. 이때 도깻 뚜꺼비가 멸치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있었다. 도깻 뚜꺼비가 정자나무 그늘 쪽으로 오자 놀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도깻 뚜꺼비를 불러 세웠다.

"어이! 저 어른 거짓말 한번 해두고 가게."

모든 사람들이 도깻 뚜꺼비가 거짓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거짓말 한곡지 해서 웃어볼 심산으로 거짓말을 한번하고 가독록 했다.

"거짓말 한번 해두고 가게."

"나 그렇게 거짓말 할 여유가 없읍니다. 저 진질(수원리 용문동) 포구에 멸치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잡다가 멸치 담을 구덕 가지러 옵니다."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말을 하고는 집으로 가 버렸다.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던 마을 사람들이 도깻 뚜꺼비의 말을 듣고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이 사람들아. 저 진질 멸치 막 들어서 사람들이 잡고 있다네. 빨리 그릇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부지런히 걸음반 뜀반 해서 진질 포구에 가 보았다. 진질 포구에는 어느 누구도, 멸치도 없었다. 숨을 헐떡이며 갔던 마을 사람들이 그때야 도깻 뚜꺼비에게 속은 것을 알았던 것이다.

며칠후 마을 사람들이 놀다가 다시 도깻 뚜꺼비를 만났다.

"아무리 거짓말을 한들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나?"

"왜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했읍니까, 거짓말 하라 하라 해서 했을 뿐 아닙니까."

도깻 뚜꺼비의 이 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속았으나 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했다고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장고남(남·88) 제보.

9. 남이참봉영감

명월리를 개척한 오씨 선조가 큰 부자로 소를 천마리나 기르고 있었다. 그 당시 오씨 선조 집에 남이라는 소를 관리하는데 큰복을 타고난 종이 있었다.

명월리 위쪽에 물오름이 누워 있는 형태로 있고 제일 높은 봉우리를 남이봉이라고 한다. 남이라는 종이 소를 먹이며 놀았던 곳이라 해서 남이봉이라 한다.

남이는 매일 소천마리를 몰고 남이봉에 가서 방목을 했다. 소를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여 풀을 뜯게 한 다음 남이는 봉우리 소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청한다. 한참 자다가 소를 모을 시간이 되면 가까이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끌어다 소 귀를 잡고 비틀면 소가 아픔을 참지 못하여 큰소리로 울어댄다. 그러면 소들이 풀을 뜯다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고 남이는 소의 숫자를 헤아린 다음 소 한 마리를 잡아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구워먹는 것이었다.

하루는 오씨 선조가 남이종이 어떻게 해서 천마리나 되는 소를 관리하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 살펴보기로 했다.

남이가 소를 몰고 들로 나간 다음 오씨 선조는 뒤를 따라가 숨어서 살펴보았다. 소를 풀어놓은 남이는 한잠을 자다 일어나 소 한 마리를 끌어다 목을 비틀어 소들이 몰려들면 수를 헤아린 다음 그 소를 잡아 먹어 버리는 것이었다.

매일 이렇게 소를 한 마리씩 잡아 먹어 버리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오씨 선조는 남이를 하루 쉬게 하고 자신이 직접 소를 몰고 들로 나갔다.

오씨 선조는 남이종이 했던 그대로 했다. 잠을 자다 시간을 맞추어 일어나서는 소를 끌어다 귀를 비틀었으나 소는 한 마리도 모여들지 않았다.

소들도 항상 관리하는 주인이 아님을 알았든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안되겠구나. 소를 한 마리씩 잡아 먹더라도 종놈이 관리를 하는게 낫겠구나.

다음부터는 남이종이 하는 일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다.

남이종이 죽자 소들이 주인의 죽음을 알았든지 하나 둘씩 죽어갔다.

남이가 소를 관리할 때 소가 번성했던 것은 남이가 마소 복을 타고났기 때문이라 한다.

지금도 이 마을에서 마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음력 칠월 열흘날에는 남이봉 기슭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남이참봉영감! 제물을 정성드려 올리니 마소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사를 지내면 마소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번창한다고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10. 명당과 명구(名拘)

옛날 주인이 죽자 명당자리를 봐 준 명구가 있었다.

한림읍 금악리 강씨 집안 어른이 죽자 개가 명당자리를 봐 준 곳도 있고, 애월면 봉성리

산골동네 아래 알천이 별동산도 바로 개가 봐 준 산이라 한다.

금악리 강씨가 개를 귀엽게 여기며 길러 왔는데, 주인이 돌아갔다. 후손들이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아 다녔다.

그런데 주인의 죽음을 안 개가 집을 나가면 어떤 봉우리에 가서 눕고는 돌아와서 짖어대곤 했다. 후손이 이상히 생각해서 지관을 데리고 왔는데 개가 지관의 옷을 조금 물고는 가자는 시늉을 하며 당기는 것이었다. 개가 가는 곳을 따라가 살펴 보니 그곳 지형이 바로 옥녀금채형(옥같은 여자가 비단을 짜는 형)이었다. 바로 금악리 위쪽 이시돌목장 근방에 알오름이 있는데 여기에 강씨 무덤이 지금도 있다.

별동산도 명구가 가르친 명당이다. 별동산은 월로동산이라고도 하는데 달아래 따른 별이라 해서 붙여졌다. 별동산 주변에는 작은 나무들로 빽빽하게 얽혀져 있고 묏자리만은 평평하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11. 포수와 사냥개

옛날 한림읍 윗쪽에 사냥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포수는 영리한 개와 총을 생명처럼 소중 여겼다.

하루는 포수가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으나 짐승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산에는 날이 어두워 버렸다.

포수는 사냥개에게 오늘밤을 지샐 곳을 찾도록 했다. 개가 찾아낸 곳은 조그만 석굴이었다. 불을 켜고 안을 살펴 보니 한 포수가 총을 세워 둔 채 죽어서 뼈만 남아 있었다. 이런 석굴로 오게 했다고 개에게 욕을 하자 개는 싫은 듯 끙끙거렸다. 포수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 어두운 밤에 다른 피할 곳을 찾기도 힘들 것 같아 그냥 지내기로 작정하고 잠을 청했다.

잠을 자다 깨어 보니 개가 나무를 꺾어다 주인인 자신의 키를 맞추어 보고 있었다.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개에게 욕을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개에게 잘못을 빌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지만 여기 죽은 포수의 집을 알고 있으면 가리켜 포수 후손들에게 알려 주게 된다면 그 공덕이 크지 않겠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개에게 말을 했는데 개가 일어서서 꼬리를 흔들고는 함께 가자는 시늉을 지었다.

포수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개가 길을 잘 인도하겠지 해서 개의 뒤를 따라 나섰다. 총을

메고 밤새 걸어 내려 오자 날이 밝았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포수가 매우 이상히 여겨 찾아가서 통곡하는 사정을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통곡을 합니까?"
"어젯밤 남편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당신이 가죽으로 만든 사냥옷을 입고 총을 메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돌아간 남편과 너무나 닮기에 남편 생각이 간절하여 그렇습니다."
아들도 자기 부친이 사냥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포수는 부인에게 남편의 총에 무슨 표시가 없느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읍니다."
"혹시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젯밤 어떤 석굴에서 총을 가진 포수가 죽어 있었읍죠. 혹시 당신네 조상인지 모르니 한번 찾아 보십시오."
"당신이 밤인 까닭에 잘 모르겠으나 개는 잘 알 겁니다. 내가 개에게 말할테니 개를 따라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은 제사 지냈던 고기들을 개에게 던져 주었다. 개를 따라가 보니 바로 남편이 죽어 있었다. 남편을 찾은 기쁨과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에 또한번 소리쳐 울었다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12. 한세미 강당장

동명 한세미에 배큰 강당장이 살았었다.
강당장은 원래 배가 커서 며칠 먹을 밥을 하루에 먹어 치우고는 또 며칠을 굶어도 살았고 대변을 봐도 산더미 같았다. 옛날에는 젊은 청년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해서 제주성에 경비를 담당했었다. 강당장은 경비를 담당하러 갈 때도 며칠 먹을 밥을 한꺼번에 먹고는 며칠동안 먹지도 않고 돌부처마냥 가만히 아무 말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그러면 같이 경계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일찍 돌려 보내기도 했다.
하루는 강당장이 경비를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 열두 장정이 밭을 일구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장정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가 지나가는 강당장에게 인사말로 점심을 같이 먹도록 말했다. 강당장은 며칠 굶은 상태에다 배 큰 양반이라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열두장정이 먹을 점심을 몇 술에 다 먹어 버렸다.
"남의 밥을 다 먹어서 미안합니다. 밭을 일구는 일이나 도와드리겠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당장이 밥을 많이 먹은데다 원래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따비질을 하자 따비가 마구 꺾어지는 것이었다. 일을 도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방해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따비중에 그래도 단단한 것이 있었다. 따비를 들고 일하는 것을 본 열두 장

정이 겁에 질려 모두 집으로 가 버렸다.

강당장은 열두 장정이 일굴 밭을 밥 한끼 잘 얻어먹은 덕분에 몇 시간내에 다 일구었다고 한다.

강당장이 하루는 한림읍 옹포리 바닷가에 고기를 사러 갔다. 어부들이 잡아 온 고기를 꺼내면서 강당장을 힐끗 쳐다보고는 고기를 팔아주기 않았다. 강당장은 화가 났다.

"이놈의 자식들. 배를 들어다 던져 버릴까?"

어부들은 차마 배를 들 사람이 있을까 해서 잡은 고기를 팔아 주지도 않고 집으로 가 버렸다. 강당장은 홧김에 배를 들어다 큰길가에 놓아 버렸다.

이튿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포구에 가보니 배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느 길가에 배가 있더라는 것이었다.

어제 그 양반이 한 짓이로구나.

어부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강당장을 찾아가 사정을 했다.

"어제는 저희들이 잘못했읍니다. 다음에는 고기도 싸게 잘 팔아드릴테니 배를 들어다 주십시오."

그때야 강당장은 아무 말없이 배를 바닷가로 들어다 주었다는 것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13. 고삭불 장사

한림읍 상명리에 고삭불이라는 양반이 무척 힘이 세었다. 한경면 두모리에 고삭불의 처갓집이 있었다.

처갓집에서는 가을철이 들자 일꾼을 빌지 못해 꼴을벨 것이 걱정이었다. 고삭불이 처갓집에 가보니 장모의 부정이 말이 아니었다.

"내가 일꾼 빌어서 베어 드리겠읍니다. 일꾼 데리고 꼴밭에 가 있을테니 점심이나 차려 오십서."

장모는 열두일꾼 먹을 점심을 차리고 가 보니 일꾼은 보이지 않고 사위는 잠만 자고 있었다.

"이사람 보게나. 일꾼 빌어서 꼴을 베려 했는데 일꾼들은 어디 있는가?"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읍니다."

장모는 화가 나서 점심 먹든지 말든지 모른다고 소리치고는 돌아가 버렸다. 고삭불은 혼자 열두 일꾼 먹을 점심을 다 먹은 후 가시며, 덤불이며 가리지 않고 꼴을 베었다. 날이 저물자 고삭불은 점심 그릇을 챙겨서 처갓집에 들어갔다.

"저 꼴 밭 어떻게 할 건가?"
"꼴 다 베었릇니다."
장인어른은 믿을 수 없어 이튿날 일찍이 밭에 가 보니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베어 있었다.
"사위, 저 꼴 좀 묶어 주게."
"밥이나 배불리 먹게 많이 주십시오."
고삭불이 꼴을 묶으러 밭으러 떠난 뒤 장인은 점심을 마소에 싣고 꼴밭으로 가다 보니 솔개가 싸움이 붙은 것 같았다.
괴상하다. 혹시 죽은 짐승이나 뜯어먹고 있는가?
실은 사위가 힘이 장사라 꼴을 묶어서 던지기를 계속하니 솔개가 하늘에 나는 것 같았던 것이다.
고삭불은 묶어 놓은 꼴을 모아 쉐얏배로 얽어맨 다음 한짐에 져다 대문 입구에 놓아 버렸다. 사람들이 집안에 드나들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사위 미안하지만 꼴을 집안 뜰로 날라 주게."
"밥이나 많이 주면."
장인이 밥을 많이 해서 먹으니 그때야 뜰로 날랐다 한다.
하루는 고삭불이 아내에게 한가지 흉을 털어났다.
"해변가 마을에 장가를 갔는데 지금까지 소라 한번 실컷 먹어보지 못했네."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남편이 처갓집을 흉본 사실을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장모는 세며느리를 데리고 썰물때를 기다려 소라를 잡아 와서는 사위를 불렀다. 사위는 삶은 소라를 혼자 다 먹었는데도 부족하다고 했다.
어느해에 마침 흉년이 들었다. 장인은 사위가 배 큰 줄을 알고 딸이 걱정되어 사위를 불렀다.
"흉년이라 사위도 식량 때문에 대단히 걱정하는 모양인데 쌀 좀 갖다 먹게."
"고맙습니다. 얼마나 주시겠읍니까?"
"더도 말고 한 짐이야 못주랴. 자네가 질 수 있는 만큼 지고 가져 가게."
사위는 날이 저물 무렵 쌀을 한 짐 지고 떠나려 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가다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나."
"도둑을 무서워해 본 바가 없읍니다."
덤불길을 걸어 고삭불이 짐을 지고 상명리로 가는데 대변을 보고 싶어 짐 진 채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이때 수풀속에 도적떼들이 은신해 있다가 쌀 진 사람이 보이자 탈취하려고 덤벼들었다. 도적떼들은 여러 명이었으나 힘센 고삭불에게는 당할 수 없었다. 고

삭불이 쌀을 진 채 덤벼드는 도적을 잡아서 이쪽 저쪽으로 던져 버렸다. 도적떼들이 그때야 힘이 센 고삭불인 줄 알고 "저놈 고삭불 장사여!"하며 달아 났다고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오술생(남·74) 제보.

Ⅲ. 信仰傳說

1. 대림선돌

한림읍 대림리와 수원리 경계선 넓은 들에 큰 바윗돌이 서 있다. 이 선돌은 사람이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곳에 있는 높은 바위라 한다. 마치 돌이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선돌, 입석(立石)이라 부른다. 이 바위의 명칭에 따라 대림리 옛이름을 입석이라 했었다.

그 선돌은 흔들림이 없는 뿌리가 깊은 바위다. 그런데 대림리 마을 형세가 서쪽이 비어 있는 형세이므로 선돌이 막아 준다하여 선돌 위에 더 많은 돌을 올려 놓았다.

수원 쪽에서는 선돌 형세가 닭의 볕 모양이라 손해를 보게 되었다. 수원리에는 힘센 장사들을 모아서 선돌 위에 쌓은 돌들을 모두 떨어뜨려 버렸다. 이 사실을 안 대림리 사람이 다시 돌을 올려놓곤 했다.

지금은 큰 돌들을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 작은 돌멩이들만 있다 한다. 이렇게 대림리 마을 사람들이 선돌 위에 돌을 올려 놓은 것은 대림리 지세가 배 모양을 하고 있어 선돌이 배돗대 역할을 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지나던 어떤 지관(地官)이 대림 지세에 대해 농담 한마디를 남기고 가 버렸다.

"이 대림리는 선돌 있는 쪽으로 해서 성을 쌓으면 부흥하겠다."

이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을 쌓았다. 그런데 오히려 마을이 망해가기 시작했다. 집들도 많았었는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제야 속았다고 하여 성을 허물어 버렸고 지금은 조금씩 형태만 남아있다. 대림 지세가 배 모양인데 성을 쌓아서 배가 가는 길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대림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선촌 옆에 높이 10여미터나 되는 물저장고가 서있다.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장고남(남·88) 제보.

2. 영천 소목사

귀덕리 절동네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큰 절을 짓고 살았다.

영천 소목사가 제주에 부임한 후 제주를 살펴 보니 절의 행패가 심해서 귀덕리 절동네의 큰절을 폐쇄시키고 헐어 버렸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영천 소목사가 또 살펴 보니 김녕 뱀굴의 행패가 심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영천 소목사는 군졸을 시켜 제주도 사람들에게 김녕사굴의 행패에 관한 소문을 수소문해서 상세히 조사하도록 했다. 김녕사굴에 나이 칠십세 이상 된 사람이 제단을 차리고 앉아 있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나이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곳에 가서 앉아있었더니 없어져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

이 말을 들은 영천 소목사는 이상한 일이다. 내 한번 다시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김녕사굴을 찾아갔다.

이건 틀림없이 뱀이 잡아먹는 짓일거다. 영천 소목사는 마음 단단히 먹고 뱀을 잡을 궁리를 하고는 칼을 갈았다. 영천 소목사가 칼을 차고 뱀굴 속 제단위에 앉아 있더니 뱀이 나왔다. 큰칼로 뱀의 목을 잘라 죽이고 뱀굴에 출입을 금지시켰다.

바로 무당들이 금녕사굴을 이용한 행패를 막은 것이다.

또한 영천 소목사가 제주도를 살펴보니 골총(오래된 허물어진 무덤)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제주를 순력하며 골총을 정리하게 하고 골총귀신들에게도 제를 지내도록 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골총귀신들이 와서 몸을 피하도록 간청을 하는 것이었다.

"하루속히 제주를 떠나야 합니다."

영천 소목사로부터 은혜를 입은 골총 귀신들이 목사를 도우러 꿈에 나타난 것이다.

"알았다. 며칠후에 떠나려 했지만 내일 떠나겠다."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하고 곧바로 제주를 떠나자 대풍이 불었다. 골총귀신들이 일찍 떠나도록 해서 떠나는 바람에 영천 소목사는 대풍을 피해 살아날 수 있었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대풍에 휘말려 죽을 뻔했던 것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양우종(남·83) 제보.

3. 진좌수 묘

월계 진좌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금해 뒤의 일이다.

진좌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났는데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해 죽지도 살지도 못한 형편으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

하루는 육지에서 살던 친구가 진좌수 후손을 찾아왔다. 찾아온 친구는 진좌수 후손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왔다.

"무슨 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병을 얻은지도 여러 해 됐지만 내 병을 아는 사람도 없고, 좋은 약을 만들어 치료해도 안되니,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빨리 죽는 게 편안한데 그렇지도 못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네."

"그런가, 참으로 보기 딱하네. 그런데 자네 집안에 의술로 유명한 어른이 있지 않는가?"

"진좌수 어른이 의술로 뛰어났으나, 오래전에 세상을 뜨신 분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육지에서 찾아온 친구가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무릎을 딱 쳤다.

"자네 어른이 살았을 때 의술이 신통했으니 죽었지만 무슨 영험을 보여줄지 모를 걸세. 거룩한 정성으로 묘소를 찾아가 일주일만 기도를 드려 보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니 한번 해 보게."

진좌수 후손은 이러나저러나 마음이 답답해서 선조 묘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진좌수 후손이 기도를 계속하여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음을 단정히 하고 기도를 드리다 보니 밤은 깊고 피곤한데 꿈인지 생시인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큰 침을 들고 와서는 자신의 몸에 침을 놓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날이 밝자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병이 차도가 있었다. 그후 며칠만에 진좌수 후손은 깨끗이 병이 나았다.

이 일로 해서 월계 진좌수는 죽은 후에도 병을 고치는 영험을 보여 줬다 한다.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좌수선(남·83) 제보.

翰京面篇

Ⅰ. 自然傳說

1. 수월봉(녹고ᄆᆞ루)

수월봉은 고산리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높은 동산으로, 속칭(녹고ᄆᆞ루)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년전 고산리에는 수월(水月)이라 부르는 처녀와 녹고라는 하는 총각인, 두 남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의좋게 살고 있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처지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꽤 단란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봄이었다. 뜻밖에 어머니는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병세는 위독하여 가기만 하였다.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은 거의 다 써 보았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제 이들 수월이와 녹고는 또 무슨 약을 쓰면 좋을지 막연하여 서로 얼굴만 마주 보면서 울 뿐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한 스님이 지나다가 이들 남매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까닭을 듣고 가엾게 여겨 백 가지의 약초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달여 먹이면 병이 낫겠다고 하고는 어디론지 가 버렸다.

수월이와 녹고는 그날 그때부터 이곳 저곳으로 애써 돌아다니면서 스님이 가르쳐 준 백 가지의 약초 중에서 아흔 아홉가지의 약초를 캐어 가지고 돌아왔으나 안타깝게도 단 한가지의 약초만은 찾지를 못하였다. 약초의 이름은 '오갈피'라는 풀이었다. 그 스님의 말에 따르면, 그 약초는 높은 바위나 산비탈 같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남매는 이튿날 다시 곳곳을 누비며 마을 앞 바닷가 동산 쪽으로 가 보았다. 이리저리 두루 살피던 중 드디어 그 약초를 발견하였다. 마침 그곳은 절벽이었는데 절벽의 중간쯤에

중이 가르쳐 준 '오갈피'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순간 이들은 위태로운 것도 무서운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절벽을 내려가 캐어 오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수월이는 녹고의 한쪽 손을 잡고 한 발자국씩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그 약초를 캐어 기쁜 마음으로 녹고에게 주었을 때, 수월이는 너무 흥분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녹고도 그 약초를 받는 순간 기쁨에 넘쳐 잡았던 수월이의 손을 그만 놓쳐 버린 것이었다. 수월이는 여지없이 그 험한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녹고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넋을 잃고 울부짖었다. 이윽고 재 정신으로 돌아온 녹고는 절벽의 중간에서 떠날 줄도 모르고 끝없이 울기만 하였다. 녹고의 눈물은 바위틈을 거쳐 끝없이 샘솟아 흘렀다.

아득한 뒷날, 마을에서는 이 동산을 '녹고물오름'이니 '물나리오름'이니 또는 '녹고ᄆᆞ루', '수월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고산리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수월봉과 녹고물은 의좋은 남매 수월이와 녹고의 이처럼 애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88) 제보.

2. 절부암(節婦岩)

한경면 용수리 지세길 포구 곁, 고목나무가 울창하고 바위가 많은 엉덕동산에 <절부암>이 있다.

옛날 이 용수리에 강씨 총각과 고씨 처녀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 남편 강씨의 고향은 한경면 저지리로 조실부모하여 가난하게 살았고, 아내 고씨 역시 저지리 명이동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여 가난하였으나 절개가 곧고 성실하였다.

이들은 저지리에서 결혼했으나 가난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어 용수리로 이사와서 살았다. 남편은 차귀섬에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만큼 대나무를 베어다 대바구니등을 만들어 내다 팔면서 생활을 꾸렸다.

그런데 하루는 대를 베러 차귀섬(죽도)에 갔던 남편이 풍랑을 만나 돌아오질 않았다. 부인은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바닷가를 두루 해맸다. 밤낮 두이레 열나흘을 찾았으나 남편의 시체는 찾을 길이 막연했다.

실의에 빠진 부인은 불쌍한 "남편이 죽었는데 내 혼자 살겠다니"하며 한탄하고는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했다. 부인은 다음날 지세포구 엉덕동산 바위위 나무에 목을 매어 죽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남편의 시체가 엉덕동산 절벽밑 바다에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이상하다 혼이 서로 통했다"고 말하며 당산봉 양지바른 쪽에 나란히 안장

해 주었다 한다.

신대정원이 부임하고 나서 열녀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부인이 죽은 바위를 <절부암(節婦岩)>이라 명하고 열녀비를 세워 열녀제를 지내고 추모했다.

그래서 고씨열녀가 목매어 죽은 절벽을 <절부암>이라 부르게 되고, 지금도 용수리에서 매년 삼월 보름날 마다 열녀제를 지낸다고 한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88) 제보.

Ⅱ. 歷史傳說

1. 윤무순과 삼반석

지금으로부터 약백년전 윤무순이라는 죄는 많으나 좀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윤무순은 당산봉에 올라가 남의 소를 기르며 살았으나 흉년이 들자 이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얻어먹으러 떠났다.

공부는 못했으나 꾀가 있어서 여기 저기에서 얻어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루는 높은 가문에 얻어먹으러 사랑방에 들어갔다. 사랑방에 있던 주인이 윤무순의 거동을 보고는 어디 사는가고 물었다.

"제주도 차귀(고산)에 삽니다."

"차귀에 당산봉이 있느냐?"

"예. 있읍니다."

"당산봉에 삼반석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지리서를 통해 제주도 어느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너 이놈 차귀서 왔다고 하면서 삼반석도 모르고 있으니 도적놈이로구나."

이 호령소리에 윤무순은 줄달음쳐 달아나 버렸다.

삼반석이라고 하면 클돌셋을 말하는데 속칭 <시돌굽>이라 한다. 윤무순은 삼반석 있는 곳에 소먹이러 자주 갔었다. <시돌굽>이라 했으면 알았을텐데 한자로 <삼반석>이라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이다.

윤무순이 제주에 돌아와서는 젊었을 때 공부할 것을 하고 한탄했다고 한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88) 제보.

2. 산도채비

도채비는 잘 받들어 섬겨 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리고 섬기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섬겨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기도 한다.

도채비는 죽은 도채비와 산도채비로 나누어 불리는데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죽은 도채비는 불빛으로만 번쩍번쩍하고, 산도채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모습이긴 하나 이빨이 앙삭해서 사람과 다르다.

산도채비를 잘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섬기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는 주인이 죽으면 그집 부인과 동침을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한다.

옛날 한경면에 산도채비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산도채비를 오랫동안 잘 모신 결과 큰 부자가 되었다. 산도채비는 주인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은 틀림없이 해왔다. 돈이라도 지금 내가 얼마 쓰고 싶다고 사면 금새 구해올 정도로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사람은 산도채비로 해서 큰 부자가 되었으나, 이젠 산도채비를 내쫓아야 할텐데 방도가 없었다. 도채비를 꾀로 해서 내쫓아야 할텐데 하고 하루는 산도채비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제주 성안에 있는 관덕정 앞마당을 뜯어내어 들러 왔으면 좋겠네."

"주인님, 염려하지 마십서."

산도채비는 주인과 약속을 한 후 쇠창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안 관덕정으로 들어갔다. 관덕정 마당에 이르러 동서남북 사방에 쇠창을 깊이 찌른 후 땅을 뜯어 내려고 악을 썼다. 마당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더욱 쇠창을 깊히 찔렀으나 마당을 뜯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산도채비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는 때를 봐서 달아날 궁리를 했다.

아, 주인의 가장 큰 부탁인데, 그걸 못했으니 그냥 돌아간다면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섬김을 받지도 못할 터이니, 모르겠다, 달아나 버리자. 산도채비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돌아가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은 어려움 없이 산도채비를 내쫓을 수 있었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Ⅲ. 信仰傳說

1. 정이 없는 정소남

옛날 정이 없는 정소남이가 결혼하여 아들 여섯 형제를 낳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정소남이는 살림에 여유가 생기니 첩살림을 하게 되었다.

첩살림을 하면서 허세를 부리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갔다. 그래서 첩과 함께 다른섬으로 가서 숨어 살게 된다.

한편 본부인은 아들 여섯 형제에게

"나무를 베어다 배를 지어 주면 네 아버지를 찾아오마."

하였다.

아들 여섯 형제가 부지런히 나무를 베어다 배를 짓고 어머니를 태워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 여섯 형제는 흰 쌀밥에 고기반찬으로 상을 차렸다.

"아이고, 옛날 우리 큰부인과 살 때에는 이런 밥도 먹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본부인과 먹던 밥을 먹게 되었는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왔읍니다. 모시러 오면서 쌀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버지 사는 주위를 둘러보니 문도 없는 거적문에 돌쩌귀를 하여 살고 있었다.

아들 여섯 형제는 배를 타고 아버지와 노일저대를 태우고 노를 저어가니 본부인이 그들을 마중 나와 맞이하였다. 물통 옆으로 나아가니 그 노일저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성님 여기까지 마중오느라 수고 많으셨읍니다. 저기 날씨도 더운데 성님 엎드리십시오. 등물이나 올려 드리겠읍니다. 성님은 윗 물통에서 목욕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목욕하겠읍니다."

착한 본부인은 시키는 대로 윗 물통에서 목욕하는데 노일저대는 옷을 벗어 잠깐 목욕하는 체하고는

"이렇게 엎드리십시오. 성님 등물을 놓아드리지요."

그러나 노일저대는 물 놓는 척하다가 아랫 물통으로 힘껏 밀어 빠지게하여 죽이고 만다. 본부인을 죽여 두고 노일저대는 큰부인 옷을 입고 자기가 큰부인인 체하고 기다리는 아들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기다리던 아들들은

"아! 어머님 지금 오셨읍니까."

하며 인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같지 않구나."
하니 둘째 아들이
"우리 밥상을 갖다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다.
과연 큰아들 밥상은 둘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밥상은 큰아들 주고 하면서 마구 뒤섞어 놓으니
"우리 어머님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하고 애틋하게 어머니가 돌아오던 길의 자취를 더듬어 갔다. 참 신기하게도 저쪽 물 위에 꽃이 둥둥 떠 있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다가가니 꽃이 둥글둥글 피어 있어,
"아니, 전에 없던 꽃이 피었구나. 우리 어머니 물통에 빠져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 여섯 형제가 다 모여 들어 이 물을 퍼내자."
우물을 다 퍼내고 보니 어머니 시체가 고스란히 뼈만 남아 있었다. 모두 주워 모아 집에 가져가서 하는 말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가져왔읍니다."
"어떤 선물인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인 체하며 우리 어머니는 물통에 빠져 죽이셨지요?"
"거, 무슨 말이냐? 너희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라면 밥상을 바꾸어 가지 아니합니다. 큰형 밥상 둘째형 주고 동생 밥상 큰형 주고 하는데 밥상 바꾸는 것을 보니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셨으니 집안이 망하였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오. 어서 이 집을 떠나시오."
"이제 가면 어딜 가느냐?"
아버지는 새끼줄로 목매어 죽으려고 정낭으로 달려가고, 어머니는 아무도 못보는 칙간(則間)에 새끼줄을 매어 죽었다.
아버지는 아들 여섯 형제를 두고 첩을 따라 죽었으니 요즘도 흔히들 '정이 없는 정소남이'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아들 여섯형제들은 서로 의좋게 잘 살았다 한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서계생(여 · 75) 제보.

2. 정승과 정시

옛날 어느 육지 지관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런데 제주도의 산에는 영기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영기를 다 파산해서 쓰다보니 제주도만 남아 있는 것이다. 제주에 들어온 지관은 지관일을 계속 해 나갔다.

즈남케에 가면 임씨댁 묘가 있다. 이 임씨 묘는 일찍이 차귀도에 있는 오백장군을 비춘 묘다. 묘는 그것을 비추지 않도록 위치해 있다. 그 지관이 임씨 집에 와서 부탁을 받고 즈남케에 간다. 보니 산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지관은 바르게 고르면 자기가 죽게 되므로 바르게 고르질 않았다. 바른 자리에서 조금 비껴 가르친 지관은 상제에게

"나 갔다 오마."

하고 돌아가 버렸다.

지관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묏자리를 정해 주고 돌아왔다가 다시 가보니 똑바른 터를 잡고 있었다. 상제가 지관이 정해준 자리를 보고

"아무래도 조금 비뚤어진 것 같다."

하여 바르게 놓는다는 것이 똑바른대로 놓아버린 것이다. 지관이 해 준대로 하지 않고 약간 비껴 놓은 것이 지관이 마음먹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지관은 기운이 떨어져 죽고, 다가갔던 말도 따라 죽으니 거기에는 말 무덤과 지관 무덤이 있으며, 또한 임씨 무덤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임씨 무덤은 무덤 머리에서 보아도 오백장군이 보이고 더 자세히 보면 상제가 두건을 쓴 모양이다. 그 묘 주위에는 소나무를 심어 임씨 집안 무덤만을 쓰니 지금도 임씨 후손들은 번창하였고 많이 성공했다.

옛날 어느 지관은 사람들을 속여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도 하고 안되게 하기도 했다.

이 지관이 뒤늦게 자식을 얻었다. 이 아들은 머리가 둔하고 모자란 아이였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 아들과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 지관은 내 후손이 이것 하나이나 반드시 혼인시켜 후손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지관은 남의 일을 잘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아들을 혼인시키게 되었다. 본래 아들은 모자란 인물이니 며느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골랐다.

그런데 지관이 죽음에 이르러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어라. 묻는데 원몸뚱이는 이곳에 묻고, 목은 잘라다가 저곳에 묻어라. 차마 시아비 목을 자를 수 없겠지마는, 죽으면 없어진 것이니 목을 자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 되려면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하되 돌아올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고 했다.

이 지관이 살고 있는 곳은 벵디물 저수지 같은 물통 옆이다. 며느리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들테니 내가 신령으로 나타나겠다. 그때 갑관을 열어 목을 잘라 목만 묻고 몸은 원래대로 두어라."

밤이 이슥하여 상제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며느리는 시아버지 목을 잘랐다. 머리를

물통으로 달려가서 묻었다. 그리고 몸은 다시 반석을 밀쳐 뚫린 구멍에 묻어 두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다가 그만 문든 돌아보니 물이 샘에 가득차 있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장사를 치른 다음날부터 가뭄이 시작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가뭄에 시달려 이제는 피란을 가거나 품팔이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지관이 죽어서 어느곳에 묻었기 때문에 가뭄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제 지관 집에 가서 지관 아들은 바보이지만 추궁해 보자."

"우리 아버지를 이러이러해서 저곳에 묻었읍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덤을 헤쳐보니 시체가 다 잘라진 것이었다. 아주 험한 모양이었다.

"아!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곳이 좋은 곳이 아닌데, 그 자식이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하여 잘 사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 바보아들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추궁하자."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 한가지의 결점이 있었다.

"왜 바른말을 듣지 아니해서 여기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희들만 잘 살려고 하느냐?"

하니 그러나 시아버지 하신 말씀 하나는 결점이 되니 속이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마지못해 바른대로 이야기했다.

"이러이러해서 물통에 반석을 열러 아버지 시체를 넣었다."

동네 사람들이 반석을 들쳐 보니 황소가 뒷발을 세우고 막 앞발을 세워 일어 서려는 참이었다. 만약 앞발을 세웠다면 달아났을 텐데.

"이크, 이거 큰일났다."

하고 그 소를 죽이고 나니 그날 저녁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고 사람들이 다시 정상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곳에 바보스런 남편과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잉태하여 쌍둥이를 낳았다. 너무나 닮은 이 쌍둥이는 부모들도 형 아우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점점 장수로 자라난다. 태어나서 몇 개월이 지나니 옆구리에 날개가 돋았다. 몰래 숨어서 노는 모습을 보니 날개가 돼 자라서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부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므로 몰래 아기들의 겨드랑이를 감싸주었다.

어 느 날 남편은

"이거 큰일났다. 사람이 아니고 장수가 되었으니..."

쇠를 달구어 날개를 없애려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안 아기들은 어느사이에 요람에서 나와 도망가 버렸다.

검은 소나기가 내리는 여름날, 부인은 큰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큰밭에는 밭이 반으로 잘려져 성이 쌓여 있었다.
"거 묘하다. 이 밭에 누가와서 일한 사실도 없는데 성이 쌓여있다니."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쌍둥이 형제가 그 곳에서 형과 아우를 가리고 있었다. 이쪽과 저쪽을 뛰어 넘으면서
"너는 나의동생"
"너는 나의동생"
하면서 서로 형과 아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자식 찾을 생각도 않고 밭에 나왔더니 아기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한참 왕복하다가 어머니를 발견하자 집으로 달아났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며칠 뒤 다시 가보니 높은 성이 쌓아 있었다. 이제는 서로 만나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쌍둥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으나 쌍둥이들은 부모얼굴을 볼 수 있었다.
마침 조선에 장수가 있다는 말을 들은 대국에서 쳐들어왔다. 대국 장수들은 영기산에서 태어난 장수였다. 그러나 조선 장수들은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놈이니 대국놈들에게 용감히 맞아 싸웠지만은 번번히 패하였다.
그때 신령이 된 할아버지는 내 자손이 위태로우니 신령으로 나타난다. 목을 잘라 묻었으니 목이 신령이 되어 소낙비를 내리고 뇌성벽력을 치지만 대국 장수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장수보다 더욱 센 용으로 변한 할아버지는 용의 꼬리로 대국 군사를 쓸어다가 대해(大海)에 넣어 버렸다. 결국 지관이었던 할아버지가 지기 자손을 살렸다는 전설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당리, 고여선(남·68) 제보.

3. 꼬부랑 나팔

옛날 호랑이 잡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꼬부랑나팔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나팔은 호랑이를 방지하는 신기한 것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금강산에 살았었는데 호랑이를 방지하려면 꼬부랑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것이 있어야 호랑이를 잡거나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할아버지는 나팔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관에 살았고 짐승은 깊은 산 속에 살았는데, 옛날에는 호랑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의 창문을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호랑이가 없었다. 제주도는 한라산의 골이 하나 모자라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고, 농남봉에는 '녹남'(녹나무)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냄새가 더러웠고 그 곁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에는 호랑이가 없는 것이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관에서 친척집에 가게 되었는데,
"할멈, 친척집에 장사났다고 하니 갔다 오겠소."
"조심하고 다녀오십시오."
"조심하지 않아도 내 잘 다녀 오지. 꼬부랑 나팔만 가지고 가면."
그리고는 장삿집에 올라갔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장사지내고 내려오게 되니 할아버지는 술에 만취가 되었다. 그리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그만 개천에 미끄러 넘어졌다.
그런데 마침 배고픈 호랑이가 그곳을 지나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호랑이는 옛날부터 술취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한다. 술이 깨어야 물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만취해서 코를 드르렁 거리면서 잠을 자는 중이었다.
호랑이는 꾀가 있는지라 배가 고프기도 하여 어떻게 술을 깨도록 하느냐 고심한다. 문득 호랑이는 재빠르게 뛰어 내달아 개천에 이른다. 그래서 물 속에 푹 들어서서 온몸을 적시고는 돌아와 할아버지 머리에 물방울을 뚝뚝 떨어지게 하였다. 할아버지는 비록 술이 취하여 잠이 들었으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니 차차 깨어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깨어나니,
'내가 술이 취해서 잠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웬 빗자루가 내 머리 위에서 흔드는가?'
이상히 여겨 눈을 더욱 크게 뜨니 빗자루가 아니고 짐승이었다.
'나는 이걸 방지하는 꾀가 꼬부랑 나팔이니 걱정할 것 없다.'
다시 호랑이는 물방울을 다 떨어지게 하고 다시 개천으로 달려 나간다. 물을 적시고는 또 달려온다. 그 동안 할아버지는 술이 깨어 정신이 맑아졌다. 이제 곧 호랑이 밥이 될 판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꼬리를 흔들흔들하며 물방울을 떨어뜨리다가 살피고 떨어뜨리다가 살피고 했다.
이때다고 할아버지는 꼬부랑 나팔을 쭉 빼어 가지고 호랑이 밑구멍으로 쑥 밀어 넣었다. 밑구멍으로 쑥 넣자 호랑이가 갑자기 겁을 먹게 된다.
어린애들이 하듯이 겁이난 호랑이는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누워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려다 도리어 내가 벼락을 맞아 밑구멍을 찔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도리어 도망하려 하는데 밑구멍이 뭉투툭하니 방귀만 뀌면 떨어지리라 생각했다. 도망하면서 방귀를 뀌려고 그 배에 힘을 주어 바람을 내보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호랑이는 결국 애를 먹어 쓰러진다. 스스로 지쳐 쓰러져 죽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구, 죽을 뻔했는데 살아왔지마는 꼬부랑 나팔을 잃어 버렸소."
"그것 보세요.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가서 꼬부랑 나팔을 잃어 버렸으니."
"그렇지마는 꼬부랑 나팔을 꼭 찾아야지."
"어떻게 호랑이 밑구멍에 넣은 꼬부랑 나팔을 찾을 수가 있겠소."
"그렇지 말고 나랑같이 가보지. 그러다 호랑이를 잡아 상이나 탈는지도 모르니."

할머니를 겨우 설득시켜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가면 호랑이에게 잡힐 염려는 없으니 가자."
하고는 가다보니 미처 친척집에 이르지 못함에 호랑이가 꼬부랑 나팔을 꼬리로 삼은 채 길가에 죽어 있었다.
"이것 보게. 꼬부랑 나팔은 내 것이니 찾아 가고, 호랑이 가죽은 나라에 바치면 우리 둘이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였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당리, 고여선(남·68) 제보.

4. 여우 이야기

옛날 서울에서 전라도 고창군에 군수를 보내면 보내는 대로 죽임을 당하곤 하여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군수를 보내면 가는 날 저녁 없어져 버리곤 하였으니, 서울에서 대감의 고민은 태산같았다.
그 무렵 어떤 노름쟁이가 노름을 하다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다. 할 수 없이 밥 먹을 길을 잃게 되자.
"에이, 고창군 군수나 지원하자."
하고는 군수를 지원하여 대감 앞에 당도한다.
"아, 고창군에는 군수를 지원해서 가면 없어지고 가면 없어지고 하는데, 네가 가면 자신 있느냐?"
하고 물은 즉
"예, 자신 있읍니다."
하니 이놈 참 대담한 놈이구나 하고 내심 기뻐하고 고창군 군수로 보내 주었다.
고창군에 당도한 군수는 방 안에 자기 부인을 앉혀두고는 밤에 고창군 군민들을 동원시켜 고창군을 포위하여 입초를 서게 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창군에는 밤만 되면 호랑인지 여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가는 형세였으니 그날 밤도 밤 자정을 알릴 무렵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치는 가운데 고창군 군수가 안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없어졌다. 포위시킨 군민들에게
"어떤 짐승이 사람 물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니
"전혀 보지 못했읍니다."
뇌성벽력하고 번개치는 줄은 알았어도 기척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 가만히 군수가 궁리를 해 보니, 뒷 터 앞에 백년이나 된 커다란 팽나무가 있는데, 구멍이 항아리만큼 뚫어져 있었다. 필연코 그 속에 짐승이 숨어 가지고 조화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군수는

고창군민들에게 숯공출을 할당시켰다.
"호당 숯을 몇 포씩 가져 들이라."
군수 명령이라 군민들은 숯을 갖다 바치고는 팽나무 아래 쌓아서 불을 놓기 시작했다. 회뿌연 안개가 팽나무를 온통 휩싸는 가운데 그 밑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니 몇 천년 묵은 여우가 우릉우릉하면서 홀딱 뛰어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제는 필연코 마누라가 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멍 뚫어진 모양을 보니 사람 들어갈 만큼한 구멍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마누라는 그 속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는 여우가 나타나거나 사람이 행방불명 되는 일이 없게 된다.
그 후, 군수 부인이 유태를 가졌는데 군수는 자기와 배합(配合)해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태어난 모습을 보니 암수 쌍둥이로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이는 여우였으니 군수는 너무나 당황하여 종놈에게 조용히 지시하기를,
"이놈을 어디에 버리고 오라."
고 한다.
그리하여 고창군 강가 모래밭에 이들을 버렸다.
그때 어선 한 척이 그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광풍(狂風)이 불어 그 배가 모래밭까지 밀려나 버렸다. 파도에 밀려나 모래밭에 이른 사공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묘하구나."
네 사람의 사공이 쫓아가보니 사람도 여우도 아닌 반짐승모양의 두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래서 한 동자가 그 놈들을 데려왔다.
그러자 문뜩 춘풍이 불어 배가 모래밭에서 내려와 무사히 항해하게 된다. 배주인이 이들을 삼개월간 기르니 얼만큼 큰 모양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자꾸 그 주인 옷을 물면서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등에 올라타니 서울 대감의 집에 이르는 것이었다. 대감 집에 이르러 마당을 빙빙 몇 바퀴 돌고 춤을 추고 하는데, 대감이 가만히 보아하니 여우등에 타고 다니는 것이 신기했다. 더구나 궁궐마당에 전부 입초를 세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니 대감도 한번 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참 타고나니 주인에게 내리라는 시늉으로 한쪽 구석에 가서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감이 주인을 불러 의자에 앉히고는
"너는 어찌하여 여우 타는 것을 배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전부 내력을 고했다.
"아, 그러하냐. 그러면 손해는 없는냐."
"예. 없읍니다."
"그러면 나도 타보자."
고 하여 여우등에 올라타니 서울장안을 돌아다니는데 대감이 여우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온 장안에 퍼진다. 그렇게 한바퀴 돌고 무사히 집에 온다.

그리하여 방에 들어가자 자기 주인에게 방석에 앉으라고 방석을 가르친다. 그 뜻인 즉 여우 자신의 아버지를 여기 앉게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드디어 주인도 좋은 벼슬을 얻게 된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고창하(남·75) 제보.

5. 다슴애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본부인이 죽자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다. 본부인도 딸이 하나 있었고 작은부인에게도 시집올 때 데려온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은 본부인에게서 난 딸에게는 콩을 섞어 밥을 해주고 자기가 난 딸에게는 팥을 섞어 밥을 해 주었다. 그러자 본부인 딸은 얼굴이 고와지고 작은부인 딸은 맛좋게 팥만 놓아서 밥을 해주나 얼굴은 반대로 미워진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은,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자기가 난 딸보다 본부인 딸을 저렇게 잘 돌보다니, 저 얼굴 좀 봐. 본부인 딸은 저렇게 고운데, 자기딸은 저 모양이니."

딸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다. 큰딸이 얼굴도 예쁘고 하여 약혼을 하고 부자집으로 시집 보낼 날이 다가오자 계모는

"애야 외가(外家)에 가서 인사나 하고 오너라."

하고 외가로 보내고서는 그대신 자기 딸은 큰딸로 속여서 시집을 보낸다. 시집에서는 작은 딸 얼굴을 보고 곱지가 않음을 이상히 여긴다. 그러나 신랑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으나 시집 식구들은 시집에서 사 간 신을 신지 않고 다른 신을 신고 온 것을 보고서는 더욱 의심하는 마음이 짙어진다.

"아가, 우리가 사다 준 신은 어떻게 하고 이 신을 신었느냐?"

"예. 그 신은 동생 주고 동생 신을 대신 신고 왔읍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또 시집에서는

"그러면 네가 형이냐? 동생이냐?"

하고 묻는다.

"저가 형입니다."

"그러면 왜 신을 바꿔 신었느냐?"

"동생이 그 신이 매우 예쁘다고 하기에 탐이나서 동생에게 주고 저는 동생 신을 신었읍니다."

시집 식구들은 그런가 하여 몇 년을 지내게 된다. 사돈집에 일을 보러 시집 식구들이 갔는데 큰딸은 그냥 있고 계모의 딸이 시집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남이 알면 웃을 일이로다."

시집에서 그만 며느릴 내쫓아 버렸다.

오랜 출타에서 되돌아 온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몸져 눕게 되고 마침내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또한 작은 부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자 시집에선 큰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아 행복하게 살았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서계생(여, 75) 제보.

6. 자청비와 문국성도령

자청비가 하루는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마침 문국성 문도령이 서울 공부하러 이곳을 지나다 빨래하는 아가씨를 발견하고는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아가씨, 물 좀 주시오."

자청비는 물바가지에 물을 떠서 곁에 있는 버드나무 잎사귀 몇 개를 떨어뜨리고서 문도령에게 주는데 버드나무 잎이 떠서 물을 잘 마실 수가 없자,

"아가씨 얼굴과 속이 다르군요. 이렇게 나뭇잎을 넣다니요?"

"아이고, 도련님. 급한 길을 가시는 것 같아 물을 드리면 급히 마셔 체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잎을 피해 마시면 체가 안나고 물맛이 더욱 좋습니다."

문도령은 감탄하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떠나려고 하자 자청비가

"도련님, 우리 오빠도 서울 글공부를 하러 가려던 참인데 벗이 없어 못가고 있으니 같이 가심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자 자청비는,

"여기서 좀 기다리시면 오빠를 보내지요."

하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님, 아버님. 저 서울 글 공부하러 가겠읍니다."

"계집애가 당치도 않다. 시끄럽다."

하고 꾸중하자 다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어머님. 저 서울 글 공부가겠읍니다."

"계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구나. 서울 글 공부 어인 말인고. 못간다."

자청비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오빠방에 들어가서 남복(南服)을 하고 물가로 가서 보니 그때까지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도령은

"남매야 비슷하지만 얼굴이 아까 처녀와 너무 닮다."

고 의심하며 자청비 오빠냐고 물었다.

"예,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다를 리가 있겠읍니까? 우리 형제는 특히 더 닮습니다."

서울에 와서 글 공부를 하는데 문도령보다 자청비가 더 우수했다. 방 한칸을 같이 사용했는데 밤에 잘 때는 이불로 경계를 정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자청비가 문국성도령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우리는 남자인데 오줌싸기 내기를 하세. 누가 더 멀리 싸서 기와집 열두거리를 쉽게 넘기느냐 말일세."

"그렇게 하시죠,"

하고 자청비와 도령은 시합을 했다. 자청비는 대불통을 대고 오줌을 싸니 열두거리를 쉽게 넘겼다. 그러나 문도령은 그냥 오줌을 눕게 되니 넘길 수가 없게 된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구나."

하고 문도령은 생각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자청비는,

"문국성도령아, 연삼년을 글공부 같이 해도 남자, 여자를 구별 못하는 문도령아, 나중에 오시오. 나 먼저 내려 갑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먼저 내려오게 된다.

돌아온 자청비는 부모들의 혼약에 따라 시집을 가게 되었다. 마침 그때 문도령이 글공부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데 자청비가 시집가는 것을 보고서는 실의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온 문도령은 차일피일하다 결국 상사병으로 죽게 된다.

자청비 역시 문도령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는

"도련님, 당신은 저 때문에 죽으셨군요."

하며 슬퍼한다. 그리고서는 자청비는 삼년동안 명주치마를 간장에 적셔 햇빛에 말리는 것을 되풀이하여 치마의 색이 바래지자 하루는

"서방님, 우리 친청에나 다녀옵시다."

하고서는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 문도령 무덤을 지나게 되었다. 자청비는 땅을 치며

"문국성도령아, 혼이나 있거든 무덤이나 열게 하소, 이 세상에서 우리 함께 못 살았으니 저 세상에 가서라도 같이 삽니다."

하고 울부짖는데 그때 무덤이 가운데로 갈라지면서 자청비는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치마를 잡아당기는데 치마가 찢어진다. 자청비가

"이 치매자락으론 흑나비가 되라. 백나비가 되거라."

하자 찢어진 치마가 흑나비, 백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그래서 나비는 자청비 치맛자락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서계생(여 · 75) 제보.

7. 만석공 김부자와 삼족개

천석, 만석하는 만석공(萬石公) 부자(富者)가 있었다. 삼대째 물려오는 수 천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 속에는 천년을 산 쥐가 있었다.

하루는 만석공 부자가 외출한 사이에 쥐가 변색(變色)해 가지고는 여우가 된 후 그 여우는 다시 주인으로 변해 주인 행세를 했다. 아들은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잠시후에 외출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변색한 여우가,

"당신 누구요?"

"나 이집 주인이요."

"이집 주인은 나요."

모습이 똑같으니 아들이나 부인은 어느쪽이 참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만석공 김부자가 쫓김을 당해 집을 나오게 된다.

김부자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동냥질을 하면서 삼개월 가량을 지내게 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삼족개(三足犬)를 바다에 버리려고 안고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만석공 부자는,

"어디 가십니까?"

"이 개를 버리러 갑니다. 사족(四)이 돼야 할텐데 삼족이니 쓸데 있어야죠."

"허, 그거 저를 주십시오."

주인은 얼른 삼족개를 만석공 김부자에게 주었다.

김부자는 삼족개와 벗하여 동냥질을 계속하는데 삼족개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삼족개가 만석공 김부자의 옷자락을 자꾸 물어 잡아당기며 그의 원래 집으로 가는 것이었다. 대문간에는 하인들이 집을 지키며 있었다.

"웬 사람이오?"

몇 개월의 거지생활로 김부자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고 그 때문에 하인들은 주인을 알아 볼 수가 없었다. 삼족개가 종놈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만석공 김부자를 앞장서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밥 한술 주시오."

하녀가 밥을 가져왔다. 개도 주고 자신도 먹었는데 주인이 안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전혀 없었다. 만석공 김부자는

"이 강아지 좀 보시오. 사족이 아니라 삼족인데 참 이상한 강아지요. 이게 내 벗입니다."

거짓 주인은 기분이 언짢아 있었는데 마침 하인들이,

"삼족개는 보질 못했는데, 삼족개 데린 거지가 있으니 삼족개를 구경하십시오."

"삼족개?"

그래서 주인은 삼족개를 구경하게 된다. 그때 삼족개는 거짓 주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뜯었다. 그러자 거짓 주인은 쥐로 돌아가면서 땅에 쓰러져 죽게 된다. 만석공 김부자는,

"아, 이 쥐를 아버지라고 칭해서 데리고 살았느냐? 내가 아버지다."

부인이나 아들들은 너무나 뜻밖의 사실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쥐가 환생해서 여우가 되고 여우가 김부자로 변했으나 삼족개가 은혜를 갚아 쥐를 물어 죽여 만석공 김부자가 원 주인 노릇을 하며 잘 살았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고창화(남·75) 제보.

8. 남선비와 노일저대

아들 일곱 형제와 부인을 둔 남선비가 남의 일을 하러 가서 삼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 일곱 형제는 어머니께 하는 말이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를 찾겠읍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찾겠니?"

너희들 일곱형제가 신 한 켤레씩만 만들어 주면 내가 가서 아버질 찾아 오겠다. 어머니는 신 일곱켤레를 허리에 차고 해변가를 돌면서,

"남선비님, 남선비님, 죽었으면 꿈에나 현몽(現夢)하시고 살았으면 편지나 한 장 하시오."

신 일곱켤레가 모두 다 닳도록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돌아와 아들들에게,

"너희들 신 일곱켤레를 삼아 주었다마는 너희 아버지 행방을 찾을 수 없구나."

"어머니, 우리가 배를 만들어 드릴테니 아버지를 찾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자."

일곱 형제는 나무를 베어다가 열심히 배를 한척 만들었다.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나선 어머니가 한참을 가다 어떤 섬에 당도하게 된다. 거기에는 어떤 기장밭에 새를 쫓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가 지나가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요새 저새 너무 약은 꾀 말아, 남선비 약은깐에도 거적문 외돌쩌끼에 눈물 흘리면서 신을 삼고 있더라."

이렇게 부르면서 새를 쫓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애야, 금방 무슨 말을 했지? 또한번 말해주면 고운 댕기, 고운 구슬을 주지."

"저 아무말도 안했읍니다."

"아이고, 아가야, 이번 한번만 그 말을 해주면 내가 고운구슬과 댕기를 주지,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주렴."

"저 뭐라고 안했어요. 남선비 약은깐에도 거적문 외돌쩌귀에 눈물 흘리면서 노일저대 꾀

임에 들어 신 삼고 있다고, 단지 이 얘기만 했어요."
"아기야, 그집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느냐?"
"여기로 계속 가시면 그집이 나옵니다."
찾아가서 보니 남선비는 외돌쩌귀 오막살이에 앉아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신을 삼고 있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잘 곳이나 빌려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집은 그럴 곳이 없읍니다."
"어느 사람은 집을 등에 지어서 다닙니까?"
"아무 것도 빌릴 형편이 못되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합니다."
"그러면 마루라도 빌려 주십시오. 밥도 달라고 않을 것이오. 쌀도 달라고 않을 것이요, 이날 밤이나 새고 가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부인은 부엌에 가서 한쪽 솥을 열어 보니 쌀밥 누렁지가 있어서 삼 수세미로 솥을 깨끗이 닦아 쌀밥을 해서 남선비에게 갖다 드렸다. 노일저대가 한쪽 치마통엔 쌀, 한쪽엔 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잘 모르는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아이고, 잘 하고 있읍니다. 괜찮읍니다."
남선비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전에는 이런 밥을 먹었건만."
"저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오."
"저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때 남선비느 눈이 번쩍 뜨인다.
"어인 일이요?"
이제 두사람은 만난 것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올 차비를 차렸다. 노일저대는 이것을 보고,
"저도 형님 따라가서 아궁이에 불이라도 지피며 끼니라도 얻어 먹을까 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세사람은 같이 돌아오게 된다. 연못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형님 여기서 목욕이나 하고 가시죠. 병도 없어지고, 아무 해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네부터 하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읍니다. 형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먼지 합니까? 어서 옷 벗으세요. 등에 물을 놓아 드리겠읍니다."
노일저대는 형님 대접을 하며 상냥하게 표정을 지었다. 큰부인이 옷을 벗고 등을 내밀자 노일저대는 이때다 하고 등을 밀쳐 연못으로 빠뜨려 버렸다.

노일저대는 큰부인 옷으로 갈아입고 큰부인인 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남선비아들 일곱 형제는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돌아온 것을 보고서는 기뻐하지만 어머니의 거동을 의심한다.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이지만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애들아 말도 말리. 너희 아버님을 찾다가 가슴에 불이 들어 마음이 어정쩡하게 되어버려 어머님 닮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곱 형제는 어머니 문 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읍니다."

열쇠를 주면서 문을 열도록 하자 이쪽 문에 가서 와당탕, 저쪽문에 가서 와당탕 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다.

"저것 봐,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게 틀림이 없어."

"아이고, 내 가슴에 화들어서 정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 밥상 차려 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을 하여 밥상을 보는데 아버님께 놓을 상을 자식에게, 자식에게 놓을 상은 아버님께 뒤죽박죽이 되었다.

"저것 봐, 우리 어머님이 분명히 아니야."

노일저대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꾀를 생각해 내었다. 하루는 노일저대가 이리저리 방구석을 돌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배야. 뒷밭에는 키를 쓰고 점치는 중도 있건만 영감도 망령이지."

남선비는 노일저대의 아프다는 소리에 뒷밭으로 점치러 갔다. 아닌게 아니라 그곳에는 키를 쓴 늙은 중이 있었다. 노일저대가 지름길로 달려가 변장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 아파 점치러 왔읍니다."

"아들 일곱형제 간을 내먹으면 되겠어."

남선비가 그 말을 듣고 터벅터벅 돌아올 때 노일저대는 지름길로 이미 방에 들어와 있었다.

"아이고, 배야, 뭐라 얘기했소?"

"아들 일곱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병이 나을 거라고 하더군."

"아이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애들 간을 내먹겠읍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야 해요. 그럼 다시 점이나 쳐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다보면 키 쓴 늙은 중이 앉아 있읍니다."

남선비가 찾아가는 동안 노일저대는 이미 와서 키를 쓰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 목소리도 모르고 다시 물었다.

"아들 일곱형제 간을 내먹어야 낫겠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도 소용없는 병이요."

남선비는 돌아와서 다시 노일저대에게 말하자 더 죽어가는 시늉을 했다. 남선비는 수심에 잠겨 있노라니 작은 아들이 뛰어와서 손목을 잡으며,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의 어머니가 아파서 너의 형제들 간을 먹으면 낫겠다고 하는구나. 투창을 구해서 오려므나."
"아버님, 아버님은 가만 계십시오. 제가 왕대쪽으로 형님들 간을 내어 오겠읍니다. 조금 병이 나아지면 저의 간마저 내어 드리겠읍니다."
아버지는 그러라고 허락했다.
작은 아들은 산중으로 가다보니 점장이가 있어 사정얘기를 했다. 점장이가 답하기를,
"어머니 신령으로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온다. 그중에서 여섯은 간을 내고 하나는 나둬라."
막내 아들이 올라가니 보니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여섯 개 돼지의 간을 내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간을 내어 왔읍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아이고, 내가 너앞에서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저쪽으로 가야 먹을 수 있지."
막내 아들은 비켜서서 창문에 침 발라 구멍을 뚫어 노일저대가 하는 행동을 살폈다. 노일저대는 손으로 피를 입에다 복복 바르고 간을 먹지않고 이불속으로 숨기는 것이었다.
"아이고, 하나만 더 먹었으면, 아이고, 배야."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지켜본 막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어머님 머리에 이나 잡아두고 죽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디 중병(重病)든 사람 머리에 이를 잡느냐?"
"그러면 이부자리라도 걷어두고 죽고 싶습니다."
"어디 중병 든 사람 자리를 치우느냐?"
그러자 어머니 머리 채를 휘여잡아 내동댕이를 쳤다.
"아버님, 들어오십시오."
남선비가 들어오다가 문에 있는 큰 못에 걸려서 죽고만다. 그래서 남선비는 문전(門前)할아버지가 되고, 형들은 큰 어머니가 빠져죽은 연못으로 달려가 건져낸 후 꽃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함께 살다가 죽었는데 어머니는 조왕할망이 되고 노일저대는 죽어서 머리 돼지통, 양다리는 지들낭이 되었다. 그래서 변소에 있던 것은 부엌에 올 수가 없으며 부엌에 있던 것은 변소에 가져 가지 못한다는 금기가 생겼다. 큰부인과 노일저대는 처첩관계이기 때문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강상대(여·75) 제보.

9. 보재기

옛날에는 어부를 상놈으로 취급했었다.
한 어부가 아들을 하나 두고 고기를 낚아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간곤(艱困)하게 살고 있

었다. 그런데 아들을 서당에 보내려고 하니 상놈이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양반의 후생들이 글 읽는 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그의 아들놈이

"아버지 저도 서당엘 보내 주십시오."

하고 서당 가기를 원했다. 다음날 아버지와 아들은 서당엘 찾아가서 학생으로 받아줄 것을 간청한다. 빌기를 계속해서 사흘째 되던 날에야 서당선생은 방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고?"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제 자식놈인데 글을 읽겠다고 하도 떼를 쓰기에 이렇게 왔읍니다."

선생은 그전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냉방에서 혼자 앉아 글을 읽도록 하여라."

"예 좋읍니다."

그 이후로 어부의 아들은 서당엘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워낙 머리가 영리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뿐 양반의 후생들 가르치는 것을 귀넘어로 들어서는 곧 외우곤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양반의 후생 수두(首頭)와 친해졌다.

과거시험 일자가 다가오자 그는 양반의 후생들에게 부탁을 했다.

"나는 과거를 볼 뜻이 없고 다만 서울 구경이나 하고 싶은데 같이 데려가 달라."

"아 그렇게 하자."

그리하여 함께 서울을 가게 되는데 양반의 후생들이 과거시허을 함께 보게 했다가는 자신들이 떨어질 것만 같이 여겨졌다.

"어떻든 우리가 이놈을 여기서 떨어버리고 가자."

하고 합의를 한 후 한 꾀를 생각해 내었다.

"노상(路上)의 큰감나무에 감을 따서 오게 하자."

"그래. 그러는게 좋겠어."

뒤어 떨어져서 오는 어부 아들에게,

"이 감나무 감을 따올 수 있나? 내가 굽고 내 죽지 위에 올라가서 이 감나무 감을 따먹고 가자."

양 반의 후생이 굽고 어부의 아들은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땄다. 딴 감을 떨어뜨리자 양반의 후생들은 호주머니랑 손에 가득 쥐어 그만 길을 떠나 버리고 어부의 아들만 나무에 혼자 남겨 둔다. 뛰어 내리면 다리가 다칠 것 같고 해서 감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양반의 후생들은 불쌍한지, 다시 되돌아와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고 함께 서울을 향했다.

가다가 보니 화단(花壇)에 물 주는 녀가 있었다.

"애 저기 꽃밭에 물 주는 처녀가 보이느냐?"
"보입니다."
"저 꽃밭에 가서 너 용감히 그 처녀하고 입맞춤하고 돌아오면 서울 같이 데려가마."
"아, 그거 어렵지 않읍니다."
어부의 아들은 꽃밭에 들어가 사정을 얘기하고 입맞춤을 허락받는다. 그래서 양반 후생이 멀리서 보이도록 입술을 맞춘 후 처녀와 이별을 하고 빗을 하나 징표로 받는다.
"나를 잊지 마시오."
어부의 아들은 빗을 받고 돌아왔다.
"아 너 용기가 대단하다."
하며 서울로 같이 동행해 주었다.
서울에 온 어부의 아들은 양반의 후생들과는 다른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부의 아들은 대감한테 편지를 보내어서,
"과거보러 와서 아무 여관에 있으니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한다.
양반의 아들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과거시험에 응시한다. 따로 연락을 받고 어부의 아들은 과거에 입찰(入札)이 되어 급제하였다.
한 정승이 어부의 아들을 보고 상놈인 줄도 모르고 영리하게 생겨서 셋째 딸의 사위를 삼았다. 셋째딸과 살림을 차려 식사도 해주고 세숫물도 떠주고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된다. 정승은 사돈 얼굴을 몰랐으므로
"아버님을 여기로 오시도록 할 수 있느냐?
"예. 있읍니다."
"그러면 사돈대우를 해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
어부의 아들은 편지를 해서 올라 오시도록 했다. 아버지는 글을 아는 사람에게 가서 편지를 보이고 편지 내용을 안 후 주행(走行)으로 서울을 가기로 했다. 돈 몇푼으로 남의 옷을 삯내 입고 서울 아들 주소로 찾아가서 보니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있었다. 사돈을 만난 대감은 실망했지만 이미 딸은 어부의 아들과 부부간이 되었기에 어찌 할 수가 없다고 여겼다. 이 며느리는 시아버님 봉양을 잘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고창화(남·75) 제보.

10. 삼태성

어느 양반 집에 양반이 외출하고 딸이 집을 보고 있는데, 한 중이 시주를 얻으러 왔다.
"시주하시오."
시주하러 나온 아가씨가 몹시 예뻐 한눈에 시주 받으러 온 중은 마음이 설레었다. 딸이

탐이난 중은
"아, 오늘은 아 집에서 자루를 가득 채워 주어야 나가지, 가득 채워 주기 전에는 못 나가겠소."
한다. 딸은 그 자루를 채우려고 계속 쌀을 갖다가 부어도 자루는 차지 않았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졌다.
"이제는 춥고 어두워 가지도 못하고 하니 부엌이라도 빌려 주시오."
부엌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니
"아니고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소. 저 아가씨 방 병풍 뒤라도 좀 빌려 주시오."
하고 간절히 사정하는 것이었다.
마음씨 고운 아가씨는 할 수 없이 빌려 주게 되는데 그만 그날 밤 아가씨와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유태를 하니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는 화를 낸다.
"양반 가문에 이런 불륜행위를 하다니 가문을 망치는구나."
하고는 종에게 명하여
"내쫓으려한들 수치스러우니 저 마당 가운데 나가서 목을 베어라."
칼로 목을 베려하지만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면 어느 새 칼이 부러져 버리고 다시 새 칼을 갖다가 내리치려하면 부러져 두동강이 나곤 하였다. 세차례를 반복해도 칼만 부러질 뿐이니
"그러면 저 도끼를 가져다가 목을 베어라."
한다.
도끼자루를 높이 들어 탕 내리치니 이제는 도끼자루가 부러지는 것이었다. 역시 목을 벨 수가 없었다. 이제는
"마당 한가운데 큰 우물을 만들어라 깊게 파서 살아있는 그대로 묻어버려야지 어쩔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깊은 우물 속에 딸을 묻어 버렸다. 한편 그 우물 가운데 갇힌 딸은 아들 세 형제를 낳아 글을 가르치며 그 중의 도움으로 살아 나간다. 몇 달이 흐르니 아버지는 종에게 명하기를
"시체를 갖다가 묻어야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우물을 파서 시체를 꺼내라."
우물을 파보니 불이 훤히 켜지고 아기들 삼 형제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다.
"우물 속에 불이 켜지고 삼 형제가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놀란 아버지는 그 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어찌하여 죽지 않고 살아 있느냐?"
"그 중은 중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인데, 우물 속에 갇히니 식량도 갖다 주고 아기들 옷도 갖다 주며, 아이들 책도 갖다 주고, 붓도 갖다 주고 해서 이렇게 살고 있읍니다."
"아 그러면 그 중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로구나. 신으로 비추어 다녔으니 그러면 다시 찾아 오거든 나에게 이야기하여라."
얼마후 우물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중이 왔읍니다."
한다. 아버지가 찾아가 보니 시주 받는 중이 서 있었다. 중이 말하기를
"제가 혼례를 치르지 않고 빛으로 비쳐 이렇게 되었으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이니 이 자식들은 죽으면 이제 삼태성 별이 될 것입니다."
"삼태성 별이 되면 올라올 때는 가지런히 올라오고 밑으로 지어 갈 때는 나란히 세 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 이제 그 아버지는
"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같이 살아라."
하고는 그 사람과 혼례식을 치러준다.
후에 아기들이 다 자라서 살다 죽으니 삼태성 별이 되었다. 그러니 그 별이 올라올 때는 나란히 세 개가 올라오고 또 지어갈 때는 나란히 지어가는 것이다.

북제구군 한경면 용수리, 서계생(여·75) 제보.

11. 북두칠성

북두칠성 어머니가 아들 일곱 형제를 낳아두고 과부가 되었다. 과부가 된 어머니는 아들 일곱 형제를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들이 매일 나무를 캐어다가 불을 지펴도.
"아이구 춥다. 아이구 춥다."
한다.
매일 같이
"발만 시렵다, 발만 시렵다."
하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들을 놉혀 두고 어디를 가는 것이었다. 큰 아들이 이상히 여겨 어머니 가는 자취를 따라갔다. 뒤를 따라가 보니 그 내를 건널 때 발을 적셔야 갔기 때문에 "춥다, 춥다"한 것이었다. 그 내를 건너 저편 초가 오막살이 집에 짚신을 삼아 팔면서 살

아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가면
"빨리 어서 오라."
하고 반갑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먼저 돌아온 아들은
"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했구나."
생각하고 잠자는 여섯동생을 모두 깨워 돌을 날라다 그 밤중에 내를 막고 돌다리를 만든다.
한편, 어머니는 돌아오다 보니 돌다리가 놓여 있어 발을 적시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이 되어도 발이 시렵다고 아니하고 그대로 잠드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그 밤중에 내 발을 적시지 않고 춥지 않게 건네준 돌다리를 만든 사람은 죽거든 남두칠성이나 북두칠성이나 되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였다.
일곱 형제는 성장하여 잘 살다가 죽으니 저 세상에 가서 북두칠성이 되었다.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서계생(여·75) 제보.





第 5 章

南濟州郡傳說



해뜨는 石山 城山日出峰

日出峯은 南齊州郡節 城山邑婦 城山里岩의 城山半島의 中心을 이루는 높이 192m의 石峰으로 火山의 噴出에 의해 形成된 噴火口로서 本道에서는 山房山 等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寄生火山의 하나이다. 噴火口의 外側은 長久한 期間 强한 海風 等에 의해 奇岩絶壁을 이루고 있으며, 噴火口이 內側은 넓이 2.64㎢의 草原으로 平地를 이루고 있다. 噴火口 안은 옛부터 城山里民의 燃料와 草家지붕을 이는 띠, 억새 等의 採草地로서 利用되었고 放牧地로서도 쓰여져 每年 火入을 하였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없고 억새, 띠 等의 群落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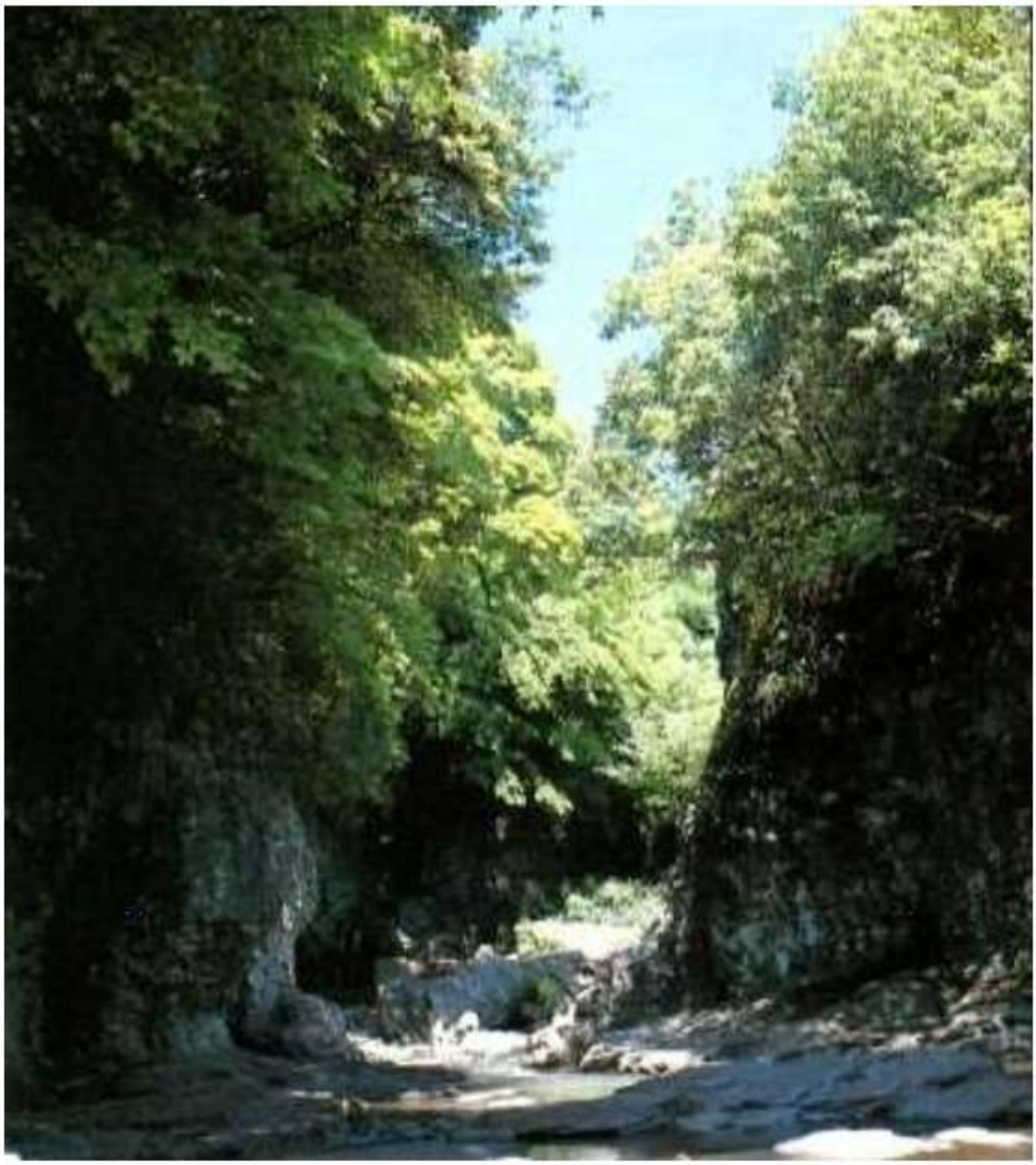
日出峯은 옛부터 瀛州十景의 하나인 城山日出로서 더욱 有名하며 稀貴植物인 풍란(Neofinetia facata(Thunberg Hu-Epopactis facata(non swartz) Chung)의 自生地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은 절벽 벽면에 소수가 남아있을 뿐이다.



山房德의 넋이 깃든 山房山

山房山은 本道의 西南端인 和順港 서쪽에 位置하는 海拔 395m의 粗面岩이 突出된 火山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山의 아랫쪽에는 火入이나 人爲的인 간섭에 의하여 숲을 이루지 않고 있으나 頂上 쪽에는 울창한 暖帶林이 原始林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岩壁에는 稀貴한 岩壁 着生植物들이 自生하고 있어 學術研究資源으로 保護하고 있다. 이곳의 重要한 岩壁植物로는 지네발란(Sarcanthus scoropendriformis makino), 풍란(Neofinetia falcata Hu) 석곡(Dendrobium mon ilforme Swartz) 等이며 특히 지네발란은 우리 나라에서 이곳에만 自生하고 잇는 稀貴植物이다. 過去에는 풍란, 석곡 등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山의 頂上 쪽에는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생달나무(Cinnamomum japonicum sibold), 육박나무(Iowoste lanciflia blum), 겨울딸기(Robus buergeri miguel) 等이고 暖帶林의 極盛相을 이루고 있으며 돈나무, 가마귀쪽나무 等 海岸植物이 分布하는 곳이다. 특히 山房山은 本 道唯一의 섬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Var insularis naxai ex Kawamoto) 自生地로 알려져 있으나 관상가치가 높아 滅種危機에 있다. 이 山의 南側에 位置한 山房窟寺는 觀光名所로 觀光客들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絶壁이 병풍 두른 安德溪谷

安德溪谷은 南齊州郡 安德面 和順里 東쪽 2km 地點, 一周道路邊에 있으며 粗面岩으로 形成된 溪谷의 兩岸은 奇岩絶壁으로 병풍과 같다. 溪谷의 밑바닥은 평평한 岩盤으로 깔려 있으며 그 위를 맑은 물이 항상 흘러서 觀光名所로 알려진 곳이다. 이 溪谷의 兩側에는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감탕나무(Ilex integra Thumbergvar fypica Maximowicz), 조록나무(Distylium racemdsum siebold lx & zuccarini var typicum Makai), 가시나무(Cyclobalanopsis myrsinaefolia Derstedt)類 等 暖帶樹木의 古木으로 울창하게 덮혀 있으며, 남오네자(kadsura japonica Dcmal), 바람등칡(Piper hadsura Ohwi), 백향금(Blaolhia lemtiginese Nakai for typica Nakai) 等이 下層植生을 形成하고 있다.

特히 이 溪谷에는 稀貴食物인 담팔수와 상사화(lycoris squamigera Maximowicz) 等이 自生하고 있어 保存이 잘 되어 있는 暖帶林의 原始林으로 價値가 높아서 天然記念物로 指定되어 있다. 이곳에는 300餘種의 植物이 分布하며 特히 羊齒植物이 많이 있는 것이 特色이다.



神人들이 婚禮올린 **婚姻池**

三姓穴에서 솟아난 세 神人이 碧浪國의 三公主 맞이하여 婚禮를 擧行했다는 곳(池)이다.

아득한 옛날 태어난 三神은 狩獵과 漁採로 生活을 일삼고 있었다. 하루는 東쪽 바다 위에서 五色이 찬란한 木函이 떠오른 것을 發見하고, 木函을 물으로 꺼내어 뚜껑을 열었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箱子가 있었고, 箱子속에는 15~16歲 가량의 處女 三人이 있었다. 이들은 곧 碧浪國 皇帝 딸들로서 天王께서 毛羅國에 훌륭한 세 神人이 配匹을 求하고 있으니 그 곳에 가서 配匹이 되라하고 五穀의 씨앗과 家畜을 함께 보내 주셨다 하고 自己들을 지어미의 道理만 아니라 毛羅國에서 千秋萬代의 榮華를 누리고자 하옵니다 하고 공손히 人事를 하였다.

세 神人은 이들을 데리고 이곳 婚姻池에서 목욕을 하고 婚禮式을 올린 後 부터 農耕과 牧畜生活이 始作되었다고 한다. 當時 三神女가 담긴 木函이 發見된 곳은 俗稱 "쾌성개"이며 漂着한 海岸을 "황루알"이라 하는데, 지금도 황루알에는 三人이 바닷가에서 처음 디딘 발자욱이 岩盤에 아련히 남아 있다고 한다.

大靜邑篇

Ⅰ. 自然傳說

1. 산방굴사 약수물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 높이 솟아오른 종모양의 산방산 중턱에 산방굴이 있다. 이 굴안에는 산방굴사가 있는데, 굴천정에서는 지금도 약수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옛날부터 자식없는 사람들이 산방굴사를 찾아와서 자식낳게 해달라고 '수룩'(祈子儀禮)을 드렸었다. 약수물은 꼭 세방울씩 떨어지는데, 나무통을 만들어 물을 받고 있다.

수룩 드리러온 사람이 셋이면 세 사람이 굴안에서 그 물을 먹고 메를 해서 올리고 했는데, 아들을 낳을 사람에게는 약수물이 부족하질 않았고, 딸을 낳을 사람에게는 물이 부족했다고 전한다.

지금은 시멘트로 물통을 만들어서 윗통이 가득차면 아래통으로 넘치게 만들어 있다.

지금도 떨어지는 산방굴사의 약수물을 산방덕이란 여인이 흘리는 눈물이라 한다. 산방덕의 남편은 고성목으로 화순리 사람이었는데 큰 부자로 살았었다. 고성목이 원래 부자여서 산방덕이를 첩으로 맞아들여 살았다.

옛날부터 제주도는 과수나무가 있어 그 열매를 진상품으로 조정에 진상하곤 했었다. 고성목에네 과수원은 바로 산방산 옆에 있었는데 아주 넓고 과수나무도 훌륭히 자랐었다. 과수원에는 할 일이 많아 머슴들을 백여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았다. 식사를 백여명이 동시에 하더라도 숟가락이 부족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산방덕 여인의 재산복과 노력 덕분이었다. 그런데, 산방덕이 고성목과 인연이 다하여 산방굴사에 들어가 죽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산방덕이 평

범한 사람이라면 죽은 시체라도 있어야할 것인데, 시체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으니, 그건 도깨비 같은 산방산신의 딸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산방덕이가 산방굴사에 들어가 죽어버린 후에는 고성목 집안도 망했다 한다. 산방굴사에 들어가 죽으니 산방굴사 약수물이 산방덕이 다하지 못한 인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2. 형제섬(쥐섬)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앞 바다에 두 개의 조그만 바위섬이 서로 다정히 쳐다보며 서 있는데, 이 섬들이 바로 형제섬이다. 예부터 이섬에 쥐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쥐섬이라고도 한다.

형제섬에 떼를 지어사는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 백마리를 가져다 놓는다 해도 고양이는 살 수 없었다. 그것은 쥐가 수만 마리나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잡아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4·3사건 당시 형제섬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경험한 일이다. 쥐가 아주 들볶으니 큰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 부엌에 풀어놨다. 그런데 밤이 되자 고양이가 마구 날뛰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부엌문을 열고 살펴보니 수십마리 쥐가 달려들어 한 마리의 고양이를 뜯어먹으려 하고 있었다. 4·3사건 때 이런한 일로 제주도의 고양이가 멸종할 뻔 했다고 한다. 쥐가 너무 많아 먹을 것이 부족한 까닭에 쥐들은 고양이가 자신들의 먹이를 다 먹어 버릴까 염려해서 고양이에게 덤벼들어 고양이를 죽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형제섬에는 쥐가 많다고 한다. 낚시꾼들이 형제섬에 들어가서 고기를 낚아 올릴 때면 쥐들이 낚시대에 매달려 오르는 고기를 따라 치달아 올라 끊어먹을 정도라 한다.

현재는 형제섬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형제섬에 그렇게 쥐가 많은 것은 마주보며 서 있는 형제섬 바위의 형태가 쥐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섬에 사는 쥐들은 바닷가에서 소라를 잡아먹고, 풀뿌리를 파먹으며 산다고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3. 대정원 팡돌

옛날 대정읍 보성리(大靜邑 保城里)에는 대정원(大靜員)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 보성국민학교 자리가 동헌청(東軒廳)이 있었던 곳이다. 일제시대에는 동헌청 자리에 대정면사

무소가 있었다가 화재로 불타버렸다. 상창터였던 곳은 주재소를 했었는데 소화 6년 사무소와 함께 모슬포로 옮겼다 한다.

옛날 대정원 시절, 대정원에 부임하는 현감들은 임기를 마치고 상경하면 정승도 할 수 있고, 더 높은 벼슬자리도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제주원가 정의원에 부임한 관원들은 진급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원인이 풍수지리설적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대정원에는 팡돌(빨랫터가 되거나 등에 진 짐을 잠깐 내려쉬는 터로서 보통 넓적한 돌로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대신(大臣) 올라가는 팡돌이라고도 불리는데 제주원과 정의원에는 팡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원, 정의원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힘이나 권리가 없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육지부 큰 양반가문의 자제들도 대정원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한다. 대정원에 부임하면 임기가 4년이나 2년이상은 지내질 않았다. 2년만 되면 모든 관원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직위로 진급하곤 했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4. 오찬이궤

<오찬이궤>는 대정읍 무릉2리 들에 있는 조그만한 석굴로, 오찬이가 살았었기 때문에 <오찬이궤>로 불리고 있다.

오찬이는, 힘이 세어 방목하는 소를 마구 잡아먹었다는 도적 막산이보다는 힘이 좀 약했으나 머리는 오히려 뛰어났다. 그런데 오찬이도 막산이처럼 도둑질을 했다.

오찬이는 식량이 넉넉한 민가에 들어가서는 곡식을 훔쳐갔고, 또 돌아다니다 면화등도 도둑질하고 했었지만 막산이는 소 같은 짐승만 잡아먹었다.

그런데 정운디라는 사람이 막산이를 잡자 대정현청에서는 정운디를 불렀다.

"막산이를 잡았으니 오찬이도 잡을 수 있느냐?"

"오찬이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찬이는 전부터 삼십명쯤 부하들을 무장시켜 두었다. 무기는 일제시대에 쓰던 조총과 비슷한 것으로 심지를 꿰고 총구에 불을 붙이면 팡팡 소리 내며 쏘아댈 수 있는 것이었다. 오찬이가 무장한 부하들과 마을에 들어가서 총을 쏘아대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 버리면 물건들을 털어가곤 했다.

바로 산적이나 불한당처럼 도둑질을 한 것이다. 또한 중궁의 마적단과 흡사했다.

드디어 정운디가 오찬이가 사로잡기 위해 오찬이 무리가 사는 굴을 찾아갔다. 불쑥 나타난 정운디를 보고 오찬이는

"어떻게 해서 오랏느냐?(왔느냐)"
"흉년이 들어 얻어 먹으며 살아갈 방도가 없어 당신 심부름이나 하면서 살려고 오랏수다(왔읍니다.)"
"게건(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서 며칠동안 같이 지내며 먹고 살았다.
대정현감과 정운디는 오찬이를 잡으러 떠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했다.
"한달 동안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터이니, 아무 날 밤 몇 시 몇 분에 날랜 장정으로 한 오십명만 복병했다가 내가 멀리서 신호를 보내거든 들어오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찬이궤>에 들어가서 며칠을 살았다. 하루는 오찬이 일당이 도둑질을 나갔다가 홀어멍(과부)을 납치해 왔는데 바로 아리따운 미녀였다. 오찬이는 그 여자를 큰 마누라로 삼았다.
정운디가 <오찬이궤>에 들어간 지 한달이 지나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니 수장(요즘의 순경)들이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오찬이궤> 근처에 숨었다.
정운디는 한달 정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오찬이를 잡을 수 있으까 궁리를 하며 잡을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정운디는 굴안에 있는 총들을 모두 밖으로 옮겨놓아야만 쉽게 잡을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약속한 날 오찬이 일당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고는 돌아왔다. 훔쳐온 돼지도 잡고 술을 내놓아서는 왁자지껄 서둘러 먹기 시작했다. 조금 있더니 모두 술에 취해서는 코가 깨어질 정도로 골며 들어누워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오찬이 큰마누라가 오줌 누러 굴밖에 나왔다가 주위를 살피더니 "아, 공기가 이상하다. 머리털이 곧게 일어선다"고 남편을 깨워 말했다. "그럴 리가 있느냐?"고 오찬이가 나무라자 큰마누라는 돌아와서 자버렸다.
정운디는 주위 무리들의 눈치를 보며 자는 척 하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굴안에 세워둔 총을 몇 차례 부산히 날라서 모두 밖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난후 정운디는 굴밖으로 나와서 "이젠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자 숨었던 수장들이 와르르 몰려와서는 굴 입구를 막았다.
굴안에 있던 오찬이와 그 부하들은 달아날 수가 없었다. 비록 부하들이 여럿이지만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갑자기 날랜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두드리는 바람에 도망을 치지 못하고 모두 잡히게 되었다.
대정현청으로 오찬이와 그 부하들을 잡고오자 현감은 오찬이 부하들에게는 몇 년씩 징역을 살게 하고 오찬이는 사형시켜 버렸던 것이다.
양반의 후예로 계략에 뛰어난 정운디에 의해 오찬이가 잡혀 죽은 뒤부터 사람들은 도둑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정운디묘는 <방묘>로 대정읍 동일리에 있다. 옛날 후손이 없는 사람의 묘는 <방묘>라고 돌을 무덤 가까이 둘레로 막아 놓아 조그맣게 만들었다. 요즘 후손이 있는 사람의 무덤처럼 크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정운디묘 옆을 지나 밭 갈러 나가다가 "어, 닥밧 정운디도 계략이 뛰어나 막산이와 오찬이를 잡았지만 죽고 난 후 땅에 드니 그것으로 끝이로구나"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자 죽은 정운디의 영혼이 있었던 지 농부에게 불쑥 달려들어 혼을 내자 그만 파랗게 죽어갔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이것을 보고는 "큰일났다"고 해서 집으로 급히 업어왔다. 점장이를 찾아가 점을 쳐보니 정운디를 아는 체 해서 욕을 했으니 정운디에게 용서를 빌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굿 잘하는 무당을 모셔다 굿을 해서 살아났다고 한다.

정운디는 사계리에 살다가 동일리 지경에 묻혀 묘가 있는데, 농부의 욕을 들은 정운디가 영혼으로 나타나서 "이놈, 내가 죽어서 영혼이 되었지마는 너 같은 놈이야 못잡겠느냐"고 해서 잡으니 농부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5. 고종달이

제주도는 섬이었으나 앞으로 장수가 많이 태어날 혈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두려워한 중국의 진시황제가 지관인 고종달이를 보내어 제주도의 혈맥을 끊도록 했다. 고종달이가 혈맥을 끊었다는 데서 후손이 끊긴 사람을 가리켜 고종달이라고도 한다.

또 영장과 송장이라는 말이 있다. 영장은 후손이 있는 사람을, 송장은 직계 후손이 없고 양자 정도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부른다.

고종달이란 사람이 큰 지관이지만 심지(마음씨)가 아주 나빴다.

제주도는 혈맥이 뛰어나므로 머리가 총명하고 힘이 센 장군이 태어날 곳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진시황의 명을 받아 제주도에 온 고종달이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서 쇠판을 딱 붙여놓고 혈맥을 살펴보니 대정 쪽에는 열부열사만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제주도 동편 정의현에서부터 혈맥을 밟아 끊으면서 서쪽으로 돌아와 드디어 홍리 지장새미에 다다랐다. 지장새미는 크지 않으나 물이 꾸준히 솟아나왔다. 그리고 지장새미 물이 마를 때면 제주시 산지 위쪽 <가락쿳물>이 많이 솟아나고, 가락쿳물이 마르게 되면 지장새미 물이 잘 나왔다.

고종달이가 물혈을 끊으려 지장새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지장새미 옆에서 밭가는 농부가 있었다. 농부가 한창 밭을 갈고 있을 때, 조그만 할머니가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

다.

"어째서 그러느냐?"

"저 고종달이 놈이 물혈 뜨러 왔는데 날 살려주십시오. 내가 숨을 곳이 없으니 숨게 해 주십시오."

밭을 갈러 갈 때에는 소길마로 짐을 실어가곤 하는데, 농부는 양재기로 물 한사발을 담아 소길마 밑에 넣었다. 지장새미 물귀신 할머니가 바로 그 행기물에 들어가 숨었다.

고종달이가 지장새미에 이르고 보니 샘에 물이 없었다. 지리문서를 펼쳐 찾아보니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소>라고 되어 있었다. 꼬부랑 나무는 바로 소길마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소> 이와같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변경되는 기막힌 지리문서였다. 바로 지리문서에는 지상새미 물귀신이 있는 장소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종달이는 지리문서를 거두고 돌아서서 밭가는 농부에게 물었다.

"이곳에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소가 어디 있읍니까?"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물이 어디 있어. 이양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십년을 살았지마는 그런 말은 들어본 바가 없네. 들음이 처음이네."

고종달이는 밭가는 농부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욕을 듣게 되자, 이놈의 문서가 헛된 것이라고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버렸다.

문서를 찢어버린 까닭에 지장새미로부터 제주도 서쪽은 생수가 잘 나오고, 동쪽은 물혈을 끊어버린 때문에 생수가 잘 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고종달이가 물혈 뜬 것을 가지고 협재 동굴 있는 물살에 가자 혈뜨고 담아놓은 주머니끈이 뚝 끊어져 물이 쏟아나와 버렸다. 그 물혈을 줏어 담아도 얼마 담지 못하고 또 제주시 산지에 가서 배타고 떠나려할 때 물혈뜬 주머니가 텀벙하고 빠져버렸다. 그런 까닭에 산지는 지금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 한다.

고종달이는 제주에서 물혈을 떠보았으나 가지고 돌아가질 못했다. 모두 제주도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또한 고종달이는 중국을 향해 신방산을 이끌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용머리의 혈도 끊었다. 용머리는 산방산 앞에 위치해 있는데, 산방산을 끌고는 그 옆을 있는 형제섬 너머까지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다. 그것을 알고는 고종달이가 와서 용머리 양쪽의 혈을 끊었다. 끊어버린 한쪽을 저승문이라고 하는데 저승문은 캄캄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나 다른 한쪽인 이승문에서는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종달이가 용머리의 혈을 끊자 지금은 산방산을 끌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로 지금 위치에 머물러 버린 것이다. 용머리가 산방산을 끌고 좀더 밖으로 나갔을 때 혈을 끊었으면 지금보다도 화순항이 더 넓게 될 것이었는데 들어올 때 혈을 끊

어버려서 넓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되었다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6. 가파도 아기업개 바위

옛날 가파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단지 모실개(모슬포)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쉬고 돌아올 뿐 인가가 없는 섬이다.

어느 해에 한 배 주인이 고기와 소라등을 잡고, 해산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가파도로 들어갔다.

가파도에서 일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배를 띄우려 하자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삼 사일 기다려도 파도는 더욱 거셀 뿐이어서 도저히 떠나올 수가 없었다.

하루는 선주(船主)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타나 "아기업은 처녀를 섬에 놔두고 가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꿈을 깬 선주는 꿈속의 일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루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었다.

이제는 싣고 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모두 굶어죽게 될 형편이었다. 선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에 타도록 명령을 했다.

그런데 아기업개(아기업저지)는 싣지 말아야 할 텐데하고 생각한 선주는 아기업개에게 한가지 부탁을 했다.

"저 곳에 잊어버리고 떨어진 물건이 있는 데 가서 가져오라"

아기업개가 물건을 가지러 배에서 내리자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틈에 선주는 배를 몰고 모슬포로 돌아와 버렸다.

삼년동안 선조와 사람들은 아기업개를 잊고 살다가 가파도에 가 보니 바닷가 바위에 뼈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기 업은 처녀와 같은 모양을 한 바위가 서 있었다 한다.

아기업개는 자신을 내버려 두고 배가 떠나자 바닷가에서 슬프게 울다가 돌로 굳어져 죽고 바위가 되었다 한다.

서귀포시 강정동, 박경옥(남·71) 제보.

Ⅱ. 歷史傳說

1. 이재수의 난(Ⅰ)

이재수는 대정골 출신으로 사또의 심부름을 드는 아주 천한 하급의 신분이었다.

그당시 승당(성당)의 작폐가 아주 심했다. 승당의 본부는 서귀포 서홍리에 있었는데, 선교의 세력을 제주도 서쪽으로 널리 폈다. 그런데 선교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과의 불화가 여러 곳에 일어났다. 선교무리들은 승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예쁜 부인을 뺏아간다든지, 제사상을 뒤엎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마귀 숭배라 했으며 비바리(처녀)들을 수녀시킨다고 데려다 하인으로 삼기도 했다. 이처럼 선교무리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항해서 난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애월 사는 김훈장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 김훈장은 양반신분으로 앞가슴에 털이 많이 난 힘센 장사이기도 했다. 난을 일으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다 주역점을 쳤는데 서문방액(西門防厄)이라고 나왔다.

"서문방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을 운세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내가 살 것이다."

그래서 김훈장은 보리밭에 숨었다. 승당에서는 숨은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그런데 반역한 사람이 있어서 김훈장은 잡혀가게 되었다.

이재수도 이 난에 가담했다가 김훈장이 잡혀가자 해산되는 바람에 대정고을로 돌아왔다. 성문에 이르자 이재수는 큰 돌 위에 앉고서 "젠장!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장군 한번 되어보고 죽어야지. 내 뒤를 여러분들이 따르면 내가 일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너의 뒤를 따를 테니 앞장을 서서 난을 일으켜보라." 고 호응을 했다.

이재수는 키가 작았으나 담력이 커서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자 모두를 뒤따를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르자 이재수는 대정읍 동일리등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장정들을 모집했다.

그당시 황천이라는 일본사람이 칼을 가지고 한림에 살고 있었다. 이재수는 이사람에게서 칼을 얻고자 했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을 얻고는 큰일을 한번 하고자 왔읍니다."

황천이가 이처럼 당돌하게 말하는 이재수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사람은 작지만 눈망울에

정기가 있어 큰일 한번 하겠다"고 생각하고 칼을 주기로 했다.
"이 칼은 황천검이라 하는데 당신에게 줄터이니 내 이름도 함께 전해주시오."
"그렇게 허주마씨(하겠읍니다)"
칼을 얻은 이재수는 말을 타고 곧바로 대정고을로 돌아왔다.
그당시 대정고을 사람들이 많이 승당(성당)에 다니고 있었다. 이재수가 난을 일으키자 그들은 숨어 살았다. 그런데 이재수의 난이 성공하려고 그랬는지 숨어 살던 선교인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이재수는 이들을 잡아다 넓은 거리에 세워 놓고는 큰칼을 뽑아 이리저리 치면서 죽였다.
이때 강우백이란 사람도 난을 일으켜 이재수와 합세하였다. 이재수는 서군, 강우백은 동군을 맡아 지휘하며 성안(제주목)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재수가 서군 선봉장이 되자, 따르는 부하들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안경이랑 장군들이 쓰는 갓, 망건들을 구해다 주었다. 이재수가 이렇게 차려입자 더욱 뛰어난 풍채를 지닌 장군이 되었다.
이재수가 서군을 이끌고 성안 서문에 당도해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재수가 성문 앞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문을 열어라. 이 성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당시 제주성은 계속되는 난리로 성문을 폐쇄하고 있어서 성안 사람들은 식량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은 부수고 들어간 이재수와 그 부하들이 선교인들을 관덕정 마당에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때 약 이천명은 죽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야 강우백이 서귀포 홍리 본부를 해치우고 한라산을 넘어 성안에 도착했다. 두 장수가 합세하여 선교인들을 처형시켰다. 드디어 이재수와 강우백은 난을 성공시켰으나 임금의 허락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한양으로 잡혀갔다.
이재수와 강우백이 한양으로 잡혀갔을 때의 일을 봐도 이재수는 담력이 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사형당하게 되자 강우백은 눈물을 줄줄 흘렸으나, 이재수는 두려움 없이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받고 배불리 잘 먹었다. 그리고 이재수는 "죄송합니다만 대왕님, 담배나 하나 태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대담한 이재수의 행동에 임금도 허락해 주었다. 이재수는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난으로 해서 제주도에는 선교인들의 행패가 없어지고 좀 편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자, 이 난을 응징하러 외국 군함이 사라봉 밑에 와서 제주에 상륙하려고 했으나 군이들이 <배부름 동산>에 몰려와서 대항하자 상륙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선교인들의 행패에 대항해서 일어나 이재수의 난은 삼개월간 계속되다 이재수가 사형됨에 따라 끝났다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이재수(李在守)의 난(Ⅱ)

제주도에 전래된 천주교 선교사들이 미신타파를 들어 제주도민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마귀를 위하는 것이라 하며 못하도록 막자, 이에 대해 도민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선교에 대한 싸움은 처음 대정 출신 오대현이 시작했으나 명월성에서 잡히고 말았다. 이재수는 처음 오대현 밑에서 난에 가담했던 천민 출신이다. 오대현 장군이 잡히자 이재수는 대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난을 일으켰다.

대정에서 기군(起軍)하고 옹포리에 와서 하루밤을 머물렀다. 이때 황천이라는 일본사람이 멸치 가공업을 하며 한림 근처에 살았는데 일본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황천이 이재수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 있어 왔느냐."

"이재수 장군이 선교에 대항해서 기군했다고 하니 칼을 하나 선사하러 왔읍니다."

큰칼을 얻은 이재수는 다음날 곽지에서 하루밤을 지내는데 선교패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다. 화재를 당하자 난군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웅성거렸다.

"걱정말고 밖에 나다니지 말라."

이재수는 명령을 한뒤 마을 책임자들을 불러다 물어 보니 선교패들이 작패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서문에 이르러 오대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출입을 막자 석방시켜 주었다. 오대현이 풀려 나오자 이재수는 강우백과 더불어 삼군을 만들고 제주목의 동, 서, 남문앞에 진을 치니 선교패들이 성문을 모조리 닫아 버렸다.

제주목 사람들은 시골에서 땔감과 쌀들이 들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을 차단했으니 살 도리가 없었다. 성안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성문이 열리자 이재수는 소털로 만든 방탄모자를 쓰고 난군 배열을 망치꾼, 죽창수, 창부대, 총수의 순으로 하고 자신은 총수 가운데 서서 성안으로 진군해 갔다.

선교패들이 관덕정 마당에 즐비하게 잡혀 왔다. 이재수는 관덕정 맷돌위에 서서 휘둘러보고는 큰 칼로 사람을 푹푹 찌르며 죽인 후 난군들에게 <거여미>(확인사살) 돌 것을 명령했다. 난군들은 선교패들로부터 행패를 당한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 비바리도 잡아가라, 젯상에도 똥도 싸봐라 하면서 돌멩이와 죽창으로 선교패들을 무참히 짓밟아 죽였다.

제주목에서 난리가 일어난 것이 조정에 보고되자 군사가 파견되었다. 주동자인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세사람을 잡아다 자초지종을 심문하자 오대현과 강우백은 몸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으나 이재수는 장검을 짚고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조정으로 잡아가려 하자 제주도민들이 몰려가서 진정을 올렸다.

"이 장군들은 아무 죄도 없읍니다. 제주도 치안유지에 협조한 바가 크므로 잡아가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한창 바쁜 보리 농사철인데 빨리 돌아가서 보리나 베어라. 우리는 나라의 명령에 따라 이 세사람을 데려갈 뿐이고 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허가없이 사람을 많이 살해했으니 국법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이니 돌아가라."

이재수는 천민계급으로 심부름꾼이었으나 기개가 커 난을 일으킨 후 사형되었다 한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오술생(남·74) 제보.

2. 오찰방(Ⅰ)

옛날 대정고을에 오찰방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를 부모들이 낳기전 일이다. 자식이 없었던 그 부친은 부인이 임신을 하자 건강한 아기를 원하여 소를 열 마리나 잡아먹였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것은 딸이었다. 애석한 일이었다. 얼마 후에 부인이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였다. 그래서 낳은 것이 아들이었다. 약간 아쉽기는 하였으나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크고 눈이나 귀가 틀림없는 장군상이었다. 그 부모들은 그 아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그는 자라면서 엉뚱한 짓을 자주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동네 아이들과 싸움하기도 일쑤였고, 아무리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듣질 않았다.

하루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를 때리려 하였다.

"이놈아, 그 회초리들고 내게로 와라."

그 부친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면서 엄명을 내렸다.

"예"

생각보다 쉽게 대답을 한 그는 밖으로 휙 나가더니 종내 소식이 없었다. 괘씸하게 여긴 부친이 그를 찾아 나섰다. 그는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않고 놀고 있었다. 부친은 화가 났다.

"네 이놈, 오라는데 오지는 않고. 이놈."

호통을 치며 아들을 쫓아갔다. 그런데 오찰방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냥 뒤를 보며 달

아나는 것이었다. "이놈" 그 부친은 그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그를 미칠 수 없었다. 그 부친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도 아들을 따를 수 없었다. 오찰방은 그 험한 산방산을 거침없이 오르는 것이었다. 아버지도 따라 올랐다. 산방산 꼭대기에 오르면 저도 별 수 없을 것으로 알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라 둘의 사이는 점점 좁혀졌다. 그런데 일은 크게 벌어졌다. 꼭대기에 이르른 오찰방이 휙 하니 산 아래로 뛰어내린 것이다. 나는 듯한 몸놀림이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 날 후로 그 아버지는 걱정이 생겼다. 아들 하는 짓을 보면 틀림없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 날은 오찰방이 들에 가서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아침부터 그 아버지는 집안에 시켜 술을 한 독 준비하라고 일러놓았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애, 너 곤할테니 이 술이나 몇 잔 마시고 좀 쉬어라."

전에 없이 아들에게 술을 먹였다. 오찰방은 거침없이 주는 술을 모두 마시고는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 틈에 그 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의 윗 옷을 벗기고 겨드랑이를 살펴보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들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아직 크지는 않았으나 참새 날개만 한 것이 틀림없이 날개였다. 아버지는 그냥 옷을 입혀버리고는 모른 체 하였다. 뒷날부터 아들에 대하여 간섭도 않았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알았다. 자기만 알고 있는 날개돋은 비밀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찰방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다.

"아버님,"

오찰방은 집떠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의논을 하려고 하였다.

"무슨 일이냐?"

"집에 있어도 할 일도 없고 경성에나 가 볼까 합니다."

"경성에?"

"경성에는 지금 힘쎈 장사를 찾는 중이랍니다. 제가 가서 응모해 보겠읍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사실 장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큰 도적이 밤이면 나타나 백성들과 벼슬아치들을 못살게 하는 도적이었다. 관군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팔도에 방을 내려 장사를 뽑는 중이었다. 오찰방은 자기의 비밀이 언제고 알려지는 날이면 영낙없이 죽음을 당할 처지이고 보면 서울에 가서 힘이나 마음껏 써봐서 죽으나 사나 하고 싶었다.

서울에 올라간 오찰방은 서울 장안이 떠들썩한 사연을 들었다. 골목 골목마다 붙어있는 방도 봤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적은 항상 검은소만 타고 다닌다고 했다. 꼭 돈많은 대감집만 골라서 도적질을 한다고 하였다. 그 도적을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줄거라고 하였다.

"나으리, 제가 한번 나가서 그 놈을 잡아 오겠읍니다."
훈련대장이 오의 외모를 보니 필시 시골놈인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게 가당하여,
"그래, 해보겠단 말인가."
응낙을 하였다. 오찰방은 무복을 착용하고 큰 칼을 들고, 또한 수십명의 포졸을 데리고 도적을 잡으러 나갔다. 어스름에 서울 동문 밖에서 잠복하여 있는데 어떤 아이가 소를 끌고 피리를 불면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하였다. 소를 끄는 아이의 얼굴이 보통이 아님은 물론 그 피리 소리도 범상하지 않았다. 오는 군사들에게 대기토록 한 후에 그 소를 끌고 오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애, 나는 도적을 잡으러 이곳에 잠복해 있는데 하도 피곤하고 지루한 참인데 네 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드는구나. 어디 한번 더 불어 줄 수 없겠니."
소를 끌고 오던 아이는 서슴치않고 피리를 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오찰방은 자꾸 잠이 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피리가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서 오찰방은
"애, 그 피리를 나도 좀 불어보자."
피리를 빼앗을 궁리로 피리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때 그 아이의 낯빛이 이상스레 변하는 걸 오찰방은 놓치지 않았다. 틀림없이 이 놈이 도적이라고 확신하였다.
"한번만 불어보게. 나도 예전엔 피리를 잘 불었거든."
오찰방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시 사정을 하였다. 망설이던 아이는 선뜻 피리를 내놓으면서,
"피리부는 장군이면 제법이네요."
싱긋이 웃으면서 피리를 내주었다. 그때 오찰방은 그 피리를 부는척 하다가 그것을 뚝꺽 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한자루의 칼이었다.
"아, 이걸 어찌나."
오찰방이 능청을 떨면서 칼을 휘둘렀다. 도적은 쿡 쓰러져버렸다.
"내가 속았군. 너는 보통놈이 아니구나."
도적은 신음을 하면서도 오찰방을 보며 싱긋이 웃었다. 오찰방은 뭔가 마음이 편하질 못했다. 일대 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할 텐데 이렇게 꾀를 부려 이겼다는 게 마음에 안 찼다. 그러나 잡은 것은 잡은 것이니 다행이 아닌가. 도적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포군들은 야단이었다. 혼자 몸으로 그 도적을 잡았으니 그 힘이야 가히 알만하다고 야단이었다.
오찰방은 개선장군이 되어 성안으로 들어갔다. 성안 사람들도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오늘 저녁부터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과 대신들은 마음

이 그렇게 유쾌한 것도 아니었다. 어디 제주도 섬놈이 서울에 와서 기세당당하게 노는걸 보니 불쾌하기도 했다.

오찰방은 말을 달려 대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임금님께 이 승전보를 알리고 후한 상을 어서 타고 싶었다. 그때였다. 그 앞을 막는 한 대신이 있었다.

"말을 타서는 궁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어디 감히 불충한 짓을 하려는 거요."

대신의 호통에 오찰방을 기가 콱 죽었다. 그래서 슬며시 말에서 내려 버렸다.

"오, 자네의 용맹을 가히 칭찬할만하구나."

상감님은 오찰방을 보더니 칭찬을 하시고는,

"그런데 승전 장군이 왜 걸어서 들어왔소. 그 늠늠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데……."

왕은 오찰방의 모습에서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 고개를 끄적이었다.

"자네는 아무래도 섬 사람이라 별 수가 없어. 장군으로서 기개가 부족하군. 힘만 가지고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겨우 찰방 벼슬을 내려주었다.

오찰방은 어전에서 물어나오면서 후회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생각하니 어전에 들어갈 때 말에서 내리도록 한 그 대신이 야속하였다.

오찰방은 겨우 찰방 벼슬을 얻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어었다. 내려오면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결국 그 대신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였다. 그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하루도 안 걸려 강진 포구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이 있어 하루씩 걸어서 쉬고 걸어서 쉬고 하면서 여러날 만에 강진 포구에 다달았다.

객주집에 묵어서는 제주가는 배를 기다렸다. 내일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 저녁에는 객주집 주인과 바둑을 두었다. 밤이 깊도록 두다가,

"이 바둑은 내일 계속 두기로 합시다. 밤도 깊었으니……."

오찰방은 바둑판을 흩어지지 않게 놔두고 주인과 함께 일어섰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큼 지났다. 오찰방은 모든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밖으로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서울에 이르렀다. 그는 자기의 출세를 훼방놓은 그 대신네 집으로 향하였다. 생각할수록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눈깜짝할 사이에 그 대신을 죽이고는 다시 그 객주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뒷날 서울에는 일이 크게 벌어졌다. 밤 사이에 대신이 죽은 일에 대하여 모두들 오찰방을 의심하였다. 조정에서는 군사를 풀어 오찰방을 잡아들였다.

"네 이놈, 네가 사람을 죽인 일을 이실직고하여라."

포도청에 붙들려가 국문을 받았다. 그러나 오찰방은 눈하나 까닥않고 대답을 하였다.

"제가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읍니까. 성은을 받아 벼슬까지 얻고 돌아가는 처지에

무슨 일로 그런 가당치 않는 일을 저지르겠읍니까."

오찰방이 능청을 떨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나불거리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엊저녁 자정까지 그곳 주막에서 그 주인과 바둑을 두다가 마치질 못한 채 그래로 두었다가 뒷날에 마저 두었읍니다. 어느 새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사람을 죽이겠읍니까."

포도청에서는 오찰방의 말이 사실인가를 조사하였다.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었다. 아무리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증거가 너무나 명명백백함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날로 오찰방은 방면이 되었다.

그렇게 겨우 찰방 벼슬을 하고 돌아온 그는 못내 아쉬움을 참으며 일생을 찰방으로 살았다.

서귀포시 하원동, 김택효(남·86) 제보.

오찰방(Ⅱ)

오찰방 부친은 부자로 대정읍 인성리에 살았었다. 장가 들어서 부인이 첫 임신을 하자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여긴 오찰방 부친은 소 열 마리를 잡아 먹였다. 힘이 센 아들을 낳으라고 열 마리를 잡아 먹였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다. 오찰방 부친은 "에이 그거,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서운해 하였다.

다음에 또 부인이 임신을 하자 소를 아홉 마리만 잡아 먹였다. 이번에 열 마리를 잡아먹였다가 딸이면 어떨까 해서 아홉 마리만 잡아 먹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인은 아들을 낳았다. 오찰방 부친은 "이번에도 큰 실수를 했지만 도리 없는 일이라고"하며 또 한번 서운해 하였다.

오찰방은 소를 아홉 마리만 먹고 태어났으나 장군과 같이 힘이 세었다. 만일 열 마리 소를 먹고 태어났더라면 누님만큼 힘이 셀 것인데 그렇지는 못했다.

오찰방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붙어 있었다. 오찰방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오찰방을 방에 잘 눕혀두고 물길러 갔다와서 보면 자리를 바꾸어 눠 있었던 것이다. 오찰방은 장군기상을 지녀서 태어났기에 어릴 때부터 특이한 행동을 하고 했었다. 부모가 자리 옆에 없을 때면 밖으로 나와서 법석을 떨며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하며 놀다가, 인기척 소리가 나면 자리를 바꿔 눕곤 했던 것이다.

옛날에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주민들이 씨름대회를 열고 서로 즐겼었다.

오찰방도 힘이 장사인 까닭에 차차 성장하면서 씨름대회에 나갈 때면 으레 일등을 차지

하곤 했다.

그런데 오찰방네는 딸, 아들하여 자식이 남매 뿐이었다. 오찰방 누님 역시 소를 열 마리 먹고 태어났으니 힘이 세었다. 하루는 오찰방 누님이 동생의 장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동생이 저렇게 씨름대회에 나가 매번 일등을 하고 하면 장차 나라에 반역할 놈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가문에 피해가 올 것 같았다. 일찍 이런 화를 면하게 할 생각으로 부친이 입던 누비옷을 위 아래로 딱 맞게 차려 입고, 가죽 버선을 신고, 머리는 수건으로 딱 묶어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보니 장사들의 씨름이 한창이었다.

씨름대회에서 일등을 하면 무명 열두필을 상으로 주었다. 오찰방 누님이 남장 차림을 하고 구경꾼들 틈에서 씨름 구경을 하는데, 마침 오찰발이 일등을 차지해서 무명 열두필을 상으로 받고는 한 손으로 무명을 돌리면서 "나와 씨름할 사람은 나오라"고 의기등등하게 외쳐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와 한번 해보자."

오찰방 누님이 외치며 씨름판으로 들어가서는 오찰방과 씨름 시합을 청했다. 다시 한바탕 씨름판이 벌어졌다. 오찰방 누님이 오찰방을 잡고는 빙빙 돌리다가 휙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오찰방이 상으로 받았던 무명을 확 감아가지고서 집으로 재빨리 돌아와 버렸다.

오찰방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누워 밤이 깊어자가 응응 장석(신음)을 하며 씨름에 진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오찰방은 자신을 쓰러뜨린 사람이 자기 누님인 줄도 모르고 어떤 장사에게 씨름에 진 것만을 분통해 했던 것이다.

오찰방 누님이 이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놔두면 오찰방이 병이 날 것만 같아 방으로 찾아갔다. 오찰방 누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원통해 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씨름에서 남에게 패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어떤 머슴 총각놈에게 씨름을 졌으니 내가 죽지 살아서 뭣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방문을 열어 주기는커녕 죽을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음식을 들여 보내도 먹을 생각도 않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찰방 누님은 매우 답답해 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밥을 잘 먹으면, 내가 나중에 상으로 탄 물건을 찾아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했다. 오찰방이 화를 누르러뜨리고 밥을 먹자, 누님이 사연을 자세히 말했다.

"씨름해서 너를 이긴 사람은 바로 이 누님이다. 네가 장차 역적놈으로 몰려 화를 입을까 걱정을 해서 내가 씨름판에 나가 일부러 너를 이긴 것이지, 너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받은 무명은 집에 놔 뒀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이후부터는 씨름판에 다니지 말라."

"글쎄, 그러면 그렇지. 누님이나 나를 이기지 이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오찰방은 원통함을 풀었던 것이다.

오찰방이 나이 약 설나문(삼십여)살 되는 사이 자신의 힘을 당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는 행실이 불량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한 마소가 백두 이상 있는 부잣집이라 가세를 믿고 동네 웃어른들의 충고도 듣지 않고 날뛰었다.

하루는 오찰방 부친이 오찰방의 나쁜 행실을 고치려고 오찰방을 방으로 불러 세웠다. 충고를 안들어 "이놈의 자식"하고 때리려고 하자 짚신도 아닌 나막신을 신고 밖으로 달아났다. 부친이 '이레오라(이리 오너라)해도 안들어오고 곁눈질하면서 서 있으면, 부친이 화도 더 나고 약이 올라 몽둥이를 들고 뒤를 쫓아갔다. 그러면 오찰방은 나막신을 신은 채 마을 앞 산방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산방산은 산방굴사 있는 쪽이 제일 높은 곳인데, 바로 여기에 올라갔다. 부친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 올라가서 보니 그 높고 위험한 바위 끝에 서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달래려고 "너 이레 오라. 경허지(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사정을 해도 돌아오질 않았다. 오히려 오찰방은 산밑으로 픽 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들의 뒤를 쫓던 부친은 "아이고,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하고 그 바위에 앉아서 통곡하고 한숨을 쉬어봐야 일은 틀렸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부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죽지도 않고 먼저 돌아와 방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었다. 부친은 아들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아,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부인에게 술을 아주 독하게 빚도록 했다. 아주 독한 술을 먹여 취하여 잠자게 한 다음 몸 수색을 해볼 심사였다.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술을 한 말이나 넘게 빚어놓았다.

하루는 부친이 아들 오찰발을 불러 달래면서 "고기 먹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기가 어디 잇수가?(있읍니까?)"

"돗통(돼지우리)에 있는 돼지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경홉주기(그렇게 하지요)"

오찰방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고는 불에 구우면서 부자가 먹기 시작했다.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부친은 "술은 안마시겠느냐?"고 먼저 물었다.

"술 있으면 마시겠읍니다."

부친은 큰소리로 부인을 불렀다.

"이 아들에게 술 가져다 주게."

"얼마나 잇수가?(있읍니까?)"

"너 먹을 만큼은 있으니 가져다 먹게."

아들은 항아리에 한말쯤 든 독한 술을 양푼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과락과락 마셨다. 한 양푼이의 술을 마실 때마다 돼지 다리 하나씩 와삭와삭 씹어 먹었다.

오찰방은 배도 부르고 술이 만취하자 턱 들어누워 부친의 흉계도 모른 채 잠에 골아 떨어졌다. 잠을 자는데 눈은 번쩍 뜨고 콧소리는 후루루 후루루 창문이 열릴 듯 닫힐 듯 했다.

오찰방 부친은 이리로 오라고 부인을 불렀다. 오찰방이 만취해 잠에 빠진 모습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 부친은 아들을 턱 엎질러 놓고 옷을 살며시 풀어 살펴보니 명주 수건으로 겨드랑이에 나 있는 날개를 감싸 있었다.

아, 이 아들놈이 이 날개로 해서 조화를 부리고 나를 애먹였구나 생각한 부친은 명주 수건을 끌러두고 숯불을 피운 후에는 인두를 벌겋게 구워서 날개 양쪽을 모두 지져 버렸다. 겨드랑이 날개가 타는 데도 오찰방은 만취된 상태라 깨어날 줄을 몰랐다. 한참 자다 술이 깨어 일어난 오찰방은 자신의 어깨에 통증을 느껴 겨드랑이에 손을 대어보니 날개가 다 타서 없어져 있음을 알았다.

오찰방은 날개를 잃은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 방안에서 한참 슬피 울 때 부친이 들어와 곁에 앉아서는 위로의 말을 했다.

"너, 울 일이 아니다. 나중에 네가 어떤 조화를 잘못 부려 몰릴까 봐서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 조금도 서러워하지 말라."

오찰방은 울다가 내 팔자가 이것으로 끝이니까 하고는 울음을 멈추었다.

숙종시절 한양에 도둑놈이 일어난 이름을 떨쳤는데, 그 도둑놈도 힘이 장사였다. 밤이면 임금이 사는 궁궐에 몰래 들어와서는 자신의 힘의 위력을 보이려고 기둥을 쑥 들고는 기둥 밑에 짚신 한쪽을 꼭 찔러놔두곤 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가 그것을 빼내려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살펴보면 기둥밑 짚신 한짝이 없어지고, 또 뒷날 살펴보면 기둥 밑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국왕을 해칠 역적놈이 생겼다고 걱정이 대단했다. 포도청에서는 조선팔도에 명을 내려 역적놈을 잡을 장사를 모집했다. 제주 대정현에도 관에서 명이 내려왔다. 오찰방이 명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 도적이 나타났다. 그 당시 북문은 막아 통행을 금지시켰고 동문, 서문, 남문으로 밖에는 다닐 수가 없었다. 오찰방이 서문으로 들어가다가 흰소를 탄 놈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놈이 바로 왕을 살해한 연후에 도읍에 정해서 국왕이 되려고 흉계를 꾸미는 역적이었다.

오찰방이 말을 타고 서문으로 궁궐에 들어가려다 번쩍 날아서 역적놈의 뒷덜미를 꽉 잡자 그놈은 달아나질 못하고 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역적놈을 잡아 포도청에 바치자, 왕이 오찰방을 불렀다. 오찰방이 명을 받고 왕을 알현하고자 말을 타고 들어가다 큰문을 통하게 되자 말을 내려서 들어갔다.

"너, 어디서 왔느냐?"

"제주에서 왔읍니다."

왕은 오찰방이 말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음, 네놈은 마음이 작아서 찰방 벼슬밖에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찰방'이란 직함을 내려주었다.

이일로 해서 사람들이 오찰방, 오찰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말을 그대로 타고 궁궐로 들어갔더라면 큰 장군자리 한번 했을텐데 그러질 못했다.

오찰방 무덤은 옛날 김통정 장군이 한라산에서 활을 쏘아 떨어진 곳으로 알려진 <쌀쏜드르>에 있다. 오찰방 묘가 장군지형이라고는 하나 후손 중에는 장군대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뿐이라 한다.

또 오찰방 하르방 묘도 이장(移葬)했는데, 그 지형도 장군지형이지만 후손들 중에는 장군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대정읍 인성리에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남제구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3. 오찰방 누님

오찰방 누님은 오찰방보다 더 힘이 세었다. 오찰방이 아홉 마리 소를 먹고 태어났으나, 오찰방 누님은 열 마리의 소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오찰방 누님이 열네살 되던 해 봄에 대정읍 인성에서 멀리 떨어진 서광리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었다.

이때 사냥다니던 사냥꾼이 산돼지 한 마리를 총으로 쏘았다. 총을 맞은 산돼지는 곧장 죽지 않고 눈을 벌겋게 뜨고는 소나무 밭에서 고사리를 꺾는 오찰방 누님에게 달려들었다.

사냥꾼은 겁에 질려 "저, 고사리 꺾는 아주머니, 총맞은 산돼지가 달려가니 한쪽으로 비켜 섭서(서십시오)"하며 생야단을 쳐대는 것이었다. 고사리를 꺾던 오찰방 누님은 이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주위를 살폈다. 바로 뒤에 총맞은 산돼지가 달려들고 있었으나 무서운 기색도 없이 그냥 달려드는 산돼지 귀한쪽을 푹 잡았다.

"이 산돼지 저 으르신거꽈?(어른님 것입이까?)"

깜짝 놀랄 일이었다. 송아지만한 산돼지를 한 손으로 들고 섰으니 사냥꾼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쏜 총에 맞은 산돼지가 아주머니께 달려들길래 다쳤는가 염려했수다(염려했읍니다)"

"이까짓꺼 말이꽈?(이정도 말입니까?)"

오찰방 누님이 손에 잡은 산돼지를 보이며 큰소리 치고는 뱅뱅 돌리다가 휙 던지자 그만 죽어버렸다. 땅에 떨어져 죽자 이제는 사냥꾼에게 산돼지를 잡으라고 했다.

그 사냥꾼은 서귀포 토평에 사는 김씨였는데, 역시 힘의 세기가 보통을 넘는 사람이었다.

사냥꾼이 산돼지를 잡고는 혼자 차지하려고 오찰방 누님에게는 조금도 나누어 주질 않았다.

옛날부터 짐승을 잡았을 때, 열 사람이 잡으면 열 도막으로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사냥꾼들 사이의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찰방 누님과 사냥꾼이 잡은 산돼지이기에 반씩 둘로 나우어야 할 것인데, 사냥꾼은 나눌 기색이 없었다. 오찰방 누님이 화를 버럭 내며 "어디 이런 법이 있느냐? 세 사람이 잡으면 셋으로 나누고, 네 사람이 잡으면 넷으로 나누는 법으로, 이 산돼지는 우리 두 사람이 잡았으니, 빨리 둘로 나누라. 고약한 인심이다."고 호통을 치며 손목을 푹 잡았다. 오찰방 누님은 처녀로 열네살 밖에는 안되었어도 체격이 매우 크고 힘이 세어서, 사냥꾼은 까맣게 죽을 지경이었다. 손목이 부러지고 목숨이 넘어갈 것 같자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잘못을 빌었다.

오찰방 누님은 손목을 놓고서 "어디 사느냐?"고 공손히 물었다.

그당시 서귀포시 토평동은 정의현에 속해 있었다.

"정의 토평에 산다."

"성씨가 뭣이꽈?(무엇입니까?)"

"내가 짐(김) 뭣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열네살 밖에 안된 처녀로서 남자의 손을 잡았으니 당신네 집에 시집을 갈터이니 나를 구해갑서(구해가세요)"

오찰방 누님은 사냥꾼과 헤어진 뒤 고사리도 많이 꺾고, 또 산돼지도 반을 나누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찰방 누님은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어가도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부모가 시집을 가라고 말을 자주 해대도 묵묵히 대답만 했다.

"나는 시집 가기로 된 사람이 있으니 어디서든 구혼이 들어와도 허혼하지 맙서(마세요). 그러나 동쪽 정의 토평에서 구혼하러 왔거던 허락을 허십서(하세요)"

딸 자식의 이런 말을 들은 부모들은 기다려도 동쪽에서 구혼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서쪽, 남쪽, 북쪽에서만 구혼하러 왔다.

토평에서도 사냥꾼이 의아하면서도 부모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구혼할 것을 청했다.

"내가 이디저디(여기저기) 다니면서 산돼지 한 마리를 쏘았는데…… 어떤 처녀와 손목을 잡고 언약을 한 적이 있으므로 그 마을에 한번 찾아가 청혼을 해보십서(해보세요)"

이제는 사냥꾼 부친이 아들의 말대로 대정읍 인성리를 찾아갔다. 동네 사람들에게 오찰방 누님집을 물으니 "아무디 집입니다."라고 말해주어 찾아 들어갔다. 오찰방 집에 들어가 인사하고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안방에 있던 오찰방 부친이 나와서 다시 자세한 사연을 물었다.

정의 토평에서 왔다고 하자, 오찰방 부친은 찾아온 손님을 방으로 청해 모셨다.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집에 가서 한번 청혼하라기에 이리저리 찾아왔읍니다."
"아, 내 딸애기도 그런 말을 했지마는 그말을 마음속에 놓지 않았지요."
이런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은 오찰방 누님이 나와서는 부모님께 "허락하십시오."라고 했다.
"내가 열네살 되는 해 이리저리 기약을 맺었으니, 그 집에 시집을 가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오찰방 누님은 정의 토평 사냥꾼 김씨 집에 시집을 가서 살았다는 것이다.

4. 강태종 훈장

강태종이란 양반은 힘이 장사였고 나이 들어서는 의원과 훈장일까지 한 사람이다.
강태종이 열일곱 살에 한림읍 금악리 박씨 가문에 장가를 갔다. 그런데 마누라가 조금만 화가 나면 친정집으로 가버리곤 하였다. 강태종 부모는 마누라를 데리러 갈 생각도 않는 강태종을 달래었다.
"가서 마누라를 데려 오너라. 마누라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되느냐? 시골살림에 마누라가 베도 짜고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지 않느냐?"
강태종은 하는 수 없이 금악 친정집에 갔다. 그런데 장모는 매우 근심에 쌓여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햄수가?(합니까?)"
"저 검은오름 앞에 있는 보리 스물 다섯말들이 들을 개간해야 금년 산뒤(밭벼)를 파종할 텐데, 일꾼을 구해 보았으나 몇 사람 구하지 못하는 중이네."
"집에 쉐(소) 있수가?"
"작은 암송아지 하나 뿐이네."
"한번 쉐를 보쿠다(보겠읍니다.)"
외양간에 가보니 자그만 암송아지가 하나 있었다.
"이 쉐면 밭을 갈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사람이나 빌었수가(구했읍니까?)"
"다섯 일꾼은 있어야 밭을 개간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일꾼 밖에는 못 구했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한번 갈아 보쿠다(갈아보겠읍니다.)"
이튿날 아침에 장모는 일꾼들이 오자 쌀밥에 생선을 구어 놓고는 술까지 차려 놓자, 일꾼들은 배불리 먹고 일하러 들로 나갔다. 강태종은 나중에야 한번도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송아지를 끌고 쟁기를 지고 밭으로 갔다.
일찍 온 일꾼들이 쟁기를 차리고 밭구석으로 가서 연장을 밭에 대었으나 뜻대로 갈 수 없었다. 풀이 가득 들어차 있는 띠밭이라 조금도 갈지 못하고 쉐만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할 뿐이었다. 사위인 강태종은 밭을 갈 준비도 하지 않고 <굴묵이> 나무에 쉐를

세워둔 후 간만히 앉아 밭가는 일꾼들의 모습만 살피는 것이었다.
일꾼들이 밭을 갈려고 애쓰다 힘에 겨워 손을 놓고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해도 밭을 갈 수가 없네. 오늘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구나."
"그렇게들 일을 못합니까? 내가 밭을 갈 터이니 한번 구경해 보시오."
강태종이 의기양양하게 일어서서 큰소리를 한번 친 후 송아지에 쟁기를 메우기 시작하자 일꾼들이 "그렇게 약한 송아지로 밭을 어떻게 갈려는 것인가"하고 힐난을 했다.
강태종은 이런 말을 들은 체도 않고 "이놈의 송아지야, 걸아봐라"고 한번 소리치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자 송아지는 걸림없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동멍에(동쪽 밭머리)에서 서멍에(서쪽 밭머리)로, 서멍에서 동멍에로 갔다 온 다음 가운데를 딱 짚어 쟁기를 밀어가자 송아지는 힘쓰는 둥 마는 둥 앞으로 걸어가고 자굴풀들이 멍석 말아지듯 일어났다. 이것을 본 일꾼들은 그만 덜컥 겁이 났다.
"우리는 대접도 잘받고 힘센 <쉐>를 이끌어 밭을 갈러 왔는데 작은 <쉐>로 밭가는 저 사람보다도 못하니 부끄럽다 돌아가자."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위인 강태종만 혼자 밭을 갈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장모가 일꾼들이 먹을 점심을 차려 놓고 밭에 와서 보니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사위만 밭을 갈고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혼자서이지만 밭을 반 이상을 갈고 있었다.
"일꾼들은 어딜 가고 자제 혼자만 있는가?"
"그 사람들 한번도 밭을 갈아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읍니다."
"그러면 이 밭은 누가 갈았는가?"
"내가 갈았지요."
"경ᄒᆞ나 정ᄒᆞ나(그리하나 저리하나) 점심이나 들게."
사위는 장모와 앉아서 배불리 점심을 다 먹은 후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다. 장모는 사위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앉아서 보니 송아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송아지는 그냥 걸어만 갈 뿐이고 사위가 힘으로 쟁기를 쭉 밀면 <자굴> 뿌리들이 기와장 포개 놓듯 일어났다.
"야, 거참 우리 사위 일 잘하는구나."
장모가 집에 돌아와 있으려니 해 떨어지기 전에 사위가 소를 몰고 돌아왔다. 그넓은 밭을 혼자 다 갈았다는 것이다. 장모는 그밭 흙덩이를 바수어야 할텐데 하고 똑 걱정을 했다.
다음날 강태종은 큰 괭이를 들고 밭으로 갔다. 한번 괭이로 흙덩이를 두드리자 괭이자루가 꺾어졌다. 그러자 큰 나무 가지를 잡아당겨 꺾어서는 그것으로 흙덩이를 바수었다. 힘이 장사라 큰 나무 몽둥이로 바수면서 풀을 이리저리 마구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장모가 점심을 차려 밭으로 가다보니 밭에 회오리 바람이 든 것 같았다. 흙먼지가 하늘에 뿌옇게 덮혀 있는 속을 어떤 새들이 날아 다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강태종이 풀을 집

어 쉴 사이 없이 집어 던졌기 때문이었다. 강태종은 장모가 가져온 점심을 먹고 어둡기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일 다했는가?"

"예, 다 마쳐놓았읍니다. 스무닷새쯤 후면 다시 와서 두 번째 밭을 갈쿠다(갈겠읍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딸이 친정집에 돌아오면 곧 돌려 보내곤 했다. 그러나 결국 강태종은 금악 박씨 부인과는 함께 오래 살지 못하고 화순 박씨 규수를 새부인으로 맞아들여 살았다.

강태종은 스물다섯 살부터 훈장일을 했고, 지리에도 능통해서 고전적(高典籍) 다음으로 유명했다. 강태종은 자리를 찾아 주는 때에 닭 한 마리를 잡아주면 닭 한 마리 댓가의 자리를 찾아주고, 소를 잡아 대접하면 소 한 마리 댓가의 자리를 찾아 주었다.

강태종 부인이 돌아갔을 때의 일이었다. 아들이 삼형제인데, 아들들은 아무렴 아버지가 지관이신데 어머니 자리를 찾아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일이 다 되어도 자리를 찾으려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종이 이렇게 한 것은 아들이 찾아와서 "명당 자리를 봐 주십시오."하고 자청도 대접도 안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강태종이 작은 아들 집에 들리자 며느리가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아버님, 좀 잡수십서(드세요)"

"며느리야, 어떤 일로 닭을 잡았느냐?"

"아버님께 드리려고 잡았읍니다."

"음"

아무 말없이 맛있게 먹고는 집으로 돌아온 강태종은 닷새 후에 아들들을 불렀다.

"너희들, 어디 안 가보겠느냐? 너희 어머니 묻을 좋은 묏자리 찾으러 말이다."

"아버님, 그렇게 하지요."

강태종은 아들을 데리고 이산 저산 다니며, 묏자리를 찾다가 녹나무 한 그루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어떠냐?"

"어머님 묻을 묏자리로 괜찮습니까?"

"음, 닭 한마리치는 충분히 된다."

그곳에 어머님을 장례 지낸 후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닭 한마리치 땅이라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작은 며느리가 이런 사정을 알고는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나, 어느 날 아버님이 왔기에 닭 한 마리를 잡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닭 한마리치 묏자리를 봤구나"하고 탄식하였다.

이런 사연을 들은 아들 삼형제는 서로 의논하고 돈을 모아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소 한 마리를 잡아 드릴 터이니 어머님 묏자리를 다시 고쳐봅서."
"음, 안된다. 하늘이 정해 준 곳인데 너희들 복덕이 그정도 밖에는 안 되니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성의가 부족한 탓이야."
이처럼 강태종은 비록 아들들이 간청을 해도 고쳐 주질 않았던 지관이었다.
강태종 훈장은 나이 팔십이 되어도 굿청(굿하는 목소리)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강훈장은 가르치는 제자가 오십명은 되었다. 강훈장은 종종 한문과 경문을 잘하는 제자 서너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 의원일도 하고 독경과 무당질을 하다 돌아오곤 했다.
한번은 강훈장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무당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이었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야 이 환자를 살릴 수 있겠다."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강훈장과 제자들이었다. 심부름온 사람이 강훈장 앞으로 와서는 공손히 절을 한 뒤 "어르신님 청해 모시라 해서 청하겠읍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사연인가?"
"집에 함께 가보면 아시게 됩니다."
심부름꾼을 따라 어떤 집에 가보니 굿을 왈랑왈랑 하고 있었다. 무당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강훈장과 제자들은 술과 더불어 식사대접을 후하게 받았다.
강훈장이 무당을 불러 "너희들, 어디까지 굿을 했느냐? 나도 한번 해보자"고 굿을 하겠다고 청했다. 강훈장이 굿을 맡아서 한번 흥겹게 굿을 벌인 다음 주인을 불렀다.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동티탓이다. 변소간 동티여 변소에 가보면 <쿳낭> 말뚝에 순(싹)이 났을 것이다."
변소에 가서 찾아보니 말뚝이 흉을 보이려고 변소간 디딤돌 밑에 들어가서 싹이 나 있었다. 제자가 말뚝을 뽑아보니 바싹 마른 나무토막 끝에 싹이 파랗게 나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동티인 것이다.
제자가 동티에 대해 독경을 시작하자 몸을 뒤틀며 죽어가던 사람이 물도 달라고 하여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다. 이것을 지켜보던 무당이 굿을 잘못했다고 욕을 듣게 될까 해서 "이젠 굿을 거두고 가겠소." 하고 돌아가려 했다.
"음, 안되는 법이다. 조상신을 청해 놓고 그냥 돌려 보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굿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다. 일주일동안 할 굿이니 일주일은 굿을 해야 하느니라."
강훈장은 무당을 욕한 뒤 가만히 앉아서 굿하는 것을 구경만 했다. 무당이 굿을 딱 마치고 잡귀를 내쫓기 위해 콩씨를 뿌렸다. 모든 굿 절차가 다 끝나자 강훈장이 무당을 불렀다.

"다 했느냐?"
"예, 다했읍니다."
"음, 아니로다. 저 안방 구석에 숨은 잡귀는 그냥 놔둘건가? 내쫓아야지"
큰 굿을 할 때면 허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잡귀들이 들어와 조상신과 더불어 얻어 먹는다고 한다. 그런 잡귀가 다 쫓겨가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이다. 무당이 안방에 숨은 잡귀를 내쫓았다.
"다 내쫓았느냐?"
"예, 다했읍니다."
"눈이 어둡구나. 저 조왕(부엌)에 가서 보라. 거기 앉아 있지 않느냐?"
주역점을 치는 훈장이라 무당의 눈에는 안 보였으나 강훈장은 잡귀의 거동을 다 봤던 것이다.
무당이 다시 내쫓으니 잡귀들이 <정낭>놓은 <정주막> 위에 가서 앉고는 강훈장을 탓하였다.
"저 강훈장이 와서는 우리가 한 며칠 더 얻어먹을 것을 못하게 하니 억울하구나"
잡귀가 분통을 터뜨리는 말을 들은 강훈장은 "그렇게 억울할가? 그러면 술이나 한잔 먹고 다음에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하고 술한잔을 비워 뿌려주었다.
강훈장이 잡귀를 다 내쫓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생기를 회복한 주인이 이젠 강훈장에게 보답을 하려고 거처를 물었다.
"어떻게 하면 사는 곳을 찾아갈 수 있읍니까?"
"저 도원(대정읍 신도리와 무릉리)에 와서 강의원을 찾으면 알 수 있다."
가을철이 되자 병이 나은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잡고, 팥, 밭벼 한 섬씩을 실어 일꾼 몇 사람을 데리고 도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도원에 이르러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의원 댁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강훈장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강의원이라고만 하면 알 수 있다고 해놨으니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멀리 정의 토평에서 도원까지 찾아와서 답례를 못하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지치고 해서 정자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한숨을 지었다.
도원에서 강의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안다는 데 어찌된 일인가?
정자나무 그늘 옆에 앉았던 한 사람이 이말을 듣고는 "강태종 훈장이 어느 마을에 가서 또 한번 장난질을 했구나. 저 집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 하고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일행이 짐실은 소를 이끌고 가리켜 준 집을 찾아가 보니 바로 강훈장이 갓을 쓰고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훈장이 긴 담뱃대를 물고 왕왕하면서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좀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강훈장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인사를 드렸다.
"강훈장님을 찾아 왔읍니다."
"음, 어디서 왔는가?"
"정의 토평에서 왔읍니다. 토평 사는 아무개입니다."
"음, 그럴 법하다. 그런데 어떤 일로 찾아왔는가?"
"그냥 술이나 한잔 대접하려고 왔읍니다."
돼지 잡은 것과 팥, 쌀등 짐을 내려놓았다.
"음, 그러면 안으로 들여놓게."
사람들이 돌아가자 강훈장은 가르치는 일을 마치고 수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저 가져온 고기 썰어라. 또 아무 아무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동네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
강훈장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번 나갔다 들어올 때면 엽전으로 백냥씩은 벌어왔다고 한다. 또 돈 뿐만 아니라 옷감들이나 곡식들도 벌어왔었다. 그러나 묏자리를 봐준 대접으로는 술이나 음식으로는 받았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 한다. 지리에도 아주 뛰어났는데 강훈장이 봐준 자리의 묘는 <골총>이 되지 않았다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5. 의원 장의

옛날 제주도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라고 한다면 명월에 살았던 월계 진좌수라고 한다. 그러나 대정 고을에도 명의가 있었는데 성씨가 장으로 장의원이라 한다. 그는 매우 고집이 세었다. 원래 의술이 뛰어났지만 병을 고쳐 달라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면 장의원은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는 정성된 마음이 있는가를 우선 살피는 것이었다. 특히 환자가 식사하는 부엌 모습을 살피고, 며칠을 조사하기도 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의 병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부인이 식사를 하며 남편에게 그 의원은 병치료도 잘 못하고 효험도 없다고 하며 의원 흉을 보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장의원은 "이집 환자의 병은 못 고치겠다."고 중얼거리며 환자의 병이 어떤 병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 적이 있다.
장의원은 사람들이 의원을 흉보지 않고 음식이라도 잘 대접하여 정성을 다해 병을 치료하려 하면 꼭 죽을 병이 아니면 어떤 병이고 다 고쳤다 한다. 장의원은 병을 고치겠다는 환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치료를 해주었던 것이다.

장의원의 의술은 주로 침술을 썼다. 어떻게 해서 명의가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 환자의 병치료에 대한 자신감과 의원에 대한 정성을 보고 침술로써 병을 고쳤다고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6. 신도 충견무덤

대정읍 신도리에 영리한 개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옛날 대정현에서는 무명을 많이 만들어 팔았었다. 대정현 지방에는 흉년이 들었으나 정의현 지방에는 흉년이 심하게 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개주인이 정의현에 가서 무명을 팔고 쌀을 사다 먹으려고 무명 다섯 필을 지고 집을 나섰다.

주인이 짐을 지고 집을 나서자 진돗개처럼 흰 개가 주인을 따라 나왔다. 주인이 집에 가라고 개를 쫓아도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주인이 모른 체 하고 멀리 안보일만큼 가면 다시 개가 쫓아왔다. 대정고을 안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도 개는 역시 따라오고 있었다. 개주인은 돌아가라해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따라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산방산 가까이 와서 비석 세워 있는 굿물 지경에서 피로를 풀려고 짐진 무명을 풀어놓고 쉬고 있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앉아 있을 때 도적들이 나타났다.

"당신 지고 있는 짐이 뭣이냐?"

"무명입니다."

"그걸 지고 어딜 가느냐?"

"흉년이 들어 자식들이 굶어죽게 되니 이것이라도 팔아 쌀을 사다 먹어 살려고 이것을 팔러가는 길입니다."

"그런가, 당신은 그것이라도 있어 살아갈 방도가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없느냐?"

도적들이 무명을 빼앗아 갖지 못하게 되면 나를 죽이려 들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그렇게 욕심이 나거든 가지고 가라."

순순히 도적의 요구에 응하자 도둑놈들이 무명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개주인은 멀리까지 무명을 지고 와서 잃은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담배만 푹썩푹썩 피우며 잃어버린 무명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쫓아오던 개가 도적들의 뒤를 따라갔다. 실의와 허탄에 빠져 앉아 있으려니 개가 무명 보자기

를 물고 질질 끌며 돌아왔다. 그런데 개는 원래 흰개였는데 황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 개가 도적들의 뒤를 쫓아가 주인 물건을 찾으려고 물어 뜯고 하다 보니 피가 온 몸에 묻어서 벌겋게 된 것이다.

이놈 오지 못하도록 쫓아 두었는데 결국 우리 식구의 생명을 살렸구나 하고 개를 데려 <굿물>에 가서 몸에 피를 씻겨내니 다시 흰개가 되었다.

에, 그거 잘 되었다. 나와 같이 가자. 부지런히 걸어서 토평 어떤 집에 이르렀는데 그집은 사냥꾼의 집이었다.

옛날 제주도는 숲이 무성하여 노루, 사슴, 산돼지등 많은 짐승들이 서식하였다. 제주도 산간 마을마다 이런 짐승을 잡아파는 사냥꾼들이 많았는데, 개주인이 찾아간 집도 바로 이런 사냥꾼의 집이었다. 바로 사냥꾼 집에서 하룻밤을 지세게 되었다.

그런데 사냥꾼이 자주 방밖으로 나가서는 흰개를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사냥꾼도 개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그 개가 영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았다. 사냥꾼은 개가 마음에 들어 사고픈 생각이 났다.

"개를 나에게 팔 수 없읍니까?"

"대정현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팔아버리고 돌아갈 수 있읍니까? 팔 수 없읍니다."

"당신이 값을 달라는 대로 드릴 터이니 팔아 주십시오."

사냥꾼이 개를 팔아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하다시피 요청을 하자, 그 개는 주인의 얼굴만 가만히 쳐다봤다.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살폈던 것이다.

"얼마나 값을 쳐 줄 수 있읍니까?"

"백냥 줄터이니 팔아달라"

주인은 곰곰이 생각했다. 개값이 백냥이고 무명을 팔아 열닷냥만 받아 놓으면 올해 보릿고개를 무난히 넘길 수 있으리라.

드디어 개를 팔았다. 개값으로 백냥을 받고 무명을 팔아 곡식을 산 뒤 돌아오게 되자 개에게 당부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너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들은 개는 헤어지는게 아쉬워서인지 들어누워 움직이질 않았다.

그후 사냥꾼과 첫사냥을 나갔는데 작은 개이지만 큰 강록(숫사슴)을 잡았다. 사냥꾼은 첫사냥부터 수지가 맞은 것이다.

그날밤 원래 개주인이 잠을 자는데, 열두시쯤 되는 깊은 밤중에 낑낑 개소리가 들렸다. 아, 팔아버린 개소리로구나.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보니 바로 팔아버린 그 개가 사슴다리 한쪽을 물고 와있는 것이었다. 개 생각에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가격을 정당하게 받지 않

고 팔았기 때문에 값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물고 온 것이었다.

정의 토평과 대정 신도 사이는 약 칠십오리쯤 되는 거리다. 개가 밤중에 이 먼거리를 고기를 물고 달려온 것을 대견스레 여긴 개주인은 개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밥을 주었다. 그리고 개주인이 "빨리 날이 새긴전에 떠나라" 고 말하자 개는 마당을 한바퀴 돌고는 돌아갔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짐승들을 많이 잡아오는 날이면 개는 꼭 고기 한 다리를 물고 오는 것이었다. 사냥꾼도 아침에 살펴보고 고기 한쪽 다리가 없어지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다. 사람도 내리기 힘들게 기둥에 고기를 걸어두었는데 하고 의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냥을 나갈 때마다 영리한 개 덕택에 많은 짐승을 잡곤 했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내버려뒀다.

개가 고기를 물고 원주인집에 찾아가기를 여러해 동안 거듭했다. 어느 날 밤에도 역시 개는 고기 한쪽 다리를 물고 원주인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원주인은 죽었고, 그집 할머니가 있다가 주인을 찾아온 개를 반겨 맞으며 "너는 주인을 위해서 왔지만 주인은 죽어서 아무 곳에 묻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살았을 때 왔으면 주인을 볼 수 있었을 것을 죽었으니 못보게 되었구나" 하고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이말을 들은 개는 사람이 우는 것처럼 응응앵앵거리며 울다가 물고온 고리를 놓고는 마당을 세 번 빙빙 돌고는 밖으로 휙 나갔다. 원주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무덤앞에 구덩이를 마구 파고는 그곳에 들어누워 죽어버렸다. 나중에 그 할머니가 개의 주인에 대한 정성을 기특히 여겨 주인 무덤 앞에 잘 묻어 주었다.

지금도 고산으로 가는 신도 지경에 개무덤이 주인 무덤과 나란히 있다고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7. 산호 해녀

옛날 모슬포(摹瑟浦:大靜邑)에 한 해녀가 살고 있었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마마를 겪지 않은 해녀였다.

어느 날 해녀는 금로포(金露浦:安德面沙溪里)에 갔다가 대모(대瑁:바닷거북의 일종)가 바닷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밀물에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자 나가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해녀는 퍽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대모를 잡아서 바다에 놓아 주었다. 대모는 기쁜 듯이 조금 헤엄쳐 가다가, 잠시 뒤돌아서 마치 절하며 감사하듯이 머리를 꺼떡하고는 다시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후 얼마없이 해녀는 용머리(龍頭岩:安德面沙溪里) 아래에서 전복을 따러 바다에 들어

갔다. 큰 전복을 겨냥하여 물속으로 잠수하여 얼마간을 들어가니, 이상하게도 조개로 반질반질하게 장식한 대궐이 바다 속에 보였다.
'이게 어떤 대궐인가?'
생각하며,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기이한 꽃들이 난만해 있고,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궁궐이 차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다.
해녀는 대궐의 문 가까이 갔다. 이때 대궐 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당신께서 내 자식을 살려줘서 무어라 고마운 말씀 다 이를 수 없읍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해녀를 영접해 들어갔다.
해녀는 후히 대접받고 나오려고 하니, 할머니는 선물로 꽃 한 가지를 꺾어 주면서,
"이 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꽃만 있으면 마마는 면할 수 있읍니다."
고 하는 것이었다.
해녀는 꽃을 얻어 물 밖으로 나와보니, 그것은 산호(珊瑚) 꽃이었다. 해녀는 그 꽃을 소중히 간직했다. 과연 늙어 죽도록 효험이 있어, 해녀는 마마를 앓지 않고 넘겼다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강문호(남・) 제보.

8. 신대정원

대정원 신제우는 조천리 출신 양반이었다. 신대정원이 대정원 직책을 맡기전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 여러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될듯될듯하면서 합격되지 않았다.
전조관 대감을 찾아가 부탁을 했으나 돈만 허비되고 낙방하기만 했다. 하루는 대감이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신제우를 불렀다.
"지금까지 내가 소개해서 등과 안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이상하네. 그러지말고 한번 점이나 쳐보세."
그당시 남대문 앞에는 점쟁이들이 많았다. 신제우는 마음에 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열녀의 혼이 들어 있어. 열녀의 혼 때문에 낙방하는 것이로군"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기도를 좀 드려야 하겠어. 내가 등과하면 당신의 혼을 풀어주겠다고"
신제우가 열녀의 혼을 해혼시키겠다고 기도를 세 번 드리니 점쟁이가 이번 과거에는 등과 하겠으니 응시하라고 일러주었다.

대감을 찾아가서 갔다온 사연을 말했다.

"자네에게는 열녀의 정혼이 있어서 낙방한 것이니 점을 치라고 한 것일세. 이번에는 등과될거야."

신제우가 며칠후에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신제우는 원의 직함을 받고 대정원으로 부임했다. 부임하자마자 열녀를 아무날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전령을 마을마다 시달했다.

신대정원이 조사해서 보고해온 것을 보고 마을마다 열녀를 탐색한 결과 용수리 절부암에서 죽은 열녀의 혼이 아직 해혼(解魂)되어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용수리 열녀 혼부터 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신대정원은 절부암(節婦岩)이라 써서 열녀비를 세우고 자본을 내놓은 후 용수리와 고산리서 번갈아 열녀를 기념하는 제를 삼월보름날 마다 지내도록 하고 열네제 축문까지 써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절부암 열녀의 혼이 해혼되었다 한다.

신대정원은 또 대정현이 가뭄에 시달리자 기우제를 지내려 고산 수월봉에 와보니 제단을 차리는데 안성마춤이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제단과 비석을 세우고 제단 일대를 고금산이라해서 함부로 출입함을 막았다 한다.

남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88) 제보.

9. 채똑똑이

채구석(蔡龜錫)은 구한말에 대정현감을 지냈던 사람으로 그 사람됨이 매우 똑똑하다 하여서 채똑똑이라고 불리었다. 이러한 별명이 붙게된 연유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어느 해, 그가 진사 교지를 받고자 서울로 올라갈 때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제주 사람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인식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올라갈 때부터 생각한 일이 바로 어떻게 이번 서울길에서 서울 사람들을 좀 혼내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 거리에 들어서서는 그곳 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다. 상인들은 협수룩한 시골 선비를 보고 물건이나 많이 팔아볼 양으로 그를 상점 안으로 안내하였다.

"어서 오시오. 시골 양반"

주인은 시골 양반이라는데에 더 힘주어 말하였다.

"물건 좀 삽시다."

시골 사람 닮지 않게 채구석을 의젓이 들어갔다. 그는 이것저것 한참이나 물건들을 구경한 다음에 모자 하나를 골랐다. 그런데 그 모자는 상점 주인이 보기에도 여러 모자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

돈을 치르고는,

"내 조정에 다닐 일이 있어 가는 길이니 일을 마치고 이것을 찾아갈 동안 좀 간수하여 두시오."

이렇게 부탁하여 두고는 나왔다. 주인은 생각하니 뭔가 손해를 본것만 같았다. 물건 고르는 눈도 그렇거니와, 그 의젓한 말씨하며 도처히 촌놈이라고 생각한 자기가 오히려 무색하게 느껴졌다.

"옳지 그래도 내게는 어쩔수가 없을 거야."

상점 주인은 그 모자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모자 중에서 자기가 사놓은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증거로 자기 것을 주장한단 말인가. 다시 모자를 보아도 그것은 상점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며칠 후에 채구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상점에 들렀다.

"내가 맡긴 모자를 이리 내주시오."

역시 으젓하게 모자를 요구하였다.

"예, 여기 있읍니다."

주인이 내놓은 모자는 물론 채구석이가 애초에 서서 맡겼던 그 모자가 아니었다.

"이건 제것 아닌데요."

채는 고개를 흔들었다. 주인은 용하게도 알아보는 그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모자를 내어놓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주인의 얼굴을 쏘아보듯 바라봤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는 힐난의 표정이었다.

"아니 그게 당신 것이 아니라면, 낸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새 모자를 내놓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고개를 내저었다. 주인은 정말 이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 모자를 알아보고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한 구석에 밀쳐두었던 진짜 그 모자를 내놓았다. 그러자 채구석은 그 모자를 한번 들어보고는,

"아, 바로 이게 제것입니다."

하면서 그 모자 안에서 무엇을 뒤적뒤적하더니 바늘 하나를 꺼내었다.

"아니 그게 바늘이 아니오."

주인은 놀라서 물었다.
"그렇소. 이게 바늘이오."
"그런데 왜 그게 그 자리에 있소."
채구석은 빙그레 웃으면서 주인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모자를 내줄줄 나는 미리부터 알았던 거요. 그래서 내가 모자를 사면서 이 바늘을 그 안에 살짝 찔러 놓았던 거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난 당신이 헙수룩한 시골 선비로만 알았지요. 정말 당신은 서울 사람 뺨칠 정도로 똑똑한 분이구료."
채는 몸둘곳을 몰라하는 그 상점 주인을 보고는 고소하였다. 서울놈이면 제가 얼마나 할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보, 서울 양반,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업신 여겨서야 어디 서울 사람 아닌사람 서러워서 살겠어요."
이렇게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와서 제주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채구석은,
"서울놈들도 별수가 없더군."
하고 웃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이제부터는 채구석이라 하지 말고 채똑똑이라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바탕 웃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 이후부터 그를 흔히 채똑똑이라 불렀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71) 제보.

10.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

옛날 대정 현에 아주 가난하면서도 화락한 선비의 집안이 있었다. 이 집 시아버지는 늘 글만 읽으면서 일생을 보냈었기 때문에 집안이 늘 곤궁하였다. 그러나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굴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갖질 않았다.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였다. 역시 며느리도 어질고 착한 여자였다. 며느리는 없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온갖 일을 다하였다. 그러면서도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다.
어느 해였다. 시아버지 생일을 당한 며느리의 심정은 딱하기 그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생신을 차려드렸는데 금년에는 백방으로 노력해도 차려드릴 형편이 못되었다.

며칠을 생각한 나머지 며느리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머리를 잘라서 그것으로 생신을 차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 스스로도 하도 대견하였다.

생신상을 받은 시아버지는 눈이 뚱그래졌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매 끼니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한 성찬으로 생신상을 차린데는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며느리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그 생신상을 받았다.

생신상을 받고서 술을 한잔 며느리에게 받으면서 고개를 살풋이 숙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니 아가야……"

한마디 하고는 들었던 술잔을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인 며느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

"아가야, 아니 네 그 고운 머리를 어찌하고……"

탄식하는 시아버지를 본 며느리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거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가 더욱 놀라 어리둥절하는데,

"아버님 제 보잘것없는 머리를 잘라서 아버님 생신을 차려드린게 제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춤을 보시고 오래오래 만수를 누리십시오."

며느리는 흡사 신들린 여자처럼 춤을 추었다. 그 광경을 보던 늙은 시아버지는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어 목청껏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이때 그 주위를 암행어사가 지나다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몰래 가까이 가서 집안의 사정을 엿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수건 쓴 젊은 여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옆에서 늙은 노인이 진수성찬이 차려진 큰 상을 받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고 있지 않은가. 어사는 이 집에 필시 이상한 일이 있으려니 하고 들어갔다.

"지나가는 객이옵니다만, 하도 슬픈 곡소리를 듣고와 보니, 틀림없이 기이한 사정이 있는 것같아서 이렇게 들렀읍니다. 나그네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면 힘이 될까 합니다."

이 어사의 말을 노인은 붓을 내놓고는 다음과 같이 써서 내보였다.

"이것이 무슨 뜻이온지요."

어사는 그 사정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상을 만난 집에서 여승이 춤을 추는데 노인은 곡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노인은 그 연유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다.

즉 며느리는 머리를 잘라버렸으니 중과 마찬가지요, 자기의 머리를 잘라 시아버지의 생신을 차릴 수 있어 기뻐 춤을 추는 것이요, 시아버지인 노인은 그 효심에 감복하여 울고 있으니, 이 집은 바로 초상집과 같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 사연을 들은 어사는 돌아가 이 일을 상감께 아뢰고 그 늙은 시아버지인 선비에게 과거를 내렸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도 효부의 상을 내렸으니 하루 아침에 그 가정은 큰 복을 받고 정말 화락하게 살게 되었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71) 제보.

Ⅲ. 信仰傳說

1. 굿물 파혈지

대정읍 보성리에서 산방산 쪽으로 가는 길에 굿물거리가 있다. 여기에 오씨 가문 선산이 있는데 그 묘혈이 파혈된 곳이다.

오씨 선조가 세상을 뜨자 정시(地官)를 청해서 묏자리를 살피는데 정시가 상주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좋은 묏자리이니 땅을 파다 넓은 바위가 나오더라도 그 바위를 파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알겠수다"

그런데 장사 지내는 날 하관할 자리를 파는데 넓은 바위가 마침 나왔다. 정시가 파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인데, 사위가 장사 지내는데 왔다가 보고 "어찌 사람을 바위 위에 묻을 수 있느냐"하고 상두꾼들에게 바위를 파내도록 했다. 상두꾼들이 몰려 들어 그 넓은 바윗돌을 파내는 순간 그 속에서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다.

그런 까닭에 묏자리는 파혈되어 그곳에 장사지낸 오씨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한다.

파혈된 묏자리는 안덕면 화순에도 둠신둠신 있는데, 하관할 곳을 파다 바위가 나오자 파내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좋은 묏자리에는 반석이 나오는 일이 종종 있는데, 반석을 파내지 않고 그대로 그위에 묻는다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2. 저승에 다녀온 강씨

옛날 일과리(大靜邑 日果里)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늙지도 않고 중년인 때에 어느 날 홀연히 죽고 말았다. 일단 소렴(小斂)을 끝내두고, 3일 후에 대렴(大斂)을 하여 성복제를 지낼 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었던 시체가 갑자기 움직거리는 것이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 보던 가족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렴했던 것을 풀지 않을 수 없었다. 죽었다고만 믿었던 강씨는 잠에서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아,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를 지켜보던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강씨는 죽었다 살아나기까지의 과정을 말해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죽었던 그날 사령이 왔더라는 것이다.

"가자!"

"어데?"

"난 저승에서 명령을 받고 당신을 잡으러 온 사령이니, 어서 저승으로 갑시다."

사령은 강씨를 데리고 집밖으로 나오다가 기둥걸이에 걸어 둔 짚신까지 신고는 계속 어디론가 데려 가더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가고 보니 큰 대문 단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는 창 들은 문지기들이 있었다. 그 문지기들은 사령이 그 앞을 당도하자마자 문을 열어줬다. 아홉 번째의 문을 통과했을 때였다. 저승 염라대왕인지 모르지만 강씨의 눈에 훌륭하고 점잖게 보이는 사람이 용상 위에 앉아 있었다. 사령은 곧바로 그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는,

"여기 일과리 강 아무 가(哥)이를 잡아 왔읍니다."

"아, 그래."

무슨 문서책을 뒤적이고 난 후였다.

"너 이놈! 내가 언제 일과리 강 아무 가이를 잡아 오라고 했느냐, 구억리(大靜邑 九億里)강 아무 가이를 잡아오라고 했지. 그 사람을 당장 이승으로 내 보내어라."

사령은 미심쩍다는 듯이 머리를 쓸고 나서는, 강씨에게 백강아지 하나를 내어 주면서 백강아지 뒤만 따라 이승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강씨는 사령의 말대로 백강아지 뒤만 쫓으며 이승으로 나오고 있을 때였다. 나오다 보니 낯익은 사람이 보였다. 바로 몇 달 전에 죽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허름한 차림새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해서 여길 왔는가?"

"아, 사령놈 따라 여기 왔다가 잘못 데려 왔다고 해서 다시 이승으로 나가는 중이지요."
"참 잘 됐네. 자네 이승에 가거든 우리 아들에게 가서 돈 3백원만 보내달라고 전해 주게."
"왜 그렇읍니까?"
"내가 이승에서 돈 3백원 빚을 갚지 못하고 저승에 왔기 때문에 그 벌로 이 고생을 하고 있네. 꼭 부탁하네."
저승에 다녀온 강씨의 이야기가 끝났다. 구억리 강 아무 가이는 동성동명이었는데, 이튿날 갑자기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한다. 저승 차사가 깜빡 실수하는 바람에 일과리 강씨는 구억리 강씨 대신 저승엘 잠시 다녀왔던 것이다.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부란, 김재현(남·88) 제보.

3. 소목사와 오댁 묘

소목사는 풍수리지에 능통한 목사였다. 그는 제주목사로 부임한 즉시 지(池) 참서의 묘를 보고 싶다고 역리방에게 말하였다. 지(池) 참서는 평소 소(蘇) 목사가 존경하던 인물이었다.
역리방의 안내를 받으면서 목사는 지참사의 무덤이 있는 대정(大靜) 지방으로 갔다. 대정고을을 넘어 감산(甘山)리 지경에 바로 지참소 묘가 있었다. 목사 일행은 지참소 묘역에 이르렀다.
"말을 하마(下馬)시켜라."
목사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묘소에 참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도록 준비하였다. 목사는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묘역을 휘 돌아보고는 탄복을 하였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차지하여 묻히였구나."
이러한 탄복을 그 곁에서 늘 상 따라다니는 통인(通引)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듣고 있었다.
목사는 옛 스승인 지참사 무덤에 성묘한 다음 돌아오다가, 지금 산방산 뒤 일주도로 변에 이르자 갑자기 하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말을 멈추어라, 잠깐 쉬어가게."
말에서 내린 소목사는 그 높직한 동산에 떡 버티어 앉아서 사방을 휘휘 돌아 보더니,
"야, 좋구나. 좋아."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은 계속 한곳에 머물고 있었다. 통인이 바짝 긴장을 하고 목사의 눈치만을 살폈다. 목사는 그 곳에 군물이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주위를 휘휘 돌아보면서

감탄을 계속하였다.

"맹호출림(猛虎出林) 좋으니라. 좋아."

그 지역이 바로 범이 숲속에서 나오는 지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통인 말고는 목사의 그 중얼거림에 관심을 갖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소목사의 지참사묘 참배는 맡쳐졌다.

얼마 후에 그 때 소목사를 따라 나섰던 통인이 아버지 상을 만났다. 그는 바로 대정고을 오댁이었다.

통인은 문득 그 언제 목사를 따라다닐 때 목사가 탄복하던 그 땅이 생각났다. 그는 상주의 몸으로 염치불구하고 목사에게 달려갔다.

"나으리, 제 아버지 누울 자리를 하나 봐 주십시오."

목사는 안면이 있는 통인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빈천한 통인이 감히 들어와서 부친의 묘자리를 구해달라는 청이 너무나 당돌하고 또한 절실한 것도 같아서 차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용감하고 염치없는 통인이 한술 더 떠서는,

"나으리, 지난번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그 군물머리에 산 한 자리를 소인에게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읍니다."

"뭣이라고? 군물머리……"

목사는 정신이 번쩍 트였다. 자기 혼자 몰래 봐둔 그 명당자리를 벌써 누가 알았다는게 기가막힐 일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비밀을 이 보잘것없는 통인 주제에 알았다는 게 더욱 놀랄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랄 일만은 아니었다. 목사는 통인을 다시 건너다 보았다. 통인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의 눈에 나타나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어디 누울 자리 하나쯤 마련해주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그의 처지로서는 당할 자리가 아니라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망서렸다.

"그곳은 안된다. 그곳은 네 처지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아니옵니다. 소인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 집안 대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인의 간절한 청이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았다.

"그래, 내 그곳을 내게 주마.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장삿날 개광할 때 네가 곧 그 곁에 서서 꼭 지켜야 한다."

"예, 명심하겠읍니다."

통인은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장사 준비를 서둘렀다.

장사날이 돌아왔다. 통인은 마음을 조아리며 그 목사의 분부를 잊지 않으려고 자꾸 다짐

하였다. 개광을 할 동안도 바로 그 옆에 꼭 붙어서서는 모든 것을 지켜봤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형님, 저 군수 나으리께서 조문왔읍니다."

매부 즉 일난집 사위가 통인에게 말하였다. 긴장을 하고 개광하는 것을 지켜보던 통인은 군수가 조문을 왔다는 바람에 그만 사또의 당부를 깜박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저 군수까지 이 빈천한 자의 장례에 조문왔다는 게 감격스러워 후다닥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사위가 틀림없이 봐서 말한 그 군수는 없었다. 통인은 이곳 저곳 두리번 거리면서 조문왔다는 군수 나으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렇게 통인인 상주가 조문왔다는 군수를 찾아다닐 동안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개광을 하는데 그 큰 암석이 나왔다. 모여선 일꾼들과 상제들과 일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왕 봐놓은 자리이므로 바위가 나왔든 무엇이 나왔든 그냥 그 위에 장사지내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돌 위에 시신을 모실 수 있느냐는 의견들이었다. 그런데 큰 상제는 나타나질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바윗돌을 일궈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일꾼들이 모여들어 그 바위를 일궈내려는 그 순간이었다. 바위 아래에서 비둘기 두 마리가 푸드득하니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미 일은 그르쳐버린 후였다.

군수나리를 찾다가 못찾아서 장지로 돌아온 큰 상주는 일이 이미 그르친 것을 알고는 땅을 치며 안타까와했다. 그러고 보니 사또의 말이 다시 불현 듯 생각났다. "네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다." 그렇다면 매부가 봤다는 군수 나으리도 허깨비가 아닌가.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이다. 이왕지사 그르친 일 후회한들 어떠리. 이미 정해진 일이니, 자 어서 그 돌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아버님을 모셔라."

결단을 내리고 그 파혈이 되어버린 자리에 장사를 지내고 일궈낸 바윗돌은 그 묘 옆에 세웠다. 그 바위 모습이 흡사 큰 빗돌 같았다.

그 후 그 통인 집안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중에는 선달 벼슬한 사람도 몇 있었다. 그렇게 비록 파혈은 했으나 명당터 못지않게 인물들이 분에 맞은 나왔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71) 제보.

安德面篇

Ⅰ. 自然傳說

1. 군산(軍山)

안덕면 창천리(倉川里) 지경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군막을 쳐놓은 것 같아서 군산이라 불러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이 붙게된 데는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마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겨우 10여호가 살고 있을 정도였다. 그 중에 강(姜)씨 선생이 있었다. 그는 글을 많이 읽어 주변에서는 학식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더구나 인품이 훌륭하여 강선생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러 모여 들었다.

하루는 제자들을 둘러 앉히고 글을 읽는데, 문밖에서도 글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은 이상히 생각하여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방안에서, '하늘천'하면, 바로 이어 문밖에서 따라 '하늘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고 여기고는 밖을 살펴보았지마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별로 흉측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삼년쯤 계속되던 어느날 이었다.

하루는 선생이 글 읽는 사람들을 돌려 보내고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아마 거의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선생님 주무십니까?"

선생은 꿈속인듯 생시인듯 어렴풋이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구시오?"

"예, 저는 저 멀리서 온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그동안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않고 선생

님 밑에서 3년간 글을 읽었읍니다. 이제 기한이 다 차서 선생님을 하직하여야 할 처지가 되어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드리러 왔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읍니다."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강선생은 모든 게 모르는 일이었으나, 문득 그동안 댓돌 아래에서 들리던 그 글읽던 소리를 생각해내고는 그가 바로 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어 그동안 선생님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사오니, 뭐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며 아뢰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 보겠읍니다."

용왕 아들이라는 자의 청이 간절했지마는 사실 욕심과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던 그에게는 뭐라고 부탁을 드릴 만한게 없었다.

"나야 뭐 젊은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내 생활은 모두 그네들이 도와주니 내겐 불편하다거나 필요한 게 없어요. 헌데 저 냇물이 요란하여 글 읽는데 조금 시끄러운 것밖에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실 그 동네 앞을 흐르는 그 창고내가 비라도 크게 내리는 날이면 냇물 소리가 크게 들려 아이들과 글 읽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선생에게 꼭 소원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용왕의 아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선생님 그 일 정도는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제가 돌아간 후에 며칠이 있으면 큰 비와 바람이 며칠간 내리칠 것이오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방문만 꼭 걸어 잠그고 지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가 이레되는 날에는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는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떠나고 얼마 없어서 뇌성병력이 치고 폭우가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선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두문불출 며칠을 지내었다.

그렇게 지내기 칠일이 되는 날이었다. 밖에 비바람도 좀 잔잔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은 이제는 별일이 없으려니 하고 문틈으로 밖을 살며시 내다봤다. 그 순간이었다. 이상한 빛이 번쩍하니 방안으로 드리치더니 그만 선생이 아찔하고 쓰러져 버렸다.

뒷날 깨어보니 선생은 아무래도 왼쪽 눈이 이상하게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전에는 없던 산이 떡 버티어 서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 풍우가 몰아쳤느냐는 듯이 맑게 개어 있었다.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제주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하여 관원이 그 진상을 살피러 내

려왔다. 관원은 이 새로 생긴 산을 보고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이 중국 곤륜산(崑崙山)이 이곳으로 옮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중국에 있는 서산(瑞山)이 옮겨온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산(瑞山)이라 부르다가, 그 모양이 군막(軍幕)과 같다고 하여 군산(軍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그 산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하여(굴르로 생겨났다고 하여)군뫼, 또는 군뫼오름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또한 이 군산 봉우리에는 예부터 금장지(禁葬地)로 전해왔다. 바로 쌍선망월형(雙仙望月型)이라 해서 나무나 명당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묘를 쓰면 큰 가뭄이 계속되거나 큰 장마가 계속되어 흉년이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때도 갑자기 가물기 시작하여 농사가 결단날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필시 이는 누가 금장터에 묘를 썼다고 그곳으로 몰려 갔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를 아무리 파헤쳐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그 주위를 파헤쳐 버리자 갑자기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가뭄을 면할 수 있었다.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김하규(남・69) 제보.

2. 유반석(儒班石)과 무반석(武班石)

안덕면 화순리는 동서 동네로 나누어졌는데, 신작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은 동동네, 서쪽은 섯동네라 한다. 섯동네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동동네에서는 글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동동네에는 동쪽 냇가 높은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고, 섯동네에도 서쪽 쌕은 다리라는 언덕에 또한 큰 바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어느 사이엔지, 동동네에 있는 바위를 유반석(儒班石)이라 하고, 섯동네에 있는 바위를 무반석(武班石)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위 글을 했다는 양반이라는 동동네 사람들이 항상 섯동네 사람들에게 꼼짝을 못하였다. 동동네 사람들은 이게 화날 일이었다.

어느 해에 동동네에 외지에서 지나다니던 사람이 머물러 살게 되었다. 그는 화순리 '펼물집'이라는 양(梁)댁에 머물러 지내게 되었다. 그 사람도 얼마를 지내는 동안에 이동네 사정을 알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에게 꿀리는 일은 좀처럼 볼 수 없던 일이었기에 이 마을 사정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어느날 밤이었다. 그는 집을 나와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무반과 유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눈 앞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다. 동쪽과 서쪽에 꼭같이 불빛이 나타났는데 서편에 나타난 불빛이 동편 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

었음을 보았다. 그는 이 사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그 밤을 보내었다.

뒷날 그는 지난 밤에 불빛이 보이던 그 쪽을 찾아가 보았다. 큰 바위가 버티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바위들을 자세히 보니 그게 범상한 바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반드시 이 바위에 무슨 연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날 저녁에도 밖에 나와서 그 바위들을 유심히 봤다. 역시 양쪽 바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서쪽 불빛이 동쪽 불빛보다 더 밝고 힘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는 유반들이 무반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동동네 유반들에게 은근히 귀띔을 하였다.

"여보시오들, 당신네가 섯동네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 바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정작 그 바위를 무너뜨릴 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서로 얼굴들만 쳐다볼 뿐 별 수를 내보이지 못하였다. 그날부터 동동네 사람들은 썩은 다리 언덕에 있는 바위를 무너뜨릴 방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해 가을이었다. 그 마을에 장사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치러야 하였다. 동서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장사 일을 맡아서 일들을 하는 중에 동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불현 듯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이때다. 오늘 해치우자."

그들은 장삿날인 오늘 그 일을 해치우자고 의논을 하였다.

장사일이 진행되는 동안 동동네 사람들은 여러 꾀를 생각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역시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장사일을 마치자 상가집에서 내놓은 술로 일꾼들이 모두들 거나하게 취하였다. 그 때를 동동네 사람들이 놓치질 않았다.

"자,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하니 우리 힘자라이나 합시다."

힘자랑을 동동네에서 먼저 제의하자, 서동네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면서 코웃음을 쳤다.

"그래, 해봅시다."

섯동네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였다. 힘자랑은 시작되었다. 제일 힘센 사람이 나와서 '뜸돌'들기로 하였다. 할 적마다 동동네 사람들이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서동네 사람들이 기고만장했다.

"자,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 바위를 굴려보기로 합시다."

동동네 청년이 나서서는 섯동네 그 바위를 가르쳤다.

"이번에는 우리부터 먼저하겠소. 노상 지기만 했으니."

동동네에서 먼저 무너뜨려 보기로 하고 힘내기는 시작되었다. 섯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만 하였다. '제뜸 놈들이 모두 힘을 써본다해야 다 아는 돗대멩이 아니냐."

동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을 쓰는 척하였으나, 바위가 끄떡할리 없었다. 그들은 손을 털고 비실비실 뒷걸음질하면서 물러났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동네 사람들이 '우와' 소리지르며 바위로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그 큰 바위는 나동그라졌다.

그때였다. 그 굴러넘어진 바위 아래에서 청비둘기 한쌍이 '푸드득' 날아 하늘로 솟았다. 비둘기는 한라산 쪽으로 유유히 날아가버렸다. 그제야 섯동네 사람들은 동동네 사람들이 흉계를 알았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야, 저놈들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도 가서 저 유반석을 부수자."

섯동네 사람들이 '우와' 소리를 지르면서 유반석으로 달려갔다. 모두들 그 바위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이 모여들면 거뜬히 넘어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유반석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 섯동네 사람들은 땅을 치며 억울해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논 물이었다.

그후부터 이상하게도 섯동네 사람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갔다. 힘쓰는 사람들이 병들든지 죽어가든지 하였다. 결국 힘으로도 동동네 사람들을 당할 수 없게 되었다.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김하규(남·69) 제보.

Ⅱ. 歷史傳說

1. 창천리(倉川里) 지명 유래

지금부터 약 300여년 전이었다. 대정고을에 강위빙(姜胃聘)이라는 사람이 대정 좌수로 있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늘 초라한 의관을 하고 공사를 봤다.

하루는 그 강좌수가 목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의와 대정 지역의 중간 지대인 중문 방면으로 나갔다. 목사가 제주에 부임 초도 순시하는 때여서 목사는 이 지역 여러 일들에 관심을 유달리 갖고 순행을 하고 있었다.

목사는 자기 일행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강좌수의 초라한 행색에 마음이 쓰였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사리가 분명한 인물 같았다. 목사 일행은 이제 대정 지경으로 들어서서 지금 창천리(倉川里) 지경 냇가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저 곳에 집을 지으면 당대에 대정 갑부가 날 것인데…."

목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강좌수를 바라보았다. 강좌수는 목사 앞에 꿇어 엎디어서

는,

"감사합니다. 제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면 백골난망입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좌수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강좌수는 대정고을에 있는 집을 그 허허벌판인 지금의 창천리로 이사를 하였다. 누구도 살지 않았던 그 허허벌판을 개척하기 시작하자 몇년이 아니되어 부자가 되었다. 그 뒤로 오태연(吳泰連) 김두경(金斗崗) 등이 이사를 와서 강좌수의 사위가 되어 일가족을 이루어 었고, 그후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씨족부락이 형성되었다.

원래 마을 이름은 창고천리(倉庫川里)라 했는데, 후에 창천리로 바꾸었다. 즉 지금 이 마을을 흐르는 내가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창고(倉庫) 모양으로 이뤄졌다. 내의 양 옆에 기암절벽이 있고 그 암벽 모양이 꼭 창고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의 이름을 창고천(倉庫川)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창고천리(倉庫川里)라 하였다가 다시 창천리(倉川里)라 하였다.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김하규(남·69) 제보.

2. 산방산(山房山)과 방철(房哲)스님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지금 안덕면 사계리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없는 정말 사고무친(四顧無親)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단'이라고 불렀다. 아주 외로운(고단한) 사람이란 뜻에서이다.

그는 매우 가난한 처지여서 매일매일 동네 품팔이를 하면서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그 부인은 남의 삯바느질을 하면서 품을 팔아 가계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 부부는 열심으로 일을 하여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기에 별 큰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걱정이 그들 부부에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혼 7년이 되었으나 일점 혈육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산방산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귀동(貴童)이었다.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영특하기도 하였다. 그들 부부는 가난한 살림에서나마 그 자식이 여간 자랑스럽지 않았고, 또한 그 자식에게 큰 기대를 갖기도 하였다.

귀동이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였다. 귀동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눕더니 약도 변변이 못써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어린 귀동이었지마는 그 슬픔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년이 채 못되어 다시 그 아버지까지 급질로 돌아가게 되었다. 귀동이는 정말 사고무친이 되고 말았다.

귀동이는 천애고아가 되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결국 걸인이 되

는 수 밖에 없었다.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밥동냥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없는 살림에도 그를 도우는데는 모두 앞장을 섰다.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날 그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고단하여 산방산 기슭에 쓰러져 버렸다. 그는 깜박 잠이 든 사이에 날은 저물고 말았다. 깨고보니 밤이었다. 그는 무섭고 춥고 배까지 고파서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울음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

그때 산방산 암자에서 도를 닦던 고승(高僧)이 그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암자에서 나와 아이 있는데로 갔다. 우는 아이를 데려다가 불빛에서 보니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고승이 키우기로 작정을 하였다.

암자로 귀동이를 데려온 스님은 그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아이에게서 범상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허허, 이놈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정말 생각한대로 귀동이는 보통 아이와는 다르게 영특하였다. 하나를 배워주면 둘을 아는 총명을 가졌음을 고승은 알게 되었다.

귀동이는 그 암자에서 잔심부름으로부터 밥짓고 빨래 등속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처음에 귀동이를 길에서 데려온 고승은 바로 혜일법사(慧日法師)였는데 그는 마음 속으로 귀동이가 큰 스님이 될 것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글은 물론 모든 행실과 법도를 그런 입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었다.

"야, 귀동아, 너 이제 본격적으로 글공부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어느날 묻자,

"스님, 이렇게 스님 덕분에 목숨을 붙일 수 있는 것만도 큰 은혜이옵고, 더욱이 그동안 배려를 해주셔서 게 성명자를 깨칠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한 일인데, 다시 무슨 공부가 제게 가당하겠읍니까."

귀동이는 실로 공부를 더하고 싶었으나, 염치없는 일같아서 사양하는 뜻을 말하였다.

"이놈, 내가 말하는 뜻을 모르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무엄하게 왜 입을 많이 놀리느냐."

스님은 사실 귀동이가 사양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 기특하기도 하였으나, 칭찬을 하면 앞으로 글공부를 하는데 게으름이 따를까 저어하여, 첫 번부터 그를 욱박지르듯이 몰아붙였다.

귀동이는 아무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다음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날부터 그 스님에게 본격적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글은 일취월장 진보하여 갔다. 천자문부터 시작한 글은 오년 동안에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다.

어느날 스님은 귀동이를 불러 앉히고는,

"너가 글을 읽기 시작하여 이제 다섯 해가 되었은즉 이제는 글공부하는 방향을 정하는게 좋을 듯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앞에 꿇어앉은 귀동이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냥 고개만 푹 수그리고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 세상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는 수도 있고, 나와 같이 불경을 공부하여 도를 딱는 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스님은 귀동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마음을 알려는 것이었다. 헌데 이상하게도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수그린 그 얼굴에서 전혀 그의 의중을 살필 수 없었다.

귀동이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한마디 하였다가 꾸중을 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스님의 뜻에 맡기기로 단단히 마음을 가졌다.

"스님의 뜻대로 처분하여 주십시오."

겨우 이 한마디를 하였다. 스님은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꼬박 15년 동안 그는 스님 밑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 그리고는 계(戒)를 받고 법령을 방철(房哲)이라 하였다. 그는 바로 혜일법사(慧日法師)인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자네는 이제껏 세상 공부도 하였고 오랫동안 불경 공부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세사를 깨닫기는 모자라는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도를 닦아서 지식과 도가 합치되어야만 세상 일을 널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혜일법사는 조용히 방철상좌에게 타이르듯 말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그는 도 닦는 일에 정진하였다.

그렇게 도를 닦기 몇 달이 지난 후 혜일법사는 다시 방철상좌를 조용히 불렀다.

"이렇게 이곳에서만 도를 닦는 일보다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오는게 좋을거야."

그러고서 육지로 나가서 명산 대찰을 두루 참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방철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갔다. 일러준대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명산 대찰을 두루 구경하고 참배를 하였다. 그리고서 다시 중국 여행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혜일법사의 배려에서였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유점사에 거처를 정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도에 들어갔다. 천일을 기약하고 관음기도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하여 그는 도를 닦는 일만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마음먹게 되었다. 경치좋은 해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암자를 만들고 거기서 벽면 수련을 시작하였다.

계획된 대로 수련을 시작한지 꼭 1000일이 되는 날 저녁 바닷가로부터 이상한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였다. 문득 방철은 오늘이 바로 천일째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어쩐 일

인지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오기 시작하였다. 탁트인 바다가 바로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붉은 빛이 눈을 더욱 청량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 가운데 붉은 빛이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붉은 빛은 어떤 전복껍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으려 하였다. 그때였다.

"잠깐 기다려 내 말을 들으시오."

어디선가 묵직하고 조용하면서도 아리따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소복 단장한 한 선녀보다 아름다운 부인이 그를 내려다 보녀 은근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도를 닦고 세상물정에 두루 통달하였다는 그 자신도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였다.

"스님, 제 말을 명심하여 들으시오. 이 전복은 바로 생진주라는 것이오. 먹으면 만병을 고칠 수 있고, 백미 속에 넣어두면 그 수량이 날로 불어나서 그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오. 이 물건을 요긴하게 또한 써야 할 곳에만 쓴다면 스님은 이것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얼마라도 더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오."

이야기가 끝나자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방철은 그 여인이 바로 관세음이라 생각하여 합장 배례하고는 그 생진주를 집어서, 한 알을 집어삼켰다. 눈을 감아도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생진주를 가지고 다시 그의 고향 제주도로 들어왔다. 그리고 산방굴사에 정착하면서 괴로운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며,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불공을 드려주면서 한평생을 보내었다.

그러다가 나이 90이 되어 세상을 뜨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생불이라고 일컬었다. 바로 그는 방철대사가 되었던 것이다.

제주시 삼도동, 진원일(남 · 70) 제보.

3. 장사 정운디

옛날 안덕면 사계리 마을에 정운디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을 이(李)댁의 종이었는데 '닥밭'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닥밭정운디'라고 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또한 힘도 장사였다. 어느날 주인집에서 남방아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 그는 나막신을 신을 채로 산방산에 올라갔다. 그때는 그 산에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다.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로 나무를 베어 그 자리에서 방아를 다 만

들고 그것을 머리에 갓을 쓰듯 쓰고 산을 내려와서는 주인집 가까이에 이르자 울담 안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서 들어서자, 집안 사람들이 '남방아를 좀 만들었느냐.' 고 물었다.

"저 들어오는데 가보십시오. 하나 만들어다 놓았읍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눈을 뚱그레 뜨고 서로들 얼굴만 쳐다보았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사계리 마을에 큰 못을 팠는데, 그 못에 놓을 팡돌(사람들이 딛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넓적한 돌)을 옮겨놓을 일이 큰 문제였다. 그 돌은 봬나 큰 돌이어야 했느데, 한 스무나믄이 들어서서 옮겨 놓을 수 있는 돌이어야 했다.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어 끙끙거리며 그 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나가던 정운디가 그것을 보고는,

"이리 비키십시오."

하고 일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섰다. 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며 돌을 운반하던 사람들은 그가 끼어드는 일이 아니꼽기는 하였으나, 해볼테면 해보라는 투로 그에게 맡겨두고 자리를 피해 버렸다. 힘이 세다니까 얼마나 센가 보고 싶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운디가 그 팡돌을 혼자서 굴려다가 연못 제자리에 놓고서는 손을 툭툭 털고 비켜섰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 힘이 셈을 인정하였다.

그때는 마을마다 씨름판이 자주 벌어졌었다. 정운디는 이 씨름판에서도 항상 독판을 쳤다. 그때 대정에서는 오찰방(후에 벼슬을 함)이 힘이 세었으나 정운디를 당하지 못하였다. 그는 양반이었으나 힘이 정운디보다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양반이라도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오찰방은 기회를 벼르고 있었다.

어느날 오찰방이 들판을 다니다가 정운디가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길가에서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였다. 등에 잔뜩 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분량이 봬나 많았다. 사실 정운디는 그때 삼간집 한 거리 지을 재목을 한짐에 지고 내려오던 길이었다. 그래서 용변을 보게 되었는데, 짐을 부리고 또 다시 지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지고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찰방은 이때다 생각하고는 용변을 보고 있는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아무 생각없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의 짐을 꽉 눌렀다. 생각 같아서는 털썩 주저앉을 것으로 여겼는데 꿈쩍도 않았다. 다시 힘을 써서 눌렀는데도 정운디는 여전히 그냥 용변을 계속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정운디를 누르던 오찰방이 뒤로 벌떡 넘어졌다. 용변을 마친 정운디가 일어서는 바람에 그의 짐을 누르려던 오찰발이 넘어진 것이다. 도저히 정운디의 힘을 당할 수 없음을 오찰방은 절실히 느꼈다.

집에 돌아온 오찰방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대정 지방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하찮은 정운디에게 당하기만하는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정말 병이 날 형편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오찰방 부친이 아

들 몰래 정운디를 찾아갔다. 그에게 쌀 섬이나 보내고는, 아들 이야기를 하였다.
"아들이 지금 병이 나게 되었네. 자네가 어떻게 그놈과 씨름하여 한번만 져주게. 그러지 않으면 큰일나겠네."
간곡하게 사정을 하자,
"그러지요. 한번 정도는 져주는 일이야 그리 어렵지 않지요."
선선히 응락하였다. 그래서 꼭 한번 오찰방이 정운디와 씨름을 하여 이겨봤다고 한다.
이때 한라산에는 도적들이 성행하였다. 더구나 대정에서 한림지역으로 가는 길목인 지금 애월읍 어음리와 한림읍 명월리 경계에 있는 움부리라는 큰 굴에는 항상 도적들이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를 퇴치할 도리가 없었다.
어느날 대정 모슬포진에 근무하는 한림, 수원 출신 조방장이 집에 쌀섬이나 보내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 없었다. 도저히 무사하게 그곳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을 정운디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정운디는 쌀섬을 지고 홀로 길을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 움부리에 이르니 도적들이 내달으며 시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운디는 생각같아서는 그저 한바탕 하고 싶었지마는, 상대가 여럿일 것 같아서 수군수군 상대를 하였다. 짐을 진 채 굴 입구까지 따라가서는,
"담배난 한 대 피울 테니 불이나 좀 빕시다."
하고 담뱃불을 청하였다. 도둑들의 생각에는 아니꼬운 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제 손아귀에 든 처지이니 마지막 청이나 들어 주자는 마음에서 담뱃불을 내주었다. 정운디는 담뱃불을 붙이면서 굴안의 동정을 살폈다. 보아하니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담뱃불을 붙이는 척하다가 그곳에 피워있는 장작불을 이지저리 흩으려놓고 말았다. 그제야 낌새를 알아차린 도둑들이 굴밖으로 내달았다. 그때 정운디는 굴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 한그루를 쑥 뽑아 들고는 굴밖으로 나오는 도적들을 후리쳤다. 도둑들은 한번 제대로 상대하여 보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졌다. 그래서 70여명의 도둑들을 무사히 모두 사로잡았다. 이럭저럭 그는 산에서 날뛰는 도적들을 잡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때 정운디만큼 힘이 세다는 새샘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쩌면 정운디보다 더 힘이 세다고도 하였다. 그는 본래 낮은 계층의 출신이어서 힘이 세었으나 별 일을 못하고 남의 집일이나 해주면서 살아갔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배가 컸기 때문에 그의 식량을 감당할 수 없어 누구나 함부로 그를 데려 쓰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배가 고팠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라산에 올라가 도둑이 되어버렸다.
그는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산에서 그는 아주 왕노릇하게 되었다.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 없었다. 그는 대정과 모관(제주성)의 경계가 되는 '웃한길' 목에 있는 '넙은팡'이란 데 본거지를 두고 대정 모관을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마음대로 노략질하였다. 그러나 관아

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를 상대하여 싸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큰 일을 새샘이가 들에 방목하여 기르는 마소들을 마구 잡아먹는 일이다. 더구나 나라에 진상할 좋은 소들도 잡아 먹어 버려서 관아에서는 큰 골치를 앓고 있었다.

대정고을에서는 생각하다 못하여 이 새샘이를 잡을 인물로 정운디를 지목하였다. 정운디 밖에 그를 잡을 사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새샘이를 잡을 수 있느냐?"

어느날 대정 관아에서는 정운디를 찾아가서는 새샘이를 잡는데 참여하여 달라고 하였다.

"남들은 날보고 힘이 세다고 합니다만, 난 그를 당할 수 없읍니다."

정운디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음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자네밖에는 그 놈을 잡을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헐꺼냐."

다시 다구치자,

"그러면 한번 하여보겠읍니다만, 그럴려면 힘을 좀 길러야 하니 그런줄 아십시오."

뭘 좀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대정고을에서는 그에게 쌀 두섬과 소 두 마리를 보내었다. 그걸로 배불리 먹어 힘이나 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정운디는 배불리 먹으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게 며칠 가니 모두 없어졌다. 이 정도로 새샘이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정운디는 대정원에게 청하여 다시 얼마 동안 먹을 것을 대주도록 요청하였다. 다시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가 보내왔다. 그걸 다시 몽땅 먹어치웠다. 그동안 배불리 먹기는 하였으나 새샘이와 싸울려니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에게 새샘이를 잡기 위하여 대정 지방에서 힘이 세다는 장정 서른 하고 단단한 밧줄 서른 발만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것을 다 들어주자, 정운디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새샘이를 잡으러 떠났다.

"네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라.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터이니, 꼼짝말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거든 왈칵 들어와라."

굴 가까이 이르자 정운디는 여러 장정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는 자기만 먼저 들어갔다.

"형님, 나 왔우다."

정운디는 새샘이를 대하자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였다.

"어째서 이곳까지 왔느냐?"

새샘이는 날고기를 뜯어먹다가, 힐끗 바라보며 대꾸를 하였다.

"아무리 일을 해도 배가 고프니 살 맛이 없우다. 형님과 같이 여기서 지내려고 왔읍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였다.

"언제부터 오라고 하니까 이제야 왔어."

새샘이는 퉁명스럽게 말을 받으면서, 이놈이 이제야 이곳으로 기어들어왔구나 생각하였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무섭지는 않았으나 이 정운디는 그래도 꺼림직하던 차였다. 이놈까지 이곳으로 오게된다면 이제는 이 제주섬은 제 세상이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였다.

"성님, 배가고프우다. 뭐 먹을거나 좀 주십서."

"자, 이걸로 요기나 허게."

새샘이는 한쪽에 있는 소다리 하나를 휙 정운디에게 던졌다. 정운디는 그 소다리를 들고 그냥 뜯어먹으려다가는,

"형님, 칼 좀 빌립서." 하고 칼을 요구하였다.

"뭘 그까짓것을 칼 차리면서 먹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자기가 쓰던 칼을 내던졌다.

정운디는 칼을 받아 소뼈를 깎는 척하다가, 일부러 그것을 분질러 버렸다.

"이놈 그 칼이 어떤 칼이라고 분질러버려."

새샘이는 칼이 부러진 것을 보고는 버럭 화를 내었다. 그러나 이미 부러져 버린 후였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다. 새샘이가 부러진 칼에 마음을 쓰는 동안 정운디는 잡고 있던 소다리로 새샘이의 오른 팔을 후려쳤다. 새샘이의 팔이 뚝 꺾어졌다.

"하, 이놈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의리없는 자식."

그 순간이었다. 밖에 있던 장정들이 우루루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새샘이는 장정들에게 포박이 되었다.

"이놈 네가 나를 온전하게 잡아질줄 알았느냐. 곧 후회를 하게 될거다."

새샘이는 포박을 당한 채 눈을 부라리며 정운디를 꾸짖었다.

"새샘이를 잡아왔읍니다."

정운디는 의기양양하게 새샘이를 대정 원 앞으로 끌고가서는 보고하였다. 원은 새샘이를 잡고온 정운디를 가상하게 여기면서 후하게 다시 상금을 내릴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잡아온 즉시 곧 죽일 걸로 알았던 정운디는 새샘이를 그냥 하옥만 시키는데 적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하옥을 시켰다고 해서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 옥문 정도는 그저 툭 한번 발길질하면 부서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샘이를 이제 죽이지 않을 것이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정운디는 원 앞에 나아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새샘이는 그 연유를 말하였다.

"나으리, 저놈을 가둬둔다고 해서 그냥 감옥 속에 앉아 있겠읍니까. 틀림없이 오늘 저녁

안으로 옥을 부수고 나와서 저에게 복수를 할 것이니 제 목숨이 어찌 온전하겠읍니까."

이렇게 연유를 말하면서 곧 처단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중죄인을 일개 고을원의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정은 딱하지마는 어쩔 수가 없네. 다 법이 있는 일이니 그대로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어."

결국 새샘이는 제주목으로 압송할 동안 이곳에 가둬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운디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였다.

밤이되자 정운디는 생각다 못하여 먼저 수를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감옥 주위에 숨어서 도망쳐 나오는 새샘이를 자기가 처치하기로 결심하였다. 칼을 갈고 몸차림을 단단히 하고는 밤이 깊도록 기다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넘자 옥문이 우지끈 부서지더니 새샘이 후다닥 뛰쳐나왔다. 꾹꾹 졸던 옥사장이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할 때는 벌써 새샘이는 옥문을 빠져 나가려는 참이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운디는 칼을 내휘둘렀다.

"응, 내 운이 다하였구나. 내가 네놈의 칼에 죽다니....."

새샘이는 피를 흘리며 겨우 이 한마디를 하였다.

"형님, 할 수 없읍니다. 내가 살젠하니, ...용서해주십시오."

정운디는 그래도 마지막 의리를 지킨다고 한마디를 하였다.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남·84) 제보.

4. 고성목과 산방덕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현재 안덕면 산방산 아랫동네에 고성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 생겼고 힘도 장사였다. 그러나 그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부지런하게 일하여 많은 재산을 이루어 부자로 살게 되었다. 그는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재주가 비범하여 마음먹은 바가 안되는 것이 없이 척척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을 모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집을 중심으로 종들이 사는 집을 지어 살게 하였고, 또 다른 집에는 그를 호위할 자객들이 거처하기도 하였다. 정말 그는 큰 세도가와 같이 이 지방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미인인 산방덕이란 여자를 첩으로 데려 살았다. 그는 화순리 지역 '곤물'이라는데에 큰 과수원 겸 별장을 만들어 거기에 산방덕을 살리웠다. 그러나 비라도 내리게 되면 고성목은 그 첩의 집까지 거동하기가 불편하였다. 더구나 5월 장마나 계속되는 날이면 더욱 그랬다. 그래서 고성목은 한라산에 올라가 산돼지 수백마리를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그 첩 산방덕

의 집까지 깔아 놓았다. 그만큼 그는 날쌔었다.

그런데 이렇게 고성목이 호화스럽게 살아간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졌다. 그 살아가는 형세가 임금을 부러워하지 않을 지경이라고가지 소문이 나자 관가에서는 그 사실을 은밀하게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밀정을 보내어 조사하여 본 결과 사실 어마어마하게 사는 게 사실이었다. 더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집터가 문제였다. 그게 바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型)인 것이다. 이런 집터에 사는 자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더 위험한 인물이 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의 첩이라는 산방덕의 미모가 아름다움에는 더욱 놀랄 일이었다. 그는 후궁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조사를 나왔던 관리는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사또에게 보고를 하였다. 사또는 이는 필시 무슨 역적을 꾸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였고, 더구나 이 섬에서는 자기가 제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데려 노는 애첩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고성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분통이 일간하였다. 그래서 그를 합법적으로 처치할 방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그 마음을 떠 보려 하였다.

우선 '목사가 순력하게 되니, 담배씨로 석자 두께로 길을 메워 보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고성목은 하루 사이에 이 일을 해냈다. 관아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일을 내려 보냈다. 이번에는 목사 순력에 뒤따르는 관속들의 신을 짚신 백켤레를 하루밤 사이에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거뜬히 해내었다. 관가에서는 그에게 다른 핑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합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을 생각하였다. 목사는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서 고심하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 혼을 내고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만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소문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가 비상한 능력을 갖고있는 것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도 했다.

소문은 어느 사이에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관가에서는 그 소문을 핑계로 하여 그를 잡아들였다.

"네 이놈, 네가 역적 모의를 한다면서, 어찌 그리 무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관가에서는 그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역적모의에 대한 실토가 나올리 없었다.

그렇게 고성목이 잡혀가자 산방덕도 그 자신의 운명을 내다보게 되었다.

"내가 그를 도와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운이 트이질 않아 할 수 없구나."

산방덕은 한탄을 하면서 산방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신으로

서 사람됨이 비상한 고성목을 도와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였고, 관가에서 내린 어려운 일들도 척척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 후 고성목은 관가에서 가하는 모진 고문을 견디다 지쳐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진하였고, 그의 많은 재산은 역시 관아에서 모두 빼앗아 버렸다. 지금도 산방굴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로 산방덕의 눈물이라 전하기도 한다.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69) 제보.

5. 장사 구운문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화순리에 구운문이란 장사가 살았다고 한다. 그는 워낙 힘이 세고 걸음이 빨라서 소문에 그는 날개가 달렸다고 했다. 그는 지체가 낮은 집안에 태어나서 남의 일이나 돌봐주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처지였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대정 앞바다에 왜놈의 배들이 나타난 일이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자주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멋대로 할 때여서 왜배의 침입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대정원에서는 이 급한 일은 모관(제주) 관아에 알려야 할 형편이었다.

밤이면 봉화로라도 알릴 텐데 아무래도 사람이 가서 알려야할 판이었다. 이때 대정원에서는 구운문을 시켜서 이 일을 알리라고 하였다.

구운문이 아침을 먹는데 사령이 달려왔다.

"자네 어서 모관 관아에 다녀와야겠네. 급한 일이네."

"무슨 일인데 그리 야단이우."

구운문은 급한 일이라도 밥이나 우선 먹어야 할 게 아니냐는 투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조반은 그만둬. 이제 왜배가 쳐들어오고 있어. 큰일 아닌가. 어서 좀 수고하여 주게."

"알았어요. 나 밥먹고 갈테니 안심하시오."

아무리 사령이 안달을 해도 그는 밥을 먹기만 하였다. 사령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나와 버렸다.

한시간쯤 뒤에 사령은 이놈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나 알아보려고 그 구운문의 집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가. 그는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드러누워 잠만자고 있었다. 사령은 화가 났다.

"이놈아, 이 일을 어찌할려고 잠만 자느냐."

홧김에 발질로 서너번 찼다. 그 정도 발길질에 끄떡할 그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끙' 하며 몸을 비틀더니,

"왜 이리 시끄러워. 어디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신경질을 부리며 안달거리는 그 사령을 쏘아봤다.
"이놈아, 왜 여태 꾸물거리는 거냐. 모관은 언제 갈려고 잠만 자는 거냐. 너 이놈 곤장을 맞을려고 이 짓이냐."
사령이 노발대발하며 구운문을 몰아쳤다.
"웬 참견이요.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 잠도 자지 말란 말이요. 나 지금 피곤하여 잠 좀자는데 왜 그리 말이 많아요."
구운문은 한마디 뱉더니 몸을 뒤로 돌아누우며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느 사이에 성안에 다녀왔던 것이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갔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저 화순리 황댓내 밀에 너른 밭이 있었다. 거기에 보리를 갈아 3·4월이 되니 아주 푸릿푸릿하니 잘 자라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국쇠(나라의 소)가 들어 그 잘 자란 보리를 먹기 시작하였다. 국쇠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밭임자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더구나 들에서만 자라던 소들이라 날래고 사나와서 사람들이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밭임자는 생각다 못하여 구운문에게 사정을 하였다.
"구서방, 지금 국쇠가 보리밭에 들언 농사를 다 망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놔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터이니."
구운문은 끄덕끄덕 그 밭으로 나갔다. 말대로 설남은 마리 국쇠가 푸릿푸릿한 보리를 마구 뜯어먹고 있었다. 마침 그 밭 옆에 큰 못이 있는데, 그가 밭으로 들어가자 소들이 눈치를 채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 발끝 연못 옆에 떡 버티어 서서는 소들을 소리쳐 내몰았다. 소들이 뿔을 내세우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오는 대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소들의 뿔을 잡아 냅다 못으로 던졌다. 계속 소들이 달려들었으나 그는 그렇게 소들을 모두 못으로 쳐박아 놓았다. 어떤 소들은 뿔이 빠져 있는 놈도 있었다. 그렇게 하여 보리밭을 망치던 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주인은 구운문에게 고마워 하면서."
"보리를 수확하면 한짐 주겠네."
하고 약속을 하였다.
여름이 되어 보리를 거둬들이게 되었다. 밭주인은 구운문에게,
"보리를 베어 놨으니 와서 한짐 지어가게." 하고 전에 한 약속을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짐 지어오겠읍니다."
어느날 그는 보리를 베어논 밭으로 와서 차근 차근 묶으면서 짐을 꾸렸다. 그 밭에서 거둬낸 보리를 모두 짊어지고는 '우뚝' 일어나서 걸어갔다. 한짐이라 했으니 말릴 수도 없었

다. 그 큰 밭의 보리를 한 짐에 지고 끄덕끄덕 그의 집으로 걸어갔다.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하규(남·69) 제보.

6. 적객(謫客) 임관주(任觀周)

창천리 냇가에는 절경이 많다. 병풍같이 둘러진 바위며, 그 위에 우거진 상록수 숲은 가히 절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맑은 냇물이 흘러 더욱 운치를 더하여 준다.

지금부터 한 200여년 전인가. 이곳 강댁(姜宅)에 귀양온 임관주(任觀周)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멀리 외롭게 떨어진 이 곳에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풍물과 벗삼아 지내었다. 그러다가 돌아갈 때가 되자 이곳에서의 생활을 한 수의 시로 그 창천리 내 암벽에 새겨 놓았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의역) 귀양살이 끝나는 날에
내 항상 같이있던 내를 찾으니
세 폭으로 둘러 있는 아름다운 바위에,
단풍 사이로 떨어지는 그 물이 아름답구나.

(원시)始出判門日 先尋枕下川
蒼巖三回立 短瀑晩楓邊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69) 제보.

7. 창천리 강별장(姜別將)

안덕면(安德面) 감산(甘山)에 강댁 조상 중에 강별장(姜別將)이란 사람이 살았었다. 그는 인물이 잘 났고 또한 매우 부자로 살았다. 그러나 성격이 괴팍스럽고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고래등같은 기와집에 집 네 귀퉁이에 풍경을 달고 살 정도였으나 가난한 사람에게 쌀 한 톨 주는 일이 없었다.

어느날 이 강별장네 집에 어떤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 중은 한참 동안 그 큰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웠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한참이나 염불을 외우며 목탁을 두드리는데, 그 집 하인이 거만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오?"

"예, 지나가는 소승이온데, 시주를 하십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 사연을 강별장에게 아뢰었다.

"무슨 놈이 시주라고 그러느냐. 세상에 공 것 바라는 놈 어디 본때를 보여줘라."

강별장은 호령을 하며 하인놈보고 중을 내쫓으라고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종은 시주받으러 온 중을 차마 내쫓을 수가 없어 망서렸다.

"그럼 내가 가서 내쫓겠다."

강별장이 내달아가더니 두엄 한 삽을 갖다 주면서,

"이것이 바로 곡식이 되는 것이요. 이 거름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시오."

마치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듯 중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나무관세음보살"

중은 아무 말도 없이 나무관세음보살만 염하며 그 두엄을 받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서였다.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강별장 선대의 묘소가 있는 병산(竝山)의 산봉우리를 조금만 깎아내리면 강별장네 집안은 더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문은 점점 날개돋친 듯이 퍼져나가더니만 드디어는 강별장 귀에까지 들렸다. 강별장은 귀가 번쩍 트였다. 발복을 한다는 말에 마음이 크게 동한 것이다. 그는 그 소문의 출처를 조사하여 나갔다. 드디어는 바로 며칠 전에 시주를 받으러왔던 그 중이 발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강별장은 중을 찾아 그 연유를 물었다.

"스님, 요즈음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데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별장은 지나날 시주를 받으러 온 때와는 다르게 아주 공손하게 여쭈었다.

"우인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군요. 하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도록 신신 당부를 했는데, 말이란 것이....."

중은 못마땅한 듯이 시원하게 말을 잊지 않았다.

"대사님, 좀 자세하게 아뢰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전에는 제가 좀 대접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강별장은 집안이 발복한다는 소문에 체면이고 무엇이고 가릴 처지가 못되어 사정을 하였다.

"그러면 말씀드리오리다. 잘 들으시고 명심하여 거행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읍니다."

중은 우선 단단히 벼르고는,

"저 병산(竝山)이 있지 않습니까. 저 봉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저 봉우리만 조금 깎아내리면 당신네 가문은 크게 발복할 것이오. 저 봉우리가 당신네 집안의 정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중은 그 한 마디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날부터 강별장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병산 봉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였다. 일을 하려고 가보니 과연 중의 말이 더 믿을 만하였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하나는 높고 하나는 얕아서 두 봉우리가 서로 엇갈려 있었다. 그 두 봉우리를 같게 하는 일이 바로

강별장네 집안을 발복하게 하는 일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마을의 산을 깎아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세도가 있는 강별장으로서는 동네 아니 이웃 마을의 일꾼들을 모두 동원하여 그 산깎는 일을 시작하였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산봉우리를 깎아내리는데 붉은 피가 흘러 내리기 시작하였고 또한 연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빗물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이 섞여 그 붉은 물이 온산을 붉게 물들였다.

병산의 한 봉우리가 다른 봉우리와 같게 깎여졌다. 이제는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조정에서는 강별장이 산을 깎아내려서 집안을 발복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산을 깎아 집안을 발복하게 한다는 일은 국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역적 행위였던 것이다. 관가에서는 강별장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연일 고문이 계속되었다. 산을 깎아 집안을 발복하려는 일도 그렇거니와 강별장네 집을 보니 그 하고 사는 일들이 바로 왕의 생활을 흉내내고 있다고 관원들이 보고를 하였다. 큰 네 기둥이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며, 집 네 귀에 풍경을 달고 사는 처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이었다. 연일 모진 고문이 계속되었다. 그래도 바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별 의도가 있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해될 수는 없었다. 고문은 더 극렬하였다. 삽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 그 엉덩이를 지져대었다. 그래도 강별장은 끄떡도 안하면서 악을 썼다.

"삽이 식이 시원치 않으니 다시 불에 달구어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 도저히 바른 말이 터져나올 것 같지 않자 관가에서는 그 큰아들을 잡아들였다. 강별자은 큰 아들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약한 큰아들이면 이러란 고문에 견디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관원들은 아들을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네 애비가 이미 다 실토를 하였다. 너는 버티어봐도 별 수가 없다. 어서 바른대로 말해라."

벌겋게 달구어진 삽을 보이며 한번 크게 으르렁거리자, 아들은 그만 혼비백산하고는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묻는대로 이야기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강별장에게 다그쳤다.

"네 아들이 이미 다 실토를 했으니 너도 바른대로 말하여라."

강별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서,

"애비한 일은 아들이 알 수가 없는데 실토가 뭐고 모두 거짓이오, 나는 역적을 한 일이 없오."

너무 지독한 놈이라 판단한 관아에서는 실토한 아들은 죽이고 강별장은 멀리 무인도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결국 그 집은 망해버리고 말았다. 중이 퍼뜨린 소문은 바로 강별장네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다. 욕심이 많은 강별장이 그 중의 소문에 넘어간 것이다.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69) 제보.

8. 막산이(Ⅰ)

옛날 창천리 강(姜)댁에 막산이라는 종이 살았었다. 구척 장신에 부리부리한 눈에 기상이 남달랐다. 또한 힘이 세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 그러나 그는 늘 힘이 없이 지냈다.

강댁에는 감산이 안골이라는 데에 너른 밭이 있었다. 그런데 그 너른 밭 너머에 바로 큰 동산이 떡 버티어 있어서 그 너른 밭이 논이 못되고 있었다. 강댁에서는 항상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있었다.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다. 주인은 그 동산에 앉아서 그 너른 밭을 바라보며 논 만들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늘날이었다. 주인은 막산이에게,

"야, 막산아, 어디 가서 일꾼을 한 서른만 빌어 와라."

"예, 무엇을 할 일꾼입니까?"

"저안골 밭들을 논으로 만들려 한다."

"예, 그러면 내가 일꾼들 빌어놓겠읍니다."

그 뒷날이었다.

"일꾼들을 빌었으니 점심이나 한 서름 사람 분 차리십시오."

강댁에서는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고 막산이를 밭으로 보내었다. 집안에서는 그 점심을 준비하느라 야단이었다. 흙일을 하는 일꾼들이라 점심을 단단히 준비하고 술도 몇 동이 마련하였다.

낮이 가까워오자 강댁에서는 여자 종들에게 점심을 지우고는 일하는 곳으로 갔다. 가보니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막산이만 혼자서 동산 위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주인은 화가나서,

"이놈아, 일은 어떻게 하고 잠만 자는 거냐."

"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안 왔읍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었다. 이놈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머리 끝가지 났다.

"걱정은 마십시오. 오겠다고 했으니 언제라도 올 겁니다. 그 차려온 점심이나 놔두고 가십시오. 오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인은 화가 풀리지는 않았으나 갖고 가도 쓸모없을 점심이라 놔두고 왔다. 저녁이 가까워 지자 다시 주인은 혹 일이 되는지 보려고 그 부근에 있는 군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밭이 있는 안골 부근에만 안개가 자욱이 끼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늘은 바람도 자고 날이 이렇게 맑은데 이상한 일이라면서 안개가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다 돌아온 주인은 뒷날 그 밭에 가 보았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동산이 없어지고 그 밭들이 논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려간 밥이랑 술은 몽땅 먹어치워 있었다.

"이놈아, 어찌된 일이냐?"

"아무도 일 안해주겠다고 하니까 나 혼자 해 버렸습죠. 그 대신 밥 좀 먹은거야 어떻습니까?"

주인은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한편 그렇게 배가 큰 사람이 그 배고픔을 어떻게 찾았는가 생각하니 그에게 미안하기도 하였다.

어느날 그 주인은,

"내일 점심을 한 서른 사람 먹을 것 차려라."고 일러두었다. 무슨 영문인지도 묻지않고 점심을 차려내자, 주인이 막산이 불러서는,

"오늘은 먹기 싫도록 밥을 먹어 봐라. 그 동안 배고파 어떻게 지냈느냐."

주인의 말에 막산이는 순식간에 후딱 먹어치웠다. 다시 술을 한 동이 내놓자 그것까지 꿀꺽꿀꺽 먹어치우는 것이다.

"야, 막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네 배를 채워 주지도 못하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그리고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너대로 살아보아라."

주인은 막산이에게 종문서를 내주며 그동안의 일을 사죄하였다.

그렇게 집을 나왔으나 막산이는 더 갈데가 없었다. 어디가도 밥 한술 빌어먹을 데가 없었다. 며칠은 남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해주며 밥을 얻어먹기도 하였으나 배는 더욱 고팠다.

그는 결국 산에 오르고 말았다. 산에는 나라에서 기르는 마소들이 많이 있었다. 진상할 소들과 국마(國馬)들이었다. 그거나 잡아먹으며 살아 볼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산에는 많은 도적들이 있었다. 그들이 막산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날 도적들이 막산이에게 나타났다.

"이놈 무업하게 어디를 함부로 넘나드느냐?"

그들은 막산이에게 달려들었다. 막산이는 속으로 웃었다. 달려드는 대로 내버렸다. 서너 놈이 달려들었으나 막산이는 끄떡을 안했다. 두어 놈이 더 달려들었다. 그래도 막산이는 끔쩍도 안했다. 여나믄 놈이 달려들었다. 그때 막산이는 몸을 한번 뒤틀었다. 달려들던 놈들이나 붙잡고 섰던 놈들이 휘뜩휘뜩 스러졌다.

"아 이거 몰라봤읍니다."

그들 중 대장인듯한 놈이 내달으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응, 잘 지내보자구."

막산이는 그래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그들 무리들은 제주와 대정의 중간 지경에 막산이 구석이란 좀 으슥한 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큰 자연 동굴 속에 거치를 정하고 대정에서 제주(모관)을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목장에 기르는 진상소나 국마(國馬)들을 잡아먹으며 살았다.

관가에서는 이들 도적들이 큰 골칫거리였다. 마소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백성들에 대한 피해가 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크고 관의 위신을 추락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생각다 못해 옛날 막산이 주인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놈을 어떻게 좀 잡게 해줘요."

관가에서 나온 사령이 사정을 하였다. 막산이 옛 주인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보자고 하였다.

주인은 모관으로 가는 차림으로 산길을 가고 있었다. 막산이 패들이 달려들었다.

"이놈아, 난 너희 대장의 주인이었다. 네 대장을 내게 불러드리라."

주인은 큰 소리를 쳤다.

도둑들이 기가 죽어서는 막산이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였다. 막산이는 옛 주인이 왔다는 말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때는 상전이라고 구박도 많이 하고 늘 배고픔에 허덕이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그래도 종의 문서를 내주며 집에서 내보내준 은공을 잊을 수는 없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옛 주인이라 반가왔다.

"응, 나 자네 사람 만들어 줄려고 왔네."

주인은 능청을 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관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네."

막산이는 가슴이 덜컥하니 주인의 계략을 알아차렸다.

"잘듣게. 지금 관가에서는 힘이 장사인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는 참이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추천하였다네. 가면 아마 큰 벼슬을 줄 걸세. 이와같이 도적질이나 하면서 어떻게 살텐가.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네."

주인은 그럴듯하게 막산이를 달래었다. 막산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래도 옛날 주인의 의리를 생각하여 그 말대로 나섰다.

주인은 순순히 따라나서는 막산이가 측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관가와의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는 처지였다.

주인은 막산이와 같이 제주성에 이르렀다. 막산이는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따라 왔다. 영문에 이르렀을 때였다. 많은 포군들이 왈칵 달려들어 그를 포박하였다. 막산이는 포박

을 당하면서,
"속았구나, 이놈 내가 죽어도 네 거짓말은 잊지 않을 거다."
눈을 부라렸다. 주인은 고개를 돌리고 막산이 분에 찬 눈총을 외면하고 있었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71) 제보.

막산이에 대한 다른 전설들이 많다. 그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이야기가 전하여 오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또 있다.

○ 의귀리 김댁의 막산이

의귀리 경주 김댁 종인 막산이는 힘이 장사였다. 그러나 그는 하도 배가 컸기 때문에 배그득이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였다.

어느 늦가을이었다. 김댁에서는 꼴을 거둬드리지 못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다. 워낙 마소가 많아 겨울 내내 먹일 꼴은 상당하였다.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본 막산이는,

"점심이나 한 쉬나믄 사람 먹을 거 준비하면 내가 일꾼을 빌어 어떻게 해보겠읍니다."

하고 주인에게 아뢰었다. 그 때는 하도 바쁜 철이어서 삯은 주어도 일꾼을 빌지 못할 처지였다.

"그래, 점심을 준비시킬테니 일꾼을 빌도록 하여라."

막산이는 걱정말라고 장담을 하였다.

"내가 놉(일꾼)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터니 점심은 틀림없이 해와야 합니다."

막산이는 주인에게 신신당부하고는 먼저 일하러 밭으로 나갔다. 낮이 되어서 준비한 점심을 여러 여종들에게 잔뜩 지워 일하는 꼴밭으로 보냈다.

밭 가까이 이르렀으나 일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밭에 이르러 보니 막산이만 밭 구석에 잠만자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잠만 자니? 주인에게 혼 좀 나 봐야 하겠어."

여종들은 한편 놀랍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자던 막산이는 눈을 비비 쓸고 힐끔 쳐다보더니,

"원 걱정도, 짐진 놈이 팡을 찾주(짐을 진 사람이 쉴 곳을 찾는다는 말). 그 점심이나 놔두고 어서들 가시오."

한 마디 하고는 다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종들은 그냥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아뢰지 않을 수도 없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얼마있다가 주인은 하도 이상하여 밭으로 나가 보았다. 막산이가 거짓말할 위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밭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멀리 밭 가까이 하늘에 까만 까마귀 떼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럴 리가 없을텐데. 생각하면서 밭에 이르렀다.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사이엔지 이미 꼴은 말끔히 베어져 있었고 벌써 그것을 묶어 던지고 있었

다. 까마귀 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묶어서 던지는 꼴묶음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준비해 간 그 점심을 혼자 몽땅 먹어 치운 일이었다.

주인은 그때부터 막산이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식성도 알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큰 일이 일어났다. 아무리 일은 많이 한다하더라도 도저히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부자인 의귀리 김댁에서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내쫓아 버리고 말았다. 그 집에서 나온 막산이가 안덕면 창천리 강댁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김영원(남·83) 제보.

막산이(Ⅱ)

막산이는 원래 평민이 아니라 아주 상놈으로 안덕면 창천리 강씨 문중의 종이었다. 성씨가 말 마(馬) 자의 마씨였기에 막산이라 부른다 한다.

막산이는 힘이 장사였지만, 머리는 우둔해서 어떤 일을 전후관계를 살피며 할 줄 몰랐다. 예로 "저 물건을 들어라" 하고 시키면 들고 있을 뿐 놓을 줄을 몰랐다 한다.

막산이는 기운이 세고 등신이 큰 까닭에 밥을 한번 먹으면 요즘 대두로 서말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식성이 좋은 까닭에 보통 사람은 막산이를 종으로 데리고 먹여 살릴 수 없었다.

강씨댁에서도 빠듯빠듯 막산이의 배를 채워주며 일을 부리고 있었다.

하루는 강씨가 군산앞 냇가의 3, 4정보나 된 들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 생각을 하였다. 주인이 막산이를 불러 노복 쉰 사람을 빌어오도록 말했다. 막산이는 노복을 빌러 다니지도 않고 돌아다니다 들어와서는 "예, 다 빌었읍니다."고 말만 했다. 혼자 쉰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어볼 심사로 한 사람도 빌지 않은 것이었다.

"다 빌었읍니다. 아침 식사는 했으니 점심 식사만 가져오라고 하였읍니다."

"그래 알았다. 같이 일하러 나가거라."

막산이가 군산으로 일하러 나간 후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자 안주인이 황소 여섯 마리에 점심과 술을 싣고 일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막산이만 그냥 드러누워 잠을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욕을 퍼부었다.

"네 이놈아, 일꾼들은 어디 가서 없고 너는 잠만 자느냐?"

주인의 욕을 들은 막산이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는 "아, 그 사람들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가져온 것들은 그쪽에 놔두고 가십시오."

에라, 먹든지 말든지 모른다 하고는 싣고 간 것들을 모두 내려 놓은 후 심부름꾼들에게는 소를 몰고 먼저 돌아가도록 한 뒤 돌아오는 척 하다 높은 동산에 앉아 어떻게 하는가 살피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나 배고픔을 느낀 막산이는 가져온 음식을 다 먹은 뒤 술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다.

논을 개간하기 위해 대장간에 가서 삽을 오십여개를 만들어다 놔뒀다. 막산이는 삽을 들고 일어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 두시간쯤 있으니 소로껭이(회오리바람에 의해 올라간 잡풀)가 여기 저기서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다. 또한 흙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자욱했다.

막산이가 혼자서 오십명분의 점심을 다 먹었으니 배가 부르고 힘이 넘치자 삽을 들러 이쪽 저쪽으로 파던지는 것이 계속되니 돌멩이와 잡풀들이 솔개처럼 하늘에 가득 뒤덮힌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 모습을 본 안주인이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와 있었다. 저녁 해질 무렵이 되자 막산이가 연장을 등에 지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다.

"논 개간을 어떻게 했느냐?"

"예, 다 해 놓았읍니다."

안주인이 밖으로 나가 보니 삽이란 삽이 모두 자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막산이가 함이 장사이기에 좌우로 삽질을 마구 하다보니 달아버렸던 것이었다. 이튿날은 주인이 논 개간한 곳에 가서 살펴보니 울퉁불퉁하던 들이 넓은 바다 모양으로 편편하게 잘 만들어 있었다.

아, 이놈의 자식이 배불리 먹지 못하니 한번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나를 속였구나. 주인은 그제야 막산이가 일꾼을 한 사람도 빌지 않은 까닭을 알았다.

그후 흉년이 계속되어 주인은 막산이의 배를 채워 주려고 했으나 채워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막산이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을 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너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없으니 집을 나가서 네 자유롭게 얻어 먹으레 살도록 해라."

막산이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는 제주시에서 대정으로 통하는 큰 길로 해서 원(院)이란 마을 위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 동굴은 사람들이 백명은 들어가도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돼 넓었다. 그 당시 제주도 산간 부락에서는 소나 말들을 들에 풀어 놓고 많이 길렀다. 막산이는 굴속에서 살다가 배가 고프면 들로 나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다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면서 구워먹었다. 나뭇가지에 고기를 꿰어서 불에 굽다가 익었는가 한 입, 설었는가 한 입 하면서 먹으면

소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웠다. 소 한 마리를 먹어야 막산이의 배는 겨우 찼다.

막산이가 계속 소와 말을 잡아먹자 도민들의 피해가 심해졌다. 사람들의 진정이 들어오자 제주목에서 막산이를 잡으려 했으나 워낙 힘이 센 놈이라 잡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주목사는 막산이가 대정현 사람이므로 대정현감에게 잡아 들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대정현감은 명령을 받고는 생각을 하다 막산이를 부리던 주인인 강씨를 불렀다.

"막산이로 해서 목장의 소와 말이 다 잡혀 먹게 되었으니, 그 종놈을 잡아와야지 그대로 두면 안되겠소."

잡아오도록 명령을 받은 강씨는 "그러시다면 잡아오겠읍니다."고 대답을 한 후 말을 타고는 <막산이 구석>을 찾아갔다. 막산이는 둔한 종이었기에 주인이 오더라도 모른 채 하고 버티었더라면 잡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막산이는 옛주인이라고 예의를 차려 인사를 했다.

"주인님, 어떤 일이 있어 여기까지 오셨수가?(오셨읍니까?)"

"네가 없으니 농사일이 힘들어서 너를 데리러 왔다."

"안 가겠읍니다."

"왜 안 가겠다는 것이냐?"

강씨는 상투 튼 막산이의 머리를 잡아당겨 말꼬리에 묶자 줄줄 따라왔다.

창천리로 돌아온 막산이는 강씨 주인 집에서 이·삼년 살았으나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이를 안 막산이 주인은 다시 막산이를 불러 앉히고는 "이젠 더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네뜻대로 나가 얻어 먹으면서 살아라."하고 풀어 주었다.

막산이는 갈 곳도 없고 해서 <막산이 구석>에 들어가 살며 소나 말을 잡아 먹으며 살았다.

막산이에 의해 가축의 피해가 심해지자 대정현감은 막산이를 잡을 수 있는 장사를 모집했다. 이때 안덕면 사계(검은질) 사는 정운디가 대정현의 장사 모집에 나섰다. 정운디는 힘의 세기가 막산이보다는 좀 떨어졌으나 머리는 더 총명했다.

대정현감이 정운디를 불렀다.

"막산이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와야 한다. 잡기만 하면 너의 생전에 음식은 부족치 않게 해 주리라. 그놈을 잡아올 수 있겠느냐?"

"예, 기간만 넉넉히 주시면 잡을 수 있겠읍니다."

대정현감의 허락을 얻은 후 정운디는 막산이를 잡으러 <막산이 구석>을 찾아갔다. 막산이는 혼자 소를 잡아다 가죽을 벗기면서 불에 구워 먹고 있었다. 갑자기 정운디가 들어서자 놀랜 막산이는 온 까닭을 정운디에게 물었다.

"시절이 흉년이 들어 살 수 없게 되자 그냥 벗을 삼아 한꺼라도 얻어 먹으며 살다가 죽

을심사로 왔네."

막산이도 지난번 주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끌려 갔다 온 뒤로 꾀가 들어 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나를 잡으러 왔지?"

"아니우다(아닙니다) 경헐 리가 있수(그럴 리가 있읍니까?)"

<막산이 구석>을 찾아간 정운디는 석달 동안 사는 사이 도둑질해 온 쇠고기만 쳐먹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운디는 막산이를 잡을 궁리만 했다.

안덕면 보성에서 동광리 쪽으로 삼십리쯤 가면 <무더리왓>이 있다. 하루는 정운디가 가면 '무더미왓'으로 몰래 내려와서는 막산이를 잡을 계책을 대정현감과 약속을 했다.

"초가을이 되거든 술을 독하게 해서 서너 항아리에 담아두고, 소와 돼지를 잡아두면 막산이를 잡을 수 있도록 유인하겠읍니다."

"막산이를 잡는다는 데 그것 정도야 어렵겠느냐?"

단단히 약속을 한 정운디는 다시 몰래 막산이에게 돌아가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냈다. 가을이 되어 약속한 날은 막산이를 꾀었다.

"막산이 형님, '무더미왓'에 술 서너 항아리 담그고 소 잡아 잔치 한다고 하니 우리도 가서 먹어 봅시다."

"아니, 안 가겠네. 갔다가 나를 잡아 가면 큰일 나게. 잡아갈지 모르니 나는 가지 않겠네."

"어느 누가 우리를 잡아 갈 수 있읍니까? 우리 두 형제의 힘으로 백명이 덤벼든다 해도 겨룰 수 없을 것입니다. 걱정 말고 가 봅시다."

정운디가 여러 번 막산이에게 간청하듯이 말하자, 막산이도 안심하고 가기로 승락을 하는 것이었다.

약속한 날은 정운디가 막산이를 데리고 '무더미왓'에 가보니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차려 놓아 큰 일을 치르는 집처럼 법석이었다. 둘은 자리를 잡고 앉아 술과 고기를 대접받았다.

막산이는 조그만 바가지로 술을 두어번 떠 먹은 후 돼지 다리 하나를 들고는 어린 아이가 무를 씹어 먹는 것처럼 바삭바삭 씹어 먹기를 계속하여 술 세 항아리를 다 먹어 치웠다. 이때 정운디는 먹는 듯 먹는 듯하면서 얼마 먹지는 않고 계속 막산이에게 술을 권하니 막산이가 비록 힘이 장사라 하여도 드디어 취하고는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막산이가 내쉬는 콧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창문이 훌쩍 열렸다 닫혔다 할 정도였다.

정운디가 살펴 보니 막산이는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드디어 쇠줄을 가져다 묶으려고 팔을 돌려도 팔이 움직이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쇠방망이를 가져다 팔꿈치를 두

번 때리자 팔이 움직였다. 그렇게 되자 쇠줄로 꽁꽁 묶은 후에는 대정현으로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정운디가 집에 돌아온 후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꼭 막산이이가 복수하러 올 것만 같았다.

이놈이 아무튼 술이 깨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정운디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방에 이불을 덮어 두고는 쇠망치를 옆에 차고는 굴묵(재래식 집에서 구들에 불을 피우기 위해 만든 조그만 헛간)에 가서 숨었다.

조금 기다리자 짐작했던 대로 쇠줄로 묶여 옥에 갇혔던 막산이가 쇠줄을 끊고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다. 정운디 이 녀석을 잡아 죽인다고 그 한밤중에 사계(검은질)까지 막산이가 달려 온 것이었다. 정운디가 가만히 굴묵에 숨어서 살펴보니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들어선 막산이가 이놈의 자식이 나를 유인해서 잡아갔지 하고 중얼거리며 방문을 휙휙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막산이는 문을 열고 살펴보니 어두운 방안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 나를 잡아다 죽이려 해 하고 외치며 달려들어 바락바락 밟아 죽인 뒤에는 술이 덜 깨었던지 눈이 벌겋게 된 채 마루 문턱에 턱하니 드러누워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때다 하고 정운디가 달려들어 쇠망치로 앞이마를 잡아 내리치자 나자빠져 뒹구는 것이었다. 정운디는 기회를 놓칠세라 어깨·다리등 닥치는 대로 두드리니, 막산이는 술이 덜 깬 탓에 신음소리만 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곧바로 쇠줄로 묶고는 대정현으로 잡아간 후 현감에게 사형시켜 주십사하고 간청을 하자 현감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사형시켜 버렸다.

이렇게 해서 막산이는 불우하게 인생을 마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백이십년 전쯤의 일이라고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Ⅲ. 信仰傳說

1. 광정단과 이목사

숙종 때 영천(永川) 이형사 목사는 평양 감사로 가라는 것도 마다하고 제주목사를 자원하여 부임하였다. 그것은 제주에는 당과 절이 많아 사람들이 이를 믿으므로 풍습이 흐트러지고 민심이 흉흉하여 이를 바로잡으려 하였던 것이다.

제주에 부임하여 도 안을 돌아다녀보니, 과연 당이 많고 절들도 거의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과 절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칠 때가 없었고, 사람들은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굿하기에만 바빴다. 관가에서 백성들을 모으려 해도, "나는 절에 간다. 나는 당에 간다." 하여 모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어느날 이목사는 변복을 하고 굿하는 곳에 몰래 들어가 굿을 구경하다가, 밤이 되자 무당 한 사람을 데리고 관아로 돌아왔다. 그는 무당을 마당에 꿇어 앉히고 문초하기 시작하였다.

"여봐라. 굿을 하면 귀신이 나타나느냐?"

"예, 저와 같은 처지에 어찌 귀신을 볼 수 있겠읍니까. 그저 벽을 향해 헛소리하는 거나 마치 한가지입니다."

"그렇게 굿을 하는데도 귀신을 못볼리 있느냐!"

"큰 심방들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 처지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긴 있는 것이냐?"

"예, 그러하다 하옵니다."

이목사는 그 무당을 돌려보내고, 제주를 한바퀴 돌면서 절들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우선 신령이 세지 않은 절이나 당부터 부수기로 하였다. 무당들에게 굿을 하게 하고 신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수곤 하였다. 그러노라니 당에 과연 신령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섬 안에 있는 모든 당과 절을 부수기로 결심하였다.

목사 일행이 지금 안덕면 덕수리 지경에 있는 광정당에 이르렀다. 이때 시종은 목사에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를 권유하였다.

"이곳 당은 신령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하마를 하셔서 지나가야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섬에서 내가 하마를 하여 지나가야 할 곳이 있다니."

목사는 시종의 말을 듣질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목사님, 이 곳을 그냥 지나가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시종이 아무리 간곡하게 말해도 목사는 듣질 않고 그냥 말을 탄 채 지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말이 더 걷질 못했다. 화가난 목사가 호령하여도 말은 끄떡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말은 그만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다.

"여봐라, 여기 다른 말을 대령하여라."

화가 치민 목사가 시종들에게 호통을 치며 위엄을 내세웠으나 누구도 얼른 이행하질 않았다. 목사는 다른 말을 타고 그 단 앞을 지나가는데 다시 그 말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목사는 과연 이 당에 신령이 센 귀신이 있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시종들을 시켜 이 당

에 메인 심방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큰 굿을 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심방이 오고, 이웃 마을에 가서 재물을 마련하여 굿 준비를 하였다.

"네 이놈, 네가 굿을 제대로 하여 저 당의 귀신을 내 앞에 대령하도록 하여라."

추상같은 영이 무당에게 떨어지자 무당은 어떤 영이라 거역할 수 없어 굿을 시작하였다. 미친듯이 굿이 계속될 동안 목사는 이웃에서 유명한 포수들을 대령시키도록 하였다.

얼마동안 굿을 하자 과연 큰 구렁이가 차려논 재물 상 앞으로 나왔다. 그때 목사는 명을 내려 그 구렁이를 처치하도록 하였다. 포수들이 총을 쏘고 창으로 쳐서 결국 그 구렁이를 퇴치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태워 버렸다. 이렇게 광정당 신을 퇴치한 이목사는 당 귀신을 퇴치하는데 자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전 섬을 돌아다니며 당이란 당은 모두 부수어 버리고 그곳에서 무당 노릇하는 남녀 무당들을 모두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목사가 혼자 잠자리에 들려하는 참인데, 비몽사몽간에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목사 어른 주무시오?"

"예, 뉘시온지?"

"나는 저 김녕 마을에서 왔소."

"무슨 일로 오셨읍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공손하게 대하였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데, 나는 사는 곳이 누추하여 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아. 울담도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 아니오. 그래서 내 목사께 이렇게 원을 하는 것이오."

노인이 사라지자 목사는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당들을 부수어버린다고 꿈자리가 늘 사나운 터인데, 그 노인을 만나고 나니 생각이 이상해졌다.

목사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자 통인을 불러 앞세우고 말을 달려 김녕으로 갔다. 몰래 이리저리 마을 지경을 찾아다니다가 골총을 발견하였다. 큰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폐총이 되어 있었다. 산담 흔적도 없었다. 목사는 마을 경민장을 불렀다. 이 무덤의 내력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다. 어쨌든 이 무덤을 잘 치산하기로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으도록 했다.

사람들을 모아 예를 갖추어 치산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목사는 밤중에 전에 왔던 그 백발노인을 다시 만났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덕분에 이제는 좋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읍니다. 울담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왔읍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사라져 버렸다. 목사는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꿈에 들은 그 노인의

원을 들어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밤중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목사님, 급히 제주를 떠나십시오."

노인은 다른 말을 더 하지도 않고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지는 것이다. 목사는 엉겁결에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세 번이나 나타난 그 백발노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다. 목사는 황급하게 행장을 차리고 몰래 화북포구로 나갔다.

"배를 어서 띄워라."

급히 배에 올랐다.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서 뱃길이 순조롭게 트여갔다. 순풍에 배는 먼 바다로 잘도 미끄러져 나갔다.

제주 바다를 넘어서서 뒤를 돌아보니, 뽀얗게 구름이 끼어서는 돌풍이 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돌풍이 점점 가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목사는 밤에 만난 그 백발노인을 생각하고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더 급히 배를 몰았다. 바람도 더 급히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었다.

이목사 탄 배가 막 육지에 당도하자마자 그 뒤를 쫓아오던 바람도 막 쫓아와선 금방 목사가 내린 그 배를 뒤집어 놓고 말았다. 목사는 가슴이 끔찍하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였던 것이다. 그제야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노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산을 치산해준 은혜 갚음으로 화를 면하게 해 준 사실을 비로소 안 것이다.

목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집에는 더 큰 일이 벌어져 있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급질에 걸려 죽었던 것이다. 그 죽은 날을 헤아려 보니 바로 목사가 무사히 육지에 당도한 바로 그날이었다. 목사는 비로소 자기를 해치려던 그 바람이 자기가 부숴버렸던 당신임을 알았다. 그들은 결국 자기에게 복수를 못하자 그 아들들에게 복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71) 제보.

2. 명당에 얽힌 이야기

옛날 한 2백년 전쯤 될 것이다. 화순리 양댁(梁宅) 선조가 애월 광령에서 옮겨와 살았다. 처음에 정착을 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주 아버지를 만나러 광령을 나들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많이 와서 산길이 온통 눈속에 쌓여 있는데, 그는 광령에 가서 제사를 보고 돌아오고 있었다. 산길을 걸어서 오는데, 지금 한경면과 대정 경계인 '넓은팡'이라는데 이르렀을 때였다. 길가에 어떤 사람이 눈을 뒤집어 쓰고 실신하여 쓰러져 있

었다. 가까이 가보니 아직 죽지는 않고 있었다.

그는 그를 업고 그 험한 눈길을 걸어 동광리에 이르러 한 인가에 들어가 우선 응급처치를 하였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정신을 차리자 다시 데리고 화순으로 왔다. 그리고 그집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머물러 살기 시작하였다.

한 두어 해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하늘이 도우고 인연이 닿아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고 또한 이렇게 신세까지 졌으니, 이번에는 제가 무슨 보답을 해야 하겠읍니다."

손님은 진정으로 고마와하면서 말했다.

"무얼 그런 말을 하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일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주인은 손님의 말이 미안한데서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뭐 가진 것은 없고 하니까, 저 댁에서 원하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묘자리나 한 자리 봐드리지요."

"말만 들어도 고맙기 그지없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저 넙개라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 한자리 쓰기에 좋은 곳이 있읍니다."

그래서 둘은 그 곳을 찾아나섰다. 그런데 그 넙개란 곳엘 가보니 그 앞에 산이 한 자리 이미 있었다. 옛날에는 묘자리 싸움이 심하던 때라 감히 그 자리에 다시 묘를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있었다.

"좋은 자리인 것 같소만 이미 이렇게 다른 집안에서 먼저 묘를 썼는데야 어쩔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걱정을 마십시오. 다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손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여기 묘를 쓰려고 할때에 저 산 임자가 나타나면은 그저 타는 말 한 필 마련하고 안장이랑 잘 차려서 주면 될 겁니다."

하고 그 방법을 말하여 주었다. 그러나 도무지 그러한 말이 주인에게는 믿기지 않았다.

다음 또 한 곳을 봤다. 바로 '괸돌'이라는 데였다. 거기도 가보니, 그 옆에 이미 묘가 한 자리 있었다. 그런데 그 괸돌이라는 데는 얼른 보아도 명당자리 같이 보였다. 그래서 더욱 주인은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좋은 곳인데 또 산이 이미 써버렸으니."

"염려 마십시오. 이곳에 묘를 쓰려고만 하면 그날 저녁에 저 산은 틀림없이 이장을 해가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든 이야기가 아리송하기만 했다. 모든 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괸돌'이라는 데는 연갑같은 큰 돌이 떡 버티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연적이 버려져 있고 ……어쨌든 명당자리였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명심해 들어둬야 할 것입니다. 그날 장사를 지내는데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열을 고쳐 하라고 할 것이니 그말을 믿지 말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얼마없어 광령에 사는 그의 부친이 돌아갔다. 상주는 그가 정해준 그곳에 장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괸돌이라는 곳에 장사를 지내기로 하고 그 전날에 가서 개광을 미리 마련하는데, 그 윗편에 이상한 불이 비쳤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놀랍게도 그 윗자리에 있었던 묘를 이장해 가버렸다. 계획대로 그곳에 묘를 쓰는데는 별 문제가 아니되었다.

뒷날 바로 제열을 하고 장사를 지내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 제열은 큰 화를 가져올 것이요. 조금만 동쪽으로 비켜서 제열을 하면 아주 명산이 될겁니다."

허수레한 젊은이의 말은 상당히 완강하였다. 상주된 입장에서도 큰 화가 미칠 것이란 데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제열을 바꾸어 장사지내 버렸다. 그러니까 그저 별볼일없는 산이 되어 버렸다.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남·84) 제보.

3. 산방산 금장지(禁葬地)

안덕면 화순리 지경에 있는 산방산은 거의 돌로 된 돌산이다. 이 산은 예로부터 잡사를 지내서는 안되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그 산이 꼭대기에 평평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산을 쓰면 그 집안에 장수가 난다는 이야기도 전했으며 또 산을 쓰면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이 든다고도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뭄이 계속되거나 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 혹 몰래 장사지내지 않았는가 살살이 조사하기도 하였다.

어느해 몹시 가뭄이 계속되었다. 보름, 한달, 두달…….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산방산에 누가 몰래 무덤을 썼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부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방산으로 올라가 새로 쓴 무덤을 찾기 시작하였다.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도 헛일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새로 쓴 무덤을 찾게 되었다. 그 무덤은 보통 무덤이 아니었다. 산방산 한 귀퉁이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묻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꺼내

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 그 시체는 조금도 상하지도 않고 그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있었다. 사람들은 그 시체의 날개를 찍어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옮겨 장사 지내 주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가물었던 날씨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그냥 두었으면 하늘에 올라가 정말 큰 장수가 태어날 뻔하였고 말하였다. 그러나 무덤을 찾아내어 비가 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장소가 더 없는 명당터이므로 일반 평민들이 산을 쓰면 역적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하늘이 역적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뭄을 내려 마을 사람들 스스로 그 금장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여·67) 제보.

4. 광정당 말무덤·영천 손목사

안덕면 덕수리에 광정당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말무덤이 많이 있다.

이 말무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고 광정당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고 지나가야 하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말의 다리가 꺾어져서 죽자 묻은 무덤인 것이다. 그만큼 광정당신의 위력이 세었던 것이다.

제주원에 영천 손목사가 부임했다. 손목사는 눈정기가 번득여 번개 같았고, 힘도 장사처럼 세었다. 제주도에 부임한 후 지역실정을 살펴보니, 당오백, 절오백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손목사는 이러면 안되겠다고 결심하고 먼저 당을 부수기 시작했다. 제주도 서쪽으로 당을 부수며 드디어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에 이르렀다.

광정당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말에서 내리고 지나야 한다는 규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손목사 역시 광정당에 이르러 그 앞을 지나려고 하자 말다리가 부러지고 또 지나려면 부러지곤 했다. 말에서 내리지 않고 말을 탄 채로 건너가려니 말다리만 부러지는 것이었다.

군졸들에게 엉겁결에 물었다.

"이게 웬일이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는냐?"

"예, 광정당의 영기가 매우 세어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하마(下馬)하지 않으면 말다리가 부러집니다."

"이 당을 관장하는 무당을 불러라."

목사의 호령에 군졸들은 급히 무당을 불러 목사앞에 모셔왔다.

"어떤 일이 있기에 말다리가 부러지느냐?"

"당 주변에 있는 무덤이 모두 말무덤입니다. 당신령이 노했기 때문이지요."

광정당 양쪽에는 쭉 말무덤이 있었는데, 전에 신작로를 만들 때 노란 말뼈들이 무수히 나왔다 한다.

무당의 말을 들은 손목사는 무당에게 명령을 했다.

"이 당의 귀신을 내보여라. 내가 직접 구경 한번 해보겠다."

손목사는 구한국 시절 육군대장들이 차고 다니는 것과 같은 큰 군도를 가지고 다녔다. 군도를 빼어든 목사는 굿을 하도록 호령을 하고 독촉했다.

무당은 목사의 군도를 보자 겁에 질려 곧바로 굿을 치렀다. 굿을 한참 하는 중에 그 무게가 한 스무 관(貫)쯤 됨직한 큰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왔다. 손목사는 큰 칼로 기어나오는 뱀의 목을 확 끊어버렸다.

"숯을 가져오너라."

군졸들이 급히 가져온 숯으로 뱀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불 타던 광정당 큰 뱀은 두 마리의 꿩이 되어 한 마리는 서쪽으로 한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갔다. 서쪽으로 날아간 것은 안덕면 덕수리 <일레당>에 가서 앉고, 남쪽으로 날아간 것은 안덕면 사계리 <큰물당>에 가 앉아 당신이 되었다.

영천 손목사는 당과 절을 부수고 정리한 후 또 제주도를 돌아보니 무덤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 무덤마다 가시나무들이 얽혀있고, 돌담도 헐려 있는 골총이 무수히 많았다. 도민들에게 골총(가손이 끊겨 단장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묘)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손목사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골총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혼령들도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손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귀신과 절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등장을 드렸다. 이것을 알게 된 골총귀신들도 등장 드리러 옥황상제에게 올라갔다.

"너희 당과 절귀신들은 잘 얻어먹은 놈들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손목사를 해치려 하느냐? 우리는 얻어 먹지도 못하면서 가시나무 뿌리에 온 몸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못견디게 살아왔다. 그분이 이런 우리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준 은혜 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려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를 아마도 골총귀신들이 이겼던 것 같다. 골총귀신들이 밤이 되자 손목사를 찾아가 꿈에 현몽(現夢)을 드렸다.

"이제 곧 여길 떠나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당귀신 절귀신이 쫓아와서 목사님을 해칠 터이니 곧 떠나야 합니다."

손목사도 주역을 잘 아는 양반이었다. 손가락을 헤아리며 주역점을 쳐보니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무 날 떠나기로 했지만 일찍 제주를 떠나자 해서 배를 탔다. 제주를 떠나 배가 육지에 이르러 손목사가 내리려는 찰라 배에 디디고 섰던 한쪽 발이 병신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 당귀신 절귀신이 쫓아가서 발병신을 만든 것이라 한다. 한양집에 손

목사가 돌아가 보니 당귀신 절귀신으로부터 아들 세형제가 모두 죽음을 당해 있었다.

손목사는 골총귀신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주에서 죽었을 것인데, 일찍 피신해서 떠나는 바람에 발 한쪽만 병신이 되었다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南元邑篇

Ⅰ. 自然傳說

1. 수영악(水靈岳)

남원읍 수망리에서 북쪽으로 6㎞쯤 올라가면 수영악(속칭 물영아리)이란 높이가 500m 가량 되는 오름이 있다.

이 오름 정상에는 너른 분화구가 있고, 또 그 분화구에는 늘 물이 고여 있어 연못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산 동편에 있는 오름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여믄영아리>라 하고, 이 오름은 <물영아리>라 불려진다.

처음 수망리에 민가가 살기 시작한 때 일이었다.

들에 놓아 먹이면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린 한 젊은이가 소를 찾아 들을 헤매다가 이 오름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소는 찾을 수 없었다.

젊은이는 그 산 정상에서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진하여 쓰러져 있었다.

그대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소를 잃어 버렸다고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소값으로 이 산 꼭대기에 큰 못을 만들어 놓을 테니, 아무리 가물어도 소들이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너는 가서 부지런히 소를 치면 살림이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번쩍 눈을 떠보니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삽시간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놀라 허둥대는데 이상하게 자기 옷은 하나도 젖지 않고 있는 걸 깨닫고, 꿈에 본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때였다.

「우르렁 쾅쾅 땅!」

하늘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 눈을 스쳐갔다.

젊은이는 그냥 쓰러져 혼절했다.

뒷날 아침에야 젊은이는 정신을 차렸다. 언제 번개치고 비가 내렸었냐는 듯이 날이 개여 있었다. 그가 쓰러졌던 산꼭대기가 너르게 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마을로 내려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지런히 소를 쳤다. 그 후부터 그 오름은 <물영아리>라 불려지게 되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오름 꼭대기에는 마르지 않는 물이 고여 있어, 소들이 목장에 물이 말라 없으면 그 오름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현학수(남·69) 제보.

2. 오리수

남원읍 수망리 마을 안 서편 동네를 거쳐 흐르는 내(川)가 마을 앞에 이르러 오리수라는 다소 큰 물을 이뤄 놓고서 아랫마을 의귀리로 흘러간다.

이 오리수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다. 윗물은 식수로 쓰는데, 폐나 넓고 그 물의 용량도 많아서 좀처럼 가물어도 마르는 일이 없어 다소 멀지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식수 걱정은 하지 않게 만든다.

그 아랫물은 마소를 먹이거나,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하는 물로 쓰이고 있다.

이 물에는 예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옛날 구산(求山)에 미쳐 재산 거의 날린 집안이 있었다. 그 집 큰 아들은 오늘도, 일찍 세상을 떠난 부친의 자리를 찾아 들을 해매고 있었다. 그는 하도 여러번 자리를 옮기는 일을 했던 바람에 이제는 땅에 밝은 지관이 되어 있었다.

어느날 하루 종일 들을 돌아다니다가 피곤하여 잠깐 길가에 앉아 쉬는데, 그만 잠이 깜빡 들었다.

꿈에 어떤 노인의 음성이 얼굴도 나타내지 않은 채 들려왔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곳에 묘를 쓰면, 당대 하다 못해 제주목사는 날 것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걸 묻지 말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당신의 구산도 끝내도록 하시오.」

어쩔 줄을 몰라 그대로 거행하기로 하였다.

「단지 유의할 일이 있어요. 하관할 때에는 귀를 솜으로 틀어막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일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장사지내도록 하시오. 이 점 특히 잊지 마시오.」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노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둘러 부친의 이장을 준비하였다.

이장하는 날 큰아들은 그날 들었던 목소리에 따라 귀를 솜으로 틀어막고 아래로 두 동생과 더불어 일에 당하였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다.

막 하관을 하려고 이미 파놓은 관이 드러앉을 자리를 다시 흙을 편편하게 고르는데, 거기가 바로 큰 바위임을 알게 되었다. 괭이로 더 파려 하였으나 철관과 같이 탄탄하고 평평한 바위가 떡 들어 앉아 있는 것이었다.

큰아들은 퍼뜩 그 노인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암석 위에 아버님을 모실 수가 있읍니까?」

두 동생이 뭐라고 소리지르는 것 같은데도 형은 듣지 못했다. 단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거행하라'던 노인의 말만 다시 떠올랐다.

두 동생은 형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자,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로 형은 들은 척도 않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관시간을 지나갑니다.」

일꾼이 재촉하였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일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만 귀를 막았던 솜을 빼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두 동생이 길길이 뛰면서 고함지르는 소리가 귓창을 뚫을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동생들의 고집대로 그 바위를 파내기로 하였다.

여러 일꾼들이 그 바우 옆을 더 파 내려가 바위를 일어내려 하였다. 그때였다.

「푸드득」

하얀 오리 두 마리가 그 바위 아래에서 날아 오르더니, 지금 수망리 앞 내 그 물로 와 앉았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거기에 부친을 장사를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집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큰 형은 그 물에 내려와 앉은 그 오리나마 찾으려 매일 나돌었으나 허사였다.

그 후로 그 물을 <오리수물>이라 불려졌다.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현학수(남·69) 제보.

Ⅱ. 歷史傳說

1.뜻을 못펴서 죽은 날개달린 장수

남원읍 태흥리 속칭 '묵은 가름'이라는 데 몇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중에 한 가난한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그 어머니가 물길러 가려고 아기를 아기구덕에 눕혀놓고 물을 길고 와보니 아기가 구덕에 없었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낙심천만으로 넋을 잃고 집으로 들어와 아기가 누었던 그 구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서 '힉힉'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틀림없이 아기 웃음소리였다. 아기엄마는 가만히 방안 소리나는 곳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아기가 바로 천정에 매달려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 걱정하는 엄마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기막힌 사건을 보고 놀라면서 그래도 아기를 찾을 수 있었다는데 안심을 하고 아기를 천정에서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 사실을 관가에 알려야 되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하며 의논을 하였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사람은 후에 세상을 어지럽힐 장수가 되든지 역적질을 하든지 하므로 꼭 관가에 알려서 어린때에 죽여 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부모는 이 사실을 없는 걸로 하자고 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가 점점 자라가 장정이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 북쪽에 터를 잡아 불미를 걸고 여러 가지 연장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하여가니 소문이 났다. 결국은 관가에서 알아서 그를 잡을려고 하였다.

그는 관군을 피하여 마을 북쪽 '연디'라는 동산에 올라앉아서 아래로 자기를 잡으려 올라오는 관군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관군들은 그를 맞대고 붙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몰래 숨어서 총으로 그를 잡아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연디 동산에 앉아 있는 그 장수를 발견한 군대는 총질을 하였다. 총소리에 놀라 후다닥 일어나며 그는 동산을 발로 찼다. 그 바람에 동산 꼭대기가 무너지면서 평지가 되고 말았다.

거기에서 도망친 장수는 다시 의귀리 지경에 있는 '넉시오름'으로 피하였다. 거기서 그는 관군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장사지내 주었다. 그래서 그 장수가 쓰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모아 함께 묻어 주었다.

태흥리 '묵은가름'이라는 데 장수 무덤이 있었는데, 일본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을 마구 파헤쳐버렸다. 그때 그 무덤의 개판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었다고 한다.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양성수(남·70) 제보.

2. 의귀리 김댁(金宅)종 논하니

의귀리 김댁(金宅)에 장발어른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느 해에 서울로 과거보러 가서 어느 집에 유하는데 그 집에 매우 힘이 세고 충직한 종이 있는 걸 보았다. 헌데 그 종이 너무 식성이 좋아서 그 집에서는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종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데리고 가서 부리겠오."

이렇게 말하자 서울 그 사람이 뛸 듯이 좋아하였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 일이라야 별 개 없는데 저런 장사를 도저히 먹일 수가 없읍니다. 참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이렇게 하여 그 종이 바로 의귀리 김댁으로 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논하니'라 불렀다.

장발 영감은 그를 데려다가 우선 이놈의 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에 시켜서 흐린조로 떡을 만들도록 하였다. 흐린좁쌀 서말로 소위 '오메기떡'이라는 걸 만들어 내주었다.

그런데 그 떡을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눈깜짝할 사이에 다 치워버렸다.
"허, 그놈 먹성이 좋구나."
장발영감은 속으로 놀라면서도 은근히 한마디 하였다.
이번에는 그의 일솜씨를 알아보려고 생각하였다. 어느날 영감은 논하니에게,
"내일은 촐을 비어야 할 텐데 저 태홍리에 가서 일꾼 쉰만 빌어오라. 나도 이야기하여 놔두었으니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일꾼을 빌도록 분부를 하였다.
저녁이 되자 이놈이 돌아와서는,
"내일 일꾼들이 그냥 그 밭으로 직접 가기로 했읍니다. 점심이나 잘 차리라고 하였읍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 하였다. 영감은 그의 말대로 집안에 분부하여 점심을 잘 차리도록 하였다.
아침이 되자 논하니가 자기도 일을 같이 하여야 하겠다면서 꼴빌 밭으로 가버렸다. 영감은 점심을 하여 소에 실어 보내고 난 후, 느지막하여 일을 어떻게나 하고 있는지 그 밭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밭 가까이 가도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혹 밭을 잘못 알고 왔는가 하여 되돌아와 다시 물어보았다. 틀림없이 그 밭이라 하였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어느덧 오후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그 꼴비는 밭이 보이는 동산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있는데 그 밭에서 독수리 떼가 밭가운데로 휙휙 나르고 있었다.
"아니 무엇을 채가려고 독수리가 저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엔지 그 독수리떼가 사라져 버렸다. 이상도 하다 하면서 그 밭 가까이 갔다. 이상하게도 일꾼이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영감은 이곳 저곳에서 사람을 찾는데, 밭 구석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꼭 소울음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가까이 가봤다. 밭구석에 마침 햇빛이 가려져 있는 그늘에 논하니가 두 팔과 다리를 확 뻗고 누어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는게 아닌가.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했다. 꼴은 말끔이 비어서 벌써 큰 눌이 만들어져 있었다.
"야, 이놈아 어떻게 된거야."
영감은 발로 툭툭 잠자는 논하니를 찼다.
"원 일 좀하고 잠이라도 좀 자려는데 귀찮게 굴기도…"
논하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냐. 일은 어떻게 다 했나."
영감은 눈 앞에서 확실하게 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물었다.

"보면 모르겠읍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논하니가 귀찮다는 듯이 크게 만들어진 눌을 가리켰다.
"일꾼들은 다 어디를 갔나."
"무슨 일꾼들 말입니까."
"아니, 꼴비는 일꾼들 말이다."
"그만 한 일을 일꾼들 빌면서 합니까. 나 혼자만도 하루 일도 안되는데……"
"뭐, 너 혼자서?"
영감은 어이가 없었다. 이 많은 일을 혼자서 해내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논하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네 활개를 뻗고 눕는 것이었다.
"참, 저 점심 그릇들 치워가라고 일러 주십시오."
"너 혼자서 그 점심을 다 먹었어."
"예, 오랜간만에 배불게 먹어봤읍니다. 나 잠 좀 자겠읍니다."
어느새 논하니는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놈 참 먹기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놈이구나. 헌데 이놈의 배를 어떻게 채운담. 영감은 그의 배를 걱정하면서 혼자만 자는 논하니를 보면서 내려왔다.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양성수(남·70) 제보.

3. 용감한 열부(烈婦)

도부장수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남자 저고리를 하나 주었다. 또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큰 자루를 하나 주웠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마는 그저 내버리기가 아까와서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길을 가는데 날이 어두워 할 수 없이 어디 신세를 져야할 형편이었다. 어디 하루밤 머물곳이 없는가 해서 찾는 중에 어느 외딴곳에 불빛을 발견하였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친줄도 모르고 그 집을 찾아갔다.
"실례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루밤만 묵어갈 수 없겠읍니까."
여러번 소리를 지른 후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어떤 부인이 나왔다.
"늦은밤에 미안합니다만 하루밤만 유해갔으면 합니다만…"
도부장수는 여자가 나와서 약간 쑥스럽기는 하였으나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라 다시 사정을 하였다.
"이곳에는 남자는 없고 저혼자만 있는 집이라서 남자를 머물게 할 수는 없읍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자는 아주 쌀쌀하게 말하고는 문을 꽝하고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다. 도부장수는 앞

일이 아득하였다. 잘못하다가는 한데서 밤을 세워야 할 형편이었다.

다시 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는 정말 어려워 하며 들어오도록 하였다.

도부장수가 들어가 짐을 풀고 있을 때 여인은 그 짐들 가운데서 남자의 저고리와 자루를 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해지며, 후다닥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와서는 도부장수의 목에 대면서,

"당신 바른대로 말하시오. 내 남편을 어떻게 하였오."

눈에 살기를 띄고 곧 죽일 듯이 말했다. 도부장수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 하였다.

"이 옷과 이 자루는 제 남편 것입니다. 쌀장수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애타는데 당신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자가 틀림이 없어요."

여자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남자에게 대들었다. 도부장수는 모든 일을 대략 짐작하였다. 그래서 사실을 털어 놓았다.

잠시 후에 여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말햇다.

"나는 당신의 신세를 좀 져야겠읍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말하였다.

"무슨 도울 일이 내게 있는지 모르지만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드리리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화승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거의 밤이 샐 때까지 화승을 만들고는 그것을 둘이가 나누어 가져 밤이 새기 전에 집을 나섰다. 도부장수는 무슨 연유인지를 물을 수도 없었다. 화승에 불을 켜고 둘은 산속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자, 여자는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이라고만 대답을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끔찍하였으나 여자가 앞장을 서는 일에 물러설 수도 없어 따라나섰다. 산속으로 갈수록 길은 험했다. 여자는 횃불에 호랑이 발자국을 찾으면서 산길을 찾아 들어갔다.

굴속에는 이미 남자가 죽어 있었다. 옷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남편의 시체를 본 여자는 입을 꼭 다물고 그 시체를 남자에게 메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도부장수는 그대로 따랐다.

여자는 다시 화승에 불을 밝혀 호랑이들을 쫓아내고, 도부장수는 죽은 남자를 업고 해서 둘은 올라갔던 산길을 내려왔다. 뒤에서는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리며 쫓아왔다. 둘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를 쓰면서 겨우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뒤쫓아오는 호랑이를 잡을 궁리를 하였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는 문 아래로 호랑이 고개를 약간 들이밀 정도의 틈을 내어놓고 기다렸다. 예상했던대로 호랑이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맹렬하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목을 반쯤 들

이밀었을 때 여자는 도끼로 호랑이 머리를 쳤다. 호랑이를 잡은 것이다.
날이새자 여인은 도부장수에게 엊저녁의 수고에 대하여 고마와 하면서,
"우리집 물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모두 드릴 터이니 사양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하듯 말하였다. 이 또한 너무나 의외릐 일이기에 다시 어리둥절하였다.
"제게는 모두 필요없는 것이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저녁 저를 도와 주셔서 호랑이에 대하여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값으로 생각하셔도 좋읍니다.
여인은 마다하는 걸 꼭 필요할 듯한 물건들과 곡식 가마니를 그에게 억지로라도 맡겼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시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여인은 도부장수와 하직을 한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궜다. 그렇게 그 여인의 집을 나온 도부장수는 어깨가 부러지도록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길을 가면서도 여인의 일이 이해되질 않았다.
얼마를 가던 도부장수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여인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
아, 거기에는 하늘로 치솟는 불꽃이 온통 그 여인네 집을 삼키고 있었다. 그제야 여인이 죽은 남편과 함께 불속에 스스로 몸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강(남·71) 제보.

4. 의귀리 경주 김댁(金宅) 조상

경주 김댁이 처음 제주에 들어와서 얼마되지 아니하여서였다. 지금 남원읍 수망리에 살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밭을 가는데 어떤 외지인이 지나가다가 목을 추길 물한모금을 청하였다. 밭을 갈던 김댁 선대는 마침 쉬기도 할 겸 소를 세워두고 밭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에 있는 물을 내주었다.
"물 잘 마셨읍니다."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는 그냥 가려하다가 돌아서서는,
"어떻게 생활이 살만 합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물었다.
"보다시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사람이 살지않은 곳이라서 땅도 박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 한자리 보아드릴 터이니, 생각이 어떠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친께서 돌아가셔도 변변한 묘자리 하나 얻지 못하

여 임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댁 선대는 발갈다가 그냥 두고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사람은 바로 호종단이라는 유명한 풍수사로서 중국왕의 명을 받아 제주의 명산 대혈을 파혈하려고 온 사람이었다.

둘은 한라산 쪽으로 얼마를 들어가서는 지금 김댁 선묘가 있는 속칭 '반디기밭'에 이르렀다. 호종단은 한 곳을 가리치면서 이곳을 꼭 밟고 있어야 하오. 만약 발을 움직이거나 들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단단히 주의를 시킨 다음 그는 더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지정해 준 그 곳을 밟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발바닥이 근질근질 가려워오기 시작하였다. 조금 있으니까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호종단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는데도 그만 발을 띄어놓고 말았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구멍이 뽕 뚫어지더니 청비둘기 한쌍이 푸드득 거리며 아래로 날아가 버렸다.

얼마후에 호종단이 와서는 그 사실을 알고는 애석해 하면서도,

"그만해도 쓸만한 묘자리오. 그러니 이곳에 장사를 지내시오."

그리고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그 청비둘기가 내려와 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지어 살되 산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를 하고 가버렸다.

김댁 선대는 그 호종단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부친을 이장하고, 다시 수망리에서 내려와 그 아랫동네에 집을 지어 이사를 하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지금의 의귀리는 온통 나무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집터를 정리하다 생각하니 산나무로 기둥을 하라는 부탁이 생각나서 기둥할 나무들은 그냥 거기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서 마당에 곡식을 널면 얼마 없어서 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서 도저히 곡식을 말리울 수가 없었다. 다행이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곡식도 잘되어서 생활은 그런대로 펴지는데 이 일이 큰 걱정 아닐 수 없었다.

하루는 어떤 지나가는 포수가 하루밤 묵어가길 원하여 그에게 유숙하도록 허하였다. 저녁을 마치고 이말 저말 한담을 하다가 곡식을 말리우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는 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하였다.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여 드리지요."

손님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뒷날도 날은 흐려서 꼭 비가 올 듯하였다. 멀리 다른 지대에는 날이 맑은데 이곳만 안개가 끼고 축축하고, 습기가 잔뜩 낀 날씨였다.

그때였다. 마당 앞에 큰 느티나무 위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척 앉아서는 집안을 기웃기

웃거리고 있었다. 그 독수리는 늘 날이 이처럼 안개가 끼고 비가 올듯한 날이면 저 나무에 앉아있곤 하는걸 주인은 늘 보아왔다.

그때였다. 포수인 손은 어느새인지 활을 꺼내 그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다. 주인이 말릴까 하는데, 휙 화살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툭'하고 마당에 떨어졌다. 느티나무에 독수리는 간데 없고 마당에는 한 마리 큰 여우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여우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잔뜩 끼어있던 안개가 어느사이엔지 천천히 걷히며 날이 개이면서 볕이 쨍쨍 내려쪼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날씨 때문에 곡식 못 말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손은 말을 마치고는 활을 챙겨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이 다시 말을 붙여볼 여유도 주지 않고 그는 밖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서였다. 밤에 어떤 지나가는 여자가 들어와서 하루밤 묵어가길 간청하였다. 여자이고 해서 집에 들어놓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밤이 깊은 때라서 어디 다른데 갈 곳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허락하였다.

그 여자는 매우 미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아도 떠날 생각을 아니하여서 그렇게 며칠을 머무는 사이에 둘이는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부부로 살다가 한번은 그 여자가 친정엘 다니러 나갔다.

친정집에서는 그 딸 보고,

"우리집 그 좋은 말이 집을 나가서 찾질 못하고 있으니, 너희도 말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 혹 갈지도 모르니 잘 살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보니 참 이상한 말이 한 마리 들어와 있었다. 주인 말에 의하면 어느날 대낮에 보지못했던 말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기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뒤로부터 계속 일어났다. 그 말이 들어온 후부터 모른 말들이 한 두마리씩 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이 한 서른 마리 이상이 되었다.

어느날 친정에서 딸이 사는 것을 보려고 집에 들렸다가 그 말들을 보고는 놀랐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려 찾던 그 말들이 모두 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위로부터 말들이 들어온 내력을 듣고는,

"아마 이 집에 태운 말일거라. 그냥 맡아서 기르지."

이렇게 선선이 서른 마리나 넘는 말들을 사위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

그 후부터 경주 김댁에는 말이 잘되었다. 재산이 점점 불어가서 나라에 좋은 말을 진상하였다. 그 일을 가상하게 여겨서 나라에서 감목관이 벼슬을 내려서 대대로 그 직책을 세

습하여 왔고, 온 섬에 그 혈족들이 많이 번창하여 큰 씨족을 이루었다.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양성수(남·70) 제보.

5. 고대정(高大靜)과 부장령(夫掌令)

고대정과 부장령은 어릴 때부터 동문수학한 사이로서 죽마고우였다. 두 사람은 제주에서 글을 읽고서 과거를 보려고 둘은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 서울에 올라간 그들은 지체 있는 대감댁에 머물면서 글을 읽고 선비들과 사귀면서 과거를 준비하였다. 그때만 해도 과거에 급제하는 일은 단지 글을 많이 읽어서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러 지체있는 대감댁에 머무르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간 두 해만에 과거를 보았다. 다행히 부장령은 등과를 하였고 고대정은 낙방을 하였다. 그래서 부장령은 전라도 어느 고을에 원으로 부임하였다.

제주에 사는 그 부장령(현감)의 부친은 아들이 과거에 등과하여 고을 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떠났다. 아들이 원으로 있는 고을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바로 길가에 어떤 젊은이가 꿇어 엎디어 있었다. 부장령의 부친은 그 모양이 하도 이상하여 그 젊은이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어떤 일로 그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가."

"예, 소인은 바로 어른신네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기다린다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나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부장령 부친은 이곳에 자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이 보낸 사람이나 아닌가 하고 은근하게 물어 보았다.

"예, 소인은 이 고을에서 전에 이방노릇을 하던 자이옵니다. 두 달 전에 파직이 되어 있읍니다. 황송하오나 어른께서 힘써 주시면 다시 복직이 될 수 있을 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말을 듣고 보니, 딱한 처지인 것도 같았다. 그래서 벼슬이 좋긴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벌써부터 자기에게 이런 청탁이 있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였다.

"어르신네께서 이것 아주 약소합니다만, 이걸 거두어 주시고 제 사정을 들어 주십시오."

젊은이는 돈꾸러미를 내놓았다.

"그거 얼마나 되나."

부장령의 아버지는 호기있게 말하였다. 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하였다.

"예, 소인에게 있는 것 모두입니다. 겨우 삼백량입니다만…"

"그래, 내가 힘써보지."
부장령 부친은 돈꾸러미를 받아 허리에 둘러차고 아들을 찾아갔다.
부장령은 기뻐하며 부친을 맞아드렸다.
"내 너에게 청이 하나 있다."
인사를 받고는 부친은 대뜸 아들에게 그 이방 복직건을 내놓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당치않습니다. 이미 전관이 파직시켜논 이방을 뒤에온 원이 다시 복직을 시킨다는 일은 있을 수 없읍니다."
아들인 부장령은 아주 단호하게 그 일을 거절하였다.
"야, 이놈아, 애비가 처음 부탁하는 일인데 그렇게 박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네 글 읽도록 하여 과거에 등과하면 내 덕을 보랴하였는데 첫 마디부터 거절이라니 순 괘씸한 놈…"
부친은 노발대발하였다.
"그래도 안됩니다. 이것은 금하는 일입니다."
"원 미련한 놈 다 봤다. 이 나라 어느 관리가 그렇게 깨끗하다더냐, 어느 관리가 법대로 공사를 처리한다더냐. 그리고 이 일은 아니하여 줄 수 없게 되었느리라. 내가 그 놈에게 돈을 삼백량이나 받아 놓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
부장령은 한참이나 생각하나가,
"예, 복직은 시키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파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이방을 다시 복직을 시켰다.
그러자 새로 부임한 원이 돈을 받고 전관이 파직시킨 자를 다시 복직시켰다는 소문이 조정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의금부에서는 그 사실로 하여 부장령을 포박하고 서울로 압송하게 되었다.
한편 부장령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과거를 준비하던 고대정은 일도 잘안되고 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차에, 죽마고우인 부장령이 공사를 잘못하여 죄인으로서 서울로 압송되어 온단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관운도 없는 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
고대정은 자기일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는 생각다 못하여 급한 때에 대비하여 간직해둔 돈 삼백량을 갖고 주인 대감을 찾았다.
"대감님 황송합니다만 제 청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대감 앞에 꿇어 엎디어서는, 소문으로 들은 부장령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과거도 뭐고 다 싫습니다. 제가 과거를 하면 뭘 하겠읍니까. 친구가 죄인의 몸으로 있는데, 그러니 이거 제가 간직하고 있는 돈이 전부이옵니다. 이걸로 대감께서 애써

주시면은 은혜 백골남망이겠읍니다."

주인대감은 사정하는 고대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돈꾸러미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낮이었다. 고대정은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려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어전 사령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그 집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정의 생각에는 어전에서 자기를 찾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이었다. 그는 천만 뜻박에 주인 대감으로부터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전갈을 받았다.

"어전 사령이 자네를 찾으려 이 근방에 돌아다니다 그냥 돌아간 모양인데, 자네 내일 입궐하여 임명장을 받도록 하게. 아마 자네 고향인 대정 원자리를 상감께서 특별히 마련하셨어."

고대정은 도무지 모든 것이 어리둥절한 뿐이었다.

"부장령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렇게 대갑에게 묻자,

"내일 어전에 가면 알 수 있을거야."

뒷날 고대정은 도승지로부터 대정원의 사령장을 받는 자리에서 부장령을 만났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영문을 몰라 하는 고대정에게,

"다 자네의 우정 때문이야. 상감께서 자네가 나를 구하기 위하여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주인대감께 부탁하지 않았나. 대감께서 이 일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상감께 아뢰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 높은 벼슬에 앉게 되고 자네까지…"

고대정은 그 모든 사연을 알 것 같았다. 그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정원을 얻고 금의환양을 하게 되었다.

남제주군 남원읍 신예리, 양봉인(남·72) 제보.

Ⅲ. 信仰傳說

1. 파혈된 고좌수 무덤

옛날 남원읍 위미리 윗동네에 고좌수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자이고 인물이 뛰어나 그 주위에서 큰 세도를 부리며 살았다. 성질이 모진 데가 있고 워낙 힘이 장사이어서

관아들도 함부로 대하질 않았다. 더구나 그는 욕심이 많아서 한번 마음 먹은 일은 꼭 이루고야 말았다. 더구나 재물 같은 것도 탐이 나는 것이 있으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곤 하였다. 그래서 인심이 좋은 편이 못되었다.

그는 정의고을 좌수를 지내었는데 늘 위미에서 정의고을이 있는 성읍을 말을 타서 왕래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얼근하게 술을 마시고 성읍에서 위미로 오다가 길에서 죽고 말았다. 동리 사람들은 심술이 안좋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은근하게 고소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상가에서는 고좌수의 장례를 위하여 육지에서 지관을 청해다가 구산을 하려 하였다. 지관이 와서 보니까 집안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인심이 좋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서 좋은 땅을 구해줄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 그런 지관의 마음을 눈치챈 이 집 며느리가 아무말 없이 지관을 성심으로 대접을 하였다. 지관도 상가에 있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나 며느리의 융숭한 대접과 그 마음씀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디두고 보자고 지관은 그 집에서 몰래 밖으로 나가질 않고 100일을 살았다. 그래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며느리는 성심으로 대접을 하였다. 이에 그 지관도 탄복을 하여 좋은 묘자리를 봐주려고 집을 나섰다.

며칠을 한라산 남쪽 변변한 곳은 다 돌아다니다가 한 곳을 정하였다. 그는 이곳을 정하여놓고 며느리에게 조용하게 말했다.

"이곳에 장사지낼 때에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게 하여, 혼자서만 하관을 하는 데 충직한 종 한놈만 들려보내어서 일을 마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한 후에 다시 며느리를 불러 귀에 대고 은근한 말로 지시를 하였다. 임시 트롱을 했던 시신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하관 때가 되니 며느리가 일가 어른들에게 말하기를,

"어른신네들 지관이 특별하게 말한 일이 있어서 하관은 저만 알아서 할 터이니 그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일가 어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지관이 이른 말이라 하니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때 상주는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열아홉쯤 되었고 둘째는 더 어렸었다. 그들도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일을 치르시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았다.

며느리는 힘이 세고 충직한 종 하나를 부르고 하관하는 것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장막을 쳤다. 누구도 그 안을 넘겨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하관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건 관을 엎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종이 눈을 휘둥그레 뜨

고 며느리를 보자, 이게 다 지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장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장사를 지내고 한 두 해가 지나면서 그 아들들의 힘이 몰라보게 세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 스스로가 힘이 불끈불끈 솟아 주체하지 못하여 자꾸 밖에 나가 싸움을 하거나 힘내기를 하곤 했다. 어느 사이에 그들 형제가 아주 장사라는 소문이 정의 지방에 널리 퍼졌다. 며느리는 생각하기를, 그 묘자리가 아마 장수가 날 묘자리로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느날 그 두 아들을 조용하게 불러드렸다.

"너희들 명심하여 들어라. 이건 너희 선친의 묘자리를 정해준 지관이 부탁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이 솟고 마음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생겨도 사람은 때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아이놈들은 차차 방자하기 시작하였다.

며느리는 마음이 한시도 놓을 수가 없었다. 지관이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안에 무덤을 열거나 이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부탁한 것도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자꾸 솟고 의협심이 점점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나자, 큰 아들은 이 좁은 제주 땅에서 어떻게 살겠느냐면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집에 남은 작은 아들의 행동이 방자하기 이를 데 없게 되어갔다. 어머니가 자주 타일러도 듣질 않았다.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으니 모든 게 제마음대로였다. 더구나 늙고 충직한 종들에 대한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난폭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집안을 모두 일으켜 논 그들인데 이렇게 되자 종들도 마음이 편하질 못했다. 더구나 제일 늙은종인 그 하관 일을 같이한 종의 마음은 더욱 그랬다.

"이놈아, 제 애비 시신을 뒤집어 묻은 주제에 왜 그리 까부는 거야."

어느날 그 늙은 종은 너무나 사람을 몰라보고 방자하게 구는 그 둘째아들, 즉 이제는 그의 유일한 상전인 그를 향해 마지막 제일 가슴 아픈 말을 한마디 하고는 훌쩍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그말을 들은 둘째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아버지를 뒤엎어 모시다니, 이게 어디였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불효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효까지 내세우면서 어머니를 공박하였다. 어머니는 사실을 말하였다. 지관이 신신당부한 일이며, 그런 모든 일이 이 집을 흥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먹을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을 듣지않고 그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무덤을 다 팠을 때였다. 관은 보이지 않고 큰 황새 한 마리가 뒷발을 세우고 막 날려는 자세로 있다가 개관을 열자마자 후두득 날아가 버렸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집안이 다 망했다는 것을 곧 알아 차렸다. 그래서 큰 아들이 난 두 살난 어린 것을 며느리에게 신신당부하였다.

"며느리야, 이제 이 집은 곧 풍지박산이 될 거다.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잇도록 각별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손주를 며느리에 주어 어디 멀리 피신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얼마 없어 서울로 간 큰 아들이 중죄를 지어 관아에 잡혔다는 소식이 왔다. 그 소식이 있은 지 얼마 없어 관아에서 달려 들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것이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집안을 뒤진 관원들은 생각지도 않은 물건들을 다 꺼내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담배씨도 한 섬이나 있었고, 더구나 화약이 석 섬이나 있었다. 이것은 필시 역적을 도모하는데 쓰기 위하여 마련해 논 것이 아니냐는데는 별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집은 망해버리고 말았다.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강(남·71) 제보.

表善面篇

Ⅰ. 自然傳說

1. 용궁 아들 삼형제와 매오름

옛날, 제주 섬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다. 바로 그때의 일이다. 남해용궁(南海龍宮) 아들 삼형제가 남해 용왕국의 국법을 어긴 죄로 제주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제주 섬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니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아무리 잘못은 저질렀지만 제주 섬으로 귀양보낸 아들들을 생각하니 용왕님의 마음도 편안할 리가 없었다. 조용히 용왕의 사자인 거북을 불렀다.

"거북아 - ."

"예 - "

"너, 지금 제주섬에 올라가서 귀양 보낸 내 아들들이 어떻게 귀양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 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가 제주섬으로 오고 보니, 아무리 귀양살이 온 용왕의 아들들이지만 그 고생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주섬 사람들도 가난하여 목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판에 귀양살이하는 용왕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니, 입다 남은 옷한벌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판이었다.

거북사자는 용궁으로 돌아가 용왕게게 사실대로 일렀다.

"용왕님, 가고 보니 아무리 귀양간 죄인이지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옵니다. 이제 그만 죄를 사하여 용궁으로 오도록 조처를 하옵소서."

"지금 당장 귀양을 풀어버리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결과이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니 어쩔 수 없겠구나. 지금 당장 제주섬으로 가서 내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신세를 진 사람이 있거든 단단히 은혜를 갚아두고 오는게 우리 용왕국의 도리이니, 그것부터 알아보고 오너라."

"예 - , 분부대로 행하겠읍니다."

거북사자는 제주섬으로 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염탐해 봐도 겨우 박씨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먹다 남은 마 뿌리 한 사발을 줬을 뿐, 귀양살이 온 용왕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대접해준 사람이라곤 없었다.

거북사자는 다시 남해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나 사실대로 일렀다. 용왕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던지,

"제주섬 사람들 괘씸하구나. 당장 그 땅을 모조리 돌밭과 가시덤불로 쌓이게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물로 잠겨 버려라."

"마뿌리 한사발을 줬던 박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음, 그 제주섬을 물로 잠기게 만든 동안만 산꼭대기로 잠시 도망가 있도록 일러 몸을 피하도록 조치해라."

거북사자는 다시 제주섬으로 나와 우선 박씨에게 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온 섬이 야단법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봉(표선면 표선리 경상에 있는 지금의 매오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시오."

박씨는 거북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내가 아침 일찍 그 산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처럼 앉아 있는단 말이요."

박씨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자 거북사자의 입장이 이만저만 딱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거북사자는 요술을 부려 박씨를 매로 환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 속셈이었다. 거북사자는 박씨를 매로 환생시켜 두고는, 지금의 매오름(蜂)으로 가서 3일만 고기가 보이더라도 쪼아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세상을 만날것이라고 타일렀다. 그때야 매로 환생한 박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거북사자는 바로 그날 아침, 남해용궁에서 귀양온 아들 셋을 데리고 남해용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당장 바닷물을 불러 제주섬을 온통 물바로 만들어가는 찰나였다. 그만큼 타일렀는데, 매로 환생한 박씨는 매오름에 앉아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 고기를 잡아먹는

날이면 용궁에서 벌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거북사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되겠군!"
거북사자는 매로 환생한 박씨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순간 요술을 부려 다시 바위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표선리(表善面 表善里) 매오름(峰) 꼭대기에는 매가 바다를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듯한 모습의 바위가 서 있고, 그 때 용궁에서 요술을 부려 한동안 제주섬을 온통 바닷물로 잠겨 버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섬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한 거치른 땅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2. 괴 야

가시리(表善面 伽時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200㎜쯤 가면 '괴야'라고 불리는 굴이 하나 있다. 지금은 굴이 막혀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무척이나 긴 굴일 것으로 보인다.
그 굴은 이 마을 오(軍威)씨 선조들이 막아 버렸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오씨 집안에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한 지관(地官)이 굴 앞에 묏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상주에게 의견을 물었다.
"저 앞에 보이는 굴(괴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보기가 싫어서 막아 버리는게 좋을 듯 하네요."
"그렇거든 그렇게 하시오."
오씨 선조들은 묏자리 앞의 굴이 보기 싫다고만 생각하여 막는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지관은 혀끝을 차며,
'저 굴을 막아 버리지 않았더라면, 후손들 중에는 만석군(萬石君)이 날텐데……. 그러나 자손은 많겠네.'
지관의 넋두리에 오씨 선조는 실수했음을 알아챘다. 그제야 지관에게 다시 굴을 파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상주가 죽을 액(厄)을 당할 것이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 오씨 집안에는 만석군 같은 부자는 없지만, 자손은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다.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오흥국(남·68) 제보.

3. 탈산봉

탈산봉은 하천(表善面 下川里)마을 서쪽에 있어, 바로 이 마을을 포근히 에워싸주는 듯한 산이다.

제주도에는 한라산(漢拏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크고 작은 산(오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듯하지만, 이 봉(峰)만은 그 대열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뚝 떨어져 서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이탈하여 산(서다<立>의 방언) 봉이라는 뜻에서 탈산봉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그런데 이 탈산봉의 맵시가 곱기 때문에 그 정기를 받아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 동남동녀들은 모두 미남미녀들 뿐이라 한다.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77) 제보.

4. 개무덤

성읍리(表善面 城邑里) 경내에 개무덤이 하나 있다. 이 개무덤에는 매우 영리한 개가 묻혀 있다고 한다.

옛날 성읍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살림이 궁해서 서촌(西村) 어느 동네에 양식을 꾸어 먹었다. 가을이 되어 추곡을 거두어 들이자, 그 빚을 갚으려고 서촌 그 동네로 가고 있었다. 들판에는 아직 늦은 추수들이 남아 있었고, 길가 어떤 밭을 보니 메밀이 한창 타작하고 있었다.

서촌에 와서 빚을 갚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엔 날이 거의 저물고 있었다.

일찍 메밀을 타작하던 밭까지 이르렀다. 메밀을 다 타작하여 사람들은 돌아갔고 집채만큼 쌓인 메밀짚 더미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성읍리의 사람들은 그저 불이 타나 보다 생각하며 그 곁을 지나치려 했다.

이때였다.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졸랑졸랑 뛰어 나왔다. 강아지는 반쯤은 털이 그을리어 있었다. 주인이 타작을 할 때, 메밀짚 더미 속에서 잠을 자다가 주인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만 불 속에 휩싸인 것이 분명했다.

강아지는 몸을 털며 이 사람을 따랐다. 강아지는 정성스레 키워졌다.

이 개는 사냥을 이만저만 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가가만 하면 누루니 사슴이니 한 두 리씩은 꼭꼭 잡아왔다.

이 개 소문이 점점 퍼졌다. 어느 예촌(禮村:南元邑 上・下禮里) 사람이든가 효돈(지금의

西歸浦市 孝敦洞) 사람이든가 이 개를 팔아 달라고 찾아왔다. 몇 번 찾아와도 개 임자는 팔아 주지 않았다.

개 임자에게는 여든이 가까운 노친이 있었다. 몇 해 후에 이 노친의 상을 만났다.

'부모의 상을 만나면 사냥을 못하는 법이므로 이제야 개를 팔아 주겠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하도 사정을 해가니,

"팔지는 않을 터이고, 그저 데리고 가서 사냥을 시키다가 내 탈상하거든 돌려 보내시오."

하고 주었다. 그 대신 사냥을 하거든 뒷다리 하나씩을 보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개는 역시 사냥을 잘했다. 첫날 사냥을 나가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왔다. 뒷다리 하나는 베어 내어 성읍의 개 주인에게 보내려고 뒷문에 걸어 두었다.

날이 밝아서 보니, 걸어 둔 뒷다리가 없어졌다.

'이상하다. 다시 사냥을 해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사냥을 나갔다. 역시 잡았다. 뒷다리를 또 뒷문에 걸어 두었다가 날이 새어서 보니 없어졌다. 몇 번 되풀이해도 개 주인에게 보내려는 고기는 꼬박꼬박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번엔 직접 가져 가기로 했다. 노루와 사슴이 한 마리씩 잡혔다. 사슴은 간수해 놓고 노루 한 마리를 둘러메고 직접 성읍으로 갔다. 뒷다리 하나씩을 꼭꼭 보내려고 했는데, 자꾸 잃어버려 못 보냈다고 사과했다.

"어, 난 벌써 먹고 있네(먹엄서)."

개 주인은 매일 고기를 받아 먹었다는 것이다. 개가 꼬박꼬박 뒷다리를 물어다 준 것이다.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삼년상이 끝나 개 주인이 탈상하는 날, 가라 오라 말도 없이 개는 주인에게 가 버렸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주인이 병이 났다. 병은 점점 무거워져서 주인은 꼬박 자리에 눕게 되었다. 주인이 일어날 수 없게 되자, 개는 주인 방의 창문 밖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꼿꼿이 앉아서 밥도 아니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인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하도 오래 굶어선지, 너무 슬퍼해서인지 주인이 죽자 개도 같이 죽어 버렸다. 개 임자 친족들이 너무나 기특하다 하여, 그 개를 주인의 묘소 옆에 같이 묻어 주었다. 그래서 「개무덤」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김두익(남·78) 제보.

5, 천년수 팽나무

성읍리(表善面 城邑里) 마을 복판에는 큰 팽나무가 있는데, 그 수령은 천년이나 됐을 것이라고 한다. 워낙 오래된 나무여서 속이 텅 비어 있으며, 그 속에 고인 물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명에 특효약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순이 먼저 나는 방향 보고 점도 치고 해왔다. 동서남북 중 제일 먼저 순이 나기 시작하는 방향의 동네에 풍년이 들게 되고, 나무 가운데에서부터 순이 돋기 시작하면 성읍리 전체가 풍년을 맞는다는 속신(俗信)도 전한다.

지난 날 이 마을이 현청(縣廳) 소재지였을 때 김 면수라는 현감(縣監)이 부임한 적이 있었다. 그는 유출이와 유득이라는 두 아들과 금전이(또는 복돈이·유행이)로 불리우는 딸이 하나 있었다.

어느날 김씨 현감은, 느티나무 가지가 너무 뻗어 현청에 드는 햇빛을 가린다고 하여 그것을 잘라 버렸는데, 그 동티로 인하여 딸이 죽고 말았다.

그 후로는 이 나무에 함부로 손을 대려는 사람이 없어 오늘나에는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진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김인방(남·66) 제보.

6. 김덕이 여

제주 방언으로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물 위로 노출되기도 하는 반석(盤石)을 '여'라고 한다. 하천리(表善面 下川里) 포구(浦口)에서 바다로 4㎞쯤 가면 '김덕이여'가 있다.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늘 물속에 잠겨 있는 것으로 김덕이라는 해녀(海女)가 발견한 '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김덕이는 동네 해녀들과 함께 '테왁'을 짚고 해녀작업(물질)을 나갔다. 그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북풍을 만났다. 큰일이었다. 모든 해녀들이 힘써 해변으로 헤엄쳐 나왔다. 나와서 보니, 김덕이 해녀만 보이지 않자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었다, 동네 청년들은 '어서 배를 준비해라', '김덕이는 바람에 쓸려 찾을 수 없을 거이라.'는 등.

한 청년이 먼 바다를 쳐다봤다. 물결 틈으로 까마귀만큼한 작은 물체가 멀리서 보이는 듯한데, 도저히 움직거릴 줄을 몰랐다. 이상한 일이다. 일단 그 곳을 향하여 더 강풍이 세차지기 전에 어서 가서 보자는 의견들이었다.

청년들은 그 곳을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저었다. '이엿사 여이도싸나!' 아직도 까마귀만큼 한 물체는 사라지질 않았다. 혹시 김덕이의 시체인지도 몰랐다. 더욱 세차게 노를 저었다.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김덕이였다. 그녀는 다행히 썰물을 만나서 '여'에 곧곧이 발을 디디고 서서 몸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아주머니! 어째서 거기…?"

"아이구, 고맙습니다. 그냥 설 수 있는 뎁니다."

그후, 그 '여'를 두고 김덕이라는 해녀에 의해 발견된 '여'라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김덕이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여'의 넓이는 무려 1만 평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큰 어장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초도 많아 이 마을의 보고(寶庫)로 여겨지고 있다.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77) 제보.

7. 거슨샘이와 ᄂᆞ단샘이

토산리(表善面 兎山里) 웃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거슨샘이」라는 샘물과 「ᄂᆞ단샘이」라는 샘물이 흐르고 있다. 같은 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인데, 한 줄기는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흐르고, 한 줄기는 바다 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전자를 거슨샘이, 후자를 ᄂᆞ단샘이라 부른다. '거슨샘'이란 거슬러 흐르는 샘, 'ᄂᆞ단샘'이란 우측(右側), 곧 오른 방향으로 제대로 흐르는 샘물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이 두 샘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힌 장수가 태어났다. 그 소식은 점점 퍼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황실(皇室)에서는 제주도에서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호종단(胡宗旦)을 제주도에 급파시켜 산혈(山穴)과 물혈(水穴)을 모두 뜨고 오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종달리(舊左邑 終達里) 포구에 들어 온 호종단은 차츰차츰 명혈을 뜨기 시작하면서 거의 토산리에 이를 무렵이었다. '너븐밧'(廣田)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떤 고운 처녀가 허겁지겁 밭 가는 농부에게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처녀는 매우 급하고 딱한 표정으로 하소연했다.

"저기 물을 요 놋그릇(행기)에 떠다가 저 길마 밑에 잠시만 숨겨 주십시오."

농부는 처녀의 말대로 거슨샘이와 노단샘이로 달려가서 놋그릇에 물을 떠다가 길마 밑에 놓아주었다. 처녀는 그물 속으로 뛰어들더니, 곧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 처녀는 ᄂᆞ단샘이와 거슨샘이의 수신(水神)인 것이다.

농부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만 생각하며 밭갈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호종단이가 왼손에 책 한 권을 들고 농부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 책은 중국 황실에서 작성해 준 제주도의 명혈(名穴)을 그린 산록(山錄)이었다.

"여보, 말 좀 물읍시다."

"그러시오."

"여기 '고부랑낭(고브라진 나무) 아래 행기물(놋그릇물)'이 어데 있오?"

"그런 물은 없는데요."

"아, 들은 바도 없단 말이요?"

"그렇소."

'고부랑낭(고부라진 나무)아래 행기물'이란 '길마 밑에 있는 놋그릇물'이란 산록에는 수신이 이미 거기와 숨을 것까지 알고 적어 놓은 것이다.

호종단은 그것도 모르고 다시 한번 더 갖고 온 산록을 살펴보더니, '여기가 틀림없는데, 여기가 틀림없는…' 투덜대며 주위를 계속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찾다가 지친 그는 '쓸 데 없는 문서로고!' 하며 산록을 태워 버린 후, 서쪽으로 떠나 버렸다.

그래서 종달리에서부터 토산리까지는 호종단이가 물혈을 모두 떠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솟는 곳이 없지만, 이 마을의 거슨샘이와 느단샘이만은 다행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솟고 있다.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1리, 김문옥(남·83) 제보.

Ⅱ. 歷史傳說

1. 냇기 송씨 댁 며느리

'냇기'는 하천리(表善面 下川里)의 옛 이명(里名)인데, 제주도에서 길이가 가장 긴 냇가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그런 이명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한다.

옛날 이 마을 송씨 집안에 성읍리(表善面 城邑里)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하나 있었다. 그 며느리의 힘은 대단하여 이 마을의 장사들도 모두 깜짝 놀라 버린 적이 있었다.

이 마을 청년들은 상듸동산에 모여서 '들음돌'을 들으며 서로 힘자랑하곤 했다. 들음돌이란 둥그렇고 큰 바윗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 놓아 두어서 청년들이 힘 내기로 힘을 겨루는 돌이다.

어느 날 송씨 댁 며느리가 물을 길러 나르기 위해서는 어차피 청년들이 모여 서서 들음돌들기 시합을 하고 있는 상듸동산 앞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좀 딱한 기분이 없지 않으나 어쩔 도리없이 빈 허벅(물을 길어 등에 지어나르는 항아리)을 등에 지고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기분이 썩 언짢았던지,

"아침부터 재수없이 빈 허벅을 지고 우리 앞을 어지럽히는 건 누구야?"

그 말을 들은 송씨 댁 며느리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지 빈 허벅을 진 채 들음돌 위에다 턱 걸터앉고 말았다. 모여 선 청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서로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 중 한 청년이 불쑥 나서며,

"이거 아침부터 재수없이…, 그 돌이 어떤 돌인데 계집년이 걸터앉아?"

"여잔 이만한 돌덩어리 위에 앉아보지도 못하나요?"

"아니, 그게 보통 돌덩어리야?"

"그렇다면 뭐예요?"

"한번 들어나 봐."

"그래요."

송씨 댁 며느리는 빈 허벅을 진 채 들음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 돌을 들고서는 상듸동산 밑으로 휙 던져버렸다. 온 청년들은 서로 입만 딱 벌린 채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송씨 댁 며느리는 '사내라는 것들이…' 중어리며 우물로 내려가 버렸다.

한참 후에 청년들은 동산 밑으로 내팽개쳐진 들음돌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했으나, 부피가 한정된 것이어서 네 사람이서는 도저히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송씨 댁 며느리에게 부탁할 도리 밖에 없어서 청년 몇 사람이 공손히 찾아갔다.

"아주머니, 이것을 어떻게…?"

"그러세요."

그 후로는 송씨 댁 며느리가 빈 허벅을 등에 지고 아침 일찍 그 앞을 지나도 빈정거리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77) 제보.

2. 정의 홍 형방(旌義 洪刑房)

정의 홍 형방은 이름이 석기(碩基)이고, 그 7대 손이 현재 표선리(表善面 表善里)에 살고 있다.

홍 형방은 어렸을 때 고성리(城山邑 古城里)에 살았었는데, 표선리 강(康)씨 댁에 장가

를 들었다. 그 후 표선리에 와서 살았다.

키는 자그마한데다 얼굴은 박박 얽어서 그 인물은 볼품 없었지만, 글 재주 하나만은 뛰어났다.

처부(妻夫)는 한학을 잘해서 아이들을 모아 훈학을 하고 또 이방(吏房)까지 지냈다. 처부가 글이 능하니 홍 형방도 장가들어서 처부에게 글을 배워 대문장가라는 소문이 삼읍(三邑)에 자자하였다.

당시 제주·정의(旌義)·대정(大靜) 세 읍 향교에서 강(講)을 했는데, 홍 형방은 언제나 장원을 하여 세 읍 문사(文士)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어느 해 마침 뙤미(南元邑 爲美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내용인 즉, 사람을 밧줄로써 팔·다리·머리를 한곳으로 당기어다 몸이 둥그스름하게 되도록 꽁꽁 묶어 놓고, 먹돌(색이 까맣고 단단하고 둥그런 돌)로 쳐 죽인 것이다. 물론 누가 어째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형방(刑房)·이방(吏房)들은 발미(跋尾)를 꾸며 보내어야 하겠는데, 그 살인 정황이 기이해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세 읍의 형·이방들이 모여 앉아 며칠 의논을 했지만, 그 피살자가 묶어진 모습이라든지, 먹돌로 쳐 죽인 상황을 한문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발미는 급히 올려야 하는데, 꾸밀 수가 없어 목사까지 근심이었다.

의논을 거듭한 끝에 세 읍의 문사들을 불러 들이기로 하였다. 한 이방이 정의 홍 석기(洪碩基)라면 능히 작문할 수 있으리라고 추천하였다. 목사도 이에 응했다.

당시 홍 석기는 처가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처가의 울타리에는 칡덩굴이 무성하여 축 늘어지고 있었다. 홍 석기는 이 칡덩굴을 뜯어서 돌로 두들겨 부드럽게 하고 댓가지에 묶어 붓을 만들었다. 그래서 행전 귀에다 붓을 꽂고 제주 성안으로 들어갔다.

남문으로 성안에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웃었다. 박박 얽고 키가 작은 시골 선비의 몰골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영문에는 세 읍의 형·이방 들이며 문사들이 모여 들어 와와 떠들고 있었다. 홍 석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들도 피식피식 웃는 것이었다.

목사는 앉았다가 들어오는 시골 선비를 보고는 '저기 들어오는 것은 누구냐?'했다. 추천한 이방이 곧 '정의 홍 석기 올시다'고 아뢰었다. 목사는 '저놈이, 저놈이…'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다. 인품을 보니 글을 할 것 같지가 않다는 눈치였다.

추천했던 이방은,

"당유자는 박박 얽어도 제상에 먼저 오르는 법입니다."

고 목사에게 응수했다. 어떻든 발미를 꾸며 보도록 하자고 했다.

홍 석기가 목사 앞에가 엎드리니, 목사가 사실을 설명하고 발미를 꾸며 보라고 했다. 홍 석기 앞에는 큰 백지가 펼쳐지고, 먹을 가는 사람, 붓을 들어 바치는 사람, 대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홍 석기는 먹을 적셔 바치는 붓도 그만 두고, 행전 귀에 꽂은 칡붓을 꺼내어 먹을 적셨다. 순간에 붓을 휘둘렀다.

필자(必子)로 격지(擊之)하고 불릉석(不陵石)으로 타지(打之)라
운운

목사에게 바치니, 목사가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반 듯 필(必)자 모양으로 몸을 오그라지게 묶어 놓고, 모가 없이 둥그런 먹돌로 쳐 죽인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해 놓았다. 이리하여 어려운 발미가 완성된 것이다.

목사는 홍 석기의 글재주를 크게 칭찬하고, 즉석에서 형방 벼슬을 내리었다. 그리고, 표선리의 「연뒤벵듸」라는 지경에 가랑좁씨 한 섬지기를 끊어 주었다. 이 토지는 지금도 그 종손(宗孫)이 갈아 먹고 있다.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홍성흡(남·81) 제보.

3. 가시오름 강당장

옛날 '가시오름'(表善面 伽時里)에 강당장(康當長)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근 일대의 밭들이 모두 그의 것이어서 남의 밭을 밟으며 걷는 일이 없을 정도의 부자였다.

어느 명지관(名地官)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일 듯한 강당장집엘 들렀다.

"주인장, 지나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잘 방이 없오이다."

강당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버렸다.

지관은 강당장 집에서 나와 바로 그 앞집인 오막살이로 들어갔다. 그 집은 경주 김씨(慶州金氏)댁이었는데,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다.

"주인어른, 하룻밤만이라도 묵고 갈 수 없을까요?"

김씨 주인은 망설였다.

"손님이 보다시피 묵고 잘 만한 집이 못 되온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앉아서라도 하룻밤만 보내고 싶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한 사정이라면 저와 함께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잡시다."

가난한 김씨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 주인과 나그네가 같은 방에서 자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지달피(地獺皮)로 만든 쌀주머니(걸랑)에다 제사 밥이나 지어 올리려고 소중히 간직해 둔 쌀을 꺼내어서 저녁상을 마련해 올렸다.

그날 밤이었다. 지관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부자로 잘 살지만 자신을 박접한 강당장 집을 망하게 만들고, 가난하지만 인심이 좋은 김씨 집을 부하게 만들어 줄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지관은 김씨 주인에게,

"죄송하오만, 강당장집에 가서 우리 집에 유명항 지관이 와 있다고만 전해 주시겠오?"

지관의 말대로 김씨는 강당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일러 바쳤다. 과연 강당장은 더욱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에서 그 지관이 우리집을 방문해 주도록 전해 달라고 김씨에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강당장은 어제는 박접했던 그 지관을 오늘에는 집안으로 초대해다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접상을 차렸다. 톡톡히 대접을 받고 난 지관은 강당장에게,

"뭣이 소원이옵니까?"

"밭이나 집은 남부러울 것이 없읍니다만, 황소 백 수를 부리고 싶은 게 나의 소원이오."

"그렇다면, 그만한 자릴 봐 드리지요."

"하, 고맙소."

"우선 당신네 선묘(先墓)들이나 논산(論山)해 봅시다.

강당장은 지관의 말대로 여러 선묘들을 보이기 위하여 산으로 안내했다. 지관은 정말 좋은 명당자리에 한 선묘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았다. 강당장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이 묘의 음덕(陰德)임이 분명했다. 슬슬 이 묏자리를 당시멸망지지(當時滅亡之地)로 옮기게 할 계책(計策)으로,

"이 묏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가만 하면, 당신의 소원은 곧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요."

"고맙소이다."

"그리고, 이묘(移墓)하게 될 때에는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소."

"무엇이옵니까?"

"이묘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군소리를 해서는 덕이 없을 것이니 명심하시오."

지관은 속셈대로 강당장에게 묏자리 하나를 선정해 줬다. 그 자리는 바로 당시멸망지지였다.

이 마을을 떠나면서 가난한 김씨에게로 갔다. 강당장이 지금 곧 선묘 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니,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도록 하라고 일렀다. 김씨는 강당장이 두려워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그리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까지 해 뒀다는 것이다.

강당장은 선묘의 덕으로 황소 백 수를 거느리고 싶은 일념에서 선친의 묏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거의 시신까지 파 내려 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묘속엔서 청비둘기 한쌍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강당장은 지관이 정해 준 묏자리로 이묘를 강행했다.

이묘가 거의 끝났다. 묘의 울타리(산담)를 곱게 치장하기 위하여 큰 돌덩이를 옮기다가, 그만 그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가ᄂᆞ의 계책대로 강당장은 직사하고 말았다.

가난했던 김씨는 지관의 말대로 이묘해 버린 묏자리에다가 집을 지었다. 얼마 없어 명지관의 말대로 큰 부자가 되었다.

지금도 당시멸망지지(當時滅亡之地)에는 강당장네 선묘가 그대로 있지만 그 후손은 한 사람도 없이 망해 버렸고, 경주 김씨 집안은 그 곳으로 집자리를 옮긴 후 오늘날 12대 후손들까지 부자로 내려오고 있다.

이 일화는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여인들이 부르는 맷돌·방아노래에서 곧잘 불리워지고 있다.

> 가시오름 강당장 집의
> 석콜방애① 새글러간다②
> (①세 사람이 마주 찧는 방아. ②여러 사람이 절구로 방아를 찧는 경우, 찧는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말.)

이 노래 가사에서 '석콜방애'라는 말은 강당장, 지관, 김씨 세 사람의 관계에서 명지관의 농간에 강씨 혼자서만 망해 버렸다는 뜻에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오국희(남·68) 제보.

4. 오 별장(吳別將)

옛날 토산1리(表善面 兎山一里)에 오 별장(吳別將)이라고 하는 영웅이 태어났었다. 그의 눈동자는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한 눈에 두 동공이 들어 있어서 늘 눈을 반쯤 감고 다녀야 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다. 만일 그가 눈을 번쩍 뜨기만 하면, 마당에서 모이를 쫓던 닭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사람이 말을 탄 채 그의 앞을 지나치다가는 말 발이 절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의 눈속에는 분명 살기(殺氣)가 들어있었다.

어느 날 오 별장은 이 마을 정자(메뚜기ᄆᆞ루)에 앉아서 눈을 반쯤 감고 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정자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 정자에서 오 별장과 같이 앉아서 놀고 있던 동네 청년들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별장님, 저렇게 건방진 놈이 어데 있읍니까. 우리가 당장 가서 하마(下馬) 시키겠읍니다."

"가만 놔 두지. 지나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오 별과 동네 청년들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을 탄 채로 정자 앞을 지나간 나그네는 저편 언덕길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보이질 않았다.

오 별장은 동네 청년들에게,

"거 이상하다! 가서들 보지."

청년들이 달려가서 보니, 말 타고 가던 사람은 말과 같이 죽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 별장이 그쪽으로 향하여 눈을 번쩍 뜨자 눈에서 살(殺)이 쏘아졌기 때문이다.

오별장은 눈살만 무서웠던 게 아니라, 힘도 장사였다.

이 마을 동북쪽에는 지금도 오 별장네 선묘(先墓)가 하나 있다.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오 별장네 선묘 근처에 가서 선친의 묏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오 별장의 강단이 무서워서 망설이다가 행여나 하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별장어른, 당신네 선묘 옆으로 저의 선친을 모시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까이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물매를 가지고 오면 위치를 정해 주지."

그 사람은 듬직한 물매를 하나 마련해다가 오 별장에게 줬다. 오 별장은 선묘 앞에 서서 빙빙 휘두르다가 휙 던지니, 3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떨어진 밖으로 가서 묏자리를 마련하게."

모두들 한동안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오 별장네 선묘에서부터 300m 떨어진 밖으로 가서 묏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서 오 별장에게 무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어느 여름 한나절에 웃옷을 홀랑 벗어 버린 채 마루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데서 나왔는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와 잠자는 오 별장의 등 밑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별장은 눈을 뜨고 슬금슬금 기어가는 구렁이를 바라보면서,

"야 그놈의 짐승이 등떠리 밑을 지나더니만, 시원키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눈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웅같은 오 별장네 집안도 지관(地官)의 지시를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 버리고 말았다.

이 마을 동북쪽에 오 별장네 선묘가 하나 있는데, 그 지세는 오백룡(五白龍)과 오작(五鵲)이 어우러져서 노는 격이었다. 지관은 오 별장의 선친에게 묏자리를 마련해 주고 나서는, 저 가시오름(袈裟峰:表善面 細花里과 兎山里 사이에 있는 峰)만큼한 자손이 태어나거든 꼭 이묘(移墓)하라고 말했었다. 바로 이선묘의 정기를 받고 영웅같은 오별장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 별장의 선친은 욕심을 부려 지관의 말대로 이묘하지 않았다.

오 별장이 성장한 후, 어떤 노승이 지나다가 오 별장네 집엘 들렀다. 오 별장의 얼굴을 보니 선묘의 운기를 타고난 명당자손이 분명했다.

"지나는 노승이온데, 이 마을 동북쪽에 있는 어느 어느 묏자리가 당신의 선묘가 맞소?"

"그렇소."

"이제는 그 묏자리를 옮길 마음은 없오?"

"고얀 중놈이네. 썩 나가, 선친의 묘를 옮기라니…"

"그렇다면 소인이 실수했오이다."

노승은 말없이 지나버렸는데, 결국 오 별장네 집안은 망하고 말았다. 만약, 처음 자리를 마련해 준 지관이나 지나던 어느 노승의 말대로 이묘 했더라면, 오 별장네 집안은 망하지 않고 대대로 그런 영웅이 태어났을 것이다.

지금 오 별장네 집안은 한 사람의 후손도 없이 망해 버렸지만, 그 선친의 묏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1리, 김문옥(남·83) 제보.

5. 어진 고형방(高刑房)

옛날 정의현(旌義縣)에 '어진 고형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 형방이면서도 남달리 성품이 어질고 인자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형방이 살았던 시대에는 양민이나 관군들이 마음놓고 산길로 나들이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적떼들이 온 섬 안에 득실거리고 있을 때였다. 정의 관군들은 영문(營門:지금의 제주시)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면 산길을 다녀야 했고, 그 고을의 양민들은 춘궁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한라산 넘어 먼 마을까지 가서 쌀을 빚져다 먹어야만 했던 때였다.

이럴 때만다 산길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도적떼들이었다. 도적떼들은 산길 가까이에 있는 굴에 살면서 오고 가는 양민들이나 관군들까지 잡아다가 쌀과 돈을 털어먹어 버릴 뿐만 아니라 저항하였을 때에는 잡아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해, 제주 섬에 온통 흉년이 들고 말았다. 도적떼들은 더욱 득실거렸다. 먹고 살기 위하여 도적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현에서는 이만저만 걱정거리가 아니었

다. 여러 관원들이 모여앉아 대책을 숙의했다. 대부분의 의견 관군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도적떼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일은 잘 진행되었다. 관군들이 한 소굴을 찾아 습격하고 보니 도적떼들이 삼십여명이나 모여 있었다. 모조리 결박해다가 하옥시키는 데 성공했다. 내일은 모조리 살해할 날이었다.

바로 그날밤이었다. 삼경서부터 고형방이 옥문을 감시할 시간이었다. 고형방은 아무리 도적들이지만 목숨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옥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적떼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모두 고형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희들, 내가 이 옥문을 열테니 이 솜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이 기둥에다 나를 잡아 묶어라. 밝은 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묶어두고 도망쳤다고 이를테니, 어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 없다!"

도둑놈들은 고형방의 명령대로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손목을 기둥에다 틀어묶은 다음 무사히 옥문을 빠져 나갔다.

새날이 되었다. 모든 아전들이 원님 앞으로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고형방만은 나타나질 않았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고!"

원님의 호통이 터졌다. 여러 형방들과 관군들은 옥으로 달려갔다. 도적떼들은 고형방을 묶고 모두 도망쳐 버렸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몇 년이 흘렀다 정의고을에서 제주목에 급한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모두들 꺼려하는 눈치였다. 도적떼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제가 다녀 오겠읍니다."

불쑥 나타난 것은 고형방이었다.

"음, 도적떼들에 들키지 말고 조심히 다녀 오도록 하려무나."

원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고형방은 산길을 따라 제주목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깊은 산길에 접어들어설 즈음이었다. 부대오름(峰) 옆을 지날 무렵에 불쑥 한 무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아, 잘 만났구나!"

고형방은 도적떼들에게 붙들려 굴로 들어가고 있었다. 굴 입구에는 두 도둑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초병인 것 같았다. 굴 안으로 막 들어설 즈음이었다. 도적 두목인 듯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두목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지기 시작했다. 슬며시 고형방 앞으로 나오더니 손목을 잡고 상석으로 모셔 큰절까지

울렸다.

"어진 형방어르신님을 저희 부하들이 몰라 뵈어 이렇게 박접했아오니 용서하옵소서."

도적의 우두머리는 어진 고형방을 상석으로 모셔 놓고 여러 가지 음식은 물론 주안상까지 풍성히 차려 대접하기 시작했다. 바로 생명의 은인에 대한 극진한 대접이었다. 고형방은 하룻밤을 도적들과 그 소굴에서 같이 보냈다.

날이 밝자 두목은 여러 부하들에게 고형방님을 제주목까지 잘 모셔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다른 도적떼들에게 붙들여 봉변을 당할런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어진 고형방은 도적떼들로부터 호위를 받으며 제주목에 도착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 돌아올 때도 도적떼들로부터 호의를 받았다. 두목은 산길까지 마중나와 어진 고형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굴 속으로 모셔다가 후하게 대접했다.

어진 고형방이 정의고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두목은 고형방에게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하십사고 자루 가득 쇠고기를 싸 주었다.

어진 고형방은 굴밖을 한참 나와서는 두목으로부터 받은 쇠고기를 모두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 불쌍한 양민들로부터 도둑질해 온 것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아무리 죄가 많은 도둑놈들이라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모두 살려보내 버린 고형방만이 정의고을의 모든 장계를 제주목까지 가져 가게 되었고, 그 고형방을 두고, '어진 고형방'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송지준(남・) 제보.

6. 고부윤(高府尹)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삼읍(三邑)에는 향교가 하나씩 세워졌다. 그때마다 향교마다 글 읽는 소리가 높아갔다. 그 중 정의향교(旌義鄕校)에서 제주 고씨 한사람이 벼슬의 꿈을 안고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다. 고씨는 문장이 뛰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이었다. 그것은 제주 섬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느 해였다. 그해에도 조정에서는 인제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방방곡곡에 방(榜文)을 붙였다. 정의향교에서 글을 익힌 고씨는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다. 이번이 열 번째 보는 과거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낙제였고, 낙심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양에서는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그 때 장안에서 장사하던 한 상인이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벼락을 맞고 죽은 시신의 등덜미에서 새겨진 글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었다.

임금은 큰 변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해석해 올리도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의 관리들은 모여 앉아 그 글을 해석하려고 애써봤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조정에서는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무백관들을 불러다 놓고 그 뜻을 해석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에 이르렀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느 누구도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선비가 불쑥 나타나더니 임금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는 것이었다.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사오나, 아마 제주도에서 과거보러 올라 온 고씨만은 그 내용을 알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어떤 사람인고?"

임금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듯 궁궐을 울렸다.

"그 사람은 금년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왔었으나 낙방하여 곧 제주로 내려가는 줄로 아옵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꼬?"

"아마 인천 포구에서 배를 기다리는 줄로 아옵니다."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뛰어가서 보니, 제주 고씨는 포구머리에서 제주로 떠나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신하들로부터 임금의 뜻을 전해 들은 제주고씨는 신하들의 뒤를 쫓아 궁궐로 향했다.

궁궐에 들어선 고씨는 임금 앞에 엎드렸다. 당장 임금의 목소리가 궁궐 안을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대가 금번 과거에 낙방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나의 부름을 받고 되돌아온 제주고씬가?"

"그러하옵니다."

"그대 문장 해득에 남다른 바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이 글을 해득해 보려무나."

제주 고씨는 천천히 벼락 맞고 쓰러진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모두들 숨소리를 죽인 채 바라보고만 있었다. 물끄러미 시신 등덜미에 새겨진 글씨를 살피고 있던 제주고씨는 자신의 등뒤에 꽂아뒀던 담뱃대를 빼어들고는 '바로 이렇읍니다!'고 크게 외치는 것이었다. 주위에 둘러 선 채 바라보고만 있던 눈동자들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고씨는 천천히 '方'자 가운데에다 담뱃대를 턱 놓았다. 바로 '市'자로 둔갑되었다. 다시 '口'자에다 담뱃대 옮겨 놓으니 이내 '中'자로 바뀌었다. '八'자에다 놓으니 '小'자로 변했다. '三'자에다 놓으니 '斗'자가 되었다. '月'자에다 놓으니 '用'자가 되었다.

이 뜻은 바로 벼락맞아 죽은 사람이 생전에 시장 가운데서(市中) 쌀을 포 팔 때마다 사는 사람이 눈을 속이기 위하여 작은 되(小斗)를 썼기(用) 때문에 죄값을 받고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다. 임금은 크게 감복했다.

"제주 고씨야 말로 인재로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과거를 치를 때마다 낙방했다니…"

임금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주 고씨에게 부윤(府尹) 벼슬을 하사했다. 그후로 그 사람을 고부윤(高府尹)이라 부르게 되었고, 제주도 여러 선비들에게도 과거에 합격하기만 하면 벼슬자리를 내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제주 고씨 덕으로 제주도도 변방이라는 서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Ⅲ. 信仰傳說

1. 토산뱀

안덕면 창천리를 경계로 하여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는 토산의 뱀신앙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따른다.

옛날 안덕면 감산리 어떤 사람이 표선면 토산리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다.

토산은 제주도에서 뱀신(蛇神)을 위하는 본댁(本宅)으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느 곳이든 따라간다고 한다.

토산 며느리가 시집와서 살게 되자 집안 식구들이 병에 걸리고 여위기 시작했다.

감산리 사람이 이상하다고 여겨 점쟁이를 불러다 까닭을 물었다. 바로 토산뱀을 잘 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뱀신(蛇神)을 위하는 굿을 해야겠어."

무당을 불러 굿을 시작했다. 부친이 아주 고집이 센 양반이라 뱀귀신이 나오도록 굿을 하라고 한창 굿을 하는 무당에게 요구했다.

"귀신이 나오게끔 굿을 하라."

무당들이 굿을 계속하자 뱀이 마당으로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부친은 조그만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무당에게 뱀이 항아리에 들어가게 굿을 하라고 요구했다.

무당이 부친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속 굿을 하자 뱀이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굿을 그만두라. 귀신을 잡아 버렸으니 굿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깊이 땅을 파서 묻어 버렸다.

무당들이 굿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토산리 친정집에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토산에서는 점을 치고 굿을

하자 무당이 그 까닭을 말했다.

"너의 집 한 조상이 감산리에 가서 잡혀 있구나."

무당이 감산리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말했던 것이다. 토산친정집에서는 감산리 사돈댁을 찾아가서 조상을 묻은 항아리를 내어놓으라고 간청을 했다.

"항아리에 든 뱀신을 모셔 갈 테니 어서 주십시오."

감산리 사람이 땅을 파서 항아리를 건네주자 다시 뱀신을 토산으로 모셔갔다. 그 이후부터는 감산리 서쪽에는 뱀신을 위하는 집이 없다 한다. 그렇게 된 것은 뱀신들이 감산리 창천내에 가면 잡혀 묻힐 것이라 믿고 중문지경까지는 따라가나 감산리 너머로는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귀포시 강정동, 김정호(남·50) 제보.

2. 양남택과 구렁팟 당신(堂神)

양남택은 지금의 '구렁팟'(表善面 城邑二里)을 설촌한 사람이며, 또 그 마을의 본향당(本鄕堂)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다.

'구렁팟'은 아주 오랜 옛날에 이미 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폐촌되었다가 다시 그에 의해서 재건된 마을이다.

양남택은 원래 정의고을에서 이방(吏房)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정의고을 원님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었다. 원님을 배웅해 드리기 위하여 화북(濟州市 花北洞) 포구로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연일 태풍이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어서 며칠 동안 화북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태풍은 보름 동안이나 계속되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소복으로 단장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나는 한양 남대문밖 도정승(都政丞) 아들이노라! 제주도에 왔다가 고향엘 가지 못할 신세가 되었다. 이 화북에서 그래도 있고 싶어도 해감냄새가 지독하여 도저히 머물러 있지 못하겠으니, 나를 어느 깊은 산골로 가서 잘 모셔달라. 그러면 너에게 부(富)를 내리겠노라."

"깨고 보니 꿈이었다. '개꿈이려니'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튿날 밤 꿈에도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큰 고민거리였다.

'아,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하면, 무슨 증거물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날 밤 꿈에도 서울 남대문밖 도정승 아들이라는 할아버지는 나타나고 말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양남택의 걱정을 이미 들었다는 듯이나,

"날 모셔 가려거든 원님이 타고 가려는 배의 나무쪼각을 하나 뜯어다가 거기에다 화상을 그리되, 코 위로는 떠나는 원님의 얼굴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의 모습을 그리면 나의 혼이 그리로 들어가서 너를 따라가겠노라."

양남택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배로 가서 널판대기 하나를 떼어다가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화상(畫像)을 그렸다.

귀신의 조화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날이 화창해졌다. 원님을 배웅하고 나서 화상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 온 양남택은, '어데로 가서 모실까' 망설이다가 '구렁팟'으로 가서 모시기로 작심했다. '구렁팟'으로 화상을 모시고 집이라기보다 날가리 비슷하게 초옥을 만들어 그 안에 모셔 내버렸다.

몇 해 후였다. 어느 날 밤 꿈에 다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아, 나를 구렁팟으로 모셔줘서 고맙긴 하다마는 어느 누구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이도 없고 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내 곁으로 와 설면서 나를 잘 대접해 주면, 당장 너를 부자가 되게 해 주마."

'들은 게 병'이란 격으로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양남택은 인가(人家)라곤 한 채도 없는 '구렁팟'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아닌게 아니라 귀신의 조화인 듯이나 농사를 짓기만 하면, 팥씨 다섯 방울만 뿌려도 다섯 말이 날 정도로 해마다 풍년이었다. 양남택을 이내 곧 부자가 되었다. 이는 귀신의 도움이라고만 여겼다.

이 소식은 퍼지고 퍼졌다. 차츰차츰 인근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구렁팟으로 모여들어 살기 시작해가자,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양남택은 그 마을(城邑二里)의 설촌자가 되었고, 서울 남대문밖 도정승 아들이노라며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구렁팟'으로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제반사(諸般事)를 수호해 주는 본향당신(本鄕堂神)이 되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7) 제보.

3. 백목사(白牧使)와 토산당(兎山堂)

이조 때 백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할 당시에 섬 중에는 당 오백과 절 오백이 있었다.

부임하자마자 관덕정(觀德亭)에 이르고 보니, 커다란 신목(神木)이 두 그루 있었는데, 여러 백성들이 모여들어 소까지 잡아 놓고 제 지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목사는 이방(吏房)을 불러 세워 놓고, 백성들이 제를 지내기 위하여 법석

대는 원인을 물었다.

"왜 이리 야단법석인고?"

"이 섬 중에서는 어느 목사님이건 부임하게 되면, 관덕정 신목 밑에서 이렇게 제를 올려야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섬 중에서 일 등 무녀(巫女)를 불러와라."

"예—"

목사는 불러 온 무녀에게 신(神)이 내 앞에 나타나도록 굿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침부터 굿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녁 때쯤 되어서야 큰 뱀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는 관덕정 앞 마당에 사려누웠다.

"이게 귀신이냐?"

"예?"

목사는 이방에게 활을 당겨 저 뱀을 쏘아 죽이라고 하명했다. 목사의 명령대로 뱀은 죽었다.

목사는 다시 이방에서 이 섬중에서 유명한 목수들을 불러들이라고 하명하자, 수 십 명의 목수들이 모여들었다. 목사는 여러 목수들을 세워 놓고 신목을 죽여 버릴 방법을 묻기 시작했다. 도끼로 쳐야만 된다느니, 불을 붙여야 된다느니 의견이 분분하던 중에, 다라쿳(제주시 月坪洞) 강 목수가 불쑥 나섰다.

"거 도끼 없이도 죽일 수가 있아옵니다.(거 도치 어시도 죽일 수 이실꺼우다.)"

"그러면 너가 죽여 봐라."

강 목수는 신목(神木)에 사다리를 세워 놓고는 먹통 줄만 갖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꿉아 놓고 내려왔다. 먹줄을 한번 탁 튕기고 나서는 목사에게 신목은 죽었다고 일러바쳤다.

"음, 과연 일등목수로다!"

목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섬중에 있는 당과 절들을 부숴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토산리(表善面 兎山里)에 이르러 이 마을의 당을 파괴할 차례가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애걸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발 이 당만은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내 앞에서 굿을 해라. 그러되, 신의 위력으로 저 당기(堂旗)의 깃대가 저절로 일어설 경우에는 당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영험(靈驗)이 없는 것으로 믿고 부수고야 말겠노라."

심방은 애써 굿을 쳐나갔다. 깃대가 벌벌 떨리면서 반쯤 일어서려고 할 때면 목사의 두 눈이 번쩍거렸다. 그럴 때마다 일어서려는 깃대는 쓰러지고 말았다.

'과연 영험이 있는 당이로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당만은 영험이 있으므로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자고 순력꾼들에게 지시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토산당의 위력은 전도에 걸쳐 번성하게 되었다.

남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신승빈(남·83) 제보.

城山邑篇

Ⅰ. 自然傳說

1. 성산 일출봉(城山 日出峰)

성산리(城山邑 城山里) 바닷가에 한 덩어리의 거암(巨岩)으로 이루어진 산이 돌출해 있다. 이 산은 성산봉, 또는 성산 일출봉(日出峰)이라 한다. 이 산은 제주도의 맨 동쪽에 위치해 있어, 그 봉우리 위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산은 주위가 깎은 듯한 기암절벽이 되어 솟아 올랐고, 그 정상(頂上)은 우묵하게 패어져 분지(盆地)를 이루었다. 이 분지의 주위는 형형색색의 암봉(岩峰)으로 둘려 있는데, 그 수가 아흔아홉이라고 한다.

만일, 그 봉오리가 1백이었다면, 제주에도 호랑이·사자 같은 맹수가 날 것인데, 하나가 모자라 아흔 아홉이기 때문에 호랑이도 사자도 아니 난다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리, 김문하 모친 제보.

2. 용궁올레와 칼선ᄃᆞ리

신풍리(城山邑 新風里) 경 해안에는 용궁(龍宮)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불리는 '용궁올레'가 바다 속에 있다.

또, 이 해변에는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용머리'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바로 남해용궁(南海龍宮)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날이 가물 때는 정의향교(旌義鄕校)에서도 이 곳으로 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었다.

'용머리' 앞 바다 속에는 일직선으로 기다랗고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유독 그 부분만 물이 파랗다. 이것이 바로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올레)이다.

이 곳은 다른 곳에 비하여 물 속이 매우 깊을 뿐 아니라,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하여 신성시해 왔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해녀들이 그 곳만은 함부로 범하지 못해 왔다.

그런데, 옛날 이 마을에 송씨 해녀만은 '용굴올레'에 가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해 온 때가 있었다. 송씨 해녀는 해녀작업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을 뿐 아니라, 용감하여 무서워하는 곳도 없었다.

어느 날 '용궁올레'에서 송씨 해녀가 해녀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전복이 하나 보였다. 그 전복은 너무나 깊숙한 물속에 있었다. 숨이 모자라서 따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빗창'(전복을 따는 기구)으로 전복을 따려고 콱 찔렀는데, 그 순간 그만 정신이 아찔해 버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햇빛이 쨍쨍 비치고, 강아지 한 마리가 깽깽 짖었다. 이것은 분명 별천지였다. 이내 강아지가 어서 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어 대었다.

송씨 해녀는 강아지를 좇아서 들어갔다. 눈이 아찔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동남동녀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호화찬란한 집들도 보였다.

송씨 해녀는 '이런 세상도 또 있을까?' 생각하며 사방을 둘러보는데 공주 같이 어여쁜 미녀가 앞으로 다가섰다.

"당신은 어데서 왔오?"

"저는 정의고을 신풍리에 사는데, 해녀작업(물질)을 하러 와서 전복을 캐다가 정신이 아찔하여 깨고 보니, 여기에 와 졌읍니다."

"여기는 남해용궁이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을 우리 용왕이 알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고 말 것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봐 주겠으니, 어서 요 길로 해서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아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간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오."

"그게 뭡니까?"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송씨 해녀는 용궁 미녀의 말대로 인간세상으로 향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용궁을 구경하고 싶은 욕심에서 살짝 뒤를 돌아보자마자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 버렸다.

이 때, 송씨 해녀 앞에 용궁 수문장(守門將)이 툭 나타났다. 수문장의 눈동자는 부리부

리 무서웠다.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엘 왔느냐?"

송씨 해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하고는, 제발 살려만 주십사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다.

"제가 인간세상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집안에 늙은 부모가 걱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어 버리면, 늙은 부모들도 살아갈 수가 없읍니다."

"부모는 몇 살이냐?"

"우리 시아버님은 아흔 살이고, 시어머님은 여든 살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참, 나도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딱하다는 표정이었다. 수문장은 옆 사람과 소곤거리고 나서는, '당신을 마땅히 죽여야 하겠지만, 늙은 부모가 있다기에 보내 준다'고 하며 나가라고 했다.

수문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송씨 해녀가 이 용궁에 들어올 때 처음 만났던 강아지가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어 대었다. 그 강아지 뒤를 졸졸 따라서 용궁에서 나와 보니, 바로 전복을 캘려던 '용궁올레'였다.

송씨 해녀가 용궁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졌다.

그 뒤로 여기가 바로 용궁으로 가는 대문이라고 하여, '용궁올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용궁올레' 바로 옆 물 위에는 10여m 정도의 칼날같이 우뚝한 바위가 하나 솟아 있다. 이 모양이 칼이 선 듯하다고 해서 '칼선ᄃᆞ리'라고 한다.

이것은 남해용궁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막아 놓은 다리(橋)라는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62) 제보.

3. 곱은소(Ⅰ)

성읍(表善面 城邑里) 마을과 신풍(新風) 마을 사이에 「곱은소(沿)」라는 큰 못이 있다. 그 물은 맑고 깊으며 언덕 밑에 처녀가 곱아서(숨어서의 방언)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몸을 숨기는 듯한 모습의 물(沼)이라 하여 '곱은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그런데, 이 물(沿)은 신령이 살고 있는 물이라고 하여 소문이 자자하다.

이 물에는 가끔 이변(異變)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이변이란 사람이 그 옆을 지나다가 이 소(沿)를 내려다보면 어떤 때는 놋그릇 두껑(가지깽이)이 물위에 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또 이 놋그릇 두껑이 보이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 가령 두 사람이 가 보았을 경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놋그릇 두껑은 바로 이 물의 신령이 보이는 이변이라는 것이다.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77) 제보.

곱은소(Ⅱ)

옛날 하천리(表善面 下川里)에 어떤 처녀가 계모 밑에서 살고 있었다. 계모는 심술이 대단했다. 딸에게 빨래를 시켜도 꼭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곱은소'에 가서 옷을 빨아 오도록 했다. 그 물은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이 매우 곱기 때문이다.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 날도 계모는 꼭 그 물에 가서 빨래를 해 오라고 지시했다. 처녀는 추위에 손발이 시려 도저히 빨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계모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서 무엇하랴'고 낙심하여 그 물에 빠져 죽어 버렸다. 원혼이 된 것이다.

그 후로, 그 물에서는 밤마다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 도부장수가 「곱은소」 옆을 지나게 되었다. 그 곳을 들여다 보니, 놋그릇 두껑(가지깽이)이 둥둥 떠 있었다. 이상히 여긴 도부장수는 그것을 잡으려고 물가로 갔었는데, 갑자기 물귀신이 나와서 도부장수의 목덜미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물귀신은 바로 처녀의 원령인 것이다.

그 총각 도부장수가 처녀 물귀신에게 잡혀 들어간 후로는 거기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4. 혼인지(婚姻池)

삼성혈(三姓穴)에서 솟아난 세 신인(神人)이 수렵을 하며 온평리(城山邑 溫坪里) 경(境)에 이른 때였다. 우연히 바다를 보니 무엇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것이 해변으로 닥아왔다. 자세히 보니 석함(石函)이 떠오는 것이었다. '무언가 귀중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세 신인들은 일제히 쾌성(快聲)을 올렸다. 그래서 온평리 바닷가 이름을 '쾌성개'라고 한다.

'쾌성개'에서 쾌성을 지른 세 신인은 석함이 떠오는 바닷가로 내려가니, 물결에 출렁이며 석함이 뭍으로 떠올라 왔다. 이곳을 '오통'이라고 한다. 석함이 떠왔다고 해서 '오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석함이 뭍으로 올라올 때 사신(使臣)이 말을 타고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세 처녀가 오곡(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 등을 이끌고 올라왔다.

세 신이 올라오면서 첫발을 디딘 말 발자국이 지금도 있다. 바닷가 물결이 출렁대는 평평한 바위에 흡사 발자국같이 패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를 '물성개'라 한다.

온평리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흰죽'이라는 못이 있다. 세 신인은 세 처녀와 더불어 이 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혼인식을 올렸다. 그래서 이 못을 혼인지(婚姻池)라 한다. '흰죽'이라는 이름은 '혼인지'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혼인지 바로 곁에 자그마한 굴이 있는데, 여기는 세 신인들이 혼인하고 같이 잠을 잔 곳이라고 전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현장수(남·) 제보.

5. 영주산과 무선돌

난산리(城山邑 蘭山里)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영주산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 무선돌이라 불리는 큰 바윗돌이 있다.

이 산은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과 흡사하고, 무선돌은 남자의 모습을 닮았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 어느 부자집의 딸과 쓰러질 듯한 초가에 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총각은 늙은 어머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어느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다가 허벅(물을 길어나르는 옹기)에 물을 지고 가는 고운 처녀와 마주치고 나서부터는 늙은 어머님을 보살필 생각은 않고 그 처녀 생각만 하게 되었다. 나무를 하러가다가도 멈춰서서 그 처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곤 했다. 이와 같은 일이 잦아지자 동네 사람들도 눈치채게 되었고, 드디어는 이웃 여러 사람들도 그를 불효의 자식이라고 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각의 연정은 깊어만 가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총각의 어머니는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그를 비난했다.

무심한 생활 속에 여러 날이 흘렀다. 어느 날 그 처녀가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 오는 길에 우연히 그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다.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그 총각의 처사에 대하여 늘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던 터였다.

그 후, 처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총각과 같이 살게 되었으나,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살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살려고 그 마을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쿵하는 벼락 소리가

나더니, 둘은 갑자기 산과 바위로 변해 버렸다.

처녀는 지금의 영주산이 되고, 총각은 무선돌이 되고 만 것이다. 총각은 늙으신 어머님을 잘 모시지 못하여 죽게 한 죄로 무선돌 바위가 되어 산이 된 처녀를 쳐다만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린 것이고, 처녀는 죄가 없으나 산으로 변하여 다시는 난산마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의 처녀 총각들을 보살피는 수호신이 되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學術調査報告書(1976: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인용.

6. 영산이골

난산리(城山邑 蘭山里)에서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동오름'(峰)이 있고, 바로 그옆에 '영산이골'이라 일컫는 골짜기가 있다.

이곳을 두고 '영산이골'이라는 지명이 붙게 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오조리(吾照里)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자 우선 출빈(出殯)을 해 놓고, 지관(地官)을 청해다가 묏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명당자리를 찾기란 이만저만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100여 일 동안 두루 야산을 헤매다녀도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여 고심하는 판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집안의 마소를 돌보는 영산이라는 목자(테우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목자답지 않은 말을 주인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아이고, 상전님! 그렇게 석 달씩이나 찾아다녀도 제대로 묏자리 하나 못 찾는 것 같사온데, 내가 한 자리 봐 둔 곳이 있사오니 한번 가서 보시지요."

종놈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조금은 빈정대는 듯도 하나, 원래 착한 놈이라 당장 욕할 수는 없고 해서,

"에그, 자식! 버릇없는 소리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지껄이는 게 아니다. 네가 뭘 안다고 묏자릴 봐 뒀다고 하느냐?"

목자와 주인이 주고 받는 말을 지관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아이고, 저 공자(孔子)님도 어리석은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아기업저지(애기업개) 말도 귀넘어 듣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산으로 사는 김에 한번 가서 보지요, 주인장."

"그렇게 하시죠."

이튿날에는 약속대로 모두 산으로 올랐다. 목자는 지금의 영산이골로 주인과 지관을 안내하여 자기가 봐 뒀던 묏자리를 가리켰다.

"여기올습니다."

지관은 눈이 뚫어지게 그 주위의 지세(地勢)를 한참 살피고 나서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명당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다니기만 하고, 이거 아주 명당자립니다."

주인은 무척이나 기뻤다. 과연 그 자리에 부친을 안장(安葬)시키니 명당 자손들이 곧 태어나는 듯했다.

세월은 흘러 영산이는 그 집에서 일생 종살이를 마치고 죽고 말았다. 일가친척은 물론 한 점의 혈육도 없는 터라, 그 주인집에서는 선조의 묏자리를 찾아 준 공적을 생각하여 바로 그 선조의 묏자리 옆으로 가서 묻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선조의 묘에 가서 묘제(墓祭)를 올릴 때에 영산이 묘에도 꼭 묘제를 지내오고 있다.

그래서 그 지경은, 영산이라는 종이 본 묏자리가 있고, 또 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기에 지금도 이 지방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두고 '영산이골'이라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7. 구진개와 추근디모들

신풍리(城山邑 新風里) 경 해안에는 '구진개'개라고 하는 자그마한 포구(浦口)가 하나 있다. 바로 그 포구 앞바다는 물발이 세차서 항해하던 배가 파선되는 예가 많았었다.

그래서 이 '구진개'는 바로 왜구(寇)들이 도망쳐 나가려고(進)했던 포구(개)라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왜구들에게 늘 침탈을 당해 왔는데, 이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해 왜구들은 지금의 구진개에 배를 세워 놓고 이 마을로 쳐들어 와 돼지·솥·의복 등을 훔쳐 배에 가득 싣고 포구를 빠져 나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썰물이 나자 물발이 세어서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다. 왜구들은 하는 수 없이 뭍으로 올라와 한라산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마을 청년들은 왜구들의 뒤를 좇았고, 미리 알아차린 정의고을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치는 왜구들의 앞을 막아 진을 치고 있었다. 왜구들은 마치 독안에 든 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아군들에 의하여 모두 생포 내지는 섬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왜국들이 도망치려고 하다가 물발이 세어서 도망칠 수 없었던 포구라고 해서 지금도, 그 포구를 '구진개'라 하고, 여러 군사들이 추격하여 섬멸시켰던 곳을 '추군디모들'이라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Ⅱ. 歷史傳說

1. 시흥리 현씨 남매

약 5백 년 전, 심돌(城山邑 始興里)이 현 위치에 부락이 이루어지기 전 일이다. 당시는 두산봉(斗山峰:멀뫼) 뒤쪽 '대섬머세'라는 곳에 인가(人家)가 몇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때 현(玄)씨 부부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

현씨가 자식을 낳으면 힘이 센 자식을 낳아야 하겠다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해 부인이 임신을 하자, 계속 소를 열 마리나 잡아 먹였다. 아들을 낳으리라고 믿고 열 마리씩이나 잡아 먹인 것인데, 낳은 것을 보니 딸이었다. 현씨는 '아차!' 했다. 이 딸아이의 힘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에 또 부인이 임신을 했다. 다시 현씨는 소를 잡아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홉 마리만 잡아 먹이기로 했다. 그러나 아홉 마리를 잡아 먹이고 나서 생각해 보니, 혹시 딸을 다시 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마리라도 아껴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엔 아홉 마리로 중단했다. 낳은 것을 보니 아들이었다. 그런데 현씨는 '아뿔사!' 했다. 이 아들도 힘이 세었다.

당시 대섬머리에 살 때에는 현재의 시흥리(始興里) 입구에 있는 '큰물'이라는 샘물을 길어다 먹었다. 현씨의 딸도 남과 같이 허벅으로 이 물을 져 날랐다. 그 길을 좁고 험한 길이었다.

어느 겨울, 설한풍이 몰아치는 날, 현씨 딸은 허벅에 물을 지고 그 길을 오르고 있었다. 몰아치는 눈발을 헤치며 가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사슴 한 마리가 눈앞에 딱 마주 쳤다. 그때는 인가가 많지 않은 때였으니, 한라산의 사슴들이 눈을 피해서 해변까지 흔히 내려왔었다. 사슴은 사람을 보자 길을 꺾어 도망가려 했다. 현씨 딸은 허벅을 진 채 훌쩍 내닫더니, 뛰는 사슴을 앞질러 가서 두 뿔을 잡고 홱 돌았다. 사슴은 벌렁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사슴을 잡아 둘러메고 돌아가니, 현씨도 과연 딸의 힘에 놀랐다 한다.

이 무렵, 김녕리(舊左邑 金寧里)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현씨는 이 기회에 아들의 힘과 딸의 힘을 견주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을 씨름판으로 보내고, 뒤이어 딸을 남장(男裝)시켜 좇아가 보라 했다.

씨름판은 현씨 아들을 이기는 자가 없었다. 완전 독판을 모는 것이었다. 현씨 아들은 기

세가 등등하여 휘둘러 가니,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군중들은 '와아!' 하고 일어섰다. 정의(旌義)놈이 목안(牧內)에 와서 독판을 치다니, 이놈 발길질(발모둠)을 해 버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남장한 누님이 턱 나섰다.

"보자하니 보잘 것 없는 놈이 남의 마을에 와서 독판을 모니 이게 될 말이냐. 나하고 붙어 보자."

씨름이 붙었다. 누님인 줄을 모른 현씨 아들은 가소롭다는 듯 달려들었다. 그러나, 소열 마리를 먹고 낳은 딸이 이길 것은 뻔한 일이었다.

동생을 쓰러뜨린 누님은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난 저 목안(牧內) 서촌에 사는 사람인데, 정의 놈의 와서 독판을 모니 목안 사름으로 괘씸하여 가지고 붙어 보니 하찮은 놈이로군. 그대로 내 버립시다.(기냥 내 붑주.)"

그제야 김녕(金寧) 사람들의 울분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여 동생의 위기를 구해 주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2. 심돌 부대각

심돌(城山邑 始興里)에 '부대각'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의 아들도 또한 힘이 세었으니 '부주사'라 불렀다. 아버지 부대각은 경자생이고, 부주사는 갑자생이었다.

부주사도 몸집이 워낙 커서 소소한 문으로는 출입을 못하였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세인이 '호부견자(虎父犬子)'라 했으니 부대각의 풍채는 가히 알만하다.

부대각은 심돌 동네 어귀에 살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곁 큰 팽나무 밑에 나와 기침을 '어험'한다. 그러면 심돌 상하 동민들은 누구나 그 기침 소리를 알아듣더라고 한다. 그만큼 음성도 컸었다.

부대각은 심심하면 거리에 나와서 '우리 추렴하주'하여 그 나이 또래 벗들과 돼지를 잘 잡아 먹었다. 추렴하는 목적은 몇이서 돈을 모아 돼지 따위를 잡아 갈라 먹는 일이다. 부대각이 제안하면 그의 벗들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한다. 그래서 돼지가 크든 작든 간에 서너 명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말끔히 먹어 치웠다 한다. 아마 반 이상을 부대각이 먹었을게 분명하다.

부대각은 육지 장사를 자주 다녔다. 미역을 싣고 가 팔고 쌀을 사 오는 것이었다.

어느 해 강경(江景) 장판에서의 일이었다. 부대각은 어디 가도 그랬지만, 강경 장판에서

도 좀 거만하게 설치고 다녔다. 힘이 세니 무서운 데가 없어 그럴 법도 한 일이다. 강경 사람들은 저게 누구인가 하다가 제주 사람임을 알았다.

"제주 섬놈이 거만하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는 이놈을 단단히 골려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20여 명이 꽁무니마다 방망이를 차고 부대각이 머무는 주막에 몰려들었다.

먼저 겁이 난 건 주인이었다.

"부선달, 몸을 좀 피하시오. 위험합니다."

"사람이 한번 나면 죽는 법. 그들 소원이 꼭 나를 죽이고 싶다면 소원대로 하게 내버려 두오."

부대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아들 부주사가 문 밖으로 나갔다. 아들은 이때 열 아홉 살로 아버지를 따라 간 것이었다.

"이번만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거만한 짓을 안하시도록 제가 명심하겠읍니다."

뭘하러 나가는고 했더니, 사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대각은 화가 벌컥 치밀었다.

"못된 자식하곤. 그까짓 놈들에게 빌면서 목숨을 살아서 뭣할 것이냐!"

야단을 쳤다.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를 때려 죽이고 싶거든 저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서 죽여라. 집안에 때려 죽이면 주인에게 폐가 되자 않으냐!"

부대각의 말에 청년 대여섯이 들어오더니, 양쪽으로 갈려서 부대각의 팔을 잡아 끌었다. 부대각은 등을 벽에 딱 붙이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온 힘을 내어 끌었으나 청년들은 부대각의 등을 벽에서 떼어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던 어른 한 사람이 청연들을 만류했다.

"너희들 대여섯이 벽에 붙인 등도 떼지 못하는데, 만일 저 양반이 힘을 낸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청년들은 슬금슬금 물러서서 사과를 해 왔다.

부대각은 사과를 받아 들이고, 덕분에 그 청년들을 시켜 미역을 수월히 팔고 쌀을 사 싣고 돌아오게 되었다.

배를 놓아 섬 하나 안 보이는 바다에 온 때였다. 수적(水賊) 배가 나타났다. 수적을 만났다고만 하면 물건을 다 빼앗김은 물론, 목숨까지 잃는 판이었다.

뱃사공들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부대각은 짐짓 모른 체하고 '웬일이냐?' 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무곡(貿穀)을 다 이 배로 실어라."

수적들의 호통소리가 떨어졌다. 부대각은 벌떡 일어서며 배 닻을 잡아 북 무질러 끊어 허리에 띠를 턱 묶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쌀 멱서리를 휙휙 잡으며 공 던지듯 수적의 배로 내던졌다. 수적의 배가 나무 이파리 출렁이듯 출렁이며 금방 침몰할 것 같았다.

그제야 수적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과연 목숨만 살려 주십사'고 빌어 왔다. 부대각은 도리어 수적 배의 물건까지 빼앗고 싣고 돌아왔다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3, 심돌 강씨(姜氏) 할망

약 1백 년 전, 심돌(城山邑 始興里) 강씨할망이 같은 마을 부(夫)씨댁에 시집을 왔다. 강씨할망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었다.

강씨할망의 시집 앞길에는 들음돌이 놓여 있었다. 젊은이들이 매일과 같이 모여들어 들음돌을 든다. 이 들음돌은 이 근리(近里)에서 제일 무거웠다고 하는데, 이는 시흥리 사람들이 힘이 세었음을 의미한다. 가령 시흥리 사람들이 이웃 마을 오조리(吾照里)의 들음돌을 보고는 '저거야(저거사) 수제비(조배기) 들음돌이냐?'고 나무랐을 정도였다.

강씨할망은 시집 와서 얼마 아니 된 때,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가다가 이 들음돌에 발이 채었다. 아직 채 밝지 않은 때에 생소한 길을 걷는 것이라 발이 챈 것이다. 강씨할망은 '귀찮은 돌을 길거리에 놓아서 발을 채게 한다'고 투덜대며, 물 허벅을 진 채 들음돌을 번쩍들어다 옆의 논밭에 던져 버렸다. 들음돌은 흙 속에 움푹 패어져 들어갔다.

이튿날, 청년들이 논밭에 들어간 들음돌을 발견하고, 이것이 누구의 힘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찾을 수가 없었다.

청년들은 이 돌을 꺼내려고 논밭에 들어가 힘을 다 내어 봤으나 꺼낼 수가 없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강씨할망은 하도 우스워서 다리를 걷어 올리고 들어고 번쩍 들어 길거리로 내던져 주었다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4. 현지관(玄地官)

약 250년 전 온평리(城山邑 溫平里)에 현지관(玄地官)이 살았다. 지리에 능하여 그 명성이 전도(全島)에 미쳤다.

당시 지리에 유명한 이로 고성(城山邑 古城里)에 정지관이 있었다. 현지관과 정지관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또한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에 오훈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이는 어릴 적의 스승이고 또 지리에도 밝아서 세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어울리어 다니는 처지였다.

현지관은 그의 조부가 죽자 손수 묏자리를 보아 성읍리(表善面 城邑里) 경에 있는 나시기오름(峰)에 장사지냈다. 그 후 증손 때 그 묘를 이장하였는데, 묘 앞에 파묻은 지석(誌石)에 '유아증손천이차묘(唯我曾孫遷移次墓)'라고 씌어 있었다 한다. 미리 증손 때가 되면 이장할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현지관은 이만큼 아는 지관이었다.

어느 해, 현지관은 정지관과 더불어 어떤 집의 청을 받아 묏자리를 보러갔다. 낮에는 상주와 같이 명장을 찾아 돌아다니고, 밤에는 상주네 집에서 잠을 자며 대접을 받고, 날이 밝으면 다시 명당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두 지관은 조반을 마치고 출발에 앞서 잠지 한담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이웃집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두 지관은 여인을 보자 누군가가 '저 여인이 뭘하러 이 집에 왔는가?'를 알아 맞춰 보자고 제의했다. 그거 재미있겠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두 지관은 다 파자(破字)에 능하였으므로 각기 한자(漢字) 한 글자를 골라 그것을 풀기 시작했다.

"홍두깨를 빌러 왔군."

정지관 먼저 대니, 이어서,

"아니, 솥뚜껑을 빌러 왔어."

현지관 응수했다.

"그러면 두고 보자."

여인은 솥뚜껑을 빌어 가는 것이었다. 현지관이 이긴 것이다.

정지관은 감탄하며 '어째서 솥뚜껑을 빌러 온 줄 알았느냐?'고 물었다.

"뱀 사자(巳字)가 나오니 솥뚜껑 빌러 온 것을 알았지."

"아, 나도 뱀 사자가 나왔는데, 뱀은 긴 놈이니 홍두깨가 틀림없는 줄 알았는데…."

정지관은 더욱 기이하여 물었다.

"아니야, 시간이 있지 않아. 지금은 뱀이 돌돌 감고 누워서 대가리만 위로 치켜 들고 있을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 그 모습이 솥뚜껑이지."

현지관은 한 번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어느 해엔가 지나다 보니, 어떤 묘에 벌초를 하고 있었다. 자손들이 와글와글 많이 모여 벌초를 하니 자연 눈에 뛴 것이다.

현지관은 지나면서 얼른 보기에도 체백(體魄:땅 속에 묻은 송장)은 벌초하는 봉분 밑에 없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 물러가 있는 게 분명했다.

"헛, 거, 자손들은 많지만, 공연한 곳에 벌초하고 있군."

무심중에 중얼거리며 현지관은 지나갔다.
벌초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거 어떤 놈이냐? 잡아 오라"
고 야단쳤다.
현지관은 끌려갔다. "아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벌떼같이 달려 들었다. 현지관은 사실이 그런데 무슨 죄냐고 따졌다.
"만일, 지금 파 봐서 시체가 있으면 어떨 거냐?"
자손들은 성급하게 무덤을 파려 들었다. 현지관은 그리 서두르지 말고, 택일을 해서 파헤치도록 타이르며, 신분을 밝히고 도망갈 사람이 아님을 단단히 일러 주었다.
그제야 자손들은 누그러지고 시체가 있다는 곳을 확인했다.
그후, 실제 무덤을 파 보니, 시체는 없고 현지관이 지적한 장소에 불려가 있었다. 소위 '풍질'에 묻은 묘인 것이다.
그제야 그 자손들이 과연 잘 아는 지관임을 알고, 말 몇 필에다 쌀과 술을 싣고 와서 사정하였다. 현지관은 그들의 청에 따라 묏자리를 하나 보아 주었다 한다.
현지관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개미동산'이라는 곳에 묏자리를 보고 '내가 죽거든 여기 묻으라'고 유언했다. 또 5대손이 죽거든 바로 이 곁에 묻도록 전승시키라 했다. 그래서 개미동산에는 현지관의 묘와 그의 5대손의 묘가 있다.
현지관이 손수 개미동산에 자신의 묏자리를 본 것은 자손의 수가 많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개미처럼 번창하였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현장수(남・) 제보.

5. 고성 홍효자

조선조 현종(憲宗) 때에, 고성리(城山邑 古城里)에 홍 효자(洪孝子)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봉양에 칭송이 자자했다.
홍 효자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눕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당시 제주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난하여 이부자리마저 제대로 마련하고 살지 못하던 때였다. 홍 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눕게 되자, 홍 효자는 있는 재력을 다하여 좋은 이부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그래서 아버지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아 모시고, 자신은 갖옷을 입은 채 마루방에 자면서 구병을 계속했다.
구병하면서 홍 효자는 똥을 맛보았다 한다. 아버지의 똥은 날리 갈수록 단맛이 더해 갔다. 홍 효자 '똥 냄새가 궂어야 사람은 오래 사는 법인데, 똥 냄새가 단 것을 보니, 속히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 하면서 양천통곡(仰天痛哭)했다 한다.

홍 효자는 또 살생(殺生)을 아니했다 한다.

아버지 구병을 하는 데에, 갖옷을 입은 채 마루방에서 몇 달이고 지내자니 이가 몹시 생겼다. 목욕을 아니함은 물론, 머리도 빗지 않고 오직 아버지 병환만을 걱정하는 것이니 이가 일 것은 당연하다. 어찌나 이가 많이 일었는디 갖옷의 털 틈새마다 이가 박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홍 효자는 아버지의 병환도 약간 나은 듯하고 해서 이를 잡기로 했다. 양지 바른 마당 구석에 앉아 이를 잡기 시작했다. 이를 잡는다 해도 실은 죽이는 게 아니라, 털발의 틈새마다 허옇게 기어 다니는 이를 하나하나 주워서는 땅바닥에 조심조심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라고 한들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때 마침 말총 장수가 말총을 사러 들어왔다. 말총 장수는 제주도의 말총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사 모아 가지고 육지로 내어다 파는 행상꾼이다.

말총 장수는 홍 효자 집 마당에 들어서 홍 효자가 이 잡는 것을 한참 들여다 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이가 많이 일 수도 없으려니와, 그 이 잡는 방법이 하도 걸작이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말총 장수는 이렇게 우둔한 인간은 한 번 골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 여보. 그 많은 이들을 어찌 하나하나 잡아 냅니까?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읍니다."

"어찌하면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읍니까?"

말총 장수는 갖옷을 시루에 넣어서 찌면 이가 한꺼번에 없애질 것이 아니냐고 가르쳐 주었다.

홍 효자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살생을 아니하는 이었지만, 인품이 순박해서 말총 장수의 조롱을 알아채지 못했다. 갖옷은 시루에 넣어 찌면 윤기가 다 빠져서 구워 놓은 오징어처럼 되어 다시 입지 못하는 것을 몰랐다.

홍 효자는 곧 부인을 부르고는 '이 가죽옷을 시루에 담고 쪄버리지, 요 이들이 없어지게.' 하며 옷을 넘겼다.

내고 보니 갖옷은 영영 입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자, 홍 효자는 크게 탄식을 했다.

"하, 그거 공연한 놈 말을 들어서 이 다 죽어먹고, 가죽옷도 못 입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매일 탄식을 하는데, 말총 장수는 말총을 사 거두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배를 놓았다. 풍파가 세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바람이 잔잔해진 것 같아서, 배를 놓으면 곧 풍파가 일어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석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은 자지 않았다.

말총 장수는 하도 답답해서 점장이에게 가서 문복(問卜)을 했다. 점장이는 '천하 대효

(天下大孝)의 마음을 거슬려 놓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제야 말총 장수는 홍 효자를 조롱한 죄를 깨치고 홍 효자를 찾아갔다. 너붓이 큰 절을 하고 '과연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극진히 사죄를 했다.

그리하여 홍 효자의 마음을 풀어 놓은 후에야 순풍(順風)이 일어 배를 띄워 갈 수가 있었다 한다.

또, 홍 효자는 제사에 쓸 고기라도 살생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사가 돌아오면 곧은 낚시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곧은 낚시에 물려 오는 고기는 제사에 쓰라고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하여 제상에 올렸다. 제사 때가 되면 곧은 낚시에도 꼭꼭 쓸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 한다. 일설(一說)에는 바닷고기를 산 채로 물그릇에 넣어 제상에 올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다시 바다에 놓아 줬다 한다.

홍 효자가 살아 있을 때 헌종(憲宗) 임금이 승하했다. 홍 효자는 평대리(舊左邑 評垈里) 위쪽 '도랑쉬'(月郎峰) 꼭대기에 가서 분향하고 북향사배(北向四拜)를 하여 통곡했다. 그 향냄새가 서울 장안에까지 번져서, 제주 홍 효자가 분향하는 향 냄새라는 것을 궁궐에서도 알았다 한다.

그 후 효자비가 내렸는데, 지금 성산읍 고성리(古城里)에서 수산리(水山里)로 가는 길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효자문거리'라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6. 삭달제장과 삼등매

옛날 삼달리(城山邑 三達里)에 성이 강(康)씨인 '삼등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임기응변의 계책이 뛰어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특히 타 지방엘 다니다가 시장기가 나면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잘 얻어 먹었다는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삭달제장은 하인이 이끄는 말을 타고 성안(지금의 濟州市) 향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하인은 물론 삭달제장도 시장기가 났다. 선흘(朝天邑 善屹里)을 경유할 즈음에였다. 삭달제장은 아무 집에라도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 "너도(니도) 배 고프냐?"

삭달제장이 힘 없어 하는 하인에게 묻는 말이었다.

"예, 무척……."

마침, 한 집안에서는 굿을 요란스럽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여기 앉았거라."

"어델 다녀오시렵니까?"
"양반이 하님을 부리게 되면, 우선 밥 정도야 굶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너를 배고프게 해서야 되겠냐."
"그러면 이쯤 앉아서 기다리겠읍니다."
삭달제장은 의젓하게 굿판으로 쑥 들어갔다.
"여기 수심방(首巫)이 어느 어른이옵니까?"
"저 올시다."
"지나는 정의(旌義) 심방이온데, 굿 한 석(祭次)만 하고 가겠읍니다."
수심방은 '얼굴 모른 심방이려니'만 생각했다.
"무슨 때문이오?"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굿 한 석 해준 값으로 밥이나 한 그릇 주신다면, 저는 명전(멩쉐:命錢)도 안 받읍니다."
"아따, 그러시죠. 뭐."
수심방은 참 너그러워 보였다.
삭달제장이 신칼을 양손에 나눠 잡더니만, 무악(巫樂)에 맞춰 굿 한 석을 멋들어지게 잘 해냈다. 수심방은 '이렇게 큰심방을 여태 모르고 있었구나'고 아쉽다는 듯이나,
"아이고, 정의(旌義)고을 큰선생님을 제가 여태 몰라뵈었다니 죄송합니다. 이리로 앉으십시오."
수심방은 집주인(祭主)에게 식사와 술상을 차려 주도록 했다. 마침 시장기도 나고 해서 실컷 먹고, 마셨다.
"자, 이제는 가겠읍니다."
삭달제장이 수심방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하루만 더 있다가 굿 몇 석만 더 해 주고 가시지요."
"그랬으면 좋겠읍니다만, 저도 내일부터 어데 굿할 일이 있어서 오늘 내로 집에 가야겠읍니다."
수심방은 삭달제장과 헤어지게 됨은 아쉬워하면서 굿 한 석 해준 값으로 돈과 닭고기, 술 등을 듬뿍 싸 주었다.
삭달제장은 하인이 이끄는 말에 타서 슬슬 이 마을을 빠져나서 동구밖에 이르러서야 하인에게 말을 세우도록 했다.
"너 이거 먹어라. 너를 배고프게 하면서 데리고 다녀서야 어디 양반의 체면이 서겠느냐."
삭달제장은 양반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굿을 멋들어지게 잘했는데, 그는 굿을 해도

타지방엘 다니다가 시장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였다.

또 한 번은 어데 볼 일이 있어 먼 길을 나섰는데, 그날도 시장기가 대단했다. 마침 초상집이 눈에 띄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상 앞에 꿇어앉아 우선 곡(哭)소리와 절 2배를 올리고 난 후, 상제(喪制)와 맞절을 나눴다. 상제는 '혹시 얼굴 모른 사돈님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이고, 내가 망인하고 이만저만 가근한 사이가 아니오. 술이나 같이 나누려고 와서 보니 이럴 수가, 가진 게 없어서 부조도 못하고……!"

"아, 제가 부친님을 제대로 봉양치 못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서 오히려 죄스럽읍니다."

삭달제장은 초상집에 들어가 망인의 친구라고 속여 똑톡한 대접만 받고 슬그머니 그 집을 빠져 나왔다.

삭달제장이 배고플 때마다 그 상황에서 잘 벗어나는 그 계책을 눈치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웃마을인 난산리에 사는 삼등매였다. 삼등매는 늘 '나도 언젠가는 삭달제장의 계책을 써 먹어야겠다'고 기회가 오기만은 벼르고 있었다.

삼등매는 어느 날 대정(大靜)고을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무척 시장기가 났다. 마침, 소상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드디어 기회는 왔구나!' 하고 슬그머니 들어갔다. 우선 상 앞에 엎디어 곡소리를 내었다.

'하이, 하이, 하이……,'

절 2배를 올리고 나서 상제(喪制)와 맞절을 나눈 후, 서로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하, 내가 돌아간 어른하고 이만저만한 처지가 아니어서 한 이불 속에서 잠도 잤었고, 말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도 내가 몰랐다니 이거야 원…."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상제가 벼락치듯, 잡고 있던 '방장대'를 삼등매 어깨위에 내리쳤다.

"네가 우리 어머니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다고?"

"아이고, 잘못했읍니다. 잘못했읍니다."

삭달제장은 초상집에나 상가(喪家)에 가서는 우선 '방장대'를 눈여겨 잘 살피고, 머키나무냐, 대나무냐에 따라 망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할 줄 알았지만, 삼등매는 미처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호되게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등매는 정의 어느 마을이건 제삿집에는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한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는 꼭 술 한 병이라도 들고 갔다.

그랬기 때문에 삼등매가 죽게 되자 조문객이 8일 동안이나 들끓었다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7. 난미 김씨

'난미'은 난산리(城山邑 蘭山里)의 속칭(俗稱)인데, 옛날 이 마을에 기지(機智)가 뛰어난 어느 김씨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이면 부락제(部落祭)를 지냈다. 그 제가 끝날 때마다 정의고을(지금의 城邑里)에 있는 원님에게 제단에 올렸던 술과 고기를 꼭꼭 보냈다. 그것은 이만저만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 해에도 변함없이 부락제를 올리고 나서 누군가 술과 안주를 갖고 원님에게 가야 할 판인데, 불쑥 김씨가 자원하여 나섰다. 김씨는 '이 폐습을 없애야겠다'고 단단이 벼르고 자원한 것이다.

"자네가 정의고을에 갔다 오겠는가?"

"예 - ."

"이 술과 안주를 조심히 들고 가서 원님에게 드려두고 오라."

향장(鄕長)의 말이 떨어지자, 곧바로 정의고을을 향했다. 길은 멀고 험했다. 점심 때가 채 못되어서 원님이 순력돌 때 앉아서 쉬는 '원님동산'에 이르렀다. 김씨는 거기에 앉아 쉬면서 원님에게 드릴 술과 안주를 모조리 먹어 치웠다.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 깨고 보니, 점심 때가 훨씬 지났다. 그때서야 헐떡이며 빈손으로 정의고을에 있는 동헌(東軒)을 향하여 달음질쳤다.

동헌 대문에 거의 이르러서 무턱대고 들어가려고 하자, 수문장(守門將)이 딱 막아서며,

"이놈! 건방지게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아, 제가 원님에게 고할 급한 송사(訟事)가 있사오니, 어서 들여보내 주십시오."

"급한 송사라니?"

김씨는 계속 헐떡이고 있었다.

"좌우지간 급한 송사이오니, 저를 빨리 들여보내 주시오."

제법 갓을 쓰고 있는 꼴을 보니 양반같이 보이고 해서 들여보냈다. 이방(吏房)이 김씨를 데리고 원님 앞으로 다가가서는,

"원님, 어떤 백성이 급한 송사가 있다 하옵니다."

김씨는 대청 앞에 가서 꿇어 앉았다.

"급한 송사인 즉은, 우리 동네에서 부락제를 지내고 나서 원님께 드릴 술과 안주를 들고 오는 도중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란 놈이 버릇도 없이 달려들어 고기를 뺏어 물고 날아가기에 그 놈을 잡으려고 헤매다가 술병조차 깨어지고 말았아옵니다. 하오니, 포졸을 풀

어 그 매란 놈을 당장 잡아다 벌을 줘 주옵소서."
정의 원은 어이가 없었는디 '허허' 웃으며,
"하, 알겠다. 내가 그 고기를 안 먹어도 먹은 셈 칠테니 내년부터는 나에게 갖고 오는 법을 없애라고 전해라. 그러나, 너의 그 기지(機智)는 대단하다."
이래서 그 못된 법 하나는 난미 김씨에 의하여 고쳐졌다고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분복(남·46) 제보.

8. 오백이터 할망과 할으방

옛날 신풍리(城山邑 新風里) '오백이터'라고 하는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힘이 대단했기 때문에 노부부 사이에 싸움판이 벌어질 경우면 할아버지는 늘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다. 그러나, 기지가 뛰어나 그 창피스러운 위기를 잘 모면해내곤 했다.
어느 날 노부부 사이에는 부엌에서 싸움판이 벌어져 예전처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얻어맞는 판이었다.
마침 동네 아주머니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다. 들킬 판이다. 할아버지 입장에선 이만저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 얻어맞고만 있던 할아버지는 동네 아주머니가 부엌을 기웃거리자 손으로 상투를 툭툭 털며 부엌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실컷 얻어맞고서도 때린 듯이나 큰소리치는 것이었다.
"저런 년은 저렇게 해야 버릇을 고치지!"
그렇게 해서 할머니에게 얻어맞고서도 순간적 기지로 창피를 잘 모면했다.
어느 날 노부부는 마당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부아가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를 확 휘어감더니, 그만 지붕 위로 내던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다. 그 집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 여럿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만저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두리번거리고 있던 할아버지 눈에 지붕 위에 영근 호박이 보였다.
쳐다보고만 있던 동네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지붕 위에서 얼떨거리며 서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째서 거길 올라가셨읍니까?"
"호박 따러."
이렇게 할아버지는 창피스러운 순간을 기지로 잘 모면했다.
그 할아버지는 일정(日政) 초까지 이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의 기지로 일본놈도 꼼짝없이 당했던 적이 있다.
일본놈들은 쌀 공출을 제대로 받아가기 위하여 절대 술독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오백

이터'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의 눈을 피하여 술독을 담았는데, 농익은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이 마을에 술 조사하는 일경(一警)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울안 대밭으로 술독을 숨기기 위하여 옮기는 도중에 그만 마당 가운데서 들키고 말았다.

"하, 참 잘 오셨읍니다. 나는 미리 조사오기 전에 자수해서 벌금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힘겹게 술독을 마당으로 옮겨 놓았는데, 마침 잘 오셨읍니다.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막 자수하러 가려고 하는 참인데, 뭐하러 이까지 오셨읍니까?"

일경은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 옆에 있는 통역관에게 물었다.

"저 노인이 뭐라고 지껄이느냐?"

통역관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일경에게 들려 줬다. 그 말을 들은 일경은 '허허' 웃고 말았다.

"다시는 술을 담지 말라고 전하고, 그리고 이번만은 벌금도 받지 않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오백이터 할아버지는 순간적인 기지로 술도 안 뺏겼을 뿐 아니라, 벌금도 내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한 적이 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9. 오 훈장(吳訓長)과 그의 서모(庶母)(Ⅰ)

옛날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에 오봉조(吳鳳祚)라는 훈장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생모를 일찍 여의어 계모 밑에서 자라야만 했는데, 그 계모는 매우 현명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비록 계모지만, 자식 교육에 대한 사람은 그를 따를 어머니가 없을 정도였다.

계모는 원래 양반 가문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해녀작업(물질)이라곤 해보지 못한 처지였다. 그러나 오직 자식 교육을 위하여 물질을 시작하여 번 돈으로 독선생(獨先生)을 청해들였다.

어느 날 계모는 마당에 보리를 널어 두고 물질을 나갔다. 어린 봉조는 집에 남아서 독선생과 함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독선생과 봉조는 글공부를 잠시 멈추고 마당에 널어 둔 보리를 부지런히 담아들였다.

이때, 계모는 허겁지겁 바다에서 뛰어 왔다. 마당에 널어 둔 보리를 담아 들이기 위해서였다. 오고 보니, 보리는 이미 멱서리에 담겨져 마루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본 계모는 벌컥 화를 내었다. 독선생과 봉조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독선생이 먼저 계모 앞으로 다가섰다.

"봉조 어머님, 왜 화를 내십니까. 오히려 아들에게 칭찬을 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내가 독선생까지 모셔다가 아들 교육에 힘쓰고 있읍니다. 그 소나기 내리는 시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스쳐 지나 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비에 젖은 보리는 다시 말려 버리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리 젖는 것이 아까워서 학문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때야 독선생도 봉조 어머니의 뜻을 알았다.

"아, 죄송합니다."

"모두들 학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그후 봉조는 계모의 질책에 더욱 분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어데 가서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제주도는 변방에 위치한 섬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가 과거에 급제해도 조정에서는 현령(縣令) 벼슬밖에 내려 주질 않았다. 봉조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한탄하고 있었다.

그때 황최언(黃最彦)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했다. 황 목사는 흥학에 힘써 정의향교(旌義鄕校) 옆에 서당을 마련하여 봉조를 훈장으로 초빙했다.

봉조는 황 목사의 명을 받아서 서당을 세우게 된 내력과 함께 흥학기(興學記)를 지었다. 그 내용은 은근히 임금이 읽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쓴 것이었다. 제주 사람이라고 천시하는 풍조는 잘못된 것이니,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남·46) 제보.

오 훈장(吳訓長)과 그의 서모(庶母)(Ⅱ)

옛날 이 정의현에는 고장령(高掌令), 부장령, 강장령 이렇게 세 사람이 그 글이나 학식이 뛰어났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성산면 오조리 오훈장(吾訓長)이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그 스승인 오훈장이 상을 만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오훈장이 서모가 돌아갔는데,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보통 사람과 같이 상례를 치루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 세 장령들도 오훈장의 서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조문을 갈까 말까 하던 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의아해 하면서 경우나 예법에 어긋남을 말하였다.

부장령은 고장령을 찾아가 그 스승의 일을 이야기 하고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잘못을 말

씀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글쎄, 우리 선생님이 우리말을 들어실까?"
고장령의 생각에도 스승의 처사가 잘못되었음을 빤히 알지마는 오훈장 어른이 제자들의 진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명색이 이 고을에서는 다 이름있는 선비노라는 우리들이 아니 예에 어긋난 일을 보고도 그냥 둔다면 백성들의 풍습을 어떻게 개량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장령의 뜻은 아주 단단하였다.
"글세, 생각은 옳지마는…"
역시 미지근하게 대답하였다. 부장령은 그러는 고장령이 심히 못마땅하여 이번에는 강장령을 찾아갔다.
"강장령, 소식을 못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우리 스승인 오훈장이 아니 서모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상을 치른다말…"
"듣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세, 예에 어긋나긴 하지마는 스승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역시 강장령의 말도 어리숭하니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 마음쓰고프지 않는 얼굴이었다.
"여봐, 명색이 선비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생각들이 모두 꼭 같아."
이렇게 핀잔을 주고서는,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잘못은 잘못이 아닌가. 우리가 가서 그 잘못을 고치도록 진언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부장령이 제안하자, 나머지 두 장령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셋이서 조문도 할 겸, 오조리 오훈장네 집을 향해 떠났다.
오훈장은 상주의 몸으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는데 대문으로 제자들인 그 세 장령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옳지, 이 사람들이 필시 내 처사에 대하여 그 잘못을 말할 테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좀 긴장을 하였다. 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득하고 돌려보낼 궁리를 하였다. 아무리 가르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는데 대하여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아닌가.
그들 셋은 아주 의젓하게 들어와서는 그래도 상에 배례를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

앉은 후에 부장령이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여쭐 말씀이 있읍니다."
부장령의 말소리는 상당히 묵직하였다.
"그래, 나 자네들이 찾아온 이유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라는 것도 다 안다구. 물론 내 지금의 처사가 예에는 어긋난 것일 수도 있네만, 내 말을 좀 들어 보라구."
오훈장은 그들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말문을 열면서 이어 돌아가신 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내 서모님이 어떤 분인 줄 자네들은 모를 거야. 그 분은 오늘의 나를 만든 분이다."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오훈장이 어느날 서당에서 좀 일찍 돌아왔다. 머리가 아프고 공부가 공연히 싫기도 하여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대문으로 들이서는 오훈장을 본 그 서모는, 마침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던 참이었는데, 책보따리를 달랑거리며 들어서는 오훈장을 보더니, 들어오는 이유도 묻지 않고 갑자기 낫으로 명주날을 확 짤라 버렸다. 오훈장은 평소에도 엄한 서모라 그러지 안아도 눈치를 살피며 들어오는데 이 끔찍스런 일이 일어나자 어쩔줄을 모르고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냥 서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서모에게 달려갔다.
"이거 어쩐 일입니까."
서모는 한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몰라서 묻는 것이냐. 옛날 맹자도 글읽기를 게을리 하자 그 어머니가 짜던 명주를 잘라 버린 그 뜻을 너는 모르느냐."
쌀쌀한 얼굴로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 알겠읍니다. 제가 잘못했읍니다."
오훈장은 혼비백산하여 도로 서당으로 달려갔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오훈장이 집을 보면서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오훈장은 마침 마당 가득 널려있는 곡식 날래를 급히 거둬드렸다.
얼마없어 비가 개이자 들에 나갔던 서모가 돌아오더니,
"아니, 저 많은 날래를 누가 거둬들였느냐."
오에게 물었다. 오는 잘했다는 말이나 들을까 해서 선뜻,
"제가 담았읍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러자 서모의 얼굴이 확 변하면서,
"누가 너보고 글읽는 일을 중단하고 날래를 담으라 했나. 글을 읽을 때는 칼이 날아와도 글을 계속하여 읽어야 하느니라."

꾸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후로는 글을 읽다가 소나기가 와서 마당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내려가도 오훈장은 상관을 않고 글만 읽었다.

"자네들 들어보게. 내 어머니는 비록 서모였으나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으니 내가 어떻게 예만 찾을 수 있겠나들.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새 어머니를 맞아서 얼마없어 아버지께서 돌아간 내 처지에 그 어머니 덕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글을 읽었겠나, 다 덕이 많으신 덕분이었네. 이런데 어떻게 예를 따른다하여 어머님 장사를 소홀리한다면, 그가 무슨 예가 되며, 그러한 예가 우리 인간들의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훈장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 제자들은 비실비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승이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 모양으로 스승의 댁을 물러나왔다.

이렇게 하여 오훈장은 그 글로도 소문이 났고 그 효성으로도 소문이 났다.

남제주군 남원읍 신양리, 양봉인(남·72) 제보.

10. 도깨비

도깨비를 모실 때는 자문자답식으로 이쪽 말고 도깨비 말을 번갈아 하며 모신다고 한다.

옛날, 소섬(牛島) 사람이 도깨비를 모시려고 수수떡·돼지고기 등 제물을 차리고 도깨비가 잘 나타나는 바닷가로 갔다. 깊은 밤중이었다.

이때 마침, 장난꾸러기요 담이 큰 동네 청년이 밤 고기를 낚으려고 바다로 나가 있었다. 밤 고기는 특히 조용해야 낚아지는 법이라, 청년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으슥한 언덕 밑에 자리를 잡아 낚싯대를 드리웠다. 사방이 죽은 듯이 조용하여 물결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한참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노라니, 저쪽 멀리서 초롱불 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분명 이쪽으로 오는 불빛 같았다.

'무슨 불인가? 여기 도깨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도깨비 불인가?'

차차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어떤 사람이 무언가 등에 지고 초롱을 들고 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언덕을 기어 올라 저쪽 바위로 갔다.

청년은 호기심이 생겨 바위로 기어 올라 살금살금 가 보니, 그는 동네 아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편평한 바위 위에 돗자리를 깔고, 수수떡이며 돼지고기며 제물을 벌여 놓고 도깨비를 부르는 것이었다.

"참봉님 계십니까?"

"음, 내 여기 있지."

자문자답으로 도깨비를 불러놓고 다시 목소리를 바꾸어 도깨비의 대답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 요 동네 사는 아무 가(哥) 올습니다."

"그림."

"여기 자그마한 정성이나마 참봉님 뵈려고 해서 왔읍니다. 응감하시고 그저 어린애들 감기도 없게 하시고, 바다 일도 무사히 재수 좋게 해 주시고, 집안 모든 일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청년은 들어보니 하도 어이가 없었다. 비는 말이 다 끝나자 청년은,

"그러지, 염려 말아라."

큰소리로 버럭 질렀다.

빌고만 있던 그 사람은 겁나서, 벌여 놓은 제물도 던져 두고 초롱불만 들고 언덕을 뛰어 올랐다. 너무 급히 허둥대며 뛰는 바람에 초롱불도 꺼져 버리고, 그 험한 바위 틈을 엎어지며 자빠지며 기어 넘어 부리나게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청년은 배도 허출한 차에 잘 되었다 싶어, 고기며 떡이며 다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청년은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간밤의 일을 토파하지는 못하고 놀러 간 척하였다. 주인은 몸이 아파 누웠다 한다. 미안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앓다가 죽었다 한다. 혼이 빠져서(넋 나서)죽은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강공직(남·80) 제보.

Ⅲ. 信仰傳說

1. 온평리(溫平里)의 청룡(靑龍)

옛날엔 온평리(城山邑 溫平里) 사람들이 힘세기로 유명하였다. 씨름판이 벌어지면 온평리 청년들이 항상 독판을 몰아 이웃 마을이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웃 마을에서는 온평리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온평리의 청룡을 그만 끊어 버렸다. 온평리 청룡은 그 마을의 왼쪽 주위를 둘러간 능선인데, '진동산'으로 가는 언덕이다. 이곳을 하루 저녁에 그만 파 헤쳐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온평리 사람들도 점점 힘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현장수(남) 제공.

2. 부댁 도선묘(夫宅 都先墓)

오조리(城山邑 吾照里) '안가름'에 부댁 도선묘가 있다.

이 묘게 서서 바다 쪽을 보면 오조리의 식산봉이 바로 가까이 보이는데, 이 봉우리에 서 있는 바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뜨인다. 이 바위를 장군석이라 한다.

이 장군석이 똑바로 비추기 때문에 부씨댁에는 장군이 나기 마련이었다.

어느 해 관아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 관아에선 몇 번의 조사를 한 후, 이 장군석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장군이 나서 역적이 되고 나라가 어지러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큰 톱을 가져다 이 장군석의 꼭대기를 끊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때 톱으로 끊어 가니 장군석에선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한다.

만일 그 장군석을 끊지 않았더라면 부씨댁에는 장군이 끊임없이 났을 것이다. 아깝게도 그 바위를 끊어 버렸기 때문에 장군은 아니 나지만 몇 대(代)에 한 사람씩 장사가 나오곤 한다.

부대각도 그러한 장사의 한 사람인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3. 오훈장(吳訓長)과 정지관(鄭地官)

250여년 전,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에 오훈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학이 능하여 삼읍(三邑) 도훈장(都訓長)을 지내니, 제주 목사도 무시 못할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 오훈장은 또한 지리에도 능했다.

이때 고성(城山邑 古城里)에 유명한 정지관(鄭地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리로 말하면 정지관이 오훈장보다 훨씬 밝았다. 그러나 오훈장은 정지관을 어렸을 때 가르쳤기 때문에, 정지관의 지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정서방 따위가 뭘 알아 가지고….'

이런 말이 가끔 귀에 들려와도 선생의 말이라 한마디 말대꾸를 아니하는 처지였다.

정의현(旌義縣) 안에서는 으레 상사가 나면 정지관을 청했다. 또한 동시에 오훈장도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정지관만 청하여 묏자리를 보았을 경우엔 반드시 오훈장을 청하여 의논을 한 후 장사를 치르곤 한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다 지리에 능통했다는 이유도 있으려니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만일 오훈장에게 의논을 아니하면 자기를 하시였다 하여 오해를 받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는 날은 3읍 도훈장인 오훈장의 도움을 받기 어려

워 처세가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눈치를 알아서 그런지 오훈장은 항상 내노라 하여 정지관을 누르고 다녔다.

어느 해 난산리(城山邑 蘭山里) 김씨댁(金氏宅)에 상사가 났다. 김씨는 정지관과 친한 사이여서 묏자리를 보아 달라고 청하였다. 역시 오훈장도 같이 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묏자리를 보러 들판으로 나섰다. 난산리 남쪽 '잦도'에 가서 자리를 보게 되었다. 정자리가 어디냐를 찾는 것이다.

오훈장은 사방을 두루 살피다가 목장의 담장 안으로 가서 턱 앉으면서 '좋다!'고 했다. 그러자 정지관은 담장 바깥으로 가서 앉으면서 '여기도 할 만하지 않을까요?'하는 것이었다.

"뭘, 이렇게 울라 앉아야 되지."

"그럴까요?"

상주(喪主) 김씨는 얼른 판단을 못하고, 우선 점심이나 먹자고 하여 오훈장이 앉은 자리에 점심을 갖다 풀어 놓았다.

"자네도 울라 앉게."

"난 여기가 좋습니다."

정지관은 점심이 놓인 데로 울라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엔 오훈장이 권했다.

"정서방도 이리로 울라 앉아."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역시 고집을 부렸다. 김씨는 '여기가 좋다'는 정지관의 고집을 잘 몰랐다. 그저 점심을 먹는데 아래쪽에 앉아 먹어도 좋다는 겸양의 말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장사는 오훈장이 본 자리에 치러졌다.

그후 이삼 년이 지나가자 김씨 집엔 흉사가 자주 나서 큰 손해를 당하였다. 묘의 정자리를 잘못 본 때문이었다.

어느 날 김씨가 정지관을 찾아왔다.

"장사를 지내고 삼 년 미만에 대 흉패를 보고, 난 망하게 되었네."

"왜 내가 담장(잣) 아래 앉고서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던가."

그제야 김씨는 그때 정지관의 말을 해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한다.

이 말이 오훈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 따윗 게 뭘 알아서 그런 소릴 하는 거야."

오훈장은 이렇게 나무라 주면서 이 기회에 톡톡히 정지관의 기를 죽여 놓아야 하겠다고 궁리했다. 그래서 우선 시험부터 하기로 했다.

오훈장이 정지관을 찾아갔다.

"자네 묏자리를 잘 본다니 우리 어머님 묏자릴 봐 주게."
"선생님네 산 천리(遷移) 하십시오."
"왜?"
"천리하고 보십시오마는 어머님 눈이 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저 목숨을 선생님에게 바치지요."
급히 차려서 이장을 하고 보니, 과연 시체가 눈을 벌름하게 뜨고 있었다.
그 땅은 양시지지(養屍之地)여서 살아 있는 사람처럼 시체가 눈을 뜨고, 손톱·발톱이 점점 커 가고 하는 땅이었다.
오훈장은 그제야 놀랐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가?"
사정을 했다. 정지관은 낫을 갖고 오라고 해서 시체 위에 덮은 장만 끈을 툭툭 끊어 햇빛이 비치게 했다. 잠시 햇빛을 쐬니 시체가 눈을 감고 원상으로 환원되었다.
오훈장은 묏자리를 하나 봐 달라고 사정을 했다. 정지관은,
"선생님, 내가 본 자릴 씨지실까요?"
하면서, '노공잇술'이란 곳에 가서 '저 돌무더<머들>를 치워서 쓰십시오.'라고 했다.
이곳을 정지관이 이미 좋을 땅임을 알고 남이 묘를 쓰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모아 눈가림을 해 둔 곳이다. 정지관은 큰 마음으로 선생에게 양보해 드리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훈장은 한참 보더니, 아무래도 자리가 좋지 못하다 해서 장사를 아니했다.
그 후 얼마 없어 정지관의 모친이 죽었다. 정지관은 돌 무더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모친을 묻었다. 장삿날 오훈장이 와서 자세히 보니 자리가 참 좋았다. 묘를 써 놓고 보아야 확실히 좋은 게 눈에 뜬 것이다.
그제야 오훈장이 정지관을 한 쪽으로 불러 통꽃이를 내어 놓으며, '요 통꽃이로 내 눈알을 빼어 주게' 하며 크게 후회하였다 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4. 현씨 남매

옛날 신천리(城山邑 新川里)에 부모를 일찍 여읜 가난한 현씨 남매가 살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곱 살 난 누이동생은 시름시름 병을 앓아서 아주 사경을 헤매곤 했다. 오빠는 하나뿐인 누이동생마저 사별할까 하여 걱정이 태산이었다. 오빠는 어데 가서 점을 치기로 결심했다. 점괘는 큰 심방(巫堂)이 되어야 누이동생의 목숨은 연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 가문에서 심방이 난다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었다. 그래도 하나뿐인 누이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누이동생의 병은 무병(巫病)이었다.

하는 수 없이 누이 동생이 열 다섯 되는 해에는 굿을 하러 나섰으나 무복(巫服)은 무구(巫具)도 없어 굿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고 있었다.

오빠는 하나뿐인 누이동생을 살리는 길은, 비록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진상선(進上船)을 타고 서울을 다녀오는 길밖에 없다고 마음 먹었다.

"불쌍한 내 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면 내가 진상선을 타고 서울에 가서 네가 굿을 할 수 있도록 무복과 무구 일체를 사다 주마. 아무튼 오래 살 생각만 하고 있어라."

현씨 오라범은 이튿날 진상선에 몸을 싣고서 이 마을 고처포구(浦口)를 떠났다. 누이동생은 이 마을 높은 봉수대에 앉아 오빠가 타고 가는 진상선만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웬 일인가.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모진 광풍이 일더니, 혈육이라곤 하나뿐인 오빠의 몸을 실은 진상선은 채 물마루를 넘기 전에 전복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누이동생은 앞이 캄캄했다. '불쌍하고 가련하신 하나뿐인 오라범이 나 때문에 죽어 가는구나! 나는 살아서 뭘 하나. 누이동생은 그만 봉수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무덤에 만들어 줬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제사상(祭床)을 차려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밤낮으로 그 무덤에서는 요령(搖鈴) 쇠가 울려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어 간 현씨 처녀의 조화(造化)라고 수군거리면서도 누구 하나 그 원한을 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씨 일가(一家)의 한 어린애가 급병을 앓았다. 어떤 약을 써 봐도 효력이라곤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어데 가서 문복(問卜)하니, 점괘는 현씨 처녀의 원혼 탓이라는 것이었다. 그 집안에서는 김씨 심방(巫堂)을 청해다가 굿을 했다. 과연 현씨 처녀가 귀신의 한(恨)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뜻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어린애에게 빙의(憑依)한 것이었다. 집안에서는 굿을 해서 그 원령의 한을 풀어 주니, 과연 병이 나았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불쌍하게 죽은 현씨 처녀의 원령을 당신(堂神)으로 모셔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 원령을 위하여 음력 9월 8일, 18일, 28일을 대제일(大祭日)로 정하고, 이 중 어느 하루를 택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제를 올린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신명숙(여·68) 제보.

◇ 管 理 者 一 覽 ◇

濟州道知事	蔣	炳 九
副 知 事	李	君 普
企劃管理室長	全	昌 壽

編輯實務：康 太 勳 (文化公報擔當官)
夫 泰 衡 (文化財係長)
玄 春 植 (文化財研究長)
寫眞：高 吉 弘 (文化公報擔當官室)

濟州道傳說誌

1985 年 5 月 20 日 印刷
1985 年 6 月 28 日 發行
發行 : 濟　　州　　道
編纂 : 濟州道文化公報擔當官室
印刷 : 濟州道印刷工業協同组合
(耕信印刷株式會社)

發刊統制審議畢　　《非 賣 品》
承認第85-1 號(1985. 5. 16)